

국립국어원 2013-01-18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461-01

# 2013년도 제주 지역어 전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강영봉
- 연구 보조원 : 김순자 · 권미소
  
- 전사 지역
  - (1) 서귀포시 색달동
  - (2) 제주시 건입동
  - (3)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3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제주 지역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3년 3월 26일 ~ 2013년 11월 21일

2013년 11월 21일

연구 책임자: **강 영 봉(제주대학교)**

연구 보조원: **김순자 · 권미소**

##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인 ‘2013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따른 ‘제주 지역어’ 전사 사업의 결과이다.

제주 지역어의 전사 지역은 3곳으로,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 2010년 제주시 건입동, 그리고 2011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가 그곳이다. 2010년에는 그동안 조사된 ‘어휘, 음운, 문법’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주된 과업이었으나 2004년 예비 조사가 질문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2010년 조사 때에는 예비 조사 지역이었던 제주시 건입동을 조사 지역으로 하고, 완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연 발화’는 물론, 어휘·음운·문법 항목까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니 2013년에 전사된 제주시 건입동의 전사 내용은 2004년에 조사된 내용이 아니라, 2010년에 조사한 녹음 내용이다.

2013년 구술 발화 자료의 전사 시간은 총 435분으로, 7시간 15분이 된다.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은 1개의 파일의 126분, 2010년 제주시 건입동은 두 개 파일의 204분(각각 112분과 92분임), 2011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또한 두 개 파일의 105분(각각 62분과 43분임)을 전사하였다.

전사는 ‘전사 원칙’에 따라 전사하였다. 모음 ‘외’는 제주 지역어에서는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기 때문에 ‘웨’로 전사하였으며, ‘애’[ɛ]와 ‘에’[e]는 처음절에서는 변별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물론 ‘아래아’는 전사 파일인 경우 ‘오/’로, ‘쌍아래아’는 ‘요/’로 전사하였고, 한글 파일 보고서에서는 각각 ‘으’와 ‘으’로 고쳐 제주 지역어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음절 또는 모라 수만큼 꽃표(\*)로 표시하였으며, 제보자와 조사자의 음성이 한데 섞여 있는 경우에도 각각 분절하여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의역도 하였다.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방언형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연도별, 지역별 전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

-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 세시 풍속

### <2010년: 제주시 건입동>

-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전통 혼례식
-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 환갑잔치
- 장례 절차 대한 이야기
- 제사에 대한 이야기

<2011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채소 재배와 요리
- 나물 채취와 요리
- 밀반찬의 조리
- 집 짓기
- 가신과 조상 숭배 사상
- 금기 생활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에서는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의 구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보조제보자도 많은 내용을 구술하였다(한인열 보조제보자는 2013년 7월에 작고함). 2010년 제주시 건입동에서는 주제보자의 구술 내용만을 전사하였다. ‘결혼’과 ‘장례’에 대하여 제보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하였으나, 전통혼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서는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 모두가 구술하였다.

7시간 15분가량의 ‘구술 발화’를 전사하였기 때문에 생생한 제주 지역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만 남아 있다고 하는 후설저모음인 ‘아래아’와 ‘쌍아래아’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약초 캐는 과정과 그 주변 이야기, 세시 풍속, 결혼 과정, 전통 혼례식, 결혼 생활, 환갑잔치, 장례 절차, 제사에 대한 이야기, 채소 재배와 요리, 나물 채취와 요리, 밀반찬의 조리’를 비롯하여 ‘집 짓기, 가신과 조상 숭배’ 및 ‘금기 생활’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예전의 풍속이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주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의 ‘주 생활’과 ‘식 생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섬 생활의 한 단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제주, 지역어, 전사, 구술 발화, 세시 풍속, 민간 요법, 조상 숭배**



## 차 례

1. 전사 내용 .....	9
2. 전사 원칙 .....	10
3. 제보자 .....	11
4. 전사 자료 .....	13
제1편 2009년-서귀포시 색달동 .....	15
제2편 2010년-제주시 건입동 .....	118
제3편 2011년-대정읍 가파리 .....	223
5. 제출 자료	
(1) 보고서: 100부	
(2) 음성 파일(16,000hz)과 전사 파일(trs)	
① SJJ_SD_11(서귀포시 색달동)	
② SJJ_GI_28(제주시 건입동)	
③ SJJ_GI_29(제주시 건입동)	
④ SJJ_GP_07(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⑤ SJJ_GP_09(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1. 전사 내용

조사 연도	조사 지역	파일명	녹음시간	제보자	파일 내용
2009년	서귀 색달	SJJ_SD_11	126분	변행찬 (남/1940년생) 한인열 (여/1938-2013)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8.1. 세시 풍속
2010년	제주 건입	SJJ_GL_28	112분	고봉만 (남/1938년생)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2.3. 전통 혼례식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SJJ_GL_29	92분		1.2.6. 환갑잔치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2011년	서귀 대정 가파	SJJ_GP_07	62분	라여옥 (남/1939년생) 강죽자 (여/1943년생)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5.3. 밀반찬의 조리
		SJJ_GP_09	43분		1.6.1. 집짓기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사상 1.6.3. 금기 생활
합계	3개 지역	5개	(435분) 7시간 15분		

## 2. 전사 원칙

구술 발화는 7시간 15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둘일 경우에는 주제보자는 “#1”, 보조제보자는 “#2” 등의 표시 부호를 제시하였다. 조사자가 복수일 경우도 주된 조사자는 @1로 표시하고, 보조 조사자는 @2, @3으로 표시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꽃표 ‘\*\*\*’로 표시하였다.

모음 ‘외’는 제주 지역어에서는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기 때문에 ‘웨’로 전사하였으며, ‘에(e)’와 ‘애(e)’는 첫음절에서는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장음은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언형의 경우에는 (?)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표준어 대역에서 대응하는 표준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방언형을 그대로 옮겼다.

### 3. 제보자

(1) 2009년도(서귀포시 색달동)

주제보자: 변행찬(남/1940년생)

보조제보자: 한인열(여/1938-2013)

음성적 특징: 주제보자는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분명하며, 보조 제보자는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나 발음은 분명함.

(2) 2010년도(제주시 건입동)

주제보자: 고봉만(남/1935년생)

음성적 특징: 발음이 양호한 편이며, 아래아 등을 분명하게 발음하나 표준어가 섞인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3) 2011년도(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주제보자: 라여옥(남/1939년생)

보조제보자: 강죽자(여/1943년생)

음성적 특징: 주제보자는 목소리가 작은 편이나 발음이 분명하고, 보조 제보자는 말이 조금 빠른 편임.





2013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4. 전사 자료



# 제1편 2009년 - 서귀포시 색달동

## (1) 파일 정보/SJJ\_SD\_11

\*조사자: 강영봉·김순자·김성룡

\*조사일: 2009. 7. 26.

\*주제보자: 변행찬

\*보조제보자: 한인열

## (2) 전사 내용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8.1. 세시 풍속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1 오느른 그 질병하고 민간요뽕예, 그러니깐 병위네 가지 안코, 약뽕에 가지 안코 옛날 어른드리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가예, 그걸 한 번 아라 아, 불려고 허는 겁주게.(오늘은 그 질병하고 민간요법요, 그러니깐 병원에 가지 않고 약방에 가지 않고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가요, 그것을 한 번 알아, 아, 보려고 하는 것입지요.)

10701 @1 엔나레 질병엔 어떤 건뜨리 이서신고예? 예를 들면 이런 피부뽕에는 뭐가 이서신고마씨?{옛날에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예를 들면 이런 피부뽕에는 뭐가 있었는가요?}

10701 #2 피부뽕, 비.{피부뽕, 비.}

10701 #1 가스세엔 헌 겁주.{파리풀이라고 한 것이지요.}

10701 #1 아니, 비리, 비리 피부뽕이.{아니, 비리,비리 피부뽕이.}

10701 #1 비, 비리.{비, 비리.}

10701 #2 비리엔 허난 비리예는 가시세.{비리라고 하니까 비리예는 파리풀.}

10701 @1 예.{예.}

10701 #2 다메덴 푸슴.{담에는 오미자.}

10701 @1 예.{예.}

10701 #2 그거 난 거.{그것 난 거.}

10701 @1 게난 피, 피부에도 보면.{그러니까 피, 피부에도 보면.}

10701 #2 예.{예.}

10701 @1 예를 들면 뭐 온낭 잘몬 건드려도 온.{예를 들면 뭐 옷나무 잘못 건드려도 옷.}

10701 #1 예:, 그런 건뽕고 비리라고 해십주게.{예, 그런 것보고 비리라고 했습지요.}

10701 @1 건또 비리예?{그것도 비리요?}

10701 #1 예.{예.}

10701 #1 경 이딴, 뽕죽뽕죽또 나고.{그렇게 여기 뽕죽뽕죽도 나고.}

10701 @1 예.{예.}

10701 #1 그:.{그.}

10701 #2 비리광.{비리와.}

10701 #1 연날도 애기덜 마누라 허는 건또 그러케 저 피부뽕 모양으로 허다가 춤 잘몬 쩌 비리미나 허고 동네 영장 난따 허믄.{옛날도 아기들 흥억 하는 것도 그렇게 저 피부뽕 모양으로 하다가 참 잘못 저 비림이나 하고 동네 장사 났다 하믄.}



10701 @1 예.{예.}

10701 #1 사망하는 이리 마네노니까 그 춤 헛는디 지그른.{사망하는 일이 많아  
놓으니까 그 참 했는데 지금은.}

10701 @1 영 머리에도 뭘 생기기도 허지 아릅니까?{이렇게 머리에도 무엇 생기  
기도 하지 않습니까?}

10701 #2 독진 낭.{독창 나서.}

10701 #1 그 독진 낭.{그 독창 나서.}

10701 @1 예, 독진예, 그런 겐또 이선꼬.{예, 독창요, 그런 것도 있었고.}

10701 #1 \*\*\* 허나네.{\*\*\* 하니까.}

10701 #1 그건 뭘 민간요빠브로는 무쭈건 가스세에다가 그 뿌리 헤영으네 쌀,  
쌀망 그 모욕 시경.{그것은 뭘 민간요법으로는 무조건 파리풀에다가 그 뿌리 해서  
삶, 삶아서 그 목욕 시켜서.}

10701 @1 예.{예.}

10701 #1 이제 다시 무래 행귀불미는 안 댜텐 헤영 그냥 그 그 무래 모욕케영  
뭘, 기저기 ㄱ튼 거 쓰나, 경 아녀른 그냥 갈중이 입꼭.{이제 다시 물에 행귀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그 물에 목욕해서 뭘, 기저귀 같은 것 쓰나, 그렇게 얹으면  
갈중의 입고.}

10701 @1 예.{예.}

10701 #1 그런 시그로 헤영.{그런 식으로 해서.}

10701 #2 그 독진, 독찌시엔 헛 거 머리에.{그 독창, 독창이라고 한 것 머리에.}

10701 @1 예.{예.}

10701 #2 그거 난 거는 그 독진 스라그네 기르멘가 그거에 켜야그네 볼르민 존  
나.{그것 난 것은 그 닭깃 사루어서 기름엔가 그것에 개어서 바르면 좋다.}

10701 @1 예예.{예예.}

10701 #2 독 그 놀개에 꺼예.{닭 그 날개에 거요.}

10701 @1 예.{예.}

10701 #2 날개에 꺼.{날개에 것.}

10701 @1 예.{예.}

10701 @1 독찌시니깐예.{독창이니깐요.}

10701 #2 독쥔.{독창.}

10701 @1 예, 게난 피부는 그러코 이젠 누네 오면 또 뭘가 이서쭈과?{예, 그러  
니까 피부는 그렇고 이제는 눈에 오면 또 뭘가 있었습니까?}

10701 @1 뭘 누네 종기도 나지 아눔, 아눔니깁예?{뭘 눈에 종기도 나지 않습,  
않습니까요?}

10701 #2 (기침) 누네.{(기침)눈에.}

10701 #1 눈.{눈.}

10701 #2 누네.{눈에.}

10701 #2 개쌌 난젠 행 헌 거 보린빵울로.{다래끼 낫다고 해서 한 것 보리알로.}

10701 #1 찌 대울히?{저 귀리?}

10701 #2 아이 보리빵울.{아니 보리알.}

10701 #1 그개 던.{그개 더.}

10701 #2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701 #1 찌르기 조텐 행.{찌르기 좋다고 해서.}

10701 #2 대우리.{귀리.}

10701 @1 게난 예를 들면 요 우에 난 건또 일꼬, 미테 난 건또 일찌 아느우광?  
게서 우에 난 건?{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위에 난 것도 있고, 밑에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난 것은?}

10701 #2 개, 우에 내운 건는 개조신가?{개, 위에 난 것은 개좃인가?} #2 \* 뭐  
라.{\* 뭐야.}

10701 #2 개조시엿 허곡 아래 난 건 개씨비엿 허곡.{개좃이라고 하고 아래 난  
것은 개쌌이라고 하고.}

10701 @1 예.{예.}

10701 #2 경 행.{웃음}{그렇게 해서. (웃음)}

10701 @1 게영.{그렇게 해서.}

10701 #2 할망더리 경 ㄴ라.{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해.}

10701 @1 게난 거 두 개, 건 두 개 다.{그러니까 거 두 개, 그것은 두 개 다.}

10701 #2 경허믄양, 그 보린빵울로 웨우 일곱 뻔 노다 일곱 뻔 보리빵울로.{그  
러면요, 그 보리알로 왼쪽으로 일곱 번 오른쪽으로 일곱 번 보리알로.}

10701 @1 예, 콧.{예, 콧.}

10701 #2 찢르민 존나.{찌르민 좋다.}

10701 @1 예.{예.}

10701 #2 그 봉, 봉지로 콧콧 찢르민 존나. 경 행 그거시.{그 콧, 콧지로 콧콧  
찌르민 좋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10701 @1 예.{예.}

10701 #2 경헤연 헤난꼬.{그렇게 해서 했었고.}

10701 #2 또 이제 바당에 꺼, 바당에 켜 머그민 이거시 농 아장 터지민 누니 저  
타진텐.{또 이제 바다에 갇, 바다에 갇은 먹으면 이것이 농 앓아서 터지면 눈이 저  
이지러진다고.}

10701 @1 네예예.{네예예.}

10701 #2 경헤네 그 보린빵울로 갱 그거 난 건 경 헨. 종기 낭 거.{그렇게 해서  
그 보리알로 그렇게 그것 난 것은 그렇게 해서. 종기 난 것은.}

10701 @1 뭐 요기에 눈썹 뽑거나 그런 건 아네쭈광?{뭐 여기에 눈썹 뽑거나 그  
런 것은 안 했습니까?}

10701 #2 아니 헨.{아니 했어.}

10701 @1 아.{아.}

10701 #2 눈썹은 눈썹 드러간 거, 안트레. 눈썹비 꼬부라정 안네 드러간 막 아플 때 그걸 뽀바불민.{눈썹은 눈썹 들어간 것, 안으로. 눈썹이 구부러져서 안에 들어가서 막 아플 때 그것을 뽀아버리면.}

10701 @1 우리 어린 땐에 요 눈썹 뽀바그네 사그마치.{우리 어릴 때는요 요 눈썹 뽀아서 사금파리.}

10701 #2 예.{예.}

10701 @1 그 미테 영 놔두민 누구 왕 발로 탁 차붙면 어서진텐 허기도예, (웃음) 허고.{그 밑에 이렇게 놔두면 누구 와서 발로 탁 차버리면 없어진다고 하기도요, (웃음) 하고.}

10701 @1 게난 누는, 누는.{그러니까 눈은, 눈은.}

10701 #2 건 우리 안 해봐.{그것은 우리 안 해봤어.}

10701 @1 예예.{예예.}

10701 @1 요 귀에 보른 가끔 가다가 종기 나는 건또 이서예? 허물. 귀꼬망 마가지도록.{요 귀에 보면 가끔 가다가 종기 나는 것도 있지요? 현테. 귓구멍 막아지도록.}

10701 #1 그:건 뭐. (웃음){그것은 뭐.(웃음)}

10701 #1 할머니.{할머니.}

10701 @1 우리 옛날 귀아덜?{우리 옛날 귀아들?}

10701 #2 귀아덜 만는디.{귀아들 맞는데.}

10701 @1 예.{예.} #2 쪽깍장 아프민 츠, 참기름.{속까지 아프면 참, 참기름.}

10701 @1 예.{예.}

10701 #2 참기름 불르민 존나.{참기름 바르면 좋다.}

10701 @1 영 거기 영 지버 너으민.{이렇게 거기 이렇게 집어 넣으면.}

10701 #2 예예.{예예.}

10701 #2 그 뭐, 귀뽕이 그땐 어시나네 그냥 뭐로 영 만드라그네 그 저 뭐 씨리나 막 영 꼬여그네 경허영 찌거그네 그레 영 쪽쪽 찢렁 둘러주민 존나.{그 뭐, 귀이개가 그때는 없으니까 그냥 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저 뭐 실이나 막 이렇게 꼬아서 그렇게 해서 찍어서 그리로 이렇게 쪽쪽 찢어서 둘러주면 좋다.}

10701 #2 겨고 추네가 들든지 쥐넹이 드러가던지 쪼끄만헌 거 허민 기르믈 쪼끔 노니깐 화르커게 올라와부러.{그렇고 지네가 들든지 지네 들어가든지 조그마한 것하면 기름을 조금 넣으니깐 화르하게 올라와버려.}

10701 @1 음.{음.}

10701 #2 그 주넹이가 안네 들런땅.{그 지네가 안에 들었다가.}

10701 @2 음.{음.}

10701 #2 게난 그 기르민 이 귀에는 기르미 제일 조은 거.{그러니까 그 기름이

이 귀에는 기름이 제일 좋은 것.}

10701 @1 우리 어떻 헤시냐মন예, 보리랑, 보리낭께기.{우리 어떻게 했느냐면요, 보릿대 보릿대.}

10701 #2 음.{음.}

10701 @1 거 영 졸라그넹 영 헤영 그런 다음.{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

10701 #2 후 부런?{후 불었어?}

10701 @1 후 불면 짹 드러잡쥬.{후 불면 짹 들어가지요.}

10701 #2 후 부런.{후 불었어.}

10701 @1 아.{아.}

10701 #1 그런 건 아녜.{그런 것은 안 했어.}

10701 @1 아 썰로 헤난꾸나예. 썰로예.{아 실로 했었군요. 실로요.} #2 썰, 예. {실, 예.}

10701 @1 예.{예.}

10701 #2 그걸로 안네 저 이젠 귤썸 이제 ㄱ뜨민 그런 거세 즈방 오죽 쯤네까? 허주마는 경 모터난 썰 ㄱ뜨 거에 꼬영으네.{그것으로 안에 저 이제는 귀이게 이제 같으면 그런 것에 집어서 오죽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실 같은 것에 꼬아서.}

10701 @1 이제는 열구레 오면 아까 버즘 생기지 아눔니깁예? 버즘 쯤뉴 어떤 게 이서신고예?{이제는 얼굴에 오면 아까 버짐 생기지 않습니까요? 버짐 쯤류 어떤 게 있었는가요?}

10701 @1 뭐 도장처럼 이거 또끌락커게 웨는 겐또 일꼬예?{뭐 도장처럼 이거 둥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10701 #1 도리버즈미여 뭘.{진버짐이다 뭐.}

10701 @1 예.{예.}

10701 #1 현디 그건 버즈믄 어떠튼.{한데 그것은 버짐은 어떻든.}

10701 @1 예.{예.}

10701 #1 코투생이 헤가지고 발랑으네 뭐 구완허는 방법베끼.{코딱지 헤가지고 발라서 뭐 구완하는 방법밖예.}

10701 #2 도리버즈믄, 군버즈믄.{진버짐, 마른버짐.}

10701 @1 예.{예.}

10701 #2 군버, 도리버즈믄 둥글락둥글락커게 나오곡 군버즈믄 헤뜩헤뜩커멍 그냥 그냥 막.{마른버, 진저짐은 둥글둥글하게 나오고 마른버짐은 헤뜩헤뜩하면서 그냥 그냥 막.}

10701 #1 영 번지기만 허곡.{이렇게 번지기만 하고.}

10701 #2 근디 그 배가 고프니까 군버즈믄 생긴덴 허고 도리버즈믄.{그런데 그 배가 고프니까 마른버짐은 생긴다고 하고 진버짐은.}

10701 #2 땡이주.{땡이지.}

10701 #1 땡으로 생긴텐 허고.{땡으로 생긴다고 하고.}

10701 #2 땡, 지프게 영 버즘.{땡, 깊게 이렇게 버짐.}

10701 @1 겐디 우리는 그때 도리버즘 생기면 도장뽕또 발랐던 거 가튼?{그런데 우리는 그때 진버짐 생기면 도장밥도 발랐던 것 같은?}

10701 #2 도장뽕?{도장밥?}

10701 @1 겐 우린 도장버즘도 해나십쥬게.{그래서 우리는 도장버즘도 했었습지요.}

10701 #1 겐디 우리 아주.{그런데 우리 아주.}

10701 #2 딱나 제주도.{달라. 제주도.}

10701 #1 요 도장뽕 우리 부라게 쓴 건 오래 돼지 아는 걸로만 인정이 돼어마썸.{요 도장밥 우리 부락에 쓴 것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만 인정이 되어요.}

10701 @1 음.{음.}

10701 #1 그 이유는 도장빠비엿 현 게 그러케 힘드렁 중문 우체구기나 가며는 전놔도 일꼬 도장빠블 구경헐찌.{그 이유는 도장밥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중문 우체국이나 가면 전화도 있고 도장밥을 구경했지.}

10701 @1 음.{음.}

10701 #2 아주 연나레 해난 거주.{아주 옛날에 했던 것이지.}

10701 #1 거.{거.}

10701 @1 예예.{예예.}

10701 #2 예.{예.}

10701 #2 여기 그, 그 저네 뭇 먹통에 뭇슬 놔서 해쭈과? 허멍 그때 무러신디. {여기 그, 그 전에 뭇 먹통에 뭇을 넣어서 했습니까? 하면서 그때 물었는데.}

10701 #1 그런 도장허며는 그 소까마레 소꾸멩이 현 거, 현 걸 저당 도장이엿 허민 그자 말 모터게 나오긴 나완는디 이제 모양으로 그 저 세밀허게 돼진 아녀난 걸로 아는디.{그런 도장하면 그 솔밑에 솔검정 한 것, 한 것 저다가 도장이라고 하면 그저 말 못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모양으로 그 저 세밀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10701 #1 그 도장빠비엿 현 거 상당히 귀해십쥬. 이 농초넨.{그 도장밥이라고 한 거 상당히 귀했습쥬. 이 농촌에는.}

10701 #2 우리 곤는 건 육썸 년 저니.{우리 말하는 것은 육십 년 전에.}

10701 @2 음.{음.}

10701 @1 예예.{예예.}

10701 #2 육썸 혼 오 년 저네 이거.{육십 한 오 년 전에 이거.}

10701 @2 예.{예.}

10701 #1 아 야근 칠썸 년 저네 꺼또 육썸 너니나 칠썸 년.{아 약은 칠십 년 전에 육십 년이라 칠십 년.}

10701 @1 예, 그럽쭈.{예, 그렇습쥬.}

10701 #1 거적 마저.{거의 맞아.}

10701 #1 이 발전돼기는 칠썸.{이 발전되기는 칠십.}

10701 #2 그루후에 현 거는 도장빠브로 해신디 뭐 헨디 모르고양.{그 이후에 한 것은 도장밥으로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고요.}

10701 #2 경 현 걸로.{그렇게 한 것으로.}

10701 @1 예.{예.}

10701 @1 이젠 이베 오면예, 요 혈빠늘 서지 아눔니깁? 그건 뭇로 흐른 나아신 고마썸?{이젠 입에 오면요, 요 헛바늘 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하면 나왔는가요?}

10701 #2 헤예?{헤예?}

10701 @1 예.{예.}

10701 #2 헤예 가시 도드민 그덴 그 밥, 보리밥 전찌 아여쭈과?{헤예 바늘 돈으면 그때는 그 밥, 보리밥 젓지 않았습니까?}

10701 #2 주걱.{주걱.}

10701 @1 예.{예.}

10701 #2 주걱 끝뎡이 이런 디, 주걱. 영 전는 소창에 가는 디 그딜 칼로 박박 극찌 아느민 그디 모살 바가지나네 이, 이거시 경 아팜썸.{주걱 꼬트머리 이런 데, 주걱. 이렇게 젓는 솔바닥에 가는 데 거기를 칼로 박박 긁지 않으면 거기 모래 박아져서 이, 이것이 그렇게 아프다고.}

10701 @1 아아.{아아.}

10701 #2 데실데실허여. 바로 여기.{도돌도돌해. 바로 여기.}

10701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701 #2 경험썸. 경헤그네 그 밥주걱 온땅 칼로 막 글거부러.{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밥주걱 가져다가 칼로 막 긁어버려.}

10701 @1 아:.{아.}

10701 #2 막 글거부러그넹 허민 조아신디 어떻사 해신디 그거 그자 경 현뎡 헤여그네 존넹 허영 그자.{막 긁어버려서 하면 좋았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그거 그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저.}

10701 @1 예. 게서 우리 어린 뎡 그 새우리.{예.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 부추.}

10701 #2 예.{예.}

10701 @1 새우리로 막 박박박 비벼십쭈.{부추로 막 박박박 비볐습쥬.}

10701 #1 새우리는 치감 해가지고 이빨.{부추는 치감 해가지고 이빨.}

10701 #1 이가 알리나 뭇, 여기 그 니꾸비 이젠 야그로 머검쭈마는 조치 아는 때 니 알리나 현 건 새우리 뿔리나 새우리 ㅁ상 밀, 막 피나게 밀며는 그 조키는 헤여.{이가 아리나 뭇, 여기 그 치근이 이젠 약으로 먹고 있지만 좋지 않을 때 이

아리나 한 것은 부추 뿌리나 부추 마아서 밀, 막 피나게 밀면 그 좋기는 해.}

10701 #1 중간까지도 그.{중간까지도 그.}

10701 #2 아기드리 막 아광 해가민 막 우리도 바렐로 꼭 누뜨리냥 거 새우리 빨리해당 막 아을 미리.{아기들이 막 아파서 해가면 막 울어도 발로 꼭 눌러놓아서 거 부추 뿌리해다가 막 아이를 밀어.}

10701 #2 미리그넵 소금 노코 켜영.{밀어서 소금 넣고 해서.}

10701 @1 예. 소금 노코.{예. 소금 넣고.}

10701 #2 소금 노코 뽕사그네 미리주민.{소금 넣고 뽕아서 밀어주면.}

10701 #1 덕 봐시니까.{덕 봤으니까.} #2 존넌.{좋다고.}

10701 #2 계난 다른 야기 어신.{그러니까 다른 약이 없는.}

10701 #1 땀 야근 덕 본 건 확씨리 모른디 그건만크른 더기.{땀 약은 덕 본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것만큼은 덕이.}

10701 @1 음.{음.}

10701 #1 저도 경 행 해연는디 뭐.{저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10701 @1 예예.{예예.}

10701 #1 예, 그거가 완전 이젠 뭐 치약또 하영 나오곡 커난 허주만 그 당시엔 뭐 치약 어시난 그 소금도 이젠 뭐 제일 싼 게 소그민디 소금도 귀허니까 어떤 잘 사는 지빈 강 보민 그, 저 치솔질하는 소그른 흥끔 줌진 소그미 인는디.{예, 그것이 완전 이젠 뭐 치약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치약 없으니까 그 소금도 이젠 뭐 제일 싼 게 소금인데 소금도 귀하니까 어떤 잘 사는 집에는 가서 보면 그, 저 치솔질하는 소금은 조금 자잘한 소금이 있는데.}

10701 #1 뭐 그 홀근소그미나 줌진소금도 어성 그건또 춤 줄바로.{뭐 그 굵은소금이나 가는소금도 없어서 그것도 참 제대로.}

10701 #1 모턴.{못한.} @1 예.{예.}

10701 #1 현 실짚이라난는디.{한 실짚이었는데.}

10701 @1 그러타면 요새 어, 요긴 노썸미렌 혈 꺼가마썸? 여드름. 여드름 나면 어떻 행 구완해신고예?{그렇다면 요새 어, 여기 여드름이라고 할 것인가요? 여드름. 여드름 나면 어떻게 해서 구완했는가요?}

10701 @1 지그메야 병워네 가지만.{지금에야 병원에 가지만.}

10701 #2 여드르른 저닌 마니 안 난 거 달마. 연날 사르른.{여드름은 전에는 많이 안 났던 것 같아. 옛날 사람은.}

10701 @1 아, 그러우짱?{아, 그러니까?}

10701 #2 이제 중가네 경 하영 남쭈. 저닌 어린아이덜토 여드르미엔 현 건 잘 안 난.{이제 중간에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전에 어린아이들도 여드름이라고 한 것은 잘 안 났어.}

10701 @1 음.{음.}

10701 #2 계난 여드름 마른 어서.{그러니까 여드름 말은 없어.}

10701 #1 여드름 낳으네 무신 거 방법헨젠 현 말도 드러본 기가 업꼬.{여드름 나서 무슨 거 방법했다고 하는 말도 들어본 일이 없고.}

10701 @1 게문 두드레기 나쉴 때마썸?{그러면 두드레기 났을 때는요?}

10701 #1 아, 두드레기는 난 건 그 방버븐 허는 건.{아, 두드레기는 난 것은 그 방법은 하는 것은.}

10701 #2 두드레긴 소금물로.{두드레기는 소금물로.}

10701 #1 그거 행 아이.{그거 해서 아니.}

10701 #2 모욕. 소금물.{목욕. 소금물.}

10701 @1 소금물로예?{소금물로요?}

10701 #2 너무 짜게 허지 마라그네 삼삼허게.{너무 짜게 하지 말고 삼삼하게.}

10701 #1 모요근 아넌디 소금물 헤네 그냥 걸레에 적정 미러도.{목욕은 안 했는데 소금물 해서 그냥 걸레에 적서서 밀어도.}

10701 #2 소금.{소금.}

10701 #1 그 좀 도실락커긴 헨는디.{그 좀 도실락하기는 했는데.}

10701 @1 음.{음.}

10701 #2 이젠 막 ㄴ류와가든 그 아까 가시세가 으라 가지에 야글 경.{이제는 막 가려워가면 그 아까 파리풀이 여러 가지에 약을 그렇게.}

10701 @1 음.{음.}

10701 #2 걸로 모욕커고 경헤쭈다.{그것으로 목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1 @1 땀때기에마썸?{땀띠예요?}

10701 #1 땀때기.{땀띠.}

10701 @1 예.{예.}

10701 #1 나 그거나 뭐 비스튼 겁쭈게.{나 그것이나 뭐 비슷한 겁지요.}

10701 @1 음음.{음음.}

10701 #2 경 허영 헨는디.{그렇게 해서 했는데.}

10701 #1 아까 그 가스세 말하는 건 그 가스세엔 현 거는 이 사람 모메 내, 이 간 ㄴ튼 거 나빠도 그거 딸렁 머그든 지금도 그걸 마니 찬는 사름 인는디 건 약제가 완저니 조은 약제.{아까 그 파리풀 말하는 것은 그 파리풀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 몸에 내, 이 간 같은 것 나빠도 그거 달여서 먹으면 지금도 그것을 많이 찾는 사람 있는데 그것은 약제가 완전히 좋은 약제.}

10701 #1 건디 그게 이제 점점점점 업써저부럼서. @1 음. #2 연나렌 더 마나가 지고 그걸 야글 헐 때도 마넨는디 직끄든 여기 요디 귀허쟁 헤도 요 아래나 가든 좀 귀허까? 귀허기 상당히 힘들지.{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점 없어져버리고 있어. @1 음. #2 옛날에 더 많아가지고 그것을 약을 할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 요디 구하려고 해도 요 아래나 가면 좀 구할까? 구하기 상당히 힘들지.}

10701 #2 땀때긴 저 막 더우민 땀때길 나난 이제 산물, 저런 썩렁헌 무레예.{땀띠는 저 막 더우면 땀띠를 나니까 이제 산물, 저런 썩렁한 물예요.}



10701 @1 예. 생수 물.{예. 생수 물.}

10701 #2 그런 디 강 드러안즈민 드러간다.{그런 데 가서 들어왔으면 들어간다.}

10701 @1 예.{예.}

10701 #2 그디 강 탁 찬물 적찌그넝 두드리멍 어멍네가 두드리멍 행 아으드른 나른 경행 (시겟소리) 그, 그런 무레.{거기 가서 탁 찬물 적셔서 두들기면서 어머니네가 두들기면서 해서 아이들은 나면 그렇게 해서 (시겟소리) 그, 그런 물에.}

10701 @1 음.{음.}

10701 #2 냉수.{냉수.}

10701 #2 그치루캥 드러간 뉘 야기 이젠 땀뎀기 약또 신넝 햅띠다마는 우리 그때는 야기.{그처럼해서 들어가서 뉘 약이 이젠 땀뎀 약도 있다고 햅띠다만 우리 그때는 약이.}

10701 @1 그 다크메 허물 나른예, 어뎡 해쭈과?{그 다음에 종기 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10701 #2 허무리, 구진 허무른 구진 허무리 무시 거 허연 그때 구진 허무리엔 헤신고.{종기가, 궤은 종기는 궤은 종기가 무슨 것 해서 그때 궤은 종기라고 했는가.}

10701 #2 지렁이.{지렁이.}

10701 @1 네.{네.}

10701 #1 둘뎡이, 둘뎡이.{달뎡이, 달뎡이.}

10701 #2 둘뎡이? 둘뎡인 버즈메도 둘뎡인 헤난디.{달뎡이? 당뎡이는 버즈메도 달뎡이는 했었는데.}

10701 #1 아이.{아니.}

10701 #2 지렁이양 시궁에 강 보민 영영 그느민 그 쟈쟈현.{지렁이요, 시궁창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굵으면 그 자잘한.}

10701 @1 꺼멍헌 거예?{꺼먼 거요?}

10701 #2 지렁이.{지렁이.}

10701 #2 꺾지 아넝 바로 지렁이 달몬디 존 거라.{꺾지 앓고 바로 지렁이 같은 데 잔 거야.}

10701 @1 음.{음.}

10701 #2 시궁에 인는 거.{시궁창에 있는 것.}

10701 #2 그거 해다그네.{그거 해다가.}

10701 #1 이색 찌거.{이색(?) 저거.}

10701 #2 춤기름.{참기름.}

10701 #2 경 행으네 등강 나두민 혼 삼 녀니나 더 행 봐두민냥 그거시 어서부러.{그렇게 해서 담가서 봐두면 한 삼 년이나 더 해서 봐두면요 그것이 없어버려.}

10701 @1 음.{음.}

10701 #2 노가부러.{녹아버려.}

10701 #2 나 어는제ㄱ장도 그걸 허연 아이들 헤나신디.{나 언제까지도 그것을 해서 아이들 했었는데.}

10701 #2 경 행양 그거 구진 허무래 불립니다.{그렇게 해서요 그것 곳은 종기에 바랍니다.}

10701 @1 음.{음.}

10701 #2 그거 허영 브르민 단작 존나. 야기 어서노난 그자 그런 거 저런 거 생가커명 헌 겁쥬.{그거 해서 바르면 단박 좋다고. 약이 없어놓으니까 그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한 것이지요.}

10701 @1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애오글 뽀블 꺼 아니우광예? 애옥. 종, 허물 나른네? 게른 구진물 망 나면 그 구진무를 빨려고 또 뭐 부치지 아네쥬광?{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애옥을 뽀블 것 아닙니까? 애옥. 종, 종기 나면요? 그러면 구정물 막 나오면 그 구정물을 빨려고 또 뭐 부치지 않았습니까?}

10701 #2 그 저 무신.{그 저 무슨.}

10701 @1 우리는 베체기.{우리는 질경이.}

10701 #2 개불, 개불낭.{산괴불, 산괴불나무.}

10701 #1 아니, 백뽀 부쩍쥬게.{아니 백반 붙였지.}

10701 #2 백뽀?{백반?}

10701 #1 음.{음.}

10701 #1 개광낭에 인는.{쥐똥나무에 있는.}

10701 #2 그거 짜뽀.{그거 짜두고.} #1 백뽀는. {백반은.}

10701 #1 그 저네.{그 전에.}

10701 @1 으, 아아.{으, 아아.} #2 그거.{그것.}

10701 #1 그 하영 허여그네.{그 많이 해서.}

10701 #1 그걸또 상당이.{그것도 상당히.}

10701 #2 백뽀도 허고 송진도 허곡 커지 아녀신가?{백반도 하고 송진도 하고 하지 않았는가?}

10701 #1 아이, 송지는.{아니, 송진은.}

10701 #2 송지는 뭐세 야글 헤신?{송진은 뽀에 약을 했는?}

10701 @1 베체기 헐뽀 거 가튼데.{질경이 했던 것 같은데.}

10701 #2 베체기.{질경이.} @1 베체기.{질경이.}

10701 @1 뽀사그네 영.{뽀아서 이렇게.}

10701 #2 딱뽀 뽀사그네양.{딱뽀 뽀아서요.}

10701 @1 예.{예.}

10701 #2 저 그레 톡 부뜨게.{저 그리로 톡 붙게.}

10701 @1 예.{예.}

10701 #2 경헤연 부쩍쥬다. 부쩍. 그 우티레.{그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붙었어. 그 위로.}

10701 @1 예. 그러면 구진물 빨리 나오고예.{예. 그러면 구정물 빨리 나오고요.}

10701 #2 어, 구진물 짜분덴.{아, 구정물 짜버린다고.}

10701 @1 예.{예.}

10701 #2 겨곡 완전 그 종기ㄴ찌 이런 디 곧, 막 엔나른 허머를 잘 나서양.{그러고 완전 그 종기같이 이런 데 곧, 막 옛날은 종기를 잘 났어요.}

10701 #2 게민 영 헤영 영 보는츄룩 허당으네 어디레 아이드리 이레 탁 부닥치게. 경허민양, 그게 애요기 나와. 그땐 어떻 허무리 커신디사양.{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해다가 어디로 아이들이 이리로 탁 부닥치게. 그러면요, 그것이 애육이 나와. 그때는 어떻게 종기가 컸는지요.}

10701 @1 음.{음.}

10701 #2 경 헤그네 막 주거가도 그 쏘게 그 병땡이 달든 걸 헤불민양, 그런 베체기나 영. 납짜커게 헤여그네 부찌민 물 뺀라불민 조아.{그렇게 해서 막 죽어가도 그 속에 그 덩어리 같은 것을 해버리면요, 그런 질경이나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붙이면 물 빼버리면 좋아.}

10701 @1 음. 흑씨예, 십종이라고 허는 게 일찌 아느우짱? 이러케 도 어신 거? {음. 흑시요, 십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구 없는 것?}

10701 #2 예예.{예예.}

10701 @1 걸 도 내우젠 허든 어떻 헤나신고예? 엔나른예?{그것을 입구 내려고 하면 어떻게 했는가요? 옛날은요?}

10701 #2 도 내우젠 허민 그게 바농으로.{입구 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늘로.}

10701 #2 바농으로양, 저 그 소깡아레 강 그시렁. 그시렁 그거 찢르레 영영 헤그네 허민 거멍허게 물 적짱. 씨레 물 적짱 영영 막 메기민 거멍허민 그레 찢렁 어멍이 확 둥이민 쏘게 꺼 나와분 거.{바늘로요, 저 그 솔밑에 가서 솔검정. 솔검정 그거 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거멍게 물 적서서. 실에 물 적서서 이렇게 이렇게 막 먹이면 거메면 그리로 찢러서 어머니가 확 당기면 속에 것 나와버린 것.}

10701 @1 으음.{으음.}

10701 #2 경 해주다.{그렇게 했습니다.}

10701 @1 우린네, 걸 어떻 헨나 허면 그 골.{우린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옛기름.}

10701 #2 골?{옛기름?}

10701 @1 예. 골꺄루를.{예. 옛기름가루를.}

10701 #2 예.{예.}

10701 @1 계란.{계란.}

10701 #2 음음.{음음.}

10701 @1 영 계라네 헤그네 걸 처메나십쭈게?{이렇게 계란에 해서 그것을 처맷 었습지요?}

10701 #2 건 제라런 야기우다.{그것은 제대로 된 약입니다.}

10701 @1 게면 그 구멍이 어설편 게 딱라저.{그러면 그 구멍이 없었던 것이 뚫어져.}

10701 #2 아:{아.}

10701 #2 게난양, 우린 그치룩캥 도 으슨 경.{그러니까요, 우리는 것처럼해서 입구 없는 것은 그렇게.}

10701 #1 골허곡 게란도 거.{옛기름하고 게란도 그것.}

10701 #2 허어나서.{했었어.}

10701 @1 예.{예.}

10701 @1 아.{아.}

10701 #2 그건 큰. 경 행양 보리깡루, 보리깡루 허여그네 찌그네 소금 낱, 찌그네 그레 부찌곡. 건또 부찌난 거.{그것은 큰. 그렇게 해서요 보릿가루, 보릿가루 해서 반죽해서 소금 넣어서, 반죽해서 그리로 붙이고. 그것도 붙였던 거.}

10701 @1 음.{음.}

10701 #2 게난 그, 그런 건 아라지쿠다.{그러니까 그,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10701 @1 게난 우린 골 행 헤나서예.{그러니까 우리는 옛기름 해서 했었어요.}

10701 #2 음, 예.{음, 예.}

10701 @1 씹쫂인 경우예.{씹쫂인 경우예.}

10701 #2 거나 거나 ㄴ튼 거.{그것이나 그거 같은 거.}

10701 @1 음.{음.}

10701 #2 보리깡루 허여그네 소금 닥닥 놔그네 떡 멘드랑 행 탁 처매여.{보릿가루 해서 소금 닥닥 넣어서 떡 만들어서 해서 탁 처매.}

10701 @2 음.{음.}

10701 #2 까주와똥.{터트려서.}

10701 @1 네.{네.}

10701 #2 게민 그레 말쨌 떡 떼영 보민 그디 막 고름, 피고르미 그레 짜그네 나와.{그러면 그리로 말쨌는 떡 떼어서 보면 거기 막 고름, 피고름이 그리로 짜져서 나와.}

10701 #2 게민 뉘 번만 부치민양, 소금 드러간 건지 그냥 몰랑으네 조아불곡. 그난 그냥 그자 생가커멍 야글 헐쭈.{그러면 두어 번만 붙이면요, 소금 들어간 것인지 그냥 말라서 좋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생각하면서 약을 했지.}

10701 @1 이제 쪽 오면 요기, 요기 가래툰 생겨예? 종기 나나면 요런, 요런 디예?{이제 쪽 오면 오기, 요기 가래툰 생기지요? 종기 나나면 요런, 요런 데요?}

10701 #2 종기.{종기.}

10701 @1 건 어떻 업썰쭈광?{그것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10701 #2 종기도 그거.{종기도 그거.}

10701 #1 그거.{그거.}

10701 #2 그거나 ㄱ튼 거.{그것이나 같은 것.}

10701 #1 그건.{그것은.}

10701 @1 멍얼 사면?{가래툰 서면?}

10701 #1 종지 어평으네 칼로 돌런쥬.{종지 얹어서 칼로 돌랐지.}

10701 #2 뱅허게.{뱅하게.}

10701 #1 예.{예.}

10701 @1 음.{음.}

10701 #2 종지도 연날 종지.{종지도 옛날 종지. #2 그거 난민.{그거 나오면.}

10701 #2 허물르레.{헌데로.}

10701 #1 거기 종, 실찌 종지.{웃음}{거기 종, 실제 종지.{웃음}}

10701 @1 예.{예.}

10701 #1 종제기. 그걸 어퍼가지고 그레 딱 어평.{종지. 그것을 얹어가지고 그리로 딱 얹어서.}

10701 #2 방법.{비법.}

10701 #1 칼로 종지 탁탁 거시멍 이거 돌루왓쨌 행 경 행으네 걸 조아시난.{칼로 종지 탁탁 건드리면서 이거 도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걸 좋았으니까.}

10701 @1 아아.{아아.}

10701 #2 까쥬.{터트림.}

10701 #1 그거 허민.{그것 하면.}

10701 #2 조알쥬게.{좋았지.}

10701 #1 어?{아?}

10701 #2 건 방버비고 까주와그네 야글 보리ㄱ루 떠기라도 행 부찌난.{그것은 비법이고 터뜨려서 약을 보릿가루 떡이라도 해서 붙이니까.}

10701 #1 아니, 경 아년 나도 그걸 걸려봐신디 거 허영 종지 어평.{아니, 그렇게 안해서 나도 그것을 걸려봤는데 거 해서 종지 얹어서.}

10701 #2 돌르른 칼로.{도르는 것은 맞고.}

10701 #1 칼로.{칼로.}

10701 @1 음.{음.}

10701 #1 바로 칼도 굴멍.{바로 칼도 갈면서.}

10701 #2 뤼셴 ㄱ르멍 헤실 꺼라.{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했을 거야.}

10701 #1 으, 뤼엔 곧꼭.{아, 무엇이라고 말하고.}

10701 @1 음, 말멍?{음, 말멍?}

10701 #1 ㄱ라네.{말해서.}

10701 #2 나 종진 구완허라 헤실 꺼라.{내 종지 구완하라 했을 거야.}

10701 #1 뤼시엔 ㄱ르멍.{무엇이라고 말하면서.}

10701 #2 종제기 구완허렌.{종지 구완하라고.}

10701 @2 음.{음.}

10701 #1 헌딤.{했는데.}

10701 #2 돌로 노렌 헤실 꺼라.{도르느라고 했을 거야.}

10701 #1 그걸.{그것.}

10701 #1 딱딱커게 종진 두드리곡 술도 청말 끄너부럼지기 허멍.{딱딱하게 종지 두들기고 살도 잘라버릴 것같이 하면서.}

10701 @1 음.{음.}

10701 #1 허민 건 조알쭈.{하면 그것은 좋았지.}

10701 @1 예. 이제 쭈 내려오믄예, 무죤 생길 땐 어떻 해쭈광?{예. 이제 쭈 내려오면요, 무죤 생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1 #2 무조미 셔신가? 연날.{무죤이 있었는가? 옛날.}

10701 #1 무조:믄 연나레 무죤 걸린 사르믄 무지껌 바당에 가렌 헨는다.{무죤은 옛날에 무죤 걸린 사람은 무조건 바다에 가라고 했는예.}

10701 #2 촌무레.{짬물에.}

10701 @2 음.{음.}

10701 #1 그 뭘, 바당에 강 뭘, 뭘 모옥커라 허민 나도.{그 뭇, 바다에 가서 뭘, 뭘 목욕하라고 하면 나도.}

10701 #1 무죤도 하지 아네쭈다게.{무죤도 많지 않았습니다.}

10701 #2 무죤 하지 아너도.{무죤 많지 않아도.}

10701 #1 하진 아넬쭈마는 거 쭈 생기민 이 아버지도 무쭈건 바당에 강 오랜 바당엔 추미가 아무겔또 엄는다 바당에 강 촌무레 강 막 텅여와야.{많지는 않았지만 거 쭈 생기면 이 아버지도 무조건 바다에 가서 와라고 바다에는 취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에 가서 짬물에 가서 막 다녀와야.}

10701 @1 아.{아.}

10701 @1 찬무레?{찬물에?}

10701 #1 예.{예.}

10701 #2 도락도락케여. 강 허영 오민.{도톨도톨해. 가서 해 오면.}

10701 #1 아메도 촌무레 강 땡이민 그 이제도 허는 거 보믄 쪼끔 다르긴 허는다.{아무래도 짬물에 가서 다니면 그 이제도 하는 것 보면 조금 다르긴 하는데.}

10701 @1 가끔 가다가 이, 이거시 바리면예, 발까락 사이에 이러케 버러지지 아늑니깁예?{가끔 가다가 이, 이것이 발이면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요?}

10701 #1 아, 약간 쪼여정으네.{아 약간 쪼어져서.}

10701 @1 예예, 우리 우린.{예예, 우리 우리는.}

10701 #2 발까락 사이 예, 예. 이런 믓디가 영 그디양 니 자방.{발가락 사이 예, 예. 이런 마디가 이렇게 거기로 이 잡아서.}

10701 @1 예.{예.}

10701 #2 머리에 니 자방, 무사 경 닌 함광 대가리에 바글바글.{머리에 이 잡아

서. 왜 그렇게 이는 많음과 대가리에 바글바글.}

10701 @2 (웃음)

10701 #2 시머당 훌근훌근현 걸로 시머당 영 헤그네 그레 낳 영 허민 아, 그 니 노민 부땡 조아부러.{잡아다가 콤디콤은 것으로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로 놓아서 이렇게 하면 아, 그 이 놓으면 붙어서 좋아버려.}

10701 @1 음.{음.}

10701 @1 게 까매, 걸 걸 여기서 뭘렌 힘니까? 이러케 영 이런, 이런 디 영. {게 까매, 그것을 그것을 여기서 뭘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데 이렇게.}

10701 #2 거리. 이디 아이 거리메 아니.{거리, 여기 아니 거림이라고 아니.}

10701 @1 우린.{우리는.}

10701 #2 무신 눈 털젠.{무슨 눈 뿔다고.}

10701 @1 예, 까매기 눈 털텐 허지예?{예, 가마귀 눈 뿔다고 하지요?}

10701 #2 예예예.{예예예.}

10701 #2 이제 눈 터부나네.{이제 눈 떠버리니까.}

10701 @1 예.{예.}

10701 #2 니 자방 놔그네 영 딱커게 부쩌그네 놔두민 존네.{이 잡아서 놓아서 이렇게 딱하게 붙여서 놔두면 좋다고.}

10701 @1 겐또 거.{그것도 거.}

10701 #2 경 헤영 허여 봐쭈다.{그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10701 @1 게, 겐또 거, 머리에 나라예?{게, 그것도 그것, 머리에 이지요?}

10701 @1 꺼른 니?{거면 이?}

10701 #2 예예.{예예.}

10701 @1 꺼른 니예?{거면 이요?}

10701 #2 커명헌 니.{꺼면 니.}

10701 @1 예.{예.}

10701 #2 아이고, 훌금광 그때.{아이고, 콤음과 그때.}

10701 @1 음.{음.}

10701 #2 (웃음) 예구, 징그럽게 우리.{(우음) 아이고, 징그럽게 우리.}

10701 @1 예예예.{예예예.} #2 (웃음)

10701 @1 엔나레 감기 걸리든 어, 어떻 헨 구완헤신고예?{예전에 감기 걸기면 어, 어떻게 해서 구완했는가요?}

10701 #2 감기 걸리든 무시거 헤영 머거저신고?{감기 걸리면 무슨 것 해서 먹어졌는가?}

10701 #2 감기.{감기.}

10701 #1 그 감기에는 중간까지도게 윤동ㄱ장 주레.{그 감기에는 중간까지도 인동초 줄에.}

10701 @1 예.{예.}

10701 #1 꼭뽕리에 저, 땡유지에 하나가 뭐 인는데.{칩뿌리에 저, 당유자에 하나가 뭐 있는데.}

10701 #2 건 이제사 증가네.{그것은 이제야 중간에.}

10701 #1 아, 다설 까진데.{아, 다섯 가지인데.}

10701 #1 아, 그걸 놔가지고 막 딸령으네 아, 꿀. 꿀 노코크 커미는 딸리며는 이제 그걸로.{아, 그것을 놓아가지고 막 달여서 아, 꿀. 꿀 넣고 하면 달이면 이제 그것으로.}

10701 @1 음.{음.}

10701 #1 뭐 대라근 구완헌 걸로 인정이 되고.{뭐 대략은 구완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10701 @1 게 또, 죽, 주글 머거도 조은디 그 죽.{게 또, 죽, 죽을 먹어도 좋은데 그 죽.}

10701 #2 죽.{죽.}

10701 @1 그때는 곱태사니.{그대는 마늘.} #2저.{저.}

10701 @1 뭐냐 패마농.{뭐냐 파.}

10701 #2 에, 중 노코. 패마농양.{에, 죽 넣고요. 파요.}

10701 @1 네.{네.}

10701 #2 그건ㄱ라 백빼탕이엔 해서. 백빼탕. 그 주기.{그것보고 백비탕이라고 했어. 백비탕. 그 죽이.}

10701 @1 음.{음.}

10701 #2 그 곤쑈레다 그 패마농 썬러.{그 흰쌀에다 그 파 썰어서.}

10701 @1 네.{네.}

10701 #2 썬러 쑈그네 소금 안 넣. 소금 안 넣 그냥, 그냥 머그랭 해영.{썰어서 넣어서 소금 안 넣어서. 소금 안 넣어서 그냥, 그냥 먹으라고 해서.}

10701 @1 네.{네.}

10701 #2 경 행 그냥 머거나쑈다.{그렇게 해서 그냥 먹었었습니다.}

10701 @2 여기에서도 백비탕이렌 ㄱ라나쑈과?{여기에서도 백비탕이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1 #2 백비탕.{백비탕.}

10701 #2 그거시 그 야그로 먹, 머그난 그거 백비탕으로 해연.{그것이 그 약으로 먹, 먹으니까 그거 백비탕으로 해서.}

10701 #2 경 해영.{그렇게 해서.}

10701 #1 건디 지금도 그 저, 꼭뽕리에 대추에 꼭 저 뿌리에 뚫 딸린 건.{그런데 지금도 그 저, 칩뿌리에 대추에 칩 저 뿌리에 뚫 달인 것은.}

10701 #2 건 이제도.{그것은 이제도.}

10701 #1 흐끔 씹쓰렁허멍도 흐끔 끈나쁜 임마시 더 땡겨가지고 더 조아마씨.



{조금 씹쓰레하면서도 조금 끝나면 입맛이 더 당겨가지고 더 좋아요.}

10701 #1 이 제주도 호기 저 끝뿌리는 쪼끔 쓰는데 강원도 칙뿌리는 우리 구닌 간 땀 거 허여가지고 팡 찌지멍 들구 머그민 뭐, 건 돌, 돈디 이 제주도 켜 경 돌진 아네마썸. @1 예. #1 사네 꺼또.{이 제주도 흙이 저 칙뿌리는 조금 쓰는데 강원도 칙뿌리는 우리 군인 간 때는 거 해가지고 파서 찢으면서 마구 먹으면 뭐 그것은 달, 단데 이 제주도 것은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1 예. #1 산에 것도.}

10701 #1 건디 파다가 해보나네 마슨 그러케, 이게 사르멘 상당히 조은 거 가타 마씨. 칙뿌리가.{그런데 파다가 해보니까 맛은 그렇게, 이것이 사람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0701 @1 그 다으메 이버는 기침할 때 어떻, 뭐 어떻 허든 조은고예, 기침할 때?{그 다음에 이번은 기침할 때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기침할 때?}

10701 #2 기침할 땐 저, 무. 늑빠.{기침할 때는 저, 무. 무.}

10701 @1 네.{네.}

10701 #2 늑빠 좀질게 씨러그네 채로 씨러그네 설탕, 춤 저.{무 잘게 썰어서 채로 썰어서 설탕, 참 저.}

10701 #1 꿀.{꿀.}

10701 #2 꾸레. 꾸레 무턴땅 그건또 먹꼭. 이제 ㄱ췌쳐록 저, 유지. 유지허꼭 배허꼭 대추. 경 놔그네 딸려그네 그 물도 먹꼬.{꿀에. 꿀에 묻었다가 그것도 먹고. 이제 아까처럼 저, 유자. 유자하고 배하고 대추. 그렇게 넣어서 달여서 그 물도 먹고.}

10701 @1 음.{음.}

10701 #1 건 이 중간까지도 그걸 마니 사용헤십쥬.{그것은 이 중간까지도 그것을 많이 사용했습지요.}

10701 #2 엔날 빠비주.{옛날 법이지.}

10701 @1 그 다음 허깁이 헐 땐 어떻 험니까?{그 다음 재채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701 #2 예?{예?}

10701 @1 허깁이?{재채기?}

10701 #2 허깁이?{재채기?}

10701 #1 허깁이 허는 건 무신 야글 씨.{재채기 하는 것은 무슨 약을 씨.}

10701 @1 건 야기 얻, 얻찌예? {그것은 약이 없, 없지요?}

10701 #2 허깁이 허는 건싸 그 허깁이 헤가른 으피 싸름 나허민 이 사람도 꼭 버슬 창 험다. 그건 헤도 야근 아너.{재채기 하는 것이야 그 재채기 헤가면 옆에 사람 나하면 이 사람도 꼭 벗을 짜서 한다. 그것은 헤도 약은 안 해.}

10701 @1 네예예예.{네예예예.}

10701 @1 그 다음 코피 터지든 어떻 헤나쭈과?{그 다음 코피 터지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10701 #2 코피 터지민 속 케당 박박 부비영 코 양 코꾸망 팡 마강 영 야게 자

치렌 허민 이젠 조아부런쨌 행 확 빠불고.{코피 터지면 쓱 해다가 박박 비벼서 코 양 콧구멍 짹 막아서 이렇게 고개 젓히라고 하면 이젠 좋아버렸다고 해서 확 뽑아버리고.}

10701 @1 게난 쓱, 쭈기라예.{그러니까 쓱, 쓱이지요.}

10701 #1 아, 게 좀도 해서. 약.{아, 게 좋기도 했어. 약.}

10701 @1 예. 쭈기라예?(예. 쓱이지요?) #1 흠, 그.{흠, 그.}

10701 #2 숙.{쓱.}

10701 #1 수기.{쓱이.}

10701 #2 수기.{쓱이.}

10701 #1 아, 수기 아니고 소기.{아, 쓱이 아니고 쓱이.}

10701 @1 음.{음.}

10701 #1 소근 뭐.{쓱은 뭐.}

10701 #2 완전 존.{완전 좋은.}

10701 #1 만병통치거든.{만병통치거든.}

10701 @2 음.{음.}

10701 #1 사름 머거도 조록, 아기 나난 디도 그거 소글 꼭 이서야 돼고.{사람 먹어도 좋고, 아기 낳은 데도 그것 쓱을 꼭 있어야 되고.}

10701 #1 코 질질 코로 피 난 건또 완저니 조은 거고 #2 코피 터진 거는 숭만 해뒀으네 마그난 #1 바띠 강 일 허멍 소니 끄너정 현 때도 #2 손 빈 때도.{#1 코 질질 코로 피 나는 것도 완전히 좋은 것이고. #2 코피 터진 것은 쓱만 해두고 막으니까 #1 발에 가서 일 하면서 손이 잘라져서 한 때도 #2 손 벤 때도.}

10701 #1 소기 젤, 야간 이건 여러 가지에 막 협조를 해 준 소기라마썸.{쓱이 제일, 야튼 이것은 여러 가지에 막 협조를 해 준 쓱이에요.}

10701 @1 음.{음.}

10701 #1 딴 거 담찌 아녕.{다른 것 같지 않아서.}

10701 @1 아까 귀에 종기 나면 귀아더리고. 코에도 허물 남니깁? 코 쓱, 코꾸멍 쏘게도?{아까 귀에 종기 나면 귀아들이고. 코에도 종기 남니까? 코 숙, 콧구멍 속에도?}

10701 #2 코꾸망에도 허물 나신디 건 야글 아네반 거 달마.{콧구멍에도 종기 났는데 그것은 약을 안 해본 것 같아.}

10701 @1 건 코아더리렌 험니까?{그것은 코아들이라고 합니까?}

10701 #2 코아덜 귀아덜 코아덜.{코아들 귀아들 코아들.}

10701 @1 예.{예.}

10701 @2 콧각씨허는데.{콧각시하는데.}

10701 #2 눈. 누네 들된 나꼭 거 원 안 나는 게 어신게 뭘.{눈. 눈에 다래끼 나고 그것 전혀 안 나는 것이 없는데 무엇.}

10701 @1 예.{예.}

10701 #2 천지가양?{천지가요?}

10701 @2 아까는 돌턴 얘기를 안 헨찌 아느우파?{아까는 다래끼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10701 #2 곤썰.{아까.}

10701 @2 예.{예.}

10701 #2 게난 개씨비게 할망덜 ㄴ른 거 ㄴ랄쭈게.{그러니까 다래끼가 할머니들 말한 것 말했지.}

10701 @2 으.{으.}

10701 #2 들턴.{다래끼.}

10701 @2 들웁.{다래끼.}

10701 #2 에이고, 우의 나곡 아렌.{아이고, 위에 나고 아래는.}

10701 @1 게른 개죤터고 돌러슨 ㄴ튼 말?{그러면 개죤하고 돌뤼은 같은 말?}

10701 #2 어 딱난 거주 건. 연날 할망덜른 경 ㄴ랄쭈게.{아 다른 것이지 그것은.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했지.}

10701 @1 게난 돌러슨 다래끼고, 그 다음 위에 나느냐 미테 나느냐에 따라서 달른 거지.{그러니까 돌뤼은 다래끼고, 그 다음 위에 나느냐 밑에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10701 #2 돌러슨 중가네 이제 개죤.{돌뤼은 중간에 이제 개죤.}

10701 @2 아니 위에 껴를.{아니 위에 것을.}

10701 @1 음.{음.}

10701 @2 가시리는 가쓸 땐 우에 꺼 들웁.{가시리는 갓을 때 위에 것을 돌뤼.}

10701 @1 음.{음.}

10701 @2 아렌 꺼 개썸.{아래 것은 개썸.}

10701 @1 음.{음.}

10701 #2 두러시에는 이제도 곤는 거?{돌뤼이라고는 이제도 말하는 거?}

10701 @1 @2 예.{예.}

10701 #2 거 나 ㄴ른 마른 아주 연날 할망덜 ㄴ른 말.{거 나 말한 말은 아주 옛날 할머니들 말한 말.}

10701 @1 예, 두웁때?{예, 다래끼요?}

10701 #2 ㄴ 주거분 할망덜. 개썸, 개썸, 개죤. (웃음).{몽땅 죽어버린 할머니들. 개썸, 개썸, 개죤.}

10701 @1 그 다으메 가래가 생길 땐 어떻 험니까? 갈그랑 갈그랑 가래가 생길 때는?{그 다음에 가래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그랑 갈그랑 가래가 생길 때는?}

10701 #1 게난 그 가래 막 케영으네 허는 사르문 이제는.{그러니까 그 가래 막 해서 하는 사람은 이제는.}

10701 #2 폐엔 험쭈게.{폐에 하고 있지.}

10701 #1 아미엔 햄실 찌도.{암이라고 하고 있을 지도.}

10701 #2 페, 페.{페, 페.}

10701 #1 연나른 펜뽕.{옛날은 펫병}

10701 @1 예.{예.}

10701 #1 페뽕 해 가지고 그 병은 걸렸따 허른 구완 몬텐 그냥 도, 도라가신 걸로.{페병해 가지고 그 병은 걸렸다고 하면 구완 못해서 그냥 돌, 돌아가신 것으로.}

10701 #2 페, 페엔 야긴 어서서.{페, 페에는 약이 없었어.}

10701 @1 중풍은 어떻 고쳐신고예? 중풍.{중풍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중풍.}

10701 #2 에에.{웃음}{에에.{웃음}}

10701 @1 지금 말고마씨. 엔날?{지금 말고요. 옛날?}

10701 #2 중풍 내불민 입또 도라가곡. 이 고시 이레 가곡 경 허민 침.{중풍 내버리면 입도 돌아가고. 이 곳이 이리로 가고 그렇게 하면 침.}

10701 @1 침네?{침요?}

10701 #2 예. 침베끼 다른 야근 얻쭈다.{예. 침밖에 다른 약은 없습니다.}

10701 #1 아이 침도 허곡.{아니 침도 하고.}

10701 #2 침 마지레 간.{침 맞으러 가서.}

10701 #1 황백빼낭 그 껍죽 베경그네 야숙컨 뭇헌 사름더른 딸리멍 헤영 메기기도 햐쭈마는 이제 그 성화수니도.{황백나무 그 껍질 벗겨서 야숙한 뭇헌 사람들은 달이면서 해서 먹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 성화순이도.}

10701 #2 건 풍 아니우다게. 성화수닌 풍 아니 저 구진 병 아니우파?{그거은 풍 아닙니다. 성화순이는 풍 아니 저 곳은 병 아닙니까?}

10701 #1 아니 그냥 풍으로 햐 썰런.{아니 그냥 풍으로 해서 썰려서.}

10701 #2 아이고, 윈. 날ㄴ라 윈 경. 거 우리 스춘 아이우파?{아이고, 윈. 날보고 윈 그렇게. 거 우리 사춘 아닙니까?}

10701 #2 막 구진 병 헤여네 게끔 바각바각 물멍 똬갈라지곡 헤여가단 그거 구완 아녕 내부난 썰려분 거 혼착.{막 곳은 병 해서 거품 바각바각 물면서 뒤집어지고 해가다가 그것 구완 안 해서 내버리니까 썰려버린 것 한쪽.}

10701 #2 썰려부난 조안.{썰려버리니까 좋았어.}

10701 #1 게난 썰리난 사라난 거주.{그러니까 썰리니까 살아난 것이지.}

10701 #2 풍 아니 게난.{풍 아니. 그러니까.}

10701 #2 썰리지 아녀시민 주걸찌.{썰리지 않았으면 죽었지.}

10701 #2 게난 풍이 아니. 그건 병, 큰 병.{그러니까 풍이 아니. 그것은 병, 큰 병.}

10701 @2 황백빼낭은 이제도 이십니까?{황백나무는 이제도 있습니까?}

10701 #1 아, 이제도 인는다.{아, 이제도 있는데.}

10701 #2 어려와.{어려워.}

10701 #1 이제 뭇 아무 디나 일쩐 아녀.{이제 뭇 아무 데나 있지는 않아.}

10701 #2 어디 사네 신는ㄴ라.{어디 산에 있는 모양이야.}

10701 #1 그걸.{그것.}

10701 #1 뭐헌 사름넌 그 황백빠낭으로 쉼도 아프면.{뭐한 사람네는 그 황백나 무로 소도 아프면.}

10701 #2 야기라도.{약이라도.} #1 그 \*\* 허곡.{그 \*\* 하고.}

10701 @2 음.{음.}

10701 #1 사람도 그걸로 헐는디 게난 껍죽 베껴가불 꺼엔 막 그 저 아주 올타리 잘 허는 지배만 그거 시머 이서난는디.{사람도 그것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껍질 벗겨가버릴 것이라고 막 그 저 아주 올타리 잘 하는 집에만 그것 심어 있었는데.}

10701 #2 노랑.{노랑.}

10701 #1 이제 우리 우리 부라젠 그거 인는 지비 어신 걸로 지금 얘기허는데. {이제 우리 우리 부락에는 그것 있는 집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10701 #1 그 저네는 혼 서너 지배 이서난는디 이 우리 형네 우영에도 이서난는디 거 저 껍쭈글 막 베껴가부니까 자동으로 주거부런써.{그 전에는 한 서너 집에 있었었는데 이 우리 형네 터알에도 있었었는데 거 저 껍질을 막 벗겨가버리니까 자동으로 죽어버렸어.}

10701 #1 그냥. 너무 껍쭈글 뻥썩. 게난 껍죽 베낄 때도 혼쫓그로 베썩 혼쫓근 살령 일써야 글로 이 수부니 올라왕 살리는 건디 몬들레기 이제 저 속때낭도 몬들레기 뻥끼민 주거북쭈게.{그냥. 너무 껍질을 벗겨서. 그러니까 껍질 벗길 때도 한쪽으로 벗겨서 한쪽은 살려 있어야 그리로 이 수분이 올라와서 살리는 것인데 매끈하게 이제 저 삼나무도 매끈하게 벗기면 죽어버리지요.}

10701 #1 게난 그 꺼, 껍쭈기 우리 사름 ㄴ트민 온 가튼 건 모양이라.{그러니까 그 꺼, 껍질이 우리 사람 같으면 옷 같은 것인 모양이야.}

10701 #1 그니까 껍죽광 술 싸이로.{그러니까 껍질과 살 사이로.}

10701 @1 무리 올라 가야.{물일 올라 가야.}

10701 #1 그게 무리 올라와야 사는 건디게 그거 통화 몬터니까 지금 동화자공 몬터영.{그것이 물이 올라와야 사는 것인데 그거 통화 못하니까 지금 동화작용 못해서.}

10701 @1 문둥뻥 지그른 언찌예? 엔나렌 문둥뻥 어떻 구완해난?{문둥병 지금은 없지요? 옛날에는 문둥병 어떻게 구완했었는지?}

10701 #1 그 문둥뻥은 우리 웨가에도 일써난는디.{그 문둥병은 우리 외가에도 있었었는데.}

10701 @1 게난.{그러니까.}

10701 #1 버파니.{법환리.}

10701 @1 게난 어디 저쪽 멀리 보낸.{그러니까 어디 저쪽 멀리 보내서.}

10701 #1 그자 강 저 어린 때 구경만 헐는데 거 문둥뻥은 이 온또 하나도 안 입꼬.{그저 가서 저 어릴 때 구경만 했었는데 그것 문둥병은 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10701 #2 용다리.{문둥병.}

10701 @1 예.{예.}

10701 #1 으, 뭐 용다리엔도 허고 문둥뽕이엔도 허곡.{아, 뭐 용다리라고도 하고 문둥뽕이라고도 하고.}

10701 #1 계난 그자 온모메 아까 뭐 피부뽕 모양에 그자 글로도 물 질질 절로도 물 질질 그자 이 사리 이치록 마르지 아녀고 잘잘 으.{그러니까 그저 온몸에 아까 뭐 피부뽕 모양에 그저 그리로도 물 질질 저리로도 물 질질 그저 이 살이 이처럼 마르지 않고 질질 아.}

10701 #1 경 헤영 그자 그 뽕와니 업쓰난 그랜는가.{그렇게 해서 그저 그 병원이 없으니까 그랬는가.}

10701 #1 그 서귀포에도 그 이젠 이로광장 말고 아래 제주은행 아페 강이워니라고 이썬고 그 연나레 차부가 그 제주은행 아페 차부 헐 때 그때까지는 그 사라미 사라는다.{그 서귀포에도 그 이제 일호광장 말고 아래 제주은행 앞에 강의원이라고 있었고 그 옛날에 차부가 그 제주은행 앞에 차부 할 때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살았는데.}

10701 #1 그 강의원도 일꼬 허는디 도니 업써가지고 병워늘 몰테연 주건는가 어떻게든지 문둥뽕이 켈.{그 강의원도 있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해서 죽었는가 어떻게 한지 문둥뽕이 켈.}

10701 @1 음.{음.}

10701 #1 이제도.{이제도.}

10701 @1 독컨 거예?{독한 거요?}

10701 #1 독컨 거고. 애기덜신디 그 욱커는 건또 그 말허영 욱커민 아주 그냥 나쁜 걸로 이제 어른더른 생각험따다.{독한 것이고. 아기들한테 그 욱하는 것도 그 말해서 욱하면 아주 그냥 나쁜 것으로 이제 어른들은 생각합디다.}

10701 @1 예.{예.}

10703 @1 예, 조쭈다. 이버는네 음식글 잘몬 머거서 생기는 병드리라예. 음식글 잘몬 머거서 예를 들면.{예, 좋습니다.이번은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예를 들면.}

10703 #2 연치는 거.{엷히는 것.}

10703 @1 예, 두드레기도 생길 쭈도 일꼬 아까 예 여자 연칠 쭈도 일꼬. 막 갑작기 배가 뒤틀리는 경우도 일쫓 꺼고예.{예, 두드레기도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예 여자 엷힐 수도 있고, 막 갑작기 배가 뒤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10703 #1 말 몬 깅른 정도도 이서신디.{말 못 말한 정도도 있었는데.}

10703 @1 예, 게몬 걸 한번 ㄱ라보십써? 어떻 어떤.{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10703 #1 든감 머거따네 저 언처노난 말도 몬 깅르고.{단감 먹었다가 저 엷혀놓으니까 말도 못 말하고.}

10703 #2 겐 뭘 머꼬렌?{그래서 무엇 먹었다고?}

10703 #1 든감. 동호.{단감. 동호.}

10703 #2 아니, 아니 야글 뭘 머근지. 병우네 간쭈.{아니, 아니. 약을 무엇 먹은 지. 병원에 갔지.}

10703 #1 병우네 간쭈게.{병원에 갔지.}

10703 @1 음. 아, 든감 머건네?{음. 아, 단감 먹어서요?}

10703 #2 든감.{단감.}

10703 #1 든감 머건는데 아기덜 몬 불러드리고 이젠 주근 걸로 허연 말 몬 ㄱ르나네 글로 써네 각씨신디 배완 다 허렌 해연 난 이젠 주글 꺼니까 마를 몬 ㄱ를 건너까 헐젠 해나신디. 이제도 그런 닐.{단감 먹었는데 자식들 몽땅 불러들이고 이제는 죽은 것으로 해서 말 못 말하니까 글로 써서 각시한테 보여서 다 하라고 해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말을 못 말할 것이니까 했다고 했었는데. 이제도 그런 일.}

10703 @1 갑자기 체헌 거라마씨?{갑자기 체한 거예요?}

10703 #2 체해난.{체했었어.}

10703 #1 감, 든감 머건는디 갑짜기 그냥 의시글 일러부러 가지고.{감, 단감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 가지고.}

10703 @2 사례 드런.{사례 들어서.}

10703 #1 국쭈 머거도 체해곡 그런 사름더른냥 #1 게난. #2 따시 몬 먹넌 그건. 머경 체해난 사름.{국쭈 먹어도 체하고 그런 사름들은요 #1 그러니까. #1 다시 못 먹는다고 그것은. 먹어서 체했던 사름.}

10703 #1 게난 각씨 존소리허난 감\* 감 ㅇ ㄴ 거 자기 머건 언쳐나난 간 꼬너부난 날리가 나나쭈게.{그러니까 각시 잔소리하니까 감\* 감 연 거 자기 먹어서 얹혀나니까 가서 잘라버리니까 난리가 났었지.}

10703 #1 (웃음) 게난 이제도 뭐 이 잘 몬 머경 언치는 룰른 마는디 그 약꼬로 썬 뭐 벨.{(웃음) 그러니까 이제도 뭐 이 잘 못 먹어서 얹히는 율은 많은데 그 약으로써는 뭐 벨.}

10703 #2 손 따쭈게. 손.{손 땀습니다. 손.}

10703 #1 으?{으?}

10703 #2 손 따쭈게.{손 땀습니다.}

10703 @1 예, 손 따고?{예, 손 따고.}

10703 #2 예.{예.}

10703 @1 예.{예.}

10703 #2 썰로 막.{실로 막.}

10703 #1 건 썰로 무경 썬 바늘로 피헌 거, 그건 호뭇 여점 헌 거 그영 헌 땀헐쭈.{그것은 실로 묶어서 저 바늘로 피한 것, 그것은 조금 잠깐 한 것 그렇게 할 때 했지.}

10703 #2 아 계란 야튼 연친 건 경허명 경혜쭈다게. 손 탄.{아 그러니까 하여튼  
없힌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 따서.}

10703 @1 예. 마니레 뭐 잘몬 머거가지고 설싸허게 댜면 뭘 머건 구완해신고  
예? 어떤 구완 험니까? 병워네 가기 저네마씨?{예. 만일에 뭐 잘못 먹어서 설사하  
게 되면 무엇을 먹어서 구완했는가요? 어떻게 구완합니까? 병원에 가기 전예요?}

10703 #2 설싸허민 우린 독썰기도 술망 먹고. 지슬.{설사하면 우리는 계란도 삶  
아서 먹고. 감자.}

10703 @1 예.{예.}

10703 #2 지슬도 술망 먹꼭 경허명 임신 경헨쭈다.{감자도 삶아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임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10703 @1 음.{음.}

10703 #2 설싸엔. 경혜그네 독썰기 세 개. 술몬 거 혼 사 세 개 머그민 존네.{설  
사에는. 그렇게 해서 계란 세 개. 삶은 거 한 사 세 개 먹으면 좋다고.}

10703 @1 네.{네.}

10703 #1 꿀도 머그민 존넨 허영 꿀도 머건꼬.{꿀도 먹으면 좋다고 해서 꿀도  
먹었고.}

10703 #2 경혜연.{그렇게 했어.}

10703 #1 사이다에 저 이제 사이다는 피료 언는 춤 뒹헌디 연나레 나온 사이다  
는.{사이다에 저 이제 사이다는 필요 없는 참 뒹한데 옛날에 나온 사이다는.}

10703 #2 독썰기?(계란?)

10703 #1 노린자를 거즘 익키다시피 헨는디 그 노린자에 사이다 호농허민 그 사  
이다가 탁 트민 춤 바닷물 부끄든 와시시 헨는디 이제 사이단 뒹 심심 그냥.{노른  
자를 거의 익히다시피 했는데 그 노른자에 사이다 혼용하면 그 사이다가 탁 트면  
참 바닷물 넘치듯 와시시 했는데 이제 사이다는 뒹 심심 그냥.}

10703 @1 (웃음).

10703 #1 그러케까지도 허명 그 춤 설싸허민 헨는디. 이제 사이다엔 독썰기 낱  
땅 그 뒹 댜도 아널 꺼네. 호농이 댜질 아널 꺼우다.{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참 설사  
하면 했는데. 이제 사이다에는 계란 넣었다가 그 뒹 되지도 않을 것인데. 혼용이 되  
질 않은 겁니다.}

10703 @1 게른 뒹 머경 갑짜기 뒹 뒹틀린다고 험니까? 요샌 말로 하면 토사광  
난.{그러면 뒹 먹어서 갑짜기 뒹 뒹틀린다고 합니까? 요새 말로 하면 토사곽란.}

10703 #2 배 쏘아.{배 쏘아.}

10703 @1 예, 예.{예, 예.}

10703 #2 그거 광나니.{그것 광란.}

10703 @1 예. 광나니. 어떻 행 구완해신? #2 광나니.{예. 광란. 어떻게 해서 구  
완했는? #2 광란.}



10703 #2 광나니 할망덜 광나니. 받떠 가당도 나도 경 해난쭈다게. 짝 꼬주우민  
냥 그덜 가질 몬터여.{곽란. 할머니들 곽란. 밭에 가다가도 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짝 꽃히면 거기를 가지를 못해.}

10703 @1 음.{음.}

10703 #2 그디 아장. 경 허민 어멍이 베또롱.{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면 어머니  
가 배꼽.}

10703 @1 예.{예.}

10703 #2 으, 해뜰랑 갈라지민 베꼬베 손 꼭 띠무랑 뱅뱅허민 광나기가 마즈민  
그 베꼬비 막 손가락띠레 가마진덴.{아, 해뜰 뒤집어지면 배꼽에 손 꼭 디밀어서 뱅  
뱅하면 곽란이 맞으면 그 배꼽이 막 손가락으로 감아진다고.}

10703 @1 아.{아.}

10703 #2 경 허영양, 웨로 일곱 뻔 으다에 일곱 뻔헤영 돌르민 오꼴 조아부러.  
{그렇게 해서요, 왼쪽으로 일곱 번 오른쪽으로 일곱 번해서 두르면 그만 좋아버려.}

10703 @1 음.{음.}

10703 #2 그게 씨 주겨부는 거. 경 헨 나도 으라 번 경해나쭈다.{그것이 씨 죽  
여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나도 여러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3 @1 아 으라 번 헨썰쭈나예?{아 여러 번 했었군요?}

10703 #2 예. 건까 광나니 들리미엔.{예. 그것이 곽란 들림이라고.}

10703 @1 네 광나니 들림예?{네, 곽란이 들림요?} #2 예.{예.}

10703 #2 경해네 경허연 구완을 해나신디.{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완을 했  
었는데.}

10703 @1 음.{음.}

10704 @1 그 다으메 음시글 먹꼬예 예를 들면 먹따가 사례 들릴 쭈도 일찌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요 예를 들면 먹다가 사례 들 수도 있지요?)

10704 @1 개역 먹따그네 ㄴ길 때 사례 들기도 허고.{개역 먹다가 갑실 때 사례  
들기도 하고.}

10704 #1 물도 먹땅 살레 든다.{물도 먹다가 사례 든다.}

10704 @1 예.{예.}

10704 #1 게영 무레 체헌 건.{그래서 물에 체한 것은.}

10704 #2 야기 업썸.{약이 없어.}

10704 #1 춤 약또 업따고 이제도 이 연나리나 이제나 허는데 야기 업따.{참 약  
도 없다고 이제도 이 옛날이나 이제나 하는데 약이 없다.}

10704 @1 그 다음 톨꼭찌를 뭐 먹판 톨꼭찌 헐 때도 생기지 아녜니까? 막 매운  
걸 멩는다든가 허면?{그 다음 딸꼭찌를 뭐 먹다가 딸꼭질 할 때도 생기지 않습니  
까? 막 매운 것을 멩는다든가 하면?}

10704 #1 톨꼬지?{딸꼭질?}

10704 @1 예. 꼬지.{예, 딸꼭질.}

10704 #2 툇각 툇각허는 거예?{딸꾹 딸꾹하는 거요?}

10704 @1 예.{예.}

10704 #2 도둑. 늑몰르로 머그나네 경 헨쎄 허멍 경 ㄱ라난쑤다. 속땀.{도둑. 남  
모르게 먹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속담.}

10704 @1 늑몰르게 머거부런예?{남몰르게 먹어버렸다고요?}

10704 #2 늑몰르게 확커민.{남몰르게 확하면.}

10704 #1 도둑질 헨따.{도둑질 했다.}

10704 #2 늑, 늑몰르게 먹쎄 허나네 툇곡찌 난찌. 경.{남, 남몰르게 먹으려고 하  
니까 딸꾹질 났지. 그렇게.}

10704 @1 음.{음.}

10704 #2 경 ㄱ라그네.{그렇게 말해서.}

10704 #2 도둑질 해 머건찌.{도둑질 해 먹었지.}

10704 #2 쉼김에 누게가. 나가 툇고지헤가민 으피 싸르미 너 아무거 아멩 헨찌  
헤영 거진말 허여불민 어서져.{속임에 누구가. 내가 딸꾹질헤가면 옆의 사람이 너  
아무거 아무렇게 했지 해서 거짓말 해버리면 없어져.}

10704 @1 음.{음.}

10704 #2 그게. 툇곡질. 너 쉼기나네 아니엔 허멍 나 아녀ㄱ렌 막 커주. 막 너  
아멩 아멩 헨찌 허민 난 아녀ㄱ렌 언제 경 헤시닌 막 커당 보민 툇곡찌가 느려가부  
러.{그것이. 딸꾹질. 너 속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나 안했다고 막 하지. 막 너 아무  
렇게 아무렇게 했지 하면 나는 안 했다고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막 하다고 보면 딸  
꾹질이 내려가버려.}

10704 @1 음.{음.}

10704 #2 경 헤그네 경 헤날쑤다.{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4 @1 음.{음.}

10704 @1 그 다투메 뭇 마, 뭇 마니 먹거나 허면 썩 커지 아넌니깁예?{그 다음  
에 뭇 많, 뭇 많이 먹거나 하면 썩 하지 않습니까요?}

10704 #2 저 게틀루는 거?{저 트림하는 것?}

10704 @1 트림.{트림.}

10704 #1 트리미엔도 허곡 게틀루는 게틀루는 게 맞쑤.{트림이라고도 하고 트림  
하는 트림하는 게 맞지.}

10704 @1 예.{예.}

10704 #1 트림. 이제는.{트림. 이제는.}

10704 #2 엔나른.{옛날은.}

10704 #1 트림.{트림.}

10704 #2 게틀루는 거.{트림하는 것.}

10704 @1 예. 애기덜 뭇 어멍 전 다 머거지른 거.{예. 아기들 뭇 어머니 젖 다  
먹어지면 거.}

10704 @2 게틀레기힘니까?{트림합니까?}

10704 #2 게틀레기허는 거. 게틀럼쩌.{트림하는 것. 트림한다.}

10704 #2 나도 어린 때예.{나도 어릴 때예.}

10704 #1 게틀루기.{트림.}

10704 #2 조케 돌멍{조케 돌보면서.}

10704 #1 그건디 이젠.{그것인데 이젠.}

10704 #2 머거네 밥.{먹어서 밥.}

10704 #1 이제 싸름더른 트림험쩌 영허는디 엔나른.{이제 사람들은 트림한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은.}

10704 #2 켜커난.{꽤 하나까.} #1 게틀럼쩌.{트림한다.}

10704 #2 조근년 밥 파영 먹건쩌. 게틀와네.{작은년 밥 많이 먹었다. 트림해서.}

10704 @1 아 게 케어하네예?{아 게 껌하네요?}

10704 #2 배 부나넨 느 켜 험시네.{배 부르니까 너 껌 하고 있네.}

10704 @1 예.{예.}

10704 #2 (웃음) 우리 오라방신디 나 그 말 드런.{우리 오라버니한테 나 그 말 들었어.}

10704 @1 예, 예.{예, 예.}

10704 #2 일곱 쑈레.{일곱 살에}

10704 @2 일곱 쑈레?{일곱 살에.}

10704 #2 나 일곱 쑈레 조케 돌멍 경 7란.{나 일곱 살에 조카 돌보면서 그렇게 말했어.}

10704 @1 애기덜 경끼도 허지예?{아기들 경기도 하지요?}

10704 #1 정끼가 또 거 또 참 므순 거.{경기가 또 거 또 참 무서운 거?}

10704 @1 거 침 마치레 땡겔쑈가?{거 침 맞히러 다녔습니까?}

10704 #1 예. 침 마치곡 그 우리 손지도 그때 그 완 이디 완 껌짜기 그 두 설 아니민 세 설 쑈밀 테주.{예. 침 맞히고 그 우리 손자도 그때 그 와서 여기 와서 껌 자기 그 두 살 아니면 세 살 쑈일 테지.}

10704 #2 두 설.{두 살.}

10704 #1 껌짜기헤네 춤 서귀포 땡와넨 가난 뭘 간호위는 하하하게 우스멍 껌꾸로 시멍 물러레 콧 둥간 들런.{갑자기해서 참 서귀포 병원에 가니까 뭘 간호사는 하하하게 웃으면서 껌꾸로 껌아서 물에 콧 담가서 들어서.}

10704 #2 잠진머리 탁탁 두르런.{볼기쑈 탁탁 두들겨서.}

10704 #2 아 뭘 판척커는 걸.{아 뭘 껌끗한 것을.}

10704 @1 음.{음.}

10704 #1 완전 그냥 (웃음) 주거가지고.{완전 그냥 (웃음) 죽어가지고.}

10704 #2 침 마쳐야 침.{침 맞혀야 침.}

10704 #1 아이, 경허연 내중예.{아니, 그렇게 해서 나중예.} #2 거기가양 경끼

셴 아긴 요디가 푸려.{거기가요 경기 셴 아기는 요기가 푸려.}

10704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 #2 요디가 푸리민 야이는 나민 야인 침 마쳐야 헐 아이여. 열다섯깁장. 경혜영 요디가 푸린 나이는 정끼가 하마씨.{요기가 푸리면 애는 낳으면 애는 침 맞혀야 할 아이다. 열다섯까지. 그렇게 요기가 푸린 아나는 경기가 많아요.}

10704 @2 여기 뭐렌 험니까?{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704 #2 예 콜쎄.{아, 미간.}

10704 @1 그 꺼멍헌 걸 머엔 험니까?{그 꺼먼 것을 뭐라고 합니까?}

10704 #2 콜쎄 거멍허연, 허연쎄만 허열쥬. 무신 거예 곤는 게.{콧대 거메서, 했다고만 했지. 무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10704 @2 뭐 콜쎄 푸리믄.{뭐 미간 푸르믄.}

10704 #2 정끼가.{경기가.}

10704 @2 음.{음.}

10704 #2 쎄니가 야이는 이디 콜쎄가 이거 거멍허연 이거 침 하영 마자야키여. {세니까 애는 여기 미간이 이거 거메서 이거 침 많이 맞아야겠다.}

10704 @1 음.{음.}

10704 #2 경 허연 잘락잘락 노래곡냥?{그렇게 해서 잘락잘락 놀라고요?}

10704 @1 음.{음.}

10704 #2 아기더리. 뉘땅이라도 탁탁 줍자당 경 노래고.{아기들이 누웠다가라도 탁탁 잠자다가 그렇게 놀라고.}

10704 @1 추물락추물락께?{흠칫흠칫요?}

10704 #2 예. 경 허여.{예. 그렇게 해.}

10704 #1 이제도 병원 마네도 아기덜 뭐 춤 혼 군데 안 사난 허지 벨 아기가 다 일쥬.{이제도 병원 많아도 아기들 뭐 참 한 군데 안 사니까 하지 벨 아기가 다 있지.}

10704 #2 치를 마치민 어떠 아녀. 노래는 건또 어서지곡 그치룩케신디.{침을 맞히면 어떻게 앓아.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것처럼 했는데.}

10704 @1 게난 우리 큰아덜도 침 맞치젠 담배 담배 한 갑 사가믄 뽕쥬게. 침 마치는 거.{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도 침 맞히려고 담배 담배 한 갑 사가면 뽕지요. 침 맞히는 거.}

10704 @2 (웃음) 으 엔나레 침바치.{아, 옛날에 침쟁이.}

10704 @1 (웃음) 꼭꼭예. (웃음){꼭꼭예. (웃음)}.

10704 @1 침바치안티예. 게서 담배 하영 갑따 쥬쥬다.{침쟁이한테요. 그래서 담배 많이 잤다 쥬습니다.}

10705 #2 예. 엔나른냥 경 정끼를 마니 해서마썸. 이제보단.{예. 옛날은요 그렇게 경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보다는.}

10705 #2 우리 집 싸르믄 침 하영 마진 사르미난 (웃음) 워니린 하르방신디 마

질 때도 담배나 혼 갑 상 가서? 그 어떻게 허연? 돈 쥘 해신가?{우리 집 사람은 침 많이 맞은 사람이니까 (웃음) 원일이 할아버지한테 맞을 때도 담배나 한 갑 사 갔어? 그 어떻게 했어? 돈 쥐서 했는가?}

10705 #2 \* 경 행 가주 난 그냥은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 난 그냥은 안 갑니다.}

10705 #1 뭐 부치곡 찌 무시 거 뜸판지.{뭐 붙이고 저 무슨 것 부항단지.}

10705 #2 허리 아픈 디.{허리 아픈 데.}

10705 @2 음.{음.}

10705 #2 애기 나뉘 일허곡 일허곡 허난.{아기 낳고 일하고 일하고 하니까.}

10705 #1 그 뜸판지 부치는 건또.{그 부항단지 붙이는 것도.}

10705 #2 여기서 아기가 아뎡 우러도 도라눅찌 몰터여.{여기서 아기가 아무리 올어도 돌아눅지 못해.}

10705 @2 음.{음.}

10705 #2 영 쪼끔쪼끔 허믄 도라뉘 하도 굵굽퍼난 그 하르방신디 도라올 때 이제 주거부런쭈마는 하르방.{이렇게 조금조금 하면 돌아누워서 하도 갑갑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이제 죽어버렸지만 할아버지.}

10705 #1 베염 무렁 침 백 뺨 마지곡.{뺨 물려서 침 백 번 맞고.} #2 일본.{일본.}

10705 #2 일본 가도 이거 나가 허여날찌.{일본 가도 이것 내가 했었다.}

10705 #1 뜸.{뜸.}

10705 #2 다 건또 스리여.{다 그것도 살이다.} #1 뜸판지 춤.{부항단지 참.}

10705 #1 마니.{많이.}

10701 #1 \*\*\* 스런디이, 뽕 봐나네 부끄러완 으피 살단 드라나부러. 다른 디 이사가부러라 경 허멍.{\*\*\* 살인데, 뽕 봐나니까 부끄러워서 옆에 살다가 달아나버려. 다른 데 이사가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10705 #1 이제 영 해영양 일로.{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리로.}

10705 #2 막 케단.{막 해다가.}

10701 #1 서월대학병원.{서울대학병원.}

10705 #1 우리들병원. 서우레서 안 뎡긴 디 어시 아이구.{우리들병원. 서울에서 안 다닌 데 없이 아이고.}

10705 #2 요레 와네 뜸판지.{요리로 와서 부항단지.}

10705 #2 이 제주도도.{이 제주도도.}

10705 #2 침 놔그네 뜸판지 탁 부치민냥.{침 놓아서 부항단지 탁 붙이면요.}

10705 #1 한마음병원 할라의료원.{한마음병원 한라의료원.}

10705 #2 구진 피가 막 카영 나와. 경 허곡 커곡 해네 혼 으나쁜 번 허나네 조아부런.{긋은 피가 막 많이 나와. 그렇게 하고 하고 해서 한 여남은 번 하니까 좋아 버렸어.}

10705 @1 음.{음.}

10705 @2 음.{음.}

10705 #2 경 험 허리가 흐뎡 나사네 도라.{그렇게 해서 허리가 조금 나아서 돌아.}

10705 #1 수술도 조아부런. 도라 수수를.{수술도 좋아버렸어. 돌아 수술을.}

10705 #2 게난 침 마장 조는 거도 해주게.{그러니까 침 맞아서 좋은 것도 많지.}

10705 #1 목숨 질기난 오래 사람쥬.{목숨 질기니까 오래 살고 있지.}

10705 @2 음.{음.}

10705 @1 게른 게른 옛날 그 딸 아덜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봅쥬예. 흥역 케나 쭈장? 흥역.{그러면 그러면 옛날 그 딸 아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지요. 흥역 했었습니까? 흥역.}

10705 #2 흥역커곡 말곡.{흥역하고 말고.}

10705 #1 아이고 그거시.{아이고 그것이.}

10705 #2 택 혼 버네양 세 개 이젠 흥역 미를 방지덜 허는 따문.{딱 한 번에요 세 개 이제는 흥역 미리 방지들 하는 따문.}

10705 @1 예.{예.}

10705 #2 아녀는디양 세 개씩 커여.{아니 하는데요 세 개씩 해.}

10705 #2 애기가 하노난. 세 개씩 커영. 혼나 몬 죽판 사라나곡.{아기가 많으니까. 세 개씩 해서. 하나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10705 #2 애기 이 지베도 가불고 이디도 가불고 현디 이 가운데 아자네 경미. 몬 주건.{아기 이 집에도 가버리고 여기도 가버리고 하는데 이 가운데 앉아서 경미. 거의 죽어서.}

10705 #2 나 나가는 걸또 몰라. 경 허민 계속 상뽀를 끈지 아녀서마씨. 나가.{나 나가는 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 계속 향불을 끊지 않았어요. 내가.}

10705 @1 @2 으음.{으음.}

10705 #2 상뽀.{향불.}

10705 #2 상뽀 피왕 아장 그거 몬 메기라가민 또 이젠 생꼬주마는. 상.{향불 피워서 앉아서 그거 거의 없어져가면 또 이제는 향이지만. 향.}

10705 #2 그걸로 피왕 아장 계속 그치록 허명 나가구쟁 나가도 울지도 아녀곡 경 헤네 가이 살런.{그것으로 피워서 앉아서 계속 것처럼 하면서 나가고 싶어서 나가도 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개 살렸어.}

10705 #2 삼덕빠지로 아파신디 두 받뎡 주거불고 두 받뎡 주거불고 우리 거만 사란.{삼덕빠지로 아팠는데 두 군데는 죽어버리고 두 군데는 죽어버리고 우리 것만 살았어.}

10705 @1 무슨 바띠로 아판다마씨?{무슨 군데로 아팠다고요?}

10705 #2 세 받뎡, 삼덕빠지.{세 군데, 삼덕바지.}

10705 @1 아아.{아아.}

10705 #2 삼덕빠지.{세 군데.}

10705 #1 이 아페 허곡 우리 형님네 두에 허곡.{이 앞에 하고 우리 형님네 뒤에 하고.}

10705 @1 여기 삼 더글?{여기 세 군데를?}

10705 #2 예.{예.}

10705 #2 경 허연.{그렇게 해서.} #1 홍여글 서이가 다.{홍역을 셋이가 다.}

10705 #1 다 현 건디.{다 한 것인데.} #2 세 개.{세 개.}

10705 #2 세 개가 세 지비 헤신디 우리 아이만 사란.{세 개가 세 집이 했는데 우리 아이만 살았어.}

10705 @1 음음.{음음.}

10705 #2 주건. 게난 성 어서부나네 이제 성님네 지비 간 아방이 무더웁 오나냥 몬 주거가. 가이 간 무더웁 오난 애기가 몬 주거가.{죽었어. 그러니까 형 없어버리니까 이제 형님네 집에 가서 (아기) 아버지가 물어두고 오니까요 거의 죽어가. 개 가서 물어두고 오니까 아기가 거의 죽어가.}

10705 @2 아 여기도.{아 여기도.}

10705 #2 @2 음.{음.}

10705 #2 비런.{부정타서.}

10705 @2 음.{음.}

10705 #2 게난 이젠 이레 드러오지 마랑 춤 모욕커곡 상까지 무레 둥가그네 모욕커고 커영 다른 디레 가그네 이레 드러오지 맙쎌.{그러니까 이제는 이리로 들어오지 말고 참 목욕하고 향가지 물에 담가서 목욕하고 해서 다른 데로 가서 이리로 들어오지 마십사고.}

10705 #2 가이 몬 주거가는 거 이제 살런 시에 간 사람쭈게.{개 거의 죽어가는 거 이제 살려서 시에 가서 살고 있지.}

10705 @1 음.{음.}

10705 #2 경 허연, 경 허연 살려나곡 다른 건덜토양 몬 주거가가도 어버그네 그 홍역킬 때에 송헌텐 해도 어버그네 내 팡팡 나명 밥퍼곡 드러 해도양 안 주건.{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렸었고 다른 것들도요 거의 죽어가가도 업어서 그 홍역 할 때에 흥본다고 해도 업어서 연기 팡팡 나면서 밥하고 마구 해도요 안 죽었어.}

10705 @1 음.{음.}

10705 #2 그거 하나만 경 헐쭈. 주그렌 그자 죽고씨고커영 일만 허젠 경 해도양 다른 건떠른 아\* 어뎡 아넵따다.{그것 하나만 그렇게 했지. 죽으라고 그제 죽든말든 해서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해도요 다른 것들은 안\* 어떻게 안 합디다.}

10705 @1 음.{음.}

10705 #2 게민 몬 해나민양 손 내멩 해여, 손.{그러면 거의 해나면 손 냄이라고 해, 손.}

10705 @1 예, 손 내다예?{예, 손 내다요?}

10705 #2 심방 비러당.{무격 빌려다가.}

10705 @1 예.{예.}

10705 #2 손 안 내여불민 도라온텐. 재불 도라왕 또 헌텐. 헌 아이가.{손 안 내 버리면 돌아온다고. 재벌 돌아와서 또 한다고. 한 아이가.}

10705 #2 경 허민 이제 심방 비러다그네 막 커민 이젠 손 내엌젠. 경 허곡 경 허명 사람쭈다.{그렇게 하면 이제 무격 빌려다가 막 하면 이젠 손 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705 @1 게난 경미 헐 때도 손 냅떼가?{그러니까 경미 할 때도 손 냅디까?}

10705 #2 예?{예?}

10705 @1 손 냅떼가?{손 냅디가?}

10705 #2 손 냅쭈게.{손 냅지.}

10705 @1 아 겐 건 어떻 허는 겨우파?{아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5 #2 심방 비러당.{심방 빌려다가.}

10705 @1 네. 막 큰 굳 텀니까?{네. 막 큰 굿 합니까?}

10705 #2 아니.{아니.}

10705 #1 아이고.{아이고.}

10705 #2 그냥.{그냥.}

10705 @1 조근. 말명만?{작은. 말명만?}

10705 #1 말명으로.{말명으로.}

10705 #2 말로만 영 해연 영영 애기 할망에 영 허영.{말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기 할머니에 이렇게 해서.}

10705 #1 할망쌍 낳으네.{할머니상 놓아서.}

10705 #2 이제 도라가부러야 되도라오지 몰터게.{이제 돌아가버려야 되돌아오지 못하게.}

10705 #1 음.{음.}

10705 #2 경 헤그네 그자 말로만 아자그네.{그렇게 해서 그자 말로만 앉아서.}

10705 @1 예, 말명예?{예, 말명요?}

10705 #2 예, 심방이.{예, 무격이.}

10705 #1 보시에 메 거리곡 사바레 쏘 노코 썰 노코 돈 노코.{보시기에 메 뜨고 사발에 쌀 놓고 실 놓고 돈 놓고.}

10705 #2 돈 노코 경 헤그네.{돈 놓고 그렇게 해서.}

10705 #1 간단.{간단.}

10705 #2 내불지 아녀민 또 도라와그네 아피 헌 아이로부터 두불 또 허여갑쭈기. 게는 따문 소늘 내여부러야.{내어버리지 않으면 또 돌아와서 앞에 한 아이로부터 두벌 또 해가지요. 그러는 때문에 손을 내어버려야.}

10705 @2 그치록 두불 헌 아이드리 이서마씨?{그처럼 두벌 한 아이들이 있어요?}



10705 #2 두불 허여.{두벌 해.}

10705 #1 겨민 대략 가부런쭈게.{그렇게 하면 대략 가버렸지.}

10705 @2 음.{음.}

10705 #2 엔나른 그거세 하영 갇쭈게. 저디 무덤 빈지롱헤난 게 그 그때 간 거 아이우파?{옛날은 그것에 많이 갔지. 저기 무덤 줄지어있는 것이 그 그때 간 것 아 닙니까?}

10705 #1 길ㄱ. ㄴ떠나 뭐 좀 시청 땅이 돼든지 부락 땅이 돼든지 공지 됐던 맨 ㄹ 총이란디 지금 ㄹ총해가지고 막 그 팔리해가지고 현 사르른 다 사망헐쭈다게.{길 가나 뭐 좀 시청 땅이 되든지 마을 땅이 되든지 공지 된데는 맨 아총이었는데 지금 아총해가지고 막 그 팔리해가지고 한 사람은 다 사망했습니다.}

10705 @1 음.{음.}

10705 #2 그 막 그 ㄹ총 현 우에 굴나무도 시머불고 그거 파괘 질루고 현 사름 더른 다 사망해서.{그 막 그 아총 한 위에 굴나무도 심어버리고 그거 파괘 시키고 한 사람들은 다 사망했어.}

10705 @1 음.{음.}

10705 #2 연처그네 금퍼게 막 아이가 느란털 때 막 춤 춰야 돼여.{엎혀서 금하 게 막 아이가 나른할 때는 막 춤 춰야 돼.}

10705 @1 음.{음.}

10705 #2 우리 흐루기 이디 온 아털. 가이가 네 서레 감저뽕때기 술른 거 그거 를 막 머거. 아잔.{우리 전에 여기 온 아들. 개가 네 살에 절간고구마 삶은 거 그것 을 막 먹어. 앉아서.}

10705 #2 드러 즈진즈진 망 머건게마는 흐뽀 시난 뉘. 손바리 느란테부런.{마구 조진조진 막 먹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누웠어. 손발이 나른해버렸어.}

10705 #2 계난 뭐 차가 심니까? 무시거 험니까?{그러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무슨 것 합니까?}

10705 #2 저디 나가야 차는 혼 뉘 씨가네 혼나 이시나마난 헐 댜디.{저기 나가 야 차는 한 몇 시간에 하나 있으나마나 할 때인데.}

10705 #2 어버네 이젠 그 노를 이젠 춤추명 이젠 저 한질레 이젠 막 지랭이 이 제 정신 어서노난 손도 느란 발도 느란터난 허난 지랭이 어버ㄱ정 베민 영 축치곡 허명 간.{엎어서 이젠 그 놈을 이젠 춤추면서 이젠 저 큰길에 이젠 막 늘어지게 이 제 정신 없어놓으니까 손도 나른 발도 나른하니까 늘어지게 엎어가지고 무거우면 이렇게 추키고 하면서 갔어.}

10705 #2 아이, 한질레 강 부리난 판칙케부런.{아니, 큰길에 가서 부리니까 깨끗 해버렸어.}

10705 @1 으음.{으음.}

10705 #2 계난 그거시 느려가분 거라.{그러니까 그것이 내려가버린 거야.}

10705 @2 음.{음.}

10705 #2 연철판.{엎혔다가.}

10705 @1 춤추니까.{춤추니까.}

10705 #2 예. 막 이 춤추멍 이젠 그렐 간 톱 부리난 아이가 판칙허영. 체 내레 가젠.{예. 막 이 춤추면서 이젠 그리로 가서 톱 부리니까 아이가 깨끗해서. 체 내러 가려고.}

10705 @1 음.{음.}

10705 #2 경 허난양 연친 건 아멩헤도 영 아이를 막 축치곡 등도 두드리곡 경 해줘야.{그렇게 하니까요 엎힌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를 막 추키고 등도 두들기고 그렇게 해줘야.}

10705 @1 예.{예.}

10701 @1 혹시 폴터는병? 학찌리라고 허는 거예.{혹시 학질? 학질이라고 하는 것요.}

10705 #2 학질병이주. 곧쎄 ㄴ른 거. 그거 구진병.{학질병이주. 아까 말한 거. 그거 궂은 병.}

10705 @1 예.{예.}

10705 #2 구진병 그거 거시양 놀래곡 저 녀 낱 거.{궂은 병 그것 그것이요 놀라고 저 녀 낱 거.}

10705 @1 예.{예.}

10705 #2 막 녀 마니 난 나이 내불며는 그거시 웨여.{막 녀 많이 난 아이 내버리면 그것이 돼.}

10705 @1 예.{예.}

10705 #2 그거시 웨며는 쥔 독컨 거. 사름 빼 손 거.{그것이 되면 쥔 독한 것. 사름 빼 사름 것.}

10705 @1 예.{예.}

10705 #2 그거는 구혈 쭈가 어서.{그것은 구할 수가 없어.}

10705 @1 음.{음.}

10705 #2 그걸 무레 탕 물르로 메기면 거는 당장 떠러지는 병.{그것을 물에 타서 모르게 먹이면 그것은 당장 떨어지는 병.}

10705 #2 또 얘기 나나근데 그 방식 일찌 아녀우파? 그거 낭뿌레 손 거.{또 아가 낱은 다음에 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장작불에 사름 거.}

10705 #2 그거 허여그네 그 재. 재 허여그네 이제 스랑도 그걸또 메기곡.{그거 해서 그 재. 재 해서 이제 살라서 그것도 먹이고.}

10705 #2 이제 단지에 그거 다마그네 땅에 놔두민 이제 뭐 나일론 저런 통 말고 단지 연날 단지에 다망 두경 마진 거 더경 땅 팡 무덩 놔두민 그제 빨강 청주 웨여.{이제 단지에 그거 담아서 땅에 놔두면 이제 뭐 나일론 저런 통 말고 단지 옛날 단지에 담아서 두경 맞은 것 덮어서 땅 파서 묻어서 놔두면 그것이 빨강 청주 돼.}

10705 #2 경 허민 그거 메겨도 난넨.{그렇게 하면 그것 먹어도 낫는다고.}

10705 @1 음.{음.}

10705 #2 경 허난양 그 병은 켈 모진 거난 그치록 모진 거만 메기렌 헌텐.{그렇게 하니깐요 그 병은 제일 모진 것이니까 그처럼 모진 것만 먹이라고 한다고.}

10705 @2 거 학찌리우파 간지리우파?{거 학질입니까? 간질입니까?}

10705 #1 그치록커연 구완헨산디.{그처럼 해서 구완해서인지.}

10705 @2 건 간질뽕이고.{그것은 간질병이고.} #2 간질 학질 ㄴ튼 거 아니?{간질 학질 같은 것 아니?}

10705 @2 아니, 아니. 가을 학찌른 막 저기 추위간꼬 막 언, 얼어간꼬 한여르메도 막.{아니, 아니. 가을 학질은 막 저기 추워가지고 막 추워, 추워가지고 한여름에도 막.}

10705 #2 거는 간지레 멍는가? 거.{그것은 간질에 먹는가? 그것.}

10705 @1 예. 건.{예. 그것은.}

10705 @2 아까는 간질 저기 영 쓰러정 입 거품 허는 게 이제 간지리고 학찌른 한여르민데도 막 추워가지고.{아까는 간질 저기 이렇게 쓰러져서 입 거품 하는 것이 이제 간질이고 학질은 한여름인데도 막 추워가지고.}

10705 @1 예를 들면 썸 모기 무렁 걸리는 병이라고 허는 겁쥬.{예를 들면 저 모기 물려서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지요.}

10705 @2 막 추웁으네 한여르메도 솜니물 더꺼야 똥텐 허영으네 흐루 더웁땅 아니 흐루 헐땅 또 흐루 오고 허는 거.{막 추워서 한여름에도 솜이불 덮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 더웠다가 아니 하루 했다가 또 하루 오고 하는 것.}

10705 #2 거 감기뽕 아닌가? 감기.{거 감기 아닌가? 감기.}

10705 #2 학찌른 그건 안 드러봐꾸나?{학질은 그것은 안 들어봤구나?}

10705 #2 아니 그거는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

10705 @2 건 따른 거.{그것은 다른 것.}

10705 @1 게민 어떻허민 곰보 똥니까? 곰보. 어떻헌 거.{그러면 어떻게 하면 곰보 똥니까? 곰보. 어떻게 한 것.}

10705 #2 곰보?{곰보?}

10705 @1 어떻 허영 걸린 거마씨 ?{어떻게 해서 걸리는 것?}

10705 #2 곰보가 아까 그 우리 애기덜치록.{곰보가 아까 그 우리 아기들처럼.}

10705 @1 예, 홍역.{예, 홍역.}

10705 #1 홍역커게 연날 홍여그로 헤연 마니 곰보 똥열쥬.{홍역허게 옛날 홍역으로 해서 많이 곰보 되었지.}

10705 #2 조근홍여근 아니고 큰마누라. 이것이야 똥항긔. 이만씩 이만씩 영영 크게 나.{작은 홍역은 아니가 천연두. 이것이야 똥항긔.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렇게 크게 나.}

10705 #1 두드러기. 두드러기 모양에 영 붕울붕울붕울 난는데 그게 내중은 구완

웨민 드러가부니까.{두드러기. 두드러기 모양에 이렇게 붕울붕울붕울 났는데 그게 나중은 구완되면 들어가버리니까.}

10705 #2 승봐야.{홍봐야.}

10705 #2 승봐민 그게 파지명 그 닥찌를 일러져 파지명 이제 마치 종기.{홍보면 그것이 파지면서 그 딱지를 일으켜져서 이제 마치 종기.}

10705 #1 허멀 모양으로 웨열쭈게.{종기 모양으로 되었지.}

10705 #2 곰보.{곰보.}

10705 @1 음.{음.}

10705 #2 경 혜영 곰보 웨열쭈게 할망덜. 게난 연나른 곰보 할망더리 두망두망 이선쭈. 이제 섬쭈과? 이제 벙완 조아부난 어섬쭈게.{그렇게 해서 곰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그러니까 옛날은 곰보 할머니들이 틸틈이 있었지. 이제 있습니까? 이제 병원 좋아버리니까 없습니다.}

10705 #2 연나른 그런 할망더리 그치록 케연.{옛날은 그런 할머니들이 것처럼 해서.}

10705 @1 겐디 그거 할 때 보통 보면 그 게꼇꼇 머그면 꼭 곰보가 된다고예? {그런데 그거 할 때 보통 보면 그 바다에 갇 먹으면 꼭 곰보가 된다고요?}

10705 #1 아니 그런 마른 흰 거 안 가튼디 어떠튼.{아니 그런 말은 한 것 안 같은데 어떻든.}

10705 #2 개꼇 켜 개꼇떠 강으네 찢라지든지.{바다에 갇은 바닷가에 가서 잘라 지든지.}

10705 @1 아니면 보말기라든가.{아니면 고둥이라든가.}

10705 #2 소는, 소늘 쪼라져도 어디 쪼라진 때 구제기나 보말 소늘, 구제기나 보마리나 바당 꺾 머그면 그때에는 그 명구쟁이 저.{손은, 손을 잘라져도 어디 잘라 질 때 소라나 고둥 손을, 소라나 고둥이나 바다 갇 먹으면 그때에는 그 못이 저.}

10705 @1 예.{예.}

10705 #2 그 찢라진 디. 찢라진 디 명구쟁이가 저. 경 허연 그건 그치록 곤는 거.{그 잘라진 데. 잘라진 데 못이 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것처럼 말하는 것.}

10705 @1 음.{음.}

10705 #2 그거세.{그것에.}

10705 @2 아까 뜰항끝 헐짜느파예? 뜰항구시 뭉우파?{아까 천연두 했잖아요? 천연두가 뭐예요?}

10705 #2 뜰항구시 아까 그 마, 그 큰마누라.{천연두가 아까 그 마, 그 천연두.}

10705 @2 큰마누라를 뜰항구시렌 해. 천연두를 뜰항근.{천연두를 뜰항곳이라고 해. 천연두를 뜰항곳.}

10705 @1 음.{음.}

10705 @2 게른 아까 애기들 허는 홍여근 조근.{그러면 아까 애기들 하는 홍역은 작은.}

10705 #2 으, 홍역. 그건 홍역.{으, 홍역. 그것은 홍역.}

10705 @1 음.{음.}

10705 @1 그 다음 요기 막 아이가 부슬, 부을 때도 일찌예? 볼거리라고 허는 거예?{그 다음 요기 막 아이가 부을, 부을 때도 있지요? 볼거리라고 하는 것요?}

10705 #2 귀예?{귀예?}

10705 @1 예. 요 귀똥에 요만쯔메.{예. 요 귀밑에 요만쫘메.}

10705 #2 귀쫘지.{귀의 쫘기.}

10705 #1 으, 귀쫘지.{으, 귀의 쫘기.}

10705 #2 귀쫘지 난 거.{귀의 쫘기 난 것.}

10705 #1 귀쫘지 난.{귀의 쫘기 나서.}

10705 #1 그건또 상당히 아이가 켈로완 헐쭈. 이 귀쫘지.{그것도 상당히 아이가 괴로워했지. 이 귀의 쫘기.}

10705 @1 예. 켈 건 어떻 구완헐띠가? 병워네 가기 저넨.{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완합디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10705 #2 우리 애긴 경 아녀봐신디 어른, 어른 허는 건 받쭈다.{우리 아기는 그렇게 안해 봤는데 어른, 어른 하는 것은 봤습니다.}

10705 @1 으, 아 어르니마썸?{으, 아 어른이요?}

10705 #2 어른. 어르니 이디가 막 벌경허연 드랑허게 막.{어른. 어른이 여기가 막 벌개서 이리하게 막.}

10705 #1 귀쫘지 나민 어르니고 아이고 다.{귀의 쫘기 나면 어른이고 아이고 다.}

10705 #2 부무르켜게 막 커서.{부풀듯이 막 커서.}

10705 @1 예.{예.}

10705 #2 게민 췌피.{그러면 초피.}

10705 #2 췌핀 까시.{초피 가시.}

10705 @1 예.{예.}

10705 #2 췌핀 까시 해다그네 그걸로 꼭꼭 찢르나네 그거시 느나전 조아부런. {초피 가시 해다가 그것으로 꼭꼭 찢르니까 그것이 낮아져서 좋아버렸어.}

10705 @2 여, 여 귀예?{여, 여 귀예?}

10705 #2 예, 예.{예, 예.}

10705 #1 이 췌피 까시가 상당히 독컨 거. 저 사름 찢르민 저 독썩 인는ㄴ라. {이 초피 까시가 상당히 독한 것. 저 사람 찢르면 저 독성 있는지.}

10705 #2 게나네 할, 할망 허는 건 나가 봐난썸. 아기더른 우리 애기더른 경 아녀노난양.{그러니까 할, 할머니 하는 것은 내가 봤었다. 아기들은 우리 아기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요.}

10705 @1 음, 예.{음, 예.}

10705 #2 애기더른 주그라 살라 허영 허난양 큰 거시길 아녕 그자 기냥 썸쭈다.

으라 개라도 흐게 강 막 둥그리곡 커영.{아기들은 죽어라 살라 해서 하나까요 큰 거시기를 안 해서 그저 그냥 컷습니다. 여러 개라도 흙에 가서 막 굴리고 해서.}

10705 @1 흐게 막 둥그립떠가? (웃음).{흙에 막 굴립디가? (웃음)}

10705 #2 예.(웃음) 우산 하나 영 치지도 아녀그네 영 눅쨍 요디 아지렌 허민 애기가 아집니까?{예. (웃음) 우산 하나 이렇게 치지도 않고 이렇게 눅혀서 여기 앉아 라고 하면 아기가 앉습니까?}

10705 #2 고치 싱그다 보민 받떠 막 마에 텡겨노민게 흑투성이 돼주게. 애기가. 경해도양 감기도 안 걸리곡.{고추 심다 보면 밭에 막 장마에 다녀놓으면 흑투성이 되지. 아기가. 그래도요 감기도안 걸리고.}

10705 #2 저 바미 뽀뽀기 주스멍 추으민 가멩이 애기꾸덕 우의 가멩이 강 더꺼 그네 영 흥뽀 무시거 바탕 가멩이 허영 내부러뒤그네 해도 아프지 아녀고.{저 밤에 절간고구마 주으면서 추우면 가마니 아기바구니 위에 가마니 덮어서 이렇게 조금 무슨 것 받쳐서 가마니 해서 내버려둬서 해도 아프지 않고.}

10705 @1 예, 그늘케예?{예, 그늘대요?}

10705 #1 이번.{이번.}

10705 #2 그늘케우짱? 바미 바미.{그늘대입니까? 밤에, 밤에.}

10705 #1 그 말 허나네.{그 말 하나까.}

10705 #2 이 추우카부덴.{이 추울까봐.}

10705 #2 추우카부덴.{추울까봐.}

10705 #1 박싸님 오건 그 마를 꼭 험썸. 우리 감저뽀뽀기 비 오람직커민 밤 열두 시에도 가곡 새로 두 시도 허곡 헤시난 그 마를 꼭.{박사님 오거든 그 말을 꼭 하십시오. 우리 절간고구마 비 움직하면 밤 열두 시에도 가고 새로 두 시도 하고 했으니까 그 말을 꼭.}

10705 #2 우리 딸 오란네. (웃음).{우리 딸 와서요. (웃음)}

10705 #1 감저뽀뽀기가 그 저.{절간고구마가 그 저.}

10705 #2 승자게.{승자.}

10705 @1 걸 주시레 간 거라마씨?{그것을 주우러 간 거예요?}

10705 #1 예. 비오람직커민 바미 주스레.{예. 비 올 것 같으면 밤에 주으러.}

10705 #2 바미가 헤양허영 준쨍 조치 아녀쑤가? 그 말 ㄴ릅썸. 경 ㄴ르렌. (웃음){밤에가 하얗게 줍지 좋지 않았습니까? 그 말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10705 #1 바미도 그 뽀뽀기는 허영허니까 껌껌해도 주슬 쑤 인꼬. 그 엽 껌쫄 베껴진 거 거멍헌 건 불강 보민 안 주서정 이서. 그건 썸. 경 허지만 하얗헌 건 다 주서지명 허난 그러케 허명 사람쑤덴 그걸 ㄴ르렌. (웃음).{밤에도 그 절간고구마 하야니까 껌껌해도 주을 수 있고. 그 옆 껌쫄 벗겨진 것 거매도 그것은 밝아서 보면 안 주워져 있어. 그것은 썸. 그렇게 하지만 하얀 것은 다 주워지면서 하나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그것을 말하라고. (웃음)}

10705 #2 (웃음) 우리 딸.{(웃음) 우리 딸.}

10705 #1 아이고 춤.{아이고 참.}

10705 @1 계난예 \*\* 그 쉼도 노양 메긴게 술지지 아넘니깐게. 방목컨 게.{그러니까요 \*\* 그 소도 놓아서 먹인 것이 살찌지 않습니까. 방목한 것이.}

10705 @1 그러지 아니우파?{그렇지 않습니까?}

10705 #2 예게, 난 메결쭈다게. 담양, 담 ㄱ진 받, 담 ㄱ진 받떠 강 담 돌렁 그 안네 쉼을 에완쭈기.{예, 놓아서 먹였습니다. 담요, 담 갓춘 밭, 담 갓춘 밭에 가서 담 둘러서 그 안에 소를 에웠지.}

10705 #2 에완 메결쭈게. 에왕 메기곡 흥나이나 현 건 저디 강 메영 고쩌 메곡 경 험쭈. 으라 개 현 서너 개.{에워서 먹였지. 에워서 먹이고 하나이나 한 것은 저기 가서 메서 고쳐 메고 그렇게 했지. 여러 개 한 서너 개.}

10705 #1 켄디 이제 목장에 가민 저 쉼가 술질 꺼 가따도 낱 메겨도 지비서 멍는 거 마닌 안 술져마씨.{그런데 이제 목장에 가면 저 소가 살찔 것 같아도 놓아서 먹여도 집에서 먹는 것 만큼 안 살찌요.}

10705 #1 예, 이제 뭐 오늘도 춤 쉼더리 바짝 물론 쉼더리 하고 우리 번탱 탕기는 사르른 쉼 지비 두 개 모라 완논디 이 주그켄 험신게.{예, 이제 뭐 오늘도 참 소들이 바짝 마른 소들이 많고 우리 벗해서 다니는 사람은 소 집에 두 개 몰아왔는데 이 죽겠다고 하고 있네.}

10705 @1 으음.{으음.}

10705 #1 오줌도 못 싸고 막 험쨌.{오줌도 못 싸고 막 하고 있다고.}

10705 #2 베설 저 베 아파실 테주.{창자 저 배 아팠을 테지.}

10705 #1 아 계난 목장에 텅이멍 그 사료 주는 사름네 쉼더른 다 몰람서. 뭐 썰 떼업씨 그 사를 쥐노니 간세해가지고 푸를 안 멍는 거 가타.{아 그러니까 목장에 다니면서 그 사료 주는 사름네 소들은 다 마르고 있어. 뭐 쓸데없이 그 사료를 쥐 놓으니까 게을러가지고 풀을 안 먹는 것 같아.}

10705 @1 아 에 혼 나 굴멍 이시민 또 사료 왕 줄 꺼난 영사 생각커는 건지.(웃음){아 에 한 나 굶어서 있으면 또 사료 와서 줄 것이니까 이렇게야 생각하는 것인지. (웃음)}

10705 #1 건 쉼 ㅁ으므로 곤는 건디. 그 쉼드리 사료 준 쉼드리 다 몰라부러서.{그것은 소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소들이 사료 준 소들이 다 말라버렸어.}

10705 #2 \*\* 배 아판.{\*\* 배 아파서.}

10705 #1 계난 나 우리 쉼 뭐 사료 혼 방울 안 쥐도 이 사르른 게도 사료 혼 방울씩 강 쥐사 불르민 오곡 험 꺼 아니라게. 안 쥐도 뭐 민작 술정 이시난.{그러니까 나 우리 소는 뭐 사료 한 알 안 쥐도 이 사람은 그래도 사료 한 알씩 가서 쥐야 부르면 오고 할 것 아닌가. 안 쥐도 뭐 미끈 살찌 있으니까.}

10705 @1 사름들 가끔 가다 보면 영 입술 영 채진 사람 이서예?{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입술 이렇게 찌진 사람 있지요?}

10705 #2 얼챙이?{언청이?}

10705 @1 예. 건 언챙이 험니까? 쟤보?{예. 그것은 언챙이 험니까? 쟤보?}

10705 #2 혼착 채어진 건 웨얼챙이.{한쪽 찌진 것은 외언챙이.}

10705 @1 예.{예.}

10705 #2 두 착 채어진 건 쌍얼챙이. 게난 쌍얼챙이가 웨얼챙이 타령 험짜.{두 쪽 채진 것은 쌍언챙이. 그러니까 쌍언챙이가 외언챙이 타령 하고 있다.}

10705 @1 예, 쟤디 그건 병이라마썸? 아니면 날 때부터 생긴 거?{예, 그런데 그것은 병이에요? 아니면 날 때부터 생긴 거?}

10705 #2 날 때.{날 때.}

10705 #2 난 때부터 영. 으버네도 저 나와십띠다, 텔레비에. 쌍얼챙인 아니엔. 게난 이거를 저 수술험선게. 영 부뜨게. 수수리 막 힘들텐. 경 허멍 험띠다게. 그 배로부터 경 나온 거.{난 때부터 이렇게. 요번에도 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 쌍언챙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 수술하고 있던데. 이렇게 붙게. 수술이 막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합디다. 그 배로부터 그렇게 나온 것.}

10705 @1 음.{음.}

10705 #2 나왕 경 헌단.{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10705 @2 게난 쌍얼챙이 웨얼챙이 타령험짜 영 ㄱ라마씨?{그러니까 쌍언챙이 외언챙이 타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705 #1 게난 배 안에서부터 그 뭐 해연 나온.{그러니까 배 안에서부터 그 뭐 해서 나온.}

10705 #2 지가 더 헌 걸로 우리 마를 해가민 에이고 쌍얼챙이가 웨얼챙이 타령험짜 경 ㄱ라난.{저가 더 한 것으로 우리 말을 해가면 아이고 쌍언챙이가 외언챙이 타령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었어.}

10705 @1 그 다으메 예를 들면 아피 안 보이는 사람인 경우도 봉서예. 봉서인 경우도 건 배 안에서가 만켄찌예? 예.{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 경우도 봉사요. 봉사의 경우도 그것은 배 안에서가 많겠지요?}

10705 #2 중문니도 셔난.{중문리도 있었어.}

10705 #1 아니, 눈 난네 춤 배 안에서 헌 봉서도 일꼬.{아니, 눈 안에 참 배 안에서 한 봉사도 있고.}

10705 @1 예.{예.}

10705 #1 바께서도 봉서가 이십쥬게.{밖에서도 봉사가 있습니까.}

10705 @1 어어.{어어.}

10705 @1 예.{예.}

10705 #1 그 우리 여자는 우리 일가고 남자는 저 김썸디 김무노 검찰청 사건과장 해난 부니 여기 저 머야 애기 무덤 막 한 받띠 굴나물 시머가지고 헨는디 지시해 가지고 그 아기 무더를 다 치우라고 아마 지실 해난 모양이라마썸.{그 우리 여자는 우리 일가고 남자는 저 김씨인데 김문호 검찰청 사건과장했던 분이 여기 저 뛰야 아기 무덤 막 많은 밭에 굴나물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지시해 가지고 그 아기



무덤을 다 치우라고 아마 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10705 #1 갑작스리 눈봉스가 돼가지고 뭐 서울로 어디로.{갑작스럽게 눈봉사가 되어가지고 뭐 서울로 어디로.}

10705 #2 건 동티, 동티.{그것은 동티, 동티.}

10705 @2 음.{음.}

10705 #1 벨 딜 뎅겨도 안 돼가난 그걸 원상복귀 해라.{벨 데를 다녀도 안 되니까 그것을 원상복귀 해라.}

10705 @1 음.{음.}

10705 #1 계난 검찰청에 이시나네 뭐 그 산 파가지고 현 사르믈 차잡찌 우리 ㄱ 뜬 사르리민 생전 못 좇질 꺼 아니우짱게?{그러니까 검찰청에 있으니까 뭐 그 산 파가지고 한 사람을 찾았지 우리 같은 사람이면 생전 못 찾을 것 아닙니까?}

10705 #1 계도 강원도꺼지 간 걸 그 사르믈 좇자네 보니까 그 뼈를 흔 군데 구덩이 파 가지고 흔 군데 아저당 다 무더 논 거를 그.{그래도 강원도까지 간 것을 그 사람을 찾아서 보니까 그 뼈를 한 군데 구덩이 파가지고 한 군데 가져다가 다 묻어 놓은 것을 그.}

10705 @1 다 질 깔란.{다 깃 갈라서.}

10705 #1 예. 그거 갈난 그자 해난 디레 그자 뭐 그럭저럭 허여실 테주. 경 허난 갑작스리 눈니 봉사 된 캄캄헐만 사르미 일년 후에 눈 던 아 이제 그 버뵤 아페 김문노 범률사무실 헐 3층.{예. 그거 갈라서 그저 했던 데로 그저 뭐 그럭저럭 했을 테지. 그렇게 하나까 갑작스레 눈이 봉사 된 캄캄했던 사람이 일년 후에 눈 떠서 아 이제 그 법원 앞에 김문호 범률사무실 해서 3층.}

10705 @1 음.{음.}

10705 #1 예. 일쑤다.{예. 있습니다.}

10705 #2 그런 동티.{그런 동티.}

10705 #1 그 사르미 완전 그냥 일런 똥안 아무것도 못 뺨으네.{그 사람이 완전 그냥 일년 동안 아무것도 못 봐서.}

10705 #1 받떠 강 공드리민 건 난는 거 동티.{밭에 가서 공들이면 낫는 거 동티.}

10705 #1 각씨가 이러케 끌고 다녀십쭈게.{각시가 이렇게 끌고 다녔습지요.}

10705 #1 계난 그 공드려네 계난 뺨원 가난 점점 더해가난 그 일 난 디서가 경 허렌 허연.{그러니까 그 공들여서 그러니까 뺨원 가니까 점점 더해가니까 그 일 난 디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10705 #1 건디 이제 주남 씨도 그거 그디 팔리허단 주거불고게.{그런데 이제 주남 씨도 그거 거기 관리하다가 죽어버리고.}

10705 #1 그 이제 또 산 사르미 그 바로 큰소리치멍 그 포크레인 비런 막 헐판 그 사름도 이제 뭐 위독커덴 허데.{그 이제 또 산 사람이 그 바로 큰소리치면서 그 포크레인 빌려서 막 했다가 그 사람도 이제 뭐 위독하다고 하대.}

10705 #1 이제 그 땅 사네 포크렌으로 돌 막 치와단 게난 빼는 어디 간 츠레 몰라분 거고.{이제 그 땅 사서 포크레인으로 돌 마구 치워다가 그러니까 빼는 어디 간 차레 몰라버린 것이고.}

10705 #2 아니 사는 거쟁 이이기 업썸.{아니 묘는 건드려서 이익이 없어.}

10705 @2 음.{음.}

10705 #1 땅을 막 파헤쳐네 혼 군데 몰런는디 그 이젠.{땅을 막 파헤쳐서 한 군데 몰렸는데 그 이제는.}

10705 #2 사는 거쟁 이이기 흥썸도 어신디. 지슬 우리 지슬 허레 간.{묘는 건드려서 이익이 조금도 없는데. 감자 우리 감자 하러 가서.}

10705 #1 그 참.{그 참.}

10705 #2 차가 영 공가니 조그나네 혼 넘어가명 차 그 귀뿔. 영 세와지지 아넌 니까? 그거를 툭 거쩔 쪼끔 무너나난양 저마니 가난 고장난.{차가 이렇게 공간이 작으니까 한 넘어가면서 차 그 꺾돌.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툭 건드려서 조금 물러나니까요 저만큼 가니까 고장났어.}

10705 @1 음.{음.}

10705 #2 그 차가.{그 차가.}

10705 @1 음음.{음음.}

10705 @2 가네 귀뿔 허니까.{가서 꺾돌 하니까.}

10705 #2 쪼끔 움지긴 건또. 경 헤영 헤신디.{조금 움지킨 것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705 #1 게난 귀시니 일따 해도 허고 업따 해도 허고 일긴 인는 거 가타마썸. 저년 업는 건 아니라.{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해도 하고 없다 해도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10705 @1 음.{음.}

10705 #1 그런 거 허는 거 보민 이 우리 부라게 그 저 뭐야, 흥애기 아방네 그 치룩 저디 그런 디 막 미깡냥 심썸 막 해가지고 덕 안 보곡.{그런 것 하는 것 보면 이 우리 마을에 그 저 뭐야, 흥애의 아버지네 것처럼 저기 그런 데 막 굴나무 심고 막 해가지고 덕 안 보고.}

10705 #1 중무니 그 창이리 동생도 드른돌 경헤연 막 허난 지금 병신 뒤연 인꼬. 어쨌든 그거 헛 사르른 경.{중문리 그 창일의 동생도 들돌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지금 병신 되어서 있고. 어쨌든 그것 한 사람은 그렇게.}

10705 @1 게난 엔날서부터 거 무덤 건드령 안 조텐 헛 거라예?{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것 무덤 건드려서 안 좋다고 한 거지요?}

10705 #2 예.{예.}

10705 @1 음음음음.{음음음음.}

10705 #2 사네.{묘예.}

10705 #1 영 골충도 흠불로 몬턴다고 해썸썸. 아 모든 게 뭐 직썸에 아닌 사

르른 걸려드렁으네 당허곡 경 아넌 사르문 뒤희곡.{이렇게 고충도 함부로 못한다고 했습지요. 아 모든 것이 직성에 아닌 사람은 걸려들어서 당하고 그렇게 안한 사람은 뭘하고.}

10705 @1 그 다음 우리 어린 때 기어기주마는 그 당에, 당에 가면 큰 풍낭 인찌 아녀우짱예?{그 다음 우리 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 당에, 당에 가면 큰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요?}

10705 @1 게 받떠레 영 휘어지니까 해뽈 가린다고 해서 가지만 영 잘라버렸따고.{그래서 받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해뽈 가린다고 해서 가지만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10705 @2 게민 중는덴 헨.{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10705 @1 그해 도, 그해 도라가션마씨.{그해 돌, 그해 돌아가셨어요.}

10705 #1 아.{아.}

10705 #2 게난 당엔 현 디도 강 건드리민양 갈 때부터 어떠케 그르슬 벌르던지 떠러지던지양 경허며는 안 조아. 더기 업써. 손해웨여부러.{그러니까 당이라고 한 데도 가서 건드리면요 갈 때부터 어떻게 그릇을 깨든지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아. 덕이 없어. 손해되어버려.}

10705 #2 우리 섰떠머니도 일본서 와네 우리 어머니 마리 이제 당에 가켄 허멍 허연 다 출런 가는디.{우리 둘째어머니도 일본에서 와선 우리 어머니 말이 이제 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해서 다 차려서 가는데.}

10705 #2 바를 툭 차난양 구더기 고개 우의로 너머간 어퍼져부러서마썸.{발을 툭 차니까 바구니가 고개 위로 넘어가서 엎어져버렸어요.}

10705 #2 사름도 어퍼지고 구덕또 어퍼전.{사람도 엎어지고 바구니도 엎어졌어.}

10705 #2 경 허난 오꼴 다리 혼착 병신 웨연양 죽도록 주글 때까지 그 다리가 물이라네 병신 웨연.{그렇게 하니까 그만 다리 한쪽 병신 되어서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 다리가 말라서 병신 되었어.}

10705 @1 음.{음.}

10705 #2 경 허단 주거분띠다게.{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립디다.}

10705 #2 게난 당도 위엄현 거.{그러니까 당도 위험한 것.}

10705 @1 예.{예.}

10705 #2 경 현디 버브로 허연 저 아래 전신당은 어시해부러도 누게 어떻 허진 아녀서.{그런데 법으로 해서 저 아래 전신당은 없애버려도 누구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

10705 #1 무사 아녀서게? \*\*\*\*{왜 안했어? \*\*\*\*}

10705 @3 그 다리허멍 다 그 사름 일곱 명인가 주건.{그 다리하면서 다 그 사름 일곱 명인가 죽어서.}

10705 #1 그 얼마나.{그 얼마나.}

10705 #2 전신당?{전신당?}  
 10705 @3 전신당.{전신당.}  
 10705 #2 으.{으.}  
 10705 #1 얼마나 사لامي 주건는다.{얼마나 사람이 죽었는데.}  
 10705 @3 그 다리 멜라져네.{그 다리 무너져서.}  
 10705 #2 음음음음.{음음음음.}  
 10705 #1 서녀다리.{선녀다리.}  
 10705 #2 서녀다리로구나.{선녀다리로구나.}  
 10705 #1 그디도 하영 죽꼬.{거기도 많이 죽고.} #2 그거이.{그것.}  
 10705 @3 예.{예.}  
 10705 #2 아.{아.}  
 10705 #1 이쪽 쪼게서도.{이쪽 쪽에서도.}  
 10705 #2 개명 뒤편난 난 몰라.{개명 되어버리니까 나는 몰랐어.}  
 10705 #1 그 저 무신 거 허단도.{그 저 무슨 것 하다가도.}  
 10705 #2 서녀다리 마자.{선녀다리 맞아.}  
 10705 @1 사르미 멘.{사람이 몇.}  
 10705 #2 사름 떠러져네.{사람 떨어져서.}  
 10705 #1 혼 삼십 명 쓰리간는다 뭐.{한 삼십 명 쓸어갔는데 뭐.}  
 10705 #2 계난 그디도.{그러니까 거기도.}  
 10705 #1 글로 나온 브염 딸런 머근 사르문 그 머건 그 자리에서도 즉시해불  
 곡 머.{그리로 나온 뱀 달여서 먹은 사람은 그 먹어서 그 자리에서도 즉사해버리  
 고 뭐.}  
 10705 #1 하건 그 당이엔 현 거 아까 가쟁이 하나 끄너도 뭇헌텐 허나.{하여튼  
 그 당이라고 한 것은 아까 가지 하나 잘라도 뭇한다고 하니까.}  
 10705 #2 사르메 딸파리에 떠러져도 그 사르문 사랄찌. 딸파리에.{사람에 탈탈  
 이에 떨어져도 그 사람은 살았다. 탈탈이에.}  
 10705 @1 음.{음.}  
 10705 #2 혼디 떠러진 사름.{같이 떨어진 사람.} #1 우리.{우리.}  
 10705 #1 색딸리 당이 \* 모션 인는데 요기에 올로.{색달리 당이 \* 모셔서 있는  
 데 요기에 요리로.}  
 10705 @2 색딸리 당도 여기 큰 당이.{색달리 당도 여기 큰 당이.}  
 10705 #1 올로 요러케 나가문.{요리로 요렇게 나가면.}  
 10705 #2 요기 좌회전 딱 바들 때 본향이라고 그 일쫓니다.{요기 좌회전 딱 받  
 을 때 본향이라고 그 있습니다.}  
 10705 @2 예. 큰본향 여기 뭐에 나와.{예. 큰본향 여기 뭐에 나와.}  
 10705 #1 글로 우티레 사لامي 도라가시게 뉘나네 혼 혼두 해 이 년 사이에 썩  
 쓰러가부러서. 글로 우쪼게 산 사름.{그리로 위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한 한

두 해 이년 사이에 싹 쏘어가버렸어. 그리로 위쪽에 사는 사람.}

10705 #2 문제라 문제. 이제 요 우리.{문제야 문제. 이제 요 우리.}

10705 #1 을쟁이 아방이나 창나미나 아 저디 흥애기나 우리 사도는 돌로 므사도 안 주글 싸르미라 거. 그 뭐 기운 세고 그 뭐 거줌 그냥 확 그냥 쓰러가부난.{을쟁이 아버지나 창남이나 아 저기 흥액이나 우리 사도는 돌로 마아도 안 죽을 사람이야 그것. 그 뭐 기운 세고 그 뭐 거의 그냥 확 그냥 쏘어가버리니까.}

10705 @3 성시미 어멍이영.{성심의 어머니랑.}

10705 #1 으.{으.}

10705 @1 그 다으메 절름바리도예 저 발 즈을락조즈을락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보통 날 때부터 허는 거지예?{그 다음에 절뚝발이도 저 발 절뚝절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보통 날 때부터 하는 것이지요?}

10705 #2 소아마비로도 허곡.{소아마비로도 하고.}

10705 #1 소아마비에 허곡 낭으네 그 어디 텅기당으네 귀마리 상허영으네 귀마리가 튀어 낭 현 사람도 일꼭. 배 안네서.{소아마비에 하고 낳아서 그 어디 다니다가 발목 상해서 발목 튀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배 안에서.}

10705 #2 배 안네서 허는 사르미 하우다게.{배 안에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705 #1 하주마는 다쳐 허는 사람도.{많지만 다쳐서 하는 사람도.}

10705 @1 예예.{예예.}

10705 #1 업짜녕.{없지 않아서.}

10705 #2 다친 건 다쳐 허는 거고.{다친 것은 다쳐서 하는 것이고.}

10705 @2 그 사라플 뭇렌 불름니까?{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0705 #2 소아마비로 난 사람 절룩빠리엔 허주, 뭇센?{소아마비로 난 사람 절뚝발이라고 하지, 무엇이라고?}

10705 @2 절룩빠리?{절뚝발이?}

10705 @1 음.{음.}

10705 @1 그 다으메 영 등도 영 구분 사람 일짜녀파? 여기 혹 가튼 거 생기고 현 사람예?{그 다음에 이렇게 등도 이렇게 굽은 사람 있잖습니까? 여기 혹 같은 거 생기고 한 사람요?}

10705 #1 등곱썰.{곱사등이.} #2 곱썰.{곱사등이.}

10705 #2 곱썰.{곱사등이.}

10705 @1 예.{예.}

10705 #1 등곱썰.{곱사등이.}

10705 @1 겐또 게난 배 아네서.{그것도 그러니까 배 안에서.}

10705 #2 배 안네서.{배 안에서.}

10705 #1 그건 대랴근 배 안네서 허난.{그것은 대략은 배 안에서 하니까.}

10705 #2 하영 셔.{많이 있어.}

10705 @1 예.{예.}

10705 #2 잘 싸는 ㄱ라 행 땡기는 거 보민 잘해도양 여기가 등이 오그라지곡.  
{잘 사는 모양인지 해서 다니는 것 보면 잘해도요 여기가 등이 오그라지고.}

10705 @1 그 다으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겐또 배 아네선가마씨?{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그것도 배 안에서인가요?}

10705 #2 귀 잘 안 들리는 건 나도 안 들려감신디 귀막씨 아니?{귀 잘 안 들리는 것은 나도 안 들려가는데 귀머거리 아니?}

10705 @1 아 그건 (웃음) 그건.{아 그것은. (웃음) 그것은.}

10705 @2 나이 드러가민 허는 거.{나이 들어가면 하는 거.} @1 나이 들어가면 허는 거고예?{나이 들어가면 하는 것이고요?}

10705 #2 난 때부터? 난 때부터 귀마간?{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귀막아서?}

10705 @1 예.{예.}

10705 #2 그런 사르문 벨로 어신디.{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10705 @2 나이 드러가민 귀막씨엔 험니까?{나이 들어가면 귀머거리라고 합니까?}

10705 @1 그 다으메.{그 다음에.}

10705 #2 귀막씨 뒤여.{귀머거리 뒤.}

10705 @1 저 말 쫘 더듬는 사람도 일찌 아너우짱예? 겐또 날 때부터예. 부턴가마씨?{저 말 쫘 더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날 때부터요, 부턴가요?}

10705 #1 아이.{아니.}

10705 @2 그런 사람 뒤헐 허여?{그런 사람 뭐라고 해?}

10705 #2 더듬더듬 말 곧쨌 허민 드드드드 겐또 날 때부터 허는 거.{더듬더듬 말 말하고 하면 드드드드 그것도 날 때부터 하는 거.}

10705 #1 날 때부터도 허곡.{날 때부터도 하고.} #2 중치 메켜.{중치막혀서.}

10705 #1 지바느로도 허곡.{집안으로도 하고.}

10705 #2 아니, 어린 때에 막 고생허멍 막 어린 때에 말 곧쨌 허민 탁 중치메키게 해불곡 케여도 그치룩헌텐 허난.{아니, 어릴 때에 막 고생하면서 막 어릴 때에 말 말하려고 하면 탁 중치막히게 해버리고 해도 것처럼한다고 하니까.}

10705 @1 예.{예.}

10705 #1 아이, 그게 아니주게. 이제 원서기네 지바네 허는 거 보민 원석 씨 뒤조근 노마 조근 노마 허멍 어멍 산 때야 고생 안 너영 각씨도 열세 겔 어찌주곡 헌거고, 만씩 씨도 마를.{아니, 그게 아니지. 이제 원석이네 집안에 하는 것 보면 원석 씨 뒤 작은 놈아 작은 놈아 하면서 어머니 살 때야 고생 안 해서 각씨도 열세 개 얻어주고 한 것이고, 만씩 씨도 말을.}

10705 #2 마를 더드머.{말을 더듬어.}

10705 #1 이제 만씩 씨 아덜도 바라미 하누시 안 조아. 또 그 기색 선생허는 그 어른도 바라미.{이제 만씩 씨 아들도 발음이 한없이 안 좋아. 또 그 기색(?) 선생하는 그 어른도 발음이지.}

10705 #2 그딘 지바니고.{거기는 집안이고.}

10705 @1 아 지바느로가예?{아 집안으로 가요?}

10705 #1 조은 거 아니라.{좋은 것은 아니야.} #2 지바느로.{집안으로.} #1 지바느로 가는 거 가따.{집안으로 가는 것 같아.} #2 동승 동기가니 다 경 해서이? {동생 동기간이 다 그렇게 했지?}

10705 @2 그런 사름보고 뭐렌 ㄴ라마씨?{그런 사름보고 뭐라고 말해요?}

10705 #2 더듬더듬헌텐 말 더듬면.{더듬더듬한다고 말 더듬어서.}

10705 @2 음. 말 더드면.{음. 말 더듬어서.}

10705 #2 크게 험뎡 동네나네 벨.{크게 했다고 동네니까 벨.}

10705 #1 계난 그 기색 씨 아방은.{그러니까 그 기색 씨 아버지는.}

10705 #2 지와그네 경 허진 아녀고 마를 더듬뎡따 헌 거지.{지어내서 그렇게 하지는 았고 말을 더듬고 있다 한 것이지.}

10705 #1 엔나른 멘 찌귀니 엄창 끝빠리 조아십쥬게.{예전에는 먼 직원이 엄청 낫발이 좋았습지요.}

10705 #1 계난 그 이제 명류니 하르방이 아시가 멘 찌귀니지 아드리 먼 찌귀니지 허난 완전 큰소리.{그러니까 그 이제 명류의 할아버지 아우가 먼 직원이지 아들이 먼 직원이지 하니까 완전 큰소리.}

10705 #1 어디 술허는 디만 봐도 뭐허곡 소나무 가쟁이 하나 꺼시렁 오는 건또 고발뎡곡 케가지고 상당이 그 저 권세를 부렐쥬.{어디 술하는 데만 봐도 뭐하고 소나무 가지 하나 잘라 오는 것도 고발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저 권세를 부렸지.}

10705 #1 이제는 멘 찌귀는 아무 건또 아닌디.{이제는 먼 직원은 아무 것도 아닌데.}

10705 @1 이버는 말 모터는 사름도 거 배에서 나온 건가마씨? 말몰레기.{이번은 말 못하는 사름도 거 배에서 나온 건가요? 병어리.}

10705 #1 예. 말모르기는.{예. 병어리는.}

10705 #2 말모르기.{병어리.}

10705 #1 건 배 안네서{그것은 배 안에서.}

10705 #2 말모르기.{병어리.}

10705 @2 이 동네도 말모르기?{이 동네도 병어리?}

10705 #1 예.{예.}

10705 #1 이 두 어르니 이선는데 거 배 안네서 다 나온 사름.{이 두 어른이 있었는데 거 배 안에서 다 나온 사람.}

10705 @1 예예 예예.{예예 예예.}

10705 @1 그 다으메 요기 허멀 나문예 여기 뭐 생기지예?{그 다음에 요기 헌데 나면요 여기 뭐 생기지요?}

10705 #2 명얼 산.{명울 선.}

10705 #1 멍얼 산.{멍울 산.}

10705 #2 멍얼.{멍울.}

10705 @1 거?{거?}

10705 #1 저깅이 멍얼.{겨드랭이 멍울.}

10705 @1 예. 여기도 생기고예?{예. 여기도 생기고요?}

10705 #2 예, 멍얼.{예, 멍울.}

10705 @1 예. 건 어떻 고치는고마씨? 허물 조아불민 다 나올 꺼가?{예. 그것은 어떻게 고치는가요? 종기 좋아버리면 다 나올 것인가?}

10705 #1 허멀만 구완헐쥬. 이 저깅이는 이거 허멀 때무네 아픈 거쥬. 이.{종기만 구완했지. 이 겨드랑이는 이거 종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이.}

10705 @1 예.{예.}

10705 #2 허멀 조아.{종기 좋아.}

10705 #1 이디 종지는 종제가 어떤 칼로 돌른 거는 안디.{여기 종기는 종제가 옆어서 칼로 도른 것은 아는데.}

10705 @1 예.{예.}

10705 #1 이 저깅이는 머.{이 겨드랑이는 뭐.}

10705 @2 멍얼 사는데 어디 어디 삼니까? 멍얼.{멍울 서는데 어디 어디 섭니까? 멍울.}

10705 #1 멍얼게 이 저.{멍울 이 저.}

10705 @2 여기하고.{여기하고.}

10705 #1 예. 즈금테기. 이 즈금텅이허고.{예. 자개미. 이 자개미하고.}

10705 #2 저드랑이가 마니 사서.{겨드랑이가 많이 섰어.}

10705 @2 저드랑이가 음.{겨드랑이가 음.}

10706 @1 예. 게난 혹씨 여자 삼춘네 아까처럼 그 누구 경리? 헐 때 그 손 널 때 심방 비러당 헐 거 말고는 다른 건 아녀봄떠가?{예. 그러니까 혹씨 여자 삼춘 아까처럼 그 누구 경리? 할 때 그 손 널 때 무격 빌려다가 한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안 해봤습니까?}

10706 @2 혹씨 심방 비러당으네.{혹씨 무격 빌려다가.}

10706 #2 심방 비러단.{무격 빌려다가.}

10706 @2 성주헐 때.{성주받이할 때.}

10706 @1 성주헐 때 말고.{성주받이할 때 말고.}

10706 @2 아플 때.{아플 때.}

10706 @1 아플 때.{아플 때.}

10706 #2 아플 때?{아플 때?}

10706 @1 예.{예.}

10706 #2 아플 때 아녀환.{아플 때 안 해환.}

10706 #1 무사 아녀서게? 시에서 경 성주 아넌?{왜 안 했어? 시에서 그렇게 성



주풀이 안 했어?}

10706 #2 아 그때엔 그때 성주허멍 헐쭈게.{아 그때에는 그때 성주하면서 했습  
니다.}

10706 #1 아 성주는 저 사르미 아프니까 어떠튼 나그네 빌라 허니까 빌면 이 지  
베 성주를 아너민 심방 비러단 해봐야 더기 얻따고.{아 성주받이는 저 사람이 아프  
니까 어떻게든 나그네 빌리라고 하니까 빌리면 이 집에 성주풀이를 안 하면 무격 빌  
려다가 해봐야 덕이 없다고.}

10706 @1 음.{음.}

10706 #1 예. 경 해가지고 우리 지븐 이젠 성줄 해쓰나네 심방을 비러다 해도  
웨는디 게난 심방 오며든 그 성주허곡 아픈 거 허곡 경 아너민 더기 언나 힘니다.  
이 성주를 아너민.{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는 성주풀이를 했으니까 무  
격을 빌려다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무격 오면 그 성주하고 아픈 것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성주를 안 하면.}

10706 #1 이제는 뭐 췌멘으로 막 커곡 낭이 벨로 안 드러간찌만 엔나른 그 낭  
일름도 전부 따로 따로 일찌마는 고지 강 낭을 이걸 저걸 허며는 새 부튼 낭 일  
따.{이제는 뭐 시멘트로 막 하고 나무가 별로 안 들어갔지만 옛날은 그 나무 이  
름도 전부 따로 따로 있지만 숲에 가서 나무를 이것 저것 하면 사 붙은 나무가  
있다.}

10706 #1 그 원 낭 전부가 부튼 건 아난디 낭 하나가 나쁜 거는 왕으네 허며는  
뒤흔따.{그 원 나무 전부가 붙은 것은 아난데 나무 하나가 바쁜 것은 와서 하면 뒤흔  
했다.}

10706 #1 우리 저 서녁쪼게 집 지을 때 초집 지을 때 서녁 난가늘 귀크를 지름  
틀.{우리 저 서쪽에 집 지을 때 초집 지을 때 서쪽 난간을 귀틀을 기름틀.}

10706 #1 그 지름틀을 해다가 난간 귀크를 난는디 자꾸 사라미 건드려노민 누울  
려가지고 영.{그 기름틀을 해다가 난간 귀틀을 놓았는데 자꾸 사람이 건드려놓으면  
눌러가지고 이렇게.}

10706 #2 잠잘 때.{잠잘 때.}

10706 #1 어.{어.}

10706 #2 잠잘 때 깨나몬 헤신디 이러나지 몬터영.{잠잘 때 깨어나긴 했는데 일  
어나지 못해서.}

10706 #1 이러나질 몬터여그네 허는 그걸.{일어나지를 못해서 하는 그것을.}

10706 #2 경 해여네 말췌엔 보난 그거.{그렇게 해서 말췌는 보니까 그것.}

10706 #1 그 춤 심방이 허난 그 낭을 발각커니까 그걸 치와불멍 해나신디.{그  
참 심방이 하니까 그 나무를 발견하니까 그것을 치워버리면서 했었는데.}

10706 #1 게난 이 성주허는 버비 이제 이 지베 새 뿌튼 낭이 하나라도 완따.{그  
러니까 이 성주풀이하는 법이 이제 이 집에 사 붙은 나무가 하나라도 왔다.}

10706 @1 음, 음.{음, 음.}

10706 #1 그래가지고 그 성주허는 거라고.{그래가지고 그 성주받이하는 것이라고.}

10706 #2 ㄴ레차기 드런따, 뭐가 드런따.{맷돌이 들었다, 뭐가 들었다.}

10706 #1 머 거 춤 옐빠빈지 모르데 어찌튼 심방 비렁 이 성주 안 너민 꼭 허렌 허니까.{뭐 거 참 옛법인지 모르데 어찌튼 무격 빌려서 이 성주받이 안 하면 꼭 하라고 하니까.}

10706 @1 그러니까 아까 삼춘, 그 가위눌린, 건 가위눌린 거 아니우쨌예? 이러나도 이러나지 몰터는 거. 눈 터도.{그러니까 아까 삼춘, 그 가위눌린, 그것은 가위눌린 것 아닙니까요? 일어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 눈 떠도.}

10706 #2 예.{예.}

10706 @1 그 낭 때무네.{그 나무 때문에.}

10706 #2 지드랭이눌뎌.{가위눌려서.}

10706 #1 그제 지름틀 트레 낭이니까. 누울리는 낭이니까.{그것이 기름틀 틀에 나무니까. 누르는 나무니까.}

10706 @1 으음.{으음.}

10706 #1 그래가지고 그 누울런 그.{그래가지고 그 눌러서 그.}

10706 #2 뉘땅으네 막 누르더부렁양.{뵈다다 막 눌러버려서요.}

10706 #1 그 방에만 가민 그래쓰니까 .{그 방에만 가면 그랬으니까.}

10706 @1 음.{음.}

10706 @2 아무나?{아무나?}

10706 #1 예, 아무나.{예, 아무나.}

10706 #2 그 방에 가민.{그 방에 가면.}

10706 #1 원 가민 경 막 누울런.{원 가며 그렇게 막 눌러서.}

10706 @1 게난 그걸 어떻.{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10706 #1 그 낭을.{그 나무를.}

10706 @1 심방 비러단.{무격 빌려다가.}

10706 #1 심방이 (웃음) 아나네.{무격이 (웃음) 아니까.}

10706 @1 음.{음.}

10706 #2 트더부런.{뜯어버렸어.}

10706 #1 그 낭이 트던 나도 그 지름트린 주른 아는 낭이주. 예.{그 나무가 뜯어서 나도 그 기름틀인 줄은 아는 나무지. 예.}

10706 #2 낭이 어시난 그거 허단 영허연.{나무가 없으니까 그것 해다가 이렇게 해서.}

10706 #1 낭이 귀허니까.{나무가 귀하니까.}

10706 #1 그래서 치와부리고.{그래서 치워버리고.}

10706 #2 아이고양 잘도 헐쨌.{아이고 잘도 했다.}

10706 #1 그 오 지배.{그 오 집에.} #2 그 지배.{그 집에.}

10706 #2 잘 나왓쨌얏.{잘 나오고 있다.}

10706 #1 그 바다에 돌.{그 바다에 돌.}

10706 @1 예예.{예예.}

10706 #1 관색, 관성 모퉁이에 그 도를 열썬미 시간만 나민 주워오고 이디 우메니도 심 조으니까 크고 죽꼬 믈으메 든 거 시민 바다에 강 가져오곡 막 켜는디.{관색, 관성 모퉁이의 그 돌을 열심히 시간만 되면 주워오고 여기 우면이도 힘 좋으니까 크고 작고 마음에 든 것 있으면 바다에 가서 가져오고 막 했는데.}

10706 #1 그 시니미 뭇헌 사르미 이 바다에 도를 가따가 지베 가따 노며는 조킨다 조은디 개중엔 나쁜 도리 일땀니다.{그 스님이 뭇헌 사람이 이 바다에 돌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가 놓으면 좋기는 다 좋은데 개중에는 나쁜 돌이 있답니다.}

10706 #1 지블 망헐 꺼여 영 허연게. 줌 가이도 지블 돌덜 봐네 그 시니미 그런 소릴 허연게.{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던데. 참 개도 집을 돌들 봐서 그 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던데.}

10706 #1 이제 한치비 이 사름네 켜당 저 한일나미엔 헌 사름도 신제주 저 연동에서 새로나 이발과늘 허주.{이제 한집에 이 사름네 켜당 저 한일남이라고 하는 사름도 신제주 저 연동에서 새로나 이발관을 하지.}

10706 #1 가이가 바당에 탕기멍 아주 먼쩍 도더를. 도는 이발썬허멍 벌긴 버는디 자꾸만 도니 빠져나강으네 영 성공도 못터곡 각씨도 자꾸 아프곡 헌덴 허멍.{개가 바다에 다니면서 아주 멋진 돌들을. 돈은 이발소하면서 벌기는 버는데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성공도 못하고 각씨도 자꾸 아프고 한다고 하면서.}

10706 #1 그 바다에 톨도 지비 가져오는 거 영 안 조타고 허는디 그 뭇 확실헌 경허른 업썬난 잘 모르겐는데.{그 바다에 톨도 집에 가져오는 것 영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뭇 확실한 경험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10706 #1 이 연날 돌통 멘드라난 화장실 돌.{이 옛날 돼지우리 만들었던 화장실 돌.}

10706 @1 예예.{예예.}

10706 #1 바다엔 톨 여기 연날 하르방덜토 그건 막 나쁘다고 얘기헤십쨌게.{바다에 돌 여기 옛날 할아버지들도 그것은 막 나쁘다고 얘기했습쨌요.}

10706 #1 이제 연날 돌통 멘드라난 도른 혼썬게 강 썬이주 어디 지베나 어디 메우는 디나 뭇 우잔따미나 안 다십쨌게.{이제 옛날 돼지우리 만들었던 돌은 한쪽에 가서 썬지 어디 집에나 어디 메우는 데나 뭇 올담이나 안 썬았쨌요.}

10706 @1 예예예, 예.{예예예, 예.}

10706 #1 그 저 돌통 멘드라난 거. 이젠 뭇 돌통이엔 헌 게 어서전 저 성읍니나가야 돌통 보지 게른 도통이엔 헌 건 뭇 볼 썬가 업쨌.{그 저 돼지우리 만들었던 것. 이제는 뭇 돼지우리라고 한 것 없어져서 저 성읍리나 가야 돼지우리 보지 그러면 돼지우리라고 한 것은 뭇 볼 수가 없지.}

###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7 @1 이버는 약초를 혹시 험뎨 얘기가 일쓰면 쫘 드리보쿠다. 혹시 약초를 캐 보러 다닌 저근 일쑤과?{이번은 약초를 혹시 험뎨 얘기가 있으면 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약초를 캐 보러 다닌 적은 있습니까?}

10707 #1 아 약초 캐러 다녀본 버븐 업꼬.{아 약초 캐러 다녀본 법은 없고.}

10707 #2 무사 일쑤과? 몬 싸란 굴물 때. 시, 시우. 시우 캐단.{왜 없습니까? 못 살아서 굶을 때. 오, 오이풀. 오이풀 캐다가.}

10707 #1 시우는.{오이풀은.}

10707 #1 오르메 그게 요.{오름에 그게 요.}

10707 #2 그 약초 캐러 가완쥬게.{그 약초 캐러 가왔지.}

10707 #1 북고름허곡.{북오름하고.}

10707 #2 굴물 때예.{굶을 때예.}

10707 #1 또 저 돌오름허곡 두 군데 배끼. 그 시우엔 험 아 요 군산도 일꾸나. {또 저 돌오름하고 두 군데 밖에. 그 오이풀이라고 한 아 요 군산도 있구나.}

10707 #2 계난 그거 파레 덩견.{그러니까 그거 파러 다녔어.}

10707 #1 그때 파레 험 게 아니라 그 아.{그때 파러 한 것이 아니라 그 아.}

10707 #2 파다네 무건 폼꺄장 험쥬다.{파다가 묶어서 팔기까지 험했습니다.}

10707 #1 아주 이 그때는 처녀총가긴 때고.{아주 이 그때는 처녀총각인 때고.}

10707 #2 아이고, 저 오막싸리집 저 부엌 카나 구들 쟁이 드는 구들 하나 허여네 그때에 살렌 허난 아방신디서 물 저 큰지비 오란 물려된 우리 그디 간 살명 무사 그거 해다네 무꺼그네 파오민 무꺼그네 강 풀곡 허지 아녀쥬과?{아이고, 저 오막살이집 저 부엌 하나 방 쥐 드는 방 하나 해서 그때에 살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서 물 저 큰집에 와서 물려두고 우리 거기 가서 살면서 왜 그거 해다가 묶어서 파오면 묶어서 가서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10707 #1 아 게메.{아 그러게.}

10707 @1 시우가 뽕우파?{오이풀이 뽕니까?}

10707 #2 시우 약초우다.{오이풀 약초입니다.}

10707 #1 약춘덴 아주 냄새가 쿠싱허고.{약초인데 아주 냄새가 구수하고.}

10707 #2 이제도 실 꺼라.{이제도 있을 거야.}

10707 #1 그 큰 약춘데.{그 큰 약초인데.}

10707 #2 쫘 피쥬게.{쫘 피지.}

10707 #1 이 중가넨 저 사르른 아프니까 시우를 헤영 쫘망 메기렌 허영 캐러 가와난 거슨.{이 중간에는 저 사람 아프니까 오이풀을 해서 삶아서 먹이라고 해서 캐러 가왔던 것은.}

10707 #2 이젠 덤불 뽕여부난 사가저불곡.{이제는 덤불 되어버리니까 삭아져버리고.}

10707 #1 아 이제 덤불 뒤편 사가지지 아녀.{아 이제 덤불 되어서 삭아지지 않아.}

10707 #2 노랑헌 끝 피곡.{노란 꽃 피고.}

10707 #1 이 대가 멀꺼치 피지. 아주 까느다라헌 게 축 우티레 올라가곡.{이 대가 뿔처럼 피지. 아주 가느다라한 것이 쪽 위로 올라가고.}

10707 #2 밀랑깨기보단 깁느랄쭈게.{밀대보다는 가늘었지.}

10707 #1 아니 밀랑깨기마니 허주.{아니 밀대만큼은 하지.}

10707 #2 대 사민.{대 서면.}

10707 #1 밀랑깨기마니 충분니 허주.{밀대만큼은 충분히 하지.}

10707 #2 대 사민 노랑허여.{대 서면 노래.}

10707 #1 보리때마닌 안 술진디.{보릿대만큼은 안 살찐데.}

10707 #2 계신디 불리는 ㄴ는ㄴ는허여그네.{그런데 뿌리는 가는가는해서.}

10707 #1 뿌리는.{뿌리는.}

10707 #2 저 입.{저 잎.}

10707 #1 아주 냄새가 아주 쿠시고.{아주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

10707 #2 이파리가 보리 이파리마는.{이파리가 보리 이파리만큼은.}

10707 #1 숨.{삼.}

10707 #2 너번.{넓어서.}

10707 #1 숨보다는 더 냄새가 쿠셔마썸.{삼보다는 더 냄새가 구수해요.}

10707 @1 음.{음.}

10707 #1 게 그게 이 저 만칠 아녀니까.{그것이 이 저 많지 않으니까.}

10707 @1 뭐예?{뭐요?}

10707 #2 처녀총가닌 때 나영 혼디 그거 파레 텅겨 밥떠가?{처녀총각인 때 나랑 함께 그것 파러 다녀 보셨습니까?}

10707 @2 (웃음)

10707 #1 아니 저 사르미영 간 거 아니고 나가 경 헨 가젠 허난.{아니 저 사람이랑 간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하니까.}

10707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7 @1 어 뭐엔 조은 거라 시우?{아, 무엇에 좋은 거야 시우는?}

10707 #1 아, 이 저 하낙빵에서.{아, 이 저 한약방에서.}

10707 @1 아아.{아아.}

10707 #1 그걸 사니까.{그것을 사니까.}

10707 @1 음음.{음음.}

10707 #1 돈 똥다고 해가지고.{돈 된다고 해가지고.}

10707 @1 예.{예.}

10707 #1 그 주넝이 자브레 그 시우 파레 그건.{그 지네 잡으러 그 오이풀 파러 그것은.}

10707 @1 인동꼬장도 타레 텅기고.{금은화도 따러 다니고.}

10707 #1 그 인동꼬장은 타가지고.{그 금은화는 따가지고.}

10707 #2 우리 어린 때부터 탄쭈다.{우리 어릴 때부터 땀습니다.}

10707 #1 (웃음) 타봐야 도니 안 돼여. 이거는 윤동꼬장은.{(웃음) 따봐야 돈이 안 돼. 이것은 금은화는.}

10707 #2 돈 안 돼도 드러 타서.{돈 안 돼도 마구 땀어.}

10707 #1 어 타야 해도 그건 겉또 약초로 가는데 잘 말리도 못터곡 이건 영.{어 따야 해도 그것은 그것도 약초로 가는데 잘 말리지도 못하고 이것은 영.}

10707 #2 무사 몬 몰립니까? 몰리민 저.{왜 못 말리나요? 말리면 저.}

10707 #1 시우허곡 주넝인 자브른 그 쯔 돈 돼곡.{오이풀하고 지네는 잡으면 그 쯔 돈 되고.}

10707 #2 그색보단 막 어두운 색 나왕.{그 색보다는 막 어두운 색 나와서.}

10707 #1 또.{또.}

10707 #2 쿠싱허곡 헐쭈.{구수하고 했지.}

10707 #1 여기 생수에서 베고시보 미리 포타늘 쏘아십쭈게. 저쪽 우보악 아프로. 그러믄 그 포타네 두에 게 아립니다.{여기 생수에서 백오십 밀리 포탄을 쏘았습지요. 저쪽 우보악 앞으로. 그러면 그 포탄에 뒤에 것이 알립니다.}

10707 #1 그거 주성 또 허.{그거 주워서 또 하.}

10707 @1 으음.{으음.}

10707 #1 풀민 그건또 돈 마니 돼는 거.{팔면 그것도 돈 많이 되는 것.}

10707 #2 약초, 약초 시우베끼 파레 덩기.{약초, 약초 오이풀밖에 파러 다닌.}

10708 @1 그 다오메 이 동네에서 약초 재배하는 거 이신가마씨?{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약초 재배하는 것 있는가요?}

10708 #1 아 이딘 약초 재배허는 사름 얻꼬.{아 여기는 약초 재배하는 사름은 없고.}

10708 @1 어서예?{없어요?}

10708 #1 예.{예.}

10708 @1 예.{예.}

10708 #1 이제 여기는 대부분 기자 촌 제주시도 가민 시내 안네 보리마시 보연는데 여긴 보리밭또 일절 업짜느파게?{이제 여기는 대부분 그저 참 제주시도 가면 시내 안에 보리밭이 보였는데 여기는 보리밭도 일절 없잖습니까?}

10708 @2 엔날 살마 파렌 안 다녀쭈과?{옛날 반하 파러는 안 다녔었습니까?}

10708 #2 으?{으?}

10708 @2 살만가 산만가?{살만가 산만가?}

10708 #2 살마?{반하?}

10708 @2 예.{예.}

10708 #2 살마는 이제도 허염신게게. 약게, 탁 켕그네.{반하는 이제도 하고 있네. 약, 탁 해서.}

10708 @2 음.{음.}

10708 #2 살마는 우리 어린 때에 할망네가 과당 거 허머레 해신가 무신 거 살마를 막 과서.{반하는 우리 어릴 때에 할머니네가 과다가 거 중기에 했는가 무슨 거 반하를 마구 봤어.}

10708 @2 거 과그네 풀이기도 허고.{거 과서 팔기도 하고.}

10708 #2 우리도 살마 과난쨌.{우리도 반하 봤었다.}

10708 #1 으, 이 우영에. 살림 산 후에 깎지 살마 판 포랴쨌.{으, 이 터알에. 살림 산 후에까지 반하 과서 팔았지.}

10708 #2 약초로 살마.{약초로 반하.}

10708 #1 겐디 이제는 제초제 해부난산디 그게 업쨌.{그런데 이제는 제초제 해버려서인지 그게 없어.}

10708 @2 으음.{으음.}

10708 #2 무사 어쨌가? 하영 난쨌다.{왜 없습니까? 많이 났습니다.}

10708 #1 아이고, 가끔 하나쨌.{아이고, 가끔 하나쨌.}

10708 @1@2 웃음.

10708 #1 예 연날치록 \*\*\*\*.{아 옛날처럼 \*\*\*\*.}

10709 @1 혹씨 지베서 뭘 약초를 해다가 뭘 야글 멘드라 머거본 저근 인쨌과? {혹씨 집에서 뭘 약초를 해다가 뭘 약을 만들어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10709 #1 아니, 그런 건.{아니, 그런 것은.}

10709 @1 약쨌 말고는.{약쨌 말고는.}

10709 #2 우리 다른 \*\* 해보지 아녀쨌다.{우리 다른 \*\* 해보지 았았습니다.}

10709 @2 약쨌른 헐꼬예?{약쨌은 했고요?}

10709 #2 약쨌른 그 몬전 ㄱ른 거 유쨌.{약쨌은 그 먼저 말한 것 들깨쨌.}

10709 @1 예.{예.}

10709 #2 그거 허연 먹꼬. 술 그때 다끈 땀 그 술허고 저 그거베끼. 뭘 해여그네 술 약쨌 해여보진 아녀쨌다.{그것 해서 먹고. 술 그때 고을 때는 그 술하고 저 그것밖에. 뭘 해서 술 약쨌 해보지는 았았습니다.}

10709 @1 게 그런 경허른 어서예?{그럼 그런 경험은 없어요?}

10709 @2 그 여기 지난 버네 베염딸기우파? 그.{그 여기 지난 번에 뱀딸기입니까? 그.}

10709 #1 예.{예.}

10709 @2 그건또 뭘 약컨덴 허명마쨌?{그것도 뭘 약한다고 하면서요?}

10709 #2 베염딸기라 베염딸기?{뱀딸기야 뱀딸기?}

10709 #1 베염딸기가 아니고 게염지탈?{뱀딸기가 아니고 게염지탈?}

10709 @2 아 게염지탈?{아 뱀딸기?}

10709 #2 베염타리 어디 셔시카부덴.{뱀딸기가 어디 있었을까봐.}

10709 @2 게염지탈 그 그거도 약컨텐 허멍마씨?{뱀팔기 그 그것도 약한다고 하면서요?}

10709 #1 야기 큰 야기주게.{약이 큰 약이지.}

10709 #2 그거.{그것.}

10709 @1 아 그런쭈가?{아 그렇습니까?}

10709 #2 아토피네.{아토피에.}

10709 @2 으.{으.}

10709 #2 우리 아기 걸로 구완해연.{우리 아기 그것으로 구완했어.}

10709 #1 그 우리 애기만 구완헌 게 아니라 저디 또.{그 우리 아기만 구완한 게 아니라 저기 또.}

10709 @1 그 아야머리탈?{그 뱀팔기?}

10709 @2 예.{예.}

10709 #1 광원씨넨 아나네 동네 그 아이덜 여피 아이 그 흥애기네 아이까지.{광원씨네 아니까 동네 그 아이들 옆에 아이 그 흥액이네 아이까지.}

10709 #2 이 모미 전부양.{이 몸이 전부요.}

10709 #1 막 구완헨.{막 구완했어.}

10709 #2 완전 도롱이초록.{완전 도랑이처럼.}

10709 #1 저디 어른도 구완헨씨.{저기 어른도 구완했어.}

10709 @1 으.{음.}

10709 #1 피부뽕산디 뭇싼디 허나네.{피부병인지 무엇인지 하니까.}

10709 @1 어르, 어르레기?{어루, 어루러기?}

10709 #1 막 이런 디 난 거.{마구 이런 데 난 것.}

10709 @2 아토피?{아토피?}

10709 #2 아토피 난.{아토피 나서.}

10709 #1 아 이젠 어르는 아 이거 아토피가 안 가트던데. 이 애기는 우리 애기는 그게 드러간땅 갑작씨리 허든 막 울멍 박박 그 허고 헨는디. 어른 보난 이치룩 켜디 그거 술만 모욕케네.{아 이제 어른은 아 이것 아토피가 안 갈던데. 이 애기는 우리 애기는 그것이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하면 막 울면서 박박 그 하고 했는데. 어른 보니까 이처럼한데 그거 삶아서 목욕해서.}

10709 #1 이제 우리 애기는 그거 해연 모욕시킨 즉씨 시쳐부릴찌.{이제 우리 애기는 그거 해서 목욕시켜서 즉시 씻어버렸지.}

10709 #1 경 허주마는 그 어르는 이거 시치지 아너고 그냥 이스나네 갑작씨리 도실도실 허더라고마씨.{그렇게 하지만 그 어른은 이거 씻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도톨도톨하더라고요.}

10709 @1 게난 게염지탈만 타다그네.{그러니까 뱀팔기만 따다가.}

10709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 아니, 아니. 그제 뿌리영.{아니, 아니. 그 것이 뿌리랑.}



10709 #2 이파리영.{이파리랑.}

10709 #1 몸땡이 문딱.{몸둥이 뭉땅.}

10709 @2 예.{예.}

10709 @1 음음.{음음.}

10709 #1 그거 문딱 케영으에.{그것 뭉땅 해서.}

10709 #2 안 봐신가?{안 봤는가?}

10709 #1 무레 슬망.{물에 삶아서.}

10709 @2 판마씨.{봤어요.}

10709 #2 판?{봤어?}

10709 @2 아, 교수니른 안 보고.{아, 교수님은 안 보고.}

10709 #2 안 봤지.{안 봤지.}

10709 #1 우리 우영에 이제.{우리 터알에 이제.}

10709 @2 이땅 뵙 가게.{이따가 봐서 가게.}

10709 @1 예.{예.}

10709 #1 그게 왜 그걸 인느냐 허면.{그것이 왜 그것이 있느냐 하면.} #2 요버네도 보내연 거 몰런 날판.{요번에도 보냈어. 그것 말려서 놔두었다가.}

10709 @2 음.{음.}

10709 #1 저 우\*\* 아피 우보악 그디 가네 그거 스몐 몬 아무 디나 일찌 아년 해단 해도 우영에 시면 막 번성헐따가 이버네 그 저 낭 새로 새 품종 개선허젠 허난 그 포크렝 오난 다 글거벼도 그게 목쭈미 상당히 질긴 건게.{저 우\*\* 앞에 우보악 거기 가서 그것 사못 못 아무 테나 있지 앓고 해다가 해도 터알에 심어서 막 번성했다가 이번에 그 저 나무 새로 새 품종 개선하려고 하니까 그 포크레인 오니까 다 끊어버려도 그게 목숨이 상당히 질긴 거네.}

10709 @1 음.{음.}

10709 #1 터렁 담 옆디레 던져 놔둔 게 부턴 사란 지금 경 아녀도 업췌불젠 저게 너무 번식류리 너무 강허더라고.{떨어서 담 옆에 던져 던져 놔둔 것이 붙어서 살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없애버리려고 저것이 너무 번식률이 너무 강하더라고.}

10709 @2 음.{음.}

10709 #1 막 줄 버더가명 그냥 혼 믋지게 뿌리 하나 혼 믋지게 뿌리 하나 뭐.{막 줄 뺏어가면서 그냥 한 마디에 뿌리 하나 한 마디에 뿌리 하나 뭐.}

10709 @1 예, 마쭈다.{예, 맞습니다.}

10709 #1 예. 십 쉐치에 뭐 뿌리 하나라. 민민 그자.{예. 십 센티미터에 뭐 뿌리 하나야. 밋밋 그저.}

10709 #2 타리 벌경케 으는디 하나 이거가민 새가 타머거불곡 타머거. 이제 두개 이거선게.{딸기가 벌경케 여는데 하나 익어가면 새가 따먹어버리고 따먹어. 이제 두개 익었던데.}

10709 @2 아아.{아아.}

10709 @1 계난 그 뿌리하고 이파리 놔그네 딸령.{그러니까 그 뿌리하고 이파리 넣어서 달여서.}

10709 #1 아 뿌린.{아 뿌리는.}

10709 #2 소곰 노코.{소금 넣고.}

10709 #1 혼누시 몬테보콕 입 줄거리하고 입퍼콕 그 여르문 저 그땐 우리 헐 땐.{별로 못해보고 잎 줄거리하고 입하고 그 열매는 저 그때는 우리 할 때는.}

10709 #2 뿌리가 그거우다게.{뿌리가 그겁니다.}

10709 #1 업쭈게.{없지.}

10709 #2 드라진 게 그걸까 빨리라.{매달린 게 그것이 뿌리야.}

10709 #1 경 해연.{그렇게 해서.}

10709 #2 다른 지폰 빨리가 어서.{다른 깊은 뿌리가 없어.}

10709 #1 계난 땅쓰게 뭐 드러가나 현 빨린 얻꼬. 이게 호박 녀쿨 빠더가멍 빨리 생기들끼.{그러니까 땅속에 뭐 들어가나 하는 뿌리는 없고. 이것이 호박 녀쿨 뻗어가면서 뿌리 생기듯이.}

10709 #1 건디 요저네 그 두레기 줄 나가는 게 하루 츠냐게 두 므지기 나간덴 헨는디 아 요전날 츠냐근 무껌 놔두난 하루 츠냐게 세 므자가 나간때.{그런데 요전에 그 하눌타리 줄 나가는 것이 하루 저녁에 두 마디가 나간다고 했는데 아 요전날 저녁은 묶어서 놔두니까 하루 저녁에 세 마디가 나갔대.}

10709 @1 두레기가마씨?{하눌타리가요?}

10709 #1 예. 아 거 그러케 동자기 빨라.{예. 아 그것 그렇게 동작이 빨라.}

10709 @2 두레기가 어떻게 한다고. 하루 츠냐게 어떠케.{하눌타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루 저녁에.}

10709 #2 스랑헌.{길쭉한.}

10709 @2 두 므작.{두 마디.}

10709 #1 두 므자글 나가는 걸로 아란는데.{두 마디를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10709 #2 세 므작 나간.{세 마디 나갔어.}

10709 #1 요저넨 (웃음) 두 므작 나갑니다 허연 애긴 헨 놔뒀는데 녀쿨 쭉에 켈 빨리 나가는 게 그 두 므자기 켈 현 건데.{요전에는 (웃음) 두 마디 나갑니다 해서 얘기는 해서 놔두었는데 녀쿨 중에 켈 빨리 나가는 것이 그 두 마디가 제일 한 것인데.}

10709 #1 칭, 칙또.{칙, 짹도.}

10709 @1 혼 모작.{한 마디.}

10709 #1 그건또 두 므자글 안 나갑따다. 현디 그게 빠르게 나가는 건디 이번 무껌 나뒹 받는디 세 므자기 나간때. 하루 츠냐게.{그것도 두 마디를 안 나갑디다. 그런데 그게 빠르게 나가는 것인데 이번 묶어서 놔두어 뵈는데 세 마디가 나갔대. 하루 저녁에.}

10709 #1 계난 아 이게 이 날씨 관계도 인는 건가 허연. 몰라, 오늘 또 무껌 놔 두신디 널 보른 알주 뭐.{그러니까 아 이것이 이 날씨 관계도 있는 것인가 해서. 몰라, 오늘 또 묶어서 놔두었는데 널 보면 알지 뭐.}

10709 #2 어디 꺼?{어디 것?}

10709 @2 아까 하늘레기도 민간노빠베 뭐에 쓰는 거우파?{아까 하늘타리도 민간요법에 뭐에 쓰는 겁니까?}

10709 #2 하늘레기가 씨 멍넨 해신디 뭐, 뭐에 멍는 건 모르커라.{하늘타리가 씨 먹는다고 했는데 뭐, 무엇에 먹는 것인지 모르겠어.}

10709 @2 아 여기선.{아 여기서는.}

10709 @1 우리 엔나렌.{우리 옛날에는.}

10709 @2 안 머거쭈광?{안 먹었습니까?}

10709 #2 안 머거판.{안 먹어봤어.}

10709 @1 열털 때 거 날뎌 거 아닌가마씨?{옛할 때 거 날뎌 거 아닌가요?}

10709 #2 하늘레기마씨?{하늘타리요?}

10709 @1 예. 열털 때.{예. 옛할 때.}

10709 #2 야그로나 여슬 그거 난 허나 헐쭈.{약으로나 옛을 그거 넣어서 하나 했지.}

10709 #1 그 씨 해넨 시천 몰류와네 막 사가난 걸론 아는디. 하늘레가 조은 건디 뭐 경 무슨 야게 대해네.{그 씨 해서 썰어서 말려서 막 사갔던 것으로는 아는데. 하늘타리가 좋은 것인데 뭐 그렇게 무슨 약에 해서서.}

10709 @2 이 동네선 아넬꾸나예?{이 동네서는 안 했군요?}

10709 #2 먹켄 허멍 타온 사름덜 이신디.{먹겠다고 하면서 따온 사람들 있는데.}

10709 @2 음.{음.}

10709 @1 계난 우리는 어린 때 거 열털 때 날뎌 거 가태예.{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거 옛할 때 날뎌 거 같아요.}

10709 #2 멍는 여세마씨?{먹는 옛예요?}

10709 @1 예.{예.}

10709 #2 그 야그로 해쭈다. 게민 요거치록.{그 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처럼.}

10709 @1 예.{예.}

10709 #1 겐디 여기 여스로 만드나 그 하늘레기도 잘 이그민 그 쏘게.{그런데 여기 옛으로 만드나 그 하늘타리도 잘 익으면 그 속에.}

10709 @1 계난 다시 한번만 험쭈예. 그 뭐냐, 아야머리탈. 게민 게염지탈.{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합지요. 그 뭐냐, 뱀딸기. 그러면 뱀딸기.}

10709 @1 그건 뭐 이러케 북 케그네 걸 소금 넣 뺨상.{그것은 뭐 이렇게 북(?) 해서 그것을 소금 넣어서 뺨아서.}

10709 #1 아니, ㅁ. ㄴ 쥘 아녀고 그냥.{아니, 빵지 않고 그냥.}

10709 @1 딸렁.{달여서.}

10709 #2 시쳐똥.{씻어두고.}

10709 #1 풀 해당으네.{풀 해다가.}

10709 #2 시쳐똥 소금 흐뭇 노코 커영 쫄망.{씻어두고 소금 조금 넣고 해서 삶아.}

10709 #1 시치믄 저 사르미 막 야소컨 사르미난 시친 거고.{씻음은 저 사람이 막 깨끗한 사람이니까 씻은 것이고.}

10709 #2 시쳐사주.{씻어야지.}

10709 #1 저디 시치지도 아녕 그냥 해다네 소금 난 딸리난 무리 툽툽페고.{저기 씻지도 않고 그냥 해다가 소금 넣어서 달이니까 물이 툽툽해고.}

10709 @1 음.{음.}

10709 #1 저 사르믄 그디 검질도 안 들지 아무건또 안 들지.{저 사람은 거기 검부러기도 안 들지 아무것도 안 들지.}

10709 #2 하르방덜 굶은 무리고 아기덜 굶은 건 피부가 약커는 따문.{할아버지들 감는 물이고 아기들 감는 것은 피부가 약하는 따문.}

10709 @2 웃음.

10709 #2 먼지가 얼마나 신 중 알미우짜? 그디.{먼지가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거기.}

10709 #1 광우니네 애기 허는 걸 나 받. 케난 그디.{광운이네 아기 하는 것을 나 봤어. 그러니까 거기.}

10709 #2 그 사르믄 날보다 더 허는 사르미우다.{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는 사람입니다.}

10709 #1 거 더 허미랑마랑 면는 거에 더 허는 사르미주. 그냥 헨.{거 더 함이랑마랑 먹는 것에 더 하는 사람이지. 그냥 해서.}

10709 @1 게 아토피에 조타는 거야.{게 아토피에 좋다는 거야.}

10709 @2 예. 경 허니까.{예. 그렇게 하니까.}

10709 @1 아니 우리 동네 일써서 가서 쫘 얘기해 줄려고.{아니 우리 동네 있어서 가서 쫘 얘기해 주려고.}

10709 @2 ㄴ라줄려고예?{말해주려고요?}

10709 @1 음음.{음음.}

10709 @2 음.{음.}

10709 #2 하쑤다. 이제 아토피 제주도가 질 만텐.{많습니다. 이제 아토피는 제주도가 쥘 많다고.}

10709 @2 음.{음.}

10709 #2 경 허난양 하셔. 아기더리.{그러니까요 많아요. 아기들이.}

10709 @1 예. 마쑤다.{예. 맞습니다.}

10709 #2 게난 그거양 소금 쫘 노록 경 헤그네 쏘망 그 무레 모요글 시켜줘봅써.{그러니까요 그것요 소금 쫘 넣고 그렇게 해서 삶아서 그 물에 목욕을 시켜줘버리세요.}

10709 @1 음.{음.}

10709 #1 겐또 혼 올레 안이나 다름 엄는다 그 광워니네나 이제 저 홍구 포크렌 아이.{그것도 한 오래 안이나 다름 없는데 그 광원이네나 이제 저 홍구 포크레인 아이.}

10709 #1 가네나 그 혼 집 아이라게. 어떠튼 혼 지빈디 \*\*\*\* 살긴 사람쭈마는 씨는 딱난 사람더리주만.{개네나 그 한 집 아니야. 어떠튼 한 집인데 \*\*\*\* 살기는 살고 있지만 씨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10709 #1 그 이 아이 걸런 헤가난 이 아이도 걸리난 그걸로 두 아이가 다 구와니 똥 스물.{그 이 아이 걸려서 헤가니까 이 아이도 걸리니까 그것으로 두 아이가 다 구완이 되어서 사뭇.}

10709 #2 오르는 건 아니고 그 요즈메 그치룩 올 다 날 때부터 경 타고 남쭈. 오르는 건 아니고. 겐디 그 그런 아이가 제주도가 쥔 만텐 허난.{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 요즘에 그처럼 올 다 날을 때부터 그렇게 타고 나고 있지.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그런 아이가 제주도가 쥔 많다고 하니까.}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8.1. 세시 풍속

10801 @1 예, 조쭈다. 이버는네, 약초는 이제 끈난 거고예, 이버는 뭇 혈 꺼냐면 일녀늘 쭈 정월 음력 정월서부터 어 선달까지 한번 가볼 꺽쭈게.{예, 좋습니다. 이번은요, 약초는 이제 끝난 것이고요, 이번은 뭇 할 것이냐면 일녀늘 쭈 정월 음력 정월서부터 아 선달까지 한번 가볼 것입지요.}

10801 @1 게민 정월 나면 뭇허곡 그 다음 영등딸 나면 뭇허곡 지난 버네 장간 애길 헐쭈마는네.{그러면 정월 되면 뭇하고 그 다음 영등달 되면 뭇하고 지난 번에 잠간 얘기를 했지만요.}

10801 @2 한번 정리.{한번 정리.}

10801 @1 다시 한번만 또 정리를 해봅쭈예?{다시 한번만 또 정리를 해봅지요?}

10801 @1 어 여기서 정월따레는 뭇뭇 허는고예? 일탄 멍질헐 꺼고예.{아 여기서 정월달에는 뭇뭇 하는가요? 일단 멍질할 것이고요.}

10801 @2 정월 초하루예.{정월 초하루예.}

10801 @1 예, 정월 초하루 멍질헐 꺼고.{예, 정월 초하루 멍질할 것이고.}

10801 @1 그때는 한번 쭈 ㄴ라쭈 봅써. 설허는 거. 멍질허는 거예.{그때는 한번

쭉 말해줘 보십시오. 설하는 것. 명절하는 것요.}

10801 #1 멧질허는 건 저 사르미 잘 아난.{명절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 아니까.}

10801 @2 (웃음)

10801 #2 멧질허는 거게 떡 큰떡커젠. 큰떠기여 헌 건 솔벤 젤벤.{명절하는 거 떡 큰떡하려고. 큰떡이라고 하는 것은 솔편 절편.}

10801 @1 다설 깨예?{다섯 개요?}

10801 @2 으.{으.}

10801 #2 솔벤 절벤허곡 침떡커곡 경 아너는 딴 송편. 송편허곡 그냥 마주완 헤 오니까 침떡커곡.{솔편 절편하고 시루떡하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송편. 송편하고 그냥 맞춰서 해오니까 시루떡하고.}

10801 @2 으.{으.}

10801 #2 경 허영 묵커곡 적갈 두 가지. 이젠 오징어 경 헤그네 세 가지. 묵커곡 허민 네 가지. 그거허곡.{그렇게 해서 묵하고 산적 두 가지. 이제 오징어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묵하고 하면 네 가지. 그것하고.}

10801 #2 과이른 배 사과 미깥.{과일은 배 사과 굴.}

10801 #2 겉싸 지지미도 다 허자녀게. 연나른 그런 지지미도 아넌는디 지지미도 한 가지만 아니고 두서너 가지.{그거야 지짐이도 다 하잖아. 옛날은 그런 지짐이도 안 했는데 지짐이도 한 가지만 아니고 두서너 가지.}

10801 #2 지지미도 세 가진 허곡. 호박.{지짐이도 세 가지는 하고. 호박.}

10801 #1 초가지지미 뭇 뭇 고가지지미 뭇.{버섯지짐이 뭇 뭇 고가지지미 뭇.}

10801 #2 딱시 절 뭇니? 거 아이덜 쏘세지.{다시 저 뭇니? 거 아이들 소시지.}

10801 @2 음.{음.}

10801 #2 쏘세지전허곡 경 헤그네 둘. 초기전 버선 초기전허곡 세 가지.{소시지 전하고 그렇게 해서 둘. 버섯전 버섯 버섯전하고 세 가지.}

10801 #2 경 헤영 채소도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그렇게 해서 채소도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10801 @1 예.{예.}

10801 #2 미역 채수.{미역 채소.}

10801 @2 아, 여기 미역 채소도해예?{아, 여기 미역 채소도한다고요?}

10801 @2 올리는 겉또.{올리는 것도.}

10801 #2 미역 채수, 미역 채소허곡.{미역 채소, 미역 채소하고.}

10801 #1 게난 제사허는 법또 이게 완전니 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그러니까 제사하는 법도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10801 #2 양에끈.{양하꽃이삭.}

10801 #1 막 어린 때는 젤 그 상에 올라가 거시 상이 켜근만해도 젤 문제가 그 묵, 묵쩍갈, 그냥 돼지적갈도 요만씩 써령으네 다설 찜 꿔여가지고 그건또 허지.{막

어릴 때는 제일 그 상에 올라가는 것이 상이 자그마해도 제일 문제가 그 묵. 묵산적 그냥 돼지산적도 요만씩 썰어서 다섯 점 꿰어가지고 그것도 하지.}

10801 #1 이제 뭐 이제는 이 저 소고기적깔 막 올라감찌마는 그땐 돼지적깔도 저 아주 그 가난하게 행으네 목적까른 꼭허곡.{이제 뭐 이제는 이 저 소고기산적 막 올라가고 있지만 그때는 돼지산적도 저 아주 그 가난하게 해서 묵산적은 꼭하고.}

10801 #1 또 떡또 허젠 허민 아까 선생네 그 지반 김치비는 아까 절벤 솔베늘 허고 일찌마는 우리ㄴ튼 타각썰 이 뭐헌 사름더른 절벤 솔벤 헌 지비 어설쭈게.{또 떡또 하려고 하면 아까 선생네 그 집안 김집은 아까 절편 솔편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타 각성 이 뭐한 사람들은 절편 솔편 한 집이 없었습니다.}

10801 #1 어설꼬. 이제는 뭐 또 확 바파전 김칩뽀단 우리 이 타 각썰더리 더 찌그른 반대돼여네 더 잘 허염쭈마는.{없었고. 이제는 뭐 또 확 바뀌어서 김칩보다는 우리 이 타 각성들이 더 지금은 반대되어서 더 잘 하고 있지만.}

10801 #1 이제 우리 지비 이제 우리 조케네 이제 큰 저 무신 거허는 걸 봐도, 제사허는 걸 봐도 아 상이 쪼가가지고 이젠 또 저 식당에 쓰는 큰상 해단 허여도 이빠이 찰 쟁도.{이제 우리 집이 이제 우리 조카네 이제 큰 저 무슨 것하는 것을 봐도, 제사하는 것을 봐도 아 상이 작아가지고 이젠 또 저 식당에 쓰는 큰상 해다가 해도 가득 찰 정도.}

10801 @1 예, 진설예?{예, 진설요?}

10801 #1 예. 진설헌 게. 아, 연나렌 춤 우리 아버지 할 때 보민 목적깔 돼지적깔 거 작꼬 바른께기도 이제는 뭐 할망 하르방이민 두 개 올렘찌마는 거 하나도 춤제오 할 쟁도고.{예. 진설한 것이. 아, 옛날에는 참 우리 아버지 할 때 보면 묵산적 돼지산적 거 작고 바닷고기도 이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면 두 개 올리고 있지만 거 하나도 참 겨우 할 정도이고.}

10801 #1 그 고사리는 춤 무사라로 꼭 해야웨고.{그 고사리는 참 왜인지 꼭 해야되고.}

10801 #1 탕시도 이젠 뭐 탕시가 댕 까지. 무수 채수에 뭐 메역 채수, 콩나물 채수 뭐 아이 무신.{채소도 무슨 뭐 채소가 댕 가지. 무 채소에 뭐 미역 채소, 콩나물 채소 뭐 아니 무슨.}

10801 @1 미나리.{미나리.}

10801 #1 아니.{아니.}

10801 @1 양에.{양하.}

10801 #2 양에끈.{양하꽃이삭.}

10801 #1 양에끈 또 저.{양하꽃이삭 또 저.}

10801 #2 미나리.{미나리.}

10801 #1 아니, 낭면? 나면.{아니, 낭면(?) 라면.}

10801 @1 당면.{당면.}

10801 #1 당면, 당면해가지고 뭐.{당면, 당면해가지고 뭐.}

10801 #2 라면?{라면}

10801 #1 그 상이 주루루하게 놀 쟁도고 험디 연나렌 그게 아니고 고사리허곡 막 잘헌 지비는 저 무수 채소.{그 상이 주르르하게 놓을 정도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고사리하고 막 잘한 집에는 저 무 채소.}

10801 #1 그거나 허영으네 올렸찌 그 콩나물도 워낙 정신 이성 헌 사르믄 지바네서 키왕 헐꼬 이젠 뭐 돈만 주면 팍팍 켤 땀디 그땐 뭐 돈 줘도 저 콩나물도 못 살쓰니까.{그것이나 해서 올렸지 그 통나물도 워낙 정신 있어서 한 사람은 집안에서 키워서 했고 이젠 뭐 돈만 주면 팍팍 할 때인데 그때는 뭐 돈 줘도 저 콩나물도 못 샀으니까.}

10801 #1 돈도 어설꼬. 또 사쟁 해도. 경 허멍 사라와신디 이젠 뭐 이 상 출린 거 보민 뭐 아, 참, 우리 처가치비도 조케가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하루쳐냐게 일녀네 두 버늘 가야 돼는디 하루쳐낙만 가면 돼는데.{돈도 없었고. 또 사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이 상 차린 것 보면 뭐 아, 참 우리 처갓집에도 조카가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하루저녁에 일년에 두 번을 가야 되는데 하루저녁만 가면 되는데.}

10801 #1 그 어떠케.{그 어떻게.}

10801 @1 합째를?{합째를?}

10801 #1 합째헌 건 아니고.{합제한 것은 아니고.}

10801 @2 음음.{음음.}

10801 #1 오닐 장인 제사니까 오닐 먹꼬 널.{오늘 장인 제사니까 오늘 먹고 내일.}

10801 #2 널 아침 도라가션.{내일 아침 돌아가셔서.}

10801 #1 널 아, 널 도라가시킨 오날 처냐게 장인 제산디.{내일 아, 내일 돌아가시니까 오늘 저녁에 장인 제사인디.}

10801 #2 만무힘니다게.{만무합니다.}

10801 #1 이젠 하루쳐냐기 돼는 겹쭈. 여긴 도라가신 아시날 열뚜 시에 허기 때무네.{이젠 하루저녁이 되는 것입지요. 여기는 돌아가신 전날 열두 시에 하기 때문에.}

10801 @1 예, 마쭈다.{예, 맞습니다.}

10801 #1 예. 제주시는 이제 아홉 씨에 허는 따문 내일 저녁 저 아홉 씨에 허믄 돼는 건디 경 해연 춤 하루쳐낙글 허는 디도 강 보민 뭐 상 차려논 게 으리으리허나네.{예. 제주시는 이제 아홉 시에 하는 따문 내일 저녁 저 아홉 시에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참 하루저녁을 하는 데도 가서 보면 뭐 상 차려놓은 것이 으리으리하니까.}

10801 #1 요 우리도 제사 머그레 갈 땐 일녀네 두 버늘 머글 켜디 혼 번 머검시난.{요 우리도 제사 먹으러 갈 때는 일년에 두 번을 먹을 것인데 한 번 먹고 있으니까.}



10801 #1 혼 번 명는 건또 뭐 아저 가나 하나라도 잘해영 가자 허멍 허민 말로만 허지 마랑.{한 번 먹는 것도 뭐 가져 가나 하나라도 잘해서 가자 하면서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10801 @1 (웃음)

10801 #1 실천도 허여.{실천도 해.}

10801 @1 @2 (웃음)

10801 #1 (웃음).

10801 @1 예. 그 다으메 대보름도 해신가마씨? 정월보름. 정월 보름 뭐 허여난 쭈과? 어린 때. 한번 생각해 봅써?{예. 그 다음에 대보름도 했는가요? 정월 보름. 정월 보름 뭐 했었습니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801 #1 아이고 여기 정월 보름도 뭐 콩웃 놀곡.{아이고 여기 정월 보름도 뭐 콩웃 놀고.}

10801 @1 예.{예.}

10801 #1 뭐.{뭐.}

10801 @1 콩놀네.{콩웃요.}

10801 #1 에 허곡 해연는디 이젠 뭐 그런 정월 보르미라고 해가지고 콩놀 올곡.{에 하고 했는데 이젠 뭐 그런 정월 보름이라고 해가지고 콩웃 놀고.}

10801 #2 콩놀 올곡 잘해영 먹꼭.{콩웃 놀고 잘해서 먹고.}

10801 #1 뭐 그런 건.{뭐 그런 것은.}

10801 @1 흑씨 여늘 그날 방스허지 아녀마씨?{흑시 연을 그날 방사하지 않아요?}

10801 #1 아 연도 올리곡 경 헨는디 이젠 연도 이디 띄우는 거 영 어서마씨.{아 연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젠 연도 여기 띄우는 것 전혀 없어요.}

10801 #1 아이더리 그런 연 띄우는 거는 허여드렌 안 너고 우리 손지덜토 썸 뭐야 게임. 그런.{아이들이 그런 연 띄우는 것은 해달라고 안 하고 우리 손자들도 저 뭐야 게임. 그런.}

10801 #2 연. 초, 초승부터 여는 멘드란 허연.{연. 초승부터 연은 만들어서 했어.}

10801 @1 예. 여늘 멘드랑 띄우당으네 보름날.{예. 연을 만들어서 띄우다가 보름날.}

10801 #2 그때 오라가민 멘드라 드렌 막 커여.{그때 와가면 만들어 달라고 막 해.}

10801 @1 예, 방쉬도 허고예?{예, 방법도 하고요?}

10801 #1 게곡.{그리고.}

10801 #2 하르방더리 든 멘드라.{할아버지들이 몽땅 만들어.}

10801 #1 팽이.{팽이.}

10801 @1 예.{예.}

10801 #1 팽이허곡 정월뜨렌 뭐 팽이니 우리 어린 땐 팽이도 그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노난 겐또 낭도 아무 낭이나 되는 겐도 아니고. 겐또 돗방나무베끼 안 돼 니까.{팽이하고 정월달에는 뭐 팽이니 우리 어릴 때는 팽이도 그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나무도 아무 나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동백나무밖에 안 되니까.}

10801 @2 무슨 낭마씨?{무슨 나무요?}

10801 #1 돗방낭.{동백나무.}

10801 @2 돗방낭으로 팽일 만드란예?{동백나무로 팽이를 만들었다고요?}

10801 #1 예.{예.}

10801 @2 아아.{아아.}

10801 @1 예. 그 다으메 지바네 뭐 벨룽쟁이도 헤나쭈가? 정월따레 벨룽쟁이. {예. 그 다음에 집안에 뭐 푸닥거리도 했었습니까? 정월달에 푸닥거리.}

10801 #2 벨룽쟁이가?{푸닥거리가?}

10801 @1 심방 비러다그네 올래 우리 집.{심방 빌려다가 올래 우리 집.}

10801 @2 안택커는 거.{안택하는 것.}

10801 #2 정월?{정월?}

10801 @1 예.{예.}

10801 #2 정월 예. 정워레 허는 사르른 선달그믐 웨영 정월부터 앵글 막쭈. 정월. 일너네 꺼.{정월 예. 정월에 하는 사람은 선달그믐 되어서 정월부터 앵글 막지. 정월. 일년에 것.}

10801 @1 예.{예.}

10801 #2 경 허영 선뜨레 허는 사름도 일꼭. 정월 보르메. 정월 보르메 앵글 막쭈. {그렇게 해서 선달에 하는 사름도 이쪽. 정월 보름에. 정월 보름에 앵글 막읍지요.}

10801 @1 예.{예.}

10801 #2 정월 초하룻날은 저디 믇실 카곡.{정월 초하룻날은 저기 마을 가고.}

10801 #2 당에.{당에.}

10801 @1 예예예.{예예예.}

10801 @2 음.{음.}

10801 #1 겐또 아무나 안 감쭈다.{그것도 아무나 안 갑니다.}

10801 @1 아아.{아아.}

10801 #1 당에 가는 겐또 매 지비 가는 거 아니고.{당에 가는 것도 매 집에 가는 것 아니고.}

10801 #2 예, 뭇딱 갑니다.{예, 뭇땅 갑니다.}

10801 #1 뭐 이제 하영 안 감쭈, 무신.{뭐 이제 많이 안 가고 있지, 무슨.}

10801 @1 조왕제도 험니까? 정월따레.{조왕제도 합니까? 정월달에.}

10701 #2 조왕제 아녀.{조왕제 안 해.}

10801 @1 아 너고예?{안 하고요?}

10801 @2 아까 콩유시 뭐마씨?{아 콩웃이 뭐예요?}

10801 #2 콩 윤.{콩 웃.}

10801 @2 콩윤?{콩웃?}

10801 #2 윤노리.{웃놀이.}

10801 @1 쪼고만.{조그마한.}

10801 #1 모에 다슨 개, 수세 네 개, 거레 세 개, 토에 두 개, 뭐 이러케 저 놔가지고.{모에 다섯 개, 웃에 네 개, 곁에 세 개, 도에 두 개 뭐 이렇게 저 놔가지고.}

10801 #2 콩으로 순짜.{콩으로 숫자.}

10801 #1 그 콩 땅 먹기 위해서 윤까라 던정 이제 모쪼 나민 다선 아덜 아저당 머거질 꺼나네. 콩 보곤 거.{그 콩 따서 먹기 위해서 웃가락 던져서 이제 모쪼 나민 다섯 아들 가져다가 먹어질 것이니까. 콩 붉은 거.}

10801 @2 콩 보곤 거 가져단 곁 말로 쓰는 거라마씨?{콩 붉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말로 쓴 거예요?}

10801 #1 으, 말로 놔가지고.{으, 말로 놓아가지고.}

10801 @2 으.{으.}

10801 #2 따오는 거지. 도늘.{따오는 것이지. 돈을.}

10801 #1 따오.{따오.}

10801 #2 도니민 시 버니다 베 귀니다 그 따오는 거. 그건. 그 콩을 따오는 거. {돈이면 십 원이다 백 원이다 그 따오는 것. 그것은. 그 콩을 따오는 것.}

10801 #1 게난 여러이 아지민 도라가명 난 모 이 순 네우민 네 알 판 거고.{그러니까 여러이 앓으면 돌아가면서 나는 모 이 웃 나면 네 알 판 것이고.}

10801 #1 그냥 이제 돈 내길 허나 담배 내기 허는 건 단 두리나 너이가 마쌍으네 뭐 허영으네 이 몰 썩으네 몰 네 개가 나야 당서닌데.{그냥 이제 돈 내기를 하나 담배 내기 하는 것은 단 둘이나 넷이 맞서서 뭐 해서 이 말 써서 말 네 개가 나야 당선인데.}

10801 #1 이걸 몰 네 개 나서 당선허는 거 아니고.{이것은 말 네 개 나서 당선하는 것이 아니고.}

10801 @2 예.{예.}

10801 #1 자기 그 기술 바뤄해가지고 콩 따다 멍는 그 기분, 그 저 콩을 보까가지고 이젠 뭐 보깡 그냥 쥐도 안 머글 꺼주마는 그땐 뭐.{자기 그 기술 말뒤흔해가지고 콩 따다가 먹는 그 기분, 그 저 콩을 붉아가지고 이젠 뭐 붉아서 그냥 쥐도 안 먹을 것이지만 그때는 뭐.}

10801 @1 나는 콩놀타니깐네.{나는 콩웃하니까요.}

10801 @2 짜근 곁로 생각켄찌예?{작은 것으로 생각했지요?}

10801 @1 유까라기 조근 거로 생각케십쥬.{웃가락이 작은 것으로 생각했습지요.}

10801 @2 에헤.{에헤.}

10801 @1 경 행 요 종지에 놔그네 영 허는 거.{그렇게 해서 요 종지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10801 #1 아니 아니.{아니, 나니.}

10801 @1 아아.{아아.}

10801 #1 그.{그.}

10801 @1 쿵 따먹끼구나예?{쿵 따먹기군요?}

10801 #1 쿵 따먹끼.{쿵 따먹기.}

10801 @1 게난 윤노린 윤 노라그네 쿵 따먹끼.{그러니까 윗놀이는 윗 놀아서 쿵 따먹기.}

10801 #1 예, 윤 노랑.{예, 윗 놀아서.}

10801 @2 아니, 아니, 게니까 다른 거는 어른들 허는 거는 마를 다 나야 이기는 거 아니우파?{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른들 하는 것은 말을 다 나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10801 @2 건디 이건 말 나지 안코.{그런데 이것은 말 나지 않고.}

10801 #1 예. 말 나질 아녀고.{예. 말 나질 않고.}

10801 @2 던진 만큼 마냐게 지금 내가 숀 노민 네 알 가져가고.{던진 만큼. 만약에 지금 내가 윗 나면 네 알 가져가고.}

10801 #1 어, 모 나민.{아, 모 나면.}

10801 @2 모 나미 다설 딸 가져가고. 게문 여러 명이 한꺼버네 헐 췌 일궈파예?{모 나면 다섯 알 가져가고. 그러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겠네요?}

10801 #1 예. 도라가명 거 혼 번 모 나민 다설 딸만 아정 따으른 탄 사르미 허곡.{예. 돌아가면서 거 한 번 모 나면 다섯 알만 가져서 다음은 다른 사람이 하고.}

10801 @2 모 나른 두 번 아녀마씨?{모 나면 두 번 안 해요?}

10801 #1 두 버는 일절 얻꼬 아.{두 번은 일절 없고 아.}

10801 @2 아 그런 건 얻꼬 혼 번 썩만 허든 돼. 가명으네 허는 거.{아, 그런 것은 없고 한 번썩만 하면 돼. 가면서 하는 것.}

10801 #1 이거 저 따먹기 헐 거나네.{이것 저 따먹기 한 것이니까.}

10801 @2 아아.{아아.}

10801 #1 이젠 그냥 몰 네 개 나는 딴 모 나민 다시허고.{이제는 그냥 말 네 개 나는 데는 모 나면 다시하고.}

10801 @2 예.{예.}

10801 #1 몰 네 개가 나야만.{말 네 개가 나야만.}

10801 @2 이기는 거난.{이기는 것이니까.}

10801 #1 이기는 거지 몰 네 개 몬 나민 뽀 아피 몰 세 개 난는데 혼나 몬 낚지는 사르미 한낱허주게.{이기는 것이지 말 네 개 못 나면 뽀 앞에 말 세 개 낚는데 하나 못 나서 지는 사람이 많고 많지.}

10801 #1 경 허주마는 그게 아니고 우리 정월 보름나른 운수 보기 위해서 이제 모가 하영 나느냐 수시 하영 나느냐 토가 하영 나느냐 거리 하영 나느냐 이거.{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월 보름날은 운수 보기 위해서 이제 모가 많이 나느냐 웃이 많이 나느냐 토가 많이 나느냐 곁이 많이 나느냐 이것.}

10801 @2 거는 나이 불문하고 해마씨?{그것은 나이 불문하고 해요?}

10801 #1 예.{예.}

10801 @2 음.{음.}

10801 #1 그냥 모아 아지민 기자 건또 쿵이 보곤 (웃음) 보깡 내노는 사르미 인 씨야 꿔주. 그 뭐 돈 권 상으네 허는 건 아니랴꼬.{그냥 모여 앉으면 그저 그것도 쿵이 붉은 (웃음) 붉아서 내놓은 사람이 있어야 돼지. 뭐 돈 쥐서 사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

10801 @2 예.{예.}

10801 @2 그 다으메.{그 다음에.}

10801 @1 그때 혹시 오곡밥도 해머거납따가? 정월따래.{그때 혹시 오곡밥도 해 먹었습니까? 정월달에.}

10801 #2 오곡빠븐 힘니다.{오곡밥은 합니다.}

10801 #1 허주 이제도. 아 이제도 해.{하지 이제도. 아 이제도 해.}

10801 #2 다설 까지.{다섯 가지.}

10801 @2 연날도 해날쭈과?{옛날도 했었습니까?}

10801 #2 음. 아주 연나른 아녀고. 이 중가네야 험쭈. 연나른 아년.{음. 아주 옛날은 앓고. 이 중간에야 하고 있지. 옛날은 안 했어.} @1 음.{음.}

10801 @2 요즘 뭇뭇 놔마씨? 거기에.{요즘 뭇뭇 놔요? 거기에.}

10801 #1 아주 연날사 허기도 해실찌 모르지마는 잘 싸는 사름더리나 해꼰찌. {아주 옛날이야 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나 했겠지.}

10801 #2 보리쌀, 좁쌀.{보리쌀, 좁쌀.}

10801 @2 또 곤쌀 뜨시 팔.{또 흰쌀 다시 팔.}

10801 #1 참쌀도 드러가곡.{참쌀도 들어가고.}

10801 #2 대죽쫄.{수수쌀.}

10801 @2 음.{음.}

10801 #2 그거 낱 오곡밥.{그것 넣어서 오곡밥.}

10801 @2 오곡빠베?{오곡밥요?}

10801 #1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보난 이 대죽싸리 육찌에도 비빠브로 대죽떡케 먹꼭 그 대죽빠비 이유가 일는 거 가툼따다. 말허는 거 보니까.{그 텔레비전 나오는 것 보니까 이 수수쌀이 육찌에도 비법으로 수수떡해 먹고 그 수수밥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보니까.}

10801 @2 방버브로예?{비법으로요?}

10801 #1 예. 그 대주기 그냥 대면헌 게 아니더라고.{예. 그 수수가 그냥 대면한 것이 아니더라고.}

10801 @1 예. 그 웨에 뭐 정월따레 특뻔헌 건 언찌예?{예. 그 외에 뭐 정월달에 특별한 것은 없지요?}

10801 #2 예.{예.}

10801 @1 예.{예.}

10801 #1 아 이제 특뻔허게 우리 ㄴ튼 사름더른 해도 이제 뭐 그 주지 모시는 사름덜.{아 이제 특별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도 이제 뭐 그 주저리 모시는 사름들.}

10801 @1 예예예.{예예예.}

10801 #1 그런 사름은.{그런 사람은.}

10801 @1 칠썰.{칠성.}

10801 #1 으, 칠썰. 그거 허는 사름더른 정월뜨레 거기 뭐 놔주곡 머글 꺼 놔주곡 허쟁 허민 거 꼭 일 발황.{으, 칠성. 그것 하는 사람들은 정월달에 거기 뭐 놔주고 먹을 것 놔주고 하려고 하면 거 꼭 일 앞두고.}

10801 #2 주지 새로 멘드랑.{주저리 새로 만들어서.}

10801 @1 예, 주지도 새로 멘들고예?{예, 주저리도 새로 만들고요?}

10801 #2 새로 멘들고 안네 사발.{새로 만들고 안에 사발.}

10801 @1 예.{예.}

10801 #1 사발 연날 그 독싸발 일찌 아녀우파? 그거 낵으네 돌 두껍 더끈텐.{사발 옛날 그 똑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넣어서 돌 두껍 덮는다고.}

10801 @1 음.{음.}

10801 #2 거기 쫄리영 뭐 낵 놔두민냥 다으멘 보민 하나도 언넨.{거기 쌀이랑 뭐 넣어서 놔두면요 다음에는 보민 하나도 없다고.}

10801 #1 아무 건또 엄는텐.{아무 것도 없다고.}

10801 #2 사바리 깨끄시 시서부러.{사발이 깨끗이 씻어버려.}

10801 @1 음음.{음음.}

10801 #1 게난.{그러니까.}

10801 #2 시서진텐 험띠다.{씻어진다고 함디다.}

10801 #1 진짜로.{진짜로.}

10801 #2 어서 이젠. 색딸리 다 어서전.{없어 이제는. 색달리 다 없어져서.}

10801 #1 무사 어서게.{왜 없어.}

10801 #2 누게네 이서?{누구네 있어?}

10801 #1 아 동오네도 일찌.{아 동오네도 있지.}

10801 #2 얼썴다. 어서. 다 얼.{없습니다. 없어. 다 없.}

10801 #1 아, 참, 그냥 이서. 우영에.{아, 참, 그냥 있어. 터알에.}

10801 #2 누게 또.{누구 또.}

10801 #1 또.{또.}

10801 #2 동오네가 그걸 험서?{동오네가 그것을 하고 있어?}

10801 #1 어, 무사 저버네 완 각씨 자랑도 아넌가.{어, 왜 저번에 와서 각씨 자랑도 않던가.}

10801 #1 저 화순 지시미 비러당 허명. 게난 치운 사름덜 안 웨염쨌 허명. 아, 이거 누게네 또 이신디.{저 화순 지심이 빌려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치눔 사람들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 이것 누구네 또 있는데.}

10801 #2 강치비 치우고.{강집은 치우고.}

10801 #1 강치비도 치완 손내, 강치비도 치완 손내 아 이.{강집도 치워서 손해, 강집도 치워서 손해 아 이.}

10801 #2 손내 웨도 치와부러사주 그거.{손해 되어도 치워버려야지 그것.}

10801 #1 아 이 하나.{아 이 하나.}

10801 #2 주쟁이 하나.{주저리 하나.}

10801 #1 누게네 일썌.{누구네 있어.}

10801 #2 그 불근 험벅 세 가지 허여그네 꼭대기 영 무끄곡.{그 붉은 형겔 세 가지 해서 꼭대기 이렇게 묶고.}

10801 @1 @2 음.{음.}

10801 #1 아 으저넬 동오네가.{아 요전에 동오네가.}

10801 #2 얼쭈다게.{없습니다.}

10801 #1 어디 하나 일썌 ㄴ란느디.{어디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

10801 @2 게민 정위레 뭐 허지 말라 헌 건 어서마씨?{그러면 정월에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어요?}

10801 #2 정월따레?{정월달에?}

10801 @2 예.{예.}

10801 #2 정월 상드리엔 허여근에 뭐 저 정월에는 아무 건또 허지 아녕 그냥 앵매기.{정월 상달이라고 해서 뭐 저 정월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앵막이.}

10801 @2 으.{으.}

10801 #2 그런 거베끼 아녀는 거주.{그런 것밖에 안 하는 것이지.}

10801 @2 뭐 바느질 허지 말라 이런 건.{뭐 바느질 하지 마라 이런 것은.}

10801 #2 아니 그런 거 업꼬 그.{아니 그런 것은 없고 그.}

10801 #1 이제돌.{이제도.}

10801 #2 정월 초흐른 날. 그나른 바농질허지 말렌.{정월 초하룻날. 그날은 바느질하지 말라고.}

10801 #1 토신제.{토신제.}

10801 @2 으.{으.}

10801 @1 예.{예.}

10801 #1 상드리난 토신제 허는 지비.{상달이니까 토신제 하는 집이.}

10801 @1 으.{으.}

10801 #1 또 이십쭈게. 우리 세계.{또 있습니다. 우리 세계.}

10801 #2 토신제 이제사 해염쭈과?{토신제 이제야 하고 있습니까?}

10801 #1 쯔네 보나네 창서기네도 해염꼬 저디 저.{전에 보니까 창석이네도 하고 있고 저기 저.}

10801 #2 토신제 아니. 저 일 발좌네 심방 온 거. 이젠 거자 어서저부런.{토신제 아니. 저 일 앞뒤서 심방 온 것. 이제는 거의 없어져버렸어.}

10801 @1 혹씨 뭐 정월 보름날 영 들 보고는 점치는 건또 이신가마씨? 올히 뭐 곡씨기 조으켜 우마가 조으켜.{혹시 뭐 정월 보름날 이렇게 달 보고는 점치는 것도 있는가요? 올해 뭐 곡식이 좋겠다 우마가 좋겠다.}

10801 #1 그 정월 보름날 말허는 건 못 뜯꼭.{그 정월 보름날 말하는 것은 못 듣고.}

10801 @1 예.{예.}

10801 #1 썬쩔드느날.{입춘날.}

10801 @1 새철 예?{입춘 예?}

10801 #1 예. 입춘나른 그 시가니 이제 달려게도 나완 인는디 그때 비가 오나 구르미 끼나 영 허민 뭐 혹씨 바라미 부나 이걸 마니 노인더른 마니 봐마씨.{예. 입춘날은 그 시간이 이제 달려에도 나와서 있는데 그때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이렇게 하면 뭐 혹씨 바람이 부나 이것을 많이 노인들은 많이 봐요.}

10801 #1 특키 이.{특히 이.}

10801 #2 브라야 조텐 허주.{맑아야 좋다고 하지.}

10801 #1 알력찌비.{아랫집에.}

10801 #1 우리 매형 쓰른 그걸 마니 신경씨마씨.{우리 매형 쭈른 그것을 많이 신경씨요.}

10801 @2 음.{음.}

10801 #1 그날 누게 일런 농사 뒤는 게 좌우헌다.{그날 누구 일년 농사 되는 것이 좌우한다.}

10801 @2 보리도 뿌리 영 해영으네도 허자나예?{보리도 뿌리 이렇게 해서도 하잖아요?}

10801 @1 보리점도. 보리, 보리점. {보리점도. 보리, 보리점도.}

10801 @2 보리점. 보리 뿌리 뵙으네 뭐 풍년 들켜 흥년 들켜 이런 말 안 해? {보리점. 보리 뿌리 봐서 뭐 풍년 들겠다 흥년 들겠다 이런 말 안 해?}

10801 #1 아 그런 거는 못 뜨러보고 어떨튼 여기서는 입춘날 하나를 마니 좌우 뒤는 걸로 아는디.{아 그런 것은 못 들어보고 어떨튼 여기서는 입춘날 하나를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아는데.}

10801 @2 입추나른 노미 지비 가지 말라.{입춘날은 남의 집에 가지 마라.}

10801 #2 입추나리 브라야 조코.{입춘날은 맑아야 좋고.}



10801 @2 음.{음.}

10801 #2 또 이제 그 시가네 또 노미 지비 가지 말곡.{또 이제 그 시간에 또 남의 집에 가지 말고.}

10801 #1 겐디.{그런데.}

10801 #2 아멩 이젠 간텐 해도 그 시가넨 안 가마씨.{아무리 이제는 간다고 해도 그 시간에는 안 가요.}

10801 #1 왜, 이제더른 흐꿈 데넌쭈.{왜, 이제들은 조금 다니고 있지.}

10801 #1 엔나른 그 입춘날 그 드는 시가네 여자가 가민 채수업꼭 검지리 진는 다고.{옛날은 그 입춘날 그 드는 시간에 여자가 가면 채수없고 김이 깃는다고.}

10801 #1 아 검질로 이마니 지션 크니리여. 이 뭇 막 신경내는 사름.{아 김으로 이만큼 깃어서 큰일이다. 이 뭇 막 신경질내는 사람.}

10801 #2 지슨 사름 와 가짜. 막 그런 말 막 헐쭈.{깃은 사람 다녀갔다. 막 그런 말 막 했지.}

10801 #1 그거 헐는디 이제는 그 검지를 허지 아너난산디 그 얘기는 어서진 겐로 아라마씨.{그거 했는데 이제는 그 김을 하지 않아서인지 그 얘기는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10801 @1 예.{예.}

10801 @2 게른 썬쩔드는날 여자가 노미 집 가민 검질 진나 겐 ㄴ라예?{그러면 입춘날 여자가 남의 집 가면 김 깃는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10801 #1 으.{으.}

10801 @2 게른 그 말 한 번 ㄴ라쭈 봄씨.{그러면 그 말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10801 #2 으, 잘 안 가.{으, 잘 안 가.}

10801 #2 그 가며는 검질 지스민 아이고 요 아무 지슨 사름 와가신ㄴ라 검질 올힌 지션찌 겐 허멍.{그 가면 김 깃은 아이고 요 아무 깃은 사람 다녀갔는지 김 올해는 깃었다 그렇게 하면서.}

10801 @1 음.{음.}

10801 #1 아 겐 이벤 낵.{아 그렇게 입에 놓아서.}

10801 #2 겐 역싸라. 그건.{그것은 역사야. 그것은.}

10801 #1 역싸 나오는 따문 상당이 주이헐는디 이 글래는 그 주이허는 게 안 가타마씨.{역사 나오는 때문 상당히 주의했는데 이 근래는 그 주의하는 것이 안 같아요.}

10801 @2 으.{음.}

10801 @1 예, 조쭈다예. 그 다음 이월딸 영등딸 허지 아넌니깡예?{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월달 영등달 하지 않습니까요?}

10801 #2 영등딸.{영등달.}

10801 @1 뭇 영등따레 허는 거 이신가마씨?:{뭇 영등달에 하는 것 있는가요?}

10801 #2 영등뜨른 뭐 영등할망 드러완짱 헤어그네 뭐 빨래.{영등달은 뭐 영등 할머니 들어왔다고 해서 뭐 빨래.}

10801 @1 예.{예.}

10801 #2 엔날 그 미녕온떨 허영 빨쟁 허면 그때 온 빨민 이제 구데기 인다.{옛날 그 무명옷들 해서 빨려고 하면 그때 옷 빨면 이제 구더기 인다.}

10801 @1 예.{예.}

10801 #2 에 영등뜨를 너머그네 빨래 슬몹도 허곡 그 잔무래 슴꼭 허쟁 허민 경 헤영 허라.{에 영등달을 넘어서 빨래 삶기도 하고 그 잣물에 삶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거라.}

10801 #2 이제 아무 제나 빨래 헨땅으네 구데기가 수닥수닥 막 그 오세도 올르크. 경 허어나서.{이제 아무 때나 빨래 했다가 구더기가 수닥수닥 막 그 옷에도 오르고. 그렇게 했었어.}

10801 @2 음.{음.}

10801 @2 음.{음.}

10801 @2 경 헤그네 흐매 그 영등딸라그네 영등할망 나가부러사 빨래를 허라 허영.{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영등달이랑 영등할머니 나가버려야 빨래를 하라 해서.}

10801 #2 음.{음.}

10801 #2 이젠 세탁기 허영 허난 허주게. 그때 엔나른 발래영 허지 아녀쭈과? 슬므명.{이제는 세탁기 해서 하니까 하지. 그때 옛날은 바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삶으면서.}

10801 @2 예.{예.}

10801 #2 경 허영 풀허곡 헐 꺼난. 영등딸 넘건 허라.{그렇게 해서 풀하고 할 것이니까. 영등달 넘거든 하라.}

10801 #1 게고 영등뜨렌 그 우장 쓴 할망이 드러오민 비가 마니 오곡 바람 마니 불곡 눈도 마니 오곡 헌덴 허명 허곡.{그리고 영등달에는 그 우장 쓴 할머니가 들어오면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면서 하고.}

10801 #1 우장이 업쓴 할망이 드러오민 금년 보메치록 썬 영등할망이 우장 춤 이보기 조치 아년 할망 오나네 이월뜨레 막 조아.{우장이 없는 할머니가 들어오면 금년 봄에처럼 저 영등할머니가 우장 참 의복이 좋지 않은 할머니가 오니까 이월달에 막 좋아.}

10801 @1 조곡.{종고.}

10801 #1 조알따 허명.{종았다 하면서.}

10801 #1 아 나도 올리 쟁말 난데업씨 이월 아 이월 이십파릴로부터 이월 이십파리리 이월뜨레 마지막 갈 때까지 날씨가 하나도 구져보지 아녀쭈다.{아 나도 올해 정말 난데없이 이월 아 일월 이십팔일부터 이월 이십팔일이 이월달에 마지막 갈 때까지 날씨가 하나도 꺾어보지 않았습시다.}

10801 @1 아아.{아아.}

10801 #1 계난 이 나 낭 싱그멍 이월 이십팔월 날로부터 시작케연 이십팔월 7지도 혼 둘 똥안 혼자만 다 헤시난.{그러니까 이 나 나무 심으면서 일월 이십팔월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십팔월까지도 한 달 동안 혼자만 다 했으니까.}

10801 #1 경 아녀 시민 놓 빠렁 막 허곡 헐 꺾디 막 내중엔 막 허염시난 아덜 오란 도와주고 허나네 허긴 헨는다.{그렇게 안 했으면 놓 빌려서 막 하고 할 것인데 막 나중에는 막 하고 있으니까 아들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10801 #1 춤, 올히 이월달 상당히 날씨 조아쭈다.{참, 올해 이월달 상당히 날씨 좋았습니다.}

10801 @1 예, 그런디.{예, 그런데.}

10801 #1 겐디 사월 난 후에 눈도 오고 춤꼬 바람 불고 막 헤연. 이월뜨렌 하나 추워보진 아넌.{그런데 삼월 난 후에 눈도 오고 춤고 바람 불고 막 했어. 이월달에는 하나 추워보지는 않았어.}

10801 @1 계난 우리 어른덜 경 7라예. 아까 삼촌님 말씀대로 가난헌 영등할망이 오면 나리 불곡.{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말해요. 아까 삼촌님 말씀대로 가난한 영등할머니가 오면 날이 맑고.}

10801 #1 으, 이보기 황당헌 할망.{으, 의복이 황당한 할머니.}

10801 @1 계난 그거시 가난헌 할망이고 막 와랑치랑 이븐 할망이 오면.{그러니까 그것이 가난한 할머니고. 막 와랑치랑 입은 할머니가 오면.}

10801 #2 의복 존 할망.{의복 좋은 할머니.}

10801 @1 예. 브르미 불거나 나리 춤꺼나 막 추워예?{예. 바람이 불거나 날이 춥거나 막 춥지요?}

10801 #2 나리 구저.{날이 궂어.}

10801 @1 예.{예.}

10801 #1 예, 항상 날 그 이월달 계속 춤 군는 때가 이서마썸.{예, 항상 날 그 이월달 계속 참 궂은 때가 있어요.}

10801 @1 음.{음.}

10801 #2 계난.{그러니까.}

10801 #1 그 금년치록 헌 헌 처음 받쭈다.{그 금년처럼 한 해는 처음 봤습니다.}

10801 #2 바당에 강 보민양, 전복또.{바다에 가서 보면요, 전복도.}

10801 @1 비곡.{비고.}

10801 #2 저 으무리 어서. 저 바르.{저 여물이 없어. 저 오분자기.}

10801 @1 예.{예.}

10801 #2 그걸또 으무리 업꼭.{그것도 여물이 없고.}

10801 @1 보말?{고등?}

10801 #2 구제기도 경 허곡. 그게 영등할망 새로 씨 뿌려두곡 건 머경 가분덴.

{소라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영등할머니 새로 씨 뿌려두고 그것은 먹어서 가버린다고.}

10801 @1 @2 음.{음.}

10801 #2 이 쟈쟈현 거 또 생기곡. 계난 그게 헌마리 아니 가타.{이 자잘한 것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헛말이 안 같아.}

10801 @2 음.{음.}

10801 #2 헌마리 안 가타.{헛말이 안 같아.}

10801 #1 저 이딴 우리 집 싸름도 저 해녀를 해나난 이젠.{저 여기 우리 집 사람도 저 해녀를 해나니까 이제는.}

10801 #1 중가네 그 쩌 일력 얻는, 딴 지바는 씨어멍 인꼭 일 도와주는 사람덜 인는 사르른 바당에 놔 갈 때 가곡 케야 돼는다.{중간에 그 저 인력 없는, 다른 집 안은 시어머니 있고 일 도와주는 사람들 있는 사람은 바다에 남 갈 때 가고 해야 되는데.}

10801 #1 우린 이리 하노난 일허다 보민 제 시가네 바당에도 못 까민 득름차세 해영 가민 그 거리가 머러노니까 이젠 교통이 조난 허되.{우리는 일이 많아놓으니까 일하다 보면 제 시간에 바다에도 못 가면 달음박질 해서 가면 그 거리가 멀어놓으니까 이제는 교통이 좋으니까 하되.}

10801 #1 이제 해녀덜 뭐 오도바이 다 자동차 영 험 험쭈마는 엔나른 그 바당 가는 기리 아리랑 꼬개라양.{이제 해녀들 뭐 오토바이 다 자동차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 가는 길이 아리랑 고개예요.}

10801 @1 예, 마썸니다.{예, 맞습니다.}

10801 #1 구불구불허영 기리 굳꼬 뭇헌디 이디서 허영으네 시간 너른 후에 허민 놔 강 무레 드는 시가네 ㄴ치 드러야 뉘 켜디 ㄴ라강 해노민 이 모든 게 이리 잘 안 뉘쭈게.{구불구불해서 길이 굽고 뭇헌데 여기서 해서 시간 넘은 후에 하면 남 가서 물에 드는 시간에 같이 들어야 될 것인데 달려가서 해놓으면 이 모든 것이 일이 잘 안 뉘지요.}

10801 #1 경 해가난 몰터게 허연 아녀신디.{그렇게 해가니까 못하게 해서 안했는데.}

10801 #1 이제더른 해녀헌 사람덜 뭐 그냥 바당에서 이제 관광지 때무네 그 저 우그미니 도지사님 그 저 탈의장도 막 케주곡 허여노난 뭐 춤 해녀더리 큰소리치명 도늘 엄청 버림쭈 뭐.{이제들은 해녀를 한 사람들 뭐 그냥 바다에서 관광지 때문에 그 저 우근민 도지사님 그 저 탈의장도 막 해주고 해놓으니까 뭐 참 해녀들이 큰소리치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지 뭐.}

10801 #1 구제기 하나민 술 혼 자네 이쳐 뉘.{소라 하나면 술 한 잔에 이천 원.}

10801 #1 그 머야, 텔레비도 나완게, 커피 하나에 커피 한 자네 이쳐 뉘, 이쳐 뉘. 술 혼 자네 이쳐 뉘.{그 머야, 텔레비전도 나오더니, 커피 하나에 퍼피 한 잔에

이천 원, 이천 원. 술 한 잔에 이천 원.}

10801 #1 그 뭐 술 혼 뱅이민 뭐 도니 얼마텐게.{그 뭐 술 한 병이면 뭐 돈이 얼마데.}

10801 #1 그러케 허멍 이제 춤 해너더른 버러 오는 모양인디 춤 연날허고는 백 프로 틀런 큰소리치멍 이제 해너덜.{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해너들은 벌어 오는 모양인데 참 옛날하고는 백 프로 달라서 큰소리치면서 이제 해너들.}

10801 @1 게난 그 해너들 이시민 그 영등꾼 켜 거 아니우짱예?{그러니까 그 해너들 있으면 그 영등꾼 한 것 아닙니까요?}

10801 #1 예.{예.}

10801 @1 지금도 영등꾸슨 허긴 험꾸나예?{지금도 영등꾼은 하기는 하고 있군요?}

10801 #2 예.{예.}

10801 @1 예, 예, 예.{예, 예, 예.}

10801 @1 그 다음 그 말고 이워따래 허는 건 업꼬예?{그 다음 그것 말고 이월 달에 하는 것은 없고요?}

10801 @1 그 다음 이제는 음력 사월팔로 너머 온 거라예. 사월 노면 머가 이신고마씨? 사월 따래는.{그 다음 이제는 음력 삼월달로 넘어 온 거예요. 삼월 오면 뭐가 있는가요? 삼월달에는.}

10801 #2 사뭇른 청명 아니?{삼월은 청명 아니?}

10801 #1 사월 오이리 청명.{사월 오일이 청명.}

10801 #2 사월 오리리 청명. 사뭇따른 뭐.{사월 오일이 청명. 삼월달은 뭐.}

10801 @1 특뽕헌 거 어쭈과?{특별한 것 없습니까?}

10801 #2 특뽕헌 게 어신 거 담따. 이 사월 뜰레는.{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삼월 달에는.}

10801 @2 풀각씨노리허는 건 언제? 엔나레. 풀각씨노리 허는 거.{풀각씨놀이하는 것은 언제? 옛날에 풀각씨놀이 하는 것.}

10801 #2 풀각씨 노리?{풀각씨놀이?}

10801 @2 풀각씨우파? 그때.{풀각씨입니까? 그때.}

10801 #2 풀새각씨?{풀각씨?}

10801 @2 으.{으.}

10801 @1 예, 풀새각씨.{예, 풀새색시.}

10801 #2 풀새각씨?{풀각씨?}

10801 @2 건 어느 드레 허는 거우짱?{그것은 어느 달에 하는 겁니까?}

10801 #2 풀새각씨 그거 아무 제나 그 쿠른 인는 거.{풀새색시는 그거 아무 때나 그 풀은 있는 거.}

10801 @2 아아.{아아.}

10801 #2 그 저으레만 어성.{그 겨울에만 없어서.}

10801 @2 아아.{아아.}

10801 #1 게민 그 쿠리 못 빠. 보리 달므 거. 쿠승헌 내가 나주게.{그러면 그 풀이 못 봐. 보리 닳은 것. 구수한 내가 나지.}

10801 @2 으음.{으음.}

10801 #2 젠디 쿠리 업써 이젠.{그런데 풀이 없어 이제는.}

10801 #2 그거 허여그네 그 대, 대에 쪼, 쪼저그네.{그거 해서 그 대, 대에 쪼, 쪼아서.}

10801 @2 으.{으.}

10801 #2 경 해그네.{그렇게 해서.}

10801 @1 음, 게민 사월.{음, 그러면 삼월.}

10801 #2 사월 너멍.{삼월 넘어서.}

10801 @1 사월, 사월따른 특뻔한 거 업겐따예?{삼월, 삼월달은 특별한 것 없겠네요?}

10801 #2 예.{예.}

10801 @1 이젠 사월딸 오면 초과일.{이젠 사월달 오면 초과일.}

10801 #2 스월 초과일.{사월 초과일.}

10801 @1 예.{예.}

10801 #2 절가네 가그네 등 돌고.{절간에 가서 등 달고.}

10801 @1 예.{예.}

10801 #2 이젠 쉹멍엔 이젠 뭐 고칠 거 시민 허곡.{이제 청명에는 이제는 뭐 고칠 것 있으면 하고.}

10801 #1 지바네 고짚 걸또 허, 믽음 낱 허곡 산소에 이제 뭐 볼, 혈 널 인는 비서글 허든지 테가.{집안에 고칠 것도 하, 마음 놓아서 하고 묘에 이제 뭐 볼, 할 일 있는 비석을 하든지 잔디가.}

10801 @1 버서부런.{벗어버려서.}

10801 #1 새로 허게 뒤던지 이런 걸또 마니 허고.{새로 하게 되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10801 #1 그 스월 오이른 뭐야 나무도 이 제주도는 엔나렌 사월 오일 기준헨 헤난쭈마는 이제는 사월 오일 기준허머는 살질 잘 안 합니다.{그 사월 오일은 뭐야 나무도 이 제주도는 옛날에는 사월 오일 기준해서 했었지만 이제는 사월 오일 기준하면 살질 잘 안 합니다.}

10801 #1 게난 이월뜨리 이 망 느러져도 사월 시보일 안네 해야 뒤고.{그러니까 이월달이 이 막 늘어져도 삼월 십오일 안에 해야 되고.}

10801 #1 트키 또 이 소나무는 정월뜨레 심찌 아느민 마니 주거부러마썸.{특히 또 이 소나무는 정월달에 심지 않으면 많이 죽어버려요.}

10801 @1 아아.{아아.}

10801 #1 게난 소나무 만크른 특키 이 정월따리라야 뒤곡.{그러니까 소나무 만

큼은 특히 이 정월달이어야 되고.}

10801 @1 예.{예.}

10801 #1 이제 이 굴나무도 엔나렌 사월 오일 저네 사월뜨리 조아 영 헨는디 사월뜨레 싱그민 여간 이삼십 프로는 주건는디 나 올리 매날 싱거도 저 하나도 주근게 업찌.{이제 이 굴나무도 옛날에는 사월 오일 전에 삼월달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삼월달에 심으면 여간 이삼십 프로는 죽었는데 나 올해 매일 심어도 저 하다도 죽은 게 없지.}

10801 @1 음.{음.}

10801 #1 날씨도 조코 이월따리기 때무네.{날씨도 좋고 이월달이기 때문에.}

10801 #1 계난 그 닝 자당 깨날 무려벤 돼는디 완전 깬 후에는.{그러니까 그 누워서 자다가 깬 무렵에는 되는데 완전 깬 후에는.}

10801 @1 으.{으.}

10801 #1 으 저 습끼가 우티레 오르기 시작컬 때는 껍죽또 상허곡 뿌리도 상허고 허민 중는 이리 생기는 거 가타마씨.{으 저 습끼가 위로 오르기 시작할 때는 껍질도 상하고 뿌리도 상하고 하면 죽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10801 @1 예.{예.}

10801 #1 계난 소나무는 확썰리 닝 잘 때. 딱 이월.{그러니까 소나무는 확실히 누워서 잘 때. 딱 일월.}

10801 #1 정월따리나 시비월 따리나.{정월달이나 십이월달이나.}

10801 @1 음.{음.}

10801 #1 요뎌 싱그민 여간 팔십 프로는 살립니다. 이젠.{요뎌는 심으면 여간 팔십 프로는 살립니다. 이것은.}

10801 @1 그러면 사월딸 땀면 청명 한식 인는 거고예?{그러면 사월달 되면 청명 한식 있는 거고요?}

10801 #1 예.{예.}

10801 @1 예. 이젠 한식 안 허지예?{예. 이제는 한식 안 하지요?}

10801 #2 예. 이젠 허는 디 으십니다.{예. 이제는 하는 데 없습니다.}

10801 @1 게든 이번 오월딸 온 거라예. 오월딸 오면 엔나레 다노는 헨썰깁찌예?{그러면 이번 오월달 온 거예요. 오월달 오면 옛날에 단오는 했었겠지요?}

10801 #1 예, 다노덜 허단 이젠 다 아녀는 거 가타마썸.{예, 단오들 하다가 이젠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10801 #2 아니, 아니 허는 디가 어슨 이제.{아니, 아니. 하는 데가 없는 이제.}

10801 @1 어서예?{없어요?}

10801 #2 예.{예.}

10801 @1 아아.{아아.}

10801 #2 이젠 오월 다노 허는 디가 어쭈다.{이제는 오월 단오 하는 데가 없습니다.}

10801 #1 업는 거 가타 허여.{없는 것 같아 해요.}

10801 @1 게민 엔나레는 다노 멩질도 허고예?{그러면 옛날에는 단오 멩절도 하  
고요?}

10801 #2 예.{예.}

10801 @1 뭐 헤신, 무슨 창포에 머리도 영 ㄱ마날쭈다.{뭐 했는, 무슨 창포에  
머리도 이렇게 감았었습니까?}

10801 #2 오월 멩질허고 뭐 혼 게 어신 게 달마. 오월.{오월 멩절하고 뭐 한 것  
이 없는 것 같아.}

10801 @1 오워른예?{오월은요?}

10801 #2 예.{예.}

10801 @1 예, 예, 예.{예, 예, 예.}

10801 #2 오월따레?{오월달에?}

10801 #1 오월 다노는 이부근 엄청 크게 세자녀파?{오월 단오는 이북은 엄청 크  
게 쇠지 않습니까?}

10801 #1 나 그저 포병으로 이서네 대외강산 관측컬 때 그 포대경이 오르믈 이  
러케 뒤지버도 볼 쭈 일꼬 차례로 놔서 볼 쭈 일꼬 저레 뒤지병도 볼 쭈 일꼬 으프  
로도 뒤지병도 볼 쭈 인는 포대경으로 보믈.{나 그저 포병으로 있어서 대외강산 관  
측할 때 그 포대경이 오름을 이렇게 뒤집어도 볼 수 있고 차례로 놓아서 볼 수 있  
고 저리로 뒤집어도 볼 수 있고 옆으로 뒤집어서도 볼 수 있는 포대경으로 보믈.}

10801 #1 그 이북 싸름더른 야침 여덜 씨에 나와가지고 오후 다섯 씨까지 산꼬  
치서 먹꼬 자고 망 노랑.{그 이북 사람들은 아침 여덟 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다섯  
시까지 산꼭대기에서 먹고 자로 막 놀아서.}

10801 #2 이디 싸름더른 놀다가 하나 두 개 빠지는 걸또 인는디 거기 싸르믈 빠  
지게 돼민 한 빠네 싹 어서저볼지 하나 두 개 빠지는 거는 몰 빨쭈다.{여기 사람들  
은 놀다가 하나 두 개 빠지는 것도 있는데 거기 사람은 빠지게 되면 한 번에 싹 없  
어져버리지 하나 두 개 빠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10801 @1 음, 음.{음, 음.}

10801 #1 관측컬 때 보민.{관측할 때 보믈.}

10801 @1 예.{예.}

10801 #1 게 오월 다노는 엄청 크게 산꼬치마다 그 허더라고마씨.{게 오월 단오  
는 엄청 크게 산꼭대기마다 그 하더라고요.}

10801 #1 켄디 우리 뭐 군대에선 오월 다노에 뭐 트키 준 걸또 업꼭.{그런데 우  
리 뭐 군대에서는 오월 단오에 뭐 특히 준 것도 없고.}

10801 #1 크리스마스에는 쉼고기도 나오고 \*\* 이제 연나른 감빵 쥐파는디 감빵  
은 얻꼬 빵.{크리스마스에는 소고기도 나오고 \*\* 이제 옛날은 건빵 줬다는데 건빵  
은 없고 빵.}

10801 @1 음.{음.}



10801 #1 나오고 헨는디 이젠.{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10801 #1 감빵엔 헨 겐 이제 이 상점 ㄴ든 디 감빵 폭는 게 인는데.{건빵이라고 한 것이 이제 이 상점 같은 데 건빵 파는 것이 있는데.}

10801 @2 예.{예.}

10801 #1 군대에선 그 주는 삼식.{군대에서는 그 주는 삼식.}

10801 @1 그네뛰기는 안 해날쭈광?{그네뛰기는 안 했었습니까?}

10801 @2 응?{응?}

10801 @1 오월따레 그네뛰기?{오월달에 그네뛰기?}

10801 #2 그네뛰기는 우리 아녀 보고.{그네뛰기는 우리 안 해보고.}

10801 @1 예.{예.}

10801 #2 베칠락.{줄넘기.}

10801 @2 베칠락?{줄넘기?}

10801 #2 양페니 사그네 베칠락커고 고무줄.{양편에 서서 줄넘기하고 고무줄.}

10801 @1 @1 음.{음.}

10801 #2 둘리 영 시머그네 발로 가만따 푸런따.{둘이 이렇게 잡아서 발로 감았다 풀었다.}

10801 @1 예. 올라가명예?{예. 올라가면서요?}

10801 #1 몰탈락커곡.{말타기하고.}

10801 #2 영영허민 쏼마야 쏼마야 드리오라 나가라.{이렇게 이렇게 하면 꼬마야 꼬마야 들어와라 나가라.}

10801 @1 으.{으.}

10801 #2 그거 베 허민 그디 드리강 또 나가고 그거.{그거 바 하면 거기 들어가서 또 나가고 그것.}

10801 @2 그거 언제 해날쭈과?{그것 언제 했었습니까?}

10801 #2 방칠락.{사방치기.}

10801 @2 베칠라근 언제 해난?{줄넘기는 언제 했어요?}

10801 #2 베칠락? 아무 제나 헨쭈게.{줄넘기? 아무 때나 했지.}

10801 @2 아아.{아아.}

10801 #2 저으레 놀 때에.{겨울에 놀 때에.}

10801 @2 아:.{아:.}

10801 #2 경 해열꼬 방칠락.{그렇게 했었고 사방치기.}

10801 @2 예.{예.}

10801 #2 고운 돌멩인 봐지민 이거 먹때여.{고운 돌멩이는 보이면 이거 먹대다.}

10801 @1 음.{음.}

10801 #2 영 기려그네.{이렇게 그러서.}

10801 @1 영 그렁예?{이렇게 그러서요?}

10801 #2 예. 경 허영 발 혼차그로 똑 케영 이 방에 가곡 저 방에 가곡 저영 경  
허여 나곡.{예. 그렇게 해서 발 한쪽으로 툭 해서 이 방에 가고 저 방에 가고 저렇  
게 그렇게 했었었고.}

10801 #2 공기.{공기.}

10801 @2 으.{으.}

10801 #2 공깃돌. 돌 봐지민 독독 믹상 동글락커게 만드라그네 공기 아장 허곡.  
그거라십쥬. 방뒤가.{공깃돌. 돌 보이면 탁탁 마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공기 앉아서  
하고. 그거였습지요. 장난감이.}

10801 @2 음.{음.}

10801 @1 계난 이제 또 유월딸 너머온 거라예. 음력 유월. 음력 유월레 뭐 현  
거 이신가마씨?{그러니까 이제 또 유월달 넘어온 거예요. 음력 유월. 음력 유월에  
뭐 한 것 있는가요?}

10801 #2 유월?{유월?}

10801 @1 예.{예.}

10801 #1 유월렌 아무것도 혼 게.{유월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10801 #2 유월렌 아진 방식또 ㄴ째 사지 말라.{유월에는 앓은 방식도 고쳐 서지  
마라.}

10801 #1 이사도 허지 말라.{이사도 하지 마라.}

10801 #2 이사도 허지 말라.{이사도 하지 마라.}

10801 #1 웨방도 가지 말라 뭐.{외방도 가지 마라 뭐.}

10801 #2 유월뜨른 상돌.{유월달은 상달.}

10801 @1 계난 아무 걸또 현 거 어서예?{그러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10801 #2 예.{예.}

10801 @1 도라안찌도 말라고 허는 나리 (웃음){돌아왔지도 말라고 하는 날이.  
(웃음)}

10801 #2 그냥 유월따렌 덩꼬 허난 그자 아자그네 허는 게.{그냥 유월달에는 덩  
고 하니까 그저 앉아서 하는 것이.}

10801 #1 계도 말로는 유월따리 덩따 해도 정치월마니 더울 쏘나 영헨 노래는  
이서신디.{그래도 말로는 유월달이 덩다고 해도 정칠월만큼 더울 소냐 이렇게 해서  
노래는 있었는데.}

10801 #2 치뤄리 덩넨 헨.{칠월이 덩다고 했어.}

10801 @1 가만서봐. 그러면 으 음력 유월딸 뒤편 삼보기 이실 꺼가마씨?{가만  
있어보자. 그러면 으 음력 유월달 되면 삼보이 있을 것인가요?}

10801 #1 예.{예.}

10801 @1 중복 말복.{중복 말복.}

10801 #1 예, 아 말보근 치뤄 뒤편 말복 긴쥬게.{예, 아 말복은 칠월 뒤편 말복  
있지.}

10801 @1 초복.{초복.}

10801 #1 예, 초복 중복 말복.{초복 중복 말복.}

10801 @1 예, 삼보근 이서.{예, 삼복은 있어.}

10801 #1 대서까지.{대서까지.}

10801 @1 예에.{예에.}

10801 #1 대서 중복.{대서 중복.}

10801 @1 계난 지금 엔. 지그른 뭐 봉날 허면 뭐 독또 자바 먹꼬 허는데 엔날도 경 해신가마씨?{그러니까 지금 옛. 지금은 뭐 복날 하면 뭐 닭도 잡아 먹고 하는데 옛날도 그렇게 했을까요?}

10801 #2 유월 쓰무날.{유월 스무날.}

10801 @1 유월 쭈무날.{유월 스무날.}

10801 #2 예.{예.}

10801 #1 이제는.{이제는.}

10801 #2 유월 쓰무날.{유월 스무날.}

10801 #1 중복게 독 멍는 거여, 초보게 멍는 거여.{중복에 닭 먹는 것이다, 초복에 먹는 것이다.}

10801 #2 이제는 아니고 엔날.{이제는 아니고 옛날.}

10801 #1 뭐 유월 쓰무나른 우리 어린 때는 아이덜토 경 해십쭈게.{뭐 유월 스무날은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지요.}

10801 #1 검질 제기 매라, 유월 쭈무날랑으네 독 자방 주곡 커마 영 해연는데. 그 저 뭐 초보게 자방 주마 중복게 자방 주마 말보게 자방 주마 허는 마른 아녀전는데.{김 채우 매어라,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서 주고 하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저 뭐 초복에 잡아서 주마 중복에 잡아서 주마 말복에 잡아서 주마 하는 말은 안해졌는데.}

10801 #1 이젠 뭐 어제도들 그디 보니까 중복기나네 닭꼬기 머거야 웬덴 허멍덜 막 노인더리영 뭐 춤 마니 완덜 머건게.{이제는 뭐 어제도들 거기 보니까 중복이니까 닭고기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들 막 노인들이랑 머 참 많이 와서들 먹던데.}

10801 #2 게연 독 산궐?{그래서 닭 사줬어?}

10801 #1 으?{으?}

10801 #2 경 해연 독 사드렌 허연 독 산 궐. 아기덜.{그렇게 해서 닭 사달라고 해서 닭 사서 줬어. 아기들.}

10801 #1 어제.{어제.}

10801 #2 생일 축칼 독 산 궐.{생일 축하를 닭 사줬어.}

10801 @2 으음, 어제 생이리라날꾸나예? 손지 으.{으음, 어제 생일이었군요? 손자 으.}

10801 #2 독 아이 멍는 하르방은 안 먹꼬.{닭 아니 먹는 할아버지는 안 먹고.}

10801 @1 웃음.

10801 #1 아이 난 간 저 베린만 허난 담배치비 아더른 그디 가보식키 헤신ㄱ라  
부름씨허멍 무사 독또 안 머검쭈과?{아니 나는 가서 저 보기만 하니까 담뱃집의 아  
들은 거기 동업하는지 심부름하면서 왜 닭도 안 먹고 있습니까?}

10801 #1 아니 삼계탕 난 안 조나네 안 먹검서.{아니 삼계탕 나는 안 좋으니까  
안 먹고 있어.}

10801 #2 유워른.{유월은.}

10801 #1 거 어제 뭐 엄창 몰렸떠라고.{거 어제 뭐 엄청 몰렸더라고.}

10801 @1 음, 요 생시무레예?{음, 요 생심물예요?}

10801 #1 아니마씨. 저 어디 저 삼계탕 허는 디.{아니요. 저 어디 저 삼계탕 하  
는 데.}

10801 @1 아아.{아아.}

10801 #2 거 우리 머거난 서넉쩍.{거 우리 먹었던 서쪽집.}

10801 @2@1 으음.{으음.}

10801 #1 여페 담벤쩍.{옆에 담뱃집.}

10801 #2 유월 스무날은 독 질와그네 지비 막 질환땅 조근 빙에기 자방 그자 혼  
머리씩.{유월 스무날은 닭 키워서 집에 막 키웠다가 작은 병아리 잡아서 그제 한  
마리씩.}

10801 @2 으.{으.}

10801 #2 애기덜 자바 낱 흥나씩.{아기들 잡아 놓아서 하나씩.}

10801 #1 걷또 춤 뒤흔 지비라야지 막 정신 썩 아너민 엔나른 독또 질루당으네  
왕 도둑질해당 오꼴 자바머거부렁.{그것도 참 뒤흔 집이어야지 막 정신 썩서 안 하  
면 옛날은 닭도 키우다가 와서 도둑질해다가 그만 잡아먹어버려서.}

10801 #1 우리도 독 다선 머리 장독 하나 여선 머리 하루츠냐게 다 아저가부  
난.{우리도 닭 ㄷ섯 마리 장독 하나 여섯 마리 하루저녁에 다 가져가버리니까.}

10801 @1 으으.{으으.}

10801 #1 어 조사헨 보난 어디 찌디 가네 막 터러근 이설짜.{어 조사해서 보니  
까 어디 저기 가서 막 털은 있어도.}

10801 #2 싱 무러간.{삶 물어갔어.}

10801 #1 으?{으?}

10801 #2 싱 무러간.{삶 물어갔어.}

10801 #1 식?{삶?}

10801 #2 아방 어신 때 싱 무러간.{아버지 없을 때 삶 물어갔어.}

10801 @2 (웃음).

10801 #1 뭘 싱 무런게.{뭘 삶 물었어?}

10801 #1 다.{다.}

10801 #2 고녕이 늘그민 시기엔 험떠다. 연나른.{고양이 늙으면 삶이라고 합디  
다. 옛날은.}

10801 @2 으.{으.}

10801 #2 가다네 통시 따메 간 거리져부난.{가다가 돼지우리 담에 가서 걸어져 버리니까.}

10801 #1 그거는 저디 살 때고.{그것은 저기 살 때고.}

10801 #2 막싸리 살 때.{막살이 살 때.}

10801 #1 에 막싸리 살 때 그건.{에 막살이 살 때 그것은.}

10801 #2 켜커난 나만 검난 막 커당 보난 식 오란 무러가부런.{켄하니까 나만 겁나서 막 하다가 보니까 삶 와서 물어가버렸어.}

10801 #1 건 무러간 거고. 이디 온 후에 현 거는.{그것은 물어간 것이고. 여기 온 후에 한 것은.}

10801 @1 (웃음)

10801 #1 그디 가네 노네 간 오난 오랜 허여네 탁웨기 머그렌 허연 막 머건 탁 안 일러부런.{거기 가서 눈에 가서 오니까 오라고 해서 닭고기 먹으라고 해서 막 먹어서 닭 안 잃어버렸어.}

10801 @1 (웃음)

10801 #1 아 다근 일러부런는다. 이거 우리 다기로구나. 뭐 너네 독 시머울 리가 인나 우리 독 자반 먹건찌.{아 닭은 잃어버렸는데. 이거 우리 닭이로구나. 뭐 너의 닭 잡아올 리가 있나 우리 닭 잡아서 먹었지.}

10801 #2 엔나른 장난덜.{옛날은 장난들.}

10801 #1 경 해연 거 머건쨌 허난 뭐 근거가 일써야 뭐.{그렇게 해서 거 먹었다고 하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뭐.}

10801 #1 누게 말짜까이라도 자정거 아저강으네 가져갈 때 몰 뽀른 나 거라고 어떠케 뭇 봐가지고 (웃음) 허느냐 허는 사르미 이선게.{누구 말째라도 자전거 가져가서 가져갈 때 못 보면 나 것이라고 어떻게 뭇 봐가지고 (웃음)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던데.}

10801 #1 탁또 그 시머갈 땀 몰 뽀른 근거가 어서부니까 뭐 (웃음) 버브로 해 봐야 겐또 힘들고.{닭도 그 잡아갈 때는 못 보는 근거가 없어버리니까 뭐 (웃음) 법으로 해 봐야 그것도 힘들고.}

10801 @2 계난 쓰무날 돼몬 독 자바 먹찌 아념니까예? 계난 애기덜안틴 비에기.{그러니까 스무날 되면 닭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는 병아리.}

10801 #2 하나씩.{하나씩.}

10801 @2 하나씩 해주고. 그 장득근 누가 머금니까?{하나씩 해주고. 그 수탉은 누가 먹습니까?}

10801 #2 장득?{수탉?}

10801 @2 으.{으.}

10801 #2 장득 큰 건 아녕으네 다 혼 머리썩 우린 머거신디. 아방 질환 아방이

자바그네.{수탉 큰 것은 앓고 다 한 마리씩 우리는 먹었는데. 아버지가 키워서 아버지가 잡아서.}

10801 @2 다 혼 머리씩. 여자는 장독그로 먹찌 아년마씨? 삼춘은?{다 한 마리씩. 여자는 수탉으로 먹지 않았어요? 삼춘은?}

10801 #2 여자는 장독.{여자는 수탉.}

10801 @2 기지예?{그렇지요?}

10801 #2 장빙에기.{수평아리.}

10801 @2 장빙에기, 으.{수평아리, 으.}

10801 #2 쓸 때에는 큰 거.{쓸 때에는 큰 것.}

10801 @2 으.{으.}

10801 #2 토신제나 뭐 혼 때 큰 거. 산 풀리가양 흰 거는 안 써.{토신제나 뭐 할 때 큰 것. 선 꼬리가요 흰 것은 안 써.}

10801 @1 음.{음.}

10801 #2 문딱 그 꺼무룽헌 새그로만 쓰주.{몽땅 그 꺼무스레한 색으로만 쓰지.}

10801 @2 으으.{으으.}

10801 #2 풀리가. 혼 새그로. 경 흰 거주. 흰 풀리 신 거는 쓰는 디 안 써.{꼬리가. 한 색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흰 꼬리 있는 것은 쓰는 데 안 써.}

10801 @2 거는 무산고예?{그것은 웬까요?}

10801 #2 거는 단새그로 쓰지.{그것은 단색으로 쓰지.}

10801 #1 돈 까버치가 싸와 고달도 막.{돈 값어치가 싸워 벗도 막.}

10801 #2 고다리 흐꿈 아니 살 도늘 불르는 냥 쥐야 돼. 조은 건.{벗이 조금 아니 샀 부르는 대로 쥐야 돼. 좋은 것은.}

10801 @2 으.{으.}

10801 #1 겐디 꼬리가 히던지 고다리 영 뜨더정 흐꿈 혈던지 허머는 까븐 싸도 정말 귀허당 묻 귀허민 혈까 몰라 경 아너민 그런 건 잘 아녜라고 여기서덜 험십쥬.{그런데 꼬리가 희든지 벗이 이렇게 뜯어져서 조금 혈든지 하면 값은 싸도 정말 구하다가 못 구하면 할까 몰라 그렇게 앓으면 그런 것은 잘 앓으려고 여기서들 하고 있습니다.}

10801 @1 으.{으.}

10801 #2 득글 마니 써.{닭을 많이 써.}

10801 #1 트키 성주푸리혈 때 또 이 저 상냥혈 때 그때 그걸 쓸 때 그 상냥혈 때 또 득기 좌우를 한다 허니까. 그 춤 존 걸 골라야 허나네.{특히 성주풀이할 때 또 이 저 상냥할 때 그때 그것을 쓸 때 그 상냥할 때 또 닭이 좌우를 한다 하니까. 그 참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하니까.}

10801 @1 이제 또 치월로 너머갑쥬예. 칠월 나민 치월 칠써기 인짜나예?{이제 또 칠월로 넘어가지요. 칠월 되면 칠월 칠석이 있잖아요?}

10801 #1 으.{으.}

10801 #2 치뤘 칠썰.{칠월 칠석.}

10801 @1 그나른 어땡 보넵따가? 그냥.{그날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10801 #2 칠썰날도 절가네 가.{칠석날도 절간에 가.}

10801 @1 절가네.{절간에.}

10801 #2 이젠 예. 칠썰날도 절가네 강 칠썰제. 칠썰제 가그네 허고.{이젠 예. 칠석날도 절간에 가서 칠석제. 칠석제 가서 하고.}

10801 #2 옛날도 절가네 인는디 옛나른 어떠한 절가네늘 안 텡겨뎡고. 몬 싸니까 안 간.{옛날에도 절간이 있는데 옛날은 어떡해서 절간예를 안 다녔던가. 못 사니까 안 가서.}

10801 #2 나가 안 텡겐쥬. 다른 사람.{내가 안 다녔지. 다른 사람.}

10801 #1 우리 부락제도 누가 경 절가네 간 사람 이서.{우리 부락에도 누구 그렇게 절간에 간 사람 있어.}

10801 #2 오래여서. 다 텡겨신디.{오랬어. 다 다녔는데.}

10801 @1 그 다음에 칠뤘 보름 뒤면 백쥬 아니우짱예?{그 다음에 칠월 보름 되면 백쥬 아납니까요?}

10801 #2 예.{예.}

10801 @1 그뎡 또 물?{그때는 또 물?}

10801 #2 백쥬엔 물마지레.{백쥬에는 물맞으러.}

10801 @1 예, 물마지레예?{예, 물맞으러요?}

10801 #2 물마지레 가.{물맞으러 가.}

10801 #1 예. 물마지레 그걸.{예. 물맞으러 그것.}

10801 #2 바당예.{바다에.}

10801 #2 점심 싸고 밥 싸고.{점심 싸고 밥 싸고.}

10801 #1 아하, 뒤 해수욕짱 백쥬 처서 그거 두 개베끼 몬 까시난. 그걸또 막 발류왕 어땡 검지리라도 메당 쥬 어느 서는 혼 육십 프로 이상 주거저야 백쥬에도 바당예 갇쥬. 게아녀민 검지를 메야지.{아하, 뒤 해수욕장 백쥬 처서 그것 두 개밖 에 못 갔으니까. 그것도 막 앞두고 어떻게 검이라도 매다가 쥬 어느 선은 한 육십 프로 이상 죽어저야 백쥬에도 바다에 갔지. 그렇지 않으면 김을 매야지.}

10801 @1 테우리 고산 언제 헐쥬과?{목동 고사는 언제 했습니까?}

10801 #1 뒤 백쥬제.{뒤 백쥬제.}

10801 @1 백쥬제헐 때 테우리 고사예?{백쥬제 할 때 목동 고사요?}

10801 #1 목짱예 강.{목장에 가서.}

10801 @1 음.{음.}

10801 #1 건디 이젠 아념서.{그런데 이제는 안 하고 있어.}

10801 @1 아아.{아아.}

10801 @2 그 백쥬제 헐 뎡 어떤 시그로 헤마씨?{그 백쥬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10801 #1 목장에 강 허는 거?{목장에 가서 하는 것?}

10801 @2 예.{예.}

10801 #1 아 목장에 강 허는 거 그 메 세 기. 세 그릇.{아 목장에 가서 하는 것 그 메 세 기. 세 그릇.}

10801 #1 또 모든 거 세 가지. 다. 게영도 세 개, 이제 탕시도 세 개, 이 저 여러 가지 합작케으네 영 세 개에 노릇.{또 모든 것 세 가지. 다. 갱도 세 개, 이제 채소도 세 개, 이 저 여러 가지 합작해서 이렇게 세 개에 놓고.}

10801 #1 이제 밤 대추 이거 뜨러가지 또 소고기 저 이키지 아는 거 포유라고 예 으마니.{이제 밤 대추 이거 들어가지 또 소고기 저 익히지 않은 것 포유라고 예 요만큼.}

10801 #2 늘 거.{날 것.}

10801 #1 늘 걸로 이마닌 해서 허지.{날 것으로 이만큼 해서 하지.}

10801 #1 이젠 제무른 이제 연나른 떠그로 헨 뭐야, 만드란 헨는디 이젠 빵 비스로 된 거 그거 해영 허곡.{이제 제물은 이제 옛날은 떡으로 해서 뭐야,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빵 커로 된 것 그것 해서 하고.}

10801 #1 허영 뭐 강 산만 채우곡 케영 그릴 뜯허게 이젠.{해서 뭐 가서 산만 채우고 해서 그릴 듯하게 이제는.}

10801 @2 게영도 세 가지를 해서마씨?{갱도 세 가지를 했어요?}

10801 #1 아.{아.}

10801 #2 아니.{아니.}

10801 #1 세 가지가 아니고 세 그릇.{세 가지가 아니고 세 그릇.}

10801 @2 아 게영도 세 그릇.{아 갱도 세 그릇.}

10801 #1 세 사발. 세 저 세 가지가 아니고.{세 사발. 세 저 세 가지가 아니고.}

10801 #1 계난 연날 그 제라허게 목장허는 사름 제 지날 땐 이젠 우린 돌궤기전 깔 췌고기적깔 험쭈마는 연나른 도새기를 자바가지고 창자만 땅 온머리로 거러가는 형태로 놔가지고.{그러니까 옛날 그 제대로 목장하는 사람 제 지낼 때는 이젠 우리는 돼지고기산적 쇠고기산적 하고 있지만 옛날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창자만 따서 온마리로 걸어가는 형태로 놓아가지고.}

10801 @1 음:.{음:}

10801 #1 쥔 지나는 걸 받는다 우리는 우리 목장엔 뭐 가짜가 이제 다 허나네 그런 시근 안 너고.{제를 지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우리 목장에는 뭐 가짜가 이제 다 하니까 그런 식은 안 하고.}

10801 #1 백종날까지 허다네 백종은 그 땅 세만 내는 걸또 너무 하 가고 허나네 그런 걸또 간소허고 허난 몰르쿠다. 장녀니도 백종제 허자 아너자 헨 안 헨는디 췌가 마니 주건쭈.{백종날까지 하다가 백종은 그 땅 세만 내는 것도 너무 많아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간소하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백종제 하자 안 하자 해서 안 했는데 소가 많이 죽었지.}



10801 @1 아.{아.}

10801 #1 그 종오허는 쉼아올라 다 주거부난.{그 종우하는 소마저 다 죽어버리니까.}

10801 @1 계난 지금까지 쭉.{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10801 #1 흔 일곱 개 정도 주거부런.{한 일곱 개 정도 죽어버렸어.}

10801 @1 아 백쫑쨌 해난써꾸나예?{아 백중제는 했었군요?}

10801 #1 예. 안 해십쫑게.{예. 안 했습지요.}

10801 @1 아너민 그런 니리 인는 겐로예?{안 하면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요?}

10801 #1 아니 아너민 일따고 그 표혀는 안 댜고마쑈.{아니 안 하면 있다고 그 표현은 안 되고요.}

10801 @1 예, 계난 혹쑈 짐자기.{예, 그러니까 혹시 짐작이.}

10801 #1 이, 이시미 뵤이라고 그겔 헤시민 안 주글쑈도 몰란는데.{이, 의심이 뵤이라고 그것을 했으면 안 죽을지도 몰랐는데.}

10801 @2 언제까지 헐쫑과?{언제까지 했습니까?}

10801 #1 흔 삼년 전까진 헐쫑.{한 삼년 전까지는 했지.}

10801 @2 음.{음.}

10801 #1 에 이젠 삼년 전부터 아년나. 아 겐디 계속 주거. 거 이상허다 마려. 그 백쫑제 안 허 후로.{에 이젠 삼년 전부터 안 했나. 아 그런데 계속 죽어. 거 이상하다 말아야. 그 백중제 안 한 후로.}

10801 @1 계난 백쫑제 하게 뵤면 사름더리 다 돈 내놓 허는 거우꽈?{그러니까 백중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돈 내놓아서 하는 겁니까?}

10801 #1 아니.{아니.}

10801 @1 도라가멍?{돌아가면서?}

10801 #1 조아베.{조합에.}

10801 @1 아 조아브로.{아 조합으로.}

10801 #1 기금, 기그미 인는데 제 지나는 딴 조합짱신디 얼마, 한계를 그어 이십쫑.{기금, 기금이 있는데 제 지내는 데는 조합장한테 얼마, 한계를 그어 있습니까.}

10801 #1 겐디 거 시보마 뉘느로 헐는데 시보마 뉘니 짹따고 헤서 이십마 뉘느로 올런.{그런데 거 십오만 원으로 했는데 십오만 원이 적다고 해서 이십만 원으로 올려서.}

10801 #2 물가가 빈나부난게.{물가가 비싸버리니까.}

10801 @2 으.{으.}

10801 #2 과일도 비싸고.{과일도 비싸고.}

10801 #1 에 또 이십마 뉘 버뵤 내에서 허고 일쫑.{에 또 이십만 원 범위 안에서 하고 있지.}

10801 @2 개인저그론 아녀마씨?{개인적으로 안 해요?}

10801 #1 아 개인저근 안 너고. 아 엔나른 개인더리 해십쥬. 우리 부라게도.{아 개인적은 안 하고. 아 옛날은 개인들이 했습지요. 우리 부락에도.}

10801 #1 왜냐 허면 그 제를 강 잘 지나야.{왜냐 하면 그 제를 가서 잘 지내 야.}

10801 #1 이제는 목장에 이러케 저 철조망 쳐 울타리 안네 인는 손디.{이제는 목장에 이렇게 저 철조망 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소인데.}

10801 #1 엔나른 이 철조망 쳐 울타리 안네 인는 게 아니라 우리 색파리서 천백 꼬지 우에 율새왈 그 저 진달래밭까지 우리 그 팔리를 해가지고 그디 소를 푸러냥 질활꺼든.{옛날은 이 철조망 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색달리서 천 백고지 위에 율새오름 그 저 진달래밭까지 우리 그 팔리를 해가지고 거기 소를 풀 어놓아서 길렀거든.}

10801 #1 계난 억찌 찢 사르른 돈 버는 이유가 댜 사름네 쉼 왕 탁 부뜨른 자기 거다고 우기민 뉘여.{그러니까 억지 쉼 사름은 돈 버는 이유가 다른 사름네 소 와 서 딱 붙으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돼.}

10801 #1 거 어떠켄느냐 허면 자기 멍이 뉘 그 이제 그 엔나른 꼭 무슨 중요한 거민 도장을 노라 헐는디 이젠 싸인 하나로 뉘든.{거 어떡했느냐 하면 자기 멍이 된 그 이제 그 옛날은 꼭 무슨 중요한 것이면 도장을 놓으라 했는데 이제는 사인 하나로 되듯이.}

10801 #1 그 엔나를 이제 자기 그 표시로 소에 그.{그 옛날은 이제 자기 그 표시로 소에 그.}

10801 @1 내긴?{낙인?}

10801 #1 그 내긴 하나 질르민 자기 거다 허영 우길 쭈가 이쓰나네. 그 나기는 사네 강 불 피왕이라도 나긴 아정 어린 걸떨 보민 찢렁 자기 거다고 허영.{그 낙인 하나 찢르면 자기 것이다 해서 우길 수가 있으니까. 그 낙인은 산에 가서 불 피워서라도 낙인 가져서 어린 것들 보면 찢려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10801 #1 또 그 운 존 사르른 노미 꺼 왕으네 이녁 쏘 모양으로 잘 부트니까. 이제도 경 험니다.{또 그 운 좋은 사름은 남의 것 와서 이녁 소 모양으로 잘 물으 니까. 이제도 그렇게 합니다.}

10801 #1 거 다 이 목장에서 해 보른 그 개똥이네 쉼 우리 쉼허민 개똥이네 쉼 가 우리 쉼에 왕 하나가 왕 부텅 인는 노미 일썌.{그것 다 이 목장에서 해 보면 그 개똥이네 소 우리 소하면 개똥이네 소가 우리 소에 와서 하나가 와서 붙어 있는 놈 이 있어.}

10801 #1 그 가치 부터가지고 잘 노는 노미 일썌. 그런 시그로 연나레 해가지고 돈 번 사름.{그 같이 붙어가지고 잘 노는 놈이 있어.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해가지고 돈 번 사름.}

10801 #1 계난 엔날도 소 질룬 사름 돈 버런꼬 이제도 소 인는 사르미 돈 인는

사르미라.{그러니까 옛날도 소 기른 사람 돈 벌었고 이제도 소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야.} 10801 #1 도니 왜 그러냐 허면 소 키운 사르믄 호주머니에 현찰 놓 거라.{돈이 왜 그러냐 하면 소 키운 사람은 호주머니에 현찰 놓은 거야.}

10801 #1 왜냐 허민 한 머리 폭는디 정가로 뺑마 닐 짜리다 할 때에는 십마 닐만 아상 구십마 닐 허민 퍼딱 폭니까게.{왜냐 하면 한 마리 파는데 정가로 백만 원 짜리다 할 때에는 십만 원만 하면 퍼딱 파니까.}

10801 #1 그런 거시 현차리다 허연.{그런 것이 현찰이라고 해서.}

10801 #1 이버네 요 예래 짜르믄 소 혼 머리 일똥 머그나네 구백오십마 닐네 폭란.{이번에 요 예래 사람은 소 한 마리 일똥 먹으니까 구백오십만 원에 팔았어.}

10801 @2 음음.{으음.}

10801 #1 그 천마 닐 톤 아니. 쉼 혼 머리에. 연날 ㄹ뜨민 바슬 땀 깨 살 꺼디. {그 천만 원 돈 아니. 소 한 마리에. 옛날 같으면 밧을 몇 개 살 것인데.}

10801 @1 그럼 치뤄따레는 그 테우 백쥬제 헨꼬예?{그럼 칠월달에는 그 목 백쥬제 했고요?}

10801 #1 헨는디 이젠 안 험니다.{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10801 @1 예예 예예.{예예 예예.}

10801 @1 뭐 그 웨엔 얻께다예?{뭐 그 외는 없겠네요?}

10801 #1 예, 그 웬.{예, 그 외에는.}

10801 @1 그럼 파월로 오며, 오며는 추서기 일께따예. 파월 추석?{그럼 팔월로 오며, 오면 추석이 있겠네요. 팔월 추석?}

10801 #1 예, 파월 추석.{예, 팔월 추석.}

10801 @1 예.{예.}

10801 #1 허곡 파월나며는 별초허고.{하고 팔월되면 별초하고.}

10801 #2 바쁘주.{바쁘지.}

10801 #1 팔월달 혼 드른 바쁜 기간입니다.{팔월달 한 달은 바쁜 기간입니다.}

10801 @1 예, 별, 별초허고예?{예, 별, 별초하고요?}

10801 #1 별초허곡.{별초하고.}

10801 #2 출허곡.{꼴하고.}

10801 #1 소 메길 출허고.{소 먹일 꼴하고.}

10801 @1 예, 출?{예, 꼴.}

10801 #1 아, 출허영으네 이제 멧질허곡 허쟁 허믄 뭐.{아, 꼴해서 이제 멧질하고 하려고 하면 뭐.}

10801 #2 멧지레 초레 꼭 혼디.{멧질에 꼴에 꼭 함께.}

10801 #1 예, 혼디 드렁 허민 멧질 \* 화닥탁 멧질날도 행 머경 출허레 막 가곡 헤여십쥬제.{예, 함께 들어서 하면 멧질 \* 화닥탁 멧질날도 해서 먹어서 꼴하러 막 가고 했습지요.}

10801 @1 아.{아.}

10801 #1 이제도 경 걸러들 때가 이서마씨. 금녀는 추부니 멧질 저네 드니까 아  
늘게 얼른 사르른 멧질까지 또 바빠질찌 모를 께.{이제도 그렇게 걸러들 때가 있어  
요. 금녀는 추분이 멧질 전에 드니까 아 늦게 어른 사람은 멧질까지 또 바빠질지  
모를 것.}

10801 @1 게른 보통 그 하늬벼를 올라와야 출 비지 아넘니까?{그러면 보통 그  
하늬바람 올라와야 풀 베지 않습니까?}

10801 #1 아니 하늬벼를 해도 추부네는 뭐 전후 해가지고 허는 거나네.{아니 하  
늬바람 해도 추분에는 뭐 전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10801 #1 그 추분 너멍 허민 초리 파랑허게 몰르곡 추분 저네 빈 초른 잘 몰라  
도 막 파랑허진 아녀.{그 추분 넘어서 하면 풀이 파랑게 마르고 추분 전에 벤 풀은  
잘 말라도 막 파랑지는 않아.}

10801 @2 으.{으.}

10801 #1 그 감저빼때기가 상강 너멍 허며는 하양케 므르곡 상강 저니 허며는  
쫘 껌뜨시 이상허여마씨. 절기가 그 날짜가.{그 절간고구마가 상강 넘어서 하면 하  
양게 마르고 상강 전에 하면 쫘 껌듯이 이상해요. 절기가 그 날짜가.}

10801 #2 하늬벼를 삭삭 날 때 초리 살랑살랑 므르곡.{하늬바람 삭삭 불 때 풀  
이 살랑살랑 마르고.}

10801 #1 게난 이젠 연날치록 하늬벼를 살랑살랑 날 때는 기다령은 안 돼난.{그  
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하늬바람 살랑살랑 불 때는 기다려서는 안 되니까.}

10801 #1 게고 또 이젠 그 저 연나른 춤 애기꾸덕 가그네 저 오르메 강으네 둥  
그려불고 저 췌에 짐 시끄민 오당 버서불곡 참 벨 므음도 다 날쭈마는 이제는 기계  
화로 혈 때난 출 비는 겐또 기계 무끄는 겐또 기계 시경 오는 겐또 기계. 뭐 아주  
존 세상이우다.{그리고 또 이젠 그 저 옛날은 참 요람 가서 저 오름에 가서 굴러버  
리고 저 소에 짐 실으면 오다가 벗겨지고 참 별 마음도 다 났지만 이제는 기계화로  
할 때니까 풀 베는 것도 기계 묶는 것도 기계 실어 오는 것도 기계. 뭐 아주 높은  
세상입니다.}

10801 #2 사름 이십오 멧씩 가네 초를 비난.{사람 이십오 멧씩 가서 풀을 베니  
까.}

10801 @1 나스로?{호미로.}

10801 #2 하루에.{하루에.}

10801 #1 게난.{그러니까.}

10801 @1 나스로 이러케.{낮으로 이렇게.}

10801 #1 예, 호미.{예, 낮.}

10801 #2 호미.{낮.}

10801 @1 호미로.{낮으로.}

10801 #1 예. 호미로 빌 때는 이시보 멧 허며는 호미 ㄴ는 겐또 정말 땀 나. 춤  
호미 ㄴ는 겐또 만만치 아는 이리우다.{예. 낮으로 벨 때는 이십오 멧 하면 낮 가는

것도 정말 땀 나. 참 낮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10801 #1 겐디 이젠 뭐 호미 굴چه를 할까. 나 그 호미 ㄴ는 건또 뭐 만만치 아  
넌찌마는게.{그런데 이젠 뭐 낮 갈려고나 할까. 나 그 낮 가는 것도 뭐 만만치 않았  
지만.}

10801 #1 춤 얻파보민 새송아기에 짐 시끄민 멘들멘들 짐 버서부리지 그 다으른  
또 아기꾸떡 지지.{참 없다보면 어린 송아지에 짐 실으면 미끈미끈 짐 벗어버리지  
그 다음은 또 요람 지지.}

10801 #1 이제 아기 출받떠 가보른 크닐 나부러. 크닐 나부러. 조근일도 안 낭  
크닐 나. 애기 아 못 찢려.{이제 아기 꼴발에 가보면 큰일 나버려. 큰일 나버려. 작  
은일도 안 나서 큰일 나. 아기 아 못 살려.}

10801 #1 그 꺼랭이만 올르곡 또 뭐 벨 뽕이 다 생겨날 꺼우다게.{그 꺼랭이만  
오르고 또 뭐 벨 뽕이 다 생겨날 겁니다.}

10801 @1 으.{으.}

10801 #1 겐디 엔나른 애기가 가가지고 쏘다불곡 둥그리곡 다 해도 사란 다 인  
쓰니.{그런데 옛날은 애기가 가가지고 쏘아버리고 굴리고 다 해도 살아서 다 있  
니.}

10801 @1 으.{으.}

10801 @2 (웃음)

10801 #1 참 그걸로 세민, 또 이제는 기저기나 오시나 뭐 벨벨 가지 다 험쭈마  
는.{참 그것으로 세면, 또 이제는 기저귀나 옷이나 뭐 별별 가지 다 하고 있지만.}

10801 #1 연나렌 갈중이 하나 아래 갈중이 하나민 이레 어떡 저레 어떡 영 두고  
이거 팔 버는 뒤지번꺼든.{옛날에는 갈중의 하나 아래 갈중의 하나면 이레 옆고 저  
리로 옆고 이렇게 두고 이거 팔 번은 뒤집었거든.}

10801 @1 으.{으.}

10801 #1 여덟 빠는 두지버야 그거 혼 번 강 무레 강 해왕 또 여덟 뺨 뒤지블  
때까지.{여덟 번은 뒤집어야 그거 한 번 가서 물에 가서 행귀서 또 여덟 번 뒤집을  
때까지.}

10801 #1 어 요 끝 혼 번 오그려 올로 혼 번 오그려 올로 혼 번 오그려 요 다리  
혼 번 오그려 영 허영 요덱 빠는 오그리는 거라. 혼 다리에서 네 번씩.{어 요 끝 한  
번 오그려 요리로 한 번 오그려 요리로 한 번 오그려 요 다리 한 번 오그려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은 오그리는 거야. 한 다리에서 네 번씩.}

10801 @2 (웃음).

10801 #1 여덟 빠는 오그리민 하 참 경 해도 아기가 커신디 이제는.{여덟 번은  
오그리면 하 참 그렇게 해도 아기가 컸는데 이제는.}

10801 #2 애기 허는 거난 보고렌.{아기 하는 것이나 봤다고.}

10801 #1 아.{아.}

10801 @2 (웃음).

10801 @1 이버는 구월로 너머옴쥬예. 구월따른 뭐 언쥬광? 이젠 출도 다 비곡?{이번은 구월로 넘어오지요. 구월달은 뭐 없습니까? 이젠 꼴도 다 베고?}

10801 #2 출도 다 비고 가을 가을꺼지.{꼴도 다 베고 가을, 가을건이.}

10801 #1 가을꺼지가.{가을건이가.}

10801 @1 예, 구월예?{예, 구월요?}

10801 #1 예. 오죽 카우까게? 이제 조 해영으네 조코고리 둥그리저.{예. 오죽 많습니까? 이제 조 해서 조이삭 장만하자.}

10801 #2 그때엔 시자기난.{그때에는 시작이니까.}

10801 #1 콩 허저 꼴 터저 꿔 허저 뭐.{콩 하자 팔 하자 참깨 하자 뭐.}

10801 #2 가으리 다.{가을이 다.}

10801 #1 아 가을거지 허여 드리저 췌가 이제는 시비월 나야 지브로 완찌마는. {아 가을건이 해 들이자 소가 이제는 십이월 되어야 집으로 오고 있지만.}

10801 #1 연나레는 파월 출 혈 때부터 지비 오민 계속 그 소 끌곡 받떠 강으네 이제 그 가을허명 메기곡 갈젠 가을 췌 구월 거저 농사가 거즘 드리와가민 절간 허기 시작커민 또 감저에 대행으네 허지.{옛날에는 팔월 꼴 할 대부터 집에 오면 계속 그 소 끌고 밭에 가서 이제 그 가을하면서 먹이고 갈려고 가을 저 구월 거의 농사가 거의 들어와가면 절간 하기 시작하면 또 고구마에 대해서 하지.}

10801 #1 아이고 춤.{아이고 참.}

10801 @1 이젠 게민 시월마췌?{이제는 그럼 시월요?}

10801 #1 시월 돼며는 보리밭 터기로 그 춤.{시월 되면 보리밭 하기로 그 참.}

10801 @1 아, 보리예?{아, 보리요?}

10801 #2 누니양, 시월 돼민 누니 퍼뜰퍼뜰 와.{눈이요 시월 되면 눈이 퍼뜰퍼뜰 와.}

10801 @1 음.{음.}

10801 #1 이제는 시워레 아.{이제는 시월에 아.}

10801 #2 보리완 터고.{보리밭 하고.}

10801 #1 멀루진 해도 누는 아니 오주게. 게주마는 연나렌 웨 그리케 보리밭 털 땀 누를 마니 와가지고 그 트키 허는 방버비 틀린 때.{진눈깨비는 해도 눈은 아니 오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보리밭 할 때는 눈을 많이 와가지고 그 특히 하는 방법이 다를 때.}

10801 #1 엔나른 그 걸름 돌통에서 내영 씨 빼영 췌로 불방 또 몬 찢디게 그 놈 뒤지병 또 불방 허영 췌영 돈꺼름차게 다망 강 받떠 강 부러냥 그 노를 빼비명 또 허대기는다.{옛날에는 그 거름 돼지우리에서 내어서 씨 부러서 소로 밟아서 또 못 견디게 그 놈 뒤집어서 또 밟아서 해서 쌓아서 돼지거름 먹서리 담아서 가서 밭에 가서 부러놓아서 그 놈을 비비면서 또 흘는데.}

10801 #1 눈 하영 올 땀디 꼭 그 걸르를 웨 걸, 씨를 거르메 무쳐야만 보리가 뽕 뽕지.{눈 많이 올 땀인데 꼭 그 거름을 왜 거, 씨를 거름에 묻혀야만 보리가 뽕뽕지.}

10801 #1 아 지끄른 돌통에 하나도 거름 안 드리강 소왕에서 다 내영 해도 보리가 더 더 수확또 평당 수확또 곱빼기 나지. 엔날로선.{아 지금은 돼지우리에 하나도 거름 안 들어가서 외양간에서 다 내서 해도 보리가 더 더 수확도 평당 수확도 곱빼기 나지.}

10801 #1 그 춤 시대가 이 저 사름 머리가 발따네가난 건지 세상이 그러케 바뀌는 건지 그걸 잘 모르커라마씨. 참 그.{그 참 시대가 이 저 사람 머리가 발달해가니까 그것인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참 그.}

10801 @1 게른 이제는 시월도 넘기고 시비월따레 오면 동지가 인는 다리라예. 동지.{그러면 이제는 시월도 넘기고 십일월달에 오면 동지가 있는 달이에요. 동지.}

10801 #1 예.{예.}

10801 #1 게 시비월따른 뭐해신고예?{게 십이월달은 뭐했는가요?}

10801 @1 동지 때 죽 썰.{동지 때 죽 썬서.}

10801 #1 동지 저니는.{동지 전에는.}

10801 #2 동지죽.{동지죽.}

10801 #1 보리바슬 다 허면 이젠 동지에는 동지깨웁허나네 동지죽케영 머경 그 다음부턴 멥탱일 즈르나 명서글 즈르나 독써글 즈르나 이러케 해야.{보리밭을 다 하면 이젠 동지에는 동지깨웁하니까 동지죽해서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망태기를 짜나 명석을 짜나 덕석을 짜나 이렇게 해야.}

10801 #1 짝 두드렁. 으, 게난 나는 이 초서글 마니 차신디 초석또 마니 차곡 멥탱이도 마니 즈라보고 명석또 다 즈라보고 뭐 신도 즈라보고.{짚 두들겨서. 으, 그러니까 나는 이 초석을 많이 쫓는데 초석도 많이 짜고 망탱이도 많이 곁어보고 명석도 다 곁어보고 뭐 신도 곁어보고.}

10801 @1 이젠 선달로 댜 거라마씨.{이젠 선달로 댜 거예요.}

10801 #1 게난 선달 동지 곧싸 동지 마를 헨는디 동지죽 머그민 이젠 동지 너먼 간 보리는 수확또 안 나온다 헨쭈다. 안 나옴도 허곡.{그러니까 선달 동지 아까 동지 말을 했는데 동지죽 먹으면 이젠 동지 넘어서 간 보리는 수확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10801 @1 음.{음.}

10801 #1 으, 게난 동지 너므민 보리바시 여기는 꼬나십쭈게.{으, 그러니까 동지 넘으면 보리밭이 여기는 끝났습지요.}

10801 #1 이 우리 부락근 또 놈 현다 허민 동자기 그런 동자근 빨라.{이 우리 부락은 또 남 한다 하면 동작이 그런 동작은 빨라.}

10801 #1 게난 동지 너므 후엔 뭐 지비 아장 쉼 출 주곡 멥탱일 즈르나 초서글 차나 시늘 사르나 뭐.{그러니까 동지 넘은 후에는 뭐 집에 앉아서 소 꼴 주고 망태기 곁으나 초석을 짜나 신을 삼으나 뭐.}

10801 #1 여자 어르더른 멘넬 불르나 멘넬 즈스나.{여자 어른들은 면화를 바르나 면화를 자르나.}

10801 #1 으, 이게 이제 이월달까지 이월 혼 중순까지는 허게 돼고 이월달 너므  
민 연나른 이월 중순 돼어가민 보리밭에 비료 주기 시작커곡 검질메기 시작커고.  
{으, 이게 이제 이월달까지 이월 한 중순까지는 하게 되고 이월달 넘으면 옛날은  
이월 중순 돼어가면 보리밭에 비료 주기 시작하고 김매기 시작하고.}

10801 @1 게난 그때가 쫘 농한기다예?{그러니까 그때가 쫘 농한기네요?}

10801 #@1 예.{예.}

10801 #2 설뜨리 흐끔 쉬어 십쥬. 설똥.{설달이 조금 쉬었습지요. 설달.}

10801 @1 예예예.{예예예.}

10801 @2 장깐만네?{잠깐만요?}

10801 #1 아, 정월달까지는 설 꺼.{아, 정월달까지는 설 거.}

10801 @2 아까 동지 너른 보리는 수화기 안 난텐 경 ㄱ라마씨?{아까 동지 너른  
보리는 수화가 안 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10801 #1 예, \*\* 안 나마씨.{예, \*\* 안 나요.}

10801 @2 으, 경허고 동지도 동지도 팔쥬 케 멍는 동지 일꼬 팔쥬 안 해 멍는  
동지 일쥬 아녀우파?{아, 그렇게 하고 동지도 동지도 팔쥬 해 먹는 동지 있고 팔쥬  
안 해 먹는 동지 있지 않습니까?}

10801 #2 아아.{아아.}

10801 @2 그런 건?{그런 것은?}

10801 @1 애기동지.{아기동지.}

10801 #1 아, 그건.{아, 그것은.}

10801 @2 오동지 뭐 이런.{오동지 뭐 이런.}

10801 @2 애기동지?{아기동지?}

10801 #2 그런 말 아녀고 그냥 동지.{그런 말 앓고 그냥 동지.}

10801 #1 아 여기선 동지죽 쥬 머거서 인사가 그거고.{아 여기서는 동지죽 쥬  
먹었어 인사가 그것이고.}

10801 #2 그건 뿐.{그것 뿐.}

10801 #1 또 동지 오민 동지 그냥 뭐.{또 동지 오면 동지 그냥 뭐.}

10801 #2 애기동지여 뭐 인넨 헨게양?{아기동지다 뭐 있다고 하다면서요?}

10801 @1 애기동지 때는 안 쥬 머거예.{아기동지 때는 안 쥬 먹어요.}

10801 #2 예.{예.}

10801 @1 예.{예.}

10801 @2 그런 마른 이 동네 아녀마씨?{그런 말은 이 동네 안해요?}

10801 #2 아녀.{안 해.}

10801 @2 아아.{아아.}

10801 #2 동진 중만 쥬 멍넨 허는 거.{동지는 죽만 쥬서 먹는다고 하는 것.}

10801 @2 옛날부터 동지죽 쥬 머건쥬과? 여기.{옛날부터 동지죽 쥬 먹었습니  
까? 여기.}



10801 #2 엔날부떠.{옛날부터.}

10801 @2 동지?{동지?}

10801 #1 겐디 우리 동네만 아니고 이 중문도 보민 그 동지에 안 해 멍나 해 멍나 허는 마른.{그런데 우리 동네만 아니고 이 중문도 보면 그 동지에 안 해 먹는다 해 먹는다 하는 말은.}

10801 #1 겐디 우리 이제 저 법쩍 지형상으론 예래동이 동사무시래 가야 뭐 혈일도 허곡 허고 인는다.{그런데 우리 이제 저 법적 지형상으로는 예래동이 동사무소에 가야 뭐 할 일도 하고 하고 있는데.}

10801 #1 이 초등학교도 중문 중학교도 중문 또 중무니 그 절문 사름더리 웨 색달리 싸르문 웨 안 때리느냐 그 초상덜부터 색파리 지경이 넓따보난 땅이 색파리 땅이 아니민 자기네 머글 끼리 업써.{이 초등학교도 중문 중학교도 중문 또 중문리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색달리 사람은 왜 안 때리느냐 그 조상들부터 색달리 지경이 넓다보니까 땅이 색달리 땅이 아니면 자기네 먹을 길이 없어.}

10801 @2 음.{음.}

10801 #1 게난 색파리 싸르문 중무니 가도 그 자유당 시저레도 시명 두드려분게 업는데 예래 사르문 중무닐 잘 몬 깔쭈게.{그러니까 색달리 사람은 중문리 가도 그 자유당 시절에도 잡아서 두들겨버린 것이 없는데 예래 사람은 중문리를 잘 못 갔지.}

10801 #1 가따민 시명 두드려부러.{갔다면 잡아서 두들겨버려.}

10801 #1 으, 대포 싸름허곡 중문니 싸름도 그 ㄱ튼 흑교를 다니면서도 질투를 부터신디 이 색파리 싸름만크른 이제도 중무니 가른 저 절때 뭐 시 이 때리나 뭐허는 버르스 어십쭈.{으, 대포 사람하고 중문리 사람도 그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질투를 붙었는데 이 색달리 사람만큼은 이제도 중문리 가면 저 절대 뭐 시 이 때리나 뭐하는 버릇은 없습지요.}

10801 @1 음.{음.}

10801 #1 깡패라 해도.{깡패라 해도.}

10801 @2 아까 팔쭈 썬 머글 때 팔쭈 썬면 여기 어디 뿌리기도 됩니까?{아까 팔쭈 썬 먹을 때 팔쭈 썬면 여기 어디 뿌리기도 됩니까?}

10801 #2 대무네 뭐 대무네 뿌린덴. 무네.{대문에 뭐 대문에 뿌린다고. 문에.}

10801 @2 음.{음.}

10801 #2 무네 쪼끔씩 뿌린덴 해도 나는 경 아녀.{문에 조금씩 뿌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앓아.}

10801 @2 엔나레 경허는 거 봐난마씨?{옛날에 그렇게 하는 것 봤었어요?}

10801 #2 음.{음.}

10801 @2 건 무사 뿌림신고?{그것은 왜 뿌리고 있는고?}

10801 #2 헌텐 말만.{한다고 말만.}

10801 @2 말만 드린마씨? 무사 대무네 뿌린텐마씨?{말만 들었어요? 왜 대문에 뿌린다고요?}

10801 #2 그거를 잡귀를 무너나렌 경 헌텐. 잡귀 드러오지 못터게.{그것을 잡귀를 물러나라고 그렇게 한다고. 잡귀 들어오지 못하게.}

10801 @2 거는 먹기 저네 뿌립니까? 아니면.{그것은 먹기 전에 뿌립니까? 아니면.}

10801 #2 먹기 저네 허여 노코,{먹기 전에 해 놓고.}

10801 #1 허여 노코 즉씨.{해 놓고 즉시.}

10801 #2 무네.{문에.}

10801 #1 올레허곡 대문허곡 뿌린다고는. 그 전설찌그로 나왔따고 허는데.{오래하고 대문하고 뿌린다고는. 그 전설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10801 #2 경 경 헌텐.{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10801 #1 게 뭐 우리는 그런 건 아녀보난 잘 모르겔쑈다마는 그 전서레 그러케 다 일따고 그 노인 어른더리 다 ㄱ라마씨.{게 뭐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설에 그렇게 다 있다고 그 노인 어른들이 다 말해요.}

10801 #1 이제 우리 동서가 이제 딱 아은인데 그분도 경 ㄱ라. 이제도.{이제 우리 동서가 이제 딱 아흔인데 그분도 그렇게 말해. 이제도.}

10801 #1 풀쭈근 쑈민 동지날 풀쭈 쑈민 그거 다 방버블 허여서 명는 거고, 풀 무슨 이를 허젠 해도 팔타고 소그를 버무려가지고 뿌리는 이유가 그거다. 이런. 그 처게도 일따고 험디다.{팔죽은 쑈면 동지날 팔죽 쑈면 그거 다 비법을 해서 먹는 것이고, 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팔하고 소금을 버무려가지고 뿌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런. 그 책에도 있다고 함디다.}

10801 @2 그 다음 섯파레 허는 건 뭐마씨?{그 다음 섯달에 하는 것은 뭐예요?}

10801 #1 섯뜨레?{섯달에?}

10801 @2 예.{예.}

10801 #1 섯파레 뭘 헤? 그.{섯달에 무엇을 해? 그.}

10801 @1 게난 농한기난 아까.{그러니까 농한기니까 아까.}

10801 #1 농한기라서.{농한기라서.}

10801 @1 맥 짜곡.{떡 짜고.}

10801 #1 예, 야간.{예, 하여튼.}

10801 #2 제일 노는 드리 섯뜨리라. 어령양.{제일 노는 달이 섯달이야. 추워서요.}

10801 @2 음.{음.}

10801 #2 경 허난 아자둬서 멘네도 브르고 멘네 그거 몬 허영 솜 강 태와다근네

몬 허곡.{그렇게 하니까 앉아서 면화도 바르고 면화 그것 몽땅 해서 숨 가서 태워  
다가 몽땅 하고.}

10801 #1 아니 이제는 우리 ㄴ튼 사름.{아니 이제는 우리 같은 사름.}

10801 @2 장도 다마야 뉼 꺼고.{장도 담가야 뉼 짓이고.}

10801 #2 장은{장은.}

10801 @2 장은 언제 다믄니까?{장은 언제 담금니까?}

10801 #2 장은 동진뉼.{장은 동짓달.}

10801 @2 장은 동지뉼레 다마야?{장은 동짓달에 담가요?}

10801 #2 동지뉼레 다마야. 동지뉼레 숨곡 동지뉼레 다마야.{동짓달에 담가야.  
동짓달에 삶고 동짓달에 담가야.}

10801 #2 으, 선뉼리나 정위리나 나머는 담지 모턴데. 경 헤그네 현디 이젠 아  
무 제라도 장을 드마도양 그때는 동진뉼 안네만 허여야 뉼여.{으, 선달이나 정월이  
나 되면 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젠 아무 때라도 장을 담가도요 그때  
는 동짓달 안에만 해야 돼.}

10801 @2 음.{음.}

10801 #2 쫄므리나 이제 드므리나.{삶거나 이제 담그거나.}

10801 @2 동진뉼 아네?{동짓달 안에?}

10801 #2 음. 동지뉼 혼 다레.{음. 동짓달 한 달에.}

10801 @2 그 다음 열 테 멍는 나리 인짜누파?{그 다음 열 해 먹는 날이 있잖습  
니까?}

10801 #2 열.{열.}

10801 @2 예.{예.}

10801 #2 열. 예뉼날.{열. 납평날.}

10801 @2 예.{예.}

10801 @2 납평날. 그건 언제우파?{납평날. 그것은 언제입니까?}

10801 #2 뉼뉼나른 열 테여그네 머그면 모든 병이 언나 허여그네 그 나른.{납평  
날은 열 해서 먹으면 모든 병이 없다고 해서 그 날은.}

10801 @2 예.{예.}

10801 #2 그 어느 때 골 노록. 골도 야튼 무신 나레 뉼쨌 해서.{그 어느 때 열  
기름 넣고. 열기름도 하여튼 무슨 날에 놓았다고 했어.}

10801 @2 음.{음.}

10801 #1 아 이 그 날 뉼 우리가 골도 뉼짜나?{아 이 그 날 봐서 우리도 열기름  
도 뉼었잖아?}

10801 #2 예, 무신 나레 노록 뉼뉼나레 열터고. 경 허영 허면 약 뉼다 경 헐쥬  
게.{예, 무슨 날에 놓고 납평날에 열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지.}

10801 @2 으음.{으음.}

10801 #1 아 우리도 경 험.{아 우리도 그렇게 해서.}

10801 #2 보리 무신 나레 봐난 거 이저부런.{보리 무슨 날에 봤던 것 잊어버렸어.}

10801 @1 거 한 번 걸랑 생각해 봅써예?{거 한 번 그것이랑 생각해 보십시오?}

10801 @2 남평나레 열테 머그면 병 안 걸린덴예?{남평날에 옛해서 먹으면 병 안 걸린다고요?}

10801 #2 으, 그 나리 열턴 거는 야기 쥘다.{으, 그 날에 옛한 것은 약이 쥘다.}

10801 @2 으음.{으음.}

10801 #2 아 약, 열또 잘 쥘쥘게.{아 약, 옛도 잘 했지.}

10801 #1 게난 정신쥘그로 놀는 드리렌 해도 이 선똥도 우리집싸르른 놀지 못 쥘쥘.{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노는 달이라고 해도 이 선달도 우리집사람은 놀지 못 했지.}

10801 #2 그냥 받떠.{그냥 받에.}

10801 #1 왜냐 허면 이 여자 하영 낭 일쓰며는 이제는 겨론허는 디 이불허는 게 뭘 간단커게 거 뭘 겨운 일베끼 언.{왜냐 하면 이 여자 많이 낳아서 있으면 이제는 결혼하는 데 이불하는 게 뭘 간단하게 거 뭘 겨운 일밖에 없.}

10801 #1 이 아이더리 이제 멘네로 해 간 거 다 이레 반납퍼쿠텐 다 허는디.{이 아이들이 이제 목화로 해 간 것 다 이리로 반납하겠다고 다 하는데.}

10801 #1 우린 그 아이드리 하다 보니 그 멘네 가랑으네 그거 막 헤여다 봐노민 그 겨우레 헤끄만 벤 나는 디도 그거 몰리저 그디 그 검부라기 마니 부떠 이시킨 그거 떼져.{우리는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 면화 같아서 그거 막 해다 놓아놓으면 그 겨울에 조그만 별 나는 데도 그것 말리자 거기 그 검불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 떼자.}

10801 #1 그걸 깡 이제 테와오는 디도 뭘 이 지비 가른 잘 쥘쥘, 쥘 난드르 가난 잘 해서라, 범파니 가난 잘 해서라 이런 건또 허지.{그것 가서 이제 타오는 데도 뭘 이 집에 가면 잘 했다, 저 대평 가니까 잘 했더라, 범환이 가니까 잘 했더라 이런 것도 하지.}

10801 #2 다선 채썩.{다섯 채썩.}

10801 #1 난.{나는.}

10801 #2 네 채썩 허쟁.{네 채썩 하려고.}

10801 #1 으, 참.{으, 참.}

10801 #2 방석 부찌고.{방석 붙이고.}

10801 @2 음.{음.}

10801 #1 그에.{그것에.}

10801 #2 계난 멘네가 경.{그러니까 면화가 그렇게.}

10801 #1 놀, 놀 쭈가 어설흔. 계난 이제 춤 우리 망내만 아넨찌. 계난 똥 다선  
깰 현 거라.{놀, 놀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막내만 안 했지. 그러니까  
똥 다섯 개는 한 거야.}

10801 #1 아이고 춤 그계 계난 우리 집 싸르미 질긴 사르미라.{아이고 참, 그것  
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질긴 사람이야.}

10801 @2 하하.{하하.}

10801 @1 계난 이제는 잘 모십씨.{그러니까 이제는 잘 모시십시오.}

10801 #1 잘 모셔봐야 다 늘거부난 모셔짜 뭐 어디 머그렐 갈.{잘 모셔봐야 다  
늘어버리니까 모셨자 뭐 어디 먹으러를 갈.}

## 제2편 2010년 - 제주시 건입동

(1) 파일 정보: SJJ\_GI\_28, SJJ\_GI\_29

\*조사자: 강영봉, 김순자, 김성룡

\*조사일: 2010. 8. 3.

\*주제보자: 고봉만

\*보조제보자: 전순자

(2) 전사 내용

1.2. 일생 의례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2.3. 전통 혼례식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2.6. 환갑잔치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 1.2. 일생 의례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1 이버는 겨론하기 과정을 쯔 아라보쿠다. 게서 배우자를 만나서 겨론하기까지이 과정예. 그러니깐, 어, 사모니른 어디 출썤닌고예?{이번은 결혼하기 과정을 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요. 그러니깐, 어, 사모님은 어디 출신인가요?}

10202 #1 거넙똥 출썤니주.{건입똥 출신이지.}

10202 @1 예, 게난 주로 또 거넙똥에서 사썤깁파예?{예, 그러니까 주로 또 건입똥에서 사썤깁네요?}

10202 #1 예.{예.}

10203 @1 예, 그러면 중매를 헨 겨우팡? 여네를 헨 겨우팡?{예, 그러면 중매를 한 겁니까? 연애를 한 겁니까?}

10203 @1 쯔 그 과정을 쯔 ㄱ라주십썤?{쯔 그 과정을 쯔 말해주십시오?}

10203 #1 음, 근데.{음, 그런데.}

10203 #1 나이가 삼십 똤 가니까.{나이가 삼십 똤어 가니까.}

10203 @1 아, 서른?{아, 서른?}

10203 #1 예.{예.}

10203 @1 쟁 막 늑, 늑, 늑쳐나썤다.{그렇게 막 늑, 늑, 늑어었습니다.}

10203 #1 게니까 우리 아버지는.{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10203 #1 장게강, 은제 가젠 험시니?{강자가서, 언제 가려고 하고 있니?}

10203 #1 예, 이제 가쿠다.{예, 이제 가겠습니다.}

10203 #1 예, 이 멘날똤 이제 예, 예, 예.{예, 이 만날들 이제 예, 예, 예.}

10203 #1 건디 어디 똤겻시른 새각썤 구허주켄 즈원허는 사름드리 마나요.{그런데 어디 다니고 있으면 새색시 구해주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203 #1 게른 고맙썤니다.{그러면 고맙썤니다.}

10203 #1 강 보므는 나 므으멘 아니.{가서 보면 내 마음에는 아니.}

10203 #1 그 쯔 잘 사는 지뵐 가며는.{그 쯔 잘 사는 집예를 가면.}

10203 #1 그집 심부름꾸니 똤다고, 내가.{그집 심부름꾸니 똤다고, 내가.}

10203 #1 게니까 나보담 쯔 못 썤는 집.{그러니까 나보다 쯔 못 사는 집.}

10203 #1 건데 그 사람 자기 인성, 인상에 만는 사르미 일꼬 아이 만는 사라미 일파 마랴.{그런데 그 사람 자기 인성, 인상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 맞는 사람이 있다 말야.}

10203 #1 근데 새각썤는 똤, 참 보레 저 심지어는 모실포까지 가서 모실포에서 한림까지 겨러온 니리 이서. 즈동차 어시난.{그런데 신부는 똤, 참 보레 저 심지어

는 모슬포까지 가서 모슬포에서 한림까지 걸어온 일이 있어. 자동차 없으니까.)

10203 #1 그러케 헨 역싸도 일꼬.{그렇게 한 역사도 있고.}

10203 #1 켄디 우리 아버지가 그 뭐인가가 아버지 당신 머리쑈게 뭐 발표 아너는 게 하나 이션씨.{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무엇인가가 아버지 당신 머릿속에 뭐 발표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

10203 #1 지브로 동더레랑 새각씨 구, 구허레 땡기지 말라.{집에서 동으로는 새색시 구, 구하러 다니지 마라.}

10203 @1 지베서 동쑈그로?{집에서 동쪽으로?}

10203 #1 음.{음.}

10203 #1 예.{예.}

10203 #1 경 오느른 어디 땡기단 와시?{그렇게 오늘은 어디 다니다가 왔느냐?}

10203 #1 예, 저 서페니 어디영 이디저디 땡기단 와쑈다.{예, 저 서편에 어디랑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10203 #1 게난 믏으메 든 새각씨 으서냐?{그러니까 마음에 든 새색시 없더냐?}

10203 #1 아이, 뭐 이제도 아라보레 땡점쑈다게.{아니, 뭐 이제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10203 #1 그 아부지 무르미 거진말도 혼두 버니지 아, 그래서 이제 게 스물으덥부터 그러케 허기 시자케연 혼 이년 막 끄러가니까 나도 좀 밀망시럽끼도 허고.{그 아버지 물음에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물여덟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한 이년 끝나가니까 나도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10203 #1 근데 누구, 누게 아덜, 누게 손지, 새각씨 구허레 땡점서라 허는 소문난 마려.{그런데 누구, 누구 아들, 누구 손지, 새색시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 하는 소문나서 말야.}

10203 @1 음.{음.}

10203 #1 조은 사우가 드러완쑈.{좋은 사위가 들어왔다.}

10203 #1 하이, 게난 경 헤난 지븐 아라서 그 집 피헨 땡기명.{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집은 알아서 그 집 피해서 다니면서.}

10203 #1 그 아프로 가당 또 걸리민 또 오라, 느 우리 사위허게.{그 앞으로 가다가 또 걸리면 또 와라, 너 우리 사위하자.}

10203 #1 하이, 이 피헨 땡기명.{하이, 이 피해서 다니면서.}

10203 #1 근데 지금 우리 집싸라를 만나게 땡 거슨, 겨니까 수, 수십 쑈테를 마니 뵈쑈, 마니.{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수, 수십 군데를 많이 뵈쑈, 많이.}

10203 #1 켄디 내 보레 간 게난 누구 ㄴ치 특빠리 저 어디 조은 새각씨 이시메 보레 글라 허연 강 보며는.{그런데 내 보러 가니 그러니까 누구 같이 특별히 저 어디 좋은 새색시 있으니까 보러 가자 해서 가서 보면.}

10203 #1 게 보는 걸또 이젠 딱 이제 어느 시기에선 끝나부러야지.{그래 보는



것도 이제는 딱 이제 어느 시기에서는 끝나버려야지.}

10203 #1 무슨 돈도 어신 주젠데 무슨 새각씨만 드라본 사르미엔 허영 게고 나 말 듣찌도 아널 꺼시고.{무슨 돈도 없는 주제인데 무슨 새색시만 돌아본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10203 #1 젠 이제 딱 끄너두고 그냥 혼차서 완따간따 허는데 아는 사르를 한 번 딱 만날쎄요.{그래서 이제 딱 끊어두고 그냥 혼자서 왔다갔다 하는데 아는 사람을 한 번 딱 만났어요.}

10203 #1 어디 간 완쭈강?{어디 갔다 오십니까?}

10203 #1 어딘, 일허레 간 완서.{어디, 일하러 갔다 오고 있어.}

10203 #1 새각씨 구해줍쎄?{새색시 구해주세요?}

10203 #1 경 허렌.{그렇게 하라고.}

10203 @1 음.{음.}

10203 #1 그때 그 중앙건설 상문데 안창숙 씨라고 허는.{그때 그 중앙건설 상무인데 안창숙 씨라고 하는.}

10203 #1 술 사젠?{술 사려고?}

10203 #1 예.{예.}

10203 #1 어디 잘 뵙 뵙두, 뵙뵙쎄양?{어디 잘 봐서 뵙두, 뵙두세요?}

10203 #1 음, 아랄쎄.{음, 알았다.}

10203 #1 그 내가 그때 그 지베 개를 조아해서, 또 우리 지비 그 지금 사는 지비 아니고, 그 여페 초가집 살 땐데 울따리가 얹는 집.{그 내가 그때 그 집에 개를 좋아해서, 또 우리 집이 그 지금 사는 집이 아니고, 그 옆에 초가집 살 땐데 울타리가 얹는 집.}

10203 @1 음.{음.}

10203 #1 울따리 얹는 지비니깐 개를 그 세파뜨 큰 걸 내 키완는데.{울타리 얹는 집이니까는 개를 그 세퍼트 큰 것을 내가 키웠는데.}

10203 #1 개를 아침 새벽에 개 풀러노문 그 가난 드레 사라봉드레 자꾸 간단 마려.{개를 아침 새벽에 개 풀어놓으면 그 갔던 데로 사라봉으로 자꾸 간단 말야.}

10203 #1 그나른 겔 풀러노니까 사라봉드레 안 가고 알력, 개가 갠 서부두쪽뜨레 가길레 서부두 산체글 헨쎄.{그날은 개를 풀어놓으니까 사라봉으로 안 가고 아래쪽, 개가 개는 서부두쪽으로 가길레 서부두 산책을 했지.}

10203 #1 서부두 산체글 헨 그 우리 거넙동사무소 아프로 그레 오단 보니까 동찌권드리 그 거적테기덜 영 폐와노코 무신 견떨, 이거 뭇 템시 허난, 아이고 말도 맵쎄.{서부두 산책을 해서 그 우리 건입동사무소 앞으로 그리로 오다가 보니까 동직원들이 그 거적때기들 이렇게 퍼놓고 무슨 것들, 이거 뭇하고 있니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10203 #1 사라봉에 목뜨라전 주건 영장허젠 허난 우리 지권들만 험쭈게게.{사라봉에 목 매달아서 죽어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10203 #1 겐 그 잘 조사해 보지게. 도니나 얼마 신디. (웃음) 돈 피아사불 꺼 아나라게? 경 허멍 우시게 허멍 해서.{그래서 그 잘 조사해 보지. 돈이나 얼마 있는지. (웃음) 돈 피가져버릴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우스개 하면서 했어.}

10203 #1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마를 듣꼬 나선 그 후로 사자, 사라봉 안 가. 이제도 안 가, 내.{그것을 보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후로 사자, 사라봉 안 가. 이제도 안 가, 나.}

10203 #2 아, 일찍 텅길 떠가 아니다. 소낭받디.{아, 일찍 다닐 데가 아니다. 소나무밭에.}

10203 #1 게난 그 목뜨란 주근 사라문 내 말만 드렷찌마는 쉰빠다글 이러케 길게 내멍 중는다고.{그러니까 그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은 나 말만 들었지만 헛바닥을 이렇게 길게 내면서 죽는다고.}

10203 #1 몽메 주근 사름 다 경 현덴 허대.{목매달아 죽은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대.}

10203 #1 게 그후부턴 사라봉을 안 데니는데.{그래서 그후부터는 사라봉을 안 다니는데.}

10203 #1 그, 그 후엔 이젠 이 서부두쪽뜨레만 아치메 이러나문 걷는데 아치메 일찍 텅기거든.{그, 그 후에는 이제는 이 서부두쪽으로만 아침에 일어나면 걷는데 아침에 일찍 다니거든.}

10203 #1 그 개 기르멍, 그 엔날 그 화력발전소 여프로 헤영 가당 보문.{그 개 키우면서, 그 옛날 그 화력발전소 옆으로 해서 가다가 보면.}

10203 #1 그 어두루컨 디 가로등도 아무 걷또 업쓰니까, 어두룩컨 디 물 지렁 오는 거 보미는 그 새벽게 그 동산드레 물을 지렁 와.{그 어두운 데 가로등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두운 데 물 길어 오는 것 보면 그 새벽에 그 동산으로 물을 길고 와.}

10203 #1 야, 켜장이 부지런헌 여자구나.{야,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구나.}

10203 @1 웃음.{웃음.}

10203 #1 겐디 그 반\*, 밤색 반노바를 영 이브니까 처년지 \* 아가썸지 모른단 마려.{그런데 그 반\*, 밤색 반코트를 이렇게 입으니까 처녀인지 \* 아가씨인지 모른단 말야.}

10203 #1 게도 어느 날 보니까 그, 그 물허벅 전 그 어느 집 여잔지 알아야 말도 허지.{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그, 그 물허벅 저서 그 어느 집 여자인지 알아야 말도 하지.}

10203 #1 게 이젠 조르메 졸졸 멀, 먼발로 갠 목떨미 딱 짜방 가까이 자방 개 보문 여자드른 놀레거든.{그래 이제는 꿈무니에 졸졸 멀, 먼발치로 개는 목떨미 딱 잡아서 가까이 잡아서 개 보면 여자들은 놀라거든.}

10203 #1 겐 이제 그 먼발로 영 보니깐, 어느 지베 간 물 지런 간게 저 물 빔는 소리가 풍풍 나더라 마려.{그래서 이제 그 먼발치로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집에 가

서 물 길어서 가더니만 저 불 쬐는 소리가 풍풍 나더라 말이야.}

10203 #1 게 ㄴ만 멀리 산 보니까 그디 물 비와된 또 물 질레 와. 아, 요기 요 지비 딱리구나.{그래 가만 멀리 서서 보니까 거기 물 부어두고 또 물 길러 와. 아, 요기 요 집에 딸이구나.}

10203 #1 게 그걸 딱 열빔 아랄찌. 이 아가씨.{그래 그것을 딱 엿봐서 알았지. 이 아가씨.}

10203 #1 그 이젠 한 버는 어떻행 그 지베 접끄늘 해야 될 켜데 아까 얘기 헌 그 안 상무보고 요 지비 딸 이쭈과? 허난.{그 이제는 한 번은 어떡해서 그 집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얘기 한 그 안 상무보고 요 집에 딸 있습니까? 하니까.}

10203 #1 으, 그 저 나 그, 그디 오빠도 나 친구여.{으, 그 저 나 그, 거기 오빠도 내 친구야.}

10203 #1 그 성이 뭐우파? 전씨, 전 전가 전씨, 전씨양?{그 성이 뭇니까? 전씨, 전, 전가. 전씨, 전씨요?}

10203 #1 게연 무신 저니우파? 온전 저니주.{그래서 무슨 전입니까? 온전 전이지.}

10203 #1 게 받 켜 일꺼든. 받 켜 일꼬.{게 받 전 있거든. 받 전 있고.}

10203 @1 예.{예.}

10203 #1 걸 화긴하고 이젠.{그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10203 #1 하루는 그 지베 (웃음) 밤 느즌디 바메 드리간썬. 드리간 “실레합니다.”{하루는 그 집에 (웃음) 밤 늦은데 밤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실레합니다.”}

10203 #1 아, 나 요 동네에 사는 사르민디 제대헨 온 지가 얼마 안 돼고 헤연 이제 동네에 그냥 아랑 탕기젠.{아, 나 요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제대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제 동네에 그냥 알아서 다니려고.}

10203 #1 이디 인사차 와쭈다 헨.{여기 인사차 왔습시다 해서.}

10203 #1 술. 그땐 공고뽕이엔 헌 거 일썬. 켜 지금 맥주병보단 쭈 큰 거.{술, 그때는 공고병이라고 한 것 있어. 그래서 지금 맥주병보다는 조금 큰 거.}

10203 #1 그런, 그 당시엔 그 부란디라고 허는 술.{그런, 그 당시에는 그 부란디라고 하는 술.}

10203 #1 이젠 오징어 혼 머리 탁 사고 헨 드리간썬.{이젠 오징어 한 마리 턱 사고 해서 들어갔어.}

10203 #1 게난 이딘 아덜 땔 성제우파? 허난, 아들 형제.{그러니까 여기는 아들 몇 형제입니까? 하니까, 아들 형제.}

10203 #1 켜 그 여자에 오빠들, 건디 자근오빠 그디 살고, 큰오빠 다른 디 산다는 거야.{그래서 그 여자에 오빠들, 그런데 작은오빠는 거기 살고, 큰오빠는 다른 데 산다는 거야.}

10203 #1 건, 술 머그문게 나 술 멩는 거라?{그것은, 술 먹으면 나 술 먹는 건가?}

10203 #1 안잔 이제는 그냥 인사해연 술 혼두 잔 먹꼬.{앉아서 이제는 그냥 인사해서 술 혼두 잔 먹고.}

10203 #1 내일도 그디 놀러간 거 아니\*.{내일도 거기 놀러간 거 아니라.}

10203 #1 건 이제 우리 처남 댔 싸름보고 나 이딴 자주 놀러 오는 뜨슬 아람쭈과? 허난.{그래서 이제 우리 처남 댔 사람보고 아 여기 자주 놀러 오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10203 #1 몰르쿠다.{몰르쿠다.}

10203 #1 지베 누이동생 일찌예?{집에 누이동생 있지요?}

10203 #1 예, 이쭈다.{예, 있습니다.}

10203 #1 게난 장가나 드리보카 허연 허는디 실텅 아너민 장가들젠 험쭈다.{그러니까 장가나 들어볼까 해서 하는데 싫다고 앓으면 장가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203 #1 우리 장모니른 그 옆, 요만한 그 통노 건너편은 장모 방이야.{우리 장모님은 그 옆, 요만한 그 통로 건너편은 장모 방이야.}

10203 @1 음.{음.}

10203 #1 문 확 열더니 마리아. 으?{문 확 열더니 말이야. 으?}

10203 #1 어디 부랑장이가 이런 부랑장이가 일썌. 우리, 우리는 일가 방상도 업꼬, 이를 켜 사는 줄 아니깐 이러케 나무레가지고 으, 어딘 깡패가 완느냐고 막 야단 천.{어디 불량배가 이런 불량배가 있어. 우리, 우리는 일가 친척도 없고, 이를 켜 사는 줄 아니까 이렇게 나무라가지고 으, 어디 깡패가 왔느냐고 막 야단 쳐서.}

10203 #1 겐디 절때 그런 사름 아님니다. 저는 깡패 아님니다.{그런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님니다. 저는 깡패 아님니다.}

10203 #1 경허난 나가라고 막.{그렇게 하니까 나가라고 마구.}

10203 #1 알겐썸니다 허명 비실비실 나왈쭈게.{알겠습니다 하면서 비실비실 나왔지.}

10203 #1 용 머그멍 그디 이시른 더 욱커곡.{욕 먹으면서 거기 있으면 더 욱하고.}

10203 #1 뒀날 또 와썌요.{뒀날 또 왔어요.}

10203 #1 게 혼 사밀 허당 아, 요건 안 뒀겐따 마려. 누가 아는, 그래서 다시 그 안 상무란 사르믈 차즌 거야, 차잔 그 지비 혼 번 가 본 거, 와쭈썌. 나 간 다 뵈쭈다.{그래 한 삼일 하다가 아, 요것은 안 되겠다 말야. 누구 아는, 그래서 다시 그 안 상무라는 사람을 찾은 거야, 찾아서 그 집에 한 번 가 본 것, 오십시오. 나 가서 다 뵈었습니다.}

10203 #1 게난 음.{그러니까 음.}

10203 #1 그 지베 할망은 나신디 막 깡패엔 험 욱커고 우리 처남 댔 그, 그 남자는 원 뵈 말도 아니 곧꼬.{웃음}{그 집에 할머니는 나한테 마구 깡패라고 해서 욱하고 우리 처남 댔 그, 그 남자는 원 뵈 말도 아니 말하고.}

10203 #1 겐 뵈 뵈 간따와쭈다게. 게난 혼 번 강, 그 경 아년 사르미엔 강 7라

줍써.{그래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서 말해 주십시오.}

10203 #1 아란쨌.{알았다.}

10203 #1 게 혼 번 그 이 회사나네 중앙건설 상무나네 간 오단 그 지비 잠깐 들런.{그래 한 번 그 이 회사니까 중앙건설 상무니까 가서 오다가 그 집에 잠깐 들러서.}

10203 #1 그 이디 자꾸 술 머그, 술뽕 들렁 오는 사름 그 정 부량한 사람 아니나네 저 사위해도 조을 꺼우덴 헨 간 ㄴ라분 쟁이라.{그 여기 자꾸 술 먹으, 술병 들어서 오는 사람 그 그렇게 불량한 사람 아니니까 저 사위해도 좋을 겹니다고 해서 가서 말해버린 모양이야.}

10203 #1 이 또 웨, 게 게난 이젠 중준, 중진애비는 그 사라미 뒸는 거여.{이 또 왜, 그 그러니까 이젠 중매, 중매쟁이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10203 #1 겐 다신 간 ㄴ라줍써 허난.{그래서 다시는 가서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10203 #1 간 ㄴ르니깐 아직 어리고 어, 그 스나이 내용도 몰르고, 아무것도 몰르니까 자긴 못터겔따 거절허는 거여.{가서 말하니까 아직 어리고 어, 그 사내 내용도 몰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빠리는 못하겠다 거절하는 거야.}

10203 #1 거절헨쨌 허길레 게른 생년월일만 아랑 읍쨌 허연.{거절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생년월일만 알아서 오십사고 했어.}

10203 #1 게 또 어떻 어떻 생년월일 아라 완길레 어디 간 태길 딱 헨따고. 허니까 시비일마네 태기리 난 거야.{그래 또 어떻게 어떻게 생년월일 알아서 왔기에 어디 가서 택일 딱 했다고. 하니까 십이일만에 택일이 난 거야.}

10203 #1 사뿔 이십 날. 음녀 사뿔 저니.{삼월 이십 날. 음력 사월 전에.}

10203 #1 태길 나오길레 태길 딱 가전 간 우릴, 처아지망이랑 이제 장모 뿔 싸람 큰처남 모, 모다노코 헤연, 이날로 태길 나시메 잔치헉씨다 하니까.{택일 나오기에 택일 딱 가져서 가서 우리, 처아주머니랑 이제 장모 뿔 사람 큰처남 모, 모아놓고 해서, 이날로 택일 났으니까 잔치합시다 하니까.}

10203 #1 하이고, 막 막 들리퀴는 거야.{아이고, 마구 마구 날뛰는 거야.}

10203 #1 아니, 장모 뿔 어른도, 처남 뿔 싸름도, 처남까지도 다 이, 그 당신네 지비 귀한 딸리.{아니, 장모 뿔 어른도, 처남 뿔 사람도, 처남까지도 다 이, 그 당신네 집에 귀한 딸이.}

10203 #1 어디 가서 부랭헉 띠를 기다리고 인는가 마려.{어디 가서 불행할 데는 기다리고 있는가 말아야.}

10203 #1 나히고 겨론허며는 이날 겨론허믄 행보칸다고 이 태길끼에 딱 나완는 데 이날 아녕 부랭헉 곁 당신네 기다리고 인느냐고, 이 당신네 이상허다고.{나하고 결혼하면 이날 결혼하면 행복한다고 이 택일기에 딱 나왔는데 이날 아니 해서 불행할 것을 당신네 기다리고 있느냐고, 이 당신네 이상하다고.}

10203 #1 그 한 마디에선 장모 뵈 어른도 아무도 꿈쩍 모터는 거지.{그 한 마디에서는 장모 뵈 어른도 아무도 꿈쩍 못하는 것이지.}

10203 #1 부랭할 땔 기다릴 사르문 업짜네너.{불행할 때를 기다릴 사람은 없잖아.}

10203 #1 게난 이제는 준비 아넝 그냥 몰타겔따고.{그러니까 이제는 준비 안 해서 못하겠다고.}

10203 #1 준비할 꺼 뭐 일씀니까?{준비할 것 뭐 있습니까?}

10203 #1 준비는 이불 두 채든 조코, 혼 썰 허나, 요 흥나, 깡랑 누울 꺼니까 자, 요 흥나 이불 하나 딱 뵈씀니다.{준비는 이불 두 채면 좋고, 한 채를 하나, 요 하나, 깔아서 누울 것이니까 자, 요 하나 이불 하나 딱 뵈었습니다.}

10203 #1 다 피료업써요.{다 필요없습니다.}

10203 #1 겨니깐 그때부턴 그 뵈날 그러케 선포허는 거여, 서는 딱 선포해 두곡 뵈날 영 간 보니까 여자가 모기 바짝 쉬어부는 거야.{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뵈날 그렇게 선포하는 거야. 선을 딱 선포해 두고 뵈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자가 목이 바짝 쉬어버리는 거야.}

10203 #1 말도 모터고 막 근심허니까.{말도 못하고 막 근심하니까.}

10203 @1 에.{에.}

10203 #1 걱정허연.{걱정해서.}

10203 #1 게도 무신 방식또 헤영 가곡 무신 거 (웃음) 그 준비가 뵈야 뵈 꺼 아이라?{그래도 무슨 방식도 해서 가고 무슨 것 (웃음) 그 준비가 뵈야 뵈 것 아닌가?}

10203 #1 게니까 난 그런 거 허지 말라 허지.{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하지 말라 하지.}

10203 #1 게도 여자츠게선 뵈 허젠 허니깐 돈도 업찌 뵈, 뵈, 뵈뵈 가난허니까. {그래도 여자측에서는 뵈 하려고 하니깐 돈도 없지 뵈, 뵈, 뵈뵈 가난하니까.}

10203 #1 게 이젠 그거슬 매날 땡기명 안시머게 현 거야.{그래 이제는 그것을 매일 다니면서 안심하게 한 거야.}

10203 #1 게난 장가가는 날 전날 뵈도 그디 간 잔 거야. 가까우니까.{그러니까 장가가는 날 전날 밤에도 거기 가서 잔 거야. 가까우니까.}

10203 #1 무시거 준비허카부텐 난 그디 간 지커는 거.{무슨 것 준비할까봐 나는 거기 가서 지키는 거.}

10203 #1 준비허지 맙써.{준비하지 마십시오.}

10203 #1 경헐 이, 딱 마췌는데.{그렇게 해서 이, 딱 맞췌는데.}

10203 #1 제주시예 그 중앙노에 저, 저, 중앙극짱 요, 관덕정에서 남문 요 신, 옛날 신고레 가는 디 중앙예식짱이라고. 예식짱이 하나 이선써.{제주시예 그 중앙로에 저, 저, 중앙극장 요, 관덕정에서 남문 요 신, 옛날 신고로 가는 데 중앙예식장이 라고. 예식장이 하나 있었어.}

10203 @1 예.{예.}

10203 #1 그 예식빠가 얼마나 허프는.{그 예식비가 얼마나 하면.}

10203 @1 비싸마썸?{비싸요?}

10203 #1 사만 오쳐 뉘 해. 사만 오쳐 뉘. 예식빠가.{사만 오천 원 해. 사만 오천 원. 예식비가.}

10203 #1 아, 거슬 이제 뭐, 야, 도니 경 비싸나. 게 이제 삼성혀레 가서 나 그땐 삼성혀레 땡겨보지도 아녜쥬게.{아, 그것을 이제 뭐, 야, 돈이 그렇게 비싸나. 그래서 이제 삼성혈에 가서 나 그때는 삼성혈에 다녀보지도 안 했지.}

10203 #1 삼성혀레 가서 내, 이 소낭바티서 이제 예식 올리면 안 댜 꺼냐? \* 켜.{삼성혈에 가서 내, 이 소나무밭에서 이제 예식 올리면 안 댜 것이냐? \* 그래서.}

10203 #1 그디 삼성혈 지키는 사르미 일궔레 간 어떻 어떻 허영 영 허는 \* 완쥬땡.{거기 삼성혈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 왔습니다고.}

10203 #1 아, 뭘 이디 겨론헌본 인 \* 업따 이.{아, 뭘 여기 결혼해본 이는 \* 없다 이.}

10203 #1 그러면 내가.{그러면 내가.}

10203 @1 고맙쥬땡.{고맙다고.}

10203 #1 이디 와서 겨론헌 테니까, 돈 얼마 바들 꺼냐고 허니까, 돈 업써도 댜땡.{여기 와서 결혼할 테니까, 돈 얼마 받을 것이냐고 하니까, 돈 없어도 댜다.}

10203 #1 게난 삼, 삼성혀레 간 그 삼성혈 지키는 사름 아페 내 이제 메칠날 이디 왕 겨론헌 혈 꺼니까 경 압썸 해뉘 지비 오란 또 이제 아, 그땐 그 실랑 들러리가 일썸, 들러리.{그러니까 삼, 삼성혈에 가서 그 삼성혈 지키는 사람 앞에 내 이제 며칠 날 여기 와서 결혼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사고 해두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아, 그때는 그 신랑 들러리가 있어, 들러리.}

10203 #1 아, 들러리를 또 누게 해야 댜 꺼 아니\*.{아, 들러리를 또 누구 해야 댜 것 아니\*.}

10203 #1 난 군대 생활 허단 그냥 나완 막 뭘, 이디 저디 허꺼노니깐 친구가 업땡 마랴. 학교 안 땡기고 허니까.{나는 군대 생활 하다가 그냥 나와서 막 뭘, 여기 저기 돌아다니니까 친구가 없단 말야. 학교 안 다니고 하니까.}

10203 #1 마침 우리 팔촌 형뻘 뉘는 사르미 봐지길레, 그땐 예도 안 썸 그냥 말놔서.{마침 우리 팔촌 형뻘 되는 사람이 보이기에, 그때는 예도 안 썸서 그냥 말 놓아서.}

10203 #1 나 절, 널 모썰, 모리 겨론헌시난 들러리 사 줄레? 허난.{나 저, 널 모썰, 모래 결혼하고 있으니까 들러리 사 줄레? 하니까.}

10203 #1 끄떡끄떡허길레 게른 온 곱딱커게 이병 우리 집뜨레 오렌.{끄떡끄떡하기에 그러면 옷 곱게 입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10203 #1 겐 어디 누게 찻차 하나 빌리고 헤네 태완, 게 잔치헬젠 허니까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깐 사름드리 모여온 거라예.{그래서 어디 누구 지프 하나 빌리고 해서 태워서, 그레 잔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깐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10203 #1 게 나, 나 아랑 가는 사름튼 업쭈게. 잔치 머그레.{게 나, 나 알아서 가는 사람은 없지. 잔치 먹으러.}

10203 #1 겐 잔치허는데 아, 이젠 삼성혀레서 잔치를 허게 댜 거라.{그래서 잔치하는데 아, 이제는 삼성혈에서 잔치를 하게 된 거야.}

10203 #1 게난 누가 차도 훗나 비렁와사주, 이제 어찌구 저찌구 허길레.{그러니까 누가 차도 하나 빌려와야지, 이제 어찌구 저찌구 하기에.}

10203 #1 아, 이젠 제주 차부에 간 차 하나 빌려줍젠 허연 도는 업쓰니까 잔치 헤낭 부주 바드민 차비로 싹 주켄 허니까.{아, 이제는 제주 차부에 가서 차 하나 빌려주십사고 해서 돈은 없으니까 잔치 해서 부조 받으면 차비로 싹 주겠다고 하니까.}

10203 #1 게 이젠 그 차 겐또 저, 동초등훗꼬 뒤편 차 몰 땡기니까 기리 쪼바서. 그 입구에서, 큰 기레서 세완 그디갯지 거런 완덜 잔치헬.{그레 이제는 그 차 그것도 저, 동초등학교 뒤편은 차 못 다니니까 길이 좁아서. 그 입구에서, 큰 길에서 세워서 거기까지 걸어서 와서들 잔치해서.}

10203 #1 겐 삼성혈 소낭받떠서 잔칠헬따고.{그래서 삼성혈 소나무밭에서 잔치를 했다고.}

10203 #1 겐디 주레, 주레가 두 사름 섰 거여.{그런데 주레, 주레가 두 사람 산 거야.}

10203 @1 어떻 행마씨?{어떻게 해서요?}

10203 #1 그 훗 부는 내가 동해 아버지 그, 거기고 그 \*\*\*\* 주레헤줍젠. 허주. 그땐 농산물 조합짱이거든.{그 한 분은 내가 동해 아버지 그, 거기고 그 \*\*\*\* 주레헤 주십사고. 하지. 그때는 농산물 조합장이거든.}

10203 #1 주레가 한참 말 곤는디 그 처갓찌비서 막 국뜰 처메겨부니깐 수리영 바비영 망 머거냥 오주미 바쌍 ㄹ료완.{주레가 한창 말 말하는데 그 처갓집에서 막 국들 처먹여버리니깐 술이랑 밥이랑 막 먹어놓아서 오줌이 바싹 마려워서.}

10203 #1 선생님 잠깐 나 저 오줌 누레 갓따 오쿠텐 허난.{선생님 잠깐 나 저 오줌 누우러 갔다고 오겠습시다 고 하니까.}

10203 #1 게난 삼성혀레서 삼성혈에서 지금까지 그런 결혼헌 역싸가 업썩는데. {그러니까 삼성혈에서 삼성혈에서 지금까지 그런 결혼헌 역사가 없었는데.}

10203 @1 처음 아니우파?{처음 아닙니까?}

10203 #1 처음, 처음.{처음, 처음.}

10203 #1 겨난 겨론헌덴 허니까 막 사름, 그 구경꾼드리 그 소낭받떠 ㄹ뚝 다마드는 거야.{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니까 막 사름, 그 구경꾼들이 그 소나무밭에 가득 몰려드는 거야.}



10203 #1 경헌디 오줌 므려왕 실랑이 화, 변소에 갇땅 오쿠덴 허난 계난 주레도 우서불고.{그런데 오줌 마려워서 신랑이 화, 변소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레도 웃어버리고.}

10203 #1 게 이젠 갇따 완 보난 아니 운는 사르미 업는 거여.{그래서 이젠 갔다 와서 보니까 아니 웃는 사람이 없는 거야.}

10203 #1 저, 수를 얼마나 머거시든 저영 해신가 허여네.{저, 술을 얼마나 먹었으며 저렇게 했는가 해서.}

10203 #1 게 이젠 여자보고도 오줌 므렵건 갇땅 오랜 허난 여잔 수주버서 위위 원 바린 체도 안 허고.{그래 이제는 여자보고도 오줌 마렵거든 갔다 오라고 하니까 여자는 수줍어서 원 본 체도 안 하고.}

10203 #1 겐 주레가 끝나니까 백창훈 선생이.{그래서 주레가 끝나니까 백창훈 선생이.}

10203 @1 백?{백?}

10203 #1 백창훈.{백창훈.}

10203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203 #1 그 여고.{그 여고.}

10203 @1 \*\*\* 교장 선생님할 때예?{\*\*\* 선생 교장 선생님할 때요?}

10203 #1 그분 날 막 애껴나서.{그분 나를 막 아꼈었어.}

10203 #1 나는 고봉마니 주레 사기를 원했는데 내가 추카 겐 주레를 사겔따고. 추카 겐.{나는 고봉만이 주레 서기를 원했는데 내가 축하 겐 주레를 서겠다고. 축하 겐.}

10203 #1 게연 이젠 주레서게 딱 등단해 가지고 추카허는 애기 해여노코 거기서 주레사 허고 (웃음) 막 케여 부런.{그래서 이제는 주레석에 딱 등단해 가지고 축하하는 애기 해놓고 거기서 주레사 하고 (웃음) 막 해 버렸어.}

10203 #1 게니까 더 막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허연 날리라.{그러니까 더 막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하면서 난리야.}

10203 #1 경헌 그날 그 사진들 찌근 거시 지베도 이제 몬 아이덜 뭐 이디저디 가져가 부런쭈마는.{그렇게 그날 그 사진들 찍은 것이 집에도 이제 몽땅 아이들 뭐 여기저기 가져가버렸지만.}

10203 #1 그 소낭, 큰 소낭마다 덩이멍 이거 면사포 쓰고 허영 텡이멍 몬딱 사진 찌거 노니까 거디 영화 촬영헌 것처럼 저, 게 이젠 그 사진 춤 잔칠 헐는데.{그 소나무, 큰 소나무마다 다니면서 이거 면사포 쓰고 해서 다니면서 몽땅 사진 찍어 놓으니까 거기 영화 촬영한 것처럼 저, 게 이제는 그 사진 참 잔치를 했는데.}

10203 #1 그 잔치, 그건 우리 지빈 묘헌 거주.{그 잔치, 그것은 우리 집에는 묘한 것이지.}

10203 #1 스무 날 잔치 헐썩.{스무 날 잔치 했지.}

10203 @1 스무 날 마네?{스무 날 만에.}

10203 #1 예, 아니. 아, 저 열이틀 마네.{예, 아니. 아, 저 열이틀만에.}

10203 @1 예.{예.}

10203 #1 말 ㄱ란 열이틀 마네 잔칠 헨.{말 해서 열이틀 만에 잔치를 했어.}

10203 #1 잔치를 헨꼬, 잔, 오늘 스무날 잔치하고 모래.{잔치를 했고, 잔, 오늘 스무날 잔치하고 모래.}

10203 @1 스무이틀랄.{스무이틀날.}

10203 #1 스무이틀나른 하르버지 제사고.{스무이틀날은 할아버지 제사고.}

10203 #1 스무사흘나른 지금 나 사는 집 산제. 집 지슬라고, 산제. 경 허연.{스무사흘날은 지금 나 사는 집 산제. 집 지으려고, 산제. 그렇게 했어.}

10203 #1 신부가 설 시가니 업꺼든.{신부가 설 시간이 없거든.}

10203 #1 설거지할 시간도 업써. 그니까.{설거지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10203 #1 어, 우리 지벤 나에 친구들, 뭐 방상덜토 멀리 일꼬 허니까.{어, 우리 집에는 나의 친구들, 뭐 친척들도 멀리 있고 하니까.}

10203 #1 신부 친구도 업꼬 허니깐 신부냥으로 문딱 설거지 다 허꼭 다 해서. {신부 친구도 없고 하니까 신부대로 몽땅 설거지 다 하고 다 했어.}

10203 @1 예.{예.}

10203 #1 케난 그 돌궤기 술마난 가마솔또 비러올 때도 그 지반네 비러오고 식 께 전날.{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삶았던 가마솔도 빌려올 때도 그 집안에 빌려오고 제사 전날.}

10203 #1 가져갈 때 겐또 사밀 마네 가져간. 무시거 떡 바녕 무시거 난 가정가 니까.{가져갈 때 그것도 삼일 만에 가져갔어. 무슨 것 떡 반기랑 무슨 것 놓아서 가져가니까.}

10203 #1 술 가져와쭈다 허난.{술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10203 #1 으올로 으 모통이 으나른 발짜글 도라가십씨오.{요 요리로 요 모통이 으나른 발자국을 돌아가십시오.}

10203 #1 저 그디 가멩이가 하나 ㄱ라전 이신디 그디 그 그믐 때로 반뜩커게 놔 뒹 가십씨.{저 거기 가마니가 하나 깔아져서 있는데 거기 그 금 대로 반듯하게 놔 두고 가십시오.}

10203 #1 예. 아랍썸니다.{예. 알았습니다.}

10203 @1 건 누가 허는 마리라마썸?{그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10203 @1 장인 어른?{장인 어른?}

10203 #1 아니 아니, 그 가멩이 주인. 저 가마솔 주인.{아니 아니, 그 가마니 주인. 저 가마솔 주인.}

10203 @1 네.{네.}

10203 @1 음음.{음.}

10203 #1 강정통.{강정통.}

10203 @1 아, 통정 선생?{아, 통정 선생?}

10203 #1 그 선생이 방에서 누웠. 그 아버지 본바단 그 하르방이 경현 하르방이 주.{그 선생이 방에서 누워서. 그 아버지 본받아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할아버지 지지.}

10203 #1 게, 이젠 그, 그게 겨론허니까 여기 저기서 고운 새각씨 드라가젠.{그래, 이제는 그, 그것이 결혼하니까 여기 저기서 고운 새색시 데려가려고.}

10203 #1 고, 그 당시에 저, 도의원 그 황 의원 대게서도 막 중매 오꼭 또 어디서 오꼭, 뭘 쏜데 완 나 알주게.{고, 그 당시에 저, 도의원 그 황 의원 댁에서도 막 중매 오고 또 어디서 오고, 몇 군데 와서 나 알지.}

10203 #1 근데 내가 직접 드러간 담판 그 승낙또 허멍 말멍 헌데 겨우 거 생년월일 그 누게 비런 건만 아라단 그 태길.{그런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담판 그 승낙도 하면서 말면서 했는데 겨우 거 생년월일 그 누구 빌려서 그것만 알아다가 그 택일.}

10203 #1 태길끼를 가정간 이걸.{택일기를 가져가서 이것을.}

10203 @1 궁합, 으음.{궁합, 으음.}

10203 #1 아니, 이날 겨론 아녀며는 불행해지고 이날 겨론허믄 다 행보케진다고 허는디 이, 딸 누이 불행허는 걸 기다립니까 마려. 행복할 걸 기다립니까 헤연 허니까 거기서 말리 매켜분 거여.{아니, 이날 결혼 않으면 불행해지고 이날 결혼하면 다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이, 딸 누이 불행하는 것을 기다립니까 말이야. 행복할 것을 기다립니까 해서 하나까 거기서 말이 막혀버린 거야.}

10203 #1 그 그냥 엉터리 겨론헐쥬.{그 그냥 엉터리 결혼했지.}

10204 @1 그러믄네, 그 날짜 낭 여리틀마니니깐 그래도 겨론 예무른 준비헐, 헐 쓸 꺼 아니짱?{그러면요, 그 날짜 나서 열이틀만이니깐 그래도 결혼 예물은 준비헐, 했을 것 아닙니까?}

10204 #1 예물로는 뭐.{예물로는 뭐.}

10204 @1 이사장니믄 뭘 준비헐때강?{이사장님은 무엇을 준비합디가?}

10204 #1 준비헐 거 지베서 뉘야지 혼 머리 자븐 거 허고.{준비한 것 집에서 돼지 한 마리 잡은 것 하고.}

10204 @1 네.{네.}

10204 #1 그냥 난 저 옛날 군대에서 이버난 올.{그냥 난 저 옛날 군대에서 입었던 옷.}

10204 @1 네.{네.}

10204 #1 게도 영국제라. 그 저, 저 기지가.{그래도 영국제야. 그 저, 저 천이.}

10204 #1 그 지비서 준비헐 거 업쥬. 그냥.{그 집에서 준비한 것 없지. 그냥.}

10204 @1 그러믄 신부 쪼게서는?{그러면 신부 쪽에서는?}

10204 #1 신부 치비서도.{신부 집에서도.}

10204 @1 이불? 요?{이불? 요?}

10204 #1 게, 나가 신부가 막 목 쉬어네 텡기길레 사름 이를 근심 걱정허지 말라고. 이불 혼 채, 요 혼 채.{그래, 내가 신부가 막 목 쉬어서 다니기에 사람 일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불 한 채, 요 한 채.}

10204 @1 네.{예.}

10204 #1 딱 그거믄 조은데, 가능허믄 요가 두리믄 조코 이불도 두 채믄 조코, 그 웨엔 걱정허지 마시라고 허니까.{딱 그것이면 좋은데, 가능하면 요가 둘이면 좋고 이불도 두 채면 좋고, 그 외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10204 #1 게니까 그 뭇, 저 저 켜, 켜. 켜는 혼 바리 가져완.{그러니까 그 말, 저 저 켜, 켜. 켜는 한 바리 가져와서.}

10204 @1 게난 혼 바리믄 두 개 아니라예?{그러니까 한 바리면 두 개 아니에요?}

10204 #1 예.{예.}

10204 @1 예.{예.}

10204 @1 게난 이불하고 요하고 뭇 거기에 따르는 뭇, 벼게라든가 그런 건 가져완?{그러니까 이불하고 요하고 뭇 거기에 따르는 뭇 벼게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왔어?}

10204 #1 물론 벼게, 벼게 다 낚꼰찌.{물론 벼게, 벼게 다 낚꼰찌.}

10204 @1 뭇 방식가튼 건뜰?{뭇 방식같은 것들?}

10204 #1 방식허고.{방식하고.}

10204 @1 예{예.}

10205 @1 그러면 그 거론할 당시에 이사장님 부모니미 다 계신 거 아니우짱예?{그러면 그 결혼할 당시에 이사장님 부모님이 다 계신 것 아닙니까요?}

10205 #1 양친 부모 다 모션.{양친 부모 다 모셔서.}

10205 @1 혹시 하르버지, 할머니도 계셴쑤광?{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셴습니까?}

10205 #1 아이, 우리 하르버지, 할머니 업꼬.{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고.}

10205 @1 예. 그리고 난 다음, 이사장님 제일 막둥이니깐.{예. 그리고 난 다음, 이사장님 제일 막둥이니깐.}

10205 #1 막둥이.{막둥이.}

10205 @1 뭇, 그 웨는 다 시집, 장가가는 거 아니우짱예? 이남 이녀 중에서는.{뭇, 그 외에는 다 시집 장가가는 것 아닙니까? 이남 이녀 중에서는.}

10205 #1 그초. 이제 뭇.{그렇쥬. 이제 뭇.}

10205 @1 이남 이녀는네?{이남 이녀는요?}

10205 #1 아, 게난 문뜩 일본덜 이서부니까 난 이기 나만 혼자 이신 거니까 원 그 가까운 인족, 저 친, 제일 가까운 사르미 사촌 혼 부니 계셴는데 그 부는 멀리 사라버리고.{아, 그러니까 몽땅 일본들 있어버리니까 난 여기 나만 혼자 있는 것이

니까 원 그 가까운 인척, 저 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촌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멀리 살아버리고.}

10205 #1 게 사촌 아지망 이서봐야 건 저, 우리하곤 여녕 차이도 일꼬 그딘 너무 잘 살곡, 우린 못 쌀고 허니까 나는 거 비참한 생활 해서.{게 사촌 아주머니 있어봐야 그것은 저, 우리하고는 연령 차이고 있고 거기는 너무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고 하니까 나는 거 비참한 생활을 했어.}

10205 @1 그럼 이남 이녀 다 일본 가게.{그럼 이남 이녀 다 일본 가게.}

10205 #1 다, 다 가부니까 나 혼차 이제 이 막 춤 아주 혼차 사람꼬.{다, 다 가버리니까 나 혼자 이제 이 막 참 아주 혼자 살았고.}

10205 #1 그 겨우 가네 지금 이 저, 겨론허는 애긴 그런데. 그 영평 하동 내려와서 그건 지금 여기서 화북 내려와서 현 애기는 하나도 안, 아넨는데 지금.{그 겨우 가서 지금 이 저, 결혼하는 애기는 그런데. 그 영평 하동 내려와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화북 내려와서 한 애기는 하나도 안, 안 했는데.}

10205 @1 예, 건 쫘 이따가 다시 해보카?{예, 그것은 쫘 이따가 다시 해볼까?}

10206 @1 그 다음 지금 사라 계신 부는 형님 한 분하고?{그 다음 지금 살아 계신 분은 형님 한 분하고?}

10206 #1 일보네 이제 우리 중형 혼 분 사라일꼬.{일본에 이제 우리 중형 한 분 살아 있고.}

10206 @1 네.{네.}

10206 @1 누니문?{누님은?}

10206 #1 또 누이 하나 사라일꼬. 거뿐.{또 누이 하나 살아 있고. 그것뿐.}

10206 @1 예예.{예예.}

10206 #1 기침.

10206 @1 예, 졸쭈다.{예, 좋습니다.}

### 1.2.3. 전통 혼례식

10207 @1 그러믄네, 아까 겨로늘 헐끼 때무네 어떠케 보믄 건 전통 어, 겨론시기갠찌예? 구식예?{그러면요, 아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통 어, 결혼식이겠지요? 구식요?}

10207 #1 저년 아니지.{전혀 아니지.}

10207 @1 아니라마씨?{아니예요?}

10207 #1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10207 @1 네.{예.}

10207 #1 어, 그, 그.{어, 그, 그.}

10207 #1 그니까 엄는 사람 엄는 대로.{그러니까 없는 사람 없는 대로.}

10207 @1 네.{네.}

10207 #1 사라야 돼잖아 허는 생각뿐이니까. 남 본바들 쭈도 업꼬, 오, 남 따라가지도 못터고.{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이니까. 남 본받을 수도 없고, 오, 남 따라가지도 못하고.}

10207 #1 그러니까 중앙예식장비가 혼 번 겨론허므는 스만 오쳐 뉘는데 딱 그 스만 오쳐 뉘니 도니 아까우니까 삼성혈에 가서 어떠케 허느냐 하믄 초 혼 봉 사가지고 가서 올려서 그 그걸로 불 키고 오배 권 올렸썬요. 오배 권.{그러니까 중앙예식장비가 한 번 결혼하면 사만 오천 원인데 딱 그 사만 오천 원이 돈이 아까우니까 삼성혈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 한 봉 사가지고 가서 올려서 그 그것으로 불 켜고 오백 원 올렸어요. 오백 원.}

10207 #1 오배 권 올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양남전 씨라고 허는 부니 그 삼성혈 총 채김잔데 오쳐 뉘 봉투에 다만.{오백 원 올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양남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삼성혈 총 책임자인데 오천 원 봉투에 담아서.}

10207 @1 부주해연?{부조해서?}

10207 #1 부주허러 완썬. 지배.{부조하러 왔어. 집에.}

10207 #1 난 오배 권바께 몰 돌런는데.{난 오백 원밖에 못 올렸는데.}

10207 #1 그니깐 그 춤 피눈무리 나는.{그러니까 그 참 피눈물이 나는.}

10207 @1 아니. 게니깐 결구근 그 오배 권 올렸썬만 나중에 거 고량부 삼성재단 이사장을 허명 다 보충을 해노은 거 아니우파? 별충을?{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백 원 올렸지만 나중에 거 고량부 삼성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다 보충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별충을?}

10207 #1 빔 갑.{빔 갇.}

10207 @1 (웃음)

10207 #1 빔 가판, 갑판전 해.{빔 가꿔, 가꿔다고 해.}

10207 @1 예. 경 생가커신 거 아니?{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

10207 #1 예.{예.}

10207 @1 마음 떠난.{마음 편한.}

10207 #1 건 모르고.{그것은 모르고.}

10207 @1 예.{예.}

10207 @1 그러믄네, 이사장님 알고 인는 전통 겨론\*. 이사장님미 겨로년 거시 아니고. #1 겨론? @1 예.{그러면요, 이사장님 알고 있는 전통 결혼\* 이사장님이 결혼한 것이 아니고. #1 결혼? @1 예.}

10207 @1 옛날 겨론시글 어떠케 헐는지예, 한번 어.{옛날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요, 한번 어.}

10207 #1 그 어땡.{그 어떻게.}

10207 @1 어떤 절차로 준비를 하는고예?{어떤 절차로 준비를 하는가요?}

10207 #1 그 겨론시글 옛날 전통을 그냥 그대로 할라고 허며는.{그 결혼식을 옛날 전통을 그냥 그다로 하려고 하면.}

10207 @1 예.{예.}

10207 #1 첩제는 가문.{첫째는 가문.}

10207 @1 네.{네.}

10207 #1 가문을 그 지퍼고 그 지퍼고 그 겹, 사돈할 만허냐 아녀냐 허는 거슨 누가 판단허는고 허니 중매허는 어르니.{가문을 그 집하고 그 집하고 그 겹, 사돈할 만허냐 안 하나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하니 중매하는 어른이.}

10207 #1 요즈른 뭐 이 육찌에는 여자들토 허지만 절때 남자가 꼭 남자가 중매를 허는데.{요즘은 뭐 이 육지에는 여자들도 하지만 절대 남자가 꼭 남자가 중매를 하는데.}

10207 #1 중매허는 어르는 그 가장 그, 그 스리에서 모범된 어른.{중매하는 어른은 그 가장 그, 그 사방에서 모범된 어른.}

10207 #1 무신 채김넌 어른.{무슨 책임된 어른.}

10207 #1 임서넌 어른. 이런 어른 마를 드르니까 그 어르니 난 누게넌 지빔 딸 신디 장가들젠 허는디 또는 누구넌 딸 우리 메누리로 드라오젠 허는디 영 보아 줍싸? 허며는 아이 웬다.{임서된 어른. 이런 어른 말을 들으니까 그 어른이 난 누구네 집에 딸한테 장가들려고 하믄데 또는 누구네 딸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아 주십시오? 하면 아니 된다.}

10207 #1 그 지퍼고 너네 지븐 차이가 영 인는, 아이 웬다. 어상반해사.{그 집하고 너의 집은 차이가 이렇게 있는, 아니 된다. 어상반해야.}

10207 @1 네.{네.}

10207 #1 웬다.{된다.}

10207 #1 통, 통 노픈 딘 겨론허지 말라.{통, 통 높은 데는 결혼하지 마라.}

10207 #1 혼스엔 현 건.{혼사라고 한 것은.}

10207 #1 늑찌도 아녀곡 야트지도 아녀곡 툭 찌른 몰 쓴다, 이거. 혼슨.{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툭 있으면 못 쓴다, 이거. 혼사는.}

10207 #1 그니까 혼스를 헐 만헌 지븐 내 ㄱ르쳐주마, 허는 거.{그러니까 혼사를 할 만한 집은 내 가리켜주마, 하는 것.}

10207 #1 그래서 이제 멀고 가깝고 가네.{그래서 이제 멀고 가깝고 간에.}

10207 #1 게 그런 혼, 저 중매할 만헌 어른 아페 가서 으노늘 허며는 갑자을축 꼭 지퍼가지고 궁하비 뉘세, 뉘슨 궁하비 만나 아이 만나 허는 거 몬쳐 아라가지고.{게 그런 혼, 저 중매할 만한 어른 앞에 가서 의논을 하면 갑자을축 꼭 짚어가지고 궁합이 뵈에, 뵈은 궁합니 맞나 아니 맞나 하는 것 먼저 알아가지고.}

10207 #1 거 멘 쌀, 멘 쌀짜리 실랑은 멘 싸리니까 신부는 멘 싸린가 요런 거슬 딱 염두에 뒤서 이운 마으리든지 가튼 그 볼리든 마으리든지 텅기면서 어 사람 고남 머거. 고남.{거 몇 살, 몇 살짜리 실랑은 몇 살이니까 신부는 몇 살인가 요런 것을 딱 염두에 뒤서 이웃 마을이라든지 같은 본리든 마을이든지 다니면서 어 사람 꿔음 먹어. 꿔음.}

10207 @1 고남예?{쫄음요?}

10207 #1 계난게 고남해서 행실도 얌전허곡, 누게 허벅 정 가명 어.{그러니까 쫄음해서 행실도 얌전하고 누구 물동이 저서 가면서 어.}

10207 @1 질 갈르지 아너고.{길 가로타지 않고.}

10207 #1 어, 질도 갈르지 아넹 조심허곡 허는 거시게, 그 교양미를 보는 거거든.{어, 길도 가로타지 안 해서 조심하고 하는 것이, 그 교양미를 보는 것이거든.}

10207 #1 다 그런 거 저런 거 봐서 그 집 딱리 멘 썩린지 그 아라보고 헌 다음에 그 실랑 썩비 와서.{다 그런 것 저런 것 봐서 그 집 딸이 몇 살인지 그 알아보고 한 다음에 그 신랑집에 와서.}

10207 #1 어디 가난 누구네 지비 영현 이만 이만헌 딱리 일꼬, 어느 므으레 가니까 얌는, 꼭 그디 스초는 이런 사르미 이서라.{어디 가니까 누구네 집에 이렇게 이만 이만한 딸이 있고, 어느 마을에 가니까 없는, 고 거기 사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

10207 #1 그 중에 어느 게 느네 마으메 드는고 허니 궁합 맞게는 요게 제일 만는데, 그 지벤 그 아방이 술푸데라부난, 그 지벤 아방이 노름쟁이라부난, 그 지벤 어명이 누구네 지비 딱리여도 어딘 딸 연난 거여.{그 중에 어느 게 너의 마음에 드는가 하니 궁합 맞게는 게 제일 맞는데, 그 집에는 그 아버지가 술고래니까, 그 집에는 아버지가 노름쟁이니까, 그 집에는 어머니가 누구네 집에 딸이어도 어디 딸 재혼한 것이다.}

10207 #1 그러니까 그 중매헌 어르니 이런 것까지를 전부 알려주며는 아이고고, 그: 메누리허쿠다.{그러니까 그 중매한 어른이 이런 것까지를 전부 알려주면 아이고고, 그 며느리하겠습시다.}

10207 #1 그만 어떻 우리 지베 오게 해줍써, 청들며는.{그것만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해주십시오, 청드리면.}

10207 #1 그 중매허는 어르니 가서 그 입담허기에 달려 인는 거.{그 중매하는 어른이 가서 그 입담허기에 달려 있는 거.}

10207 #1 잘 말허며는 어디 약쭈나 아네부러시몬 허그블 허곡, 허그블 바당 오고.{잘 말하면 어디 약조나 안 해버렸으면 허급을 하고, 허급을 받아서 오고.}

10207 #1 어디 약, 오, 오라 저 느네 딸 우리영 사돈허게, 우리 아덜 저 느네 지비 보네컨 사위 사드라.{어디 약, 와, 와라 저 너의 딸 우리랑 사돈하자, 우리 아들 저 너의 집에 보내거든 사위 삼아라.}

10207 #1 검질 바테 수누렁 매명덜 이런 얘기 우시게 해나몬 그건또 다미 돼가지고, 게 이비 담 된다는 거여.{김 밭에 품앗이 매면서들 이런 얘기 우스개 해나몬 그것도 담이 되어가지고, 그래 입이 담 된다는 것이야.}

10207 #1 그래서 그런 건 나 아네나시난 내 아라보켄 크쿨해사 경 해야 누게 누게 영 허몬 조으켜.{그래서 그런 것은 나 안 했었으니까 내 알아보겠다고 깨끗해야 그렇게 해야 누구 누구 이렇게 하면 좋겠다.}



10207 #1 겨른 그 마으레 지도자끔 댜 어르니 말 한 마디며는 칠팔씩 프로는 이미 어느 정도 매저지뻔.{그러면 그 마을에 지도자끔 댜 어른이 말 한 마디면 칠팔씩 프로는 이미 어느 정도 댜어져.}

10207 #1 그래서 마주막근 이제 그 누게 누구가 이제 태길끼 가정 가젠 허믄.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누구 누구가 이제 택일기 가져서 가려고 하면.}

10207 #1 저건또 음 보통은 뭘, 뭘 좀 요즈믄 생원허믄 생원허며는 흥 보거든. 생원이 뭘냐고. 학생허믄는.{저것도 음 보통은 뭘, 뭘 좀 요즘은 생원하면 생원하면 흥 보거든. 생원이 뭘냐고. 학생하면.}

10207 #1 생원은 그 어딘 관가에 지귀가 정해지지 아니헌 사لامي 생원이거든. {생원은 그 어디 관가에 직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이 생원이거든.}

10207 #1 거 생위니 나쁜 건또 아니고 그게 야튼 건또 아닌데 거 그러믄 흥을 본단 마려.{거 생원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낮은 것도 아닌데 거 그러면 흥을 본단 말야.}

10207 #1 그러니까 그 이젠 첼편지가 일꼬.{그러니까 그 이제 첫편지가 있고.}

10207 @1 막편지?{막편지?}

10207 #1 막편지가 인는데.{막편지가 있는데.}

10207 #1 첼편지에는 반드시 그 어느 어느 지반 혈통입니다 허는, 그니까 예장문 쓸 때 몸 신벼네 쓸 때가 일꼬, 뻔 골 벼네 쓸 때가 일꼭.{첫편지에는 반드시 그 어느 어느 집안 혈통입니다 하는, 그러니까 예장문 쓸 때 몸 신 벼네 쓸 때가 있고, 뻔 골 벼네 쓸 때가 있고.}

10207 #1 딱 그, 게 처으믄 뻔 골 벼네 쓰고 그건 다시 편지 가도 거절 아념직 커믄 이젠 몸 신 벼네 써서 나는 누, 아무게 아드릅니다 해서 셋째아드릅니다 이러케 딱 써서 가야.{딱 그, 게 처음에는 뻔 골 벼네 쓰고 그것은 다시 편지 가도 거절 안 할 것 같으면 이젠 몸 신 벼네 써서 나는 누, 아무게 아들입니다 해서 셋째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써서 가야.}

10207 #1 그 편지도 그 예장문 보며 그 지바늘 평가해부니까 그러케 매우 조심스럽게 겨론헸따 이런 얘기쥬.{그 편지도 그 예장문 보며 그 집을 평가해버리니까 그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결혼헸다 이런 얘기쥬.}

10207 #1 그니까 그러헌 거슨 그냥 예장무니믄 예장무늘 박박 썩 강 누구, 누구 집 아덜 뭘 댜 때 손, 이러케 천마네 말썬.{그러니까 그러헌 것은 그냥 예장문이면 예장문을 박박 써서 가서 누구, 누구 집 아들 뭘 댜 대 손, 이렇게 천만의 말썬.}

10207 @1 그러면 일뵤 날짜가 자피면 겨론시글 올릴 께 아니우짱예?{그러면 일뵤 날짜가 잡히면 결혼식을 올릴 것 아닙니까?}

10207 #1 그러쥬, 예.{그렇쥬, 예.}

10207 @1 그러면 지금처럼 주레가 집네가 이써서 다 겨론시글 치러신가마썰? {그러면 지금처럼 주레가 집레가 있어서 다 결혼식을 치렀는가요?}

10207 @1 또 어떠튼 예를 들면, 어 날짜가 자피면.{또 어떠하든 예를 들면, 어

날짜가 잡히면.}

10207 #1 예.{예.}

10207 @1 실랑이 신부치베 강 신부를 데령 와야 땔 꺼 아니우짱예? 그러믄 뉘 우시도 갈 꺼시고, 그 다으메 또 신부치베 가면 대반도 이서서 대반도.{신랑이 신붓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서 와야 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뉘 위요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붓집에 가면 대반도 있어서 대반도.}

10207 #1 게니까 그.{그러니까 그.}

10207 @1 그니까 홍세함을 들고 일딴 신부치베 간 거라예?{그러니까 혼서함을 들고 일딴 신붓집에 간 거지요?}

10207 #1 홍세하믄 우리 제주도시근 저, 육찌허고 다르거든요.{혼서함은 우리 제주도식은 저 육지하고 다르거든요.}

10207 #1 엔나른 그 사리허는 집, 잘 싸는 집, 잘 싸는 지븐 홍세하믄 누가 지어가는고 허니 여자 하니미 저서 몰 타곡 그 홍세하믄 지영 가는 거라.{옛날은 그 살이하는 집,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은 혼서함을 누가 지어가는가 하니 여자 하님이 저서 말 타고 그 혼서함을 지어서 가는 거야.}

10207 #1 그 여자 하이니엔 현 건 그 마으레 일 보는 사름드리 하이니, 하인.{그 여자 하인이라고 한 것은 그 마을에 일 보는 사람들이 하인이, 하인.}

10207 #1 게난 그 하이니라고 허는 사름드른 어, 영장 나믄 어디 영장 나쭈다 허영.{그러니까 그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장사 나면 어디 장사 났습니다 해서.}

10207 @1 동네 알리곡?{동네 알리고?}

10207 #1 알리곡.{알리고.}

10207 #1 또 누게 오늘 모이믄 모ئم쭈다 허영 이제 횡 행 텅기고, 그, 그 동네 텅기믄 횡 행 횡 큰소리를 울리믄 이거 무신 소린고 드르믄 오늘 이젠 도가치베서 사람 모인다 이거여.{또 누구 오늘 모이면 모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횡 해서 다니고, 그, 그 동네 다니면서 횡 행 해서 큰소리를 울리면 이거 무슨 소리인가 들으면 오늘 이젠 도갓집에서 사람 모인다 이거야.}

10207 #1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고 하인이거든.{그래서 그런 사람들보고 하인이거든.}

10207 #1 게니까 장가갈 때 구중 제핀다 현 마른 실랑도 몰 타곡 우시 가는 사름덜토 몰 타곡 또 하남도 몰 타곡. 그러케 갇춘 사람들보고는 구중 제핀 지바니다 이거여.{그러니까 장가갈 때 구중 잡힌다 한 말은 신랑도 말 타고 위요 가는 사람들토 말 타고 또 하남도 말 타고. 그렇게 갇춘 사람들보고는 구중 잡힌 집안이다 이거야.}

10207 #1 차례가 다 갇춰저서. 그, 그러헌 지바는 상대방이 비낙, 비냐커믄 아이 뉘거든.{차례가 다 갇춰저서. 그, 그러헌 집안은 상대방이 빈약, 빈약하면 아니 되거든.}

10207 #1 그니깐 재산도 비슬비슬터고, 사람치기도 비슬비슬.{그러니까는 재산도 비슬비슬하고, 사람치기도 비슬비슬.}

10207 #1 근데 가는데 그 흥세함도 무끄는 차례, 그 쏘게 함 쏘게는 뭘 낳 가느냐.{그런데 가는데 그 혼서함도 묶는 차례, 그 속에 함 속에는 무엇을 넣어서 가느냐.}

10207 #1 제 그, 우리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으, 가난하게덜 사니까 광목 혼 필, 또 어떤 데는 미녕 혼 필 게영 낳 그 함 쏘게 낳.{제 그, 우리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으, 가난하게들 사니까 광목 한 필, 또 어떤 데는 무명 한 필 그렇게 넣어서 그 함 속에 넣어서.}

10207 #1 그 하물 무끄는 차례도 꼭 상하 구분니 댜요.{그 함을 묶는 차례도 꼭 상하 구분이 되어요.}

10207 #1 이 무경 이제 그건또 그 이제 상감뭇, ㄹ치는 거ㄹ치 잘 이쁘게 해서 버비거든.{이 묶어서 이제 그것도 그 이제 삼감뭇 맺는 것같이 잘 이쁘게 해서 법 이거든.}

10207 #1 상갑 드러서 이제 상가비엔 현 건 두 주리 싸으며는 기주니 업쓰니까 세시라야 기주니 생기는 거.{삼갑 드러서 이제 삼갑이라고 한 것은 두 줄이 쌓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셋이라야 기준이 생기는 거.}

10207 #1 상갑 드러서 그걸 무끄고.{삼갑 드러서 그것을 묶고.}

10207 #1 그리고 흥포 무끄는 시그로 그, 그 위에 저 봉허는 거슨 상하를 받드시 올 상짜 아래 하짜 바로 써서 상하 구분도 허고.{그리고 흥포 묶는 식으로 그, 그 위에 저 봉하는 것은 상하를 받드시 위 상자 아래 하자 써서 상하 구분도 하고.}

10207 #1 이거슬 들고 땡이는 건또 이런 가스메 영 부치지도 말라, 그 딱 이러케 정중하게 모시라고.{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런 가슴에 이렇게 붙이지도 마라, 그 딱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라고.}

10207 #1 이러케 해영 그, 어떤 지베 가든 그 지든 집 올레가 일꺼든, 지든 집 올레. 지든 집 올레. 올레가 긴 집.{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집에 가면 그 기든 집 골목이 있거든, 기든 집 골목. 기든 집 골목. 골목이 긴 집.}

10207 @1 음.{음.}

10207 #1 부간, 부잔짹.{부가, 부잔집.}

10207 #1 예, 지든 집 올레에는 멀리 거러서 이디서 본 저, 저 멀리 저, 저 봐진 저 집마니 현 거리도 일쪽, 더 긴 거리도 일쪽.{예, 기든 집 골목에는 멀리 걸어서 여기서 본 저, 저 멀리 저, 저 보인 저 집만이 한 거리도 있고, 더 긴 거리도 있고.}

10207 #1 그디서부터 느령, 거령 그 흥세 우시허곡 ㄹ치 간 거다 이 마리어.{거기서부터 내려서, 걸어서 그 혼서 위요하고 같이 간 것이다 이 말이야.}

10207 #1 겨든 그 멀리서 우시덜 탄 온 몰덜토 노미 올레 강 흙부로 내리며는 몰덜 똥 싸 불든 그날 몰똥도 치와 가야 댜니까.{그러면 그 멀리서 위요들 타서 온

말들도 남의 골목에 가서 함부로 내리면 말들 똥 싸버리면 그날 말똥도 치워 가야 되니까.}

10207 #1 어디 그 몰 땀 떠나 이신가. 계영 거 잘 사는 지분 몰덜토 다 땀 떠나 인는 거요.{어디 그 말 땀 데나 있는가. 그래서 거 잘 사는 집은 말들도 다 땀 데가 있는 거요.}

10207 #1 게 그 몰 시 우시 간 사لامي 탄 몰덜토 문밖 그레 바당 매주고.{그레 그 말 시 위요 간 사람이 탄 말들도 몽땅 그리로 받아서 매주고.}

10207 #1 하님, 그 홍세하를 지영 간 하님도 잘 대접 받는 거지, 그땐 여자 하 nimi 이 지영 강 대접 반쪽.{하님, 그 혼서함을 저서 간 하님도 잘 대접 받는 것이 지, 그때는 여자 하님이 이 저서 가서 대접 받고.}

10207 #1 그거슬 그 홍세하를 받는 데도 병풍을 이쪼글 향해서 치는 거시냐, 저 쪼글 향해서 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분성 모터는 사람드른.{그것을 그 혼서함을 받는 데도 병풍을 이쪽을 향해서 치는 것이냐, 저쪽을 향해서 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분석 못하는 사람들은.}

10207 @1 예?{예?}

10207 #1 이게 바껴시냐 저게 바껴시냐 이이이이 이걸 거꾸로 쳐시믄 탁 보고 어허:, 이 지분 사돈 하나마나 헛 지비여.{이것이 바깥이나 저것이 바깥이나 이이이 이 이것 가꾸로 쳤으면 탁 보고 어허, 이 집은 사돈 하나마다 한 집이다.}

10207 #1 믁음쫘그로 생강만 헛 거지. 우시 간 사름더리.{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지. 위요 간 사람들이.}

10207 #1 케니까 거, 가장 그 우시, 수석 우시가 그런 거 저런 거 평가를 헛단 마리여.{그러니까 거, 가장 그 위요, 수석 위요가 그런 것 저런 것 평가를 헛단 말 이야.}

10207 #1 글도 잘 못 써시믄 이딴, 필묵 딱 준비헿 간땅 아페서 글 자랑을 일부러 허는 거여.{글도 잘 못 썼으면 여기, 필묵 딱 준비해서 갔다가 앞에서 글 자랑을 일부러 하는 거야.}

10207 #1 하이 거, 글 짜 흥나 빼머거저시믄 그짜게서 홍세함 받는 사르미.{하 이 거 글 자 하나 빼먹었으면 그쪽에서 혼서함 받는 사람이.}

10207 @1 퇴문 물러예?{퇴문 물리지요?}

10207 #1 요, 요거는 요러케 해서 이, 강썸 강씨 지바니온데, 이게 츠레가 여, 해가믄 탁 이디서 아라머거서 아, 예, 진줍니다. 이.{요, 요것은 요렇게 해서 이, 강씨는 강씨 집안이온데, 이게 차레가 여, 해가면 탁 여기서 알아먹어서 아, 예, 진줍니다. 이.}

10207 #1 진주라고 헛 그, 그 갈 글씨 하나로 명필로 쓱 간따 줄겨노며는 그땐 그 우린 드른 마리지마는 불때를 이러케 조시미 들러서 허는 거슨 서툰바치더리고.{진주라고 한 그, 그 갈 글씨 하나로 명필로 쓱 갖다 갈겨놓으면 그때는 그 우리는 들은 말이지만 붓대를 이렇게 조심히 들어서 하는 것은 생둥이고.}

10207 #1 일부러 나를 니가 아느냐? 현 분꼭찌 잡, 자방 씹 현 번 돌리므는 그만 이걸 탁 부터서 이거 놀라가. 이게 재주를 부리는 거여.{일부러 나를 네가 아느냐? 하는 붓꼭지 잡, 잡아서 씹 한 번 돌리면 그만 이것 탁 붙어서 이거 나아가. 이게 재주를 부리는 거야.}

10207 #1 글짜 싹 쓰멍 탁, 갑당 바로 탁 지민 이짜게서 봐서 꿈짜글 모테. 아, 참, 이거 사돈혈 만난 지바니여. 우리, 우리 집보단 노픈 디여 노픈 디라.{글자 싹 쓰면서 탁 가져다가 바로 탁 지우면 이쪽에서 봐서 꿈짜글 못해. 아, 참, 이거 사돈할 만한 집안이야. 우리, 우리 집보다는 높은 데야 높은 데야.}

10207 #1 게 글짜 하나를 그, 그러케 그 예술쟁. 어, 그러케 해서 글로. 글짜 하나로 제아블 허는 거여.{그래서 글자 하나를 그, 그렇게 그 예술상 어, 그렇게 해서 글로. 글자 하나로 제압을 하는 거야.}

10207 #1 흥볼 나우가 업따. 경 이제덜 무신 거엔덜 곧찌 말라이. 속썹허라. 잘 헤영덜 돌려 보내라. 모성 보내라게.{흥볼 나위가 없다. 그렇게 이제들 무슨 것이라고들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잘 해서들 돌려 보내라. 모셔서 보내라.}

10207 #1 이러케 그니까, 그 그나레 그 잔치 머그레 온 사람, 간 사람, 우시 간 사람들 쏘게는 그 주제 너머진 건떠리 그냥 주, 주전버리나 혈 허는 건떠리 조차 덩겇 시몬 건 그 지벤 원 잔치 날짜는 돌아오랴꾸마는 거 보나마나 아이고, 저건뜰 살려봐야 돼켜. 평갈 해부는 거여.{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날에 그 잔치 먹으러 온 사람, 간 사람, 위요 간 사람들 속에는 그 주제 넘은 것들이 그냥 주, 주전부리나 할 하는 것들이 쫓아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그 집에는 원 잔치 날짜는 돌아왔지만 거 보나마나 아이고, 저것들 살려봐야 되겠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10207 #1 그니까 정해서 온 사람, 갈 사람 그니깐 누게 누게 일꼭.{그러니까 정해서 온 사람, 갈 사람 그러니깐 누구 구누 있고.}

10207 @1 예.{예.}

10207 #1 우시 가 주어, 가줘사 돼켜. 가 도라. 쟁 우리 집 뺑 가도, 가 주심.{위요 가 주어, 가 줘야 되겠다. 가 다오. 그래서 우리 집 봐서 가다, 가 주오.}

10207 #1 게니까 동네방네는 모두 알려져서 무슨 사도네 팔춘 웬 사름꺼지 게도 미련간찌 마라야 돼니까, 게 그래서 그 사람도 골라서 보내고 준비헌 거슨, 준비헌 거슨 타슨 아넌파고.{그러니까 동네방네는 모두 알려져서 무슨 사돈에 팔춘 된 사람까지 그래도 미련 갖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서 그 사람도 골라서 보내고 준비한 것은, 준비한 것은 탓은 안 했다고.}

10207 #1 에 그 지베 무신 도시 멘 머리 자바서라, 수리 멘 추니 머검쭈. 아, 이런 거슨 그거슨 알려야 된다고.{에 그 집에 무슨 돼지가 몇 마리 잡었더라, 술이 몇 준 먹고 있다. 아, 이런 것은 그것은 알려야 된다고.}

10207 #1 머그 꺼, 머글 꺼로 와서 그 사르를 평가는 허지 말라 이렌뎌.{먹을 거, 먹을 것으로 와서 그 사람을 평가는 하지 말라 이랬던.}

10207 @1 그 천날빠른 어떻헤신고예?{그 첫날밤은 어떡해는가요?}

10207 #1 신평도 은쪽, 은땅도 신다 그러케 허고.{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렇게 하고.}

10207 #1 케난 천날뺨 그 옛날 사름덜 우린 그 우리 선배들 헐편 얘길 드른 애긴데.{그러니까 첫날밤 그 옛날 사람들 우리는 그 우리 선배들 했던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10207 #1 천날뺨을 그 우리 부인드리 그 족두리, 게 이븐 오시예요. 혼또시 아니거든. 이븐 우이 또 입쪽, 그그그허곡.{첫날밤을 그 우리 부인들이 그 족두리, 그 래 입은 옷이예요. 홀옷이 아니거든. 입은 위에 또 입고, 그그그하고.}

10207 #1 족두리도 이걸 그 그냥 족두리 끄느로 영 맨 게 아니고, 머린 머리에 대로 ㄴ치 이제 그 뭘 끼우곡 일로절로 막 열거매 노으니까 실랑이 걸 배길 줄 모른다 이거라.{족두리도 이것을 그 그냥 족두리 끈으로 이렇게 맨 게 아니고, 머리는 머리대로 같이 이제 그 뭘 끼우고 이리로저리로 막 엮어매 놓으니까 실랑이 그것을 벗길 줄 모른다 이거야.}

10207 @1 음.{음.}

10207 #1 몰르니까 저고리 고름 클르곡 머리끈 몰 배끼니까 머리만 영 ㄴ마니 영 수정 이시믄.{모르니까 저고리 고름은 끄르고 머리끈 못 벗기니까 머리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숙여서 있으면.}

10207 #1 남자가 (웃음) 배길 쭈를 몰르니까 (웃음) 여자를 밀려부는 거라.{남자가 (웃음) 벗길 줄을 모르니까 (웃음) 여자를 밀어버리는 거야.}

10207 #1 밀려볼른 그 쪽두리가 혼 편디레 밀려난다는 거예요.{밀어버리면 그 족두리가 한 편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10207 @1 으으음.{으으음.}

10207 #1 경 허른 그게 쪽 등기믄 그냥 버서지믄 돼.{그렇게 하면 그것이 쪽 당기면 그냥 벗기면 돼.}

10207 #1 그건 늘근 실랑이 경 허는 거고.{그것은 늙은 실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10207 #1 그런 거 저런 거 분시 몰른 실랑은 우으루 등겨볼른 겨고 우로 술 소상 머리가 술 소상 겨른 건 거비 나곡 이건 그, 그 지바네 무신 이상한 도체비 귀시니나 만, 모시는 지바네 딱리다 생가글 해서 그날 천날뺨도 ㄴ치 몰 잔다는 거여. 배필 행위를 몰테여.{그런 것 저런 것 분수 모른 실랑은 위로 당겨버리면 그러고 위로 술 솟아서 머리가 술 솟아서 그러면 그것은 겁이 나고 이것은 그, 그 집안에 무슨 이상한 도깨비 귀신이나 만, 모시는 집안에 딸이다 생각을 해서 그날 첫날밤도 같이 못 잔다는 거야. 배필 행위를 못해.}

10207 #1 머리 소상, 남자가 혼감 나부는 거여.{머리 솟아서, 남자가 혼쫓 나버리는 거야.}

10207 #1 머리빠리 그 꺼시싱헤라 현 마른 거기서 나온 거.{털뿌리가 그 쭈뻗거리더라 하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거.}

10207 #1 게니까 그, 오착, 오찍커른 그 술각뿌를 싸 낱 이젠 불, 불 불근 디 보젠들 이딘 그 탐정, 탐정 드는 동네에 그 알구즌 청년드른 바미른 이제 술썩썩 누게가 갈 꺼냐, 내가 먼저 가켄 네가 먼저 가켄 강 쉰빠다그로 춤 무청.{그러니까 그, 오착, 오직하면 그 관술 켜 놓아서 이젠 불, 불 밝은 데 보려고들 여기는 그 탐정, 탐정 드는 동네에 그 알곳은 청년들은 밤이면 이제 살썩이 누가 갈 것이냐, 내가 먼저 가겠다고 네가 먼저 가겠다고 가서 헛바닥으로 침 물혀서.}

10207 @1 철밤물.{첫밤을.}

10207 #1 손 높, 창꼬를 터주는 사르미 일꼬 어떤 사르른 일부러 오주미나 무싱거 무청 강 창꼬망 영 터주앙 보는 사르미 일꼬, 건디 컴컴허니까 보이질 안는다 마리어.{손 높, 창구멍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오줌이나 무슨 것 물혀서 가서 창구멍 이렇게 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컴컴하니까 보이질 않는다 말이야.}

10207 #1 게니까 그걸 보는 사라른 혼두 사르미거든. 아페 무니 조브니까.{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거든. 앞에 문이 좁으니까.}

10207 #1 건디 뒤에 간 놈더른 보도 몰터곡, 속쌍하니까 아페 간 사람 자락 거리밀령 겨른 창, 바락 터정 이젠 허른 그 지베 불 일도 몰 뽀곡, 줌도 몰 짜곡 경해부니까.{그런데 뒤에 간 놈들은 보지도 못하고, 속쌍하니까 앞에 간 사람 자락 밀쳐서 그러면 창, 바락 터져서 이젠 하면 그 집에 불 일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10207 #1 족두리도 벌찌 모테영 나를 썩든, 썩 사르미 일꼬.{족두리도 벗지 못해서 날을 새운, 썩 사람이 있고.}

10207 #1 또 실랑이 줌 그 나이가 차곡 커머는 이제 그 여자도 푸메 푸멍 여자는 막 검머그니까. 경 걱쟁허지 말라, 나 이시난 걱쟁허지 말라 헤영 딱 푸를 푸멍 바를 썩 일도 일꼬.{또 실랑이 줌 그 나이가 차고 하면 이제 그 여자도 품에 품어서 여자는 막 겁먹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서 딱 품을 품어서 밤을 썩 일도 있고.}

10207 #1 그날 빠메 여자 오슬 다 뻥긴 사르른 업따 그래.{그날 밤에 여자 옷을 다 벗긴 사람은 없다고 그래.}

10207 @1 음.{음.}

10207 #1 오슬 머서서는 그 부부 행위를 모턴다고 그래. 모텐따고.{옷을 벗어서는 그 부부 행위를 못한다고 그래. 못했다고.}

10207 #1 웨 그러냐. 하도 그 장난들 심허니까 경 헤가른 어디 강 고바바야. 곱젠 허른 캄캄헌 바미 오슬 츠장 이블 썩가 업써.{왜 그러냐. 하도 그 장난들 심하니까 그렇게 헤가면 어디 가서 숨어봐야. 숨으려고 하면 캄캄한 밤에 옷을 찾아서 입을 수가 없어.}

10207 #1 게난 베리쌍.{그러니까 벌려서.}

10207 @1 음음.{음음.}

10207 #1 영 행 품만 베리쌍 홀 릴만 해나쁜 다시 어 더퍼부러서.(웃음){이렇게 해서 품만 벌려서 할 일만 해나면 다시 아 덮어버렸어. (웃음)}

10207 #1 게 그 우리 그 어른드리 이제 호는 애긴데 그 해난 얘기들인데.{그래 그 우리 그 어른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했던 얘기들인데.}

10207 #1 게난 그 제일 야다니 터지는 거슨 요강덜 뒤흔부러서 야, 야단, 그, 이 신부 오세 이걸찌거세 돌린 게 만커든.{그러니까 그 제일 야단이 터지는 것은 요강 들 뒤집어버려서 야, 야단, 그, 이 신부 옷에 이것저것에 달린 게 많거든.}

10207 #1 게니까 그거슬 방꾸서게 버성으네 그, 그 보니깐 그 요강판지를 낚, 오줌 비와냥 그 온 뚜티레 낚 놔둬.{그러니까 그것을 방구석에 벗어서 그, 그 보니 칸 그 요강단지를 낚, 오줌 비워놓아서 그 옷 위로 놔 두어.}

10207 #1 그만 무시거 동기젠 해당 이걸 소다, 소다노며는 그 오주를 사, 소다 놔사 이제 그 사랑이나 터져서 어, 그 부부간 싸움도 허곡 그 옛날 이 저, 실랑더른 고지시킨 실랑더른 그 서당에서 시킨 대로, 시킨 대로 꼭 그 행위를 하니까.{그만 무슨 것 당기려고 하다가 이것을 쏘아, 쏘아놓으면 그 오줌을 사, 쏘아놓아야 이제 그 사랑이나 터져서 어, 그 부부간 싸움도 하고 그 옛날 이 저, 신랑들은 고지식한 신랑들은 그 서당에서 시킨 대로, 시킨 대로 꼭 그 행위를 하니까.}

10207 #1 그날 쌍 저 바메 그 여자 모메 소늘 못 댄 사람들도 거, 그 스승이 딱 시켜서 너는 그른 그날 뺨 여자 모메 손 댄따가는 너 제 명을 못 @1 음. #1 지킨 다.{그날 싸서 저 밤에 그 여자 몸에 손을 못 댄 사람들도 거, 그 스승이 딱 시켜서 너는 그러면 그날 밤 여자 몸에 손 댄따가는 너 제 명을 못. @1 음. 지킨다.}

10207 #1 게니까 꼭 저 새벽 독 운 후에 어떠케 모메 소늘 대라 허는 그 시가늘 정해주는 거.{그러니까 꼭 새벽 닭 운 후에 어떻게 몸에 손을 대라 하는 그 시간을 정해주는 거.}

10207 #1 경허난 함빵허는 시가니 태길끼에도 나온다는 거죠.{그러니까 함방하는 시간이 택일기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10207 @2 으음.{으음.}

10207 #1 그니까 댄 씨에 꼭, 쯔시에 꼭 함빵허라.{그러니까 몇 시에 꼭 자시에 꼭 함방하라.}

10207 @1, #1 (웃음)

10207 #1 댄 씨에 허라. 게 그러케 시간까지 정해 줘서 철따덜 난다.{몇 시에 하라. 그래 그렇게 시간까지 정해 주어서 첫아들 낳는다.}

10207 #1 게난 여자 난다, 딸 난다고 허는 거슨 재주 엄는, 재수가 엄는 이리고.{그러니까 여자 낳는다, 딸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재주 없는, 재수가 없는 일이고.}

10207 #1 아들마늘 자소느로 여기니까 그러케 헐따고 이제 그 전헌 애긴인데. {아들만을 자손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 전하는 얘기인데.}

10208 @1 그러믄네, 겨론식할 때 전통 겨론식할 때 겨론 음식근 뭐, 뭐 준비허는 고예?{그러면요, 결혼식할 때 전통 결혼식할 때 결혼 음식은 뭐, 뭐 준비하는가요?}



10208 @1 일판 엔나레 보통 때는 보리밥 먹다가도 반지기밥? 쌀밥?{일단 옛날에 보통 때는 보리밥 먹다가도 반지기밥? 쌀밥?}

10208 #1 그.{그.}

10208 @1 밥부터 한번 ㄱ라줍써?{밥부터 한번 말해주십시오?}

10208 #1 게난 음식 준비하는데 그, 엔날 전통시그로 허믄 득근 만드시 일써야 돼. 득.{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그, 옛날 전통식으로 하면 닭은 만드시 있어야 돼. 닭.}

10208 @1 예.{예.}

10208 #1 그.{그.}

10208 @1 건 큰상, 큰상에 올라가는 거지예?{그것은 큰상, 큰상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10208 #1 예, 건 근데 그 올리 대신 득. 또 올리친심한다고 허는.{예, 그것은 그런데 그 오리 대신 닭. 또 올리친심한다고 하는.}

10208 #1 근데 지그믄 그 올리가 아니고 거 뭐, 뭐 이제사.{그런데 지금은 그 오리가 아니고 거 뭐, 뭐 이제야.}

10208 #1 그.{그.}

10208 @1 기러기.{기러기.}

10208 #1 기러기 아니고 저, 바다 위에 그 사이 조케 떠난.{기러기 아니고 저, 바다 위에 그 사이 좋게 떠난.}

10208 @1 워낭?{원앙?}

10208 #1 워낭, 워낭.{원앙, 원앙.}

10208 @1 예.{예.}

10208 #1 워낭인데, 월래 게 워낭금치미라고 해서 그, 베갯모메기에 그 워낭금치를 쓰는 건데, 그 이유는 워낭새를 자바다 올려야 될 거슬 워낭을 바다에 인쓰니깐 자바 오진 모탄다 이 마리어.{원앙인데, 원래 게 원앙금침이라고 해서 그 베갯모에 그 원앙금침을 쓰는 것인데, 그 이유는 원앙새를 잡아다 올려야 될 것을 원앙을 바다에 있으니까 잡아 오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10208 #1 자바오질 모터니까 워낭 그러서 올리고.{잡아오지를 못하니까 원앙 그러서 올리고.}

10208 #1 워낭을 모터니까 올릴 그 워낭 대신 올리친시를 헌다는 거여.{원앙을 못하니까 오리를 그 원앙 대신 올리친심을 한다는 거야.}

10208 #1 친심하는 그걸로 인제 대신한다는 뜨시죠?{친심하는 그것으로 이제 대신한다는 뜻이죠?}

10208 #1 그러케 해서 만드시 이젠 득 그 워낭 이게 올리는 건데 워낭을 모터니까 못 짜바오니까 이제 그 올리로 대신한다, 올리도 안 돼니까 득글.{그렇게 해서 만드시 이것은 닭 그 원앙 이게 올리는 것인데 원앙을 못하니까 못 잡아오니까 이제 그 오리로 대신한다, 오리도 안 되니까 닭을.}

10208 #1 그 대체허는 아마 으 그런 거 잡꼬.{그 대체하는 아마 으 그런 것 같고.}

10208 #1 그 웨에는.{그 외에는.}

10208 @1 돼지 잡꼬?{돼지 잡고?}

10208 #1 도새기 잡는 거슨 뭐 크닐 때니까, 절, 결짱저그로 도새길 잡꼬.{돼지 잡는 것은 뭐 큰일 때니까, 절, 결정적으로 돼지를 잡고.}

10208 #1 바쁜 흰밥 절때 아니 올려.{밥은 흰밥 절대 아니 올려.}

10208 #1 꼭 보리쌀레 흰쌀레 팔 서꺼야.{꼭 보리쌀에 흰쌀에 팔 섞어야.}

10208 @1 팔?{팔?}

10208 #1 팔.{팔.}

10208 #1 그 폭슨 그 잔치 때에 잡싰 범하지 말라고. 예방으로써 폭슬 꼭 팔뺨 통보리바블 해도 팔뺨.{그 팔은 그 잔치 때에 잡싰 범하지 말라고. 예방으로써 팔을 꼭 팔뺨 통보리바블 해도 팔뺨.}

10208 #1 폭슨 그 잡싰 범하지 말라고 예방으로 해서 그 꼭 그 폭슬, 불근 팔. 건또 불근 팔 반드시 쓰고.{팔은 그 잡싰 범하지 말라고 예방으로 해서 그 꼭 그 팔을, 붉은 칸. 그것도 붉은 팔 반드시 쓰고.}

10208 #1 어, 웨야, 도새기는 요즈른 일련도 아니 뵈 도새기덜 자바 먹찌마는 엔나른.{어, 돼, 돼지는 요즘은 일련도 아니 뵈 돼지들 잡아 먹지만 옛날은.}

10208 @1 혼 칭?{한 칭?}

10208 #1 아이, 혼 칭이 아니고 예, 부모 조상 이리에머는 삼년 무친 도슬 키움 일르고, 우친, 우친.{아니, 한 칭이 아니고 예, 부모 조상 일이면 삼년 묵힌 돼지를 키움 이르고. 위친, 위친.}

10208 #1 아버지 상을 만나서 그 대상 도라오른 다 지낼러른 삼년 걸리거든.{아버지 상을 만나서 그 대상 돌아오면 다 지내려면 삼년 걸리거든.}

10208 #1 게난 삼년 우친 또슬 정성으로 헌 데가 일꼬.{그러니까 삼년 위친 돼지를 정성으로 하는 데가 있고.}

10208 #1 또 잔칠 돈또 아무리 모테도 우러서, 우러서 키우는 도신가? 우친, 우친.{또 잔치 돼지도 아무리 못해도 위해서, 위해서 키우는 돼지인가, 위친, 위친.}

10208 @1 음.{음.}

10208 #1 자, 잔치를 허기 위해서 우러서. 겨니깐 도새기가 크른 혼 세 치.{자, 잔치를 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가 크면 한 세 칭.}

10208 @1 흐.{하.}

10208 #1 세 칭. 삼백 근짜리 그 커요. 키우곡.{세 칭. 삼백 근짜리 그 커요. 키우고.}

10208 #1 누구네 집 꺼는 칭 바니엔 헐쩌, 두 칭이엔 헐쩌, 큰 걸 해야.{누구네 집 것은 칭 반이라고 했다, 두 칭이라고 했다, 큰 것을 해야.}

10208 #1 도새기 여러 마리 저 자반따는 소무는 업꼬 멘 칭짜리 자반쩌 허는.  
{돼지 여러 말이 저 잡았다는 소문은 없고 몇 칭짜리 잡았다 하는.}

10208 #1 그래서 그거슬 그 이바지를 그, 잔치 맞추른 이바지를 가져, 가져갈 때 수를 혼 허벅.{그래서 그것을 그 이바지를 그, 잔치 맞추는 이바지를 가져, 가져갈 때 술을 한 동이.}

10208 #1 게난 추니 쭈른 그 일본 싸람드리 내노는 거시 추니 술, 추닌데 추니로는 가져가는 이리 업꼬. 일본놈 끄르시니까 허고.{그러니까 준 술은 그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준 술, 준인데 준으로는 가져가는 일이 없고.}

10208 #1 허벅.{동이.}

10208 #1 허버근 혼 바리 싯경 가는 이리고. 혼 바리.{허벅을 한 바리 싯고 가는 일이고. 한 바리.}

10208 @1 음.{음.}

10208 #1 두, 둘.{두, 둘.}

10208 #1 게니까 멀리, 이디서 가령 어디 이 중문썸 잔치를 만촬쓰니까 그 므레 싯경 가나 췌에 시경 가나 걸 허버글 두 겔 싯경 가사 거 요망허는 췌 아이 돼거든.{그러니까 멀리, 여기서 가령 어디 이 중문썸 잔치를 맞췄으니까 그 말에 실어서 가거나 소에 실어서 가거나 그것을 동이를 두 개를 실어서 가야 거 요망하는 소에 는 아니 되거든.}

10208 #1 게난 용헌 췌. 말 잘 듣는 췌에 싯경, 그 이바질 싯경 이제 이틀 똥, 이틀씩 거런 간짜. 건 특뽕헌 경우거든.{그러니까 용한 소. 말 잘 듣는 소에 실어서, 그 이바지를 실어서 이제 이틀 동, 이틀씩 걸어서 갔다. 그건 특별한 경우거든.}

10208 #1 웨 그러냐 허며는 그 지베 그 어느 할머니가 아들만 유경젤 날찌 소무니 나니까 그, 그 혈통을 데려오는 거여, 그거는.{왜 그러냐 하면 그 집에 그 어느 할머니가 아들만 육형제를 낳았다 소문이 나니까 그, 그 혈통을 데려오는 거야, 그것은.}

10208 #1 그니까 소문, 혼 번 드르면서 어, 허고. 우리 제주에서는 이 저, 으, 토산 토산 구니, 구시니라고 해서 이 토산쪼개는 지금 표서니거든.{그러니까 소문, 한 번 들으면서 어, 하고. 우리 제주에서는 이 저, 으, 토산 토산 귀, 귀신이라고 해서 이 토산쪽에는 지금 표선이거든.}

10208 #1 포선, 표서네 가문 토산붕이라고 인는데 그 일때는 꼭 그 뒤친할망.{표선, 표선에 가면 토산붕이라고 있는데 그 일대는 꼭 뒷집할망.}

10208 #1 뒤친탈망을 모신다 이 마리여.{뒷집할망을 모신다 이 말이야.}

10208 #1 게문 그거시 인제 그 이러케 주चे이 요러케 어프곡 켁 쏜엔 뭇싸 논는 디 켁 이제 띠 둘르곡 커영 뒤친탈망을 모신다고 허는 거슨 그 토시니여, 토신.{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이렇게 주저리 요렇게 엮고 해서 속에 뭐야 놓는 지 그래서 이제 띠 두르고 해서 뒷집할망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토신이야, 토신.}

10208 #1 토신 모\*\*\* 아마 그 쏜게서 배미 나왓떤 모양이지? 게니까 배를 토산

토시느로 여기는데.{토신 모\*\*\* 아마 그 속에서 뱀이 나왔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뱀을 토산 토신으로 여기는데.}

10208 #1 토산서, 토산쪼게 여잘 데려와서 어디 아프텝 허른 아이고, 구테사 뉘켜, 푸다시해야 뉘켜, 쟁 이제 구슬 헤는 거. 그, 구신 달른 거 대접한다고.{토산서, 토산쪽에 여자를 데려와서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아니고, 굿해야 되겠다, 푸닥거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굿을 하는 거. 그 귀신 같은 거 대접한다고.}

10208 #1 게니까 이 모과네서는, 모과네서는.{그러니까 이 목안에서는, 목안에서는.}

10208 #1 그 어디서 어디까지 겨론허는 그 거리가 정해진 거라.{그 어디서 어디까지 결혼하는 그 거리가 정해진 거야.}

10208 @1 아.{아.}

10208 #1 그 모과는 모관끼리만 뉘는 거.{그 목안은 목안끼리만 되는 거.}

10208 #1 게 토사는 토산끼리만.{그래서 토산은 토산끼리만.}

10208 #1 그런데 어찌다가 그 인식, 무슨 거 관가 어, 게 이제 정의혀네 근무를 허게 뉘니까 이 모관 싸름 가게 뉘파.{그런데 어찌다가 그 인식, 무슨 거 관가 어, 게 이제 정의현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 목안 사람 가게 뉘다.}

10208 #1 그디 간 살단 어찌다 보니깐 찻씩 하나 어딘 뜯린가 아드린가 하나 나니까.{거기 가서 살다가 어찌다 보니까는 찻 하나 얻어서 딸인가 아들인가 하나 낳으니까.}

10208 #1 아이고 저건, 정, 정의년 난 거옐. 이름 딱 지어부니까 저건 멀쩡헌 사르미 텡여도 그 아이고, 저건 누네 보난 무신 거 부터서라, 구진 거 부턴 텡검썸, 저거.{아이고 저것, 정, 정의년 낳은 것이라고. 이름 딱 지어버리니까 저것은 멀쩡한 사람이 다녀도 그 아이고, 저것은 눈에 보니까 무슨 것 붙었더라, 굿은 것 붙어서 다니고 있다, 저거.}

10208 #1 막 케우려. 그 진 진짜로 구진 거 부튼 사르미 뉘부런. 사람마다 거, 전부 그니까.{막 훌어버려. 그 진, 진짜로 굿은 것 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사람마다 거, 전부 그러니까.}

10208 @1 이, 이비 담 뉘.{이, 입이 담 뉘.}

10208 #1 이비 담 뉘가지고, 어딘 잔칫찌베 가도 아이고 저건 어딘 년 난 거 게 여페 알찌 말라.{입이 담 되어가지고, 어디 잔칫집에 가도 아이고 저것은 어디 년 낳은 거 그애 옆에 앉지 마라.}

10208 #1 아이고 저거 절가락썰허는 거 보라, 수꾸락썰허는 거 보라.{아이고 저거 젓가락질하는 것 보라, 숟가락질하는 것 보라.}

10208 #1 매사에 그걸 그 흥으로 봐서 그러케 허니까 이, 그네드른 쪼끔 그 자릴 따로 자반따 그래요.{매사에 그것 그 흥으로 봐서 그렇게 하니까 이, 그네들은 조금 그 자리를 따로 잡았다고 그래요.}

10208 @1 게난 아까 그 신흔, 게난 요샌말로 하면 신흔방도 이러케 창썸 뉘랑

보기도 하고.{그러니까 아까 그 신희, 그러니까 요새말로 하면 신희방도 이렇게 창구멍 뚫어서 보기도 하고.}

10208 #1 네.{네.}

10210 @1 혹시 실랑도 드랑매나신가마썸? 제주도에서도.{혹시 신희도 매달었는가요? 제주도에서도.}

10210 #1 실랑은 드라멩 무시 거 요새말로 허미는, 건 내가 허는 얘기지만 매우 그 으학찌긴 거죠?{신희는 매달아서 무슨 것 요새말로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지만 매우 그 의학적인 것이죠?}

10210 @1 예. 발빠닥 때리고.{예. 발바닥 때리고.}

10210 #1 예, 그 실랑을 그 워나게 그 몸 조심, 입 조심 해노니까.{예, 그 신희를 그 워나게 그 몸 조심, 입 조심 해 놓으니까.}

10210 #1 그, 누구 잔치한다고 허미는 심지어는 뭐 응답 쏘 난 실랑이 이선꼬 아웁 쏘 난 \*, 실랑이 이썬난 세상이니까 소름끼치는 거야. 여자는 벌써 열대옌 살 있는데.{그, 누구 잔치한다고 하면 심지어는 뭐 여덟 살 된 신희가 있었고 아웁 살 된 \*, 신희가 있었던 세상이니까 소름끼치는 거야. 여자는 벌써 열대여섯 됐는데.}

10210 #1 아웁 쏘 난 실랑 허니까 부치러움도 허지마는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무서움을 탄다 \*\*.{아웁 살 된 신희 하니까 부끄러움도 하지만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무서움을 탄다 \*\*}

10210 #1 예, 보니까 그 주변 싸름드른 그 체구, 체격도 크지, 간 쓰곡, 탕건 쓰곡, 망건 쓰곡 허영 이제 부리부리하게들 경해서 이제 또 여차직커른 소리 질렁 겁나게.{예,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체구 체격도 크지, 갓 쓰고, 탕건 쓰고, 망건 쓰고 해서 이제 부리부리하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여차하면 소리 질러서 겁나게.}

10210 #1 거니까 실랑뺑에 드러가서 신부에게 소늘 대기커녕 거비 나가지고 지비 가켁 행 드라난 실랑이 오곡 커니까 신부가 실랑 발모글 자방 우렐따 이 마려.{그러니까 신희방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손을 대기는커녕 겁이 나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해서 달아난 신희가 오고 하니까 신부가 신희 발목을 잡아서 울었다 이말이야.}

10210 #1 어드레 감수광? 낭군님, 이디 흥끔만 십씨, 흥끔만 십씨 해서 이제 그 자꾸 그 잔잘리는, 잔젤려.{어디로 갑니까? 낭군님, 여기 조금만 있으세요, 조금만 있으세요 해서 이제 그 자꾸 그 다독거려서, 다독거려서.}

10210 @1 예, 잔젤리는.{예, 다독거려는.}

10210 #1 아 잔젤려그네 안심시키는 거여.{다독거려서 안심시키는 거야.}

10210 #1 경허명 이젠 오슬, 아랫또슬 게난 막 우는 시늬허면서 아랫오슬 베긴다는 거여.{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옷을, 아랫옷을 그러니까 막 우는 시늬하면서 아랫옷을 벗긴다는 거야.}

10210 #1 베껴서 이브로, 이브로 무려서 이제 그 성기를 성기를 무려서 이제 해

가쁜 남자가 조아진단 마리아야.{벗겨서 입으로, 입으로 물어서 이제 그 성기를 성기를 물어서 인제 해가면 남자가 좋아진단 말이야.}

10210 #1 겨고 이제 그, 저 이 그 여자가 그거 이제 나이 그, 나이 든 여자가 그러케 해서 그 어, 천날빠를 실랑을 안심 시켜서 오줌 싸레도 못 까게 해영 그 요강도 반쪽 헐따.{그러고 이제 그, 저 이 그 여자가 그거 이제 나이 그, 나이 든 여자가 그렇게 해서 그 어, 첫날밤을 신랑을 안심 시켜서 오줌 싸러도 못 가게 해서 그 요강도 받고 했다.}

10210 #1 근데 그러치 아네서 그 (기침) 현 실랑드른 그 여자가 그, 나이가 차지 아녀며는 어딜 감쭈강 해영 그냥 본체만체행 내불른 지베 드라낭 와분다는 거여. 지베.{그러는데 그렇지 안 해서 그 (기침) 한 신랑들은 그 여자가 그 나이가 차지 않으면 어디를 감니까 해서 그냥 본체만체해서 내버리면 집에 달아나서 와버린다는 거야. 집에.}

10210 #1 게니까 요즈믄, 요 근세에 와서는 지금 어, 실, 실랑찌베 신부를 데려 오지마는 그 전는 실랑이 신부 찌, 찌베 가서 한 삼 개월 사란꺼든.{그러니까 요즈믄, 요 근세에 와서는 지금 어, 신, 신랑집에 신부를 데려오지만 그전은 신랑이 신부 지, 집에 가서 한 삼 개월 살았거든.}

10210 #1 살면서 사는 행동거지 모두 다 봐서 그래서 그 요건 사위할 만허다, 요건 씨할 만허다, 이러케 다 짐자케서 그때는 이제 혼 바리 채왕 혼 바리 채왕 간 찌, 보낼찌.{살면서 사는 행동거지 모두 다 봐서 그래서 그 요것은 사위할 만하다, 요것은 씨할 만하다, 이렇게 다 짐작해서 그때는 이제 한 바리 채워서 한 바리 채워서 잤다, 보냈다.}

10210 #1 혼 바리 현 건 무슨 마리, 그 쉼나 므레나 혼 석돌 머글 꺼슬.{한 바리 하는 것은 무슨 말이, 그 소에나 말에나 한 석달 먹을 것을.}

10210 @1 질메 하나에?{길마 하나에?}

10210 #1 질메 해영 문딱 혼 바리 채완, 게난 이제 서방 각씨가 이제 왕 이제 그건 진, 진짜 그 실랑네 지비나 므을, 게니까 우리가 그 씨집간다, 씨 인는 지베 간다, 씨 노래 가는 거주게.{길마 해서 몽땅 한 바리 채워서, 그러니까 이제 서방 각씨가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은 진, 진짜 그 신랑네 집에나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집간다, 씨 있는 집에 간다, 씨 놓으러 가는 것이지.}

10210 #1 겨난 신부찌베 가서 사는 게 확실히하고, 그러케 허다가 지금 그니까 우리 조상들도 보른 그러케 역싸 뒤 일씨요.{그러니까 신붓집에 가서 사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보면 그렇게 역사 되어 있어요.}

10210 @1 그니까 실랑 드라맨단 얘기는 드러뵈찌예?{그러니까 신랑 매단다는 얘기는 들어왔지요?}

10210 #1 게난 실랑을 드라매는 거슨 그러케 자꾸 드라나꼭 해가니까 그 명혈, 명혈. 이게 이게 발빠다게 이 명혈을 그거슬 때려주지 아느른 담너기 업씨저, 담 녀.{그러니까 신랑을 매다는 것은 그렇게 자꾸 달아나고 해가니까 그 명혈, 명혈.

이것이 이것이 발바닥에 이 명혈을 그것을 때려주지 않으면 담력이 없져져, 담력.}

10210 #1 게니까 이거슬 때려서 게영 마를 저거 이거 혼 잔 내라, 혼 툅 내라 아, 장게, 장게간 감 내라.{그러니까 이것을 때려서 그래서 말을 저거 이거 한 잔 내라, 한 툅 내라 아, 장가, 장가간 감 내라.}

10210 #1 벨 말 이 핑게, 저 핑게 하면서 실랑을 확 얼싸 헨 모르게 콧 드라매 분다 마리여.{벨 말 이 핑게, 저 핑게하면서 하면서 신랑을 확 얼싸 해서 모르게 콧 매달아 버린다 말이야.}

10210 #1 여러시 모당 확 들렁 드라매불른 꿈작 모터게 인제 이 드라매듬서 이 게 이제 매지를 허는데 다른 데 무신 꿩 아프게 때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멍혈만 이레 때려서 담녀글 사름 키워쥬단 마리여.{여럿이 모아서 확 들어서 매달아버리면 꿈작 못하게 이제 이 매달아두고서 이제 이제 매질을 하는데 다른 데 무슨 뼈 아프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멍혈만 이리로 때려서 담력을 사름 키워쥬단 말이야.}

10210 #1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이 발, 발빠다글 때려주는 거슨 담녀글 키워주는 거. 담력.{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이 발, 발바닥을 때려주는 것은 담력을 키워주는 거. 담력.}

10210 @1 음.{음.}

10210 #1 그 명혈을 멍혈을 딱 때려서 그 사름 안심 시켜 줘야 각씨를 데리고 잘 돼는 거죠.{그 명혈을 딱 때려서 그 사람 안심 시켜 줘야 각시를 데리고 잘 되는 것이죠.} 10210 @1 음음.{음음.}

10210 #1 각씨 모메 소늘 대는 건 어려운 건 모타는 거.{각시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려운 것은 못하는 거.}

10210 @1 예.{예.}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1 그 다음 이제는 아까는 전통 겨론시게 팔려뉘 거고예. 이제는 이사장 니미 겨론헐찌 아녀쥬광?{그 다음 이제는 아까는 전통 결혼식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사장님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10211 #1 예.{예.}

10211 @1 여리틀마네?{열이틀만에.}

10211 @1 그러면 신논살리든 어디 차려나쥬광?{그러면 신혼살림은 어디 차렸었습니까?}

10211 #1 그:.{그:.}

10211 @1 신혼?{신혼?}

10211 #1 우리 지 방, 우리 지빈 방이 구드리 네 개, 우리 지븐 줌 묘헌 지비 죠.{우리 지 방 우리 집에는 방이 방이 네 개, 우리 집은 줌 묘한 집이요.}

10211 @1 계난 거넙똥에 사신 거?{그러니까 건입동에 사신 거?}

10211 #1 예, 거넙똥에.{예, 건입동에.}

10211 #1 거넙똥 일공육공 번진데.{건입동 일공육공 번지인데.}

10211 #1 초가지빈데 방이 네 개, 구드리 네, 저 방이 네 개, 정지가 네 개.{초가지빈데 방이 네 개, 방이 네, 저 방이 네 개, 부엌이 네 개.}

10211 @1 음.{음.}

10211 #1 마루가 하나.{마루가 하나.}

10211 #1 그런 지비주.{그런 집이지.}

10211 #1 계니까 가운데 한간방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는 방이고, 그 옆방은 이제 나하고 이제 집사람, 장가가쓰니까 그디. 문 미다지 하나 사이죠.{그러니까 가운데 큰방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는 방이고, 그 옆방은 이제 나하고 이제 집사람, 장가갔으니까 거기. 문 미단이 하나 사이죠.}

10211 @1 아, 미다지예?{아, 미단이요?}

10211 #1 미다지 흥나 사이에서 예, 이 방 저 방 해서 사란는데.{미단이 하나 사이에서 예, 이 방 저 방 해서 살았는데.}

10211 @1 계난 씨부모 모신 거다예? 사모님께서는예?{그러니까 시부모 모신거네요? 사모님께서는요?}

10211 #1 아, 그러초.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 스십오년 똥아닌가, 아:.{아, 그렇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십오년 동안인가, 아.}

10211 @1 어머니 모션.{어머니 모셔서.}

10211 #1 어머니 모시는 거 그러코.{어머니 모시는 거 그렇고.}

10211 #1 그 아버지사 모신 거슨 십 먼 년 똔 처렌가?{그 아버지야 모신 것은 십 몇 년 똔 차례인가?}

10211 @1 그럼 일단 신흔살리른 계난 아, 아버지 어머님하고 가치 흥 지베서 예?{그럼 일단 신흔살림은 그러니까 아, 아버지 어머님하고 같이 한 집에서요?}

10211 #1 예{예.}

10211 #1 흥 지베서.{한 집에서.} @1 예예예.{예예예.}

10212 @1 그러면 장흥이가 크나드리똥?{그러면 장흥이가 큰아들입니까?}

10212 #1 장흥이가 큰아덜.{장흥이가 큰아들.}

10212 @1 그러면 큰아들.{그러면 큰아들.}

10212 #1 아, 그 우원 딱리, 딸.{아, 그 위에 딸이, 딸.}

10212 @1 아.{아.}

10212 #1 그.{그.}

10212 @1 계른 장흥이엔 험쭈.{그러면 장흥이라고 합지요.}

10212 #1 예, 장흥이는 아들론 큰아드리고.{예, 장흥이는 아들로는 큰아들이고.}

10212 @1 예.{예.}

10212 #1 딱른 이제 우리 은정이가 일꼬.{딸은 이제 우리 은정이가 있고.}



10212 @1 아, 그러믄네, 은정이를.{아, 그러면요, 은정이를.}

10212 #1 은정이가 큰딸.{은정이가 큰딸.}

10212 @1 예, 조쭈다.{예, 좋습니다.}

10212 @1 그 다음 은정이가 큰따리라고 하면 어떠튼 어, 남자든 여자든 제일  
마지 아니우짱예?{그 다음 은정이가 큰딸이라고 하면 어떻든 어, 남자든 여자든 제  
일 말이 아닙니까요?}

10212 #1 네.{네.}

10212 @1 게서 아기를 설 때부터.{그래서 아기를 설 때부터.}

10212 @1 예를 들면, 사모니미 입떠슬 헨는지 그 님메 애기를 낳 때 산파를  
데려왔는지 사를 갈란는지 허는 건또 한번 쯤 해줍써?{예를 들면, 사모님이 입뎃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산파를 데려왔는지 삼을 갈랐는지 하는 것도 한  
번 쯤 해주십시오?}

10212 #1 그 내가 이제도 그.{그 내가 이제도 그.}

10212 @1 입뎃탈?{입뎃할?}

10212 #1 미련헌 거슬 아는데 그, 애기 설 때 나는 그 입뎃허는 건또 몰르고 애  
기 서는 건또 몰르고.{미련한 것을 아는데 그 애기 설 때 나는 그 입뎃하는 것도  
몰르고 애기 서는 것도 몰르고.}

10212 #1 그, 그냥 난 그저 바메 줌 자지믄 또 바께 나장 나 볼릴 보레 도라  
뎡기곡 해부런는데 우리 집싸라믄 지금도 얘기해.{그, 그냥 난 그저 밤에 잠 자지  
면 또 밖에 나가서 나 볼일 보러 돌아다니고 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얘기해.}

10212 #1 그 사과를 그러케 먹꼬 시픈데.{그 사과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10212 @1 신 사과 건또?{신 사과 것도?}

10212 #1 신 사과. 헌데 그거슬 흥나토 안 사다 주니까 난 그냥 우러서 막 그  
날 쟈 얘기도 일꼬.{신 사과. 헌데 그것을 하나도 안 사다 주니까 난 그냥 울어서  
막 그 날 쟈 얘기도 있고.}

10212 #1 그니까 또 이제 그 우리 어머님도 농초네 바커게 살면서 무신 입뎃테  
서 무시 건 츠자 머거본, 사다 머거본 역싸가 업쓰니까 농초네 살명 머글 꺾 몬 머  
건 사라나니깐.{그러니까 또 이제 그 우리 어머님도 농촌에 박하게 살면서 무슨 입  
뎃해서 무슨 것 찾아 먹어본, 사다 먹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농촌에 살면서 먹을 것  
못 먹어서 살았었으니까.}

10212 #1 당신 사라난 것처럼 메뉴리도 생가케부니까 메뉴리가 막 먹꼬 시퍼도  
말도 몬 곧꼬.{당신 살았던 것처럼 며느리도 생각해버리니까 며느리가 막 먹고 싶  
어도 말도 못하고.}

10212 #1 그땐 돈도 업꼬, 무시 거 돈도 업쓰니까 뭐 사당 주지도 모터고 사다  
줄 생각또 모텔쥬.{그때는 돈도 없고, 무슨 것 돈도 없으니까 뭐 사다가 주지도 못  
하고 사다 줄 생각도 못했지.}

10212 #1 게니까 그런 거시 그 남몰래 남편 몰래 눈물을 새는 거.{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남몰래 남편 몰래 눈물을 새는 거.}

10212 #1 그러케 눈물 겨운, 게니까 그 부엌도 옛날 부엌이니까.{그렇게 눈물 겨운, 그러니까 그 부엌도 옛날 부엌이니까.}

10212 #1 우리 지베, 내 그 장가간 지비 우리 현재 집 그 바로 옆집인데.{우리 집에, 내 그 장가간 집이 우리 현재 집 그 바로 옆집인데.}

10212 #1 그디서 그 전기 회사 그 동산 내려가서 그 지장칸 무를 하루에 일곱 번, 으둑 뻥 지어오니까 그 동산 그 비크레기 그 돌빠끼 뭐, 뭐 참 죽기살기로 세상 사는 거.{거기서 그 전기 회사 그 동산 내려가서 그 지장칸 물을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 지어오니까 그 동산 그 비탈 그 돌밖에 뭐, 뭐 참 죽기살기로 세상 사는 거.}

10212 #1 게니깐 요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마리고, 경헨 이제 큰딸 난 때도 정신업씨 경헨 그러자나 이제 그, 일련또 안 돼서 다시 얘기가 드러사부니까 우리 시노기가 이제 두 번째.{그러니까 요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딸 낳은 때도 정신없이 그렇게 해서 그러잖아 이제 그, 일년도 안 돼서 다시 얘기가 들어서버리니까 우리 신옥이가 이제 두 번째.}

10212 @1 아, 시노기가 두 번째우짱?{아, 신옥이가 두 번째입니까?}

10212 #1 두 번째 딱리고.{두 번째 딸이고.}

10212 @1 으음.{으음.}

10212 #1 거 이제 우리 장흥이가 세 번째 아드린데.{거 이제 우리 장흥이가 세 번째 아들인데.}

10212 #1 아들 낳따 허니깐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져.{아들 낳았다고 하니깐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져.}

10212 @1 (웃음) 위로 두른 따리고?{(웃음) 위로 들은 딸이고?}

10212 #1 어. 딸만 난 때는 아버지가 쏘그로 뭐 막 어땡.{어. 딸만 낳은 때는 아버지가 속으로 뭐 막 어땡게.}

10212 @1 썩썩피다?{썩썩하다?}

10212 #1 썩썩핀 게 아이고 막 그 느끼는 가미 좀 달랐던 모양이라.{썩썩한 게 아니고 막 그 느끼는 감이 좀 달랐던 모양이야.}

10212 #1 그 아들 낳 때 그 옛날 노인들, 우리 지빈 저 애깁, 오남매가 전부 그 산파, 김상희 산파란는데.{그 아들 낳을 때 그 옛날 노인들, 우리 집에는 저 아기, 오남매가 전부 그 산파, 김상희 산파였는데.}

10212 #1 철 뻥째도 산파, 두 번째도 산파인데.{첫 번째도 산파, 두 번째도 산파인데.}

10212 #1 그 세 번째 아들 낳 때 그때 내 아버지가 호미, 호미, 요건 요딘 얘기 난 방이고 요건 마룬데.{그 세 번째 아들 낳을 때 그때 내 아버지가 낫, 낫, 요것은 요디는 아기 낳은 방이고 요것은 마루인데.}

10212 #1 요 마루꾸석 가까운 디 요, 요 방 가까운 디 오란 동글랑헌 거 그 옆 대 끝 왕대방석 툇 깅란 호미, 호미를 요 방석 아래 툇 난 툇 깅랑 아자.{요 마루 꾸석 가까운 데 요, 요 방 가까운 데 와서 둥근 거 그 옆 대 끝 왕대방석 툇 깔아서 낫, 낫 요 방석 아래 툇 놓아서 툇 깔아서 앓아.}

10212 @1 으흠.{으흠.}

10212 #1 젠디 상히 산파가 아이고, 크닐 낫찌, 크닐 낫찌.{그런데 상히 산파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0212 #1 뻔, 배똥주리, 배똥주리 막 이러케 커부니까 이 가위를 ㄴ지질 모테. {뻔, 땃줄이, 땃줄이 막 이렇게 커버리니까 이 가위를 자르지를 못해.}

10212 @1 음.{음.}

10212 #1 게연 산파가 칼 가정웁써, 칼 가정웁써 허난 우리 아버지가.{그래서 산파가 칼 가져오세요, 칼 가져오세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10212 @1 호미.{호미.}

10212 #1 어, 어떻 내가 (웃음) 호미 (웃음).{어, 어떻게 내가 (웃음) 낫 (웃음).}

10212 @1 아, 거니까 그건 기가 마키게.{아, 그러니까 그것은 기가 막히게.}

10212 #1 아 우리 아버지가 딱 아는 아버지야.{아 우리 아버지가 딱 아는 아버지야.}

10212 #1 게니까 호, 산, 산파가 아 이젠 그, 끄는 거여.{그러니까 호, 산, 산파가 아 이제는 그, 꿇은 거야.}

10212 #1 끄는 후에 나, 나도 보니까 이, 이걸보다 더 슬저이.{꿇은 후에 나, 나도 보니까 이, 이것보다 더 살찌.}

10212 @1 독찌가?{두께가.}

10212 #1 게 이제 나중엔 문딱 다 해뒀 올레 나간 내가 마중을 꼭 올레까지 치송을 헐쥬게. 가난 아이고, 하르버지가 아는 하르방이엔.{그래 이제 나중에는 몽땅 다 해두고 골목 나가서 내가 마중을 꼭 골목까지 치송을 했지. 가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는 할아버지라고.}

10212 #1 벌써 그 호미게 어디 뵈뎌 줘니?{벌써 그 낫 어디 놔두었다가 주었니?}

10212 #1 아, 방석 아래 영 뵈뎌 줘디다. 하이고, 그런 어루니 읍따고.{아, 방석 아래 이렇게 놔두었다가 줘디다. 아이고, 그런 어른이 없다고.}

10212 #1 하이고, 크닐 날 뻔 헐뎌. 하도 쭈셔노난 ㄴ세 이거 \*.{아이고, 큰일 날 뻔 했다고. 하도 쭈셔놓으니까 가위 이거 \*.}

10212 #1 (웃음) 그 칼, 칼 노민 칼로 어떻 끄늘 뻔 해서게. 호미로 허나네 몽착 끄넌찌.{(웃음) 그 칼, 칼 오민 칼로 어떻게 꿇을 뻔 했느가. 낫으로 하니까 몽착 꿇었지.}

10212 @1 아, 게난 혹씨 그건 때무네 다음 얘기는 못 뻔꼭 켜.{아, 그러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다음 얘기는 못 받고 해서.}

10212 #1 아이, 경 험 인제.{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10212 @1 몰 프리쭈과?{\*\* 못 들었습니까?}

10212 #1 아이.{아니.}

10212 #1 겐디 이젠 그 후엔 춤 그 애기 바든 후에도 자꾸 저 집싸라든 만날쭈 게. 상희 판 산파를 만나고.{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참 그 아기 받은 후에도 자꾸 저 집사람은 만났지. 상희 봐서 산파를 만나고.}

10212 #1 나도 이제 영 기레서 만나지든 하도 고마워서 다정하게 허는데 집싸람 도 잘 아니깐 이제.{나도 이제 이렇게 길에서 만나지면 하도 고마워서 다정하게 허는데 집사람도 잘 아니까는 이제.}

10212 #1 아이고, 느네 아드룬 두고 보라, 두고 보라. 허.{아이고, 너의 아들은 두고 보라, 두고 보라. 허.}

10212 #1 어, 게 뭐 헌데 그 노미 커갈 때 그, 그 다오메 이제 신자허고 세 번 째 따리주게.{어, 게 뭐 하는데 그 놈이 커 갈 때 그, 그 다음에 이제 신자하고 세 번째 딸이지.}

10212 #1 근디 그때는 내 느끼미 아, 요걸 아드리 틀림업따 생각나.{그런데 그때는 내 느낌이 아, 요것 아들이 틀림없다 생각나.}

10212 #1 게연 애기어명도 이번 틀림업씨 아들 낳 꺼우다. 나도 그러케 느끼 고.{그래서 아기어머니도 이번 틀림없이 아들 낳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10212 #1 모든 건 누구든지 산파도 자꾸 영 그, 잘 아자시냐 몰 아자시냐 왕 춤 손질해 주곡 커는디.{모든 것은 누구든지 산파도 자꾸 이렇게 그, 잘 앓았느냐 못 앓았느냐 와서 참 손질해 주고 하는데.}

10212 #1 으, 이걸 아드리여. 겐디 난 보난 딱리라.{으, 이것은 아들이다. 그런데 낳아서 보니까 딸이야.}

10212 @1 음음.{음음.}

10212 #1 겐디 지금 그 딸리 남자 험찌 허여.{그런데 지금 그 딸이 남자 한다고 해.}

10212 @1 네.{네.}

10212 #1 제주대학교 요 나오긴 험쭈마는 지금도 여자 행동 안 해. 지금 중국 깐 인는데 이걸, 뭐, 뭐 남자라 남자. 경험 씨집 아이 갇쭈게.{제주대학교 요 나오기 는 했지만 지금도 여자 행동 안 해. 지금 중국 가서 있는데 이것은, 뭐, 뭐 남자야 남자. 그렇게 해서 시집 아니 갔지.}

10212 #1 웨 씨지블 감니까 그래. 하. 씨집 아이 가켄.{왜 시집을 감니까 그래. 하. 시집 아니 가겠다고.}

10212 #1 게서 그, 그 후에 이제 따시.{그래서 그, 그 후에 이제 다시.}

10212 @1 장흥이, 차흥이구나.{장흥이, 차흥이구나.}

10212 #1 어. 겐 겐 건 신자가 세 번, 네 번째고 이제 다선 뻔째가 지금 광흥이 라고 해서 인제 지금 우릴 이층에 ㅁ치 사람쭈, 지금.{어. 그래서 그래서 신자가 세

번, 네 번째이고 이제 다섯 번째가 지금 광홍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이층에 같이 살고 있지.}

10212 @1 게난 삼남 아, 삼녀 이 아 삼.{그러니까 삼녀 아, 삼녀 이 아 삼.}

10212 #1 이남 삼녀.{이남 삼녀.}

10212 @1 이남 삼녀예?{이남 삼녀요?}

10212 #1 예, 이남 삼녀.{예, 이남 삼녀.}

10213 @1 게서 그 아이를 가절쓸 때 쯤 어려웠던 이리나 재미난 얘기 이신가마 썸?{그래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쯤 어려웠던 일이나 재밌는 얘기 있는가요?}

10213 #1 그 아까 ㄱ른 말 이제 이제 그.{그 아까 말한 말 이제 이제 그.}

10213 @1 호미?{낫?}

10213 #1 으, 호미가 예, 그:게 보통 사람드리 게 산파 얘기, 산파 얘기.{으, 호미가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이 게 산파 얘기, 산파 얘기.}

10213 #1 자기는 그때 말로 스십 년 산파 해도 이런 이리 얼마 이거.{자기는 그때 말로 사십 년 산파를 해도 이런 일이 없다 이거.}

10213 @1 아, 그러케 \*\*\* 해본 게예?{아, 그렇게 \*\*\* 해본 거요?}

10213 #1 그 이러케 배똥쭈리 영 술진 사르믄 내 본 역싸가 업따.{그 이렇게 텃줄이 이렇게 굵은 사람을 내 본 역사가 없다.}

10213 #1 으음.{으음.}

10213 #1 이제 그래서 으, 야인 그분 도라가설쨌 마리 일썤, 몸 뻗는데.{이제 그래서 으, 애는 그분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 못 봤는데.}

10213 #1 야인 크는 거 나 꼭 보, 보켜.{애는 크는 것 나 꼭 보, 보겠다.}

10213 @1 음.{음.}

10213 #1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깐 지금 사람쭈. 완따갸따 하는데.{그래서 지금 그, 중국 가서 지금 살고 있지. 왔다갔다 하는데.}

10213 #1 자시글 영 키워보니까 그 쪼게 어떤 생가글 가져 인는지 난 몰라. 어명도 몰르고. 몰르민 말 안 허민.{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나는 몰라. 어머니도 몰르고. 모르면 말 안 하면.}

10213 #1 꼭 흘 말만 해영 그 나머진 자기 허는 일조차도 절때 노출 안 해.{꼭 할 말만 해서 그 나머지는 자기 하는 일조차도 절대 노출 안 해.}

10213 @1 음.{음.}

10213 #1 허고. (웃음) 한목썸기 허고.{하고. (웃음) 한뭇 하고.}

10213 #1 게 지금 그래서 그, 게니깐 저러는, 저런 거시 그 뭐인가, 뭘 썰 뜨타는 건지 우린 예, 단문허니까 그리 어시, 몰른 이렌 잘 모르는데.{게 지금 그래서 그, 그러니깐 저러는, 저런 것이 그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예, 단문하니까 글이 없이, 모른 일에는 잘 모르는데.}

10213 #1 우리 아버지는 (웃음) 요거 영 영 자구.{우리 아버지는 (웃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자꾸.}

10213 @1 아, 지평?{아, 짚어서?}

10213 #1 다 지핀단 마리어.{다 짚는다 말이야.}

10213 #1 공불 아니 현 어르닌데 어떠케 아난 마리어. 난 이거 춤.{공부를 아니한 어른인데 어떻게 아느난 말이야. 난 이거 참.}

10213 #1 우리 아버지진 나처럼 공불 모텐쥬게.{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공부를 못했지.}

10213 @1 케난 그때가 낭에서 떨어지기 저니우파?{그러니까 그때가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입니까?}

10213 #1 아니, 난 그, 그날 열 멘 쏘 때 장, 장가도 가기 저네 경헨 낭 떠러전.{아니, 난 그,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장, 장가도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나무 떨어져서.}

10213 @1 그때 아, 아버지 그니깐 이사장니미 장가가기 저네 낭에서 떠러진 거?{그때 아, 아버지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장가가기 전에 나무에서 떨어진 거?}

10213 @1 암, 물론.{암, 물론.}

10213 @1 음음음음.{음음음음.}

10213 #1 겐 이제 경헨 이거 우리 아버지 총각 때 경헨 떠러전 그 후에 장가간 사라시난.{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아버지 총각 때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그 후에 장가가서 살았으니까.}

10214 @1 그 다오메 산후 조리는 어떻 헤신고예? 예를 들면 뭐 미역꾸글 끌러 명는다던가 아니면?{그 다음에 산후 조리는 어떻게 했는가요? 예를 들면 뭐 미역국을 끓여 먹는단가 아니면?}

10214 #1 그, 그 제주에.{그, 그 제주에.}

10214 @1 모밀?{메밀?}

10214 #1 제주에 풍소근?{제주의 풍속은?}

10214 @1 예.{예.}

10214 #1 애기 난 후에, 애기 난 후에 꼭 지키는 거시.{아기 낳은 후에 아기 낳은 후에 꼭 지키는 것이.}

10214 @1 할망상?{할망상?}

10214 #1 메역꼭커곡, 저 모물꺄를허곡 이거는 즈베기를 헨썬 허든 칼국썬 아녀. 즈베기는 즈바 낳 허는 게 즈베기니까 칼 아이 가정으네 헨파.{미역국하고, 저 메밀가루하고이것은 수제비를 했든 하든 칼국수는 안 해. 수제비는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 수제비니까 칼 아니 가져서 했다.}

10214 @1 으음.{으음.}

10214 #1 예, 거 정성이거든.{예, 거 정성이거든.}

10214 #1 예, 이제 그거슨 이 이제 쟁가케 보든 아, 거 모메 피 응결허지 말라고 피 푸러주라고 미역커고.{예, 이제 그것은 이 이제 생각해 보면 아, 거 몸의 피 응결하지 말라고 피 풀어주라고 미역하고.}

10214 @1 모밀?{메밀?}

10214 #1 모미를 꼭 메곬따.{메밀을 꼭 먹었다.}

10214 #1 건 춤 훌륭한 사상인 건 갸꼬.{그것은 참 훌륭한 사상인 것 같고.}

10214 #1 음, 그 애기어명도 그 허리띠.{음, 그 아기어머니도 그 허리띠.}

10214 @1 예, 복때.{예, 복대.}

10214 #1 그 허리띠. 게 요즈믄 허리띠 허젠 그 복띠허고 허리띠허고 다른 건데 허리를 그 복, 복띠는 이제 드시라고, 드시라고 이제 이 허는 걸또 뒀지만.{그 허리띠. 그래 요즘은 허리띠 하려고 그 복대하고 허리띠하고 다른 것인데 허리를 그 복, 복대는 이제 따듯하라고, 따듯하라고 이제 이 하는 것도 되지만.}

10214 #1 허리는 그니까 곧 엉덩이 뒤에 이, 요새말로 허믄 상당히 으학쩌긴 건데 저, 머시 느렐쩌. 위, 위.{허리는 그러니까 곧 엉덩이 뒤에 이, 요새말로 하면 상당히 의학적인 것인데 저, 무엇이 내렸다. 위, 위.}

10214 @1 네:{네.}

10214 #1 위가 알로 찌지며는 그 병이 똤다 이거여.{위가 아래로 처지면 그 병이 똤다 이거야.}

10214 #1 그니까 이 가는허리를 너무 췌아불믄 알레 내려가는 거여.{그러니까 이 가는허리를 너무 조여버리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10214 #1 그니까 이 아래 허리를 췌와줘야 똤. 여자들. 걸 무껴주라.{그러니까 이 아래 허리를 조여줘야 똤. 여자들. 그것을 묶어줘라.}

10214 #1 이거슨, 그건 우리 장모니미 그 육쩔 어르니니까 건 아라서.{이것은, 그것은 우리 장모님이 그 육지 어른이니까 그것은 알았어.}

10214 @1 음.{음.}

10214 #1 겐 거 베로 여길 요러케 넓게 헤영 이거세 들곡 \*\*\*\*\* 바짝 졸마매라, 이러케.{그래서 거 베로 여길 요렇게 넓게 해서 이것에 달고 \*\*\*\*\* 바짝 졸라매라, 이렇게.}

10214 #1 겨니까 우리 집싸름 지금 다른 여자들 담찌 아녕 배가 으서.{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지금 다른 여자들 같지 않아서 배가 없어.}

10214 @1 음.{음.}

10214 #1 게니까 아렐뻘, 게니까 위장 이레 처지믄 그 위하수 음.{그러니까 아랫배를, 그러니까 위장 이리로 처지면 그 위하수 음.}

10214 @1 위하수예?{위하수요?}

10214 #1 위하수가 커진다 그래. 그거슬 방지하기 위해 이제 아렐뻘 대주고.{위하수가 커진다고 그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아랫배를 대주고.}

10214 @1 게서 복때?{그래서 복대?}

10214 #1 예.{예.}

10214 #1 그 복때를 거는 때는 부그늘 가르켜줘야 똤는데 복때허믄 그만 여길 무껴분단 마리어.{그 복대를 그것은 때는 부근을 가르켜줘야 똤는데 복대하면 그만}

여기를 묶어버린단 말이야.}

10214 @1 계난 아렌빼예?{그러니까 아랫배요?}

10214 #1 어. 계난 아렌빼를 무꺼야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영 무꺼부니까 알려레 처져부는 거여.{어. 그러니까 아랫배를 묶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를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아래로 처져버리는 거야.}

10214 #1 게 병을 날개 흐는 게 아니라 저 병을 나게 멘드라부는 거여.{그래 병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병을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10214 #1 게니까 걸 그 구체저그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복때 매라 허는 거.{그러니까 그것을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복때 매라 하는 거.}

10214 #1 게 허리:를 그, 그러케 허니까 그 우리 장모가 건 허니깐 아, 건 내가.{그래 허리를 그, 그렇게 하니까 그 우리 장모가 그것은 하니까는 아, 그것은 내가.}

10214 @1 건또 산후 조리예에 속카겐따예?{그것도 산후 조리예요 속하겠네요?}

10214 #1 절때지.{절대.}

10214 @1 음.{음.}

10215 @1 그 다음에 배기리라든가 돌잔치는 어떻게 췌과?{그 다음에 백일이라든가 돌잔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215 #1 그니까 그 우리 집 뭐 잘 살지 모터니까 근데 그 그거슨 일렘쌍, 사을, 사을 웨므는.{그러니까 그 우리 집 뭐 잘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그것은 이렘쌍, 사흘, 사흘 되면.}

10215 @1 예, 사.{예, 사.}

10215 #1 사을 두에도 삼신상, 할망쌍, 헌데 그게 그 7튼 말덜 달믄데.{사흘 뒤에도 삼신상, 할망상 헌데 그게 그 같은 말들 같은데.}

10215 @1 삼칠 이시비를 해야십췌.{삼칠 이십일을 했었지요.}

10215 #1 삼칠 이시비닐 그 이제 스물 웨믄 이러케 상 노코 허는데 그때마다 메가 세 그르시여.{삼칠 이십일일 그 이제 스물 되면 이렇게 상 놓고 하는데 그때마다 메가 세 그릇이야.})

10215 #1 그 삼신할머니를 꼭 위에서.{그 삼신할머니를 꼭 위해서.}

10215 #1 삼성할망 헨췌, 무신 삼신이엔도 아니. 삼성할망.{삼성할망 했지, 무슨 삼신이라고도 아니. 삼성할망.}

10215 @1 예.{예.}

10215 #1 그래서 그 삼성할망 헨, 놀 때마다. 그 베길 웨어서 이지불지 아니헌 거슨 썰, 씨를 꼭 갑따 노으는 거.{그래서 그 삼성할망 할, 놓을 때마다. 그 백일 되어서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은 실, 실을 꼭 가져다 놓는 거.}

10215 #1 또, 또 이제 그 조아허는 거. 그, 아이 장례를 장례를 점치는 거슨 이런 잡귀장이영 글 써는 목피리영.{또, 또 이제 그 좋아하는 거. 그, 아이 장례를 장례를 점치는 것은 이런 잡기장이랑 글 쓰는 목필이랑.}



10215 @1 음, 크레용이영.{음, 크레용이랑.}

10215 #1 크레용 \*\*\* 온간 켄 갈따 봐보든 이제 안다고 해서 그거슨 아마도 그 희망을 주는 거 가데. 그런 거 갈따 노명.{크레용 \*\*\* 온갓 것 갓다 봐보면 이제 안다고 해서 그것은 아마도 그 희망을 주는 것 같아. 그런 거 갓다 놓으면서.}

10215 #1 난 건또 몰르곡 옛날 큰큰헌 총을 갈판 상 위에 탁 놔뵈쥬게.{난 그것도 모르고 옛날 크나큰 총을 가져다가 상 위에 탁 놓아뵈지.}

10215 @1 (웃음)

10215 #1 거, (웃음) 우리 아버지가 존식. 아사불렌도 아녀고 존식. 그, 그 경헨 그걸로 끝.{거, (웃음) 우리 아버지가 자식. 가져버리라고도 앓고 자식. 그, 그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

10215 @1 음.{음.}

10216 @1 혹씨 자시글 키우면서 가장 기여게 남는 이리 이신가마썸?{혹씨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가요?}

10216 #1 예, 그런 그, 제일 그.{예, 그런 그, 제일 그.}

10216 @1 오남매를 키워쓰니깐예?{오남매를 키웠으니까요?}

10216 #1 오남매 키우는데 내 가장 기여게 남는 거슨 하나 \* 큰딸, 큰딸 나썰매.{오남매를 키우는데 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 \* 큰딸, 큰딸 낳았을 때.}

10216 @1 은정이?{은정이?}

10216 #1 은정이 낳썰 때 그 혼.{은정이 낳았을 때 그 혼.}

10216 #1 막 어릴 때 그 전 머길 땀데 (기침) 그 압찌베 그 우리 굴렁 찌비 초상이 낳뵈 마리어. 그 집 바로 아페.{막 어릴 때 그 젓 먹일 때인데 (기침) 그 앞집에 그 우리 굴렁 집에 장사가 났단 말이어. 그 집 바로 앞에.}

10216 #1 그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압, 압찹뜨레 텅이지 말라이.{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앞, 앞집으로 다니지 말라.}

10216 #1 애기 아방, 저 애기 어멍 저 애기들 지금 저 마누라 험썰.{아기 아버지, 저 아기 어머니 아기들 지금 저 흥역 하고 있다.}

10216 @1 음음.{음음.}

10216 #1 절때 텅이지 말라이.{절대 다니지 말거라.}

10216 #1 예게.{예.}

10216 #1 아, 건데 그, 이 학씩도 풍부한 하르방인데 그 문승현 씨라고 하이, 이 동네 왕이 어땡 아니 오냐고. 윈 텅이질 아넴썰.{아, 그런데 그, 이 학씩도 풍부한 할아버지인데 그 문승현 씨라고 아, 이 동네 왕이 어땡게 아니 오냐고. 윈 다니질 앓고 있다.}

10216 #1 게 딱 그 술 머건 왕왕해가난 동네 왕이 아이 텅염썰.{그래 딱 그 술 먹어서 왕왕해가니까 동네 왕이 아니 다니고 있다고.}

10216 #1 켄 누가 완 하도 불르는 거여.{그래서 누가 와서 하도 부르는 거야.}

10216 #1 보난 그 문승현 씨가 하이구, 어땡헿 아니 완신. 나하곡 술 대결헿 짜

가 저 사름바께 어신디 이레 오자.{보니까 그 문승현 씨가 아이고, 어떡해서 아니 오냐고. 나하고 술 대결할 자가 저 사람밖에 없는데 이리로 오자.}

10216 #1 하이구 아이 가지 모텐 게 바로 올담 부튼 지비주게.{아이고 아니 가지 못해서 그래 바로 올담 붙은 집이지.}

10216 #1 \* 전체가 그던 굴렁 지비고 우린 동산 지비고.{\* 전체가 거기는 구렁 집이고 우리는 동산 집이고.}

10216 #1 아니 가질 모터영 그 집 간 거여.{아니 가지 못해서 그 집 간 거야.}

10216 #1 초상난 지비 간 이젠 술도 먹꼬 아잔 놀단 밤 느저가난 술찌기 드러완 술찌기 드러완 이젠 문도 술찌기 으란 반짜리에 술도 머거지고 허난 애기 눈 쪼게 아니 간 바짜리에 ㄴ마니 누워 인는데.{장사난 집에 가서 이제는 술도 먹고 앉아서 놀다가 밤 늦어가니까 살짝 들어와서 살짝 들어와서 이젠 문도 살짝 열어서 윗목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10216 #1 하이, 조금 이시난 애기가 우는 간 날리가 터지는 거야.{아이, 조금 있으니까 아기가 우는 간 난리가 터지는 거야.}

10216 #1 허, 우리 어머니미 저쪽 건너, 마루 건너편 방에 자단 불싸라고, 불싸라고 게 그때도 등피뿌리주게.{아, 우리 어머니미 저쪽 건너, 마루 건너편 방에 자다가 불켜라고, 불켜라고 그래 그때도 남폿불이지.}

10216 #1 등빈뿔 영 싸난 불 흐뎡 북께 허라, 북께.{남폿불 이렇게 켜니까 불 조금 밝게 해라, 밝게.}

10216 #1 거 폰 씹지 영 올렁 북께 허난 영 바레명 아이고, 말 ㄴ르른 아이 드렁 압, 압찌비 간따 오랴쭈이?{그 불 심지 이렇게 올려서 밝게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말 말하면 아니 들어서 앞, 앞집에 갔다 왔지.}

10216 #1 환, 우리 어머니. 아고, 꿈짜글 모터는 거여. 예 헐 쭈바께.(웃음){아, 우리 어머니. 아이고, 꿈짜글 못하는 거야. 예 할 수밖에.(웃음)}

10216 #1 예, 허난.{예, 하니까.}

10216 #1 아이고, 어진 할마님 즈손 허명 이젠 뭐 뭐.{아이고, 어진 할머님 자손 하면서 이제는 뭐 뭐.}

10216 @1 말명.{말명.}

10216 #1 입따를 막 허기 시자커는데 그 뭐 이제 뎡기명 그 막, 견디 물, 물 세 그를 떠단 이젠 상에 영 노코 어디 이제 아잔, 우리 어머니 아잔 막 입따허명.{입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뭐 이제 다니면서 그 막, 그런데 물, 물 세 그릇 떠다가 이제 상에 이렇게 놓고 어디 앉아서, 우리 어머니 앉아서 막 입따하면서.}

10216 #1 게 어진 할마님 즈손 분전 몰란 경 헤시매.{게 어진 할머님 자손 분수 몰라서 그렇게 했으매.}

10216 @1 하다.{부디.}

10216 #1 이거 하다 하다 노허지 마랑 어떻 허십써.{이거 부디 부디 노하지 말고 어떻게 하십시오.}

10216 #1 하이, ㄱ마니 술 머건 취해 얼, 얼거니 취해둬서 기어 나와부러야지 이젠 오레 나가서 어딜 감신고? ㄱ마니 아지라.{아이, 가만히 술 먹어서 취해 얼, 얼큰히 취하고 기어 나와버려야지 이제는 골목 나가서 어디를 가고 있니? 가만히 앉아라.}

10216 #1 하이, 까깍 (웃음) 가지도 모터게 해.{아이, 깍깍 (웃음) 가지도 못하게 해.}

10216 #1 아, 그게 혼 일쭤일 가요, 일쭤일.{아, 그것이 한 일쭤일 가요, 일쭤일.}

10216 @1 계난 은정인 막 고생헐꾸나예?{그러니까 은정이는 막 고생했군요?}

10216 #1 막 꼬생헐쭈게.{막 고생했지.}

10216 #1 거 애기 때난 뭐 물레기 때 \*\*\*.{거 아기 때니가 갓난아기 때 \*\*\*.}

10216 #1 그니깐 거 몸 구치지 말라.{그러니까 몸 굶히지 말라.}

10216 #1 그게이 요 우리 과학썰그로 푸러서 우리가 아라야 될 이린데 (전화) 절때저긴 얘기에요. 내가 헐 보니까.{그게 요 우리 과학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데 (전화) 절대적인 얘기에요. 내가 해서 보니까.}

10216 @1 (전화통화)

10216 #1 그러헌 거슬 보며는 옐 떠르늘 멍청허다, 천마네 말씀.{그러한 것을 보면 옛 어른을 멍청하다, 천만의 말씀.}

10216 #1 그 옐 꺼슬 우리가 몰라서 멍청, 우리가 멍청헌 거지, 옐 싸르미 멍청헌 건 절때 아니라고 허는 거를 나 증명헤, 증명헤.{그 옛 것을 우리가 몰라서 멍청, 우리가 멍청한 것이지, 옛 사람이 멍청한 것은 절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 증명헤, 증명헤.}

10217 @1 그 다으메 마으레서도 팔레를 험니까? 요센말로 하른 성인식?{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팔레를 험니까? 요셋말로 하면 성인식?}

10217 #1 ㄱ으레 거 우리 거넙똥에서 헐 걸 혼 번도 내 본 니리 업쪼이.{마을에 거 우리 건입똥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나 본 일이 없쪼.}

10217 @1 네.{예.}

10217 #1 에 본 니른 업는데 말드른 그 옐 노인네들끼리 봐지른 누게 또 이젠 스무나문 똬서. 저건또 이젠 혼사가 해\*\*, 해사 똬 걸.{에 본 일은 없는데 말들은 그 옛 노인네들끼리 봐지면 누구 또 이젠 스무남은 되고 있어. 저것도 이젠 혼사가 해\*\*, 해야 될 것인데.}

10217 #1 그 나이가 드림쭈마는 장가를 보내라, 호닌허라 허는 말드른 허는데. {그 나이가 들고 있지만 장가를 보내어라, 혼인하라 하는 말들은 하는데.}

10217 #1 성이니 똬얼쓰니까 무슨 시커라 그건 몸 뜨런.{성인이 되었으니까 무슨 식하라 그것은 못 들었어.}

10217 @1 예. 예.{예: 예.}

10217 #1 제주에서는 그마만큼 가난해서.{제주에서는 그만큼 가난해서.}

10217 @1 예예예. 잠시 쉬었따 하겠습시다예.{예예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217 #1 네.{예}

### 1.2.6. 환갑잔치

10223 @1 예, 환갑 애길 듣겠쥬다.{예. 환갑 애기를 듣겠습니다.}(전화통화)

10223 @1 환갑 애기 쯔 해줍써?{환갑 애기 쯔 해주십시오?}

10223 #1 그 예 환가비다 무슨 이: 잔치를 벌리는 이른 난 그 마음쫘그로 일쩔 아니한다라고 허는 전제가 딱 구더절끼 때무네.{그 예 환갑이다 무슨 이 잔치를 벌이는 일은 난 그 마음속으로 일쩔 아니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딱 굳어졌기 때문에.}

10223 @1 엔날서부터?{옛날서부터?}

10223 #1 예. 아넬쫘.{예. 안 했쫘.}

10223 #1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머니보단도 아버지가 부모님 스라에서 제대로 커서 사라왈쓰면 헐쓸런지 모르쫘.{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부모님 슬하에서 제대로 커서 살아왔으면 했을는지 모르쫘.}

10223 #1 그런데 아버지, 어머, 아 아버지가 그 워나게 그, 그 가난허게 궤롭게 그, 쯔 남다른 그 눈무를 흘치면서 사라왈끼 때무네 나는 그 호스스러운 그런 행위 자체를 아니 할라고 내 마음 딱 머근 지가 그 엔날 췌테우리 허명도 예, 그 딱 마으메 구덜쫘.{그런데 아버지, 어머, 아 아버지가 그 워낙에 그, 그 가난하게 궤롭게 그, 참 남다른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호사스러운 그런 행위 자체를 아니 하려고 내 마음 딱 먹은 지가 그 옛날 소 목동 하면서도 예, 그 딱 마음에 굳었고.}

10223 #1 그 후에 우리 아버진 그 저, 훈장잔치를.{그 후에 우리 아버지는 그 저, 훈장잔치를.}

10223 @1 훈장 잔치?{훈장 잔치?}

10223 #1 우리 아버지.{우리 아버지.}

10223 @1 네.{네.}

10223 #1 아버지 훈장잔치는 내가 군대에 가분 때, 군대에 가분 때 우리 큰형님 미 일본서 처음 드러왈꺼든. 어릴 때 나간 처음 드러와서 어, 흥니깐 여기서덜 아마 뭐 어른덜 말 듣쫘, 그 우리 아버지를 훈장잔치를 해 드려써.{아버지 훈장잔치는 내가 군대에 가버릴 때, 군대에 가버릴 때 우리 큰형님이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거든. 어릴 때 나가서 처음 들어와서 하, 하니까는 여기서들 아마 뭐 어른들 말 듣고, 그 우리 아버지를 훈장잔치를 해드렸어.}

10223 #1 이제 해서 내 그때 그, 난 참석도 모터고, 게연 아버지 훈장잔칠 현 이리 일쫘.{이제 해서 나 그때 그, 난 참석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훈장잔치를 한 일이 있고.}

10223 #1 근데 나는 그 후에도 나를 우에서 뭘 일쩔 내가 그 쯔 생일라른 유월

쓰무날.{그런데 나는 그 후에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일절 내가 그 좀 생일날을 유월 스무날.}

10223 @1 덕 째.{닭 잡.}

10223 #1 덕 짜방 명는 나리 생이리니까 건 어짜피.{닭 잡아 먹는 날이 생일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10223 @1 등 명.{닭 먹.}

10223 #1 독쪽 썰 명는 거니까 식꾸가 다 먹꼬 그러케. 그 웨에는 내 생일잔치 일절 아녀고.{닭죽 썰서 먹는 것이니까 식구가 다 먹고 그렇게. 그 외에는 내 생일잔치 일절 앓고.}

10223 @1 뭇 칠썬도 안 하고?{뭇 칠썬도 안 하고?}

10223 #1 다른 사람드른 그 우리 친구드른 칠썬허니까 뭇 어찌구, 아, 난 벌써 허연 나 끈날따.{다른 사람들은 그 우리 친구들은 칠썬하니까 뭇 어찌구, 아, 나는 벌써 해서 나 끝냈다.}

10223 #1 거진말해서 일절 아녀고. 지금도 동네 싸름덜 그 윈 혼 번도 그런 거슬 아니 허니까 이상하다는 거지.{거짓말해서 일절 앓고. 지금도 동네 사람들 그 윈 한번도 그런 것을 아니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지.}

10223 #1 게난 어떤 사르른 내가 만나른 아직 칠썬 아이 돼썬다, 내 해불곡. 어떤 사르른 팔썬 아니 돼썬다.{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면 아직 칠썬 아니 댜습니다, 내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팔썬 아니 댜습니다.}

10223 @1 아, 겐디 솔찌기 말씀드려서 건강 상태로 보면 칠썬 안 돼서마썰.{아, 그런데 솔찌이 말씀드려서 건강 상태로 보면 칠썬 안 댜어요.}

10223 #1 {웃음}

10223 @1 아, 정마리우다. 손 딱 자바보면 완저니.{아, 정말입니다. 손 딱 잡아보면 완전히.}

10223 @1 게니까 칠썬 안, 안 댜따는 그 마른 마즈십썬.{그러니까 칠썬 안, 안 댜다는 그 말은 맞지요.}

10223 #1 그럴 썬도 인는 거지.{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10223 @1 웃음

10223 #1 {웃음}

10223 @1 예.{예.}

10223 #1 게니까 그러헌 그 호스스러운 일 일절 아녀기로.{그러니까 그러헌 그 호사스러운 일 일절 앓기로.}

10225 @1 게난 흑씨 남드리 웨갑잔치는 가보션는가예?

10225 #1 어, 친조기든지 내 아는 사람들 갠썬.{어, 친족이든지 내 아는 사람들 왔지요.}

10225 @1 네.{네.}

10225 #1 가 보며는 그 거지시 마네요.{가 보면 그 거짓이 많아요.}

10225 #1 휘갑잔치하는데 먹지도 모턴 꼰파자덜 이만큼 올리고.{회갑잔치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꼰파자들 이만큼 올리고.}

10225 @1 예, 휘가잔치쌍예?{예, 회갑잔치상이요?}

10225 #1 상예.{상예.}

10225 #1 아, 우리 권당덜 때문에 뭐, 여러 \*\*\* 강 보민, 난 그디 강 절해영 절 허기 저네 내 다지플 허줘.{아, 우리 권당들 때문에 뭐, 여러 \*\*\* 가서 보면, 나는 거기 가서 절해서 절하기 전에 내 다짐을 하지.}

10225 #1 삼춘 오늘 미신 나리우파?{삼춘 오늘 무슨 날입니까?}

10225 #1 게 무신 날 달마 베여?{그래 무슨 날 같아 보여?}

10225 #1 난 몰란 와쭈다.{나는 몰라서 왔습니다.}

10225 #1 오늘 잔치허는 나리우파?{오늘 잔치하는 날입니까?}

10225 #1 아, 오늘 휘가비여, 휘갑.{아, 오늘 회갑이다, 회갑.}

10225 #1 게른 절 멘 뻔험니까? 허민.{그러면 절 몇 번합니까? 하면.}

10225 #1 흥고프른 허고 말고프른 말라.{하고프면 하고 말고프면 말라.}

10225 #1 게 나 절 혼 번만 허커메 술 흥끔 줍써.{그래 나 절 한 번만 하겠으니 술 조금 주십시오.}

10225 #1 게 이제 상대방을 막 운켜서 기빠야 휘가비지 슬프른 휘가비 아이다 이 마리여.{그래 이제 상대방을 막 웃겨서 기빠야 회갑이지 슬프면 회갑이 아니다 이 말이야.}

10225 #1 게 이제 삼춘 소느로 술 줍써. ㄱ뜩 줍써. 으, 내가 이, 일부러 영 털 지.{그래 이제 삼춘 손으로 술 주세요. 가득 주십시오. 아, 내가 이, 일부러 이렇게 털지.}

10225 #1 ㄱ마니 셔, ㄱ마니 신다고.{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다고.}

10225 #1 게 이디 이디 수를 헐찌 아녀게 술 따라야 휘갑 잔치허는 거여, 잔치.{게 여기 여기 술을 흘리지 않게 술 따라야 회갑 잔치하는 거야, 잔치.}

10225 #1 잔치를 위해 혼드르크메 일따른 ㄱ뜩 넘치\* 따릅써.{잔치를 위해 흔들 겠으니 일단은 가득 넘치\* 따르세요.}

10225 #1 하이고, 저, 저건 또 오라 가른 사르플 저러케 현다고.{아이고, 저, 저 것은 또 와 가면 사람을 저렇게 한다고.}

10225 #1 게 내 일부러, 일부러. 경 이젠 사시른 버르장머리 업씨 내 이를 헐찌 마는 기쁜 잔치 아이라? 잔치가 뭔가? 잔치라곤 기쁜 겁니다. 기쁜.{게 내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이제는 사실은 버르장머리 없이 내 일을 했지만 기쁜 잔치 아닌가? 잔치가 뭔가? 잔치라곤 기쁜 겁니다. 기쁜.}

10225 #1 게니까 자식 자랑은 아무 소용도 업꼬, 자식 절때 자랑허지 마십씨 오.{그러니까 자식 자랑은 아무 소용도 없고, 자식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10225 #1 자기 자랑만 허주, 자기.{자기 자랑만 하지, 자기.}

10225 #1 내가 일쓰니까 자시기 일, 인는 거신데 이러케 이러케 사란노라고 헤

영.{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살았노라고 해서.}

10225 #1 게영, 겨른 내 그 잔치찌베는 마니 장난치지.(풍경소리).{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그 잔치집에는 많이 장난치지.}

10225 #1 휘잡 잔치여 무신, 칠쭈니여 팔쭈니여 허는 건데 여러 군데 거 나 알기만 허는 꼭 깡 무스 거 돈 얼마 가정 강 올리곡. 헤영 머그민 꼭 머근 깡 헤뵤 게영 하도 윤겨 노른 기빠서 기빠서 우는 사르미 이서. 기빠서.{회잡 잔치다 무슨, 칠순이다 팔순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 군데 거 나 알기만 하면 꼭 가서 무슨 것 돈 얼마 가져서 가서 올리고. 해서 먹으면 꼭 먹은 값 해두고 그렇게 해서 하도 웃겨 놓으면 기빠서 기빠서 우는 사람이 있어. 기빠서.}

10225 #1 아이고, 느 온, 오기 저넌 스물 우린덜 이디 아잔덜 이 공론, 저 공론 헬따만.{아이고 너 온, 오기 전에 사뭇 우린들 여기 앉아서들 이 공론 저 공론했다 만.}

10225 #1 느 오난 아이고, 우선 우서지명 우림찌.{너 오니까 아이고, 웃어서 웃 어지면서 울고 있다.}

10225 #1, @1 (웃음)

10225 #1 경헨 눈물덜 잘잘 허멍. 막 기뻐덜 게영 혼 잔 더 머그렌 허곡.{그렇게 해서 눈물들 줄줄 흘리면서. 막 기뻐서들 그래서 한 잔 더 먹으라고 하고.}

10225 #1 어떤 땐 내, 아니, 돌파장바리라도 하나 탁 게영 간땅 날 줍써 해노 난.{어떨 때는 내, 아니 돼지 족발이라도 하나 탁 해서 갖다가 날 주십시오 해놓으 니까.}

10225 @1, #1 (웃음)

10225 #1 몬 머거부러서. 게른 흥나 사오른 뵤 꺼주게. 저 산 도새기 다리라도 흥나 흥 토막 끄너다 노읍씨게. 게른 내 머거보저.{몽땅 먹어버렸어. 그러면 사오면 뵤 것이지. 저 산 돼지라도 하나 한 토막 끊어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먹어보지.}

10225 #1 그러케 허멍 그 장난, 술 머그니까. 그니까 수리라고 허는 게 뭐냐, 그 아라 본 거주.{그렇게 하면서 그 장난,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뵤이냐, 그 알아 본 것이지.}

10225 #1 수리 마취제거든.{술이 마취제거든.}

10225 #1 수리 마취제인데 수리 사람을 막 슬프게 멘들고, 수리 사르를 기쁘게 멘들더라고.{술이 마취제인데 술이 사람을 막 슬프게 만들고, 술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더라고.}

10225 #1 거 요술쟁이라, 이거 수리.{거 요술쟁이야, 이거 술이.}

10225 #1 수를 머그른 우슴도 나오고 우름도 나, 나오는데 그, 저 화해 부치는 거. 건또 전부 수리요, 술.{술을 먹으면 웃음도 나오고 울음도 나, 나오는데 그 저 화해 붙이는 것. 그것도 전부 술이야, 술.}

10225 #1 그래서 술 누가 멘드라놔는지 몰라도 춤 이러한 맹랑한 게 수리구나. {그래서 술 누가 만들어놓았는지 몰라도 참 이러한 맹랑한 것이 술이구나.}

10225 @1 계난 예를 들면 그 웨갑 잔치할 때는 부주도 하는 거지예?{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갑 잔치할 때는 부조도 하는 것이지요?}

10225 #1 허쵸.{하지요.}

10225 @1 예.{예.}

10225 #1 어, 게니까 부주를 가서 이제 반드시 부주를 올려서 그 사르플 예, 운 찌서, 으 운껴, 운찌지며는 난 조케 생가글 허고.{아, 그러니까 부조를 가서 이제 반드시 부조를 올려서 그 사람을 예, 웃겨서, 아 웃겨, 웃기면 나는 좋게 생각을 하고.}

10225 #1 그 시무루케 이시른 그 웨니 그 가절꾸나 영.{그 시무룩해 있으면 그 팬히 그 가졌구나 이렇게.}

10225 #1 어떤 사람 저, 막 고지편 어른드른 그냥 시무루케 이서.{어떤 사람 저, 막 고집스런 어른들은 그냥 시무룩해서 있어.}

10225 #1 뭐 무신 걱정인지 모르주 뭐. 게 그런 때마다 내 운껴지른 막 나도 싱글벙글해지곡, 경 아너른 막 나도 성질냉 그냥 에이이, 술 혼 잔도 먹찌 마랑 그냥 가부러야지.{뭐 무슨 걱정인지 모르지 뭐. 게 그런 때마다 내 웃기면 막 나도 싱글벙글해지고, 그렇게 앓으면 막 나도 성질내서 그냥 에이이, 술 한 자도 먹지 말아서 그냥 가버려야지.}

10225 @1 겐디 우리 마레 이런 게 이썬다게. 나메나이라는 마리 일썬, 나메나이 예.{그런데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나이라는 말이 있어, 남의나이요.}

10225 @1 걸 푸리하면 다른, 나메 나이. 나에 나이가 아니단 애깁쥬게. 걸 딱 푸리해 보면 웨가블 지난 이후에 나이. 그러든 웨갑 이저네 나이는 나이 나이라마 썸.{그것을 풀이하면 다른, 남의나이. 나의 나이가 아니다는 애기입쵸. 그것을 딱 풀 이해 보면 회갑을 지난 이후의 나이. 그러면 회갑 이전에 나이는 나의 나이이지요.}

10225 #1 아.{아.}

10225 @1 그니까 웨갑 지난 이후에 나이는 나메나이니깐 나메나이니까는 더드로 사는 거시여서 더 열씨미 사라야 웬다, 더 봉사해야 웬다 하는 뜨시 인는 거 가테마 썸.{그러니까 회갑 지난 이후의 나이는 남의나이니까는 남의나이니까는 덤으로 사는 것이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봉사해야 된다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10225 #1 (입 다시는 소리)

10225 @1 나메나이, 나에 나이.{남의나이, 나의 나이.}

10225 #1 그렌 그, 그.{그리로는 그, 그.}

10225 #1 우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지배 가며는 그 막 근심 걱쟁헌 지바니 근심 걱, 그러니깐.{우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집에 가면 그 막 근심 걱정한 집안이 근심 걱, 그러니깐.}

10225 @1 웨갑 잔치 때마썬?{회갑 잔치 때요?}

10225 #1 예.{예.}

10225 @1 음.{음.}



10225 #1 잔친데 그 부이니 어디 아파서 병워넬 인꺼나 또는 그 지베 그, 아드  
리나 메느리, 자식들 그 휘하에들 사름더리 누게 근심 걱정이 일쓰며는 그 휘갑 잔  
치쌍을 바다도 기쁘미 업써, 이건.{잔치인데 그 부인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를 있거  
나 또는 그 집에 그, 아들이나 며느리, 자식들 그 휘하에들 사람들이 누구 근심 걱  
정이 있으면 그 회갑 잔칫상을 받아도 기쁨이 없어, 이것은.}

10225 #1 겐 나 막 운껴가며는 아이, 경 허지 마라, 지베 용심난 이리 이서.{그  
래서 나 막 웃겨가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입에 부아난 일이 있어.}

10225 @1 음.{음.}

10225 #1 나 근심 걱정이 이시메 좀 봐도렐 이제 좀 달래는 사르미 일꼬.{나 근  
심 걱정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이제 참 달래는 사람이 있고.}

10225 #1 그 여폐서 아이고, 경헤지 맘써. 이 지베 무신 수심친 이리 이쭈다게  
허명. 겐디 그.{그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 무슨 수심있는 일  
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

10225 #1 육십한 살쯤 웨도 장수헌 사르므로 보니까 으.{육십한 살쯤 되어도 장  
수한 사람으로 보니까 으.}

10225 @1 그럽쭈.{그렇지요.}

10225 #1 장수헌 사르므로 보니까 (헛기침) 누구 더게 나 나이깁정 사전, 사라전  
쨌.{장수한 사람으로 보니까 (헛기침) 누구 덕에 나 나이까지 살아졌, 살아졌다.}

10225 #1 나 나이깁지 사람쭈. 누구 더게.{나 나이까지 살았지. 누구 덕에.}

10225 #1 그니까 어느 사늘, 산소를 잘, 할머니 산소를 잘 모셨쓰며는 우리 할  
머님 산소 더게 사라전노라. 우리 하라버지 산소 더게 사라노라.{그러니까 어느 묘  
를, 산소를 잘, 할머니 산소를 잘 모셨으면 우리 할머니 산소 덕에 살아졌노라. 우  
리 할아버지 산소 덕에 살았노라.}

10225 #1 어느 정시, 풍수엥은 안 허여. 어느 정시 덕뿌네 난 엔날 혼 마흔. 곧  
마흐네 주글 뻔헐는디 이제깁지 장명해전쨌.{어느 지관, 풍수라고는 안 해. 어느 지  
관 덕분에 나는 옛날 한 마흔. 곧 마흔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까지 장명해졌다.}

10225 #1 그니까 그 환갑, 휘갑 그 자꾸 요런 말허든 돌 도라오도록 살지 못턴  
사람도 오, 애기 열둘 난 애기 못딱 열두 성제 문 푼란 어찌고 허는데.{그러니까 그  
환갑, 회갑 그 자꾸 요런 말하면 돌 돌아오도록 살지 못한 사람도 오, 아기 열두 낳  
아서 아기 몽땅 열두 형제 몽땅 팔아서 어찌고 하는데.}

10225 #1 게 그 환갑 휘갑 ㄴ튼 마리거든.{게 그 환갑 회갑 같은 말이거든.}

10225 @1 음.{음.}

10225 #1 그니까 갑자을추기 돌 도라오든 휘갑 환갑호는 애기인데, 음.{그러니  
까 갑자을축이 돌 돌아오면 회갑 환갑하는 애기인데, 음.}

10225 #1 잘 사라전따고 허는 건 자기 타시 아니고 자기가 잘 나서 건강해서가  
아니고.{잘 살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고 자기가 잘 나서 건강해서가 아  
니고.}

10225 #1 누구 더게 누구 덕뿌네. 또 내 멘 썰 때 중병을 아랐는데 누게가 야글 정 식케쥬 또 누게가 산 철리허렌 누게가 지블 바팡 살렌.{누구 덕에 누구 덕분에. 또 내 몇 살 때 중병을 앓았는데 누구가 약을 저렇게 시켜줘서 또 누구가 산 옮기라고 누구가 집을 바꿔서 살라고.}

10225 #1 전부 나메 덕 그런 거 고마운 얘기를 돼새겨서서 허고.{전부 남의 덕 그런 거 고마운 얘기를 되새겨서서 하고.}

10225 #1 어, 또 내 아는 어떤 어루는 그 저 나망쪼게 가서 그, 돈버리, 돈빠리 허레 간 거지, 가서 이제 대죽뽀디 그 살, 살마다만 일본, 살마다 헨 거 일본마리거든.{어, 또 내 아는 어떤 어른은 그 저 남양쪽에 가서 그, 돈벌이, 돈벌이하러 간 것이지. 가서 이제 수수밭에 그 팬, 팬티만 일본, 살마다 한 것 일본말이거든.}

10225 #1 이 사리마다.{이 팬티.}

10225 @1 예. 이, 일본말.{예, 이, 일본말.}

10225 #1 일본말 그 살마다만 이번 대죽뽀디 일허는디.{일본말 그 팬티만 입어서 수수밭에 일하는데.}

10225 #1 그 임질 거린 사람, 임질 거진, 건진, 걸린 사르문 그 무신 물커시 올라오랑 그 냄새를 마타서 그 임질균들 머글라고 온 거 고르플 뽀라머그문 그 이제 사람 오면 막 달라부튼다는 거여.{그 임질 걸린 사람, 임질 가진, 걸린, 걸린 사람은 그 무슨 물것이 올라와서 그 냄새를 맡아서 그 임질균을 먹으려고 온 거 고름을 빨아먹으면 그 이제 사람 오면 막 달라붙는다는 거야.}

10225 #1 그거슨 그 여러 사라를 접초케서 그런 규느로부터 그런 병 걸린 사람. 그런 사라를 만, 만나문 자기도 망신 그, 지반도 막 패가망시늘 해볼 쥬데.{그것은 그 여러 사람을 접촉해서 그런 균으로부터 그런 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만, 만나면 자기도 망신, 그 집안도 막 패가망신을 해버릴 것인데.}

10225 #1 그 병엘 아이 걸린 그때 게난 임질균 어더 걸리지 아니허난 이제까지 사란.{그 병에를 아니 걸려서 그때 그러니까 임질균 얻어 걸리지 아니하니까 이제까지 살았어.}

10225 @1 음.{음.}

10225 #1 오늘 이.{오늘 이.}

10225 @1 웨갑쌍을?{회갑쌍을?}

10225 #1 웨갑 잔칫쌍 바단, 바담썰. 바담썰.{회갑 잔칫상 받안, 받고 있다. 받았다.}

10225 #1 게서 그 기쁜 얘길 혼 오늘 내가 그, 우리 친족 어루닌데 그런 얘기를 허기도 아 낸.{그래서 그 기쁜 얘기를 한 오늘 내가 그, 우리 친족 어른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도 아 내.}

10225 @1 음.{음.}

10225 #1 유시미 드른 저기 일쑤.{유심히 들은 적이 있쥬.}

10225 @1 네.{예.}

10225 #1 경허고 제주 싸름드른 지금 (기침) 예, 그러한 잔치가 당해도.{그렇게 하고 제주 사람들은 지금 (기침) 아, 그러한 잔치가 당해도.}

10225 #1 보리가, 보리 거리곡, 삼 거린 때 이제 보리 ㄴ실힐 때 이제 제일 바쁜 때고 또 이 파뤼ل 추석 너머서 출힐 때 쥔 바쁠 때.{보리가, 보리 갈리고, 삼 갈릴 때 이제 보리 가을할 때 이제 제일 바쁜 때이고 또 이 팔월 추석 넘어서 꼴할 때 쥔 바쁠 때.}

10225 #1 그거 일런 중에 그, 그때를 그때는 어떤 이로서도 하루 종일 지배서 곤논 이병 이신 건, 건 사름 쏘리 못 뜨러.{그거 일년 중에 그, 그때를 그때는 어떤 일에서도 하루 종일 집에서 고운 옷 입어서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 소리 못 들어.}

10225 #1 게니까 그때 보리도 보리 곱끼 저네 ㄴ실 ㄴ 해 드려야 되고 또 그 출빌 때도 쥔초를 잘 헤영 누러 뒀야.{그러니까 그때 보리도 보리 구부러지기 전에 가을 몽땅 해 들어야 되고 또 꼴 벨 때도 소 꼴을 잘 해서 가리워 두어야.}

10225 #1 그 이듬해 받 깔곡 무신 거 곡썩 힐 때니까.{그 이듬해 받 깔고 무슨 것 곡실할 때니까.}

10225 #1 그 ㄴ을, ㄴ으레 거두어 드리는 거슨 놈 마니 아이 비러도 또 이녁 노브로라도 그 줄 비나 산뒤 비나 콩 꼴 이런 거슨 그 시가니 좀 너머도 너미 이거도 조금 선 때 비러도 댜니까.{그 가을,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것은 남 많이 아니 빌려도 또 이녁 놈으로라도 그 조를 베나 밭벼 베나 콩 팔 이런 것은 그 시간이 좀 넘어도 너무 익어도 조금 선 때 베도 되니까.}

10225 #1 출 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업써, 출.{꼴 베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 꼴.}

10225 #1 꼬마드리 머거야 그러, 그러한 그럴 때에 무신 휘갑 환갑 무신 칠쑤니여 팔쑤니여 잔치가 닥치르는 모테요.{고마들이 먹어야 그러, 그러한 그럴 때에 무슨 회갑 환갑 무슨 칠순이다 팔순이다 잔치가 닥치면 못해요.}

10225 #1 게 이제 그, 흥뽀 보리 ㄴ실 해뒹, 해뒹 잔치허주.{그 이제 그 조금 보리 가을 해두고, 해두고 잔치하지.}

10225 #1 또 이제 출 꼬테 잔치허주.{또 이제 꼴 끝나서 잔치하지.}

10225 #1 예 그, 그 거 어떤 사름더른 그 잔친날, 아, 저 생일랄 생일랄 그 휘갑 꼭 육십 갑자 세영 그 돌 또라운 날 꼭 해야힐, 해야 뒹 꺼데 그나른 그때를 냉기자 이거여.{예 그, 그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날, 아, 저 생일날 생일날 그 회갑 꼭 육십 갑자 세어서 그 돌 돌아온 날 꼭 해야힐, 해야 될 것인데 그날은 그때를 넘기자 이거야.}

10225 @1 음. 바쁘데 냉.{음. 바쁘데 넘기.}

10225 #1 바빠, 바쁘니까.{바빠, 빠쁘니까.}

10225 @1 예, 예. 조썸니다.{예, 예. 좋습니다.}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1 이버는네, 음, 막 훼손도 지나고 막 살다보니깐 임종을 한 거라예.{이번은요, 음, 막 회갑도 지나고 막 살다가보니까는 임종을 한 거예요.}

10226 #1 임중.{임중.}

10226 @1 예, 그래서 이버는 장례를 지내야 될 겁쥬. 장사를 지내야 돼예.{예, 그래서 이번은 장례를 지내야 될 것이죠. 장사를 지내야 되어요.}

10226 #1 예.{예.}

10226 @1 그러면 췌그네 그 이사장니른 모치니 도라가설쨌 안씀니까예?{그러면 최근에 그 이사장님은 모친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요?}

10226 #1 예.{예.}

10226 @1 그러면 그거슬 한번 연상하시면서예, 임중서부터 담제까지.{그러면 그것을 한번 연상하시면서요, 임중에서부터 담제까지.}

10226 #1 예.{예.}

10226 @1 한번 쪽 절차대로 한번 쯤 ㄴ라보십쨌?{한번 쪽 절차대로 한번 쯤 말해보십시오?}

10226 #1 그:.{그.}

10226 @1 임중 어떠케 화긴하셌쥬과?{임중 어떻게 확인하셌습니까?}

10226 #1 임중은 난 그, 아버지 어머닐 모두 임종을 헐는데 아버지 때로 보미는 우리 아버진 그 평상시에 그 아버지만 허는 시랑이 일썌요.{임중은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임종을 했는데 아버지 때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평상시에 그 아버지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10226 #1 게니까.{그러니까.}

10226 #1 해하고 달하고.{해하고 달하고.}

10226 @1 네.{네.}

10226 #1 별허곡.{별하고.}

10226 #1 세슬 딱 저 백쨌에다 요 그러서 그, 겐또 동쪽 방향으로 벼게 부청 그 위에 이제 흰 종일 더 부청 더퍼부러, 가려, 가려부러.{셋을 딱 저 백쨌에다 요 그러서 그, 그것도 동쪽 방향으로 벽에 붙여서 그 위에 이제 흰 종이를 더 붙여서 덮어버려, 가려, 가려버려.}

10226 #1 게른 그 상에선 안 보이는데, 이제 그디 청수무를 세 그를 꼭 떠올려. 떠와서 그 심축 높 아라든게도 아녀고 경. 어떤 땐 아부지 크게 험쨌, 크게 험쨌 허른 불 화, 브름 풍, 물 쭈.{그러면 그 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거기 청수를 세 그릇 꼭 떠올려. 떠놓아서 그 심축 남 알아든게도 앓고 그렇게. 어땔 때는 아버지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하면 불 화, 바람 풍, 물 수.}

10226 #1 으, 그 또 뭘 조용헌 얘기. 그게 설명을 해주는 거 보니까 불허고 물허고 브름허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시다.{으, 그 또 뭘 조용한 얘기. 그것

이 설명을 해 주는 것 보니까 불하고 물하고 바람하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다.}

10226 #1 그때에 우리 자손 피 연결 되는 전부 무사하게 해주십사 허는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심추글 허는 거시다 이.{그때에 우리 자손 피 연결 되는 전부 무사하게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심축을 하는 것이다 이.}

10226 #1 근디 그제 지금 우리 아버지에 경우에는 어, 그 우리 아버지 정시를 몰라요, 우리도.{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경우에는 어, 그 우리 아버지 정신을 몰라요, 우리도.}

10226 #1 하루 세 번, 지베 든 나른 하루 세 번 발 시치곡, 손 시치곡 온 까라 입꼭 케영 청수물 떠냥 그디 심추글. 딱 무릎 꾸러둬서 절 세 번 해영 심추글.{하루 세 번, 집에 든 날은 하루 세번 발 씻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해서 청수 떠놓아서 거기 심축을. 딱 무릎 꿇고 절 세 번 해서 심축을.}

10226 #1 받티 간 땀 받티 일해가단 영 해 저 바레뵘 열뚜 시 뽕시른 검질메당도 받꼬랑에 탁 꾸러안잔 그, 그땀 아무것도 안 올령 이젠 손 이러케 해서 그 심추글 허고.{발에 간 때는 발에 일해가다가 이렇게 해 저 바라보아서 열두 시 되고 있으면 김매다가도 받꼬랑에 탁 꿰어앉아서 그, 그때는 아무것도 안 올려서 이제는 손 이렇게 해서 그 심축을 하고.}

10226 #1 이거슨 이, 이 이 해 뜬 날, 둘 뜬 나리고 변나미 업씨 꼭 지키니까 (기침).{이것은 이, 이, 이 해 뜬 날 달 뜬 날이고 변함이 없이 꼭 지키니까 (기침).}

10226 #1 다른 사르미고, 벨 사르미 드러와도 브린 체도 아녀고 거, 어, 소년 와쭈다 해도 오거나 말거나 꼭 그 할 이리 이러케.{다른 사람이고, 별 사람이 들어와도 본 체도 앓고 거, 어, 손님 왔습시다 해도 오거나 말거나 꼭 그 할 일이 이렇게.}

10226 #1 그러헌 그 우리 아버지한테 도라가시게 뵈니까 스무흔를 톱안 아무 또건 안 잡췌.{그러한 그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스무하루 동안 아무 것도 안 잡췌.}

10226 @1 아.{아.}

10226 #1 일쩍.{일쩍.}

10226 @1 건 보닌 스스로가?{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10226 #1 스스로.{스스로.}

10226 #1 겐데 마지막 잡췌 건 뭐냐면 씨 엄는 포도, 그 간수메가 나와나서, 저쪼게.{그런데 마지막 잡췌 것은 뭐냐면 씨 없는 포도, 그 통조림이 나왔었어, 저쪽에.}

10226 #1 그 씨 엄는 포도 간수메 이젠 그건 사다네 여기 씨 엄, 씨 으신 간수멤니다. 포도 원, 자십씨 해네 게 입 영 허벌려전 건 졸졸 내려가거든.{그 씨 없는 포도 통조림 이제는 그것은 사다가 여기 씨 없, 씨 없는 통조림입니다. 포도 원, 드십시오 해서 게 입 이렇게 헤벌어져서 그것은 졸졸 내려가거든.}

10226 #1 그거 햅끔 머그난 이제 그거 허고, 그 느립꼬.{그거 조금 먹으니까 이제 그거하고, 그 내리우고.}

10226 #1 그 무려베 이제 내가 어디 간 오다가 그 저 이디 저 뭐꼬? 사네 녁쿠리 건 열매 저, 굴?{그 무렵에 이제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저 여기 저 뭇이지? 산에 녁쿨에 열매 저, 굴?}

10226 @1 도레?{다래?}

10226 #1 도레 말고.{다래 말고.}

10226 @1 줄갱이?{유름?}

10226 #1 줄갱이도 말고 그.{유름도 말고 그.}

10226 #1 이파린, 이폰 건뜰 겨울레도 안 떠러지게 굴, 꿀? 꿀? 몰라? 막 흔히 쓴든(?) 마린데.{이파리, 잎은 그것들은 겨울에도 안 떨어지게 굴, 꿀? 꿀? 몰라? 막 흔히 썼던 말인데.}

10226 #1 그게 잘 이그른 꾸리여, 꿀.{그것이 잘 익으면 꿀이야, 꿀.}

10226 #1 근데 그거슬 멘 빵울 탄 받 우리 아버지 그 청순물 올리는 상에 내 그 걸 네 방울 달려 인는 걸 갇땅 영 꼬주완 보기 조킬레 듸, 그 원 본 이르른 멀꾸리 거든, 멀꿀.{그런데 그것을 몇 알 따고 봐서 우리 아버지 그 청수 올리는 상에 내 그것을 네 알 달려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쪼아서 보기 좋기에 듸, 그 원 본 이름은 멀꿀이거든, 멀꿀.}

10226 @1 네.{예.}

10226 #1 그걸 이젠 갇땅 영 난는데.{그것을 이제는 갖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10226 #1 그게 흔 사밀 시난 요거 햅나가 떠러전.{그것이 한 삼일 있으니까 요거 하나가 떨어졌어.}

10226 #1 아이고, 이 떠러저가든 이제 요거 다 떠러지든 도라가실 꺾가 햅 열른 이젠 일보네다가 전보를 철썩. 우리 큰형님 아페.{아이고, 이 떨어저가면 이제 요거 다 떨어지면 돌아가실 것인가 해서 열른 이제는 일본에다가 전보를 쳤지. 우리 큰형님 앞에.}

10226 #1 아버지:가 꼭 도라가심직커우다. 게 오설썩.{아버지가 꼭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 오셨어.}

10226 #1 게 이젠.{그래서 이제는.}

10226 #1 요거 다 오늘 떠러지고 내일 떠러지고 모레 떠러저. 네 방우린데 아 그 딱 떠러지는 날 저녀게는 그 아버지 이제 호상오슬 이퍼야 뉼 꺾로 아라서.{요거 다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모레 떨어져. 네 알인데 아 그 딱 떨어지는 날 저녁에는 그 아버지 이제 수의를 입혀야 될 것으로 아아서.}

10226 #1 그 우리 어머니미영 이논해서 “아버지 온 이퍼야 뉼쿠다.” 허난 “입썩라” 게.{그 우리 어머님이랑 의논해서 “아버지 옷 입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입썩라.”}

10226 #1 썩 느네 아버진 다른 어른 담썩 아넌다.{저 너의 아버지는 다른 어른 같지 않다.}

10226 #1 문딱 입, 호상을 다 이퍼불라.{몽땅 입, 수의 다 입혀버려라.}

10226 #1 게 뭐, 소꼴 꺾 싹 가란 다 이편쥬, 다 이편.{게 뭐 속웃 것 싹 갈아서 다 입혔지, 다 입혀서.}

10226 #1 그날 바멘 문 어두거가는데 그 우린, 크나드리 그때 막 도라댕길 때 난.{그날 밤에는 거의 어두워가는데 그 우리, 큰아들이 그때 막 뛰어다닐 때니까.}

10226 #1 자이 이레 오렐 허라.{재 이리로 오라고 하거라.}

10226 @1 음.{음.}

10226 #1 허난, 독독 두드리멍 “하라버지 아파부난 이레 오지 말라이, 저레 가 불라.”{하니까, 독독 두들기면서 “할아버지 아파버리니까 이리로 오지 마라, 저리로 가버려라.”}

10226 #1 또 우리 집사람도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런따문. 저, 애기어명도 이레 땡기지 말라.{또 우리 집사람도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렀다고. 저, 아기어머니도 이리로 다니지 마라.}

10226 #1 흐, (웃음) 문딱 다올려부런.{하, (웃음) 몽땅 쫓아버렸어.}

10226 #1 어, 이제 계난 우리 저 친족 그 주손 각씨나 이레 오렐 허라 허연.{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친족 그 주손 각시나 이리로 오라고 해라 해서.}

10226 #1 게연 이젠, “는 우리 지바네 드런 고생만 마니 험쩌. 흘 쭈 은따.”{그래서 이제는,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서 고생만 많이 하고 있다. 할 수 없다.”}

10226 @1 음.{음.}

10226 #1 아, 경헨 이제 멘 마디 그 위안해땡.{아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마디 그 위안해두고.}

10226 #1 게 우리 주버네 이제 멘 싸름덜 이제 지켜 안잔 임종을 지켜보는데, 음. (기침){게 우리 주변에 이제 몇 사람들 이제 지켜 앉아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음. {기침}}

10226 #1 그 우머니 달린 그 크노시주게. 그 다 이편는데 아버지가 영 누원 보니까 그 온꼬르미 흥나가 영 이레 영 걸쳐져 시난 고걸 영 고짱 폐우대. 영 꼬옥. {그 우머니 달린 그 큰웃이지. 그 다 입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그 웃고름이 하나가 이렇게 이리로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깐 그것을 이렇게 곧게 펴대. 이렇게 꼬옥.}

10226 @1 당신대로?{당신대로?}

10226 #1 당신대로. 쭈욱 폐와 영.{당신대로. 쪽 펴서 이렇게.}

10226 #1 요, 그 요수건. 이 베개가 쭈 약타벤 모양이라. 게연 요수건 영 아산 간 툃툃켁 저번 납작헨 그레 툃 바치고.{요, 그 요 수건. 이 베개가 좀 알아보인 모양이야. 그래서 요수건 이렇게 가져 가서 툃툃해서 접어서 납작하게 해서 그리로 툃 받치고.}

10226 #1 게연 이 나리 멘 씨나 돼시니?{그래서 이 날이 몇 시나 되었느냐?}

10226 #1 이제 혼 시 뒤편이 허난.{이제 한 시 되었습니다 하니까.}

10226 #1 나 가키여.{나 가겠다.}

10226 #1 겐 눈 툇 깎마부니까 우리 형님.{그래서 눈 딱 감아버리니까 우리 형님.}

10226 #1 아, 내부떠가 조랍따. 저 방에 강 자켄 허길레 난 형님 탁 자받쭈.{아, 나부터가 졸립다. 저 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기에 나는 형님 탁 잡았지.}

10226 #1 아버지 지금쫘.{아버지 지금쫘.}

10226 @1 운명하시는데?{운명하시는데.}

10226 #1 나이떼루 (웃음) 일본말로.{나이떼루 (웃음) 일본말로.}

10226 #1 게 우리 친족들 가서 전부 지그른.{게 우리 친족들 가서 전부 지금은.}

10226 #1 어느 어른 "성니른 잠쨌" (웃음){어느 어른 "형님은 자고 있다"}

10226 #1 게 난 "아이, 무슨 소림니까?" 그 말. 게 가마니 보니까 그게 그자 그, 끄시여. 눈 툇 가마불고.{게 나는 "아니, 무슨 소림니까?" 그 말. 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자 그, 끝이야. 눈 툇 감아버리고.}

10226 #1 게니까 도라가시든 초수렴한다고 허지.{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소림한다고 하지.}

10226 @1 혼, 호는, 호는?{혼, 혼은, 혼은?}

1022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26 #1 게서 내 이제.{그래서 내 이제.}

10226@1 초시렴.{소림.}

10226 #1 초수렴.{소림.}

10226 #1 근데 이젠 뭐 지바네 ㄴ뚝허지 뭐, 뭐. 아는 사람 좀 이제 그 사돈태게 온 사람더리영 그냥 친족더리영 ㄴ뚝 온다.{그런데 이제는 뭐 집안에 가득하지 뭐, 뭐. 아는 사람 좀 이제 그 사돈택에 온 사람들이랑 그냥 친족들이랑 가득 왔는데.}

10226 #1 이젠 숨 거둔 거시 틀림업따고 허는 거이 이해웨니까 초수렴덜 허라고 날리난 거여.{이제는 숨 거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니까 소림들 하라고 난리난 거야.}

10226 #1 초수려든 그게 팔 다리 데와지카부텐 이거 무끄는 거주기게.{소림은 그것이 팔 다리 비뚤어질까봐 이거 묶는 것이지.}

10226 @1 예예예.{예예예.}

10226 #1 헨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헨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10226 #1 그 아버지진 팔 영 우\*\* 팔 구작 노코 발 구작 빼던 꼴작 어, 당신대로 온 꼬름도 댜 폐왕 영 허는 어루닌디 무신.{그 아버지는 팔 이렇게 위\*\* 팔 곧게 놓고 발 곧게 뻗어서 곧게 어, 당신대로 웃고름도 뭉땅 펴서 이렇게 하는 어른인데 무슨.}

10226 #1 게난 ㄴ마니. 이젠 다 나오시렌 방에.{그러니까 가만히. 이젠 다 나오시라고 방에.}



10226 #1 계난덜 \* 주변 주변 싸람드리 전부 나신디 요글 허는 거여.{그러니까  
들 \* 주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저거 보라.” 영.{“저거 봐라.” 이렇게.}

10226 #1 저건만. 지, 지 므음대로 어, 지, 지 원 저 사름 허는 건 누게 막짚 모  
턴다 이거여.{저것만. 저, 저 마음대로 어, 지, 지 원 저 사람 하는 것은 누구 막지  
를 못한다 이거야.}

10226 #1 겐 나에 칠촌 댜는 어른덜토 삼촌덜토 문딱들 망 요커는 거여. 뭐 이  
소, 초수렴 아녕 어떻 허젠 허멘.{그래서 나의 칠촌 되는 어른들도 삼촌들도 몽땅들  
막 욕하는 거야. 뭐 이 소, 소름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10226 #1 하이, 걱정하지 마십써게. 딱 문 봉헨 문 뜨러가게.{하이, 걱정하지 마  
십시오. 딱 문 봉해서 못 들어가게.}

10226 #1 그래서 이제 내, 이제는 뭐 날짜 보는 거여 뭐여 현데.{그래서 이제  
내, 이제는 뭐 날짜 보는 것이다 뭐다 하는데.}

10226 #1 이제 그 문싱현 씨라고 허는 부니 그 매장허는데 상당히 익쭈컨 사르  
미 일써서 그분 아페 에 열락커니까 완 보난 손질할 꺼 하나도 업꺼든.{이제 그 문  
승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매장하는데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 앞에 에  
연락하니까 와서 보니까 손질할 것 하나도 없거든.}

10226 #1 게니까.{그러니까.}

10226 #1 그 영 혼적쌈 달든 거 영 거덩그네 더편 이선는데 영 거던 봐네 기픈  
좀 드러신게.{그 이렇게 혼적삼 같은 거 이렇게 던어서 덮어 있었는데 이렇게 걷어  
서 봐서 기픈 잠 들었는데.}

10226 #1 주무설쨌. (웃음).{주무셨다고. (웃음).}

10226 #1 좀 든 사르를 주겨부런. (웃음) 허, 그.{잠 든 사람을 죽여버렸어. (웃  
음) 하, 그.}

10226 #1 그 나는 벌써 뭐, 혼 새벽 혼 시즈메 도라가선는데 증명헨는데 그 사  
르미 온 건 혼 아홉 씨 열 씨 댜실 때주게.{그 나는 벌써 뭐 한 새벽 한 시쯤에 돌  
아가셨는데 증명했는데 그 사람이 온 것은 한 아홉 시 열 시 되었을 때지.}

10226 @1 다음날 아치메?{다음날 아침에?}

10226 #1 예.{예.}

10226 #1 영 거던 보난 좀 자는 사르를 (웃음) 계난 이상하게 생각허는 거여. 거  
여.{이렇게 걷어서 보니까 잠 자는 사람을 (웃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야. 거야.}

10226 @1 초수렴도 아너고?{소름도 안 하고?}

10226 #1 아, 초수렴도 안 해 누워 이시, 이시나네.{아, 소름도 안 해 누워 있으,  
있으니까.}

10226 #1 게 거 문성현이라고 거, 그 아주 그런 텐 그 익쭈칸 사라미주. 거 항 무니 저, 마니 안 사름.{게 그것 문성현이라고 거, 그 아주 그런 데는 그 익숙한 사람이주. 거 학문이 저, 많이 안 사름.}

10226 #1 경 허이 봉마니 수리나 한 잔 먹짜. 께께 경 허길래.{그렇게 하이 봉만이 술이나 한 잔 먹자. 께께 그렇게 하기에.}

10226 #1 여보세요, 술 머글 생가글 어디 나. 지금 아버지가 도라가셨는데 뭐. {여보세요, 술 먹을 생각을 어디 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10226 #1 잠서, 자는 거, 자는 거 봐서. 하하 (웃음) 그 텍.{자고 있어, 자는 거, 자는 거 봤어. 하하 (웃음). 그 텍.}

10226 #1 그래서 그때더리 침, 아, 이상허다 헐는데.{그래서 그때들이 침, 아, 이상하다 했는데.}

10226 #1 그러니까 내 느끼미 아, 이러케 그 정신 수양을 한 어르는 아, 이런 거시구나 현 걸 내 그때 느껴꼬.{그러니까 내 느낌이 아, 이렇게 그 정신 수양을 한 어른은 아, 이런 것이구나 한 것을 내 그때 느꼈고.}

10226 #1 우리 아버지는 그, 도라가셔도, 도라가실 때도 어, 아까 그 예글 작간 너머가부런찌마는 “어디 간 오라시니?” “이, 이, 어딘 놀레땡기단 와쭈다.”{우리 아버지는 그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때도 어,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넘어가버렸지만 {“어디 갔다 왔느냐?” “이, 이, 어디 놀러다니다가 왔습니다.”}}

10226 #1 요, 굴 꿀 산, 탄 온 거 보난 어디 멀리 거런 와신게.{요, 굴, 꿀 사서, 타서 온 것 보니까 어디 멀리 걸어서 왔는데.}

10226 #1 예.{예.}

10226 #1 게난 어딘 어딘, 봐준, 봐준 디나 이신, 봐저, 보저, 봐둔 디나 이시냐?{그러니까 어디, 봐준, 봐준 데나 있는, 봐저, 보저, 봐둔 데나 있느냐?}

10226 #1 저 교래리 지금 그 조린납, 그딤, 몰 텍썬 머리엔 현디 갑판 와쭈다 허난.{저 교래리 지금 그 조린납, 거기, 말 텍진 머리라고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10226 #1 음.{음.}

10226 #1 그러케 대다핀 후 그거시 꼬신데.{그렇게 대답한 후 그것이 끝인데.}

10226 #1 아, 이젠 도라가셨쓰니까 사람드리 그 우릴 큰형니몬 크나드리니까 딱 명견허는데 예, 최고로 머러야 삼천당.{아, 이젠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그 우리 큰형님은 큰아들이니까 딱 명견하는데 예, 최고로 멀어야 산천단.}

10226 @1 음.{음.}

10226 #1 묘지가. 그 위\* 그 이상 가지 말라.{묘지가. 그 위\* 그 이상 가지 말라.}

10226 #1 무사마썸?{왜요?}

10226 #1 느 혼차만 별초허레도 몬 땡기곡 또 우리 조문꾼도 멀몬 몬 간다.{너 혼자만 별초하러도 못 다니고 또 우리 조문객도 멀면 못 간다.}

10226 #1 그게 형니미 맹령이라.{그것이 형님의 명령이야.}

10226 #1 아랍습니다.{알았습니다.}

10226 #1 겐데 우리 삼춘뽕 똥는 어른드른 봉마니가 어디 유람해둔 디가 실 꺼라.{그런데 우리 삼춘뽕 똥는 어른들은 봉만이가 어디 유람해둔 데가 있을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이러케 헐다고.{이렇게 한다고.}

10226 #1 게니까 우리 형니른 일본 살다 온 어루니니까 아, 그런 거 다 피료업따 이 마리어.{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일본 살다 온 어른이니까 아, 그런 것 다 필요없다 이 말이야.}

10226 #1 일본마를 자꾸 똥 허는 거 똥길레 아, 그런가 보다 똥 크나덜 허는 대로 헐 쭈바게.{일본말을 자꾸 똥 하는 것 같기에 아, 그런가 보다 똥 큰아들 하는 대로 할 수밖에.}

10226 #1 근데 음(기침), 그때 나아페 그 꺾차가 하나 일썌는데.{그런데 음(기침), 그때 나한테 그 지프차가 하나 있었는데.}

10226 #1 아, 이제는 처락파니 인는 사르른 황학싸니, 이제 맨날 그 신문네 나곡 허는 거 황학싼 처락파니라. 게 강원도 사르민데.{아, 이제는 철학관이 있는 사람은 황학산이, 이제 맨날 그 신문에 나고 하는 거 황학산 철학관이야. 게 강원도 사람인데.}

10226 #1 게른 이제 그 사라를 데려단 보자 말자 허는데 그 사름 보는 게 난쭈다, 내가 해버렐따 마려. 그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 경 아너른 이 제주도 정시덜 나실습니다 해연.{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보자 말자 하는데 그 사람 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해버렸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와라. 그렇게 안 하면 이 제주도 지관들 나 싫습니다 해서.}

10226 #1 게 황학싸니 일판 모성 가는데 산천당 오니까.{게 황학산이 일단 모셔서 가는데 산천단 오니까.}

10226 #1 그 사라미 ㄴ똥 차 노니까 아웁, 아웁 명 탈판 마려.{그 사람이 가득 차 놓으니까 아웁, 아웁 명 탔단 말이야.} @1 아이고.{아이고.} #1 꺾차에.{지프차에.}

10226 @1 거 구산해야 할 니리.{거 구산해야 할 일이.}

10226 #1 건디 이 질빠다기 울통불통헌 디 사라미 마니 타니깐 바운들 안 해.{그런데 이 길바닥이 울통불통한 데 사람이 많이 타니깐 바운드를 안 해.}

10226 #1 게 이젠 삼천당 딱 오니까 내가 “삼천당이엔 헐디 이제 다 와쭈다. 이제 이디서 내령 형님 ㄴ으메 든 디 골릅써.” 허니까.{게 이제는 산천단 딱 오니까 내가 “산천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려서 형님 마음에 든 데 고르십시오.” 하니까.}

10226 #1 “그 더 멀리 저 삼춘네 어덜 보아실 꺼옴 허는 디 그덜 문쳐 강 오당

보자.” “경 험씨다.” 행.{“그 더 멀리 저 삼촌네 어디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데 거기를 먼저 가서 오다가 보자.” “그렇게 합시다.” 해서.}

10226 #1 아, 그 이젠 오일룩또로 간 지금 교래리 입구에 간 차 세웁 글로 해연 거런, 삼십 뿐 거런씨.{아 그 이제는 오일룩도로 가서 지금 교래리 입구에 가서 차 세워서 그리로 해서 걸어서, 삼십 뿐 걸었어.}

10226 #1 내리막끼린데 삼십 뿌늘 거런 그디 가니까 그 현장 가니까 도로, 도로. 암석 그 돌덩어리로 막 왕도리주게.{내리막길인데 삼십 분을 걸어서 거기 가니까 그 현장 가니까 도로, 도로. 암석 그 돌덩어리로 막 큰돌이지.}

10226 #1 게 그 근처에 가서 내 그디 간 이 근칩니다이 허니까 그때 안개가 확 자욱컨 이 돌, 돌 위의 사름 무드란 마리냐 그, 아 거난 ㄴ치 간 어룬덜토 그러케 하고, 그 황학싸니도.{게 그 근처에 가서 내 거기 가서 이 근칩니다 하니까 그때 안개가 확 자욱한 이 돌, 돌 위에 사람 묻으라는 말이냐 그, 아 그러니까 같이 간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그 황학산이도.}

10226 #1 황학싸닌 미리 간 봐둔 거 알거든. 게니까 그 장술 절때 알리지 말라 허는 거.{황학산이는 미리 가서 봐둔 것 알거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절대 알리지 말라 하는 것.}

10226 #1 이, 이 요 뱅 메다 이뱅 메다 아넴니다. 가니까 아이, 돌 서덕 우일 사름을 무들라고 허느냐?(웃음).{이, 이 요 백 미터 이백 미터 안입니다. 가니까 아니, 돌 위에 사람을 묻으려고 하느냐? (웃음).}

10226 #1 “자리가 어느 거냐?” 허는데 “자리가 어쭈다, 이 돌 이 근처.” 게니까 경 허자 날씨 짝 개부니까 사방 천지가 흰현 거여.{“자리가 어느 거냐?” 하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이 돌 이 근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날씨가 짝 개버리니까 사방 천지가 흰한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그래서 보니깐 이 사니 그 오르미 등실등실헌 게 뭐, 뭐 어디 춤 비행기 위의 안즌 것처럼 둥둥 떠서 특빠리 그 조케 보니까 우리 그리 무들 떴 거 아니. 건 허자.{그래서 보니깐 이 산이 그 오르미 등실등실한 것 뭐, 뭐 어디 참 비행기 위에 앉은 것처럼 둥둥 떠서 특별히 그 조카 보니까 우리 그리로 문을 댔 거 아닌가. 그건 하자.}

10226 @1 음.{음.}

10226 #1 딱 그, 그 마리여.{딱 그, 그 말이야.}

10226 #1 아, 그러케 요커던 어루니 마리여. 여기 허자. (웃음).{아, 그렇게 육하던 어른이 말이야. "여기 하자." (웃음)}

10226 #1 “고맙습니다.” 헨 딱 절러난 그거 끄시여.{“고맙습니다.” 해서 딱 절하니까 그거 끝이야.}

10226 #1 게 이젠 그딜 와서 그 장살 지낸는데.{게 이제 거기를 와서 그 장사를 지냈는데.}

10226 @1 재난 바리는 언, 언.{그러니까 발인은 언, 언.}

10226 #1 게 이젠.{그래서 이제는.}

10226 @1 성복제도 허고, 바린도 해야 될 꺼 아니?{성복제도 하고, 발인도 해야 될 것 아니?}

10226 #1 다 헐쫌, 다 헐쫌. 지그믐.{다 했쫌, 다 했쫌. 지금은.}

10226 #1 으, 그때는 저, 노인드리 주과늘 누군고 허니 고담용 씨.{으, 그때는 저, 노인들이 주관을 누군가 하니 고담용 씨.}

10226 @1 아, 예.{아, 예.}

10226 #1 부치니 그, 그 어르시는 “소홀히 허믐 아이 웬다이. 봉마니 너 믋음대로 확확 너머가지 모턴다.”{부친이 그, 그 어르신이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봉만이 너 마음대로 확확 너머가지 못한다.”}

10226 #1 딱 그, (웃음) 치믈 줘 노니까 아, 겨고 형님도 완 인꼬 허니까 뭐 뭐, 아이고.{딱 그, (웃음) 침을 줘 놓으니까 아, 그러고 형님도 와서 있고 하니까 뭐 뭐, 아이고.}

10226 #1 “예, 예. 잘 허겔썅니다.” 허영.{“예, 예. 잘 하겠습니다.” 해서.}

10226 #1 겨니까 이젠 그기서부터 그, 옹꺼슬 가루, 갇춘다고 해서 성복헌디마는 어, 나가 이젠 주관하는 거슨 사르미 도라가시며는 슬플 쫌 아라야 웬다.{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 그, 옛것을 가루, 갇춘다고 해서 성복한다고 하지만 어, 내가 이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플 쫌 알아야 된다.}

10226 #1 무신 성, 무신 통두 두거늘 쓰라 뭐 허는, 건 나 안 웬다 이거여.{무슨 성, 무슨 통두 두건을 써라 뭐 하는, 그것은 나 안 된다 이거야.}

10226 #1 나는 어쨌든 내가 하는 대로 허게쫌다 이거여.{나는 어쨌든 내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야.}

10226 #1 베, 베 한쪽 탁 끄너가지고 이디 영 행, 딱 멍 두건 아녀고, 통두건 아녀고.{베, 베 한쪽 탁 꿰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딱 매서 두건 앓고 통두건 앓고.}

10226 #1 표시, 이거 상제. 상주 표기만 허민 뉼 켜디.{표시, 이거 상제. 상주 표시만 하면 될 것인데.}

10226 #1 우리 형님도 영 헐 때는.{우리 형님도 이렇게 할 때는.}

10226 #1 아우 나꼬 테이노? 하이(웃음).{아우 나꼬 테이노? 하이(웃음).}

10226 #1 이런 엉터리 허지 말라 이거여.{이런 엉터리 하지 말라 이거야.}

10226 @1 엔나레 그거시 원치기우다. 엔나레.{옛날에 그것이 원칙입니다. 옛날에.}

10226 #1 아, 그래요?{아, 그래요?}

10226 @1 상보글 이브면.{상복을 입으면.}

10226 #1 음.{음.}

10226 @1 워낙 그퍼니깐.{워낙 급하니깐.}

10226 #1 으응.{으응.}

10226 @1 폴 혼차글 빼영 허는 게 예이우다.{팔 한쪽을 빼서 하는 것이 예웁니다.}

10226 #1 게, 난.{게, 난.}

10226 @1 우리는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나면.{우리는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나면.}

10226 #1 아.{아.}

10226 @1 매받따라고 하는 마리 이쭈다.{매받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226 #1 아.{아.}

10226 @1 매받따.{매받다.}

10226 #1 매받따.{매받다.}

10226 @1 예.{예.}

10226 @1 경황이 업쓰니까 한쪼글.{경황이 없으니까 한쪽을.}

10226 #1 아아.{아아.}

10226 @1 허니깐 건 망이네 대한 예입쭈게.{하니깐 그것은 망인에 대한 예의지요.}

10226 #1 겨난 나, 난 비짜락 탁 끄너단.{그러니까 나, 나는 빗자루 탁 끊어다가.}

10226 @1 네.{네.}

10226 #1 어깨 탁 걸쳐부니까 뭐 그냥 그걸로 통과헐는데. 음.{어깨 탁 걸쳐버리니까 뭐 그것으로 통과했는데. 음.}

10226 #1 그래서 저 예, 구월 구일랄 우리 그 음녀 구월 구일랄 우리 아버지 중명헌 나린데.{그래서 저 예, 구월 구일날 우리 그 음력 구월 구일날 우리 아버지 중명한 날인데.}

10226 @1 중량절랄예?{중양절날요?}

10226 #1 어, 건데 이제 십치릴랄 장살 지낸는데 그, 그게 이제 그.{어, 그런데 이제 십칠일날 장사를 지냈는데 그, 그것이 이제 그.}

10226 #1 장지에 가기 저네 그 지베서 떠날 지금 현재 저 농협. 그니깐 동문농협 지금 그 자리에 그 옛날 그, 공지가 이서난는데.{장지에 가기 전에 그 집에서 떠날 지금 현재 저 농협. 그러니까 동문농협 지금 그 자리에 그 옛날 그, 공지가 있었는데.}

10226 #1 거기에서 그 고별식짱을.{거기에서 그 고별식장을.}

10226 @1 장례시글예?{장례식을요?}

10226 #1 어, 고별식. 고별시글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디 가는데.{어, 고별식. 고별식을 거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 가는데.}

10226 #1 으, 사진사를 내가 두 사람 정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 달라고 헐데.{아, 사진사를 내가 두 사람 정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 달라고 했는데.}

10226 #1 그때 그, 만서.{그때 그 만장.}

10226 @1 만스?{만사?}

10226 #1 만스.{만사.}

10226 @1 예.{예.}

10226 #1 만스가 구십두 장인가 석 쟁인데.{만사가 구십두 장인가 석 장인데.}

10226 @1 아, 마니 드러와따예.{아, 많이 들어왔네요.}

10226 #1 마니 드러와써.{많이 들어왔어.}

10226 #1 그 이제, 그걸 만스덜 기냥 마당에 대에들 과작 해노코, 불덜 막 불켜 노코 허니깐 그 우리 지비 막 그러믄 뭐 흰해부럴쥬게.{그 이제, 그것을 만사들 그냥 마당에 대에들 곧게 해놓고, 불들 막 밝혀 놓고 하니깐 그 우리 집이 막 그러믄 뭐 흰해버렸지.}

10226 #1 근데 그 운상해서 나갈라고 헌 그 찰라에.{그런데 그 운상해서 나가려고 한 그 찰나에.}

10226 #1 아, 누게가 그, 대로 기냥 막 그 뭐세 때리젠 막 해는디 아, 누구가 뭐 뭐워 아잔짜, 무시거 헐짜 막 켜다 마리어, 그게.{아, 누구가 그, 대로 그냥 막 그 무엇에 때리려고 막 하는데 아, 누구가 뭐뭐워 앓았다, 무슨 거 했다 막 한다 말이야, 그것이.}

10226 #1 게 내가 얼른 튀어간 마당에 보니까 썩이, 암썩이 그 우린 현관 지붕 우인 톱 아자서.{게 내가 얼른 뛰어가서 마당에 보니까 썩이, 암썩이 그 우리 현관 지붕 위에 톱 앓았어.}

10226 #1 게서 내,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전부 저 짜그로 도라썩썩.”{그래서 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전부 저 쪽으로 돌아서십시오.”}

10226 #1 그 썩 때리지 마세요.{그 썩 때리지 마세요.}

10226 @1 음.{음.}

10226 #1 썩 딱 이러케 탁 해고 게 아버지 내가 원 내 소느로 이제 혼쫓글 이젠 운상헌 영 나오는데 그 현관 나와가니까 푸르릉헌 소리가 나더라고.{그래서 딱 이렇게 딱 하고 게 아버지 내가 원 내 손으로 이제 한쪽을 이젠 운상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관 나와가니까 푸르릉한 소리가 나더라고.}

10226 #1 아, 보니까 그 동남향 방향으로.{아, 보니까 그 동남향 방향으로.}

10226 @1 뭐시?{무엇이?}

10226 #1 썩이주, 썩, 썩. 나라간.{썩이지, 썩, 썩. 날아갔어.}

10226 #1 그래서 내 흥상인지 길썩인지 알 쭈가 업쓰니까. (전화벨 소리).{그래서 내 흥상인지 길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전화벨 소리)

10226 @1 예, 썩이 느라가서예?{예, 썩이 날아갔다고요?}

10226 #1 썩 이젠 그 현상을 보고 게 이젠 장례식장을 가는데.{그래서 이젠 그 현상을 보고 게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10226 #1 그 워낙 거리가 멀고 기리 업꼬 어, 흑탕길 썩 이서봐야 게 이제 할

쭉 업씨 이제 그 제무시를 비러서 게 요, 그 지금 농협 짜리 그까지는 그 행상헨 그까지 가고.{그 워낙 거리가 멀고 길이 없고 어, 흙탕길 좀 있어봐야 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지엠씨를 빌려서 게 요, 그 지금 농협 자리 거기까지는 그 행상해서 거기까지 가고.}

10226 #1 거기서 고별식 딱 끝나니까 이젠 그 운상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드리, 드리, 교래리 갈 꺼니까 이젠 제무시에 모셔서 가는데.{거기서 고별식 딱 끝나니까 이젠 그 운상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교래, 교래, 교래리 걸 것이니까 이젠 지엠씨에 모셔서 가는데.}

10226 #1 이 조천 우에로 올라간거든, 조천.{이 조천 위로 올라갔거든, 조천.}

10226 #1 근디 절, 조천 아, 저 교래리 몬 드러간 해 가난 우리 형님 건대 버서, 낭에 걸린 건대 버서저도 그 구일짱이거든게.{그런데 저, 조천 아, 저 교래리 거의 들어가서 해가니까 우리 형님은 건대 벗어, 나무에 걸려서 건대 벗어져도 그 구일장이거든.}

10226 #1 막 곤허니까.{막 피곤하니까.}

10226 #1 건대 버서진 겐또 몰르곡 그냥. (웃음){건대 벗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웃음)}

10226 @1 으음.{으음.}

10226 #1 게 건대는 야중에 그 동넨 싸르미 ㅂ . ㅇ 간 완 (웃음) 아이고, 춤.{게 건대는 나중에 그 동네 사람이 주어서 와서 (웃음) 아이고, 참.}

10226 #1 켄디 그 장사를 지내는데.{그런데 그 장사를 지내는데.}

10226 #1 이걸 사لامي 그 노픈 동사한테 하도 마니 가니까 난 그 흑씨나 형님도 일본서 오고 허니까 조문꾸니 마니 오며는 이를 지배서부터 쌀 혼 가마니 따로 실르고 그 다른 차예, 차 하나에 실르곡.{이거 사람이 그 높은 동산인데 하도 많이 가니까 난 그 흑씨나 형님도 일본에서 오고 하니까 조문객이 많이 오면 이를 집에서부터 쌀 한 가마니 따로 실고 그 다른 차예, 차 하나에 실고.}

10226 #1 어, 오일룩도로 그 서귀포 가는 그 거림까지 빠스 흐나 대절허고, 큰 찰 대절허곡 게 이젠 누게 비런 그 물도 거, 내창에 고운 물 이시난 그 물 떠단 밥 진꼭 켄 준빌 딱 켄 이디서 돼야지도 혼 마리 더 잡꼬 헨 다 준비헨 간는데.{어, 오일룩도로 그 서귀포 가는 그 거리까지 버스 하나 대절하고, 큰 차를 대절하고 게 이젠 누구 빌려서 그 물도 거, 내에 고운 물 있으니까 물 떠다가 밥 짓고 할 준비를 딱 해서 여기서 돼지도 한 마리 더 잡고 해서 다 준비해서 갔는데.}

10226 #1 근데 하관 씨가네 그 호충이라고 호충.{그런데 하관 시간에 그 호충이라고 호충.}

10226 @1 네.{네.}

10226 #1 몬 뵈네.{못 보내.}

10226 @1 예. 무슨 떠, 무슨 떠 보지 마.{예, 무슨 떠, 무슨 떠 보지 마.}

10226 #1 예 예.{예 예.}



10226 #1 근데 내가 딱 걸리는 거여.{그런데 내가 딱 걸리는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하관 그 호충에 들길래 온 딱 버선 떼겨둬두고 음, 버선 상복 다 버서 부런찌. 다 번꼬 두건도 안 쓰고, 이 머리엔 일꾼 수건 딱 무껴놔그네.{하관 그 호충에 들었기에 옷 딱 벗어서 던져두고 음, 벗어서 상복 다 벗어버렸지. 다 벗고 두건도 안 쓰고, 이 머리에 일꾼 수건 딱 묶어놓아서.}

10226 #1 겨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담농이 부치니 조케야, 조케야, 조케 삼춘 \*\* 비키쇼.{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담룡의 부친이 조카야, 조카야, 조카 삼춘 \*\* 비키시오.}

10226 @1 아버지한테?{아버지인데?}

10226 #1 예, 무슨 소리. 아, 내가 저 아버지 지블 하나 지어드리는데 무슨 소리, 잔소리허지 마시오.{예, 무슨 소리. 아, 내가 저 아버지 집을 하나 지어드리는데 무슨 소리, 잔소리하지 마세요.}

10226 #1 미신, 말 ㄱ라가문 나 췌목 콕콕 쳐노니까 미친 놈도 아니고, 두르웨도 아니고 이 막 겨니까 가까이들 접퍼질 모터는 거여.{무슨, 말 말해가면 나 죄목 확확 쳐놓으니까 미친 놈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고 이 막 그러니까 가까이들 접하질 못하는 거야.}

10226 #1 게 내가 잘때 딱 가져서 더 파쇼.{게 내가 잤대 딱 가져서 더 파시오.}

10226 @1 음.{음.}

10226 #1 역싸꾼 더 파젠.{행상꾼 더 파려고.}

10226 #1 내가 파라고 허는 데까지 파십쇼. 돌 메경 몰 파네, 무슨 소리 파쇼. {내가 파라고 하는 데까지 파십시오. 돌 막혀서 못 파니까 무슨 소리 파세요.}

10226 #1 게 돌 영 젠디 이견또 돌, 이견또 도리렌 혜영.{게 돌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돌, 이것도 돌이라고 해서.}

10226 #1 제각컨 디서 이 관 짜리만 나오는 거여.{뻑뻑한 데서 이 관 자리만 나오는 거야.}

10226 @1 음, 으음.{음, 으음.}

10226 #1 그 이제 그거, 게니까 흥끔 파가니깐 요마니 내가 더 파렌 현디 이마니 더 팔쭈기. 석 짜 세 치를 파라고 이제 그 무너늘 땀꺼든.{그 이제 그거, 그러니까 조금 파가니깐 요만큼 내가 더 파라고 했는데 이만큼 더 팠지. 석 자 세 치를 파라고 이제 그 문헌을 땀꺼든.}

10226 #1 그까질 내릴라고 난 잣땀 딱 감만 준비허는디 이 사라문 그만 파, 그만 파켄 현디 오니까 그 왕게염지가 장수게염지엔 허자녀.{끝까지 내리려고 나는 잣대를 딱 갖다가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그만 파, 그만 파겠다고 하는데 오니까 그 왕개미가 장수개미라고 하지 않는가.}

10226 #1 놀개 돈 거 이만씩 켜 거.{날대 달린 것 이만큼 한 것.}

10226 @1 네:{네.}

10226 #1 바글바글. 드시니깐 이게 인는 거여.{바글바글. 따뜻하니까 이것이 있는 거야.}

10226 #1 게 더 팝써 허난. 건 술 혼 잔 머거노코 경 아네도 두루엔디 내가, 겐 헨 더 판, 그 저 심추영 씨라고 봉분만 당신 이브로 삼천 개 이상을 썬노라 헨 사르미야. 봉부늘. 그 유명한 하르방인데.{게 더 파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술 한 잔 먹어놓고 그렇게 안 해도 미치광이인데 내가, 그래서 해서 더 파서, 그 저 심추영 씨라고 봉분만 당신 입으로 삼천 개 이상을 썬았노라 한 사람이야. 봉분을. 그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10226 #1 난 내 소느로 봉분 삼천 개를 썬쩌마는 이러헌 두루웬 내 처음 뵈쨌. 이런 도컨 노미 인나. 이 산, 이 돌트명에 뭐 어찌구 저찌구. 아무 소리 말고 일하기 시르면 가쇼.{난 내 손으로 봉분 삼천 개를 썬았지만 이런 미치광이는 내 처음 보고 있다고. 이런 독한 놈이 있나. 이 산, 이 돌틈에 뭐 어찌고 저찌고. 아무 소리 말고 일하기 싫으면 가시오.}

10226 #1 큰 야단 쳐노니까 그걸 다 파단 보니까 아, 오색 \*\* 탁 튀어 나오니까 “아이고, 요노미 아는 노미네. 호호.” (웃음){큰 야단 쳐놓으니까 그것을 다 파다가 보니까 아 오색 \*\* 탁 튀어 나오니까 “아이고, 요놈이 아는 놈이네. 호호.” (웃음)}

10226 #1 조근상제 이거 안 완쩌, 이거.{작은상제 이거 안 오고 있다, 이거.}

10226 @1 음음.{음음.}

10226 #1 아, 거 이제 뭐뭐, 다드플 꺾또 업써. 흔히 하는 말로 그 짝 케서, 끄제 그때.{아, 거 이제 뭐뭐 다듬을 것도 없어. 흔히 하는 말로 그 짝해서, 이제 그때.}

10226 #1 하관 딱 커니까 이제 나 혈 일 다 헨 거지.{하관 딱 하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이지.}

10226 #1 하관 딱 켜는데 그 담롱 씨 부치니 조케야, 조케야. 예. 오늘 이디 사르미 여릴곰 명, 열릴 곰, 열릴곰 명 으신 스변 방에 완쩌.{하관 딱 했는데 그 담롱 씨 부친이 "조카야, 조카야." "예." "오늘 여기 사람이 열일곱 명, 열일곱, 열일곱 명 없는 사방 방에 왔다.}

10226 @1 음.{음.}

10226 #1 뭐 말도 이상헌 마를 곤나 마려. 게난 “밥 즈그켜.” "원 케긴 즈가도 조타마는 밥 즈그경.”{뭐 말도 이상한 말을 말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밥 적겠다.” “원 고기는 적어도 좋다만 밥 적겠다고.”}

10226 #1 걱정허지 맵써게. 쫄 혼 가마니 딱 실껜 와쭈다.{걱정하지 마십시오. 쌀 한 가마니 딱 실어서 왔습니다.}

10226 #1 게난 거기 거기 간 다으메 밥떨 헨다 뭐, 뭐 날리지.{그러니까 거기 거기 간 다음에 밥들 한다 뭐, 뭐 난리지.}

10226 #1 게니까 그 구월 십꾸일런데 그 나리 어떠케 드산는지 아주 헐빼시 쩡

짱하고 그 근처에 볼레낭이 짱 찬는데 어떤 사르른 볼레 두 말 터런쨌.{그러니까 그 구월 십구일인데 그 날이 어떻게 따뜻했는지 아주 햇볕이 짱짱하고 그 근처에 보리수나무가 짱 찬는데 어떤 사람은 보리수 두 말 떨어다.}

10226 @1 음.{음.}

10226 #1 혼 말 터런쨌 허고. 치메 버전 몬 볼레덜, 볼레들 터런. 탄 완쨌 허는데 볼레 탕 완쨌 허는데 볼레들 터런 완쨌.{한 말 떨어다라고 하고. 치마 벗어서 몽땅 보리수들, 보리수들 떨어서. 따서 왔다 하는데 보리수 타서 왔다 하는데 보리수를 떨어서 왔다.}

10226 #1 아, 막 그냥 거 해노니까. 이 사름덜 몬 그 저디까지 거렁 와야 쥔 거 주게. 저 오일룩도로까지.{아, 막 그냥 거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몽땅 그 저기까지 걸어서 와야 쥔 것이지. 저 오일룩도로까지.}

10226 #1 겨난 그러케 헐는데 그때 간따와서 차 서러네렌 현 사르른 혼종, 혼종원 씨. 제주 서규회사 사장.{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다녀와서 차 물어내라고 한 사람은 혼종, 혼종원 씨. 제주석유회사 사장.}

10226 #1 제주에선 그 일류 유지덜 아이라.{제주에서는 그 일류 유지들 아닌 가.}

10226 #1 그 나른 말 아이 ㄴ랄쨌마는 쥔 그 그날 그레 장사를 딱 지낸판 마리어. 장살 지낸는데.{그 날은 말 아니 말했지만 그래서 그 그날 그리로 장사를 딱 지냈단 말이야. 장사를 지냈는데.}

10226 #1 장사 지내된 오니까 사름더리 츠자오는 사르미 이서.{장사 지내두고 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10226 #1 그딘 누게가 간 털 봐시니?{거기는 누구가 가서 터를 봤느냐?}

10226 @1 음.{음.}

10226 #1 어딘 저, 저, 저 육쨌 사름 오란 보난 난 모르쿠다.{어디 저, 저, 저 육지 사람 와서 보니깐 나는 모르겠습니다.}

10226 #1 그딘 지경이 뭘꼬?{거기는 지경이 무엇이니?}

10226 #1 매일 지베덜 사름드리 와.{매일 집에들 사람들이 와.}

10226 #1 아, 거 잘 모릅니다. 그디.{아, 그것 잘 모릅니다. 거기.}

10226 #1 술푸대가 그런 걸 어떻 압니까게.{술고래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10226 #1 게영 그레 그때 그런 이리 인는데.{그렇게 해서 그리로 그때 그런 일이 있는데.}

10226 #1 그 후에 그 김봉현 선생이라고 그, 김구 선생에 팔촌 동생이라고 허드라고.{그 후에 그 김봉현 선생이라고 그, 김구 선생의 팔촌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10226 #1 그 어루니 어릴 때부터 김구 선생 심부르르로 상해에 가서 그 여러 가질 공부헌 그 쟁장헌 그 이 항무늘 헌 부닌 모양이라.{그 어른이 어릴 때부터 김구 선생 심부름으로 상해에 가서 그 여러 가질 공부를 그 쟁장한 그 이 학문을 한 분인 모양이야.}

10226 #1 게 그 부니, 그때 내 그 가서 그, 지베서 운상헨 나오는데 이만이만헨 그 꿩이 온 이리 인썸니다 허니까.{게 그 분이, 그때 내 그 가서 그, 집에서 운상해 서 나오는데 이만이만한 그 꿩이 온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10226 #1 허허, 그 무르블 탁 풀러서 여기선 그 방향이 어떠케 돼느냐고.{허허, 그 무릎을 딱 꿰어서 여기서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고.}

10226 #1 동남쪽입니다 허니까 .{동남쪽입니다 하니까.}

10226 #1 그 당신 사는 지베서 무릎 딱 꾸러서 우찌우찌 절헨.{그 당신 사는 집에서 무릎 딱 꿰어서 우찌우찌 절해서.}

10226 #1 겐 절허고 나선 허는 얘기가 하이, 그 꿩은 산시인데 모셔갠다는 거. {그래서 절하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하이, 그 꿩은 산신인데 모셔갔다는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그 영호늘 모셔갠따 허데.{그 영혼을 모셔갔다고 하대.}

10226 #1 게니까 그때부터 내 그 어루늘 아이, 켜장헌 어루니구나 존경허기 시작커는데.{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그 어른을 아니, 켜장한 어른이구나 존경하기 시작하는데.}

10226 #1 예, 그러헌 이리 인는데 예, 그때 그 거로 출씨닌데 사진관네 사진 다 찌거 달라고 헨는데 그 사진 찌는 사르미 무시, 뭐, 뭔가 그 부속 그 뭐, 카메라에 무시 걸 행 다 못 까전 가니까 완저니 찍질 모테노니까 그때 사지니 업따 마려, 사지니.{예,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예, 그때 그 거로 출신인데 사진관에 사진 다 찍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진 찌는 사람이 무슨, 뭐, 뭔가 그 부속 그 뭐, 카메라에 무슨 것 해서 다 못 가져서 가니까 완전히 찍지를 못해 놓으니까 그때 사진이 없다 말이야, 사진이.}

10226 @1 음.{음.}

10226 #1 예?{예?}

10226 #1 사진 찌경 그 일보네 가져가고 뭇턴디 지베서 찌근 거는 멘 카트가 인는데 그 나쁘 건 장례식 때 찌근 사지니 업꼬.{사진 찍어서 그 일본에 가져가고 뭇하는데 집에서 찍은 것은 몇 커트가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 업고.}

10226 #1 이제 후훤허는 거슨 그때 그 만스가 멩지에 비다네서 만서 드러오는데 그 일본서 드러온 만스들. 이디서, 이딴 싸름덜 만스. 멘, 멘 짱은 이제 내 서른 석 짱은 지베 인는데.{이제 후회하는 것은 그때 그 만사가 명주에 비단에서 만장 들어오는데 그 일본에서 들어온 만사들. 여기서, 여기 사람들 만사. 몇, 몇 장은 이제 내 서른 석 장은 집에 있는데.}

10226 @1 예, 지금도?{아, 지금도?}

10226 #1 예, 인.{예, 있.}

10226 @1 네.{네.}

10226 #1 내 보, 보존행 저거 이제 책 하나 멘들라고 지금 생가글 허는데.{내 보, 보존해서 저거 이제 책 하나 만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10226 #1 종이, 종이를 그 두 장 저, 저, 창호지를 두 장 배저폐가지고 혼 건 막 다 그디서들.{종이, 종이를 그 두 장 저, 저, 창호지를 두장 배접해가지고 한 것은 막 다 거기서들.}

10226 @1 태워둔.{태워둔.}

10226 #1 스라불렌 허데.{살라버리라고 하대.}

10226 #1 아, 계난 그 말 드렁 문딱 스란. 모두 허든 아흔 두 장인가 석 짱이 댜는데 아, 그거슬 그게 내가 후회허는 거, 지금.{아, 그러니까 그 말 들어서 몽땅 살라서. 모두 하면 아흔 두 장인가 석 장이 되는데 아, 그것을 그게 내가 후회하는 것, 지금.}

10226 #1 아 노므 말도 드를 쥔 드러야지, 내가 왜 드런냐고 이거.{아 남의 말도 들을 것을 들어야지, 내가 왜 들었냐고 이거.}

10226 #1 그걸, 그걸 놔 뒤흐든 쾡장한 그 나는 빔 까프젠 허든 비슨 가파야 댜는 거지만 그러나 그 역싼데.{그것을, 그걸 놔 뒤흐면 쾡장한 그 나는 빔 갇으려고 하면 빔은 가파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인데.}

10226 #1 게 그 지금 우리 지배 인는 거, 요저기도 내 폐완 봐쥬게. 지금 으, 에, 어떠케 이제 어디 강 메끼든 돈 적게 들곡 잘 채그로 멘드라지카?{게 그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 요전에도 내 퍼서 봤지. 지금 으, 에, 어떻게 이제 어디 가서 말기면 돈 적게 들고 잘 책으로 만들어질까?}

10226 @1 그러믄네,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그러면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10226 #1 예.{예.}

10226 @1 그 당신대로 온꼬름까지 쥬 케가지고 쥬 폐완끼 때무네 소려믄 안 현 거 아니우쥬예? {그 당신대로 웃고름까지 쥬 해가지고 쥬 뿔기 때문에 소렴은 안 한 것 아닙니까요?}

10226 #1 소렴 안 현쥬.{소렴 안 했지.}

10226 @1 그럼 대려믄?{그럼 대렴은?}

10226 #1 대렴 현쥬.{대렴 했쥬.} @1 네.{네.} #1 대려믄 허는데.{대렴은 하는데.}

10226 @1 예.{예.}

10226 #1 그 염허는 뜨시.{그 염하는 뜻이.}

10226 @1 네.{네.}

10226 #1 내가 왕고지블 부리는 거슨 뼈가 트러질까봐서 여믈 허는 거시니까 나는 그 저 문승현 씨가 그 모든 닐 허는데 내 부타글 현쥬.{내가 왕고집을 부리는 것은 뼈가 비틀어까봐서 염을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저 문승현 씨가 그 모든 일하는데 내 부탁을 했지.}

10226 #1 우리 아버지랑 무끄지 맵쥬.{우리 아버지는 묵지 마십시오.}

10226 @1 음.{음.}

10226 #1 그 얹히는 베는 열두 마디를 하되 묵찌 마쇼. 절때. 이러케 걸쳐, 이게 피워만 노쇼. 묵찌 마십쇼.{그 얹히는 베는 열두 마디를 하되 묵지 마십시오. 절대. 이렇게 걸쳐, 이렇게 퍼 놓으세요. 묵지 마십시오.}

10226 #1 무끝 피료가 업따. 그래서 입판 딱 케도 입판 한 다르메 뭐 풀려고 허자나. 아이, 묵찌 아넝 그냥 과네 입판헐는데.{묵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입판 딱 해도 입판 한 다음에 뭐 풀려고 하잖나. 아니, 묵지 안 해서 그냥 관에 입판했는데.}

10226 @1 그 다르메 성복제도 헐 거 아니우짱예?{그 다음에 성복제도 한 것 아넝니까요?}

10226 #1 성복제 다 헐쥬. 그건 예 그거는.{성복제 다 했쥬. 그것은 예 그것은.}

10226 @1 성복제 음식은 딸드리 차려 완썸니까? 아니면 이사장님미 준비해쥬짱?{성복제 음식은 딸들이 차려 왔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준비했습니까?}

10226 #1 우리 아버지는 따리 일보네 하나 이서도 조총련 계통이니까 내다보지도 모터고 오지도 모터고 허니깐 그 따리 둘 이서도 소용업꼬. 전부 우리 집 싸르미 출린 거지.{우리 아버지는 딸이 일본에 하나 있어도 조총련 계통이니까 내다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니깐 그 딸이 둘 있어도 소용업고. 전부 우리 집 사람이 차린 것이지.}

10226 @1 예.{예.}

10226 #1 우릴 내 나하고 내가 막둥이니깐 그냥 게, 집싸람허고 그자 우리 어머니도 그저 메누리 아덜 하는 대로 하니깐 그냥 그 성복제도 다 그 하나도 그 걸른 거 으시.{우리 내 나하고 내가 막둥이니깐 그냥 게, 집사람하고 그저 우리 어머니도 그저 며느리 아들 하는 대로 하니깐 그냥 그 성복제도 다 그 하나도 그 걸른 것 없이.}

10226 @1 네.{예.}

10226 #1 아버지 성품대로 그냥 하나도 걸르지 아 네서. 다, 다 헐꼬.{아버지 성품대로 그냥 하나도 걸르지 안 해서. 다, 다 했고.}

10226 #1 그 성복제며 뭐 장사 지낸 데는 다 그러케 허고.{그 성복제며 뭐 장사 지내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10226 @1 예.{예.}

10226 #1 음.{음.}

10226 @1 그리고 그 치장, 게니까 이러케.{그리고 그 치장, 그러니까 이렇게.}

10226 #1 치장?{치장?}

10226 @1 예.{예.}

10226 @1 봉부늘 썬는.{봉분을 쌓는.}

10226 #1 \* 예.{\* 예.}

10226 #1 치.{치.}

10226 @1 그땐 눅 빠렁 험떼가?{그때는 눅 빌려서 합디가?}

10226 #1 그러초. 다 그 인제 그건또 음, 그 돌 산땀허는 사름더른.{그렇쥬. 다 그 이제 그것도 음, 그 돌 산담하는 사람들은.}

10226 @1 네.{예.}

10226 #1 함덕 싸람드리 그디까지 와서 허고, 또 그 산터 값.{함덕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고, 또 산터 값.}

10226 @1 네.{네.}

10226 #1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허는 얘기가 그 산터값도 아니 무려, 아니 무려불민 노미집싸리가 댜니까 예, 무려사 댜다 허는 건 평상시에 쓰는 말쓰미라서 아이, 산터까를 물젠 장사 지낸 다오메 보니까 그 땅이 전부가 목짱땅이니까 어디가 어딘지.{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그 산터값도 아니 물어, 아니 물어 버리면 남의집살이가 되니까 예, 물어야 댜다 하는 것은 평상시에 쓰는 말씀이어서 아니, 산터값을 물려고 장사 지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이 전부가 목장땅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10226 @1 누구한테 강 무를 꺾지 모르고.{누구한테 가서 물을 것인지 모르고.}

10226 #1 누구 아페 강 무를 꺾지 이제는 그 동네 그 지경에 인는 비석 비서게 이제 가 더듬꼬.{누구 앞에 가서 물을 것인지 이제는 그 동네 그 지경에 있는 비석 비석에 이제 가서 더듬고.}

10226 #1 근처 그러케 하기로 허니까 아, 그때 이제 산따를 돌덜 막 그 내창에 돌덜 벌러당 그 담허젠 벌르는데 어떤 사르미 와서 자기네 땅이다.{근처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아, 그때 이제 산담을 돌들 막 그 내창에 돌들 깨다가 그 담하려고 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네 땅이다.}

10226 #1 게니까 혼 번 그 땅 주인이 츠자오렌 험쭈다 해서 함덕서 열라기 와서. 켜 이제 그 사르를 츠자간 보니까.{그러니까 한 번 그 땅 주인이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함덕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10226 #1 성안교 신산땀를 어디 성꾸베 사는 사르민디 거기 간 도면 몽크령헌 거 이마니헌 거.{성안교회 신산마루 어디 성밑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도면 몽 툃한 것 이만큼한 것.}

10226 #1 켜 “제가 아무깁니다.” 허난 “아, 그래요?”{그래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10226 #1 “당신네 그 저 산땀 허지 마쇼.” “무사마썸?” 허난.{“당신네 그 저 산담 하지 마시오.” “왜요?” 하니까.}

10226 #1 그 “나 승낙업쓰른 산땀 모테요.”{그 “나 승낙없으면 산담 못해요.”}

10226 #1 “그 누구네 땅입니까?” 허난.{“그 누구네 땅입니까?” 하니까.}

10226 #1 “그 우리, 내 땅이요.”{“그 우리, 내 땅이오.”}

10226 #1 “아, 그럴썸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아, 그렇습니까? 아니고, 미안합니다.”}

10226 #1 그때부터 인제 술도, 맥쭈만 먹때, 그 사르른. 맥쭈 메기곡. 경해식

땅에 강.{그때부터 이제 술도, 맥주만 먹대, 그 사람은. 맥주 먹이고. 경해식당에 가서.}

10226 @1 경해예?{경해요?}

10226 #1 음. 경해식당에 강 밥또 여나쁜 번 메결찌 아마. 게 혼, 혼 사밀 사일 똥안인가 밤 메기고 술 메기고 해네.{음, 경해식당에 가서 밥도 여남은 번 먹였지 아마. 게 한, 한 삼일 사일 동안인가 밥 먹이고 술 먹이고.}

10226 #1 그 어가는 내 그 도며늘 버리지도 아네. 이젠 가서 북꾼청 가서 츠잔 찌. 츠잔 보니까 화북 이창옥 씨.{그 어간은 내 그 도면을 버리지도 안 해. 이제는 가서 북꾼청 가서 찾았지. 찾아서 보니까 화북 이창옥 씨.}

10226 #1 이태심 씨 그 지바니여. 확씨러다고 내.{이태심 씨 그 지반이야. 확실 하다고 내.}

10226 #1 이제는 내가 이이이, 아, 이거 씨머거야 뉘 때가 완꾸나 현 생가기 나.{이제는 내가 이이이, 아, 이거 씨먹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나.}

10226 #1 그래서 이제 그 놈 혼 번 저 칠쌍통 입꾸에 청답다방이라고 이선씨 요.{그래서 이제 그 놈 한 번 저 칠쌍통 입꾸에 청답다방이라고 있었어요.}

10226 @1 청답다방예?{청답다방요?}

10226 #1 청답.{청답.}

10226 @1 예예. 이쭈다, 이씨.{예예. 있습니다, 있어.}

10226 #1 그 청답다방에 가서.{그 청답다방에 가서.}

10226 @1 그 여페 당구장도 이선꼬.{그 옆에 당구장도 있었고.}

10226 #1 일꼬.{있고.}

10226 @1 예.{예.}

10226 #1 그, 그, 그 삼층은 예, 제주도여론혀뵈 사무시리예요. 삼층이.{그, 그, 그 삼층은 예 제주도여론협회 사무실이에요. 삼층이.}

10226 @1 여론혀뵈?{여론협회.}

10226 #1 여론혀뵈.{여론협회.}

10226 @1 아.{아.}

10226 #1 게니까 이 얼론게보단 우이라. 그 여론혀뵈.{그러니까 이 언론계보다는 위야. 그 여론협회.}

10226 #1 게 그디 여론혀뵈 조직부장이야.{게 거기 여론협회 조직부장이야.}

10226 @1 그 사라미?{그 사람이?}

10226 #1 그 사르미.{그 사람이.}

10226 #1 그 이제 다 아란 보니까 그런 사르미야.{그 이제 다 알아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10226 #1 겐 내 청답다방을 간찌. 다방 간 그때는 가오 메다미엔 현 건 문딱 그 한복들 곱게 입꼭 켜 이 마담 불러가지고 이 우에 그 조직뿌장을 내 만나러 온 사 르민데 가서 손니미 찬는다 그래. 오라고 그래.{그래서 내 청답다방에를 갔지. 다방



가서 그때는 얼굴 마담이라고 한 것은 몽땅 그 한복들 곱게 입고 해서 이 마담 불러가지고 이 위에 그 조직부장을 내 만나러 온 사람인데 가서 손님이 찾는다 그래. 오라고 그래.}

10226 #1 강 모성 오랜 허니까 와때요.{가서 모셔 오라고 하니까 왔대요.}

10226 #1 그때덜 그 우리 형님 일본서 오면서 그 저 꼬부런딱 편따 하는 우산. {그때들 그 우리 형님 일본에서 오면서 그 저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우산.}

10226 @1 네, 예예. 이단짜리?{네, 예예. 이단짜리?}

10226 #1 음. 그걸 가지고 그걸 비도 조룩조룩 해오고 허니까 내 그걸 들런 텅 걸썸. 게 청탑다방에 갈 때 그걸 들런 간 이디 영 난는데 그 김 조직부장을 부르니까 이젠 내려왔썸요.{음. 그것을 가지고 그것 비도 주룩주룩 해오고 하니까 내 그것을 들어서 다녔어. 게 청탑다방에 갈 때 그것을 들어서 가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 그 김 조직부장을 부르니까 이젠 내려왔어요.}

10226 #1 내 이레 앞, 안짜마자 여기 간판 댄 뻔 굴걸썸.{내 이리로 앞, 앞자마자 여기 가져다가 몇 번 때렸지.}

10226 #1 이 새끼 이거 마리아.{이 새끼 이거 말이야.}

10226 #1 게니까 아, 사름 주긴다고 \*\*. 게니까 그 삼층에덜 그 여론헌뻬 뿐들 다 나오는 거여.{그러니까 아, 사람 죽인다고 \*\*. 그러니까 그 삼층에들 그 여론헌 회 분들 다 나오는 거야.}

10226 #1 오는 놈마다 다 주긴다 이거여, 이 짜식덜. 칼 \* 확 그 카운터에 드러 간 칼 딱 따마네 이노미 짜식덜 마려.{오는 놈마다 다 죽인다 이거야, 이 자식들. 칼 \* 확 그 카운터에 들어가서 칼 딱 담아서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10226 #1 이 도동놈 소굴 아니여, 이 자식덜. 다 주긴다고.{이 도둑놈 소굴 아닌가, 이 자식들.}

10226 #1 전화 한 탁 들런, 검찰청에서 김명주. 김, 저 수사과장할 때. 김명주 과장 빨리 일로 오랜. 청탑다방인데 도동놈덜 내 여러 놈 지금 자바쓰니까 이 사기꾼들 자바쓰니까 빨리 오라고.{전화 한 탁 들어서, 검찰청에서 김명주. 김, 저 수사과장할 때. 김명주 과장 빨리 이리로 오라고. 청탑다방인데 도둑놈들 내 여러 놈 지금 잡았으니까 이 사기꾼들 잡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10226 #1 수갑 툇 가져와야 된다고. 날릴 치니까 이 새끼덜 어떤 새끼드리 삼층더레 올라가는 또 드라나는 겐또 인꼬. 이노를 딱 자바야 돼. 내가 움직이면 주긴다 헐.{수갑 툇 가져와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 삼층으로 올라가는 또 달아나는 것도 있고. 이놈을 딱 잡아야 돼. 내가 움직이면 죽인다고 해서.}

10226 #1 너 이 이런 도동놈. 처나에 마리아. 땅 도동노민데 이 내 오늘 자받따 이거.{너 이 이런 도둑놈. 천하에 마리아. 땅 도둑놈인데 이 내 오늘 잡았다 이거.}

10226 #1 게난 눈치 보단 화닥 또 돌쥔 허길레 바를 탁 거니깐 이런 새끼는 뼈를 비트려야지, 파를 콕 비트런 콕 자브니까 지가 (웃음) 운동 아녀른 그거 몰터주

게.{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화닥 또 달아나려고 하기에 발을 탁 거니깐 이런 새끼는 뼈를 비틀어야지, 팔을 확 비틀어서 꼭 잡으니까 지가 (웃음) 운동 않으면 그거 못 하지.}

10226 #1 딱 자바지난 김 과장이 온 거야.{딱 잡아지니까 김 과장이 온 거야.}

10226 #1 (웃음) 오는 거 보난 경찰관 하나 데리고 허연. 이거, 이 새끼 수갑 채우렌.{(웃음) 오는 것 보니까 경찰관 하나 데리고 해서. 이거, 이 새끼 수갑 채우라고.}

10226 #1 이 사기, 사기꾼 이 새끼를 그냥 내불르는 내가 이 검찰청을 몬 뒤지블 꺼옴. 내가.{이 사기, 사기꾼 이 새끼를 그냥 내버리면 내가 이 검찰청을 몽땅 뒤집을 것이라고. 내가.}

10226 #1 겐 생야단 천 게 드라나분 거여.{그래서 생야단 쳐서 게 달아나버린 거야.}

10226 #1 나중엔 제주신문에 발표헌 걸 보니까 사기꾸니여.{나중에 제주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사기꾼이야.}

10226 #1 제주도 아네 야구 이사, 며느쫑 어신 이사들, 야구 이사를 삼십 멘 명을 가져, 조사가지고 혼 사름 아페 삼십 멘 마 닐, 삼십오마 닐씩 다 바든 거여.{제주도 안에 야구 이사, 면허증 없는 이사들, 야구 이살를 삼십 몇 명을 가져, 쫓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삼십 몇 만 원, 삼십오만 원씩 다 받은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그 조사허는 데서 다 나온 거여.{그 조사하는 데서 다 나온 거야.}

10226 #1 겐 징역 이 녀느로 딱 나온 거, 징역 이 년.{그래서 징역 이 년으로 딱 나온 거, 징역 이 년.}

10226 #1 게니까 그 노른 각씨가 두런데 혼, 혼 걸, 각썸 갈런 가부런썸 허대.{그러니까 그 놈은 그 각시가 둘인데 한, 한 걸, 각시는 이혼해서 가버렸다고 하대.}

10226 #1 그게 조천 교래리 부원이리 사위.{그것이 조천 교래리 부원일의 사위.}

10226 #1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굽또 간 몬 조사받찌만 내 그 처갓집까지 강 웨 쓸 리른 업꼬 그래서 내 이제 그때 화부게 이창옥 씨이 대게 이젠 우리 집싸라몬 고른 곤델바구니에 그 돌따리 혼나 지고 술 멘 뽕 노코 행 전 그디 간썸.{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밑도 가서 몽땅 조사해봤지만 내 그 처갓집까지 가서 뒤집을 일은 없고 그래서 내 이제 그때 화북에 이창옥 씨의 댁에 이젠 우리 집사람은 가는, 가는 대바구니에 그 돼지다리 하나 지고 술 몇 병 넣고 해서 지어서 거기 갔지.}

10226 #1 가네 나 저 아무개 아드리우다. 아이구, 거 그 성님 춤 도라가시는 데 나 가보도 몰테연 미안허고.{가서 나 저 아무개 아들입니다. 아이고, 거 그 형님 참 돌아가시는 데 나 가보지도 못해서 미안하고.}

10226 #1 그런 게 아니고 이만이만해연 느절씀니다마는.{그런 것이 아니고 이만

이만해서 늦었습니다만.}

10226 @1 거기 산 써쭈텐.{거기 묘소 썼습시다고.}

10226 #1 산턴데.{산터인데.}

10226 #1 아란 보난 삼춘네 바신데 그 그 좌저닌데 사늘 그디 썰썰니다.{알아서 보니까 삼춘네 밭인데 그 그 좌전인데 산을 거기 썼습시다.}

10226 #1 하이고. 그 바 판네 사니 쉬나쁜 자리가 너를 텐데 산터깁 바드렌 츠온 사르쁜 저 사름 흥나바께 으서.{하이고, 그 밭 안에 묘가 쉬남은 자리가 넘을 텐데 멧자리값 받으라고 찾아온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어.}

10226 @1 음.{음.}

10226 #1 문딱 산 써똥 드라나부러. 목장도 아이니까게.{몽땅 묘 써두고 달아나 버려. 목장도 아니니까.}

10226 #1 경 허멍 “저 꼭 바둑써.” 허난 “우리 아부진 그 웨상 흥은 아이 똥텐 해주다. 게난 바둑써.” 허난.{그렇게 하면서 “저 꼭 받으십시오.”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외상 하면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하니까.}

10226 #1 거 삼십, 아닐 꺼라. 그때 삼십팔만 주자. 게 마 뉘늘 딱 채완 드련 썸.{거 삼십, 아닐 거야. 그때 삼십팔만 주자. 그래서 만 원을 딱 채워서 드렸지.}

10226 #1 나 영 마니 아이 받넌 허연. 아, 경해도 나가 가전 온 건 다 드러똥 가쿠다 헐 문딱 드러부러.{나 이렇게 많이 아니 받는다고 해서. 아 그래도 내가 가져서 온 것은 다 드러두고 가겠습니다 해서 몽땅 드러버렸어.}

10226 #1 경 헤연 그 현재까지 인는데 음.{그렇게 해서 그 현재까지 있는데 음.}

10226 #1 그러케 하고 나니까 그 화북 싸름더리 나도 그 화북 잠깐 사람쭈. 흥 일 런 사란는데.{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화북 사람들이 나도 그 화북 잠깐 살았지. 한 일 년 살았는데.}

10226 #1 그 화북 살 때도 소문난 거시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사삼사건 이러날 때 그 구물코들 지네가 드러강 그 그물 밋진 그물코에 드러강 문 주글 걷뜨리 거멍 이 동네 이를 묻터게 흥 어루닌데.{그 화북 살 때도 소문난 것이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사삼사건 일어날 때 그 그물코들 지네가 들어가서 그 그물 맺은 그물코에 들어가서 몽땅 죽을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동네 일을 못하게 한 어른인데.}

10226 #1 우리 아부지 딱 그 뉘를 생가커는 게 일써서 어, 쉼 두 머리 파라가지고 게 우리 어머닌 풀지 묻터게 그때 곡씩도 우리 지벤 뱅, 뱅작켄찌만 곡씨기 상당이 마니 드런는데 어머닌 풀지 묻터게 우리 아버진 거 푼랑 해변 내려가게.{우리 아버지 딱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어, 소 두 마리 팔아가지고 게 우리 어머니는 팔지 못하게 그때 곡씩도 우리 집에는 뱅, 뱅작했지만 곡식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팔지 못하게 우리 아버지는 거 팔아서 해변 내려가자고.}

10226 #1 우리 어머니허고 매날 싸워보젠 아버지하곡 입 다툼헤영.{우리 어머니 하고 매날 싸워보려고 아버지하고 입다툼해서.}

10226 #1 경헌디 그때 그러면는 쉼 두 머리만 푼랑 혼 머리 푼 건 봉마니 나 주크메 이제 오는 세상은 누게 아더리 아버지를 못 살리고, 아버지가 아덜 못 살린덴.{그런데 그때 그러면 소 두 마리만 팔아서 한 마리 판 것은 봉만이 나 주겠으니 이제 오는 세상은 누구 아들이 아버지를 못 살리고, 아버지가 아들 못 살린다고.}

10226 #1 느 가고픈 딜로 가라.{너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10226 @1 음.{음.}

10226 #1 게영 목숨만 본명허면 조은 세상이 도라올 꺼시니까 그러케 해라 해서 쉼 푼 돈 용만 화니여, 용만 환. 엔날 \*\*. 이만헌 그걸 나를 준 거여.{그렇게 해서 목숨만 유지하면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소 판 돈 육만 환 이야, 육만 환. 옛날 \*\*. 이만큼한 그것을 나를 준 거야.}

10226 #1 게 그거슬 내 바다서 건또 그 저 음덕 시월 열흘날 밤 혼 두 시즈메 그, 그 우리 웨하라버지 재산나리거든.{게 그것을 내 받아서 그것도 그 저 음력 시월 열하룻날 밤 한 두 시쯤에 그, 그 우리 외할아버지 제삿날이거든.}

10226 #1 제사 마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헤어전는데 그때 그 도늘 가전 간 이제 그거는 영평 우의 그 황금마루엔 헌 속칭허는 그 언덕빼기 인는디 그디 도늘 간따 이 종이도니니까 뭐세 곱절 꺼냐 이거.{제사 마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그 돈을 가져서 가서 이제 그것은 영평 위에 그 황금마루라고 한 속칭하는 그 언덕배기 있는데 거기 돈을 가져다가 이 종이돈이니까 무엇에 숨길 것이냐 이거.}

10226 #1 게영 뭐 어디 질 예염 덩기다 보니까 그 간스메통.{그래서 뭐 어디 질 옆에 다니다 보니까 그 통조림통.}

10226 @1 예, 통조림. 음.{예, 통조림. 음.}

10226 #1 통조림통 벌거케 녹슨 게 봐지길레 그 그걸 이제 갈헝겂, 갈헝벅 박버런 이젠 그거세 푼톨 므란 그디 간 용만 환 다 드러가요, 거기에.{통조림통 벌겅게 녹슨 게 보이기에 그 그것을 이제 갈헝겂, 갈헝겂 박 찢어서 이젠 그것에 푼톨 말아서 거기 가서 육만 환 다 들어강, 거기에.}

10226 #1 게영 그걸 대막땡이 영 께연 아, 저 돌 응덕 고망 난 데 간 이거 디무런따, 디무란 다른 돌썰기로 허연 마가부난 이젠 보이지도 아너고 우에도 산돌, 아래도 산도리거든.{그래서 그것을 대막대기 이렇게 께서 아, 저 돌 언덕 구멍 난 데 가서 이거 집어넣었다, 집어넣어서 다른 돌맹이로 해서 막아버리니까 이젠 보이지도 앓고 위에도 산돌, 아래도 산돌이거든.}

10226 #1 게난 그디 누게 드러가지도 모털 디 곱짜된 그 혼 삼년 드라난 텅결쭈.{그러니까 거기 누구 들어가지도 못할 데 숨겨두고 그 한 삼년 달아나서 다녔지.}

10226 #1 켜 그 사삼사건 때 이젠 그디서 무신 완 석빵해연 어느 날 그 화북 살땡디 이 방송에 나오기를 여기서 스 키로까지 아이, 저 저, 이 키로까지 지들커허레허, 가라고 허용한다.{그래서 그 사삼사건 때 이젠 거기서 무슨 와서 석방해서 어느

날 그 화북 살 때인데 이 방송에 나오기를 여기서 사 킬로까지 아니, 저 저, 이 킬로까지 땀감하러 허, 가라고 허용한다.}

10226 #1 에이, 이 킬로가 어딘지 뭐 스 킬로가 어딘지 난 우리가 그 스 킬로쯤 댜는 덴디 게 아버지영 가는데 태극길 지게 그 화부근 맨 지게라.{에이, 이 킬로가 어디인지 뭐 사 킬로가 어디인지 난 우리가 그 사킬로쯤 되는 데인데 게 아버지랑 가는데 태극기를 지게 그 화북은 맨 지게야.}

10226 #1 지게까다래 태극길 드라멩 가며는 어떻 아넌다 허는 마를 드렐따 이거여.{지겟다리에 태극기를 매달아 가면 어떻게 앓는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거야.}

10226 #1 게 이젠 아, 태국끼를 멘들젠 허니까 어디 종이가 일썤야지.{게 이제 는 아, 태극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디 종이가 있어야지.}

10226 #1 게 화북 우, 우쩡빵옌 현 그 아플 영 가단 보니까 그 반지 달른 저, 여자 고무신 싸난 종이가 질 ऐ여메 퍼뜩퍼뜩 느람길레 아, 그걸 가전 그 우쩡빵에 간 이거 지빔 종이우파? 허난 오, 거 그 고무신 싸난 거여.{게 화북 위, 윗점방이라고 한 그 앞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반지 같은 저, 여자 고무신 찢던 종이가 길 옆에 퍼뜩퍼뜩 날고 있기에 아, 그것을 가져서 그 윗점방에 가서 이거 집의 중 입니까? 하니까 그래, 거 고무신 찢던 거다.}

10226 #1 “훈 장 더 줍써.” 허난 “더 가전 가렌.” 주더라고.{“한 장 더 주십시오.”하니까 “더 가져서 가라고.” 주더라고.}

10226 #1 그걸 가전 완 하이고, 태국끼 어떻사 생겨신디 멘들긴 멘드러야 댜 쩌다.{그것을 가져와서 하이고, 태국끼 어떻게야 생겼는지 만들기는 만들어야 댜 것인데.}

10226 #1 겐 이제 그 화북 리사무소.{그래서 이제는 그 화북 리사무소.}

10226 @1 네.{네.}

10226 #1 그디 간 영 보난 태국끼가 일땡, 그디.{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태국기가 있대, 거기.}

10226 #1 그걸 판 지비 오란 이젠 거문 건 슴, 소창에 글건 수꺼멩이 헨 멘들고 아 불근 무리 이서야지게.{그것을 봐서 집에 와서 이젠 검은 것은 슴, 슴바닥에 굵어서 슴검정 해서 만들고 아 붉은 물이 있어야지.}

10226 #1 겐 그 우리 사는, 그 우리 아부지네 사는 그 안찌비 기레 영 간 보난 이레저레 슬피단 보니까 멘드라미꼴.{그래서 그 우리 사는, 그 우리 아버지네 사는 그 안집의 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리저리 살피다가 보니까 멘드라미꽃.}

10226 @1 음.{음.}

10226 #1 벌겅헐길레 아, 그건 간 모지러단 이젠 더운무레 간 막 뵤단 쩌쩌네 그걸로 헨 이젠.{벌겅길레 아, 그것 가서 잘라다가 이젠 더운물에 가서 막 뵤다가 찌서 그것으로 해서 이제는.}

10226 @1 겅헨 막.{그렇게 해서 마구.}#1 꼬슬 드리고.{꽃을 들고.}

10226 #1 불근물 멘들고 아, 그 딴는 놀 이레저레 헨 어지런 누게 대 길게 허옌

이제 지겐까다레 딱 무꺼아전.{끓은물 만들고 아, 거기 있는 옷 이리저리 해서 대충 해서 누구 대 길게 해서 이제 지겟다리에 딱 묶어가지고.}

10226 #1 겐 아버지 지들커허레 그룹써 허난.{그래서 아버지 땔깜하러 갑시다 하니까.}

10226 #1 글라.{가자.}

10226 #1 이 가난 요 혹 그 ㄴ린테기엔 현 거 지금 이 질 동네 가는 도로주게. 그디쫘 가난 “멀리 가지 말라 이디서 탕 가게.”{이 가니까 요 학 그 고린테기라고 한 거 지금 이 길 동네 가는 도로지. 거기쫘 가니까 “멀리 가지 마라 여기에서 해서 가자.”}

10226 #1 게 아버진 영 보난 무시거 검지리영 무시거영 \*\* 그레 톱 드런 가부는 거라.{게 아버지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것 검불이랑 무슨거랑 \*\* 그리로 톱 들어 가버리는 거야.}

10226 #1 영 눈치 보단 아버지 아이 볼 때 드라나야지. (웃음){이렇게 눈치 보다가 아버지 아니 볼 때 달아나야지. (웃음)}

10226 #1 영 눈치보단 이젠 지겐 그디 놔두고 그.{이렇게 눈치보다가 이제는 지게는 거기 놔두고 그.}

10226 @1 태극끼만 들렁?{태극기만 들어서?}

10226 #1 긴때만 얼른 뻔 사라난 디 강 돈 곱쥔 거, 걸 츠자, 츠자와살 꺼 아니. {깃대만 얼른 빼서 살았던 데 가서 돈 숨긴 거, 그것을 찾아, 찾아와야할 것 아니.}

10226 #1 \* 이젠 막 죽끔살금 드라간 몬 어두거가는데 보니까 아, 그 별정허게 녹슨 게 그냥 이서.{\* 이제는 막 주고살고 달려가서 거의 어두워가는데 보니까 아, 그 별정게 녹슨 것이 그냥 있어.}

10226 #1 아, 보긴 보고 이걸 하, 아이 소니 드러가야 이걸 \*\*. {아, 보기는 보고 이것을 하, 아니 손이 들어가야 이것을 \*\*.}

10226 #1 하이고, 하이고 이 생돌 트명에 간 접썸분 거. 이게.{하이고, 하이고 이 생돌 틈에 가서 끼어버린 거. 이것이.}

10226 #1 하이, 훌 쭈 어시 저 이걸 썸 믏으레 사름덜 사라난 디 수리대 일꼴레 간 주글 히물 내고 막 그, 게 대나무 뿌리가 곧짱 이러케 꼬부라지는 걸 내 그때 아란는데.{하이, 할 수 없이 저 이것 저 마을에 사람들 살았던 데 이대 있기에 가서 죽을 힘을 내고 막 그, 게 대나무 뿌리가 곧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내 그때 알았는데.}

10226 #1 그걸 이제 헤지길레 조금조끔 나간.{그것을 이제 해졌기에 조금조끔 낚아서.}

10226 @1 등견? 음.{당겨서? 음.}

10226 #1 등견 보니까 야, 갈험버근 이: 녹슨 깡통에 바짝 혼슬 뒤통고 종일 편 썸험때.{당겨서 보니까 야, 갈험겁은 이 녹슨 깡통에 바짝 한살 되어버리고 종이는 깨끗했대.}

10226 @1 음.{음.}

10226 #1 편쩍컨 새 종이라.{깨끗한 새 종이야.}

10226 #1 이거슬 이젠 배쓰고베 (기침) 다만 곱편.{이것을 이제 뱃속에 (기침) 담아서 숨겨서.}

10226 #1 게 나 아버지 알든 이제 또 이제 이놈 사나이, 사네 올라간젠 그 달쁘니깐 부지러니 간.{게 나 아버지 알면 이제 또 이제 이놈 산에, 산에 올라갔다고 그 같으니깐 부지런히 가서.}

10226 #1 막 어실목 뻘연 이젠 보난 우리 아버지도 환장한 거지.{막 어스름 되어서 이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환장한 것이지.}

10226 #1 지젠 일꼬.{지게는 있고.}

10226 @1 음.{음.}

10226 #1 사르른 업꼬.{사람은 없고.}

10226 #1 게난 지게에 무신 거 검질 흐끔 무편 영 질머전 ㄱ마니 뉘 우리 아버지 이젠 이노므 즈식 어딘 또 어드렌 기어날꾸나 헨 아부지만, 아부지만 그 지들커 정 오젠 혈 무려베 내가 탁.{그러니까 지게에 무슨 것 검불 조금 묶어서 이렇게 짚어져서 가만히 놓아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이놈의 자식 어디 또 어디로 도망갔구나 해서 아부지만, 아부지만 그 땀감 저서 오려고 할 무렵에 내가 탁.}

10226 #1 돌려완 아부지, 탁 아버지 아페 귀쪽말로 “돈 가전 와쭈다, 돈. 돈 기냥 이십떠다. 쉼 폰 돈 기냥 이십떠다.”{달려와서 아버지, 탁 아버지 앞에 컷속말로 “돈 가져서 왔습니다, 돈. 돈 그냥 있습니다. 소 판 돈 그냥 있습니다.”}

10226 #1 게난 아부지도 귀가 오썩헌 거여.{그러니까 아버지도 귀가 솔깃한 거야.}

10226 @1 음.{음.}

10226 #1 이런 이런, 어디 일찌?(이런 이런, 어디 있지?)

10226 #1 이 쏘깁니다. 아하.(웃음){이 속입니다. 아하. (웃음)}

10226 #1 게난 우리 아부진 이제, 겐 이젠 아부지가 그거 이녁 문딱 우리 아버지 보난 갈중이 이중으로 이벌떼.{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그거 이녁 몽땅 우리 아버지 보니까 갈중의 이중으로 입었대.}

10226 #1 게난 갈중일 영 뒤흔난 그 주머니가 뒤흔 거여.{그러니까 갈중의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 주머니가 되는 거야.}

10226 하.{하.}

10226 @1 음.{음.}

10226 #1 가달 영 일짜나.{다리 이렇게 있잖아.}

10226 #1 겐 이제 춤 존뜩 존똥이 무편 겐 지들커 흐끔 헨 싹끄고 헤연 ㄱ치 완쭈게. 야.{그래서 이제 참 단단히 잔등이 묶어서 그래서 땀감 조금 해서 싹고 해서 같이 왔지. 야.}

10226 @1 잠깐만네?{잠깐만요?}

10226 @1 일판 그 장사를 다 지, 지내고 난 다음에 우제도 하지 아늑니깁예?  
초우제, 재우제.{일단 그 장사를 다 지, 지내고 난 다음에 우제도 하지 않습니까요?  
초우제, 재우제.}

10226 #1 예, 우린 하나도 빠지지 아녕 이제 그 산소에서 인제 그 몸제를 혼 번  
지내고 지배 와서는 인제 그 초우, 재우, 사무.{예, 우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그 산소에서 이제 그 몸제를 한 번 지내고 집에 와서는 그 초우, 재우, 삼우.}

10226 @1 예.{예.}

10226 #1 다 허영.{다 해서.}

10226 @1 졸곡?{졸곡?}

10226 #1 졸곡 다 허곡.{졸곡 다 하고.}

10226 @1 그 다음에 소상, 대상?{그 다음에 소상, 대상?}

10226 #1 그 계난 우린 초하루 보름.{그 그러니까 우리는 초하루 보름.}

10226 @1 상망?{삭망?}

10226 #1 상망제를 다 헐쥬.{삭망제를 다 했지.}

10226 @1 예.{예.}

10226 #1 초하루, 보름.{초하루, 보름.}

10226 @1 상식커고예?{상식하고요?}

10226 #1 상식카고.{상식하고.}

10226 @1 음.{음.}

10226 #1 상시기 꼭 해야 되는 거시 그 하나 조은 게 인는 거시.{상식이 꼭 해  
야 되는 것이 그 하나 좋은 것이 있는 것이.}

10226 #1 그 상식또 허는데 그 큰 상 싱근 ㄴ마니 아버지 상에 인는데 우리 아  
이덜 그 흑표 가명.{그 상식도 하는데 그 큰 상 차린 가만히 아버지 상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 학교 가면서.}

10226 @1 하르버지?{할아버지?}

10226 #1 “하르버지 학교 간따 오겜습니다.” 허는 거. 간따 오면 “하르버지 학  
교 간따 완습니다.” 허고.{“할아버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것. 갔다 오면  
“할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10226 #1 또 이제 무시 거 그 음식도 간땅 올령 하르버지 상에 간따 올리고.{도  
이제 무슨 것 그 음식도 갔다가 올려서 할아버지 상에 갔다 올리고.}

10226 #1 이거는 상당한 교유기 돼요.{이것은 상당한 교육이 돼요.}

10226 @1 음음.{음음.}

10226 #1 그래서 그건 우리 이제 게 하루도 빠지지 안코 그 삼년상 다 그러케  
허고.{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제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삼년상 다 그렇게 하고.}

10226 @1 담제도 허고예?{담제도 하고요?} #1 그.{그.}

10226 #1 담제, 담제 다 해연 이젠 그뎨 제사로 드러갈찌마는.{담제, 담제 다 해



서 이제는 그때는 제사로 들어갔지만.}

10226 @1 예. (헛기침){예. (헛기침)}

10226 #1 그:때마다 내 뭘로 저거 오신 분들 대접헤는고 허니.{그때마다 내 무엇으로 저것 오신 분들 대접했는가 하니.}

10227 @1 아, 그러면 부고는 어떻 내쭈과?{아, 그러면 부고는 어떻게 났습니까?}

10227 #1 부고는.{부고는.}

10227 @1 예.{예.}

10227 #1 쯤 사람 보냈쎄요.{저 사람 보냈어요.}

10227 @1 보넨? 음음음.{보넨? 음음음.}

10227 #1 부고는 널리 가는 데는 우리 아버지에 누니미 그 노형 그디 이제 우리 아버지 누니미 그, 그 동네 씨집가니깐 그쪽커고.{부고는 널리 가는 데는 우리 아버지의 누님이 그 노형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 누님이 그, 그 동네 시집가니깐 그쪽 하고.}

10227 #1 화부근 우리 아버지에 조근누니미.{화북은 우리 아버지의 작은누님이.}

10227 @1 음.{음.}

10227 #1 가고.{가고.}

10227 @1 사람 보냈예?{사람 보내서요?}

10227 #1 사름 보내고.{사람 보내고.}

10227 @1 음.{음.}

10227 #1 또 그 나머진 뭐, 다 사라를 저 보냈쎄요.{또 그 나머지는 뭐, 다 사람을 저 보냈쎄요.}

10227 #1 그 부고를 보내젠 해도 천상 사라미 가져가야 되니까.{그 부고를 보내려고 해도 천생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10227 @1 음.{음.}

10227 #1 쯤 게 사라미 직접 가서 전부 부고 나쭈다, 부고 나쭈다 헤 다 전헤. {그래서 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부 부고 났습니다, 부고 났습니다 해서 다 전해서.}

10227 @1 그러믄 그 친척뜨린 경우는 고저글 해오지 아눔니깁예?{그러면 그 친척들인 경우는 고적을 해오지 않습니까요?}

10227 #1 그:.{그.}

10227 @1 고적, 고적?{고적, 고적?}

10227 #1 고저글 이제 그 정헌 게 일쑤. 이제 그 우리 그 근조게는 그 옛날 그 고적 차룽을 해서.{고적을 이제 그 정한 것이 있쎄. 이제 그 우리 그 근족에는 그 옛날 그 고적 채룽을 해서.}

10227 @1 네.{예.}

10227 #1 허는데 음, 신시그로 그 사삼사쎄 그 그 불 마잔 오니깐 정신덜 업쎄

니까 그거슬 집집마다 해오렌 허며는 엔날 해난 시그로 허며는 몰 툴 지비 일써.  
몰 툴 싸람드리 일쓰니까.{하는데 음, 신식으로 그 사삼사건 그 그 불 맞아서 오니  
간 정신들 없으니까 그것을 집집마다 해오라고 하면 옛날 했던 식으로 하면 못 할  
집이 있어. 못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10227 #1 두건 쓸 싸르미랑.{두건 쓸 사람이랑.}

10227 #1 저 빈소네덜 오라.{저 빈손애들 와라.}

10227 @1 음.{음.}

10227 #1 또 여자 어른덜 올 때랑 상이나 상, 향.{또 여자 어른들 올 때는 향이  
나 향, 향.}

10227 @1 향, 예.{향, 예.}

10227 #1 향이나 뎀 깨씩 가정와도 조코, 그 향까지거든. 향까지.{향이나 뎀 개  
씩 가져서 와도 좋고, 그 향까지거든. 향까지.}

10227 @1 예.{예.}

10227 #1 게난 향까지고, 상까지 상까지 해서 그 가져오라 현 디고.{그러니까  
향까지고, 향까지 향까지 해서 그 가져와라 한 데고.}

10227 #1 사돈찌베는 그 죽 썬 오는 거니까, 게 이제 그 우릴 중형은 사도니 신  
초니니까 그래서 꼴쭈덜 주고.{사돈집에는 그 죽 썬서 오는 것이니까, 게 이제 그  
우리 중형은 사돈이 신촌이니까 그래서 팔죽들 주고.}

10227 #1 게 우릴 엔날씩 그냥 그대로 다 허는데 그 고적 받는 거슨 우리 어머  
니미 “이제 문딱 살기덜 어려와부난 고적, 고적이랑 받찌들 말라. 우리 가프지도 모  
턴다.” 게 고적 아이 바단.{게 우리는 옛날식 그냥 그대로 다 하는데 그 고적 받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몽땅 살기들 어려워버리니까 고적, 고적이랑 받찌들 말  
라. 우리 갇지도 못한다.” 게 고적 아니 받았어.}

10227 @1 과는 지배서 찬 거지예?{관은 집에서 짠 것이지요?}

10227 #1 과는 그 내가 이제 (웃음) 그 이남귀니엔 현 부니 “혹씨나 느 저 진너  
리나 준비행 놔두지 아느크냐?” 허나네 “허쿠다.” 허난 “겨른 나 어디 진널, 진널  
혈 때랑 곁겐 해보라게.” “아라쭈다.” 행.{관은 그 내가 이제 (웃음) 그 이남권이랴  
고 한 분이 “혹씨나 너 저 긴 널이나 준비해서 놔두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겠습  
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 어디 긴 널, 긴 널 할 때는 말하거든 해봐라.” 해서.}

10227 #1 겐 그때 갑따오다 허거늘 영 그 어른 만나른 “언제 낭 끄늘 꺼우팡?”  
허난 “이제 홀 때 뒹엄찌.” 허믄.{그래서 그때 갑따오다 하거늘 이렇게 그 어른 만  
나면 “언제 나무 자를 겁니까?” 하니까 “이제 할 때 되고 있다.” 하면.}

10227 #1 게 혼 버는 진널 오랑 골라 가라.{게 한 번은 긴 널 와서 골라 가라.}

10227 #1 게 어머니, 아버지 쓸 걸 혼꺼버네 간 험 구루마에 싣겐 지배 완.{그  
래서 어머니, 아버지 쓸 것을 한꺼번에 가서 해서 달구지에 실어서 집에 와서.}

10227 #1 드람. 어디 놀 떠가 업쓰니까 우리 지븐 (숨소리) 그 새로 절, 기와지  
블 지어 노니까 집 반네 놀 떠는 업써요. 춤, 집 바깥떠 이제 그 집까지 아래 해단

영 영 세완 몰럼시난 우리 아버지가 혼 번 영 완 판.{매달.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숨소리) 그 새로 지어서, 기와집을 지어놓으니까 집 안에 놓을 데는 없어요. 참, 집 밖에 이제 그 처마 아래 해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말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 이렇게 와서 봐서.}

10227 #1 아방 주글 떠 지다람시냐?{아버지 죽을 때 기다리고 있느냐?}

10227 @1 (웃음)

10227 #1 하이, 야 그. “아이, 프라불쿠다게.”{아이, 야 그. “아니 팔아버리겠습니다.”}

10227 #1 그 우치는 풀지 아넌다.{그 위친은 팔지 않는다.}

10227 @1 음.{음.}

10227 #1 우친.{위친.}

10227 @1 우친?{위친?}

10227 #1 음.{음.}

10227 #1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가져온 거 우치니엔 허데이.{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가져온 것 위친이라고 하대.}

10227 #1 우치는 풀지 아넌다.{위친은 팔지 않는다.}

10227 #1 저건.{저것.}

10227 @1 잘 놔두라.{잘 놔둬리.}

10227 #1 저처럼 놔두면 귀트렁 못 쓴다.{저렇게 놔두면 귀 비틀어져서 못 쓴다.}

10227 #1 “어떻 놔둬니까?”{“어떻게 놔둬니까?”}

10227 #1 몽낭 영 낱 몽낭 몬 낱 일로 베 거렁 영 행 무경 놔두며는 경 허고 우의 돌로.{나무때기 이렇게 놓아서 나무때기 몽땅 놓아서 이리로 바 걸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놔두면 그렇게 하고 위에 돌로.}

10227 #1 게난 판자와 판자 사이에 몽낭을 노코 또 노코 판자 혼 장 놔서 게 베 거렁 영 드라매영 이 가운데.{그러니까 판자와 판자 사이에 나무때기를 넣고 또 넣고 판자 한 장 놓아서 게 바 걸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이 가운데.}

10227 @1 바람 통하게?{바람 통하게?}

10227 #1 도늘, 뭐 도를 늘렁 놔둬야 귀틀 잘 난다 이거.{돌을, 뭐 돌을 늘려서 놔두어야 귀틀 잘 난다 이것.}

10227 #1 겐 그대로 헨 낱판 그거 썰쭈, 그냥.{그래서 그래도 해서 놔두었다가 그거 썰지, 그냥.}

10227 @1 음,(숨소리) 예.{음, (숨소리) 예.}

10227 #1 그니까 그거 그런 거 저런 거시.{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 저런 것이.}

10228 @1 게난 아까 음, 지베서 그 장례식장까지는 운구를, 운상을 헬메메예?{그러니까 아까 음, 집에서 그 장례식장까지는 운구를, 운상을 했대며요?}

10228 #1 예.{예.}

10228 #1 예, 행상, 행상.{예, 행상, 행상.}

10228 @1 행상?{행상?}

10228 @1 그때 노래도 불르지 아님네깁? 행상노래? 상여노래?{그때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행상소리? 상여소리?}

10228 #1 불르고 말고 그 선소리 허는 사람 뭐.{부르고 말고 그 선소리 하는 사람 뭐.}

10228 @1 혹씨 그?{혹시 그?}

10228 #1 허는 사람. 몰라 건 잘 그건 난 노랜 못 불러.{하는 사람. 몰라 그것은 잘 그것은 나는 노래는 못 불러.}

10228 @1 그 다음에 봉분 다질 때도?{그 다음에 봉분 다질 때도?}

10228 #1 아이고, 봉분 다질 때야 막 그냥 그.{아이고, 봉분 다질 때야 막 그냥 그.}

10228 @1 진통꾼 노래?{진통굿 노래?}

10228 #1 아이고, 저 그 달구.{아이고, 저 그 달구.}

10228 @1 예.{예.}

10228 #1 달구 진는 노래가 쾡장하주, 그.{달구 쫓는 노래가 쾡장하지, 그.}

10229 @1 그러믄네, 그건 뭐 이사장님 노래 못 부르니깐 건 쾡찬코. 그러면 그때 음식은 어떤 거 어떤 거 준비헔던 거 갠쭈광? 지베서.{그러면요, 그것은 뭐 이사장님 노래 못 부르니깐 그것은 쾡창고. 그러면 그때 음식은 어떤 것 어떤 것 준비헔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10229 #1 그:.{그:}

10229 @1 일판 밥또 일쌍썸그로 명는 바비 아니지 아네나쭈광예?{일판 밥도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요?}

10229 #1 불근 \* 폭슨 다 드러가.{불은 \* 팔은 다 들어가.}

10229 @1 아.{아.}

10229 #1 불근 팔.{불은 팔.}

10229 @1 잔치 또 마찬가지로예?{잔치 또 마찬가지로요?}

10229 #1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영장 때나 불근 폭슨 다 드러갠썸.{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장례 때나 불은 팔은 다 들어갠.}

10229 @1 예.{예.}

10229 @1 그리고 도새기 잡꼬?{그리고 돼지 잡고?}

10229 #1 돌썰 그 그러초. 도슨 뭐 그 저.{돌썰 그 그렇쵸. 돼는 뭐 그 저.}

10229 @1 크니리니깁네?{큰일이니까요?}

10229 #1 크니리니까 하고.{큰일이니까 하고.}

10229 @1 그 다음엔 뭐 또 별씨글 허는 게 이신가마썸? 특뻔리 마련한 음식은?{그 다음에는 뭐 또 별식을 하는 것이 있는가요? 특별히 마련한 음식은?}

10229 #1 특뻔헌 거슨 밤에 그 야식.{특별한 것은 밤에 그 야식?}

10229 @1 중식?{야식?}

10229 #1 예, 중식떨 허는데 그거는 썩.{예, 간식들 하는데 그것은 저.}

10229 @1 탕죽(?){탯죽(?)}{}

10229 #1 국씨덜 허라. 국씨.{국수들 하라. 국수.}

10229 @1 국씨?{국수?}

10229 #1 으, 국씨.{으, 국수.}

10229 @1 음.{음.}

10229 #1 경혜사 그 크닐 때는 아범(?) 머경 아프지 마라사 쥔다. 케니까 국씨들 대목커고 수른 그냥 뭐 그냥.{그렇게 해야 그 큰일 때는 아범(?) 먹어서 아프지 말아야 쥔다. 그러니까 국수들 대목하고 술은 그냥 뭐 그냥.}

10229 @1 예.{예.}

10229 #1 노다지 막 먹음 낱 술도 마니 자션.{노다지 막 마음 놓아서 술도 많이 자셔서.}

10229 @1 네.{네.}

10229 @1 그럼 일탄 장례시근 다 끝나고 담제까지 다 지낸 거라예?{그럼 일단 장례식은 다 끝나고 담제까지 다 지낸 거예요?}

10229 #1 담제 다 헐쥬, 나.{담제 다 했지, 나.}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1 그러면 이제는 제사를 모셔야 쥔 켜 아니우파예?{그러면 이제는 제사를 모셔야 쥔 것 아닙니까요?}

10230 #1 예, 천제사.{예, 첫제사.}

10230 @1 예, 그러면 제사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마썸? 일탄 기이레 하는 기제사가 일꼬, 차례가 일썸 켜고.{예, 그러면 제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기일에 하는 기제사가 있고, 차례가 있을 것이고.}

10230 #1 견데.{그런데.}

10230 @1 시제가 이썸 거시고.{시제가 있을 것이고.}

10230 #1 그: 이제.{그: 이제.}

10230 @1 연시제도?{연시제도?}

10230 #1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신 때 허는 말쓰미 그 차례하지 말라.{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생신 때 하는 말씀이 그 차례하지 마라.}

10230 @1 아?{아?}

10230 #1 차례.{차례.}

10230 @1 네.{예.}

10230 @1 건 무사?{그것은 왜?}

10230 #1 차례하지 말라.{차례하지 마라.}

10230 @1 무사 경 ㄱ라신고예?{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10230 #1 생일도 몰 촌자 멍는다.{생일도 못 찾아 먹는데.}

10230 @1 음.{음.}

10230 #1 차렌, 차렌 무신 차레여. 차레를 그 생신날.{차레는, 차레는 무슨 차레야. 차레는 그 생신날.}

10230 @1 네.{네.}

10230 #1 생일랄 밥 출리곡 술 출리곡 행 멍는 게 차레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생일도 잘 어릴 때니까 궁허게 사라노니까 생일도 몰 촌자 머근 주제에 차렌 무신 촌레.{생일날 밥 차리고 술 차리고 해서 먹는 것이 차레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생일도 잘 어릴 때니까 궁하게 살아놓으니까 생일도 못 찾아 먹는 주제에 차레는 무슨 차레.}

10230 #1 주거서 산 때도 몰 떠덩 멍는다 주거서 어떠케 뭘 어더 멍느냐 이거여. 겐 차레도 허지 말라.{죽어서 산 때도 못 얻어 먹는데 죽어서 어떻게 뭘 얻어 먹느냐 이거야. 그래서 차레도 하지 마라.}

10230 #1 계난 그: 우리 아버진 그 서낙커는 거시 음, 멘 까지 일쭙.{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그 선악하는 것이 음, 몇 가지 있지.}

10230 #1 노메 으시 허지 말라.{남의 없이 하지 마라.}

10230 @1 노메 어시?{남에 없이?}

10230 #1 으. 노메 으시 허지 말라.{으. 남에 없이 하지 마라.}

10230 #1 그니까 또 노메 으시 이를 시작또 허지 말라.{그러니까 또 남의 없이 이를 시작도 하지 마라.}

10230 @1 음.{음.}

10230 #1 게니까 대저퍼는 걸랑 그 저 신가지물 다 헤영 대저퍼라.{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그 저 있는 것 다 해서 대접하라.}

10230 @1 네.{네.}

10230 #1 받느, 바든 건 비시 똤난 꼭 그건 가파사 똤다.{받느, 받은 것은 빚이 되니까 꼭 그것은 갚아야 똤다.}

10230 #1 두 고븐 몰 가파도 꼭 가프라.{두 곱은 못 갚아도 꼭 갚아라.}

10230 #1 게 그러헌 거 하나에 그 아부지에 어명이니까 어, 뭘 어떤 그 사치썰, 절때 모터게 허고.{게 그러헌 것 하나의 그 아버지의 엄명이니까 어, 뭘 어떤 그 사치성, 절때 못하게 하고.}

10230 #1 경 허고 우리 아부지는 이 그 동곶.{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 그 동곶.}

10230 @1 네.{네.}

10230 #1 그니까 삭빨 헐찌마는 동고슨 겨고 태궁낭?{그러니까 삭빨 했지만 동곶은 그러고 태극낭?}

10230 @1 네.{네.}

10230 #1 태극낭은 문딱 저분 거시 똑 이마니 접, 저분 거시. 저분 거 크기가 요거 삼 센치쯤 될 건가? 삼 센치 네모난 거.{태극낭은 몽땅 접은 것이 똑 이만큼 접, 접은 것이. 접은 거 크기가 요거 삼 센티미터쯤 될 것인가? 삼 센티미터 네모난 것.}

10230 #1 겐 내가 열 때 보니까 기름종이대, 기름종이.{그래서 내가 열 때 보니까 기름종이대, 기름종이.}

10230 @1 음.{음.}

10230 #1 태극, 태극끼 기런 저분 거, 그게 태극낭인데.{태극, 태극기 그려서 접은 거, 그것이 태극낭인데.}

10230 #1 이걸또 그 주머니 자체가 그, 종이 막 유지름 절류완 멘든 거 그거라.{이것도 그 주머니 자체가 그, 종이 막 들기름 절여서 만든 것 그거야.}

10230 #1 이거슬 평생을 차고 다니는 거여. 평생을.{이것을 평생을 차고 다니는 거야. 평생을.}

10230 @1 아.{아.}

10230 #1 모욕컬 때도 이거 창 강 그냥 모욕. 물 아이 드니까. 그냥, 그냥. 그냥 허리에 찬 대로 도라가쇼꼬.{목욕할 때도 이거 차서 가서 그냥 목욕. 물 아니 드니까. 그냥, 그냥. 그냥 허리에 찬 대로 돌아가셨고.}

10230 #1 그게 이제 그 태극낭.{그게 이제 그 태극낭.}

10230 @1 네.{네.}

10230 #1 이 또 그 우리 아버지는 그 정지카기로 하도 소문난 어르니 댜서.{이 또 그 우리 아버지는 그 정직하기로 하도 소문 난 어른이 되어서.}

10230 #1 겐 난 텅이멍 거진말도 허곡 경현 "경 허지 말라."{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10230 @1 네.{네.}

10230 #1 "벌 준다." 허여.{ "벌 준다" 해.}

10230 @1 네, 예.{네, 예.}

10230 @1 그러면 어, 제사는 삼 대 모시면 이제는 지제를 허지 안씀니까? 지제 예?{그러면 아, 제사는 삼 대 모시면 이제는 지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제요?}

10230 #1 근데 그 지제 손 나건 지제허라 허는 마른 드린는데.{그런데 그 지제 손 나거든 지제하라 하는 말은 들었는데.}

10230 #1 내가 이제 그 우리 지배서 그 저 명질 때 제사는 만치 아녀니깐 이제 저 일본서 형님네드리 하르버지, 할머니 제사 다 허고.{내가 이제 그 우리 집에서 그 저 명질 때 제사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 일본에서 형님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다 하고.}

10230 #1 이제도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산 해도 나 이 이, 난 나대로 여기서 제사허곡.{이제도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는 해도 나 이 이, 나는 나대로 여기서 제사 하고.}

10230 @1 네, 그러겠지요?{네, 그렇겠지요?}

10230 #1 형님넌 형님대로 하고.{형님네는 형님대로 하고.}

10230 @1 나라가 달라부니까?{나라가 달라버리니까?}

10230 #1 아, 그럼.{아, 그럼.}

10230 #1 게 놔두든 뭐 뭐 아이, 뭐라고 해도 난 내 고집때로 합니다 해네 우리 그냥 그 저 아버지 도라가신 후부터 쪽 계속 쪽 제사를 모시는데.{게 남들은 뭐 뭐 아니, 뭐라고 해도 난 내 고집대로 합니다 해서 우리 그냥 그 저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쪽 계속 제사를 모시는데.}

10230 #1 나미 본 아이 보는 거 또 일쑤, 나는.{남의 본 아니 보는 것 또 있죠, 나는.}

10230 #1 근데 그 지제한다고 허는 거시 기주니 누구냐 이 마리여.{그런데 그 지제한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누구냐 이 말이야.}

10230 #1 그래서 그 저네는 우리 지베 그 추석 명절? 정월 명절 게 집 너르니까 마지막 우리 지벨 오는 거여.{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집에 그 추석 명절? 정월 명절 게 집 너르니까 마지막 우리 집예를 오는 거야.}

10230 #1 그 이젠 허든 그때 보니깐 마느른 혼 스시비 명.{그 이젠 하면 그때 보니깐 많으면 한 사십이 명.}

10230 @1 음. 오십 명 가까이.{음. 오십 명 가까이.}

10230 #1 경 아너든, 경 아너든 이제 저 혼 삼십 멘 명 헌데.{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많으면 이제 저 한 삼십 몇 명 하는데.}

10230 #1 혼 버는 내가 친족들 다 모여서 그 나이 든 어른들 나에게 삼춘빨 댜는 어른덜보고 제안헐쥬.{한 번은 내가 친족들 다 모여서 그 나이 든 어른들 나에게 삼춘빨 되는 어른들보고 제안했쥬.}

10230 #1 "지제를 멘 때 소네 합니까?"{지제를 몇 대 손에 합니까?}

10230 #1 무슨 사대 손 헌다, 뭇 증손 나민 헌다, 고소네 헌다.{무슨 사대 손 한 다, 뭇 증손 낳으면 한다, 고손에 한다.}

10230 #1 그거슬 오늘로 내가 이러케 헐파 저러케 합씨다 안 헐 테니까 삼년 내지 오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확씨리 연구헐파가 지베 와서 발표를 해주십쥬. 그래서 우리 지반 지켜야 됩니다게.{그것을 오늘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합씨다 안 할 테니까 삼년 내지 오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확실히 연구했다가 집에 와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 지켜야 됩니다.}

10230 #1 내가 보니까 이 지바니 크닐 날따 이 마리여.{내가 보니까 이 집안이 큰일 났다 이 말이야.}

10230 #1 나에 육촌 형수가 사라인는데 구십칠 썬에 도라가서서 사라인는데 그 할머니에 손손자가 장성헐파든 그 상, 손손자가 마흔 멘 싸리 댜는데 그러면 증소네 고소네 지제를 헤뜨는 당시 어머니 제살, 그 할머니로 허면 씨어머니 제살 지제 해야 됩니까.{나의 육촌 형수가 살아있는데 구십칠 세에 돌아가서서 살아있는데 그



할머니의 손순자가 장성했다면 그 상, 손순자가 마흔 몇 살이 되는데 그러면 증손에 고손에 지체를 하면 당시 어머니 제사를, 그 할머니로 하면 시어머니 제사를 지제해야 됩니다.}

10230 #1 거 마리 댜니까 마리어.{거 말이 댜니까 말이야.}

10230 #1 그러니까 이, 여러분 다 이거 명심해가지고 어, 꼭 알려줘야 댜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다 이거 명심해가지고 어, 꼭 알려줘야 댜니다.}

10230 #1 게 삼년 댜길레 연구덜 험떠가? 허니까.{게 삼년 되었기에 연구들 합디가? 하니까.}

10230 #1 아직 모테서, 미쳐 모테서.{아직 못했어, 미쳐 못했어}

10230 #1 거른 이녀늘 더 드릴 테니까 또 허십씨요.{그러면 이녀늘 더 드릴 테니까 또 하십씨요.}

10230 #1 “하이고, 느가 아랑 헤불자. 자네가 아랑 허자.” “아닙니다게.”{“하이고, 너가 알아서 해버리자. 자네가 알아서 하자.” “아닙니다.”}

10230 #1 게 또 이녀 댜길레 우리 이제 내가 발표 하겠썅니다.{게 또 이녀 되었기에 우리 이제 내가 발표를 하겠썅니다.}

10230 #1 근테 내가 연구헌 결과는 삼십 년만 당부모 제사라도 삼십 년만 모시며는.{그런데 내가 연구한 결과는 삼십 년만 친부모 제사라도 삼십 년만 모시면.}

10230 @1 음.{음.}

10230 #1 묘제로 돌립씨다. 묘제.{묘제로 돌립시다. 묘제.}

10230 @1 음.{음.}

10230 @1 삼십 년?{삼십 년?}

10230 #1 삼십 년.{삼십 년.}

10230 #1 웨 삼십 년, 삼십 년 일때니까 인생 일때가 삼십 년 보는 거시니까 이러케 하트는 흥이 업꼬 제사를 모신다고 허는 게 전부 께를 부리는 거십니다.{왜 삼십 년, 삼십 년 일대니까 인생 일때가 삼십 년 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흥이 업고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전부 께를 부리는 것입니다.}

10230 #1 웨 그러냐며는 음, 산터를 봐서 정의 대정 가서 송악산 가서 산 땡산 짜리 봐서 무던는데.{왜 그러냐면 음, 땡자리를 봐서 정의 대정 가서 송악산 가서 묘 명산 자리 봐서 묻었는데.}

10230 #1 비벼롬 허는 날 바메 그디 묻 까니까 이제는 충무니나 일거서 지베서 준께 부러가지고 머니까 묻 까고, 비 오니깐 묻 까고, 날 우쳐서 묻 까고 허니깐 지베서 영호늘 오십싸 해서 제를 모신 건 준께 부린 거지.{비바람 하는 날 밤에 거기 못 가니까 이제는 축문을 읽어서 집에서 잔피 부러가지고 머니까 못 가고, 비오니깐 못 가고, 날 꺽어서 못 가고 하니깐 집에서 영호늘 오십사 해서 제를 모신 것은 잔피 부린 것이지.}

10230 #1 그 믫를 탕 가든지 어.{그 말을 타서 가든지 어.}

10230 @1 음.{음.}

10230 #1 열흘 걸려서 걸어가든지 성이가 이쓰른 그 뭘 강 제를 지내야 응가를 허든지 버를 주든 헐 꺼 아납니까?{열흘 걸려서 걸어가든지 성이가 있으면 그 뭘 가서 제를 지내야 응감을 하든지 벌을 주든 할 것 아납니까?}

10230 #1 근데 산 사름더리 전부 께 부러가지고 귀시늘 불러부러? 이레 불러 드린다? 거 말 댜는 거냐? 난 이해가 안 댜.{그런데 산 사람들이 전부 께 부러가지고 귀신을 불러버려? 이리로 불러 불린다? 거 말 되는 거냐? 난 이해가 안 댜.}

10230 #1 그니까 지배서 제 지내기 시른 사라미른 묘제 가쇼. 묘제. 묘소에 가서. 겐또 허기 시르른 허지 마쇼.{그러니까 집에서 제 지내기 싫은 사람이면 묘제 가쇼. 묘제. 묘소에 가서.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쇼.}

10230 #1 그러타고 해서 뭘 어, 내 정시니 중요한 거시지 귀시니 와서 자바가는 거 아니라고는 생가카니까.{그렇다고 해서 뭘 어, 내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귀신이 와서 잡아가는 것 아니라고는 생각하니까.}

10230 @1 음.{음.}

10230 #1 각짜 믋음대로 하시오.{각자 마음대로 하시오.}

10230 #1 나는 이제 이런 거슨 인정 아납니다.{나는 이제 이런 것은 인정 안 합니다.}

10230 #1 (웃음) 탁 선포해부니까 몰를주게.{딱 선포해버리니까 모르지.}

10230 @1 게난 집점마다 삼십 년 허는 데도 일꼬 삼 대 허는 데도 일꼬.{그러니까 집집마다 삼십 년 하는 데도 있고 삼 대 하는 데도 있고.}

10230 #1 어, 거 가강각썰길 테주.{어, 그것 각양각색일 테지.}

10230 @1 음음.{음음.}

10230 #1 겐 난 이제부터 제사 보러 아이 갑니다. 멩질썰 보러도 나도 안 갑니다.{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사 보러 아니 갑니다. 멩질제 보러도 나도 안 갑니다.}

10230 @1 음.{음.}(풍경소리)

10230 #1 이런 거시지 드러내는 이상 내가 몰 갑니다. 탁 케연.{이런 거짓이 들어나는 이사 내 못 합니다. 탁 해서.}

10231 @1 그 다으메 이버는 제사를 하는 거라예.{그 다음에 이번은 제사를 하는 거예요.}

10231 #1 제사?{제사?}

10231 @1 예, 절차를 한 번 쯤 말쓰메 주십씨요. 일탄 제무를 멘들고예?{예, 절차를 한 번 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물을 만들고요?}

10231 #1 제무를 멘드는 데 제일 정성을 드려야 댜는 거시 몸 정성.{제물을 만드는 데 제일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 몸 정성.}

10231 @1 네.{네.}

10231 #1 그 여자 모메 그 주기저그로 오는 이 월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니 어디 다친다든지 모메 상처가 난다든지 할 @1 예. #1 때에.{그 여자 몸에 그 주기적

으로 오는 이 월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손이 어디 다친다든지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할 @1 예. #1 때에.}

10231 #1 그 제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게 난 @1 예. #1 내 주장입니다. 그거.{그 제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이 난 @1 예. #1 내 주장입니다. 그거.}

10231 @1 예.{예.}

10231 #1 근데 짐싸람도 \*\*\* 강조하죠.{그런데 짐사람도 \*\*\* 강조하죠.}

10231 @1 네.{네.}

10231 @1 그 다음에 파제는 뭘 씨에 험니까?{그 다음에 파제는 몇 시에 합니까?}

10231 #1 파제는 우리가 음 그 저녁은.{파제는 우리가 음 그 전에는.}

10231 @1 자시?{자시?}

10231 #1 저녁에 험는데 사삼사꺼니 이러나니까 그거 험다문사 전부 영창 생활을 허니까 안 돼여. 그러니까.{자시에 험는데 사삼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거 한다면 전부 영창 생활을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10231 #1 그 통행금지 씨간 맞춰서 지배 갈 썩가글 해야지 산 사르미 사라야지 파제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마리어.{그 통행금지 시간 맞춰서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산 사람이 살아야지 파제가 중요한 것 아니다 이 말이야.}

10231 #1 그니까 그 도라가신 전날 제를 지내는 거슨 그 당일을 말하는 거시니까, 도라가신 당일.{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전날 제를 지내는 것은 그 당일을 말하는 것이니까, 돌아가신 당일.}

10231 #1 그니까 혼 시 두 시는 썩 나리니까. 그 그거 지금 당일제, 당일제 험는 거시지 된날 저 아시날 제 지내는 거 아니거든.{그러니까 한 시 두 시는 썩 날 이니까. 그 그것 지금 당일제, 당일제 하는 것이지 된날 저 전날 제 지내는 것 아니거든.}

10231 #1 그니까 저녁에 지내는 이유가 당일 제스.{그러니까 자시에 지내는 이유가 당일 제사.}

10231 #1 그니까 그러케 아시고 당일 제사를 모신다고 해서 내일 모시지 말고 그 전날 우리가 어, 정성껏 해서 아홉 씨 반쯤 돼문 열 씨에 파제해서 전부 이제 행제 다 끝나면 열 씨에 끝나서 부지러니 밤 머경 지배 가도록 멘드러야 쥘야지 세상 도라가는데 불구하고고.{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당일 제사를 모신다고 해서 내일 모시지 말고 그 전날 우리가 어, 정성껏 해서 아홉 시 반쯤 되면 열 시에 파제해서 전부 이제 행제 다 끝나면 열 시에 끝나서 부지러니 밥 먹어서 집에 가도록 만들어 쥘야지 세상 돌아가는데 불구하고고.}

10231 @1 자시?{자시?}

10231 #1 우리, 우리 저 산 사름드리 건방지게 이젠 못 지킵니다고.{우리, 우리 저 산 사람들이 건방지게 이제는 못 지킵니다고.}

10231 @1 네.{네.}

10231 #1 계난 좇시 축씨 꼭 지키지 맙씨다 이거.{그러니까 자시 축씨 꼭 지키지 맙씨다 이것.}

10231 @1 네예예.{네예예.}

10231 #1 계니까 세상 도라가는 대로 계니깐 통행금지 씨간을 맞춰서 사라야 됩니다 허는 게 이제 우리.{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러니깐 동행금지 시간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10231 @1 계난 현관도 계난 삼현관 다 츠리고예?{그러니까 현관도 그러니까 삼현관 다 차리고요?}

10231 #1 삼현관 못 চল리며는.{삼현관 못 차리면.}

10231 @1 예.{예.}

10231 #1 그 못 চল리며는 가령 큰관 둘만 이서도 삼현관 대리 모두 절허는 예는 곱빼기를 해도 해야, 꼭 케야 되고.{그 못 차리면 가령 큰관 둘만 있어도 삼현관 대리 모두 절하는 예는 곱빼기를 해도 해야, 꼭 해야 되고.}

10231 @1 계난 자는 세 번 드리는 거스로예?{그러니까 잔은 세 번 드리는 것으로요?}

10231 #1 그 삼잔 들린 건 절때저긴.{그 삼잔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10231 @1 예예. 그 다음 침작또 하는 거고예?{예예. 그 다음 침작도 하는 것이 고요?}

10231 #1 침작허고.{침작하고.}

10231 @1 예, 철쌍. 음복또 꼭 하지예?{예, 철상. 음복도 꼭 하지요?}

10231 #1 음복허고.{음복하고.}

10231 @1 예예예. 혹시 문전제도 하는가마씨?{예예예. 혹시 문전제도 하는가 요?}

10231 #1 문전제 우리 지배 꼭.{문전제는 우리 집에 꼭.}

10231 @1 그럼 그 문전제는?{그럼 그 문전제는?}

10231 #1 문호지신.{문호지신.}

10231 @1 예, 그니까 제사를 하기 저네 먼저 험니깁? 나중에 험니깁?{예,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10231 #1 문전제, 그러니까 그 우리 울땀, 울타리, 울.{문전제, 그러니까 그 우리 울타리, 울타리, 울.}

10231 @1 네.{네.}

10231 #1 허는 거시 입꾸가 어디냐른 정무니거든, 정문.{하는 것이 입구가 어디냐면 정문이거든 정문.}

10231 @1 예.{예.}

10231 #1 정무니니까 우리는 그 정문 문전, 그 그거슬 문째사라고.{정문이니까 우리는 그 정문 문전, 그 그것을 문전제라고.}

10231 @1 예예예.{예예예.}

10231 @1 그 아네도 노, 노아마썸?{그 안에도 놓, 놓아요?}

10231 #1 아년 집떨 만치요.{안 하는 집들 많지요.}

10231 @1 예.{예.}

10231 #1 문호지신 뭐 근데 우리는 꼭 그게 지금도 허고 일꼬.{문호지신 뭐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것이 지금도 하고 있고.}

10231 @1 예.{예.}

10232 @1 그 다음 제사 음식근 누가 멘듬니까?{그 다음 제사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10232 #1 제사 음식근 그 아까처럼 몸 구지면 몸 구진 사람 게, 가정, 가령 여자부니 세 부니 일쓰며는 아이고 나도.{제사 음식은 그 아까처럼 몸 굶으면 몸 굶은 사람 게 가정, 가령 여자분이 세 분이 있으면 아이고 나도.}

10232 @1 몸 비련?{몸 비려서?}

10232 #1 몸 구진 몸 터켜, 몸 터켜 허른 누게 경 친한 사람 비려다가 정성껏 허든지 세 사람 중에 누게 게진 누구 상에 올릴 음식만 멘들라, 몸 구진 사르미 허라.{몸 굶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누구 친한 사람 빌려다가 정성껏 하든지 세 사람 중에 누구 그러거든 누구 상에 올릴 음식만 만들어라, 몸 깨끗한 사람이 하라.}

10232 @1 그 다음 저근 누가 멘드라마씨?{그 다음 산적은 누가 만들어요?}

10232 #1 저근 이제 그 우리 아버지 때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멘드라.{산적은 이제 그 우리 아버지 때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10232 @1 남자 어르니 헤서예?{남자 어른이 했지요?}

10232 #1 남자 어르니 헌데 이제는 문밖 여자 어른덜.{남자 어른들 하는데 이제는 문밖 여자 어른들.}

10232 @1 때는 누가 거림네까?{때는 누가 뜨나요?}

10232 #1 지금 여자가 다.{지금 여자가 다.}

10232 @1 혹시 엔나레 어머니미 사라게실 때예?{혹시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10232 #1 예.{예.}

10232 @1 사모님도 계실 꺼 아니우팡?{사모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10232 #1 예.{예.}

10232 @1 그러믄 누가 메 떠쭈과?{그러면 누가 메 떴습니까?}

10232 #1 그 주손 각씨가 멜 뜨고 그 올리는 건또 그 아페까지 가면 바다서 올리는 건만 제과니 헨.{그 주손 각씨가 메를 뜨고 그 올리는 것도 그 앞에까지 가면 받아서 올리는 것만 제관이 했어.}

10232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일쓸 때도 며느리가 헨겔네예?{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을 때도 며느리가 했겠네요?}

10232 #1 그러쵸.{그렇쵸.}

10232 @1 아아.{아아.}

10232 #1 케니까 그.{그러니까 그.}

10232 @1 아니 건 왜 그러냐면 어, 씨어머니가 메를 거리면.{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 시어머니가 메를 뜨면.}

10232 #1 음.{음.}

10232 @1 그 지배, (문소리) 지배네 경제권을 씨어머니가 갈꼬 일딴 얘기고.{그 집에, 집안에 경제권을 시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얘기고.}

10232 #1 으음.{으음.}

10232 @1 며느리가 하고 일파라고 하면 며느리가 경제권을 갈꼬 인는 겁쥬.{며느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며느리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10232 #1 근데 그 제주에 풍스븐 참 그 묘헌 거시 본바들 쭈도 인는 건데 안꺼리에는 메느리가 살고 바꺼리에는 아버지네가 살고.{그런데 그 제주의 풍습은 참 그 묘한 것이 본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안채에는 며느리가 살고 바깥채에는 아버지네가 살고.}

10232 #1 근디 지블 안파꺼리 업쓸 때 음, 아 이 터저네 어느 퍼닌 안꺼리 진꼬, 어느 쪼겐 바꺼리 진꼭, 어딘 목커리 진꼭, 쉼마기 진꼭 헤영 미리 계획글 딱 짜가지고.{그런데 집을 안채 바깥채 없을 때 음, 아 이 터전에 어느 편에는 안채 짓고, 어느 쪽에는 바깥채 짓고, 어디는 겔채 짓고, 외양간 짓고 해서 미리 계획을 딱 짜가지고.}

10232 #1 지븐 바꺼리부터 몬처 지서야 헐써.{집은 바깥채부터 먼저 지어야 했어.}

10232 @1 음.{음.}

10232 #1 바꺼리부터.{바깥채부터.}

10232 #1 바꺼리 지스면서 이 모든 계획 차질 경험 다 어더가지고, 안꺼릴 지스며는 차지리 안 생긴다 이거여.{바깥채 지으면서 이 모든 계획 차질 경험 다 얻어가지고, 안채를 지으면 차질이 안 생긴다 이거야.}

10232 #1 공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꺼린 이 야중에 진는 거여.{공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채는 이 나중에 짓는 거야.}

10232 #1 그믄 이 안꺼리에선 새 메느리, 그니까 메느리나 아더리나 제 모시는 사르미 안꺼리엘 사랴. 제.{그러면 이 안채에서는 새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이나 제 모시는 사람이 안채엘 살아. 제.}

10232 @1 음.{음.}

10232 #1 제는 안꺼리에서 모시는 거여.{제는 안채에서 모시는 거야.}

10232 #1 아버지는 어머니는 요 바꺼리에 사랴. 제 아이 모셔도 조으니까.{아버지는 어머니는 요 바깥채에 살아. 제 아니 모셔도 좋으니까.}

10232 #1 손더리 쥬 모시게 돼니까.{손들이 제사를 모시게 되니까.}

10232 @1 음.{음.}

10232 #1 꼭 이리케 구분하는데 그 모커리는 참 어려운 사람도 주꼭 친조게 궤로운 사르미라도 왕 살렌 허꼭 허는다.{꼭 이리케 구분하는데 그 겘채는 참 어려운 사람도 주고 친족의 괴로운 사람이라도 와서 살라고 하고 하는데.}

10232 #1 알 안판꺼리 구부는 꼭 그러케 해서 아, 이 경험덜 해서 새 집 지스멍 경험해서 안꺼리 지슬 때랑 차질 업씨 잘 지스라 허는 거.{안, 안채 바깥채 구분은 꼭 그렇게 해서 아, 이 경험들 해서 새 집 지으면서 경험해서 안채 지을 때는 차질 없이 잘 지어라 하는 것.}

10232 @1 과이른 멘 쫑 준비합니까?{과일은 몇 쫑 준비합니까?}

10232 #1 근데.{그런데.}

10232 @1 삼 쫑? 오 쫑?{삼 쫑? 오쫑?}

10232 #1 삼 쫑, 오 쫑, 칠 쫑.{삼 쫑, 오 쫑, 칠 쫑.}

10232 @1 어떠튼?{어떻하든?}

10232 #1 예, 근데 삼, 삼 쫑은?{예, 그런데 삼, 삼 쫑은?}

10232 @1 홀쭉로예?{홀쭉로요?}

10232 #1 예.{예.}

10232 #1 건데 그거슨 그거 기주니 뭐냐며는 밤미여, 밤.{그런데 그것은 그것 기준이 뭐냐면 밤이야, 밤.}

10232 @1 네.{네.}

10232 #1 밤송이가 세 아리거든게. 밤 알, 이게 세 알.{밤송이가 세 알이거든. 밤 알, 이것이 세 알.}

10232 #1 게 요거 쉐, 알 요 바물 기준해서 대추도 쉐, 밤도 쉐, 요러케 해서 그 상에 올리는데 음.{게 요것 셋, 알 요 밤을 기준해서 대추도 셋, 밤도 셋, 요렇게 해서 그 상에 올리는데 음.}

10232 #1 어떤 사람드른 그 모양 조케 올리느라고 막 그거슨 췌, 궤지. 실과를 췌다.{어떤 사람들은 그 모양 좋게 올리느라고 막 그것은 궤, 궤지. 실과를 궤다.}

10232 @1 예, 궤다. 예.{예, 궤다. 예.}

10232 #1 궤다, 이 궤어 논게 이게 공굴공굴 궤와 논는 거여, 이게. 궤는 거.{궤다. 이 궤어 놓은 것이 이게 흔들흔들 궤어 놓는 거야, 이것이. 궤는 거.}

10232 @2 음.{음.}

10232 #1 게 올리는 거 아니고, 궤웁. 궤. 궤췌 허라.{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궤임. 궤. 궤어라.}

10232 #1 그 다 이리케 저 보기 조케 노라는 거여.{그 다 이리케 저 보기 좋게 놓으라는 거야.}

10232 @1 궤췌, 예.{제물, 예.}

10232 #1 음.{음.}

10232 #1 여러 사라미 와서 볼 꺼시니까 조케 노라는 거.{여러 사람이 와서 볼

것이니까 좋게 놓으라는 것.}

10232 #1 근데 그러헌 건또 일종이 사치쟁인데.{그런데 그러한 것도 일종의 사치성인데.}

10232 #1 예, 나는 그 과이를 보며는 복숭아는 올리지 말고 복숭게. 복숭안 아녀곡 대추, 밤 대추는.{예, 나는 그 과일을 보면 복숭아는 올리지 말고 복숭아. 복숭아는 앓고 대추, 밤 대추.}

10232 @1 올리고.{올리고.}

10232 #1 으, 올리는데 제주에선 비자도.{아, 올리는데 제주에서는 비자도.}

10232 @1 예.{예.}

10232 @1 비자도 올렸썬.{비자도 올렸어.}

10232 #1 예, 올렸썬요.{예, 올렸어요.}

10232 #1 근데 요즈믄 비자 타레 몬 까곡, 건또 먹 그런 건또 몬 털때 올림시카 부텐 허고.{그런데 요즘은 비자 따러 못 가고, 그것도 먹 그런 것도 못 할 때 올리고 있을까보다고 하고.}

10232 #1 비자는 그 웨 올리는데 허니 제사 핑겔 대가지고 내 모메 휘충을 업세는 거여.{비자는 왜 올리는데 하니 제사 핑계를 대가지고 내 몸에 회충을 없애는 거야.}

10232 @1 예, 떨브니깐.{예, 뽕으니까.}

10232 #1 떨버. 휘충야기거든, 비자가.{뽕어. 회충약이거든, 비자가.}

10232 #1 그러한 그 처라기 담겨 일꼬.{그러한 그 철학이 담겨 있고.}

10232 #1 그 바른 세 아리 고른 거로.{그 밤은 세 알이 고른 것으로.}

10232 @1 네.{네.}

10232 #1 건 골르로 다 업꼭. 꼭 그 차례로 바가진 게 바메.{거 골고루 다 없고. 꼭 그 차례로 박아진 것이 밤에.}

10232 @1 그 다음 떠근 멘 쫑뉴 험니까? 오편?{그 다음 떡은 몇 종류 합니까? 오편?}

10232 #1 그니까 떠근.{그러니까 떡은.}

10232 @1 음.{음.}

10232 #1 우리 지베 우리 아버지 그 주장인데 신가지 지물로 허라.{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그 주장인데 신가지 제물로 하라.}

10232 #1 지베 일꾼 허곡, 읍꾼 어디 강 꾸어당 빈네명 허지 말라 이거여.{집에 있거든 하고 없거든 어디 가서 꾸어다가 빚내면서 하지 말라 이거야.}

10232 #1 신가지 지물로.{신가지 제물로.}

10232 #1 게 이기 인는 대로 어 정성껏 이러케 해서 올리라.{게 여기 있는 데로 아 정성껏 이렇게 해서 올려라.}

10232 @1 혹씨 음식글 만들 때 뭐뭐 허지 말라, 아까처럼, 어 제수글 할 때 비늘 업는 고기는 허지 말라.{혹씨 음식을 만들 때 뭐뭐 하지 마라, 아까처럼, 아 제



육을 할 때 비늘 없는 고기는 하지 마라.}

10232 #1 그거 일쑤. 그러니까.{그것 있죠. 그러니까.}

10232 @1 그 다음에 복숭개는 올리지 말라. #1 어.{그 다음에 복숭아는 올리지 마라. #1 어.}

10232 @1 그런 거 뭘 까지?{그런 것 몇 가지?}

10232 #1 일쑤. 그러니까 과일은.{있죠. 그러니까 과일은.}

10232 @1 네.{네.}

10232 #1 삼 종을 올리라.{삼 종을 올려라.}

10232 @1 예.{예.}

10232 #1 근데 밤 대추허곡 우리 제주에는 유지.{그런데 밤 대추하고 우리 제주에는 유자.}

10232 #1 유지.{유자.}

10232 @1 당유지.{당유자.}

10232 #1 이, 이제 땡유지나 원, 유지허믄 그냥 그 소유자도 똥곡 따그네 향기로운 거 아마 그래서 올리렌 현 건 간꼬.{이, 이제 당유자나 원, 유자하면 그냥 그 소유자도 되고 따서 향기로운 것 아마 그래서 올리라고 하는 것 같고.}

10232 #1 채소는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이걸 결정으로 꿩 올려라.{채소는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이것은 결정으로 꼭 올려라.}

10232 #1 쓰, 그 가마니 보니까 나도 그 콩나물 논는 그 기계를 사단 해 받는데.{쓰, 그 가마니 보니까 나도 그 콩나물 논는 그 기계를 사다가 해 봤는데.}

10232 #1 콩, 혼 주먹 탁 물로 쥘 낱 놔두면 올라올 때 똑가치 올라와.{콩, 한 주먹 탁 물로 쥐서 놓아서 놔두면 올라올 때 똑같이 올라와.}

10232 #1 아시가 업써, 형도 업써, ㄴ치 올라와.{아우가 없어, 형도 없어, 같이 올라와.}

10232 #1 아, 형제가네 화목, 그 뜨터는 거시다.{아, 형제간에 화목, 그 뜻하는 것이다.}

10232 @1 고사리도 아홉 성제고?{고사리도 아홉 형제고?}

10232 #1 아, 고사리 열두 성제.{아, 고사리 열두 형제.}

10232 @1 아홉 성제 아니우깁?{아홉 형제 아닙니까?}

10232 #1 (웃음) 아니, 건 나온 디가 이려코.{(웃음) 아니, 그것은 나온 데가 이렇고.}

10232 @1 예.{예.}

10232 #1 그 겨으레는 땅쏘고배 일꺼든.{그 겨울에는 땅속에 있거든.}

10232 @1 예.{예.}

10232 #1 게 그 땅을 팡 보며는 중골 쫓으로 기냥 계속 올라오는 게 일썤요.{게 그 땅을 파서 보면 중골 중으로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10232 #1 계난 일, 일 런 내내 계속 즈소니 끈지 아네서 계속 올라온다고 허는 그런 전제 쏘게 이제 고사리 이거 허는 거 가튼데.{그러니까 일, 일 년 내내 계속 차손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이제 고사리 이것 하는 것 같은데.}

10232 #1 그래서 내가 그 저 충청남도 사람들 일부부는 그 둔고사리 으, 고비 그걸 꼭 제사 때 쓰는데 그런 사름보고 내 그 무려받썬요. 그.{그래서 내가 그 저 충청남도 사람들 일부분은 그 고비 으, 고비 그것을 꼭 제사 때 쓰는데 그런 사람 보고 내 물어봤어요. 그.}

10232 #1 그건 왜 그러냐 허니까 다른 고사린 쓰니까 둔고라시만 올린다 이거여.{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고사리는 쓰니까 고비만 올린다 이거야.}

10232 @1 음.{음.}

10232 #1 잘 몰를켄 대답퍼든데.{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던데.}

10232 @1 어디 육찌는 개고기도 올린다고예?{어디 육지는 개고기도 올린다고요?}

10232 #1 아이구, 그 만초. 지금 저 이 평안도 사름덜 뭐.{아이고, 그 많쥬. 지금 저 이 평안도 사람들 뭐.}

10232 #1 지금 이 저 예, 저, 저, 저 어디고? 저, 이 경기도도 주썬 저 미신 천? 무시거옴 막 이번 거 한천? 어, 그쪽 과천.{지금 이 저 예, 저, 저, 저 어디지? 저, 이 경기도도 계속 저 무슨 천? 무슨것이라고 막 이번 거 한천? 어, 그쪽 과천.}

10232 @1 예, 과천.{예, 과천.}

10232 #1 과천, 청과시장 말고. 저 그 한천 어디 찌기 가면 그 저 그 미국 사름미 그 강가에서 모욕커다가 그 그를 빨러진 거세 벨 찌져서.{과천, 청과시장 말고. 저 그 한천 어디 저기 가면 그 저 그 미국 사람이 그 강가에서 목욕하다가 그 그릇 깨진 것에 배를 찢었어.}

10232 @1 음.{음.}

10232 #1 그래서 그걸 꺼넌 보니까 그 무신 옛날 도자기 달몬 거. 게 그거를 가서 이제 그 감정을 바드니까 그 옛날 유무리옴.{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보니까 그 무슨 옛날 도자기 같은 거. 게 그것을 가서 이제 그 감정을 받으니까 그 옛날 유물 이라고.}

10232 #1 그때부터 그 강에 걸 몬 꺼넌 해단 그 여페 내 그 그거 보레 일부러 가 완는데.{그때부터 그 강에 것을 몽땅 꺼내서 해다가 그 옆에 내 그 그것 보레 일부러 다녀 왔는데.}

10232 #1 간 보니까 혼, 혼 이벵 메다 떠러진 쏘게 조그만 움집 찌어가지고 저 거 전시허고 인는 걸 받는데.{가서 보니까 한, 한 이백 미터 떨어진 쪽에 조그마한 움집 지어가지고 저것 전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10232 #1 그거 무신, 무신 천버니라 거.{그것 무슨, 무슨 천변이야 거.}

10232 #1 그 쪼게 가며는 개고기 다 올련.{그 쪽에 가면 개고기 다 올렸어.}

10232 @1 음.{음.}

10232 #1 내 그 제삿찌베 몰란 그 여과니 업쓰니까. 게 어디 쯤 찌 흐룬뺨 잠지 켜 지블 차잔 드러간는데 그 가는 게 제산나라라는 거여.{내 그 제삿집에 몰라서 그 여관이 없으니까. 게 어디 쯤 저 하룻밤 잘 것같은 집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가는 것이 제삿날이라는 거야.}

10232 @1 그리고 우도는예, 무너는 꼭 올린다고예.{그리고 우도는요, 문어는 꼭 올린다고요.}

10232 #1 꼭꼭 그거, 무너 그.{꼭꼭 그것, 문어 그.}

10232 @1 계난 아마 그 아버님 말씀.{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님 말씀.}

10232 #1 부자뉘데 해신디.{부자된다고 했는데.}

10232 @1 아버지 말씀하신 신가지 지물.{아버지 말씀하신 신가지 제물.}

10232 @1 그 쪼게서 난. #1 그 신가지.{그 쪽에서 난. #1 그 신가지.}

10232 @1 예예예.{예예예.}

10232 #1 그 마리 마자.{그 말이 맞아.}

10232 @1 예예예.{예예예.}

10232 @1 그 다오메 떠글 멘들 때는 파순 안 노치예?{그 다음에 떡을 만들 때는 팔은 안 넣지요?}

10232 @1 계난 설기떡도 백설기.{그러니까 설기떡도 백설기.}

10232 #1 그 멍는 음시게는 멍는, 계난 켈씨 켈는 상 위에 올릴 꺼는 폴떠근 안 썬.{그 먹는 음식에는 먹는, 그러니까 제물 궂는 상 위에 올릴 것은 팔떡은 안 썬.}

10232 @1 예.{예.}

10232 #1 폴떡 쓰지 말라.{팔떡 쓰지 마라.}

10232 #1 귀신 다올려부는 모양이여.{귀신 쫓아버리는 모양이야.}

10232 @1 예.{예.}

10232 #1 허허.{허허.}

10233 @1 혹씨 제사를 지낼 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슨 파제 시간만 달라진 건가마썬?{혹시 제사를 지낼 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파제 시간만 달라진 것인가요?}

10233 #1 예.{예.}

10233 @1 옛날 식게 머그러 올 때는 전부 다 쫄히고 술 가져 와서예?{옛날 제사 먹으러 올 때는 전부 다 쌀하고 술 가져 왔지요?}

10233 #1 메쫄 가져오는 사لامي 일꼬.{메쌀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10233 @1 네.{네.}

10233 #1 감주, 감주 멘드랑 정성껏 가져오는 사르미 일꼬.{단술, 단술 만들어서 정성껏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10233 #1 또 향초. 향허고 초를 가져오는 사르미 일꼬.{또 향초. 향하고 초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10233 #1 초만 봉헌헌 사르미 일꼬.{초만 봉헌한 사람이 있고.}

10233 #1 또 그 향만 가져오는 사름 일꼬.{또 그 향만 가져오는 사람 있고.}

10233 #1 게니까 자기 능력때로 그냥 부담 절대 주지 말라 이거여. 부담.{그러니까 자기 능력대로 그냥 부담 절대 주지 말라 이거야. 부담.}

10233 @1 요센 도느로 하는.{요새는 돈으로 하는.}

10233 #1 겐디 요센 뭐 돈, 거 인는대로 먹음대로 해당. 견데 상에 올리는 건또 보며는 묘헌 사름들, 그게 이제 이름 쓰며는.{그런데 요새는 뭐 돈, 거 있는대로 마음대로 해다가. 그런데 상에 올리는 것도 보면 묘한 사름들, 그게 이제 이름 쓰면.}

10233 #1 가령 뭐 요게 이제 무슨 뭐뭐 근, 뭐뭐 향 허민 향 쓰른 시뉘 아페 이러케 올려야 될 츠렌데 이걸 이러케 올리고 이 사라문 몬.{가령 뭐 요것이 이제 무슨 뭐뭐 근, 뭐무 향 하면 향 쓰면 신위 앞에 이렇게 올려야 될 차례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고 이 사람은 몽땅.}

10233 @1 예, 이견 이게 말씀니다, 예.{예, 이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예.}

10233 #1 그러초. 이러케 써야 되는 거.{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것.}

10233 @1 예.{예.}

10233 #1 여길 이 내 홍보는 마리 아니고 요클 허는 마린데.{여기를 이 내 홍보는 말이 아니고 욱을 하는 말인데.}

10233 #1 지금 무신 일더리 인는데 좀 가령 국꾼묘지. 어디 무신 뭐, 뭐허데. 구과꼴 어느 게 츠레여? 이게.{지금 무슨 일들이 있는데 좀 가랑 국꾼묘지. 어디 무슨 뭐 뭐하데. 국화꽃 어느 것이 차례야? 이것이야.}

10233 #1 이게 올리는 놈, 이러케 올리는 놈. 꼴 툃나 올릴 줄 모르는 찻식뜨리 뉘 노미 분냥을 오라 허나 이. @1 (웃음){이렇게 올리는 놈, 이렇게 올리는 놈. 꼴 하나 올릴 줄 모르는 자식들이 뉘 놈의 분향을 와라 하나 이. }

10233 @1 (웃음.)

10233 #1 아유, 저 내 저, 만덕 칼망 우이 저 무신 무시거 저 고 누겐 하르방 동상 일찌? 저, 사라봉에.{아유, 저 내 저, 만덕 할망 위에 저 무슨 무슨 것 저 고 누구 하르방 동상 있지? 저, 사라봉에.}

10233 @1 예예.{예예.}

10233 #1 탑 일짜나게?{탑 있잖아?}

10233 @1 예.{예.}

10233 #1 저짜겐 조 무신.{저쪽에는 조 무슨.}

10233 @2 조봉, 조봉암.{조봉, 조봉암.}

10233 @2 거 누게.{거 누구.}

10233 #1 그 하르방 인꼬.{그 할아버지 있고.}

10233 #1 겐 저 고 누게 일찌?{그래서 저 고 누구 있지?}

10233 @2 예.{예.}

10233 #1 그 우릴 멀지 아는 친족.{그 우리 멀지 않은 친족.}

10233 #1 근데 뭘 뻔 가 봐서. 홍순만 씨 산 때 무와원장 아이라.{그런데 몇 번  
가 봤어. 홍순만 씨 산 때 문화원장 아닌가.}

10233 #1 우리 동기주.{우리 동기지.}

10233 #1 “원장님.” “예.”{“원장님” “예.”}

10233 #1 꼬슬 지금 누구 아피 세운 거여. 저 꼬슬.{꽃을 지금 누구 앞에 세운  
거야. 저 꽃을.}

10233 #1 그 ㄴ라 줘.{그 말해 줘.}

10233 #1 아이고, 그 고 뢰장님 대다블 헐 짜르미 누게가 일썌니까? 그래.{아이  
고, 그 고 회장님 대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10233 #1 근데 그 뭐 무신 그 사름허고 싸워 보도 아네고 대답 못턴다는 거여.  
{그런데 그 뭐 무슨 그 사람하고 싸워 보지도 않고 대답 못한다는 거야.}

10233 #1 자기가 몰르민 자기도 배와야 뵈 켜 아이여.{자기가 모르면 자기도 배  
워야 뵈 것 아니야.}

10233 #1 그래서 내 이저게도 그 이, 저 명도암 무신, 무신 공원?{그래서 내 이  
전에도 그 이, 저 명도암 무슨, 무슨 공원?}

10233 @1 사삼평화공원.{사삼평화공원.}

10233 #1 사사민지, 사삼공원이라는 마리 일썌. 세상에 사삼공원이든. 사람 주긴  
공워니 어떠케 일썌 쭈가 일썌. 사삼.{사삼인지, 사삼공원이라는 말이 있어. 세상에  
사삼공원이면. 사람 죽인 공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사삼.}

10233 #1 저건또 아름다운 이르믈 딱 케서 그 사라미나 주근 영호니나 아름답게  
그 해. 꼬슬 왜 이러케 올릴 쭈를 몰르느냐, 으.{저것도 아름다운 이름을 딱 해서  
그 사람이나 죽은 영혼이나 아름답게 그 해. 꽃을 왜 이렇게 올릴 줄을 모르느냐,  
으.}

10233 #1 겨른 저쪽 이쪽 다 조아야 뵈는 거시지. 귀신만 조으라, 생인만 조으  
라, 이건 말도 안 뵈는 이건또 아니고 저건또 아닌. 장난덜 허는 거여, 지금.{그러면  
저쪽 이쪽 다 좋아야 되는 것이지. 귀신만 좋아라, 생인만 좋아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장난들 하는 거야, 지금.}

10233 #1 무신 그 모임 나, 저 고거니, 고거니.{무슨 그 모임 나, 저 고건이, 고  
건이.}

10233 @1 고건, 예.{고건, 예.}

10233 #1 고건, 저저 서우레 인는 고건.{고건, 저저 서울에 있는 고건.}

10233 @1 예.{예.}

10233 #1 고건.{고건.}

10233 @1 예, 국무총리.{예, 국무총리.}

10233 #1 국무총리 헐 때 이디 저 사삼공위네 완 뭐 헐썬요. 그때도 끝 올리는  
결

10233 #1 그 저 책판덜 그 명단덜 인는 디 간 끝 영 바침게게.{그 저 책판들 그  
명단들 있는 데 가서 꽃 이렇게 바치던데.}

10233 #1 저게 저 지 아방 사라시문 저건 빠구여게.{저것이 저 지 아버지 살았  
으면 저것은 퇴짜야.}

10233 @2 (웃음)

10233 #1 그 고건 아버지는 쟁장헌 하르방이여.{그 고건 아버지는 쟁장헌 할아  
버지야.}

10233 @1 네, 말쑤다. 총장 지넌뎌.{네, 맞습니다. 총장 지냈던.}

10233 #1 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

10233 @1 네.{네.}

10233 @1 그러면 오느른 여기까지 하겠쑤다.{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  
다.}

## 제3편 2011년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 파일 정보: SJJ\_GP\_07, SJJ\_GP\_00

\*조사자: 강영봉, 김순자, 김성룡

\*조사일: 2011. 8. 25./9. 30.

\*주제보자: 라여옥

\*보조제보자: 강죽자

(2) 전사 내용

1.5. 식생활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5.3. 밀반찬의 조리

1.6. 거주 생활

1.6.1. 집짓기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사상

1.6.3. 금기 생활

## 1.5. 식생활

###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1 이버는 어, 그 반, 반찬과 팔런텐예, 게서 채소를 한 번 아라보쿠다.  
{이번은 어, 그 반, 반찬과 관련된요, 그래서 채소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0501 @1 어, 바테서 재배허는 채소는 어떤 게 이시코마썸? 여기 배추도 허지  
예?{어,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배추도 하지요?}

10501 #1 배, 배추도 쪼끔씩. 마니는 아녀고. 저이, 저 무테서는 아이, 크게 받  
큰 바세다가 가는데 여기는 브롬 관계로 우영에.{배, 배추도 조금씩. 많이는 않고.  
저이, 저 물에서는 아니, 크게 밭 큰 밭에다가 가는데 여기는 바람 관계로 터알예.}

10501 @1 예.{예.}

10501 #1 우영에 쪼끔씩 가랑 자기 머글 만큼. 배, 배추.{터알예 조금씩 갈아서  
자기 먹을 만큼. 배, 배추.}

10501 @1 부루는마썸?{상추는요?}

10501 #1 무우.{무.}

10501 @1 예.{예.}

10501 #1 또.{또.}

10501 #2 부루 가튼 겐또 이녁.{상추 같은 것도 이녁.}

10501 #1 상추 ㄱ튼 겐또.{상추 같은 것도.}

10501 #2 이녁 머글 꺄뜨른 쪼끔씩 갈멍 머금니다.{이녁 먹을 것들은 조금씩 갈  
면서 먹습니다.}

10501 #1 쪼끔, 쪼끔씨근 갈앙.{조금, 조금씩을 갈아서.}

10501 @1 예.{예.}

10501 @1 마농은 어때쭈파?{마늘은 어땀습니까?}

10501 #2 마늘도 행.{마늘도 해서.}

10501 #1 마농도 어, 쪼끔씩.{마늘도 어, 조금씩.}

10501 @1 고치?{고추?}

10501 #2 고치는 몰템니다. 풀꼬치 정도나 먹쭈, 사당 머거야.{고추는 못합니다.  
풋고추 정도나 먹지, 사다가 먹어야.}

10501 @1 아.{아.}

10501 #2 바람 때메.{바람 때문에.}

10501 @1 음.{음.}

10501 @1 마농은마썸?{마늘은요?}

10501 #1 마농도 역시 쪼끔씩.{마늘도 역시 조금씩.}

10501 #2 보닌 머글 꺄 행 머금네다. 게도.{본인 먹을 것은 해서 먹습니다. 그래도.}



10501 @1 세우린?{부추는?}

10501 #1 세우리도, 세우리도 쪼끔씩.{부추도, 부추도 조금씩.}

10501 @1 지실?{감자?}

10501 #1 지스른.{감자는.}

10501 #2 지스른 어서.{감자는 없어.}

10501 #1 그 저네 쪼끔씩 갈긴 헨찌마는 벨로.{그 전에 조금씩 갈기는 했지만 벨로.}

10501 #2 마시, 마시 업썰예.{맛이, 맛이 없어서요.}

10501 #1 벨로 이 토지가 강해 노니까, 토지가 썰 노니까 잘 안 드러마썰.{별로 이 토지가 강해 놓으니까, 토지가 썰 놓으니까 잘 안 들어요.}

10501 #1 고구마는 잘 드는데.{고구마는 잘 드는데.}

10501 @1 아, 고구마는예?{아, 고구마는요?}

10501 @1 그 다크메 호박또 자기 머글 마니?{그 다음에 호박도 자기 먹을 만 큼.}

10501 #1 예. 호박또.{예. 호박도.}

10501 @1 물웨는?{물외는?}

10501 #1 물웨도 쪼끔씩.{물외도 조금씩.}

10501 @1 예.{예.}

10502 @1 그러면 배추를 쪼끔 가랴따라면 배추는 어떻 행 머금네까?{그러면 배 추를 조금 갈았다면 배추는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10502 #1 배추, 어, 가을, 겨울 드러서기 저네 여기는 또 한 시비월? 시비월?{배 추, 어, 가을, 겨울 들어서기 전에 여기는 또 한 십일월? 십이월?}

10502 #2 시월도 웨고, 구월도 웨고.{시월도 되고, 구월도 되고.} #1 어, 따뜨터 기 때무네.{어, 따뜻하기 때문에.}

10502 #2 구월 웨면 \*\*. {구월 되면\*\*.}

10502 #1 김장 가튼 거, 김치 가튼 거 허미는 빨리 시기 때무네 막 늑.{김장 같 은 거, 김치 같은 거 하면 빨리 쉬기 때문에 막 늑.}

10502 @1 늑게?{늑게?}

10502 #1 어.{아.}

10502 #1 겨울도 한참 추워야.{겨울도 한창 추워야.}

10502 @1 그 다음 늑빠는마썰?{그 다음 무는요?}

10502 #1 아, 늑빠도 배추 시믈 때 가치 헤 가지고, 시머 가지고.{아, 무도 배추 심을 때 같이 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10502 @1 건 뭇 헤멍는고예? 늑빠는?{그것은 무엇을 해서 먹는가요? 무는?}

10502 #1 늑빠 그냥 김치, 깍뚜기 다망 먹꼬.{무 그냥 김치, 깍뚜기 담가서 먹 고.}

10502 @1 깍뚜기, 물김치도 허고.{깍뚜기, 물김치도 하고.}

10502 #1 어, 물김치도 허지마는 건 벨로.{어, 물김치도 하지만 그것은 벨로.}

10502 @1 예예.{예예.}

10502 @1 그 다ومه 마농도 헌텐 허명예?{그 다음에 마늘도 한다고 하면서요?}

10502 #1 마농 조금씩 가랑으네.{마늘 조금씩 갈아서.}

10502 @1 건 쪽파우파? 콤데사니우팡?{그것은 파입니까? 마늘입니까?}

10502 #2 예, 쪽파김치 해 머금니다.{예, 파김치 해 먹습니다.}

10502 @1 게난 그 쪽파라마썰? 아니면?{그러니까 그 파예요? 아니면?}

10502 #2 쪽파.{파.}

10502 @1 콤데사닌?{마늘은?}

10502 #2 콤데사니도 허영 명는 사르른 헤영 머금니다마는 보닌 머글 건 허영 머금니다. 조금씩.{마늘도 해서 먹는 사람은 해서 먹습니다만 본인 먹을 것은 해서 먹습니다. 조금씩.}

10502 @1 게난 마늘 가튼 건 전부 다 어떤 그.{그러니까 마늘 같은 것은 전부 다 어떤 그.}

10502 #2 예, 조금씩 해당 먹꼬, 겨울 김장 마니 명는 건 또 나가서 사다 먹꼬. {예, 조금씩 해다가 먹고, 겨울 김장 많이 먹는 것은 또 나가서 사다 먹고.}

10502 @1 예.{예.}

10502 #2 예. 조금씩 그자 임시 명는 건떠른 다 시명예, 이런 저추룩 암마당에 싱경 강. 집집마다 다.{예. 조금씩 그저 임시 먹는 것들은 다 심어서요, 이런 저처럼 앞마당에 심어서 가서. 집집마다 다.}

10502 @1 게난 감저는 마니 헌텐 헤서예?{그러니까 고구마는 많이 한다고 했지요?}

10502 @1 감저를 어떻 험니까?{고구마를 어떻게 합니까?}

10502 #2 고구마?{고구마?}

10502 @1 예.{예.}

10502 #2 고구마 엔나레는 마니 헨쭈마는 지그른 안 험니다.{고구마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10502 #1 거, 이거 한 멘 년 저네 헨쭈.{거, 이거 한 몇 년 전에 했지.}

10502 #1 불과 한 오 년쭈 웨신가? 재배 안 헌 \*?{불과 한 오년 쭈 됐는가? 재배 안 한 \*?}

10502 #2 오 년만 웨쭈과?{오 년만 됐습니까?}

10502 #2 우리 개이느로 허는딘 오 년만 웨쭈과? 무슨.{우리 개인으로 하는데는 오 년만 됐습니까? 무슨.}

10502 #1 하튼 천구백년도꺼지는 가라쭈게. 이천년도부떠는 안 가랄꼬.{하여튼 천구백년도까지는 갈았습시다. 이천년도부터는 안 갈았고.}

10502 #2 집집마다 다 헤연 빼떼기영 다 허연 장사헤, 이 농협 상데헿 헤신디,

어떻허런 다 이 콩 가튼 거 허쟁 허난 아네영.{집집마다 다 해서 절간고구마랑 다 해서 장사해, 이 농협 상대해서 했는데, 어떡해서 다 이 콩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안 해서.}

10502 #1 처으메는 빼빼기 허다가 고구마도 내중에는 그 전분공장에서 와 바다 간는데.{처음에는 절간고구마 하다가 고구마도 나중에는 그 전분공장에서 와 받아 왔는데.}

10502 #1 그 저 하이튼 이 마니들 재배해서, 여기.{그 저 하여튼 이 많이들 재배했어, 여기.}

10502 @1 게난 지베서 먹쩔 아네쭈광?{그러니까 집에서 먹지는 안 했습니까?}

10502 #1 아, 무사 안 머거마썰?{아, 왜 안 먹나요?}

10502 #2 무사 안 머금니까?{왜 안 먹습니까?}

10502 #2 머금니다.{먹습니다.}

10502 #1 빼빼기도 행 먹꼭.{절간고구마도 해서 먹고.}

10502 @1 네.{네.}

10502 #1 겨, 겨으레 구덩이 파가지고 어, 싸, 다마 될따가.{겨, 겨울에 구덩이 파가지고 어, 쌓, 담아 뒀다가.}

10502 @1 예.{예.}

10502 #1 그 쪼끔씩 꺼내면서 바베도, 보리바베도 어 낵 먹꼬, 그냥 찌서도 먹꼬.{그 쪼끔씩 꺼내면서 밥에도, 보리밥에도 어 놓아서 먹고, 그냥 찌어서도 먹고.}

10502 @1 아, 우린 조파베 낵 먹, 머거나신디양.{아, 우리는 조밥에 넣어서 먹, 먹었었는요.}

10502 #1 아, 조팍. (웃음) 조파베 일, 조파베도 거, 고구마 마니 드러가.{아, 조밥. (웃음) 조밥에 일, 조밥에도 거 고구마 많이 들어가.}

10502 #2 여기는 쭈삿를 강 사오기 때무네.{여기는 쭈쌀을 가서 사오기 때문에.}

10502 @1 보리바펠 때 감저 낵예?{보리밥할 때 고구마 넣어서요?}

10502 #2 예.{예.}

10502 #1 보리바펠 때 낵.{보리밥할 때 넣어서.}

10502 #1 감저 논 바비 만 이서.{고구마 넣은 밥이 맛 있어.}

10502 #2 보리바베 춤 마니 머거쭈다, 감저.{보리밥에 참 많이 먹었습니다, 고구마.}

10502 @1 그 다음 호바근 어떻행 머거신고예?{그 다음 호박은 어떡해서 먹었는가요?}

10502 #2 호바근 국빼끼 안 끄려 머금니다.{호박은 국박에 안 끓여 먹습니다.}

10502 #1 호바근 여기 저, 여름메 우리 갈치 마니 나까썰는데 갈치 나까오면 그 호박꼭.{호박은 여기 저, 여름에 우리 갈치 많이 낵았었는데 갈치 낵아오면 그 호박국.}

10502 @1 예, 그건 아무 거나 마즈니까.{예, 그것은 아무 것이나 맞으니까.}

10502 #1 예, 그거 호박죽 주로.{예, 그거 호박국 주로.}

10502 @1 혹시 여슨 아 네 머거봄떼강?{혹시 엇은 안 해 먹어봤습니까?}

10502 #1 호박넌, 아, 그런 건 잘 안 네 먹꼬.{호박엇, 아, 그런 것은 잘 안 해 먹고.}

10502 @1 음.{음.}

10502 @1 혹시 여기 제사혈 때도 호박 채소는 아 너 \*?{혹시 여기 제사할 때도 호박 채소는 안 해 \*?}

10502 #2 합니다.{합니다.}

10502 @1 올련예?{올렸어요?}

10502 #1 예, 탕쉬.{예, 탕쉬.}

10502 @1 탕쉬로예?{탕쉬로요?}

10502 #1 예.{예.}

10502 @1 그 다으메 물웨를 어떻 행 머거신고예?{그 다음에 물외를 어떻게 해서 먹었는가요?}

10502 #2 물웨는 뭐 그냥 국또 행 먹꼬, 찌거도 먹꼬.{물외는 뭐 그냥 국도 해서 먹고, 찌어도 먹고.}

10502 #1 거 여르메 거, 시위너게 냉꾸케 먹꼬. 그냥 장에.{거 여름에 거, 시원하게 냉국해서 먹고. 그냥 장에.}

10502 #2 주로 국 끄려 머거.{주로 국 끓여 먹어.}

10502 #1 된장에 찌거 먹기도 허고.{된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10503 @1 그러든 아까 갈치에다가 그 호바글 노면 그건 참 이러케.{그러면 아까 갈치에다가 그 호박을 넣으면 그것은 참 이렇게.}

10503 #2 궁하비 웨여네.{궁합이 되어서.}

10503 @1 예. 허는데. 거 혼 번 갈치꾸글 끌려 보십써.{예. 하는데. 그것 한 번 갈치국을 끓여 보십시오.}

10503 #1 갈치구:은.{갈치국은.}

10503 @1 일판 갈치를?{일단 갈치를?}

10503 #2 예, 도막도마게 그 찰랑.{예, 토막토막에 그 찰라서.}

10503 @1 예.{예.}

10503 #2 토막, 도막도마게 썬 물 안쳐그네 물 꺼어가미는예, 갈치 먼저 노록 그 다으멘 호박 노록, 다 된 다으메 쪽과 썬러냥, 그냥.{토막, 토막토막에 썰어서 물 안쳐서 물 끓어가면요 갈치 먹저 넣고 그 다음에는 호박 넣고, 다 된 다음에 파 썰어놓아서, 그냥.}

10503 @1 음.{음.}

10503 #2 소금 간 만췌 머급쭈게.{소금 간 맞춰서 먹지요.}

10503 @1 소금 가느로?{소금 간으로?}

10503 #2 예.{예.}

10503 #2 이제 지그른 비싼. 아이고, 아이고, 갈치 머거보지 모텐.{이제 지금은 비싸서. 아이고, 아이고, 갈치 먹어보지 못해서.}

10503 @1 예, 쏘 비싸예?{예, 쏘 비싸지요?}

10503 #2 아이고, 너무 비싸.{아이고, 너무 비싸.}

10503 #2 이십팔마 닐 바드켄 험떠다. 한 상자에 이젠.{이십팔만 원 받겠다고 합디다. 한 상자에 이제는.}

10503 @1 큰 거, 큰 거우파?{큰 것, 큰 겁니까?}

10503 #1 그 저네는 예, 우리 저 이, 풍선.{그 전에는 예, 우리 저 이, 풍선.}

10503 @1 네.{예.}

10503 #1 풍선 우리 직접 저도 저 이, 우녕헐쭈마는 거 탕 요 아피만 나가며는 갈치 한 뺑 머리, 이뺑 머리 이러케 나강 그러케 소금 헐땅 오래도록 먹꼬 헐는데. {풍선 우리 직접 저도 저 이, 운영했지만 거 타서 요 앞에만 나가면 갈치 한 뺑 머리, 이 뺑 머리 이렇게 낚아서 그렇게 소금 했다가 오래도록 먹고 했는데.}

10503 #1 요즈른 저 이, 잘 자피지 아녀부난.{요즘은 저 이, 잘 잡히지 않아버리니까.}

10503 @1 게 나는 어릴 때.{그래서 나는 어릴 때.}

10503 #1 이 불빠가 나강.{이 불배가 나가서.}

10503 @1 어릴 때 기어기지만 그 갈치 이겁헐뎌 이러케 몰랐뎌 거 몰랭이 일찌야느짱?{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 갈치 미끼했던 이렇게 말랐던 그 몰랭이 있지 않습니까?}

10503 #1 설천, 설천.{설천, 설천.}

10503 #1 여기는 설천이라고.{여기는 설천이라고.}

10503 #1 갈치설천, 갈치 꼬리.{갈치설천, 갈치 꼬리.}

10503 @1 예, 게난 영 행.{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503 #1 아, 갈치 꼬리 짹 짜여가지고 그 뼈를 추린 다음, 그 뼈는 두고.{아, 갈치 꼬리 짹 짜가지고 그 뼈를 추린 다음, 그 뼈는 두고.}

10503 @1 예.{예.}

10503 #1 끝따리 술만 짹 이러케 반쭈 잘라다가 짹 찌지미는 끝따리가 딱 나와마썸. 그거는 낚씨예다가 이 걸미는 거시 땀치가치 노니까 그 갈치가 달려드렁 무러마썸.{꼬트머리 살만 짹 이렇게 반쭈 잘라다가 짹 찢으면 꼬트머리가 딱 나와요. 그것은 낚시에다가 이 걸면 그것이 땀치처럼 노니까 그 갈치가 달려들어서 물어요.}

10503 @1 게난 그 아까 설천?{그러니까 그 아까 설천?}

10503 #1 예.{예.}

10503 @1 그걸 구우면 그러케 마싹씨예, 기여기.{그것을 구우면 그렇게 맛있어요, 기억이.}

10503 #2 (웃음)

10503 #1 갈치구이 말일쭈.{갈치구이 맛있지.}

10503 @1 그 다음에 아까 늑빠도 좀 헐쓰면 늑빠, 혹시 이파리도 머거신가마썸?{그 다음에 아까 무도 좀 했으면 무, 혹시 이파리도 먹었는가요?}

10503 #2 이파린 잘 안 머금니다. 그 쏘게 꺼난. 보기 조케이, 파라, 파라케 보기 조케이 헤영 머건쭈.{이파리는 잘 안 먹습니다. 그 속에 것이니까. 보기 좋게요, 파랑, 파랑게 보기 좋게 해서 먹었지.}

10503 @1 음.{음.}

10503 @1 뭐 물류왕 \*?{뭐 말려서 \*?}

10503 #2 예, 거 그런 건 어습니다, 여긴.{예,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10503 #1 초메기집치도 다망 머건쭈.{무알김치도 담가서 먹었지.}

10503 #2 어릴 때.{어릴 때.}

10503 #1 어릴 때, 무우 어릴 땐 그 이파리도 저 이, 무우랑 ㄴ썸.{어릴 때, 무우 어릴 때는 그 이파리도 저 이, 무랑 같이.}

10503 #2 육썸 간 보난 그 물류왕 씨레기구기엔 행 에이구.{육지 가서 보니까 그 말려서 시레기국이라고 해서 아이고.}

10503 @1 거긴 다 머거마썸. 육썸은.{거기는 다 먹어요. 육지는.}

10503 #2, #1 예, 다 머거.{예, 다 먹어.}

10503 #2 아이들 지비도 간 보난 치랑치랑허게, 저레덜 버리렌 헤네.{아이들 집에도 가서 보니까 치렁치렁하게, 저리들 버리라고 해서.}

10503 @1 (웃음)

10503 #1 마싹썸.{맛있지.}

10503 @1 계난 여기는 서미라부니까 그러케 마니 나는 건 아니다예?{그러니까 여기는 섬이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10503 #1 예, 이.{예, 이.}

10503 #1 늑빠 ㄴ튼 거시 너미 저, 이파리가 너미 자라불미는 브람 썸기 때무네 썸 썰겨마썸.{무 같은 것이 너무 저, 이파리가 너무 자라버리면 바람 세기 때문에 썸 질겨요.}

10503 #1 어, 그러니까.{어, 그러니까.}

10503 #2 막 썰겨.{막 질겨.}

10503 #1 어릴 때나 썸 이, 쏘마 먹꼬 이러케 김치 담꼬 먹썸 커 버린 후에는 그 무만 먹꼬, 이파리는 버리는 거.{어릴 때나 저 이, 삶아 먹고 이렇게 김치 담고 먹지 커 버린 후에는 그 무만 먹고, 이파리는 버리는 것.}

##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1 여긴 도라진 안 나지예?{여기는 도라지는 안 나지요?}

10504 #1 도라지 안 납니다.{도라지 안 납니다.}

10504 @1 더덕또 안 나고예?{더덕도 안 나고요?}

10504 #1 예.{예.}

10504 @1 고사린마씨?{고사리는요?}

10504 #2 고사리도 안 납니다.{고사리도 안 납니다.} #1 고사리도 안 나고.{고사리도 안 나고.}

10504 @1 혹씨 여기?{혹시 여기?} #2 고사린 막 피어야{고사리는 막 피어야.}

10506 @1 민들레도 나는가마썸?{민들레도 나는가요?}

10506 #1 민들레는 마니 납니다.{민들레는 많이 납니다.}

10506 @1 머거 봐쭈과?{먹어 봤습니까?}

10506 #1 어, 민들레. 예 민들레 딸령 머금쭈, 뭐.{어, 민들레. 예 민들레 달여서 먹지요, 뭐.}

10506 @1 건 야그로마씨?{그것은 약으로요?}

10506 #1 야그로 그거 머그며는.{약으로 그거 먹으면.}

10506 #2 민들렌 마니 납니다.{민들레는 많이 납니다.}

10506 #1 저 이, 기침 해소 가튼 건 조코, 가네도 조타고 해가지고, 민들레.{저 이, 기침 해소 같은 것 좋고, 간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민들레.}

10506 @1 예.{예.}

10506 @1 베체기는 어떠쭈광?{질경이는 어떻습니까?}

10506 #1 베체기는 뭘.{질경이는 무엇.}

10506 #2 베체기도 마니 나긴 납니다. 이디도.{질경이도 많이 나긴 납니다. 여기도.}

10506 @1 켄디 머거나쭈과?{그런데 먹었었습니까?}

10506 #2 한 번 머거나실 꺼라. 일쫘이 아부지.{한 번 먹었었을 거야. 일쫘의 아버지.}

10506 #1 베체기?{질경이?}

10506 #2 소변 잘 못 봤젠 헤네 한 번 머거나쭈다.{소변 잘 못 봤다고 해서 한번 먹었었습니다.}

10506 #2 두우기 아지방은 죽짱 머건.{두육이 아주버니는 줄곧 먹었어.}

10506 @1 아일, 건 소비네, 소변 잘 나온다고예?{아 이, 그것은 소비네, 소변 잘 나온다고요?}

10506 #2 예, 딸런.{예, 달여서.}

10506 @1 여기 난시도 나는가마썸? 바테, 난시. 난쟁이?{여기 냉이도 나는가요? 밭에, 냉이. 냉이?}

10506 #1 난쟁이.{냉이.}

10506 @1 난지?{냉이?}

10506 #1 난쟁이 쪼끔씩 나지?{냉이 조금씩 나지?}

10506 #2 예, 조금씩 하영 납니다게.{예, 조금씩 많이 납니다.}

10506 @1 그건 어떻 머거나수팡? 거 보메?{그것은 어떻게 먹었었습니까? 거 봄에?}

10506 #2 데칭 그냥 모메 먹쩔 아녀고, 그건 그냥 데쳐네 장에도 찌경 먹꼬.{데쳐서 그냥 몸에(?) 먹지를 앓고, 그것은 그냥 데쳐서 장에도 찍어서 먹고.}

10506 #1 초여르메.{초여름에.}

10506 #2 예, 무쳐도 먹꼬.{예, 무쳐도 먹고.}

10506 #1 아, 초보메 그 입만 도지라고.{아, 초봄에 그 입맛 돋우라고.}

10506 #2 무청도 먹꼬.{무쳐서도 먹고.}

10506 #2 찌디 냉동시레 저 둥구렁.{저기 냉동실에 저 굴러.}

10506 @1 게난 여기 나긴 나고예?{그러니까 여기 나기는 나고요?}

10506 #1, #2 예예.{예.}

10506 @1 예.{예.}

10506 @1 혹씨 썩마농은마썸?{혹시 달래는요?}

10506 @1 썩마농, 어신가마썸? 여기는.{달래, 없나요? 여기는.}

10506 #2 싯낀 셔도 건 안 머금니다. 셔, 엔나렌 흥끔씩 셔날쥔 해도 이젠 두두기 하도 약커는 따무네예, 다 사가, 사가져부런네.{있기는 있어도 그것은 안 먹습니다. 있어, 옛날에는 조금씩 있었다고 해도 이제 두둑에 하도 약치는 때문예요, 다 삭아, 삭아져버려서요.}

10506 #2 그, 무슨 마농담\* 드른노몰, 저 드른마농.{그, 무슨 마농갈\* 들나물, 저 달래.}

10506 @1 예.{예.}

10506 #2 예, 새우리ㄴ치 까는허게 나온 거.{예, 부추같이 가늘게 나온 것.}

10506 #2 예.{예.}

10506 @1 땅소게 꺼 요만큼 알맹이 일꼬예?{땅속의 것 요만큼 알맹이 있고요?}

10506 #2 예예.{예예.}

10506 #2 거 하도 약커는 따무네 이젠 어서전마썸게. 하도 두두게덜 약커는 따무네.{그것 하도 약하는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도 두둑에들 약치는 때문예.}

10506 @1 그 다으메 비름몬 어떠쑈과? 췌비늬 말고 비름 멍는 거?{그 다음에 비름은 어떻습니까? 쇠비름 말고 비름 멍는 것?}

10506 @1 비늬?{비늬?}

10506 #1 그런 거 안 머거봐쑈다.{그런 것 안 먹어봤습니다.}

10506 @1 음.{음.}

10506 @1 그 다으메 썸바귀? 저 수예.{그 다음에 썸바귀? 저 수예.}

10506 #1 썸바귀도 아.{썸바귀도 아.}

10506 #2 썸바귀가 뭇싯우파?{썸바귀가 무엇입니까?}

10506 @1 수예.{썸바귀.}



10506 #1 그런 건또 잘 안 나오고.{그런 것도 잘 안 나오고.}

10506 @1 영 이파리 까린, 토끼 잘 멎는 거마씨. 토끼풀 비슬탄 거.{이렇게 이파리 까릿, 토끼 잘 멎는 거요. 토끼풀 비슷한 것.}

10506 #1 풀, 어 토끼풀 그런 거는.{풀, 아 토끼풀 그런 것은.}

10506 #2 어, 그거 썸바귀구나.{어, 그거 썸바귀구나.}

10506 #1 토끼풀 그런 건 또 잘 멎찌 아네서.{토끼풀 그런 것은 또 잘 멎지 않았어.}

10506 @1 고들빼기도예?{고들빼기도요?}

10506 #1 예.{예.}

10506 @1 겐디 이거 고들빼기나 썸바귀는 육찌 싸름드른 마니 멎는디마씨게? {그런데 이거 고들빼기나 썸바귀는 육찌 사람들은 많이 멎는대요?}

10506 #2 나, 여기 왕 다 해가.{나, 여기 와서 다 해가.}

10508 @1 게난 아까 그 나물드를 켈려고 하면 일판 뒤로 캅떼가? 난시는 칼로?{그러니까 아까 그 나물드를 캐려고 하면 일단 뒤로 캅습니까? 냉이는 칼로?}

10508 #2 칼로 허여. 여기 칼로. 주로 칼로.{칼로 해. 여기 칼로. 주로 칼로.}

10508 @1 칼로?{칼로?}

10508 @1 게영 그 캐면 어디에 다마나될쑤과?{그래서 그 캐면 어디에 담아두었습니다?}

10508 #2 바구니에 다망 왕.{바구니에 담아서 와서.}

10508 @1 바구니?{바구니?}

10508 #2 예.{예.}

10508 @1 구덕.{바구니.}

10508 #2 구덕, 구더게.{바구니, 바구니에.}

10508 @1 거시 큰 겨우짱? 조근 겨우짱?{그것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10508 #2 짜근 거, 짜근 겁쑤게. 짜근 거. 승키 꾸덕마니.{작은 거, 작은 것이지요. 작은 거. 나물 바구니만큼.}

10508 #2 게도 말로들, 말로 똥당 허민 혼두 말쑤 똥는 구덕떨.{그래도 말도들, 말로 된다고 하면 한두 말쑤 되는 바구니들.}

10508 @1 게른 거 소쿠리렌 해도 똥 켜가마쑤?{그러면 거 소쿠리라고 해도 될 것인가요?}

10508 #2 예, 소쿠리. 윈 큰 소쿠리마니 현 거. 엔나른 나이롱소쿠리가 어스난 대우, 대 소쿠리덜.{예, 소쿠리. 윈 큰 소쿠리만큼 한 것. 옛날은 나일론소쿠리가 없으니까 대, 대소쿠리들.}

10508 @1 음:, 예예.{음:, 예예.}

10508 @1 혹씨 여기도 뱀 마니 나는가마씨?{혹씨 여기도 뱀 많이 나는가요?}

10509 #2 아이고, 예게. 뱀 합니다, 가파도.{아이고, 예. 뱀 많습니다, 가파도.}

10509 @1 음. 게난 혹씨 뒤 그런 거 캐당 뱀 만난 적또 이쑤과?{음.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것 캐다가 뱀 만난 적도 있습니까?)

10509 #2 난 뱀 물려쭈다.{나는 뱀 물렸습시다.}

10509 @1 아이고.{아이고.}

10509 @1 거 독사가 아니고?{거 독사가 아니고.}

10509 #2 모르쿠다게. 무슨 뱀사.{모르겠습시다. 무슨 뱀인지.}

10509 #1 독사는 아니고.{독사는 아니고.}

10509 #2 여기는 독사도 일따고는 하지마는 그 구렁이.{여기는 독사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구렁이.}

10509 @1 음, 구렁이는 뭐.{음, 구렁이는 뭐.}

10509 #2 에이그.{에이그.}

10509 @1 게난 모슬포까지 간따 읍떼가?{그러니까 모슬포까지 갔다 왔습니까?}

10509 #2 예게, 아이고.{예, 아이고.}

10509 #2 아방 어슬 때 여기 스물 막 들루 올리부난 사름 주건쥔 허명.{아버지 없을 때 여기 사름 막 마구 소리쳐버리니까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10509 #2 (웃음)

10509 #2 흐끔도 아프지 아늑따다게.{조금도 아프지 않습시다.}

10509 @1 음.{음.}

10509 #2 바농으로 그자 콕 찔른 거ㄴ치.{바늘로 그저 콕 찌른 것같이.}

10509 #2 영업간 아니 오난 파도가 하도 씨난 절로 베리젠 저 무네 영 발 톡 노난 무스 거시 소왓커연. 아 영 바레보난 그디 영 뭐, 아이고 그땐 내가 중나고 하도 올리부난 몬 어 동네 동네 싸름덜 어병.{영업가서 아니 오니까 파도가 하도 세니까 저리로 보려고 저 문에 이렇게 발 톡 놓으니까 무슨 것이 쏘악해서. 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뭐, 아이고 그때는 내가 죽는다고 하도 외치니까 몽땅 아 동네 사람들 업어서.}

10509 #1 여르메는 이, 학, 이 기레도 다니다 보며는 여프로 막 지나가.{여름에는 이, 학, 이 길에도 다니다 보면 옆으로 막 지나가.}

10509 @1 음.{음.}

10509 #2 이만씩컨 거.{이만큼씩한 거.}

10509 @1 음음.{음음.}

10509 #2 배움씨미라, 배움썸.{뱀섬이야, 뱀섬.}

10509 @1 음. 예예예. 조쭈다.{음. 예예예. 좋습시다.}

### 1.5.3. 밀반찬의 조리

10510 @1 이제는 그 밀반찬을 만드는 건또 한 번 해, 해봣쥬예?{이제는 그 밀반찬을 만드는 것도 한 번 해, 해보지요?}

10510 @1 음:. 주로 여기선 주시글 얻, 뭐로 멍는고마썸? 주식? 바쁜?{음. 주로

여기서는 주식을 어, 무엇으로 먹는가요? 주식? 밥은?

10510 #2 바른 국, 국, 반찬, 김치.{밥은 국, 국, 반찬, 김치.}

10510 @1 계란 밥또 어떤 바비우짱?{그러니까 밥도 어떤 밥입니까?}

10510 @1 지그른 뭐 저, 저, 저거 흰바블 명는데 엔나른마씨?{지금은 뭐 저, 저, 흰밥을 먹는데 옛날은요?}

10510 #2 엔나른.{옛날은.}

10510 #1 엔나른 보리밥.{옛날은 보리밥.}

10510 @1 예.{예.}

10510 #1 보리바베, 또 잔치 때는 쌀, 땡미하고 보리쌀허고 파터고.{보리밥에, 또 잔치 때는 쌀, 땡미하고 보리쌀하고 팔하고.}

10510 @1 네.{네.}

10510 #1 이러케 해가지고 잔치 때는 머건꼬.{이렇게 해가지고 잔치 때는 먹었고.}

10510 #1 또 장사 지낼 때는 완전 하얀 쌀.{또 장사 지낼 때는 완전 하얀 쌀.}

10510 @1 흰바비고예?{흰밥이고요?}

10510 #1 흰바브로 머건꼬.{흰밥으로 먹었고.}

10510 @1 음.{음.}

10510 #1 그냥.{그냥.}

10510 #2 지비선 보리밥.{집에서는 보리밥.}

10510 #1 이 가정찌베서 그냥 큰일 어시, 업쓸 때는 그냥 보리밥.{이 가정집에서 그냥 큰일 없이, 없을 때는 그냥 보리밥.}

10510 #2 감자 노룩 커영.{고구마 넣고 해서.}

10510 @1 음.{음.}

10510 #1 예.{예.}

10510 @1 예, 국꾸는 어떤 때 머거나쭈광?{예, 국수는 어떤 때 먹었었습니까?}

10510 #1 국꾸도 뭐, 장사 때도 머건쭈마는 보통 그냥 가정찌베서는 그자 저 나 제 점심 때나 애기들 간시그로.{국수도 뭐, 장사 때도 먹었지만 보통 그냥 가정집에서는 그저 저 낮에 점심 때나 아기들 간식으로.}

10510 @1 예.{예.}

10510 #1 우동 허영.{국수 해서.}

10510 #2 엔나레 어디 국꾸 간시그로 머거쭈가?{옛날에 어디 국수 간식으로 먹었습니까?}

10510 #1 지 때로 머글 때.{제 때로 먹을 때.}

10510 #1 지 때로 머글 때도 이서.{제 때로 먹을 때도 있어.}

10510 #2 아이고, 국꾸 잘 머건쭈.{아이고, 국수 잘 먹었지.}

10510 @1 지 때로예?{제 때로요?}

10510 #1 어, 어.{어, 어.}

10510 @1 그 다음 구근 어떤 거, 어떤 걸 해 머거나십떼강? 국?{그 다음 국은 어떤 거, 어떤 것을 해 먹었었습니까? 국?}

10510 #2 주루 엔나렌 미역국.{주로 옛날에는 미역국.}

10510 @1 네예.{네예.}

10510 #2 미역국, 녹물국.{미역국, 나물국.}

10510 @1 네.{네.}

10510 #2 호박또 하영 나민 호박.{호박도 많이 나면 호박.}

10510 @1 네{네.}

10510 #2 그런 거베끼 안 머거.{그런 것밖에 안 먹어.}

10510 #2 엔나른 돼지고기 추렴허영예, 그때 참 고기, 돼지고기덜 잘 자바. 우리, 우리 기억나는 건 그자 돼지고기 허영 미역 노록 국 끌령, 아이구.{옛날은 돼지고기 추렴해서, 그때 참 고기, 돼지고기들 잘 잡아. 우리, 우리 기억나는 것은 그자 돼지고기 해서 미역 넣고 국 끓여서, 아이고.}

10510 @1 아, 돼지고기에 미역?{아, 돼지고기에 미역?}

10510 #2 예.{예.}

10510 @1 몫꾸기 아니고?{모자반국이 아니고?}

10510 #2 크닐치비선 몫꼭커영 머금니다.{큰일집에서는 모자반국해서 먹습니다.}

10510 @1 음.{음.}

10510 @1 그 다음에 찌개는 어떤 찌개들 행 멩는고예?{그 다음에 찌개는 어떤 찌개들 해서 먹는가요?}

10510 #1 돼지고기찌개.{돼지고기찌개.}

10510 #2 바다에 고기 마니 나난 바다고기.{바다에 고기 많이 나니까 바다고기.}

10510 @1 네.{네.}

10510 #1 건 반찬, 매운탕 그런 거.{그것은 반찬, 매운탕 그런 것.}

10510 #2 주루 엔나른 매운, 고치장도 벨로 사용 아녕 머그민 그자 김치 낱. 고기 탁 드리치고 김치 낱 지글지글.{주로 옛날은 매운, 고추장도 별로 사용 안 해서 먹으면 그자 김치 넣어서. 고기 탁 집어넣고 김치 넣어서 지글지글.}

10510 @1 예.{예.}

10510 @1 혹, 구이는마씨? 구이는.{혹, 구이는요? 구이는.}

10510 #1 구이는 자리구이, 갈치구이.{구이는 자리돔구이, 갈치구이.}

10510 #2 구기도 고등어 한 마리 구언 머견쥬.{굽기도 고등어 한 마리 구워서 먹었지.}

10510 #1 뽕어돔, 구리찌.{뽕에돔, 뽕에돔.}

10510 @1 네.{네.}

10510 #1 이걸또 몰렐따가 이제 구워 먹꼬.{이것도 말렸다가 이제 구워 먹고.}

10510 @1 뭐 고등어나 각찌기는 아네쭈과?{뭐 고등어나 전갱이는 안 했습니까?}

10510 #1 고등어, 각쟁이는 그런 건 잘 안 나고. 이 어랭이 가뜰 거 여르메는 그걸 나까다가 배 땀 다으메 몰령.{고등어, 전갱이는 그런 것은 잘 안 나고. 이 어랭놀래기 같은 것 여름에는 그것 낚아다가 배 땀 다음에 말려서.}

10510 @1 음.{음.}

10510 #1 그거 해영으네 구워 먹꼬.{그거 해서 구워 먹고.}

10510 @1 우러근마씨?{우럭볼락은요?}

10510 #1 우럭또 그 배볼랑 소금 쫌 헐따가.{우럭볼락도 그 배따서 소금 쫌 헐다가.}

10510 #2 엔나른 우럭ㄴ뜰 거 꺀기로도 아니 아라쭈다.{옛날은 우럭같은 거 고기도로 아니 알았습니다.}

10510 @1 아, 그러쭈과?{아, 그렇습니까?}

10510 @1 우리 우러근 제수그로 씨신디마씨? 저쪼게서는.{우리 우럭볼락은 제육으로 썰는데요? 저쪽에서는.}

10510 #2 지그른 막, 지그른 막 스물 제사 때예.{지금은 막, 지금은 막 사뭇 제사 때예.}

10510 #1 제수그로도 우럭, 볼락 이러케 몰린 걸 제수그로 마니 씨.{제육으로도 우럭볼락, 보락 이렇게 말린 것을 제육으로 많이 씨.}

10510 #2 우러근 막 비썬, 지금.{우럭보락은 막 비썬어, 지금.}

10510 @1 음.{음.}

10510 #1 음.{음.}

10510 @1 혹씨 고추장도 다망 머금떼가?{혹시 고추장도 담가서 먹었습니까?}

10510 #2 예, 지비서 고치장 다망 머금니다.{예, 집에서 고추장 담가서 먹습니다.}

10510 @1 건 어떻 다마나쭈과?{그것은 어떻게 담갔었습니까?}

10510 #2 누룩까루허고 고치까루허고 설탕 노코.{웃음}{누룩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설탕 넣고.웃음}

10510 @1 네.{네.}

10510 #2 물런 노코 경 허영 비각비각 버무려그네.{웃음}{물엿 넣고 그렇게 해서 비각비각 버무려서.웃음}

10510 @1 음.{음.}

10510 #2 지금도 경 행 다뭍니다.{지금도 그렇게 해서 담금니다.}

10510 @1 똥장은마씨?{똥장은요?}

10510 #2 똥장엔 안 다마봐쭈다.{똥장에는 안 담아봤습니다.}

10510 @1 안 담고?{안 담그고?}

10510 #2 아, 똥장은 우리 지베서.{아, 똥장은 우리 집에서.}

10510 @1 예.{예.}

10510 #2 예, 콩 메주 슬망예.{예, 콩 메주 삶아서요.}

10510 #1 저 메주.{저 메주.}

10510 @1 음.{음.}

10510 #2 메주 슬망.{메주 삶아서.}

10510 #1 메주 슬망.{메주 삶아서.}

10510 #2 소금물 가랑 메칠 영 까라안철따그네 메주 띠, 콩 슬망 드라메영 티견.{소금물 갈아서 며칠 이렇게 가라앉혀서 메주 띠, 콩 삶아서 매달아서 띄워.}

10510 #2 경 허영 장 다망.{그렇게 해서 장 담가서.}

10510 #2 게민 쪽짱 다망 머거십쭈게. 지배서 콩 허난. 지금도 다망 머거마썸. 사당 안 머경.{그러면 줄곧 담가서 먹었습지요. 집에서 콩 하나까. 지금도 담가서 먹어요. 사다가 안 먹어서.}

10510 @1 아, 그러쭈과?{아, 그렇습니까?}

10510 #2 예. 지금 여기서 다망.{예. 지금 여기서 담가서.}

10510 @1 이거 진짠데 된장은.{이것 진짜인데 된장은.}

10510 @1 장아찌는 어떤 거, 뭐 행 머거나쭈과?{장아찌는 어떤 거,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510 #2 장아찌 아직.{장아찌 아직.}

10510 #1 마농장아찌. 마농 사당.{마늘장아찌. 마늘 사다가.}

10510 #2 (웃음)

10510 @1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510 #1 마농지, 그, 그런 정도?{마늘장아찌, 그, 그런 정도.}

10510 #2 그 숭게비도 그냥 알맹이로 깡예. 겉또 간, 간장에 그자 장에 찌 다망, 겉또 머겉꼬.{그 마늘도 그냥 알맹이로 까서요, 그것도 간, 간장에 그저 장에 장아찌 담가서, 그것도 먹었고.}

10510 @1 뭐 양에도 해, 해납떼가? 양에지시?{뭐 양하도 해, 했었습니까? 양하 장아찌?}

10510 #2 양에, 그 간낭, 간낭 그거 진 허연 머거나도.{양하, 그 양배추, 양배추 그거 장아찌는 해서 먹었어도.}

10510 @1 칸나는 저 양배추?{칸나는 저 양배추?}

10510 #2 예.{예.} #1 양배추{양배추.}. #2 양배추.{양배추.}

10510 @1 음.{음.}

10510 #2 그런 건.{그런 것은.}

10510 @1 아, 겉또 장아찌 멘드렁예?{아, 그것도 장아찌 만들어서요?}

10510 #2 예, 장아찌 멘드랑. 다마네기, 그 양파가튼 겉또 기자 장아찌 멘드랑 머거.{예, 장아찌 만들어서. 양파, 그 양파같은 것도 그저 장아찌 만들어서 먹어.}

10510 #2 그런 건 이 김치철 뒤편 가른 그런 짱아찌 가튼 거 이겉저겉 다망 머거

집니다.{그런 것은 이 김치철 되어 가면 그런 장아찌 같은 것은 이것저것 담가서 먹어집니다.}

10510 @1 음.{음.}

10510 @1 그른 전까른 마니 다맡쨌찌예? 여기, 해변 뚱네니까. 전갈?{그러면 젓같은 많이 담갔쨌지요? 여기, 해변 동네니까. 젓갈?}

10510 #2 전갈 안 놓 여, 저 장아찌할 땐 그냥 간장에 매실 놓예. 그냥 해 머거.{젓갈 안 넣어서 여, 저 장아찌할 때는 그냥 간장에 매실 넣어요. 그냥 해 먹어.}

10510 @1 아니, 전까른 마니 멘드러 멍는 거 아니우꽈? 전갈?{아니, 젓갈은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젓갈?}

10510 #2 예, 전까른 우리는 멜쨌 조아 아녀난네 자리전 그냥 허영 먹쨌, 멜쨌슨 안 머거집니다, 잘.{예, 젓갈은 우리는 멸치젓 좋아 앓으니까 자리돔젓 그냥 해서 먹지, 멸치젓은 안 먹어집니다.}

10510 @1 그럼 이 동네에선 무슨 전 탕 머금네까?{그럼 이 동네에서는 무슨 젓해서 먹습니까?}

10510 #2 자리전, 멸쨌.{자리돔젓, 멸치젓.}

10510 @1 예.{예.}

10510 #2 그런 거베끼 아닙니다.{그런 것밖에 안 합니다.}

10510 #1 주루 그거{주로 그거.}

10510 #2 이제.{이제.}

10510 @1 알게미전? 갈치 날 때는?{아가미젓? 갈치 날 때는?}

10510 #2 알게미전 가뜰 거는 그 저.{아가미젓 같은 것은 그 저.}

10510 #1 그 저네는 행.{그 전에는 해서.}

10510 #2 예.{예.}

10510 #1 머견쨌, 어릴 땐.{먹었지, 어릴 때는.}

10510 #2 이젠 갈치가 귀허영 그건또 마니 아니 사와부난 아니 먹꼬, 저 무슨 꼴뚜기전.{이제는 갈치가 귀해서 그것도 많이 안 사와버리니까 아니 먹꼬, 저 무슨 꼴뚜기젓.}

10510 @1 음.{음.}

10510 #2 꼴뚜기전 가튼 거 해 먹꼬.{꼴뚜기젓 같은 거 해 먹꼬.}

10510 @1 여기 꼴뚜기가 нама쨌?{여기 꼴뚜기가 나요?}

10510 #2 예, 꼴뚜긴 모실포예 가며는.{예, 꼴뚜기는 모슬포예 가면.}

10510 @1 아, 사당?{아, 사다가?}

10510 #2 예, 사당.{예 사다가.}

10510 #2 장녀넌 저딤, 친척 아이도 이만한 걸로 하나 해오난 아이덜신디 보내고 예, 참 미리 선생님덜 와시른 건또 만 뽈 건디 아이고, \*\* 스망 일민 올히도 가져다 줄티사. (웃음) 가져다 주미는 나 안 머경 선생님덜 드리쿠다. (웃음){작년에 저기, 친척 아이도 이만한 것으로 하나 해오니까 아이들한테 보내고 예, 참 미리 선

생님들 왔으면 그것도 맛 볼 것인데 아이고, \*\* 사망 일면 올해도 가져다 줄지야.  
(웃음) 가져다 주면 나 안 먹어서 선생님들 드리겠습니다. (웃음)

10510 @1 예.{예.}

10511 @1 그 다오메 그 별씨그로 멍, 머건편 거예? 예, 예를 들면 만두도 행 머  
거나신가마씨?{그 다음에 그 별식으로 먹, 먹었던 거요? 예, 예를 들면 만두도 해서  
먹었었는가요?}

10511 @1 여기서 만두, 만뒤?{여기서 만두, 만두?}

10511 #2 아, 만두. 머느리덜 올 때 징, 저번 머거 보고 난 아네 봐쭈다. 메느리  
덜 올 때 만두 허, 비저십떠다.{아, 만두. 머느리들 올 때 징, 저번 먹어 보고 난 안  
해 봤습니다. 머느리들 올 때 만두 하, 빗었습디다.}

10511 @1 예.{예.}

10511 @1 떡꾸근마씨?{떡국은요?}

10511 #2 떡꾸근 해당 머금니다.{떡국은 해다 먹습니다.}

10511 @1 떡꾸근?{떡국은?}

10511 #2 예.{예.}

10511 @1 음.{음.}

10511 #1 건 모슬포 강 빠 와야. 떡꾸근.{그것은 모슬포 가서 빠 와야. 떡국은.}

10511 #1 엔나렌 저, 이 빼떼기 뻥상 그 감저끄루 멘드랑 그 돌레떡. 그, 그거  
마니들 헤 머건는데.{옛날에는 저, 이 절간고구마 뿡아서 그 고구마가루 만들어서  
그 도래떡. 그, 그거 많이들 해서 먹었는데.}

10511 @1 건 정말 마신는데.{그것은 정말 맛있는데.}

10511 #1 예. 말떠서.{예, 맛있어.}

10511 @1 색까른 꺼멍해도 건 참 마신는데.{색깔은 꺼매도 그것은 참 맛있  
데.}

10511 @1 음.{음.}

10511 #2 엔날 음식기 안 나나네.{옛날 음식이 안 나니까.}

10511 @1 오곡빠븐 어, 흑씨 어떠케?{오곡밥은 어, 흑시 어떻게?}

10511 #2 오곡빠븐 이제는 춤 조은 때난예, 오곡쌀 해당 그냥 오곡빤페영.{오곡  
밥은 이제는 참 좋은 때니까요, 오곡쌀 해다가 그냥 오곡밥해서.}

10511 @1 네.{네.}

10511 #2 쌀 사당 그자 오곡빤페영.{쌀 사다가 그저 오곡밥해서.}

10511 @1 게난 어떤 때 오곡빠블 머거쭈과?{그러니까 어떤 때 오곡밥을 먹었습  
니까?}

10511 #2 무슨 나리우파? 오곡빤 멍는 날. (웃음){무슨 날입니까? 오곡밥 먹는  
날. (웃음)}

10511 #1 아이.{아니.}

10511 #1 정월대보름 때나.{정월대보름 때나.}



10511 @1 음.{음.}

10511 #2 오곡밥페영 머거. 똑 그 허영 명는 나른 해연 머거쭈다. (웃음){오곡밥 해서 먹어. 똑 그 해서 먹는 날은 해서 먹었습니다. (웃음).}

10511 @1 그 동진나른?{그 동짓날은?}

10511 #2 동진나른 죽 썬 먹꼬.{동짓날은 죽 썬 먹고.}

10511 @1 죽 썬 먹꼬?{죽 썬 먹고?}

10511 #1 동진나른 동지곶죽.{동짓날은 동지곶죽.}

10511 #2 곶또 썬 명는 동지 싹꼬, 안 썬 명는 동지 싹따다.{그것도 썬 먹는 동지 있고, 안 썬 먹는 동지 있습니다.}

10511 @1 뭐, 애기동지니 뭐니?{뭐, 아기동지니 뭐니?}

10511 #1 애기동지.{아기동지.}

10511 #2 초예 드는 건 안 썬 먹꼬, 보, 시보일 너머 드는 건 썬 명넨 허영.{초예 드는 것은 안 썬 먹고, 보, 십오일 넘어서 드는 것은 썬 먹는다고 해서.}

10511 @1 그럼 유월 쓰무나른 뭐 머급떼가?{그러면 유월 스무날은 뭐 먹었습니다?}

10511 #2 유월 쭈무 나른.{유월 스무날은.}

10511 #1 독 짜바 머거.{닭 잡아 먹어.}

10511 #2 닭. (웃음){닭.(웃음).}

10511 @1 독, 예.{닭, 예.}

10511 #1 예.{예.}

10511 #2 육찌예는 초보게 명는 나른디 여기는 유월 쓰무날.{육지에는 초복에 먹는 날인데 여기는 유월 스무날.}

10511 @1 혹씨 비오는 날 뭐, 여기서 멘드라 머걸뎌 건 어신가, 뭐 부침개 가튼 건뜰?{혹시 비오는 날 뭐 여기서 만들어 먹었던 거 없는가, 뭐 부침개 같은 것들?}

10511 #1 덴뿌라 지정 머거.{튀김 지져서 먹어.}

10511 #2 부침개 자꾸 행 머그난예.{부침개는 자꾸 해서 먹으니까요.}

10511 @1 음, 비 올 땐?{음, 비 올 때는?}

10511 #2 예, 이젠 곶또 질런.{예, 이제는 그것도 질려서.}

10511 @1 그 재료는 뭇고마썸?{그 재료는 무엇인가요?}

10511 #1 엔나렌 뭐 감저까루로도 행 먹꼬 헐찌.{옛날에는 뭐 고구마가루로도 해서 먹고 했지.}

10511 #1 밀까루.{밀가루.}

10511 @1 음.{음.}

10511 #2 감제, 감제 썬러 낱.{고구마, 고구마 썬어 놓아서.}

10511 #2 참, 요즈메드른 돈 주명 사 머거도.{참, 요즘에들은 돈 주면서 사 먹어도.}

10511 #1 독썰기 까 노코 케영으네.{계란 까 넣고 해서.}

10511 #2 (웃음) 계란.{(웃음) 계란.}

10511 #1 전 지정.{전 지저서.}

10511 @1 떠근 어떤 걸 해 머거 볶떼강? 떡.{떡은 어떤 것을 해 먹어 볶디가? 떡.}

10511 #2 떠근 무신, 제사 때는?{떡은 무슨, 제사 때는?}

10511 @1 예, 제사 때, 식게 때 한 번 해봬써. 무슨 떠글 멘듬니까? 다설 쯔뉴?{예, 제사 때, 제사 때 한 번 해보십시오. 무슨 떡을 만듭니까? 다섯 종류?}

10511 #2 예, 여기 뭐 곤떡.{예, 여기 뭐 흰떡.}

10511 @1 네.{네.}

10511 #2 그, 중게 약께엔 행예, 그거, 그거허고 접꼭.{그 중게 약과라고 해서요, 그거, 그것하고 집고.}

10511 @1 예.{예.}

10511 #2 뭐 또 뭐시냐, 그, 건꺄라 무슨.{뭐 또 뭇이나, 그, 그것보고 무슨.}

10511 @1 우, 우끼, 우쩍?{우, 웃기, 웃기?}

10511 #2 우짱은 도레기떡. 우찌근, 우짱은 도레기떠기엔 힘니다.{웃기는 도레기떡. 웃기는, 웃기는 도레기떡이라고 합니다.}

10511 @1 도레기떡?{도레기떡?}

10511 #2 예. 도레기, 동글락컨 건꺄라.{예. 도레기, 둥근 것보고.}

10511 @1 예.{예.}

10511 #2 그건 우짱허고.{그것은 웃기하고.}

10511 #2 요즘 딱 그건꺄라 무슨 거엔 현다마는 절베니엔, 절베닌가.{요즘 딱 그것보고 무슨 것이라고 한다면 절편이라고, 절편인가.}

10511 @1 절벤, 예.{절편, 예.}

10511 #2 예, 절벤허고. 무인침떠커꼭.{예, 절편하고, 무힌시루떡하고.}

10511 @1 예.{예.}

10511 #2 건빼끼 아넵니다. 우리는.{그것밖에 안 합니다.}

10511 @1 으음.{으음.}

10511 @1 게믄 다설 쯔뉴가 뉘 께 아니우짱?{그러면 다섯 종류가 될 것 아닙니까?}

10511 #2 예예, 혼 다설 쯔뉴.{예예, 한 다섯 종류.}

10511 @1 흑씨 지베 상 당해도 그러케 허, 허는가마씨?{흑씨 집에 상 당해도 그렇게 하, 하는가요?}

10511 #2 예.{예.}

10511 #2 예?{예?}

10511 @1 상 난썰 때도 경 허는가마썰?{장사 났을 때도 그렇게 하는가요?}

10511 #1 그 저네는 다 지베서 그 멘드랑 해썬쭈게. 저, 썰 뵤상으네 다 허연 손수 해난는디 요즈믄 저 이, 모슬포.{그 전에는 다 집에서 그 만들어서 했습지요.}

저, 쌀 빵아서 다 해서 손수 했었는데 요즘은 저 이, 모슬포.}

10511 #2 다 사당.{다 사다가.}

10511 #1 떡찌비 강으네 사당 전부 다.{떡집에 가서 사다가 전부 다.}

10511 #2 전좌, 전좌만 허든 다 상.{전화, 전화만 하면 다 사서.}

10511 #1 제사, 제사 때나 장사 때나 다 건 모슬포 나강 사당 허곡, 엔나레는 손수 지비서 해십쥬.{제사, 제사 때나 장사 때나 다 그것 모슬포 나가서 사다가 하고, 옛날에는 손수 집에서 했습지요.}

10511 @1 흑씨 여기서 다른 동네도 한번 도라보면 여기서 뭐, 특빨리 해멍는 건 뭐 이신고예? 이 가파도에서만 특빨리 해멍는 건?{흑씨 여기서 다른 동네도 한번 돌아보면 여기서 뭐, 특별히 해먹는 것은 뭐 있는가요? 이 가파도에서만 특별히 해먹는 것?}

10511 #1 특빨리 해멍는 건 뭐 이시코?{특별히 해 먹는 것 뭐 있을까?}

10511 @1 예를 들면 그 뭐우파? 음, 군번, 군부?{예를 들면 그 뭇니까? 음, 군부, 군부?}

10511 #1 군번? 어, 반찬?{군부? 어, 반찬?}

10511 @1 예.{예.}

10511 #1 군번, 군번 해다가.{군부, 군부 해다가.}

10511 @1 네.{네.}

10511 #1 거 닥쌀, 저 끄른 무레 살짝 데쳐 가지고.{그것 딱지, 끓는 물에 쌀작 데쳐 가지고.}

10511 #2 아이고, 건 못, 여기 싸름덜베끼 못됩니다. 선생님.{아이고, 그것은 못, 여기 사람들밖에 못합니다. 선생님.}

10511 #1 닥쌀 떼어난 다으메 그, 도레다 미리. 돌로 막 돌 우에 노코 또 돌로 막.{딱지 떼어난 다음에 그, 돌에다 밀어. 돌로 막 돌 위에 놓고 또 돌로 막.}

10511 @1 음음.{음음.}

10511 #1 밀미는 완저니 껍찌리 하야케 돼.{밀면 완전히 껍질이 하얗게 돼.}

10511 #2 깔끔허영.{깔끔해서.}

10511 #1 게민 그 가져왕.{그러면 그 가져와서.}

10511 #2 다 손질해야마씨, 다시.{다 손질해야해요, 다시.}

10511 #1 다시 손질.{다시 손질.}

10511 @1 음.{음.}

10511 #1 딱찌 다 안 떠러진 거 이제 소느로 손수 거 예, 거 가뿔 떠어내야 돼.{딱지 다 안 떨어진 것 이제 손으로 손수 거 예, 거 껍데기 떼어내야 돼.}

10511 #2 아, 군번가튼 건 안 잡썸봐꾸나예?{아, 군부같은 것은 안 잡썸봤군요?}

10511 @1 아니, 뭐냐 우도 친구 일썸서 쥬 먹긴 해썸다마는예, 그걸또 아마 건 서미니까 멍는 거 아닌가마썸?{아니, 뭐냐 우도 친구 있어서 쥬서 먹기는 했습니다}

만, 그것도 아마 그것은 섬이니까 먹는 것 아닌가요?}

10511 #1 군벌, 베말.{군부, 애기삿갓조개.}

10511 @1 예.{예.}

10511 @1 베말? 아, 베말도?{애기삿갓조개? 아, 애기삿갓조개도?}

10511 #1 베말, 보말.{애기삿갓조개, 고둥.}

10511 @1 음.{음.}

10511 @1 계란 다른 동네엔 업꼬 트키 여기 가파도에만 이신 음시근 어신가마 씨?{그러니까 다른 동네에는 없고 특히 여기 가파도에만 있는 음식은 없는가요?}

10511 #1 가파도만 인는 음식.{가파도에만 있는 음식.}

10511 #2 가파도만 \*신 음시근 어쭈다.{가파도에만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10511 #2 다 뜯 디도 다 이젠 베말, 보말 다 나고, 성게 다 나고, 소라 다 나고, 전복 다 나는데 가파도만 특빨리 나는 건 해산무른 청각가튼 건또 다, 다 큰물떠도 다 나오고.{다 다른 데도 다 이제는 애기삿갓조개, 고둥 다 나고, 성게 다 나고, 소라 다 나고, 전복 다 나는데 가파도만 특별히 나는 것은 해산물은 청각같은 것도 다, 다 큰물에도 다 나오고.}

10511 #1 으, 게도.{으, 그래도.}

10511 #2 특빨리 나는 건, 여기만 나는 건. 여기 저딘, 여기는예, 그 텃 무슨 거냐, 그 도레 부트는 거 언치낙 머구리 헨 나가 먹꼭 그.{특별히 나는 것은, 여기만 나는 것은. 여기 저기는, 여기는요, 그 텃 무슨 것이냐, 그 돌에 붙는 거 어쨌저녁 머구리 해서 내가 먹고 그.}

10511 #1 멍게?{멍게?}

10511 #2 멍게.{멍게.}

10511 #2 여기도 멍게 큰줄네더른 강 기픈 디 강 막 허여 옵니다. 허여 와도, 그건또 마니 안 납니다. 저렌 망 마니 난텃 해도.{여기도 멍게 큰잠녀들은 가서 깊은 데 가서 막 해 옵니다. 해 와도, 그것도 많이 안 납니다. 저리로는 막 많이 난다고 해도.}

10511 @1 음.{음.}

10511 #2 여기는 건디 마시 틀린텃은 힘니다. 마시 조양 여기는. 마니 안 낭. 여기는 이제 지그른 막 오염 웨여노난.{여기는 그런데 맛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맛이 좋아서 여기는. 많이 안 나서. 여기는 이제 지금은 막 오염 되어 놓으니까.}

10511 @1 네.{네.}

10513 @1 그러믄네, 여기 한번 우리 여자 삼추니 자리 해서 자리저슬 한번 다 마뵈쥬.{그러면요, 여기 한번 우리 여자 삼춘이 자리돔 해서 자리돔젓을 한번 담가 보지요.}

10513 @1 예를 들면 자리 혼 마를 사온 거라예.{예를 들면 자리 한 말을 사온 거예요.}

10513 #2 예.{예.}

10513 @1 그러믄 쭉 켤 예를 들면 소그믄 자리 혼 마리면 소그믄 얼마 노코, 메칠 마네 어떻 허고.{그러면 쭉 해서 예를 들면 소금은 자리돔 한 말이면 소금은 얼마 넣고, 며칠 만에 어떻게 하고.}

10513 #2 자리는 그 한 말 해오민예.{자리돔은 그 한 말 해오면요.}

10513 @1 네.{네.}

10513 #2 찐무레 깨끄시 씨서야 돼마씨. 씨성.{찐물에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어서.}

10513 #2 자리 한 마리믄 우리는 여, 키로로 소그믄 저우령 해쭈다마는 돼로 허는 딴 건또 가을짜리는 소그믄 덜 뜯고, 그거는 가, 이 사리 해야 덜 찌니까.{자리돔 한 말이면 우리는 여, 킬로로 소금을 저울여서 했습니다만 되로 하는 데는 그것도 가을자리돔은 소금을 덜 뜯고, 그것은 가, 이 살이 해야 덜 찌니까.}

10513 #2 봄짜리는 한 돼 솜빱, 한 마레 돼빠그로 솜빱 한 돼 놔야, 좀 짜도예, 이 자, 젔 쫑뉴는 싱겨우며는 변지리 생경예, 게난 짜게 해영.{봄자리돔은 한 되 가득, 한 말에 되로 가득 한 되 넣어야, 좀 짜도요, 이 자, 젓 종류는 싱겨우면 별질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짜게 해서.}

10513 #2 한 말, 한 마레 한 돼, 한 돼빱 낱.{한 말, 한 말에 한 되, 한 되 넣어서.}

10513 @1 네.{네.}

10513 #2 봄짜리는 그치록 노코, 가을짜리는 쪼끔 또로 소그믄 덜 노코.{봄자리돔은 그렇게 넣고, 가을자리돔은 조금 또 소금을 덜 넣고.}

10513 @1 덜 노코예?{덜 넣고요?}

10513 #2 예, 경 해영 한 사시빌 너뜨민 명나 해도 사, 두 다른 이서야 기픈 마시 드러.{예, 그렇게 해서 한 사십일 넘으면 먹는다 해도 사, 두 달은 있어야 깊은 맛이 들어서.}

10513 #1 예 게, 그 과정이게, 거 소금 해영으네 막.{예 그, 그 과정이, 거 소금 해서 막.}

10513 #2 게난.{그러니까.}

10513 #1 지꺼야지.{지꺼야지.}

10513 #2 맨 자리가예, 우리는 하지 아니난 매 거에 걸 영, 벨, 벨 이러케 창자를 누드렁 까저와야.{매 자리돔이요, 우리는 많이 얹으니까 매 것에 그것을 이렇게, 베를, 베를 이렇게 창자를 눌러서 터트려야.}

10513 @1 머리도?{머리도?}

10513 #2 예. 이 창자.{예. 이 창자.}

10513 #1 아, 머리가 아니고 이.{아, 머리가 아니고 이.}

10513 @1 아.{아.}

10513 #2 창자에 안 까주며는 거기 소금 아니 허영예, 영 부푸러, 부푸렁 자리가 변질된당 허영 매 거 까주앙.{창자에 안 터트리면 거기 소금 아니 해서요, 이렇

게 부풀어, 부풀어서 자리돔이 변질된다고 해서 매 것에 터트려서.}

10513 #1 고기 꽤 인찌 아녀우파게?{고기 꽤 있지 않습니까?}

10513 @1 예.{예.}

10513 #1 허파.{허파.}

10513 @1 예.{예.}

10513 #1 그제, 그제 공기가 드러 이쓰미는 소금무리 잘 안 드러가니까.{그것이, 그것이 공기가 들어 있으면 소금물이 잘 안 들어가니까.}

10513 #2 게난 배, 벨 각각 방멩이로 영 잘.{그러니까 배, 배를 팍팍 방망이로 이렇게 잘.}

10513 #1 그 공간쭈머니를 터져야.{그 공기쭈머니를 터트려야.}

10513 @1 음.{음.}

10513 #2 경 허영 헤민.{그렇게 해서 하면.}

10513 #1 거 이 한꺼버네 넣으네 돌로 이러케 찌어도 돼고 손수 하나씩 까도 돼고.{거 이 한꺼번에 놓아서 돌로 이렇게 찢어도 되고 손수 하나씩 터트려도 되고.}

10513 #2 하나씩.{하나씩.}

10513 #2 장갑 찌꼭 허영 하나씩 까야 원치근.{장갑 끼고 해서 하나씩 터트려야 원칙은.}

10513 #1 게서 소금해서 혼.{그렇게 해서 소금해서 한.}

10513 @1 한 두 달?{한 두 달?}

10513 #2 두 다른 일썌야.{두 달은 있어야.}

10513 #1 게난 혼, 혼달, 혼달 반 돼며는.{그러니까 한, 한달, 한달 반 되면.}

10513 #2 명낭 해도 두 다른 일썌야.{먹는다고 해도 두 달은 있어야.}

10513 #1 거 제관허지 안너나?{그것 제관하지(?) 안 하나?}

10513 #2 예.{예.}

10513 #2 아니 그냥 소금 허영 놔두민 이그른, 이제는 엔나레는 이그른 그냥 내 불미는 그거시 막 헤크라지고 헨찌마는 지그른 먹게 돼민 딱 냉장고에 너으민네, 가마니 그냥 이십니다.{아니 그냥 소금 해서 놔두면 익으면, 이제는 옛날에는 익으면 그냥 내버리면 그것이 막 허물어지고 했지만 지금은 먹게 되면 딱 냉장고에 넣으면요,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10513 #2 난 처음 드릴 땐 아이고, 이젠 냄새 퀘약케연 아니 드시카부텐.{나는 처음 드릴 때는 아이고, 이것은 냄새 고약해서 아니 드실까보다고.}

10513 #1 겐디 저 이, 가을짜리보단 봄짜리 현 거시 마시 일썌.{그런데 저 이, 가을자리돔보다 봄자리돔 한 것은 맛이 있어.}

10513 #2 확씨리 봄짜리가.{확실히 봄자리돔이.}

10513 #2 보메 보며는 사리.{봄에 보면 살이.}

10513 @1 술예?{살요?}

10513 #1 예, 기름끼가 마나가지고 또 마시 구수헌디 가을짜리는 쫄 쫄 때 하니

까 마시 덜 헤마썸.{예,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또 맛이 구수한데 가을자리돔은 좀 줄 때 하니까 맛이 덜해요.}

10513 @1 음.{음.}

10513 #1 거 짜기만 짜지, 냄새허곡.{거 짜기만 짜지, 냄새하고.}

10513 @1 젠디 큰 건 머리를 믹살따고 험떠다예?{그런데 큰 것은 머리를 맞다고 합디다요?}

10513 #1 하, 예.{하, 예.}

10513 @1 아, 여기는 배를 까치는 거구나예?{아, 여기는 배를 터트리는 것이군요?}

10513 #2 예. 머리 아니, 머리는.{예. 머리 아니. 머리는.}

10513 #1 건 머리 빠은는 게 아니고 창자 터지는 거.{그것 머리 빵는 것이 아니고 창자 터트리는 것.}

10513 #2 머리는 잘 안 머그난 윈.{머리는 잘 안 먹으니까 윈.}

10513 #1 머리는 잘, 저, 험 다오메도 머리는 떼 노고.{머리는 잘, 저, 한 다음에도 머리는 떼어 놓고.}

10513 #2 게도 저디 큰무티 어른더른 다 머검쭈게.{그래도 저기 큰물의 어른들은 다 먹잖아아요.}

10513 #1 그거는 빼만 일꼬 소금만 일끼 때무네 벨로.{그것은 빼만 있고 소금만 있기 때문에 벨로.}

10513 #1 씹기도 거부커고 허니까 우리는 거기 머리 떼내고, 비늘 딱 떼내고 그 칼로 썬 거 보단도 이러케 소느로.{씹기도 거부하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 머리 떼어내고, 비늘 딱 떼어내고 그 칼로 썬 것보다도 이렇게 손으로.}

10513 @1 예, 치저, 치저 낱.{예, 찢어, 찢어 놓아서.}

10513 #1 예. 치저 낱 거 멩는 게 그게 마시 일썬.{예. 찢어 놓아서 그것 먹는 것이 그것이 맛이 있어.}

10513 @1 예, 만쭈다.{예. 맞습니다.}

10513 #2 임만 어슬 때는 자리절, 아이, 경 현디.{입맛 없을 때는 자리돔것갈, 아니, 그렇게 한테.}

10513 #1 옛날 보리밥 머글 때는 그거허고.{옛날 보리밥 먹을 때는 그것하고.}

10513 #2 냄새.{냄새.}

10513 #1 젼짜리만 일쓰며는 밥 혼 낭푸니 다 머건.{젯자리돔만 있으면 밥 한 양푼 다 먹었어.}

10513 @1 젼짜리?{젯자리돔?}

10513 #2 예.{예.}

10513 @1 아, 자리절?{아, 자리돔것?}

10513 #1 예.{예.}

10513 @1 아, 그걸 젼짜리 험네까?{아, 그것을 젯자리돔 합니까?}

10513 #1 아, 전짜리엥도 허곡, 자리저시엥.{아, 젓자리돔이라고 하고, 자리돔 것이라고.}

10513 @1 아, 전짜리?{아, 젓자리돔?}

10513 #2 전짜리.{젓자리돔.}

10513 @1 음.{음.}

10513 #2 젤짜리.{젓자리돔.}

10513 @1 혹시 그걸 출레를 멘드랑 머거납떼강?{혹시 그것을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었습니까?}

10513 #2 아뇨, 그냥 자리저스로 머건쥬 반찬으로는 안 머거봐쥬다.{아뇨, 그냥 자리돔것으로 먹었지 반찬으로는 안 먹어봤습니다.}

10513 @1 아니, 왜냐면 그 어떤 사라드른 그걸 영 행그네 거평에, 거평에 낱 보글보글보글하게 뒀면.{아니,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전복갑에, 전복갑에 넣어서 보글보글보글하게 되면.}

10513 #2 예.{예.}

10513 @1 그걸로 썸 썸 머그면 참 조타라고예?{그것으로 썸 썸 먹으면 참 좋다고요?}

10513 #2 아아.{아아.}

10513 #2 육찌 싸름드른네, 아이고 춤.{육지 사람들은요, 아이고 참.}

10513 #2 잘 명는디 우리 경은 아녀 봐쥬다.{잘 먹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10513 @1 아, 그건 예를 들면 그르세 낱.{아, 그것은 예를 들면 그릇에 놓아서.}

10513 #2 예.{예.}

10513 @1 뽀글뽀글보글행.{보글보글보글해서.}

10513 #2 예, 거는 아네봐쥬다.{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10513 @1 음.{음.}

10513 #2 그냥 자리절터엥 여기는 혼전허난 그 비늘꺼스려뒀 다 버려뒀 그자 몸뎡이만 들러 머건쥬, 머리뺏더른 다 꼬창 네경 헨쥬 아니 머거봐쥬다.{그냥 자리돔 것해서 여기는 혼전하니까 그 비늘긔어두고 다 버려두고 그저 몸뎡이만 마구 먹었지, 머리뺏들은 다 잘라서 던져서 했지 아니 먹어봤습니다.}

10513 @1 겐디 비느른 언제 거실려마쥬?{그런데 비늘은 언제 긔어요?}

10513 #2 먹쥬 헨 때 그자 임시 거스리명.{먹으려고 할 때 그저 임시 긔으먼서.}

10513 @1 아, 머글 때?{아, 먹을 때?}

10513 #2 예, 먹쥬 그건 다 거스려낱으네 그 물로 다 행겨뒀 어떻, 사모니른 어떻 행 머거신고? 그거 가면예, 저거 가정 가미는 거, 거스를 꺼 아니우파?{예, 먹으려고 그것 다 긔어놓아서 그 물로 다 행겨두고 어떻게,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먹었나? 그거 가면요, 저거 가져가면 거, 긔었을 것 아닙니까?}



10513 @1 집사람대로 양념을 험, 험띠다.{집사람대로 양념을 함, 함디다.}

10513 #2 예게, 예게, 저거 거슬렁, 거슬러놔으네 무레 행거야 합니다, 짱. 무레 행거똥 그거 가위로 찢랑으네 양념허영.{예, 예, 저거 끓어서, 끓어놓아서 물에 행귀야 합니다, 짜서. 물에 행귀두고 그거 가위로 잘라서 양념해서.}

10513 @1 경 험실 꺼우다.{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0513 #2 예, 경 허영 경 허연 머검실 꺼우다게.{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있을 겁니다.}

10513 @1 나는 왜냐하면 짜게 안 머거부난 안 머검쭈마는.{나는 왜냐하면 짜게 안 먹어버리니까 안 먹고 있지만.}

10513 #2 예게.{예.}

10513 @1 게난 집싸라른 막 만조텐마씨.{그러니까 집사람은 막 맛좋대요.}

10513 #2 예, 그거 무레 행구른 안 찢 켜디게.{예, 그것 물에 행구면 안 찢 것인데.}

10513 #2 무레 행귀야 아니 행구른 찢니다.{물에 행귀야 아니 행구면 찢니다.}

10513 #2 아이고, 우리 지비도 혼 깡 \*\* 이 남편은 잘 짜당 허명 안 머그민 나만 머급쭈게.{아이고, 우리 집에도 한 깡 \*\* 이 아버지는 잘 짜다고 하면서 안 먹으면 나만 먹지요.}

10513 @1 이젠 자리저슨 담꼬예?{이제는 자리돔것은 담그고요?}

10513 #2 예.{예.}

10513 @1 뽕쳐슨 어떻 담느고예?{뽕치것은 어떻게 담그나요?}

10513 #2 뽕쳐슨 안 먹거, 안 다마나고 안 머거난 모르쿠다.{뽕치것은 안 먹어, 안 담갔었고 안 먹었었으니 모르겠습니다.}

10513 @1 예, 조쭈다.{예, 좋습니다.}

10513 @1 그 다으메 그, 숭게마놓으로 장아찌를 한 번 멘드러 뽕쭈. 지시를.{그 다음에 그 마늘로 장아찌를 한 번 만들어 보지요. 장아찌를.}

10513 #2 숭게비마느르네.{마늘은요.}

10513 @1 예.{예.}

10513 #2 무른 사용 아너고, 사이다.{물은 사용 안 하고, 사이다.}

10513 #2 그냥 식초예 사이다 낱 주경, 난 뽕 사라른 몰라도 주경 그걸 건저내 영예.{그냥 식초예 사이다 넣어서 죽여서,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죽여서 그것을 건저내어서.}

10513 #2 물끼 어시 건저내영, 아치메 허른 하루 주경땅으네 밤 자게 뽕뜨는 그 걸 송쿠리에 건절땅 된나른 물끼 빠지른 된나른 그 사이다에 뽕시 그, 뽕시나 간장 낱예.{물기 없이 건저내어서, 아침에 하면 하루 죽였다가 밤 자게 되면 그것을 소쿠리에 건졌다가 뽕날은 물기 빠지면 뽕날은 그 사이다에 다시 그, 뽕이나 간장 넣어서요.}

10513 #2 샘표 간장 낱 궤왕그네 그레 다망 와뽕땅 그냥 만 뜰면 그냥 머건.{샘

표 간장 넣어서 끓여서 그리로 담가 놔두었다가 그냥 맛 들면 그냥 먹어서.}

10513 @1 건, 건 기가니 얼마쯤 걸릴 건고예?{그것은, 그것은 기간이 얼마쯤 걸릴 것인가요?}

10513 #2 그건 빨리 머거집니다. 그걸 꿔우며는 두세 번 꿔우며는 한 시보일 뉘며는 먹꼬.{그것은 빨리 먹어집니다. 그걸 끓이면 두세 번 끓이면 한 십오일 되면 먹고.}

10513 #2 그냥 또 오, 오래 먹썰 허며는 여러 번 안 꿔왕 그냥 한 번 허여 뉘 두루썰 내부런땅 이그면 먹꼬.{그냥 또 오, 오래 먹으려고 하면 여러 번 안 끓여서 그냥 한 번 해 두고 거들떠보지 않고 내버렸다가 익으면 먹고.}

10513 @1 예를 들면 그 숭게인 경우도 그, 으, 예를 들면 오월 언제쯤 해야, 예를 들면 막 지나불면 또 새영 몬 먹찌 아느우짱예?{예를 들면 그 마늘인 경우도 그, 으, 예를 들면 오월 언제쯤 해야, 예를 들면 막 지나버리면 또 쇠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요?}

10513 #2 사월 따레, 보리혈 때 잘 뜨렁예, 사월 따레.{사월 달에, 보리할 때 잘 들어서요, 사월 달에.}

10513 @1 음넉 사월예?{음력 사월요?}

10513 #2 예, 모실포 강 사당으네 여기는 쥬경 무시 거 사오미는.{예, 모슬포 가서 사다가 여기는 질겨서 무슨 것 사오면.}

10513 @1 음.{음.}

10513 #2 사월 따레 행, 주로 사월 따레 행 머거집니다.{사월 달에 해서, 주로 사월 달에 해서 먹어집니다.}

10513 @1 음넉 사워리다예?{음력 사월이네요?}

10513 #2 예예, 사월 따레.{예예, 사월 달에.}

10513 @1 그 다음 아까 그 우리 여자 삼춘는 뉘장도 항상 멘드라 머견따고 헤서예?{그 다음 아까 우리 여자 삼춘는 뉘장도 항상 만들어 먹었다고 했지요?}

10513 #2 예. (웃음){예.(웃음)}

10520 @1 게면, 오, 뉘장을 한번 콩 솔마그네.{그러면 오, 뉘장을 한번 콩 삶아서.}

10520 #2 예.{예.}

10520 @1 뉘장 멘드는 데까지 한번 쭉 한번 ㄹ라주십써?{뉘장 만드는 데까지 한번 쭉 한번 말해주십시오?}

10520 #2 이제 쪼끄만 일쓰른 이제 콩을 삶습니다, 이제.{이제 조그만 있으면 이제 콩을 삶습니다, 이제.}

10520 @1 네.{네.}

10520 #2 보리 가라 노코 이 콩 이제 장만헤영 살므며는, 그걸 영 썩커영으네 영 드라메마씨, 여기. 그 노콘터영 드라메열땅으네.{보리 갈아 놓고 이 콩 이제 장만해서 삶으면, 그것을 이렇게 쥬해서 이렇게 매달아요, 여기. 그 노해서 매달았다가.}

10520 #2 하이튼 선, 막 느전짜 날 보지 아니미는 그 엔나레는 날 뽕 헨쭈마는  
이제는 선달 그무메, 선달 그무메 그 장 소금물 영 가랑예.{하여튼 선, 막 늦었자  
날 보지 않으면 그 옛날에는 날 봐서 했지만 이제는 선달 그믐에, 선달 그믐에 그  
장 소금물 이렇게 갈아서.}

10520 #2 가랑그네 한 마리미는 바가지로 두 개, 두 개 허영으네 소금 한 말쭙  
허영그네 그 소금물 여가 까라안즈른 까라안즌 거 그르세 다망그네 메주 그레 드르  
청 놔두른 그거 이그민 머거.{갈아서 한 말이면 바가지로 두 개, 두 개 해서 소금  
한 말쭙 해서 그 소금물 여기 갈아얹으면 갈아얹은 거 그릇에 담아서 메주 그리로  
들이뜨리어서 놔두면 그거 익으면 먹어.}

10520 @1 예를 들면, 드라메는 건 메칠쭙 해야 돼는고마씨? 건 트는 건만 보  
면.{예를 들면 매다는 것은 며칠쭙 해야 되나요? 그것은 뜨는 것만 보면.}

10520 #2 뜬 거, 예, 뜬 건만 보려는 잘 따슨 디 허미는 빨리 뜨고.{뜬 거, 예,  
뜬 것만 보면 아주 따뜻한 데 하면 빨리 뜨고.}

10520 @1 예.{예.}

10520 @1 게영 이제 또 걸 내령 이제.{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내려서 이제.}

10520 #2 예 내령 몰류왕 씨성.{예 내려서 말려서 씻어서.}

10520 @1 씨성예?{씻어서요?}

10520 #2 예, 깨끄시 씨서야, 씨성.{예, 깨끗이 씻어야, 씻어서.}

10520 @1 겐디 예를 들면 가늘 마출려고 하면 좀 경허미 부조칸 사라민 경우는  
가니 마잔는가 안 마즌가 할 때는 뭐 계란도 지버너코?{그런데 예를 들면 간을 맞  
추려고 하면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는 간이 맞았는가 안 맞은가 할 때는 뭐  
계란도 집어넣고?}

10520 #2 예, 고치도 지버노코 순또 지버노코.{예, 고추도 집어넣고 숯도 집어넣  
고.}

10520 #2 경 해도 우리는 경은 아네봐쭈다.{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10520 @1 아, 딱 일쓰니까.{아, 딱 있으니까.}

10520 #2 예, 쪼끔.{예, 조금.}

10520 #2 쭙 짜게 허며는 뉘 꺼라 행 쭙 짜게 허영으네 변지리 어성예 히고.{쭙  
짜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쭙 짜게 해서 변질이 없어서 하고.}

10520 #2 지그른 장 티우지 아녀앵예.{지금은 장 띄우지 않아서요.}

10520 @1 예.{예.}

10520 #2 티우지 아녀 막빠르, 막빠르 이제 콩, 콩만 살망으네 저기 가며는 그  
콩에 담은 재료 이십니다게. 뭐 골가루, 골가루허고 뜯시 고친까루 그, 간 거 거기  
노는 고치까루허고 사당으네 콩 졸망 그냥 무르지영.{띄우지 않고 막바로, 막바로  
이제 콩, 콩만 삶아서 저기 가면 그 콩에 담은 재료 있습니다. 뭐 엿기름, 엿기름하

고 다시 고춧가루 그, 간 거 거기 넣는 고춧가루하고 사다가 콩 삶아서 그냥 짓주물려서.}

10520 @1 예.{예.}

10520 #2 경 행 막장으로 그냥 막 그르세 다망예 한 스무 날 너뜨며는 그거 머거.{그렇게 해서 막장으로 그냥 막 그릇에 담아서요 한 스무 날 넘으면 그거 먹어.}

10520 @1 일 러니면, 일 런 먹쨌 허든 멘 마를 다믄네까?{일 년이면, 일 년 먹으려고 하면 몇 말을 답습니까?}

10520 #2 아이고, 우리는 두 식꾸난 한 마리든 먹땅 나뉘니다. 아이덜신디도 보내고.(웃음){아이고, 우리는 두 식구니까 한 말이면 먹다가 남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보내고.(웃음)}

10520 @1 음, 예예예예.{음, 예예예예.}

10520 #2 장은 안 사다 머거마씨, 여기 싸름더른 다망.{장은 안 사다 먹어요, 여기 사람들은 담가서.}

10520 @1 예.{예.}

10520 #2 자기들.{자기들.}

10520 @1 다 집마다예?{다 집마다요?}

10520 #2 예, 다망.{예, 담가서.}

10517 @1 혹시 그 삼촌네 지베서 보메는 밀반찬이 어떤 주로 어떤 밀반찬이 이쨌과? 봄, 여름, 가을, 겨울하면 보메는?{혹시 그 삼촌네 집에서 봄에는 밀반찬이 어떤 주로 어떤 밀반찬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하면 봄에는?}

10517 #2 보든 뭐 쨍아찌덜베끼 더 심니까게? 밀반찬는. (웃음){봄에는 뭐 장아찌들밖에 더 있습니까? 밀반찬은. (웃음)}

10517 #2 쨍아찌 헤여그네.{장아찌 해서.}

10517 @1 예.{예.}

10517 #2 양파쨍아찌도 허곡, 순게비마늘쨍아찌도 허곡, 쪽파김치도 헤영 먹꼭. {양파쨍아찌도 하고, 마늘쨍아찌도 하고, 파김치도 해서 먹고.}

10517 @1 네.{예.}

10517 #2 그런 거바께 어썸니다.{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10517 @1 여르멘마씨?{여름에는요?}

10517 #2 여르, 여르멘 (웃음) 여르메도 그저 쨍아찌, 주루 쨍아찌만 헤영 먹쨌, 뭐 밀반찬 무슨 반찬이 이십니까? (웃음){여름, 여름에는 (웃음) 여름에도 그저 쨍아찌, 주로 장아찌만 해서 먹지, 뭐 밀반찬 무슨 반찬이 있습니까?(웃음)}

10517 @1 가으레도 그러코마씨?{가을에도 그렇고요?}

10517 #2 주루 김치주, 김치 주장입쨌게, 뭐. 이 가정찌베는.{주로 김치지요, 김치 주장이지요, 뭐. 이 가정집에는.}

10518 @1 그러든 김치 주장이면.{그러면 김치 주장이면.}

10518 #2 예.{예.}

10518 @1 그 다음에 또 김치를 한번 다마뽀쭈예.{그 다음에 또 김치를 한번 담가보지요.}

10518 #2 (웃음)

10518 @1 배추김치를 한번 다마뽀쭈?{배추김치를 한번 담가보지요?}

10518 #2 배추김치는 거 어떻 헤영 배추김치?{배추김치는 거 어떻게 해서 배추김치?}

10518 @1 일 러네 뎀 포기 험네까?{일 년에 몇 포기 합니까?}

10518 #2 우린 짜가부나네 열 팔기 허민 먹땅 나뎡니다.{우리는 적어버리니까 열 포기 하면 먹다가 남습니다.}

10518 @1 예, 열 팔기.{예, 열 포기.}

10518 @1 그럼 열 팔기를 사온 거라.{그럼 열 포기를 사온 거야.}

10518 #2 예.{예.}

10518 @1 그러든 사왕으네 이제 일판 영.{그러면 사와서 이제 일단 이렇게.}

10518 #2 예, 착 갈랑.{예, 짹 갈라서.}

10518 @1 예.{예.}

10518 #2 주경.{죽여서.}

10518 @1 예.{예.}

10518 #2 주경으네 저너게 주기며는 내일 저너게 씨성, 그거 씨성근에 김치 다 드민 그거 담는 거주게.{죽여서 저녁에 죽이면 내일 저녁에 썰어서, 그거 썰어서 김치 담그면 그것 담그는 것이지.}

10518 @1 예.{예.}

10518 @1 겐디 그 양념장은 어떻, 뭘, 뭘 놔네깁?{그런데 그 양념장은 어떻게, 뭘, 뭘 넣습니까?}

10518 #2 고치까루허고, 액쩍, 액쩍 노룩.{고춧가루하고, 액젓, 액젓 넣고.}

10518 @1 예.{예.}

10518 #2 새우.{새우.}

10518 @1 액쩍?{액젓.}

10518 #2 예, 새우젓 노룩.{예, 새우젓 넣고.}

10518 @1 예.{예.}

10518 #2 생강 노룩, 마늘 노룩, 경 허는 건빼긴.{생강 넣고, 마늘 넣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10518 @1 다른 건 안 노코마썸?{다른 것은 안 넣고요?}

10518 #2 안 놔니다.{안 넣습니다.}

10518 @1 음.{음.}

10518 #2 여기는 안 놔마썸. 이걸 썬건 안 놔니다.{여기는 안 넣어요. 이것 저것 안 넣습니다.}

10518 #2 주루 새우젓 허영예, 액쩍 수허베 강 액쩍 사당으네 경 아녀미는 또

멜쩐 사용허는 사름더른 사용험니다. 해도 우리는 액, 액쩐 사당.{주로 새우젓 해다가요, 액젓 수협에 가서 액젓 사다가 그렇게 얹으면 또 멸치젓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해도 우리는 액, 액젓 사다가.}

10518 @1 예.{예.}

10518 @1 혹시 백김치도 멘드렁 머거뽕떼강?{혹시 백김치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까?}

10518 #2 백김치 뭘, 아무 건또 아니 행으네 그냥 허연 머거쭈다.{백김치 뭘, 아무 것도 아니 해서 그냥 해서 먹었습니다.}

10518 @1 예.{예.}

10518 #2 저.{저.}

10518 @1 건또 멘드려 머거뽕떼강?{그것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까?}

10518 #2 예게, 흔 버니나 멘드랑 건.{예, 한 번이나 만들어서 그것은.}

10518 @1 음.{음.}

10518 @1 혹시 동치미도 멘드려 뽕떼강?{혹시 동치미도 만들어 봤습니까?}

10518 #2 안 머거 봐쭈다, 동치미.{안 먹어 봤습니다, 동치미.}

10518 @1 깍뚜기는?{깍뚜기는?}

10518 #2 깍뚜기는 멘드랑 머금니다. 깍뚜기는.{깍뚜기는 만들어서 먹습니다. 깍뚜기는.}

10518 @1 음.{음.}

10518 #2 아, 우리 김치 담뜰예, 깍뚜긴.{아, 우리 김치 담그듯요, 깍뚜기는.}

10518 #2 육찌 메뉴리덜 김치 다망 와선게, 무슨 건싸 놔신디 나 가네 안 마줍 떠다. 어디 육찌 꺼.{육지 머느리들 김치 담가서 왔던데, 무슨 것이야 놔는지 내 간에 안 맞습니다. 어디 육지 것.}

10518 @1 계난 예를 들면, 이러케 늬뽕을 영 씨렁 나박김치도 해뽕떼강?{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무를 이렇게 썰어서 나박김치도 해뽕디가?}

10518 #2 통김치?{통김치?}

10518 @1 예.{예.}

10518 #2 예.{예.}

10518 @1 막 크게 씨렁예?{막 크게 썰어서요?}

10518 #2 예.{예.}

10518 #2 엔나레는 해도 이제 싸르른 통김치 조아 아넴니다게, 그자. 쪼끔씩 씨렁 그자 한 니베 머글 꺼만 조아허는 따무네.{옛날에는 해도 이제 사람은 통김치 좋아 않습니다, 그저. 쪼끔씩 썰어서 그저 한 입에 먹을 것만 좋아하는 때문에.}

10518 @1 음, 깍뚜기?{음, 깍뚜기?}

10518 #2 예. 깍뚜기나 무슨 배추김치나 그자 한 니베 먹게끔. 꼬창도 안 먹쩍예, 펄기로 다르민 난 우리는 펄기 짐치허영 걸치명 먹찌 그리와도 안 조아헤여마썸.{예. 깍뚜기나 무슨 배추김치나 그저 한 입에 먹게끔. 잘라서도 안 먹으려고요,

포기로 담그면 난 우리는 포기 김치 해서 걸치면서 먹고 싶어도 안 좋아해요.}

10518 @1 아, 그 펄기가 조은데?{아, 그 포기가 좋은데?}

10518 @2 예, 안 조아허영.{예, 안 좋아해서.}

10518 #2 짬 건또 안 조아허고, 매운 건또 안 조아허곡.{짬 것도 안 좋아하고, 매운 것도 안 좋아하고.}

10518 @1 게난 물김치도 허고예? 여르메.{그러니까 나박김치도 하고요? 여름에.}

10518 #2 예, 물김치도 그냥.{예, 나박김치도 그냥.}

10518 @1 간김치도 험네깡?{갯김치도 합니까?}

10518 #2 둘리만 그자 머그난 쪼끔씩 커영 먹꼬.{둘이만 그저 먹으니까 조금씩 해서 먹고.}

10518 #2 아이덜 보냄도, 보냉도 먹꼬.{아이들 보내기도, 보내어도 먹고.}

10518 @1 예.{예.}

10518 @1 아, 게민 쫌.{아, 그러면 쫌.}

10520 @1 고치장도 다마 머거 봄\*깡?{고추장도 담가 먹어 봤습니까?}

10520 #2 예, 고추장.{예, 고추장.}

10520 @1 건 어떻 험네깡?{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0520 #2 뭐, 그 파는 데 가미는 재료 다 줍니다.{뭐, 그 파는 데 가면 재료 다 줍니다.}

10520 @1 예.{예.}

10520 #2 지금 뭐, 골가루가, 골가루랑 누룩가루랑 주며는 여기 왕으네 담는 거만 우리 소느로 다망예.{지금 뭐, 엿기름가루가, 엿기름가루랑 누룩가루랑 주면 여기 와서 담그는 것만 우리 손으로 담가서요.}

10520 #2 저 물렬 노코, 설탕 쪼끔 노코 허영. 그 사, 파는 사람덜 말허는대로만 다드며는예.{저 무엇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해서. 그 사, 파는 사람들 말하는 대로만 담그면요.}

10520 @1 예.{예.}

10520 #2 만이서마씨.{맛있어요.}

10520 @1 건, 게난 다드면 그냥 즉씨 머거지는 건가마씨?{그것은, 그러니까 담그면 그냥 즉시 먹어지는 것인가요?}

10520 #2 예, 한 삼사일 돼며는.{예, 한 삼사일 되면.}

10521 @1 그 다음 아까 나와서 뭐 그 절까린 경우 가장 마니 다마 멍는 게 자리저시고?{그 다음, 아까 나와서 뭐 그 젓갈인 경우 가장 많이 담가서 먹는 것이 자리돔젓이고?}

10521 #2 네.{네.}

10521 @1 게른 다른 지벤 멜철또 멍는 거 아니라예?{그러면 다른 집에는 멸치젓도 먹는 것 아닌가요?}

10521 #2 예게.{예.}

10521 @1 어, 그 다오메 어떤, 또 갈치절또 이선편 거고예?{아, 그 다음에 어떤, 또 갈치절도 있었던 것이고요?}

10521 #2 엔나레는 이서도 지그른 갈치가 비싸부난예.{옛날에는 있어도 지금은 갈치가 비싸버려서요.}

10521 @1 네.{네.}

10521 @1 계난 그 갈치저신 경우는 갈치 살로 허는 겨우짱? 배설로 허는 겨우짱?{그러니까 그 갈치절인 경우는 갈치 살로 하는 겁니까? 창자로 하는 겁니까?}

10521 #2 예, 창자.{예, 창자.}

10521 #1 창자.{창자.}

10521 #2 창자로. 알게미.{창자로. 아가미.}

10521 #1 알게미절.{아가미절.}

10521 #2 알게미절.{아가미절.}

10521 @1 거시 알게미절네?{그것이 아가미절요?}

10521 @1 예.{예.}

10521 @1 그 다오메 조기로도 절 멘드러나쭈과? 조기?{그 다음에 조기로도 절 만들었었습니까? 조기?}

10521 #1 조기 여기 안 납니다게.{조기 여기 안 납니다.}

10521 @1 으음.{으음.}

10521 @1 뭐 알로 허는 건 어쭈광? 물꼬기 알로?{뭐 알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물고기 알로?}

10522 @1 그 다오메 흑씨 지베서 막걸리 가튼 거 다, 음, 예를 들면 청주라예, 약, 약그로?{그 다음에 흑씨 집에서 막걸리 같은 것 담, 음, 예를 들면 청주예요, 약, 약으로?}

10522 #2 안 해 봐쭈다.{안 해 봤습니다.}

10522 @1 무사 어르시늘 위해서 청, 청주, 막걸리 ㄴ튼 건 아네봄떼강?{왜 어르신을 위해서 청, 청주, 막걸리 같은 것은 안 해 봤습니까?}

10522 #2 그런 건 생전 안 멩는 따무네, 술 종눈 안 멩는 따문네?{그런 것은 생전 안 먹는 때문에, 술 종류는 안 먹는 때문예요?}

10522 @1 아:.{아:}.

10522 #2 \*\* 그런 건 아네 봐쭈다.{\*\*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10522 @1 뭐 청주 가튼 건 안 다마보\*?{뭐 청주 같은 것 안 담가 보고\*?}

10522 #2 예.{예.}

10522 @1 음.{음.}

10522 #2 먹질 아네마썸.{먹지를 안 해요.}

10523 @1 흑씨 이 마으레션 이건 전통저그로 가파도에 음식기다라고 할 마난 건 뭐 이신고예? 아주 전통저그로 이건 가파도 음식이라고 할 쭈 인는 거?{흑씨 이



마을에서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과도의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 있는가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것은 가과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10523 @1 이걸 다른 데 가른 몬 머거 볼 꺼다라고 할.{이것은 다른 데 가면 못 먹어 볼 것이라고 할.}

10523 #2 여기에서는 겨으레는예?{여기에서는 겨울에는요?}

10523 @1 예.{예.}

10523 #2 이 가정에서 열 딸령 머금니다, 열.{이 가정에서 열 달여서 먹습니다, 열.}

10523 @1 열, 무슨 열마씨?{열, 무슨 열이요?}

10523 @1 득?{답.}

10523 #2 득, 예. 닥 낵으네 찹쌀 사당으네 그런 건 해 머거도.{답, 예. 닥 넣어서 찹쌀 사다가 그런 것은 해 벅어도.}

10523 #1 득 ㄴ튼 건 저.{답 같은 것은 저.}

10523 @1 썩, 썩도 험떼강?{썩, 썩도 했었습니까?}

10523 #2 안 해봐쭈다, 썩.{안 해 봤습니다, 썩.}

10523 @1 그 다음에 숭게비로? 마농열?{그 다음에 마늘로? 마늘열?}

10523 #2 마농열또 아녀 보고, 저 닥. 저 당년.{마늘열도 안 해 보고, 저 닥. 저 닥열.}

10523 @1 음.{음.}

10523 #2 허여 명는 사라몬 이 야그로 숭게비 가튼 겐또, 호박 가튼 거 해 명는 덴 험띠다마는 우리 그런 겐또 아녕.{해 먹는 사람은 이 약으로 마늘 같은 것도, 호박 같은 거 해 먹는다고 합디다만 우린 그런 것도 안 해서.}

10523 @1 우린 득보다는예, 돼지고기로 해 머거서예. 할머니가 험뎀 기억, 험.{우리는 답보다는요, 돼지고기를 해 먹었어요. 할머니가 했던 기억, 했.}

10523 #2 돼지고긴 푸진당 허멍 돼지고기.{돼지고기는 푸지다고 하면서 돼지고기.}

10523 #1 돼지고기도 마니 낵 머금니다, 돼지고기도.{돼지고기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10522 @1 아, 수른 한번 청주 가튼 거 안 다마보고예, 약썰로예?{아, 술은 한번 청주 같은 거 안 담가보고요, 약술로요?}

10522 #2 예.{예.}

10522 #2 자식덜토 안 먹꼬, 술 쯡뉴엔 힌 건 윈.{자식들도 안 먹고, 술 종류라고 한 것은 전혀.}

10522 @1 예, 아, 고맙습니다.{예, 아, 고맙습니다.}

## 1.6. 거주 생활

### 1.6.1. 집짓기

10601 @1 오느른 한번 지베 대해서 한번 아라보쿠다예.{오늘은 한번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601 #1 예예.{예예.}

10601 @2 지블 진젠 허민네, 먼저 집터부터 정해야 될 꺼 아니우파예?{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먼저 집터부터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10601 #1 예예.{예예.}

10603 @2 전체저그로 한번 집 찢는 과정을 쭉 칸번 설명을 해줍써?{전체적으로 한번 집 짓는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0603 #1 예, 집 진쟁 허미는 나를 봐 가지고 예, 토신제를 우선 지냅니다게. 그 예, 텃짜리에 가서.{예, 집 지으려고 하면 날을 봐 가지고 예, 토신제를 우선 지냅니다. 그 예, 텃자리에 가서.}

10603 #1 토신제를 지내고 그 다으른 예, 토신제가 끝나면 예, 터를 다지고.{토신제를 지내고 그 다음은 예, 토신제가 끝나면 예, 터를 다지고.}

10603 #1 터를 다지고 그 다으른 예, 주춧돌. 주춧돌을 이제 예, 그 기둥 세울 때 전부 다 주춧돌 같따 노코.{터를 다지고 그 다음은 예, 주춧돌. 주춧돌을 이제 예, 그 기둥 세울 때 전부 다 주춧돌을 갖다 놓고.}

10603 #1 (기침) 그 다으른 예, 지붕을 세우는데 지붕을 세우고 어, 이제.{(기침) 그 다음은 예, 지붕을 세우는데 지붕을 세우고 어, 이제.}

10603 #1 이게 서릴, 서릴때가 아니고 어.{이게 서까래, 서까래가 아니고 어.}

10603 @1 포.{보.}

10603 #1 어, 포. 포를 걸친 다으메 예, 이제 대들뽀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예, 그걸.{어, 보. 보를 걸친 다음에 예, 이제 대들뽀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예, 그걸.}

10603 @1 상량식또 하고.{상량식도 하고.}

10603 #1 상량시글 해가지고 허는데 상량식 허는 건또 보니까 이 상량을 올리고 난 다으메 예, 다글 장다.{상량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량식 하는 것도 보니까 이 상량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예 답을 수탐.}

10603 @1 장툑.{수탐.}

10603 #1 예, 장드글 올리며는 그 올라간 사르미 목쭈가 예, 그 장드기 모글 처서 이제 바끄로 이제 던지며는 이제 그 상량이 끝난 거고.{예, 수탐을 올리면 그 올라간 사람이 목수가 예, 그 수탐의 목을 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던지면 이제 그 상량이 끝난 것이고.}

10603 #1 으 상량이 끝난 다으메는 이제는.{으 상량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10603 #1 아래 장도리 가튼 거 어, 문찌방이 그런 거부떠 논 다으메 그 다으몬 이제 그.{아래 장도리 같은 거 어, 문지방 그런 것부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그.}

10603 #1 도리광 도리 새에 에, 그 문, 문짝 노을 때는 논는 디는 놔두고.{도리와 도리 사리에 에 그 문, 문짝 놓을 때는 놓은 데는 놔두고.}

10603 #1 이제 벽뽕름 헐 때는 그 기둥을 또 중간 기둥을 세와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자근 막대기로 걸친 다으메 에, 열썩짜로.{이제 바람벽 할 때는 그 기둥을 또 중간 기둥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작은 막대기로 걸친 다음에 에, 열썩자로.}

10603 #1 이러케 춤초미 에, 이제 찌브로 무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전부 다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이제 집 전체에 에, 끝나며는.{이렇게 춤춤이 에, 이제 짚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전부 다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이제 집 전체에 에, 끝나면.}

10603 #1 에, 하루는 그 흑깨버커는 나리여 허며는 에, 동넨뽕드리 이제 전부 다 모여왕으네 에, 받떼 가서 그 전날 에, 흐글 그건또 어느 방에 흐기 조타 어 방 양을 봐 가지고.{에, 하루는 그 새벽질하는 날이다 하면 에, 동네분들이 이제 전부 다 모여와서 에, 밭에 가서 그 전날 에, 흙을 그것도 어느 방향에 흙이 좋다 아 방향을 봐 가지고.}

10603 #1 그 마근방에 가서 이제 흐글 가져오며는 어 동트가 생긴다 해 가지고 에, 조은 방으로 가서 이제 흐글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 보릿찌블 노코.{그 막은 방향에 가서 이제 흙을 가져오면 아 동티가 생긴다 해 가지고 에,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제 흙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다 보릿짚을 넣고.}

10603 #1 동넨뽕드리 발버. 맨발로.{동네분들이 밟아. 맨발로.}

10603 @2 으음.{으음.}

10603 #1 어, 막 발바 가지고 진니긴 다으메, 그 다으메 이제 그 간트기에다가 에, 서로 양쪼그로.{아, 막 밟아 가지고 짓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다가 에, 서로 양쪽으로.}

10603 #1 한쪽 찢르른 이쪽, 한쪽 찢르른 이쪼그로 해 가지고 서로 소늘 마주쳐 가지고 이제 흑, 흑찌를 허게 뒤편는 그 간트기가 다 뒤편는 겹쭈마씨.{한쪽 사람은 이쪽, 한쪽 사람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 손을 마주쳐 가지고 이제 흑, 새벽질을 하게 되면 그 외가 다 되는 것입지요.}

10603 #1 에, 그 다으메는 그 간트기가 에, 마르기 저네 그 (기침) 그 문짝가튼 건또 이제 목쭈가 다 만들고.{에, 그 다음에는 그 외가 에, 마르기 전에 그 (기침) 그 문짝같은 것도 이제 목쭈가 다 만들고.}

10603 #1 또, 해 가지고 에, 문짜글 세운 다으메 에, 이제 그 에, 그 순서가 뭐 또 인는데 이 우에 천정.{또, 해 가지고 에, 문짜를 세운 다음에 에, 이제 그 에, 그 순서가 뭐 또 있는데 이 위에 천장.}

10603 @1 천장예?{천장요?}

10603 #1 에, 이.{에, 이.}

10603 #1 흑계베커기 저네 무슨 그런, 에, 흑계베컬 때허고 에, 천정 도리 가튼 건또 전부 다 이러케.{새벽질하기 전에 무슨 그런, 에, 새벽질할 때하고 에, 천장 도리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10603 #1 에, 여꺼 가지고 어, 헨 다으메 흑계베커는 거니까 그 저네 그 얘기가 빠전는데 그 천정 가튼 건또 다 그러코.{에, 엮어 가지고 어, 한 다음에 새벽질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그 얘기가 빠졌는데 그 천장 같은 것도 다 그렇고.}

10603 #1 에, 여기는 그냥 마루 가튼 데는 예저네는 뭐, 그건또 흘그로.{에, 여기는 그냥 마루 같은 데는 예전에는 뭐, 그것도 흙으로.}

10603 @2 음.{음.}

10603 #1 으, 흑, 흑계베커는 날 완저니 저, 이, 벽, 흑 또 천정 흑 이러케 다 해 가지고 흐기 이제 마른 다으메는 이제.{으, 흙, 새벽질하는 날 완전히 저, 이, 벽, 흙 또 천장 흙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흙이 이제 마른 다음에는 이제.}

10603 #1 에, 목쭈가 무늘 짜고, 무늘 달고, 도배를 하고.{에, 목수가 문을 짜고, 문을 달고, 도배를 하고.}

10603 #1 아, 지붕 우에는 이 서리 걸치고 어, 한 다으메 에.{아, 지붕 위에는 이 서까래 걸치고 어, 한 다음에 에.}

10603 #1 나무 막대 촘촘히 너어 가지고, 으, 거기다 다시 흐글 올려 가지고 그 흑 우에다가 새를 더편습니다, 이.{나무 막대 촘촘히 넣어 가지고, 으, 거기에다 다시 흙을 올려 가지고 그 흙 이에다가 띠를 덮었습니다, 이.}

10603 #1 여기서는 새가 업쓰니까 무테 가서 사다가.{여기서는 띠가 없으니까 물에 가서 사다가.}

10603 #1 에, 그러케 해서 이 새를 더프며는 에, 그때도 역시 동넨 짜름드리 전부 다 와 가지고 에.{에, 그렇게 해서 이 띠를 덮으면 에, 그때도 역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에.}

10603 #1 그 도, 도레기. 도레기로 에 새 주를 노아 가지고 에, 새 줄도 그 한 겨브로 허는 게 아니라 에, 한 놀씩 해가지고 그거시 이, 세 겨브로 해 가지고 어, 노가 되는 겹쭈.{그 도, 도레기. 도레기로 에 띠 줄을 놓아 가지고 에, 띠 줄도 그 한 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 한 올씩 해가지고 그것이 이, 세 겹으로 해 가지고 어, 노가 되는 것입지요.}

10603 @1 아, 두 겨비 아니고?{아, 두 겹이 아니고?}

10603 #1 아, 세 겨브로.{아, 세 겹으로.}

10603 @2 음.{음.}

10603 #1 세 겨브로 해 가지고 이제 에(기침), 노끄는 만들민 에, 지붕 기리만큼.{세 겹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에, 노끈을 만들면 에, 지붕 길이만큼.}

10603 #1 짤븐, 가로로는 짤븐 줄, 기러기로는 또 긴 줄.{짧은, 가로로는 짧은 줄, 길이로는 또 긴줄.}

10603 @1 진 줄예?{긴 줄요?}

10603 #1 예, 그러케 해가지고.{예, 그렇게 해가지고.}

10603 #1 새를 더프면 가쟁이부터 어, 그 목, 그 우에 새 이는 사라미 예, 건또 나이 마는 이.{띠를 덮으면 가장자리부터 어, 그 목, 그 위에 띠 이는 사람이 예, 것도 나이 많은 이.}

10603 #1 여러 곤테 이제 도라다니면서 이제 여끄니까.{여러 군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엮으니까.}

10603 #1 예, 그 사르미 이제 주를 이쪼게서 주며는 저쪼그로 해 가지고 서로 이제 미트로부터 차츰차츰 무껴가는 거지. 이러 가는 대로.{예, 그 사람이 이제 줄을 이쪽에서 주면 저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이제 밑으로부터 차츰차츰 묶어가는 것이지. 이어 가는 대로.}

10603 @2 예.{예.}

10603 #1 그 무끄지 안코 우에로 계속 가 버리며는 내중에 발바가며는 새가 미끄러져서 내려오니까. 이제부터 미트로부터 주를 메기 시자케 가지고.{그 묶지 않고 위로 계속 가 버리면 나중에 밟아가면 띠가 미끄러져서 내려오니까. 이제부터 밑으로부터 줄을 메기 시작해 가지고.}

10603 #1 예, 진줄, ㄴ른줄 한, 한 겹씩. 한 줄씩 이러케 놔 가지고 예, 줄 지붕을 이어쭈다.{예, 긴줄, 짧은줄 한, 한 겹씩. 한 줄씩 이렇게 놔 가지고 예, 줄 지붕을 이었습니다.}

10603 @1 그러믄네, 이러케 험쭈예. 지금 여기는 대충 삼칸짜비 마늬니깁? 스칸짜비 마늬니까?{그러면요, 이렇게 합지요. 지금 여기는 대충 삼간집이 많습니까? 사간집이 많습니까?}

10603 #1 엔나레는 주로 삼칸.{옛날에는 주로 삼간.}

10603 @1 게민네, 삼칸짜블 하나 지어봣쭈예?{그러면요, 삼간집을 하나 지어보지요?}

10603 #1 예.{예.}

10603 @1 이러케 삼카늘 하면 일탄 터를 다진 거 아니깁예?{이렇게 삼간을 하면 일단 터를 다진 것 아닙니까?}

10603 #1 예.{예.}

10603 @1 그러믄 여기서 음.{그러면 여기서 음.}

10603 @1 지둥꾸븐 뎀 깨를 놔야 뎀 꺾파? 지둥뎀? 주출또른?{주춧돌은 몇 개를 놔야 될 것입니까? 주춧돌? 주춧돌은?}

10603 #1 주출또른 예 도라가면서 다 놔쭈다게.{주춧돌은 예 돌아가면서 다 놓았습니다.}

10603 @1 그러니까 하네.{그러니까 많네.}

10603 #1 사방허고, 아 예.{사방하고, 아 예.}

10603 @1 게민 으덜 깨가 피료한 건파?{그러면 여덟 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10603 #1 아, 여덜 깨.{아, 여덟 개.}

10603 #1 여덟 개에 뿌니 아니고 이 중간, 이제 지겐문 세우젠 허민 여기도 기둥을 세와야 하고.{여덟 개 뿐 아니고 이 중간, 이제 지게문 세우려고 하면 여기도 기둥을 세워야 하고.}

10603 @1 예.{예.}

10603 #1 또 어, 어, 그러치. 예. 무늘 다라야 하니까 예, 거기도 네 개.{또 어, 어, 그렇지. 예. 문을 달아야 하니까 예, 거기도 네 개.}

10603 @2 게문 집 가로.{그러면 집 가로.}

10603 #1 또.{또.}

10603 @2 하고 집?{하고 집?}

10603 #1 여기도, 여기도 해야 돼.{여기도, 여기도 해야 돼.}

10603 @2 지둥 세우는 거 아니우파예?{기둥 세우는 것 아닙니까?}

10603 #1 여기도 어, 장, 장팡으로 가는 장팡문.{여기도 어, 장, 장독대로 가는 장독대문.}

10603 #1 예, 여기는 업썰편 길로 아는데. 여기는 그냥 돌로만 싸아 가지고. 저 흑뿔로.{예, 여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그냥 돌로만 쌓아 가지고. 저 흑돌로.}

10603 @1 여기는네?{여기는요?}

10603 #1 예. 돌, 여기는 예, 그 저 무티와 틀려 가지고 순 먹뿔.{예. 돌, 여기는 예, 그 저 물과 달라 가지고 순 먹돌.}

10603 @2 음.{음.}

10603 #1 똥그런 거기 때무네 흑 한 질 노코, 그 다으른 돌 한 질 노코. 또 흑 노코, 또 한 질 노코 이러케 춤초미 싸서.{똥그런 것이기 때문에 흑 한 질 놓고, 그 다음은 돌 한 질 놓고. 또 흑 놓고, 또 한 질 놓고 이렇게 춤춤히 쌓아서.}

10603 @1 주친또를?{주춧돌을?}

10603 #1 아, 어, 벽, 저 벼글 만드런찌.{아, 어, 벽, 저 벽을 만들었지.}

10603 @1 아, 벼글?{아, 벽을?}

10603 #1 어, 벽. 벽 만들 때.{어, 벽. 벽 만들 때.}

10603 #1 게난 이런 도라가면서 이, 이런 디 문, 예, 뒀문, 예, 뒀문 짜리 예, 이디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돌로 어, 싸아.{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면서 이, 이런 데 문, 예, 뒀문 예, 뒀문 자리 예, 여기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돌로 어, 쌓아.}

10603 @1 게문네, 한 번 영 해봣쥬예. 이거시 삼카니며는.{그러면요, 한 번 이렇게 해봣지요. 이것이 삼간이면.}

10603 #1 예.{예.}

10603 @1 이거시 거이 마루 뉼 꺼 아니짱예?{이것이 거의 마루 될 것 아닙니까?}

10603 #1 예, 마루.{예, 마루.}

10603 @1 마루. 이거시 큰구들 뉼 꺼가마썸?{마루. 이것이 안방 될 것인가요?}

10603 #1 예. 큰구들.{예. 안방.}

10603 @1 이거시 고팡?{이것이 고팡?}

10603 #1 예, 대개 보며는.{예, 대개 보면.}

10603 @1 예.{예.}

10603 #1 예, 이러케 해 가지고 이기 건문 달 때, 이 정도 난간 멘들 때 놔두고.{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걸문 달 때, 이 정도 난간 만들 데 놔두고.}

10603 @1 예.{예.}

10603 #1 어, 이기는 뭇뺑이고.{어, 여기는 뭇방이고.}

10603 #1 아, 안뺑.{아, 안방.}

10603 @2 아, 안뺑.{아, 안방.}

10603 #1 이러케 허며는 여기 방이 쏘 여기가 큰 거고.{이렇게 하면 여기 방이 조금 여기가 큰 것이고.}

10603 @2 음.{음.}

10603 #1 어 여기는 예, 뒤편은 안뺑.{어 여기는 예, 뒤편은 안방.}

10603 @2 예, 여기 안뺑.{예, 여기 안방.}

10603 #1 예예, 안뺑. 안뺑 멘.{예예, 안방. 안방 만.}

10603 @2 그제 삼춘 큰구들\*\*\*{그것이 삼춘 큰방\*\*\*.}

10603 #1 예예. 안뺑 만드러꼬.{예예. 안방 만들었고.}

10603 @2 예.{예.}

10603 #1 가만 일짜, 부엌.{가만 있자, 부엌.}

10603 @1 예, 정지가 이거 뿔 꺾쭈.{예, 부엌이 이거 뿔 것입지요.}

10603 #1 예. 정지가 이거민 이러케 해 가지고 여기 솥떡.{예. 부엌이 이것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붓돌.}

10603 @1, @2 예.{예.}

10603 #1 솥떡 아찔꼬. 예, 건또.{붓돌 앓혔고. 예, 그것도.}

10603 #1 방마다 그 구조가 틀려 가지고 여기 부엌 이만큼 해 가지고 여기 방한 사름드른.{방마다 그 구조가 달라 가지고 여기 부엌 이만큼 해 가지고 여기 방 많은 사람들은.}

10603 @2 으음.{으음.}

10603 @1 조근구들.{작은방.}

10603 #1 여기 이 솥떡글 아저가고 굴무글 지던써.{여기 이 붓돌을 앓혀서 굴목을 땀어.}

10603 @2 예.{예.}

10603 #1 겨우레는.{겨울에는.}

10603 @2 예.{예.}

10603 #1 겨우레는 굴무글 건꼬 이쪽 으 게난.{겨울에는 굴목을 땀고 이쪽 으 그러니까.}

10603 @1 요쪼그로 드러가그네 굴묵 덴들고예?{요쪽으로 들어가서 굴묵 만들고 요?}

10603 #1 예, 이견, 이짜근 굴묵 돼 부런써. 이거 방이 이러케 댜민 여긴 마.{예, 이것은, 이쪽은 굴묵 되어 버렸어. 이거 방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마.}

10603 @1 예.{예.}

10603 @1 게른 요기, 요기는 뭐 뉼 꺼고마썸? 고평?{그러면 요기, 요기는 뭐 뉼 것이가요? 고평?}

10603 @2 아니, 여기가 부억. 정제.{아니, 여기가 부억, 부억.}

10603 @1 찰뽕?{찰방?}

10603 #1 아, 나가 이거, 이거, 이거 이쪽 뽕에 이썸 찌게는 여기 안뽕 일꼬.{아,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쪽 방에 있을 적에는 여기 안방 있고.}

10603 @2 예.{예.}

10603 #1 여기는 온통 저.{여기는 온통 저.}

10603 @2 부억.{부억.}

10603 #1 정제. 부억.{부억. 부억.}

10603 #1 정제가 뉼고.{부억이 되고.}

10603 @2 음.{음.}

10603 #1 어, 이 정제도 뭐 이러케 뉼 크진 아넬찌마는.{어, 이 부억도 뉼 이렇게 뉼 크지는 았았지만.}

10603 @2 음.{음.}

10603 #1 예 경허며는 여기, 여기, 저 이 뽕꺼튼 거 이제.{예 그러면 여기, 여기, 저 이 뽕꺼같은 거 이제.}

10603 @2 음.{음.}

10603 #1 저, 이.{저, 이.}

10603 @1 싸아 노코?{쌓아 놓고?}

10603 #1 어, 하루치. 하루치 아니민 한 이사밀치 보릴때 가튼 거 이제 막 싸아 뉼.{어, 하루치. 하루치 아니면 한 이삼일치 보릿짚같은 거 이제 막 쌓아 놓아.}

10603 @2 예.{예.}

10603 #1 경 헤영 밥 찌을 땐 또 이제 갇다 쓰고 헤신디.{그렇게 해서 밥 지을 때는 또 이제 갇다 쓰고 했는데.}

10603 #1 저, 마당에는 또 놀꺼뽕 가지고 보릴때 이제 놀 누러.{저, 마당에는 또 가리밀해 가지고 보릿짚 이제 가리 가려.}

10603 @2 예.{예.}

10603 #1 게며는 그 놀 누른 걸 예, 비나 오게 뉼며는 저, 그 보릴때 가질러 가기가 뉼 허니까 미를 갇다 노는 거라마썸.{그러면 그 가리 가린 것을 예, 비나 오게 되면 저, 그 보릿짚 가지러 가기가 뉼 하니까 미리 갇다 놓는 거예요.}



10603 @2 예.{예.}

10603 #1 하이, 뭐 하이, 장마 때는 뭐 마니 간따 노코.{하이, 뭐 하이, 장마 때는 뭐 많이 갖다 놓고.}

10603 @2 음.{음.}

10603 #1 예, 또 하루이틀 쟁도 비 오는 건 쪼끔 덜 간따 노코.{예, 또 하루이틀 쟁도 비 오는 것은 조금 덜 갖다 놓고.}

10603 #1 지비 여기 엔나레는 여기 그 마루 놀 때는 예, ㄴ른.{집이 여기 옛날에는 여기 그 마루 놓을 때는 예, 가로.}

10603 #1 ㄴ른 서리를 놔 가지고.{가로 서까래를 놓아 가지고.}

10603 @2 예.{예.}

10603 #1 예, 여기.{예, 여기.}

10603 #1 사가그로.{사각으로.}

10603 @2 음.{음.}

10603 #1 겐또 원파느로.{것도 원판으로.}

10603 @2 음.{음.}

10603 #1 나무가 아주 큰 나무 해 가지고, 판자 짤라 가지고 어, 이러케 낱썸는데.{나무가 아주 큰 나무 해 가지고, 판자 짤라 가지고 어, 이렇게 낱썸었는데.}

10603 @1 게난 그걸 널마리라고 허는 거지예?{그러니까 그것을 우물마루라고 하는 것이지요?}

10603 #1 예, 널, 널마레.{예, 널, 우물마루.}

10603 @2 음.{음.}

10603 @1 널마레?{우물마루?}

10603 #1 대개 방 이쪼젠 그 난가니, 여기도 난간 노코.{대개 방 이쪽에는 그 난간이, 여기도 난간 놓고.}

10603 @2 예.{예.}

10603 #1 난간 노코. 예, 잘 사는 싸름드른 건문. 도당문.{난간 놓고. 예, 잘 사는 사람들은 겐문. 함석문.}

10603 @2 예.{예.}

10603 #1 건문 해영으네 이 바께다 천, 천찌마는.{겐문 해서 이 바깥에다 쳤, 쳤지만.}

10603 @2 예.{예.}

10603 #1 예, 또 못 싸는 사름드른 그 보릿찌브로 해 가지고 거적 만드러 가지고 비가 마니 올 땐 여기 바람도 막꼬 여기 창무네 지겐문, 그 창문.{예, 또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보릿짚으로 해 가지고 거적 만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바람도 막고 여기 창문에 지게문, 그 창문.}

10603 @2 예.{예.}

10603 #1 그 아페다 이제 치고. 그러케.{그 앞에다 이제 치고. 그렇게.}

10603 @2 게문 삼춘네. 여기는 그 풍채 가튼 거는 안 답니까? 이제 풍채, 이 아페는 안 다라 뇌쭈과? 엔날?{그러면 삼춘요. 여기는 그 차양 같은 것은 안 답니까? 이제 차양, 이 앞에는 안 달았었습니까? 옛날?}

10603 @2 그런 건 업꼬예. 케니까.{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10603 @2 가파도이 특짱이 건무니 인는.{가파도의 특징이 걸문이 있는.}

10603 #1 건 건문.{그것은 걸문.}

10603 @2 건문네.{걸문요?}

10603 #1 여기덜 건문.{여기들 걸문.}

10603 @2 게난 이 대문 아페도 건문하고.{그러니까 이 대문 앞에도 걸문하고.}

10603 #1 예, 건문.{예, 걸문.}

10603 @2 방 아페도 다 하는구나예?{방 앞에도 다 하는군요?}

10603 #1 대문 이리 크게 두 짝.{대문 이렇게 크게 두 짝.}

10603 @2 예예.{예예.}

10603 #1 허미는 그거는 여다지.{하면 그것은 여단이.}

10603 @2 예.{예.}

10603 #1 미다지가 아니고 여다지.{미단이가 아니고 여단이.}

10603 @2 여다지.{여단이.}

10603 #1 여다지고.{여단이고.}

10603 #1 안뽕문도 여다지.{안방문도 여단이.}

10603 @2 예.{예.}

10603 #1 엔나렌 순전 이, 방, 이 구들문, 지젠문만 내 부러똥 지젠무너고 창, 창문만 내 부러똥 나머진 이 부어게도 전부 다 이 저.{옛날에는 순전 이, 방, 이 방문, 지계문만 내 버려두고 지계문하고 창, 창문만 내 버려두고 나머지는 이 부엌에도 전부 다 다 이 저.}

10603 @2 여다지로.{여단이로.}

10603 #1 그걸로 헤그네 여다지.{그것으로 해서 여단이.}

10603 @2 게문 삼간집 팔 때 삼춘, 방이 몇 개가 인는 걸파? 구드리?{그러면 삼간집 할 때 삼춘, 방이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방이?}

10603 #1 구드리 하나.{방이 하나.}

10603 @2 아, 큰.{아, 큰.}

10603 #1 구들 하나, 마레 하나, 부엌 카나.{방 하나, 마루 하나, 부엌 하나.}

10603 @2 아, 예저네 삼간집?{아, 예전에 삼간집?}

10603 #1 예.{예.}

10603 @2 경 해도 식꾸 인는 지븐 아까 이 구드를 쪽께 멘드는 거자나예?{그렇게 해도 식구 있는 집은 아까 이 방을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10603 @2 이 구드론 무슨 구들마씨?{이 방은 무슨 방이에요?}

10603 @2 부엌 여페 만든 구들?{부엌 옆에 만든 방?}

10603 #1 아, 이 겨난.{아, 이 그러니까.}

10603 #1 부엌, 나가 얘기하는 거는?{부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0603 @2 예.{예.}

10603 #1 이쪼개 방이 일쓸 때는 뭐 여기, 이러케 굴무커연 허엌찌마는.{이쪽에 방이 있을 때는 뭐 여기, 이렇게 굴묵해서 했지만.}

10603 @2 예.{예.}

10603 #1 연장들 노록 허엌찌마는 이거는 또 여기 방이 아니고.{연장들 놓고 했지만 이것은 또 여기 방이 아니고.}

10603 @2 예.{예.}

10603 #1 이 겨으레 이러케 방이 인는데 허문 여긴 마루고.{이 겨울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하면 여기는 마루고.}

10603 @2 예.{예.}

10603 #1 어, 여기는 찌, 굴무기 댜는 겨주, 굴묵.{어, 여기는 저, 굴묵이 되는 것이지, 굴묵.}

10603 @2 예예.{예예.}

10603 #1 아 게난. 부, 부어근 쪼끄만너게 멘들고.{아 그러니까. 부, 부엌은 자그마하게 만들고.}

10603 @2 예.{예.}

10603 #1 방 여페.{방 옆에.}

10603 #1 허고, 마루허고.{하고, 마루하고.}

10603 @2 예.{예.}

10603 #1 여기는 창꼬.{여기는 창고.}

10603 @2 으, 창꼬시그로 하고, 그니까.{으, 창고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10603 #1 그런 시그로도 허고 여기 방 인는 사름더른 또 이 여기 부어케 가지고 그냥 슬떡만 아찌 가지고 헐꼬, 예, 마루.{그런 식으로도 하고 여기 방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여기 부엌해 가지고 그냥 봇돌만 앓혀 가지고 했고, 예, 마루.}

10603 @2 으.{으.}

10603 #1 그런 시그로, 방이 이쪽 빵 쓰는 사름, 그 대개 방 인는 짝게 부엌 여페 자그만허게 이썰썬.{그런 식으로, 방이 이쪽 방 쓰는 사름, 그 대개 방 있는 쪽에 부엌 옆에 자그마하게 있었어.}

10603 #1 게난 겨으레 소똥 가튼 거 이러케 말려 가지고.{그러니까 겨울에 소똥 같은 것 이렇게 말려 가지고.}

10603 @2 예.{예.}

10603 #1 어, 그거.{아, 그거.}

10603 #1 저녁 때 저녁커여 먹꼬 난 다으메 이제 그, 불, 불끼가 일쓸 때 아 소똥에다가 불 부찌 가지고 아느로 저, 굴무글 지더십쭈게.{저녁 때 저녁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불, 불기가 있을 때 아 소똥에다가 불 붙여 가지고 안으로 저, 굴  
목을 때었지요.}

10603 @1 계난 삼칸짜비라도 방은 하나네예?{그러니까 삼칸집이어도 방은 하나  
네요?}

10603 #1 방은 하나.{방은 하나.}

10603 @2 음.{음.}

10603 @2 예, 여기는 이제 헐간처럼 이제 쓰는 형시기다예?{예, 여기는 이제 헐  
간처럼 이제 쓰는 형식이네요?}

10603#1 예, 예.{예, 예.}

10603 @2 예, 아라쭈다.{예, 알았습니다.}

10603 @1 그러면 지금 다 이러케 해서 지등을 세운 거라예?{그러면 지금 다 이  
렇게 해서 기등을 세운 거네요?}

10603 #1 예.{예.}

10603 @1 예, 지등을 세우면 그 지등을 세운 그 위에 이제 아까처럼 포를 헐  
꺼 아니라예?{예, 기등을 세우면 그 기등을 세운 그 위에 이제 아까처럼 보를 할  
것 아닌가요?}

10603 #1 예.{예.}

10603 @1 그럼 삼칸짜빈 경우는 포가 멘 개 드러마썸?{그럼 삼칸집인 경우는  
보가 몇 개 들어요?}

10603 #1 포가 어, 여기도 이설짜마는 여긴 방이고 여긴 안뽕이열썸는데 포가.  
{보가 어,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안방이었었는데 보가.}

10603 #1 이 마루, 부엌, 창꼬까지 전부 다 이제 포가 드러가쭈다게.{이 마루,  
부엌, 창고까지 전부 다 이제 보가 들어갔습니다.}

10603 @1 예.{예.}

10603 #1 아래도 포, 우에도 포.{아래도 보, 위에도 보.}

10603 @1 네, 그 다오메 또 중포는 어떠케 멘 개 세워신고예?{네, 그 다음에 또  
중보는 어떻게 몇 개 세웠는가요?}

10603 #1 중포는 이 마루 방에만 이러케 세왓꼬. 양쪼그로.{중보는 이 마루방에  
만 이렇게 세웠고. 양쪽으로.}

10603 @2 게른 두 개예?{그러면 두 개요?}

10603 #1 마루방 양쪼그로 예, 세와 가지고 예, 가운데다가 중간 포, 또 대들뽕 걸  
치는 또 도리. 이러케 세와서 도, 그 대들뽕영.{마루방 양쪽으로 예, 세워 가지고 예,  
가운데다가 중간 보, 또 대들보 걸치는 또 도리. 이렇게 세워서 도, 그 대들보하고.}

10603 @1 예, 삼, 삼간.{예, 삼, 삼간.}

10603 #1 노아십쭈게.{놓았습지요.}

10603 @1 예예.{예예.}

10603 @1 그림, 그러케 해서 포하고 대들뽀가 딱 뒤편.{그림, 그렇게 해서 보하고 대들보가 딱 되면.}

10603 #1 음.{음.}

10603 @1 이제는 서리를?{이제는 서까래를?}

10603 #1 아, 서리.{아, 서까래.}

10603 @1 예. 서리는?{예. 서까래는?}

10603 #1 서, 서리도 그 나무.{서, 서까래도 그 나무.}

10603 @1 예.{예.}

10603 #1 좀 가는 나무.{좀 가는 나무.}

10603 #1 예, 지금도 이 서린 찌붕으로 보이지마는 예, 상뽀루로 해 가지고, 상뽀루 저 대들뽀 인는 데 해 가지고 어, 촌초미.{예, 지금도 이 서까래 지붕으로 보이지만 예, 용마루로 해 가지고 용마루 저 대들보 있는 데 해 가지고 아, 촌촌히.}

10603 @1 예.{예.}

10603 #1 예 촌초미 걸철꼬. 중가네 자근 막때들 이러케 놔 가지고 촌초미 놔 가지고 그 우에다가 이제 흐글 이퍼십쭈마씨.{예 촌촌히 걸쳤고. 중간에 작은 막대들 이렇게 놓아 가지고 촌촌히 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입혔습지요.}

10603 @1 네.{네.}

10603 @2 그 흐글 이퍼는 거를 뭐렌 굼니까?{그 흙을 입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603 @2 고대? 고디후?{새우? 새우?}

10603 #1 고대, 고대. 고대. 고대. 고대는.{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는?}

10603 @1 예, 고대라고 합니다.{예, 새우라고 합니다.}

10603 @2 음.{음.}

10603 @1 예.{예.}

10603 @1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보면 먹돌 노코, 그 다오메 후 노코.{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보면 먹돌 놓고, 그 다음에 흙 놓고.}

10603 #1 예.{예.}

10603 @1 이러케 쪽 여기는, 여기는 그러케 싸을 꺼 아니라예?{이렇게 쪽 여기는, 여기는 그렇게 쌓을 것 아닌가요?}

10603 #1 예.{예.}

10603 @1 그러면 요런 벼긴 경우는 어떠케? 여기도 돌 노음니깁? 나무로 험니깁?{그러면 요런 벽인 경우는 어떻게? 여기도 돌 놓습니까? 나무로 합니까?}

10603 #1 아, 이 안쪼근.{아, 이 안쪽은.}

10603 @1 예.{예.}

10603 #1 전부 다 나무로.{전부 다 나무로.}

10603 @1 그리고 나, 나무 기둥을 세우면.{그리고 나, 나무 기둥을 세우면.}

10603 #1 예.{예.}

10603 @1 그 사이에는 쪼그만 낭들 노코?{그 사이에는 쪼그만 나무들 놓고?}

10603 #1 예.{예.}

10603 @2 아까 간테기.{아까 외.}

10603 #1 (기침) 아 칸테기.{아 외.}

10603 @1 예.{예.}

10603 #1 간테기를 만들 쪼개는 예, 여프로 이제 걸치는 거슨 나무로 허고.{외를 만들 적에는 예, 옆으로 이제 걸치는 것은 나무로 하고.}

10603 #1 우알로 이제 질게 노는 거는 예, 대나무.{위아래로 이제 길게 놓는 것은 예, 대나무.}

10603 @1, @2 음음.{음음.}

10603 #1 아, 그런 거 쪼개 가지고.{아, 그런 거 쪼개 가지고.}

10603 @2 족대.{이대.}

10603 #1 어, 쪽대. 쪽대가 아니고 왕대.{어, 이대. 이대가 아니고 왕대.}

10603 @2 아.{아.}

10603 #1 왕대 ㄱ튼 거 이제 그 또 무티 강 구해야.{왕대 같은 거 이제 그 또 물에 가서 구해야.}

10603 @2 음.{음.}

10603 #1 구해당으네 쪼갱으네 얹게 해 가지고 춤초미 놔야 그 후 백르미는 안 터러지니까.{구해다가 쪼개서 얹게 해 가지고 춤춤히 놔야 그 흙 바르면 안 떨어지니까.}

10603 @2 음.{음.}

10603 #1 그러케 해서.{그렇게 해서.}

10603 @2 그 간테기는 경 허고예?{그 외는 그렇게 하고요?}

10603 @2 방 구들 논는 거는 어떤 시그로 해쑈과?{방 방 놓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603 @1 구드른 어떻 놔신고?{방은 어떻게 놔는가요?}

10603 #1 구들도 어, 여기는 이 바닷가에 강으네 그 구들뿔 벌르는 사르미 이션 쑈다.{방도 어, 여기는 이 바닷가에 가서 그 구들돌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603 #1 진, 예, 갇꼬 메 갇꼬 이러케 해 가지고.{진, 예, 갇고 메 갇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603 @1 음.{음.}

10603 #1 구들뿔을 버르민 구들 두 개치이, 하나치 이러케 해 가지고 저 예, 벌러 줍써 허미는 예, 벌러 주는데.{구들돌을 깨면 방 두개어치, 하나어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저 예, 깨 주세요 하면 예, 깨 주는데.}

10603 #1 그 놀 때는 예, 굴묵 진는 아궁이 이러케 노코, 그 다으른 여프로 자근 돌들 이러케 돌맹이로 놔 가지고 그 우에다가 이제 구들뿔을 노케 뒤편는 예, 평평허게 예, 노케 뒤편는 예, 그 구들뿔 다 논 거.{그 놓을 때는 예, 굴묵 때는 아

궁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은 옆으로 작은 돌들 이렇게 돌맹이로 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구들돌을 놓게 되면 예, 평평하게 예, 놓게 되면 예, 그 구들돌을 다 놓은 거.}

10603 #1 나도 이제 직접 이거 저, 나대로 이, 저이.{나도 이제 직접 이거 저, 나대로 이, 저이.}

10603 @2 깨당?{깨다가?}

10603 #1 막 저, 이 무너져 버리난 다시 뜨더넌 나대로 이러케 놔난는데.{막 저, 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뜯어서 나대로 이렇게 놔었는데.}

10603 @1 건 기수리 피료허지 아눔니깁? 거 왜냐면 경해야 구들 딱따 · ㄴ터고 안 딱따 · ㄴ터고.{그것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방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10603 #1 건 하이튼 굴묵 찢는 카니 일꼬.{그것은 하여튼 굴묵 때는 칸이 있고.}

10603 #1 그 카느로 해 가지고 또 이러케.{그 칸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10603 @1 연기가 가게?{연기가 가게?}

10603 #1 양쪼그로 연기가 허여 가지고 연기가 또 나갈 쭈 일계끔 이러케 멘드 라줘야, 아 연기가 잘 통해야 아, 구드리 삼스방이 딱따 · ㄴ테여마썸.{양쪽으로 연기가 해 가지고 연기가 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 연기가 잘 통해야 아, 방이 삼사방이 따뜻해요.}

10603 @1 게른 구들또를 노코.{그러면 구들돌을 놓고.}

10603 #1 예.{예.}

10603 @1 그 다음, 그 다으메는 또 어떻게마썸?{그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요?}

10603 @1 흐그로?{흙으로?}

10603 #1 구들뿔 논, 논 다으메는 그 돌 우에다 그냥 썸, 이 장판은 깔 쭈가 업 쓰니까 흙, 그건또 역씨 흙.{구들돌 놓은, 놓은 다음에는 그 돌 위에다 그냥 저, 이 장판을 깔 수가 없으니까 흙, 그것도 역시 흙.}

10603 #1 예, 진흙 케여다가 예, 불바 가지고 어, 겉또 초불 노코, 두부른 얄븐 흙, 체로 쳐 가지고 예, 아주 얇게 보드라운 흙글 해 가지고 예, 그게 고대주게.{예, 진흙 해다가 예, 밟아 가지고 어, 것도 초벌 놓고, 두벌은 얇은 흙, 체로 쳐 가지고 예, 아주 얇게 보드라운 흙을 해 가지고 예, 그게 새우지.}

10603 #1 내중에 딱 흙찼, 줌진 흙 해 가지고 어, 칠허는 게 그게 고대.{나중에 딱 흙질, 자잘한 흙 해 가지고 어, 칠하는 것이 그게 새우.}

10603 @2 음.{음.}

10603 #1 고대 해 가지고 그 다으른 장판지는 그 연날 그 세면 포.{새우 해 가지고 그 다음은 장판지는 그 옛날 그 시멘트 포.}

10603 @2 예.{예.}

10603 #1 세면 포 그거 여러 고브로 뒀니까 그거 해 가지고 이제 도베를 한 다

으메 그 우이다 이제 콩 쌀은 물.{시멘트 포대 그거 여러 겹으로 되니까 그거 해 가지고 이제 도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콩 삶은 물.}

10603 @2 음.{음.}

10603 #1 그거 어.{그것 아.}

10603 @1 콩풀.{콩풀.}

10603 #1 어, 어, 콩풀, 그걸 어, 혼불 두불 이러케 칠해주며는 반짝반짝커고 비시 날써.{어, 어, 콩풀, 그것을 어, 한벌 두벌 이렇게 칠해주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났어.}

10603 @1 노라케예?{노랑게요?}

10603 #1 예.{예.}

10603 @2 거난 콩 쌀은 물로 헐꾸나예?{그러니까 콩 삶은 물로 했군요?}

10603 #1 예.{예.}

10603 @2 놀콩으로 현 게 아니고예?{날콩으로 한 게 아니고요?}

10603 #1 놀, 놀콩으로 현 거 가튼데. 놀콩 뽀아 가지고.{날, 날콩으로 한 것 같은데. 날콩 뽀아 가지고.}

10603 @1 뽀상예?{뽀아서요?}

10603 #1 예. 저, 이 방에토게 낱 쩡. 예, 그거 이제 막 베포예 낱으네 이러케 문질러 가며는 진무리 나오니까.{예. 저, 이 방아확에 넣어서 쩡어서. 예, 그거 이제 막 베보자기에 넣어서 이렇게 문질러 가면 진물이 나오니까.}

10603 @2 예.{예.}

10603 #1 그러케 현 거 가튼데.{그렇게 한 것 같은데.}

10603 @2 유 장판는 아네 봐쭈과?{들께 장판은 안해 봤습니까?}

10603 #1 유 장판, 유 장판 뭐 콩, 콩도 허고 유도 쓰고.{들께 장판, 들께 장판 뭐 콩, 콩도 하고 들께도 쓰고.}

10603 @2 음.{음.}

10603 #1 예.{예.}

10603 @2 경 허면 반짝반짝 이제 할 꺼고예?{그렇게 하면 반짝반짝 이제 할 것 이고요?}

10603 #1 예예.{예예.}

10603 @2 그 다으메 문 가튼 거 달 때는 어떤 시그로 다라쭈과?{그 다음에 문 같은 거 달 때는 어떤 식으로 달았습니까?}

10603 #1 문 가튼 건또 거, 목쭈가 짜 가지고 어, 다는데 그.{문 같은 것도 거, 목수가 짜 가지고 어, 다는데 그.}

10603 #1 돌쩨귀.{돌찌귀.}

10603 @1, @2 예.{예.}

10603 #1 예, 돌쩨귀 우아레 문 하나에 두 개씩 해 가지고.{예, 돌찌귀 위아레 문 하나에 두 개씩 해 가지고.}



10603 #1 돌절귀. 돌절귀.{돌쩌귀. 돌쩌귀.}

10603 @1 계난 입.{그러니까 벽.}

10603 #1 그리고, 그리고 문.{그리고, 그리고 문.}

10603 @1 입쟁이도 세워야 될 꺼 아니잖애?{벽선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603 #1 아, 문 만드는 건, 거는 뭐 목쭈가 뭐, 다 허곡. 거 집 째을 때 거 문 드는 디는 전부 다 저, 이, 입쟁이가 세와전 이시난 기둥이 일꼬.{아, 문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 목수가 뭐, 다 하고. 그 집 지을 때 거 문 다는 데는 전부 다 저, 이, 벽선이 세워져 있으니까 기둥이 있고.}

10603 #1 그 다음 기둥 여페 그 문짜커게 뒤편은 그 기둥에다가.{그 다음 기둥 옆에 그 문짝하게 되면 그 기둥에다가.}

10603 #1 그 바로 그 문 다는 그 기둥이 바로 입쟁이. 입쟁이고.{그 바로 그 문 다는 그 기둥이 바로 벽선. 벽선이고.}

10603 #1 저 이, 문 만드는 데 저, 이 큰 약간 두꺼운 문 이러케.{저 이, 문 만드는 데 저, 이 큰 약간 두꺼운 문 이렇게.}

10603 @1 틀.{틀.}

10603 #1 예, 트리 바로 이 여페 닐는 거, 이게 또 입쟁이라고 허여.{예, 틀이 바로 이 옆에 있는 거, 이것이 또 벽선이라고 해.}

10603 @2 음.{음.}

10603 #1 예, 입쟁이 든든해야 된다 허영으네 그 입쟁이를 허여 가지고 여기 돌절귀.{예, 벽선 단단해야 된다 해서 그 벽선을 해 가지고 여기 돌쩌귀.}

10603 @2 음.{음.}

10603 #1 예, 두 개씩 허고, 이제 내중에는 여기 문꼬리.{예, 두 개씩 하고, 이제 내중에는 여기 문고리.}

10603 @2 음.{음.}

10603 #1 아, 그런 쟁도로 문.{아, 그런 정도로 문.}

10603 @1 계난 예를 들면 건 창문 가튼 거고.{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창문 같은 것이고.}

10603 #1 예.{예.}

10603 @1 낭문, 대문 가튼 거는 그냥 낭 짜그로 멘든 거구나예?{나무문, 대문 같은 것은 그냥 나무 짝으로 만든 것이군요?}

10603 #1 낭 널븐 짝 이, 보통 나무.{나무 넓은 짝 이, 보통 나무.}

10603 @2 널븐.{넓은.}

10603 #1 나무 널비가 두 개 쟁도메는 한 쪼기 돼시니까.{나무 넓이가 두 개 정도면 한 쪽이 되었으니까.}

10603 @2 으음.{으음.}

10603 #1 예, 그건또 영 돌절귀 헤영으네 이 돌절귀도 그 낭무네는 크지. 큰 거

해당으네.{예, 그것도 이렇게 돌쩌귀 해서 이 돌쩌귀도 그 나무문에는 크지. 큰 거 해다가.}

10603 @1 아, 그러쭈광?{아, 그렇습니까?}

10603 #1 방무넨 쫘 자근 거고.{방문에는 쫘 작은 것이고.}

10603 @1 우리 동네는 여기 낭에다가 여기다가 흠베기를 해서예.{우리 동네는 여기 나무에다가 여기에다가 흠을 했어요.}

10603 @1 요러케 낭이 귀를 돌려 가지고 딱 바가십쭈. 왜냐면 이거시 여다지니깐 네.{요렇게 나무가 귀를 돌려 가지고 딱 박았습쭈. 왜냐하면 이것이 여닫이니깐요.}

10603 #1 예, 아 그.{예, 아 그.}

10603 @2 여폐도 일꼭, 미테도 일꼭.{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10603 #1 예, 그, 아래는 인는 건 문찌방, 우이 건 문또리 헤며는 그 지벙이 그 끝뎡이에.{예, 그, 아래는 있는 것은 문지방, 위에 것은 문곶도리 하면 그 지방 그 끄트머리에.}

10603 @1 고멍 파그네?{구멍 파서?}

10603 #1 구멍, 구멍 뚫령으네 문도 그 양쪼게 이러케 뽕쪼커게 이러케 해 가지고 아 거 그.{구멍, 구멍 뚫어서 문도 그 양쪽에 이렇게 뽕쪼하게 이러케 해 가지고 아 그것 그.}

10603 @2 그 쪼게 다망?{그 속에 담아서?}

10603 #1 구멍에 끼왕으네 해야 예, 열기가 쉬와.{구멍에 끼워서 해야 예, 열기가 쉬워.}

10603 @2 그러면네, 아까 다시 한 번 도라가서예, 어쨌든 이 동네서는 예 집 질 때 벽체예, 바께 아까 돌 한 번.{그러면요, 아까 다시 한 번 돌아가서요, 어쨌든 이 동네서는 예 집 지을 때 벽체요, 밖에 아까 돌 한 번.}

10603 #1 예, 흠.{예, 흠.}

10603 @2 흠 칸 번 헐짜나예? 전부 이 동네 돌로 해쭈과?{흠 한 번 했잖아요? 전부 이 동네 돌로 했습니까?}

10603 @2 전부 먹또리, 먹또리라마씨? 그러면.{전부 먹돌이, 먹돌이라요? 그러면.}

10603 #1 전부 다 동네 바닷가에 강 그 또 가져당.{전부 다 동네 바닷가에 가서 그 또 가져다가.}

10603 @2 예.{예.}

10603 #1 허는디 전부 다 그 먹똥.{하는데 전부 다 그 먹돌.}

10603 #1 지금도 강 보면 허주마는 예, 저디 그 바께는 그 화산나미라 해 가지고 구멍 솜솜 뚫린 거에 허며는.{지금도 가서 보면 하지만 예, 저기 그 밖에는 그 화산암이라 해 가지고 구멍 솜솜 뚫린 것에 하면.}

10603 @1 현무암예?{현무암요?}

10603 #1 어, 그거슨 사가경으로 딱딱 썬 이.{아, 그것은 사각형으로 딱딱 썬 이.}

10603 @2 짜를 쭈 인.{자를 수 있.}

10603 #1 짜를 쭈가 인는데 이 먹또른 그럴 쭈가 업꺼든.{자를 수가 있는데 이 먹돌은 그럴 수가 없거든.}

10603 #1 그러니까 흙 노코, 그 다음 먹돌 이제 노코 틈새마다 이제 흙 논 다음에 도를 놔야 무너지지 아니지, 그러치 아르면. 아, 그러타가도 무너지는 수가 마나.{그러니까 흙 놓고, 그 다음 먹돌 이제 놓고 틈새마다 이제 흙 놓은 다음에 돌을 놔야 무너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아, 그렇다가도 무너지는 수가 많아.}

10603 @2 음.{음.}

10603 #1 이 브름 태풍 때는 우리도 멘 켜 이, 벽뽀름 무너정으네 허며는 거저그로 우에다 헤여당 쉼돌 빠강으네 나무로 지들루곡 그러케 아, 잘 무너졌찌.{이 바람 태풍 때는 우리도 몇 번 저 이, 바람벽 무너져서 하면 거적으로 위에다 해다가 쇠못 박아서 나무로 지지르고 그렇게 아, 잘 무너졌지.}

10603 @2 아, 집뜨리 그러면 벽체 자체가 잘 무너졌꾸나예?{아, 집들이 그러면 벽체 자체가 잘 무너졌군요?}

10603 #1 예예.{예예.}

10603 @2 아아.{아아.}

10603 #1 그건또 먹돌도 한 겨브로 짜는 게 아니고 두 겨브로 짜도.{그것도 먹돌도 한 겹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두 겹으로 쌓아도.}

10603 @1 아.{아.}

10603 @2 으음.{으음.}

10603 #1 건또 또 세월 오래 가며는.{그것도 또 세월 오래 가면.}

10603 @1 게난 흐그로 하지 안코 쉼메느로 \*면 더 단단할 꺼 아니우짱?{그러니까 흙으로 하지 않고 시멘트로 \*면 더 단단할 것 아닙니까?}

10603 #1 엔나레 쉼메니 어디?{옛날에 시멘트가 어디?}

10603 @2 엔나레 쉼메니 어디 이쭈과?{옛날에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

10603 @2 그니까 여기는 그러면 쉼멘 해 간꼬 쉼멘 지붕이든 집 개량헌 게 되게 빨랐잖따예? 다른 데보단?{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시멘트 해 가지고 시멘트 지붕이든 집 개량한 것이 되게 빨랐겠네요? 다른 데보다는?}

10603 #1 시, 그러니깐 우리도 이걸 저 벽 이거 도레다가 이 저 벽그로 저, 이 부루쿠로 쌓는데.{시, 그러니깐 우리도 이것 저 벽 이거 돌에다가 이 저 벽으로 저, 이 블록으로 쌓았는데.}

10603 #1 그 한 멘씩 뜨더 가지고 뭐 부루쿠 쌓찌.{그 한 멘씩 뜯어 가지고 뭐 블록 쌓았지.}

10602 @2 흙씨 땅 뭐 터 다질 때 노래 가튼 건또 불릅니까? 여기서는.{흙씨 땅 뭐 터 다질 때 노래 같은 것도 부릅니까? 여기서는.}

10602 #1 그런 거 어서.{그런 것 없어.}

10602 @2 으, 그런 건 업꼬예?{으, 그런 것은 없고요?}

10603 @1 아까 음, 지붕을 일 때에, 무테 가그네 새를 사올 꺼 아니깁예? 그럼 그 새 가지고 뭐, 지, 진줄도 노꼭, 쫓른 줄도 논는데 각각 세 개라고 그래서예?{아까 음, 지붕을 일 때에, 물에 가서 띠를 사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띠 가지고 뭐, 지, 진줄도 놓고, 짧은 줄도 놓는데 각각 세 개라고 그랬지요?}

10603 #1 예.{예.}

10603 @1 세 가달로예?{세 가닥으로요?}

10603 #1 예.{예.}

10603 @1 두 가다리 아니고 세 가다리우파?{두 가닥이 아니고 세 가닥입니까?}

10603 #1 세 가달.{세 가닥.}

10603 @1 걸 호랭이로 행?{그것을 호랭이로 해서?}

10603 #1 예.{예.}

10603 @1 걸 이러케 세 가지로 해서 베를 드린 거네예?{그것을 이렇게 세 가닥으로 해서 바를 드린 것이네요?}

10603 #1 예, 그러치.{예, 그렇지.}

10603 @1 그걸 여기서 집쫄힘네까?{그것을 여기서 집쫄합니까?}

10603 #1 집쫄. 집쫄 낚썰 허주, 여기.{집쫄. 집쫄 놓고 있다고 하지, 여기.}

10603 #1 집쫄 낚시메 동네 싸름들 가주 헤민.{집쫄 놓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가지 하면.}

10603 @1 그러믄 그 세 개로 할 때 그거, 이걸 한 가다로 멘드렁, 그니까 어울릴 땐 어떻 어울립니까?{그러면 그 세 개로 할 때 그것, 이것을 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할 때는 어떻게 어우러지게 합니까?}

10603 #1 그 예, 그 나무 기구가 이슨디 그.{그 예, 그 나무 기구가 있는데 그.}

10603 @1 고망 세 개 인는 거?{구멍 세 개 있는 것?}

10603 #1 어, 게, 그걸 이르믄 잘 몰라.{어, 그게, 그것을 이름을 잘 몰라.}

10603 @2 그거 어디서 나왔썬는데.{그것 어디서 나왔었는데.}

10603 @1 비양도.{비양도.}

10603 @2 그때 비양도에서 나, 나온 거예?{그때 비양도에서 나, 나온 거요?}.

10603 @1 으으음.{으으음.}

10603 @2 거기도 세 주리열짜나?{거기도 세 줄이었잖아요?}

10603 @1 그건 왜냐 허믄 그거슨 집쫄리 아니고.{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집쫄이 아니고.}

10603 @2 으.{으.}

10603 @2 베 드릴 때.{바 드릴 때.}

10603 @1 노야, 노.{노야, 노.}

10603 @2 노.{노.}

10603 @1 배에 쓸 노를 할 때는 그걸로 하고.{배에 쓸 노를 할 때는 그것으로 하고.}

10603 @1 보통 육찌는.{보통 육지는.}

10603 #1 옐, 옐, 옐날, 옐나래도 여기, 여기서 저 배에 쓰는 거는.{옐, 옐, 옐날, 옐날에도 여기, 여기서 저 배에 쓰는 것은.}

10603 @2 다 그러케.{다 그렇게.}

10603 #1 저, 뽕뽕 사다가.{저, 뽕뽕 사다가.}

10603 @2 예.{예.}

10603 #1 막 두들겨 경 행으네 저, 아주 뽕게 딱커머는 그, 세 줄로 딱커게 뽕민 달치 뽕나십쭈.{막 두들겨서 그렇게 해서 저, 아주 뽕게 딱하면 그, 세 줄로 딱하게 되면 뽕이 뽕었습지요.}

10603 @1 디려그네예?{드려서요?}

10603 #1 게난 이, 이 달쭈허는 거허고 거이 다.{그러니까 이, 이 뽕쭈하는 것하고 거의 다.}

10603 @1 아, ㄴ트다예?{아, 같네요?}

10603 #1 예, 그걸로.{예, 그것으로.}

10603 @1 게난 지금 무티서는 항상 두 주립쭈게. 두 주를 비면 두 사라미 쭈겔.{그러니까 지금 물에서는 항상 두 줄입지요. 두 줄을 꼬면 두 사람이 쭈 그것을.}

10603 @2 어울렁으네.{어우리지게 해서.}

10603 @1 쭈 행 어우.{쭈 해서 어우.}

10603 @2 손까, 소느로 이러케 하면서 가는데.{손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10603 @1 소느로.{손으로.}

10603 #1 게메, 켄디.{그러게, 그런데.}

10603 @2 여기는 도구로?{여기는 도구로?}

10603 #1 예. 보통 전부 다 세 줄 ㄴ십쭈. 세 줄. 집, 지붕 이는 겐또.{예. 보통 전부 다 세 줄 뽕습지요. 세 줄. 집, 지붕 이는 것도.}

10603 @1 아, 바람 때무네?{아, 바람 때문에?}

10603 #1 아, 바라미 켄니까 두 줄 논 거는 뽕.{아, 바람이 켄니까 두 줄 놓은 것은 뽕.}

10603 @1 택또 업썸.{택도 없어.}

10603 #1 어, 잘 찢라저 불지.{어, 잘 찢라저 버리지.}

10603 @2 음.{음.}

10603 #1 세 줄 ㄴ다 쭈 맨 깨월 뽕어 가머는 그거시 사가 부니까.{세 줄 놓아도 쭈 몇 개월 뽕어 가면 그것이 삭아 버리니까.}

10603 @1 직썸 지붕은 맨 년마다?{지금 지붕은 몇 마나다?}

10603 #1 이녀네 혼 번썸 일어십쭈.{이년에 한 번썸 이어습지요.}

10603 @1 아, 일기는 이녀네 한 번?{아, 이기는 이년에 한 번?}

10603 #1 예, 이녀네 흔 번.{예, 이년에 한 번.}

10603 #1 그, 이녀네 흔 번. 또 비 세는 집뜨른 또 일녀네 흔 번씩또 일고.{그, 이년에 한 번. 또 비 세는 집들은 또 일년에 한 번씩도 이고.}

10603 @2 거난 보통은 이녀네 흔 니다예?{그러니까 보통은 이년에 한 번이네요?}

10603 #1 예, 예. 이년에 흔 번.{예, 예. 이년에 한 번.}

10604 @2 게른 지붕 일 때는 재료는 다 저 샌가마씨?{그러면 지붕 일 때는 재료는 다 떠가요?}

10604 #1 전부 다 새.{전부 다 떠.}

10604 @2 어, 지붕은 새.{아, 지붕은 떠.}

10604 @1 게난 그 집쫄도 새로 놔네까?{그러니까 그 집쫄도 떠로 놓습니까?}

10604 #1 새로 놔니다.{떠로 놓습니다.}

10604 @1 각따니 아니고?{각단이 아니고?}

10604 #1 아니, 새로.{아니, 떠로.}

10604 @2 음, 음, 음.{음, 음, 음.}

10605 @2 그러면예, 이 동네는 아까 다 거이 삼간지비라고 헨는데 집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드리 이신가마씨? 마냐게 스간집또 이서나신가마씨, 여기?{그러면요, 이 동네는 아까 다 거의 삼간집이라고 헨는데 집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가요? 만약에 사간집도 있었나요, 여기?}

10605 #1 어, 아버지가 집 썩을 때는 스간썩브로 지어십쥬게.{어, 아버지가 집 썩을 때는 사간집으로 지었습지요.}

10605 @2 음, 음, 음.{음, 음, 음.}

10605 #1 이제도 저기 집, 아버지 지은 지비 여기 댜 체 인는데, 예, 그 아버지가 지을 때는 아주 저.{이제도 저기 집, 아버지 지은 집이 여기 댜 체 있는데, 예, 그 아버지가 지을 때는 아주 저.}

10605 #1 오십년대 이후니까.{오십년대 이후니까.}

10605 @2 예.{예.}

10605 #1 예, 그때는 거이 다 스간집. 스간썩브로. 이 나가 여기 얘기헨 건 헨날 삼간썩비고.{예, 그때는 거의 다 사간집. 사간집으로. 이 내가 여기 얘기한 것은 옛날 삼간집이고.}

10605 @2 음. 그러면 그 스간집 헐쥬 때, 스간집 지언쥬 때 그 집 아네 드러가 인는 거예, 구드리 댜 개 이런 거를 한 번 ㄱ라쥬 보쥬, 그러면?{음. 그러면 그 사간집 했을 때, 사간집 지었을 때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방이 댜 개 이런 것을 한 번 말해쥬 보쥬시오, 그러면?}

10605 #1 양쫄게 예, 서꾸들, 동꾸들, 구들 두 개.{양쫄게 예, 서쫄방, 동쫄방, 방이 두 개.}

10605 @2 예.{예.}

10605 #1 가운데 마루.{가운데 마루.}

10605 @2 음.{음.}

10605 #1 예, 뒤에 한쪽 그 구들 뒤에는 안빵.{예, 뒤에 한쪽 그 방 뒤에는 광.}

10605 @2 음.{음.}

10605 #1 이쪽 저, 한쪽 구들 뒤에는 또 찰빵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 이 음식또 먹꼭, 찰빵에는 그 찰짱도 노록 거기서 음식또 먹고.{이쪽 저, 한쪽 방에 뒤에는 또 찻방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 이 음식도 먹고, 찻방에는 그 찬장도 놓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10605 #1 경 허고 부어게는 또 밥 진꼭.{그렇게 하고 부엌에는 또 밥 짓고.}

10605 @2 음.{음.}

10605 #1 또 서쪽빵 찌조개는 또 굴묵 일썤 가지고 거기 뭐 중시리 이러케 해가지고 닥또 저, 바메 예.{또 서쪽방 저쪽에는 또 굴묵 있어 가지고 거기 뭐 닭둥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닭도 저, 밤에 예.}

10605 @1 올리고.{올리고.}

10605 #1 자게끔 허고. 그런 시그로.{자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10605 @2 음.{음.}

10605 #1 스칸집.{사간집.}

10605 @2 스칸찌븐예, 예.{사간집은요, 예.}

10605 @2 그 다오메 이간집또 여기 이서시카마씨? 이간찌븐 어떤 지블?{그 다음에 이간집도 여기 있었을까요? 이간집은 어떤 집을?}

10605 #1 이간찌븐 찌 이, 아주 찌 이 홀로 된 사람들 거이 저 이, 춤 즈식또 업꼭컨 사람들 보통 두칸집 해가지고 그자 혼자.{이간집은 저 이, 아주 저 이 홀로 된 사람들 거의 저 이, 참 자식도 없는 사람들 보통 두칸집 해가지고 그저 혼자.}

10605 #1 여기 찌, 어디도 이 두칸찌베 허영 살다가 화재 이러나네 도라가신 분도 일쭤마는 그러케 찌.{여기 저, 어디도 이 두칸집에 해서 살다가 화재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저.}

10605 #1 부양혈 짜르미 업는.{부양할 사람이 없는.}

10605 @1 게난 그거시 막싸린가마썸?{그러니까 그것이 막살인가요?}

10605 #1 기영, 겐 막 오막싸리라고 헐찌, 경. 막싸리.{그렇게, 그래서 막 오막살이라고 했지, 그렇게. 막살이.}

10605 @2 게문 그 두칸찌베는 어떠케 어떠케 구조가 돼마씨?{그러면 그 두칸집에는 어떻게 어떻게 구조가 돼요?}

10605 #1 그걸또 찌 이, 돌벼게.{그것도 저 이, 돌벽에.}

10605 @2 예.{예.}

10605 #1 그 흑뜰 허여가지고 아까 시그로.{그 흑돌 해가지고 아까 식으로.}

10605 @2 예.{예.}

10605 #1 그런 거이 다 이제 나무는 거이 업따시피, 서리 그자 대들뽀 그 허는 그 지둥 세우는 거시 그 들뽀 세우는 거 그, 그거 하나 목쩌그로 기둥 세와절찌.{그런 거의 다 이제 나무는 거의 없다시피, 서까래 그저 대들보 그 하는 그 기둥 세우는 것이 그 들보 세우는 거 그, 그거 하나 목적으로 기둥 세워졌지.}

10605 #1 나머지는 뭐 문짝, 또 그 나무 문짝그로 방에 드러가는 걸또 일꼬.{나머지는 뭐 문짝, 또 그 나무 문짝으로 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605 @1 음.{음.}

10605 #1 그 위에 서리 걸칠려고 그 들뽀도 논는데 건 뭐, 상량도 업꼬.{그 위에 서까래 걸치려고 그 들보도 놓는데 그것은 뭐 상량도 없고.}

10605 @2 음.{음.}

10605 #1 그러케 해서 이칸집.{그렇게 해서 이칸집.}

10605 @2 그냥 구들 하나 만드랑으네 이제 그 다으메 정제 만든 거네예?{그냥 방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부엌 만든 거네요?}

10605 #1 예, 예.{예, 예.}

10605 @2 음.{음.}

10605 #1 구들 하나 허곡.{방 하나 하고.}

10605 @1 그럼 아까 이거 사칸, 삼칸집 아니라예?{그럼 아까 이거 사간, 삼간집 아닌가요?}

10605 #1 어.{어.}

10605 @1 그러면 요기 안, 안방이열꼬, 요기 아, 여기 큰구들.{그러면 여기 안, 안방이었고, 요기 아 여기 안방.}

10605 @2 큰구들.{안방.}

10605 @1 안방이열쓰면 요기 신발 번는 디는 뭐라고마썸?{안방이었으면 요기 신발 벗는 데는 뭐라고요?}

10605 #1 난간.{난간.}

10605 @1 난간.{난간.}

10605 #1 난간.{난간.}

10605 @1 요 장항은 어딘고예?{요 장독대는 어딘가요?}

10605 @2 장팡.{장독대.}

10605 #1 장\*은 장팡, 이 저 부어그로 나오게 댜면 이쪼게 장팡.{장\*은 장독대, 이 저 부엌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에 장독대.}

10605 #1 장팡.{장독대.}

10605 @1 여기 뒗, 뒗, 뒗.{여기 뒗, 뒗, 뒗.}

10605 #1 뒗문.{뒗문.}

10605 @1 이건 뒗문네?{이것은 뒗문요?}

10605 #1 예, 뒗문.{예, 뒗문.}



10605 @2 된문 이디 여기는 뭐렌 험니까? 된문 뒤에는?{뒤편 여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뒤편 뒤에는?}

10605 #1 된찌슬.{집 뒤편.}

10605 @2 그냥 된찌슬.{그냥 집 뒤편.}

10605 #1 예.{예.}

10605 @1 그 다음에 울타리는 어떻 험신고예?{그 다음에 울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10605 #1 우짚.{울타리.}

10605 @2 우짚.{울타리.}

10605 @1 건또 그냥 돌로만?{그것도 그냥 돌로만?}

10605 @2 우자슨 뭇로 싸아수과?{울타리는 무엇으로 쌓았습니까?}

10605 #1 우짚또 역씨 여기는 돌. 전부 다 돌로.{울타리도 역시 여기는 돌. 전부 다 돌로.}

10605 @1 게난 이건또 아까 여기 뭇 백뽕롬 허는 시그로 먹뽕, 후, 먹뽕.{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여기 뭇 바람벽 하는 식으로 먹돌, 후, 먹돌.}

10605 #1 아니 그레.{아니 그리로.}

10605 @2 이러케 그냥.{이렇게 그냥.}

10605 #1 큰, 왕돌로만 쌓찌.{큰, 커다란 돌로만 쌓았지.}

10605 @2 음.{음.}

10605 #1 예, 여기도 쌓. 이거 옛날 그대로니까.{예, 여기도 쌓아. 이거 옛날 그대로니까.}

10605 @2 아, 켜 저게 우자시라예? 켜 우짚 말고 우영은 어디 인는 거우짜?{아, 그래서 저게 울타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울타리 말고 터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10605 #1 저, 우영은 집, 집 쭈벼네 인는 겹쭈. 집.{저, 터알은 집, 집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집.}

10605 #1 터가 집터가 널븐 데는 우영이 이선꼬 얹는 데는 또 얹꼬.{터가 집터가 넓은 데는 터알이 있고 없는 데는 또 없고.}

10605 @2 으음.{으음.}

10605 #1 예, 이거 이 널브니까 요 아페 이 집 찌은 데도 다 우영이라나십쭈. {예, 이거 이 넓으니까 요 앞에 이 집 지은 데도 다 터알이었지요.}

10605 @2 예예.{예예.}

10605 #1 켜디 이 창꼬 지으멍 우영이 저쪼게 쪼끄마허게 신 거 인는디 어, 거기는 뭇.{그런데 이 창고 지으면서 터알이 저쪽에 자그마하게 있는 거 있는데 어, 거기는 뭇.}

10605 #1 대죽또.{수수도.}

10605 @1 음.{음.}

10605 @2 음.{음.}

10605 #1 마농 ㄱ튼 거 이제 우자시 \*\* 신경, 브르미 시니까.{마늘 같은 거 이제 올타기 \*\* 심어서, 바람이 있으니까.}

10605 @2 음.{음.}

10605 #1 브름으지베끼 농사가 안 되니까.{바람의지뵤에 농사가 안 되니까.}

10605 @2 그러면 엔나레 지비 일쓰면 안꺼리 일꼬, 그 다음 바\*리?{그러면 옛날에 집이 있으면 안채 있고, 그 다음 바깥채?}

10605 #1 여기 가파도는 안, 안파꺼리가 벨로 멘 쏜데 업선쭈다.{여기 가파도는 안, 안채 바깥채 몇 군데 없었습니다.}

10605 @2 아.{아.}

10605 #1 게난 쩌, 이 소를 키울려고 어, 막싸리 지은 거.{그러니까 저, 이 소를 키우려고 어, 막살이 지은 것.}

10605 @2 음.{음.}

10605 #1 바께. 저 무트가치 안파꺼리 그런 게 잘 어선쭈다.{뵤에. 저 물과 같이 안채 바깥채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10605 @2 아, 여기는네?{아, 여기는요?}

10605 #1 소 키우는 막싸리나 뵤쨌.{소 키우는 막살이나 뵤지.}

10605 @2 소 키우는 막싸리예?{소 키우는 막살이요?}

10605 #1 예.{예.}

10605 @2 게문 그 소 키우는 막싸리에도 혹씨 구들가튼 거 만드랑 사لامي 살거나 이러진 아네수짱?{그러면 그 소 키우는 막살이에도 혹씨 방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이 살거나 이러지는 았았습니까?}

10605 #1 아이, 그러진 안.{아니, 그러진 았.}

10605 @2 그러진 안코예? 이런 건또 쏘 다른 저미다예. 음.{그러지는 았고요? 이런 것도 쏘 다른 점이네요. 음.}

10605 @2 이거 지나가도, 여기도 굴뚝가튼 건또 만드러마쨌?{이거 지나가도, 여기도 굴뚝같은 것도 말들어요?}

10605 #1 아, 굴뚝 만듭쭈게.{아, 굴뚝 만듭지요.}

10605 @2 엔날도 굴뚝?{옛날도 굴뚝?}

10605 #1 예.{예.}

10605 @2 아아.{아아.}

10605 @2 굴뚝근 뵤로 만드러쭈과?{굴뚝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605 #1 아, 건또 영 돌로 싸앙.{아, 그것도 이렇게 돌라 쑤아서.}

10605 @2 으음.{으음.}

10605 #1 저, 이 흙 노퍽, 돌 노퍽 그런 시그로. 이게 저, 이 구들뿔 노케 뵤며는 그 나가는 구멍에다가.{저, 이 흙 놓고, 돌 놓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저, 이 구들뿔 놓게 되면 그 나가는 구멍에다가.}

10605 @2 음.{음.}

10605 #1 이 백백름 그에다가 저, 흐그로 싸앙.{이 바람벽 그것에다가 저, 흙으로 쌓아서.}

10605 @2 음.{음.}

10605 @2 건또 벽 쌓뜨시 허고예?{그것도 벽 쌓듯이 하고요?}

10605 #1 예, 벽 쌓뜨시.{예, 벽 쌓듯이.}

10605 #1 굴뚝 맨드랑.{굴뚝 만들어서.}

10606 @2 그러면 이 가파도 지븐 돌지베 해당 되는 거우파, 흑지베 해당 되는 거우파, 이거는?{그러면 이 가파도 집은 돌집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흙집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0606 @2 옛날 무슨 집 지엄찌 이러케?{옛날 무슨 집 짓고 있다고 이렇게?}

10606 #1 그런 건 구분 아년 거 가튼데, 이거 돌집이여, 돌집.{그런 것은 구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돌집이야, 돌집.}

10606 @2 예.{예.}

10606 @2 돌집. 벽체가 어쨌든 도리니까예? 음, 돌집.{돌집. 벽체가 어쨌든 돌이니까요? 음, 돌집.}

10606 #1 흑뿔찌비영 해. 흑뿔집.{흙돌집이라고 해. 흙돌집.}

10606 #1, @1, @2 (웃음)

10606 @2 어쨌든.{어쨌든.}

10606 #1 혁뿔집 지섬젠 허여. 혁뿔집.{흙돌집 짓고 있다고 해. 흙돌집.}

10606 @2 아, 옛날 혁뿔집?{아, 옛날 흙돌집.}

10606 #1 예.{예.}

10606 @2 으음.{으음.}

10606 #1 혁뿔찌비비렌.{흙돌집이라고.}

10606 @2 혁뿔집.{흙돌집.}

10606 @2 왜냐면 다른 데보다는 이 허기 하영 드러가니까예?{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는 이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10606 #1 예.{예.}

10606 @2 혁뿔집.{흙돌집.}

10606 @2 흐그로만 쓰는 경우는 업꼬, 요즈믄 벽뿔집들도 하영 지엄서예?{흙로만 쓰는 경우는 없고, 요즘은 벽돌집도 많이 짓고 있지요?}

10606 #1 요즈메야 뭐 거 전부 다 기초 세멘, 콩쿠리 헤영으네 부로쿠.{요즘에야 뭐 거 전주 다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블록.}

10606 @2 음.{음.}

10606 #1 부로쿠나 냉가로 이제 썬 집 지엄쭈마는.{블록이나 벽돌로 이제 쌓아서 집 짓고 있지만.}

10606 #1 엔나렌 뭐 무조건 흑커고 돌.{옛날에는 뭐 무조건 흙하고 돌.}

10606 @2 예, 혁뿔집. 만쭈다.{예, 흙돌집. 맞습니다.}

10607 @2 그러면네, 집 찢찢 허머는 그 집 찢을 때 드러가는 연장드리 뭐 이신 고예? 거 한 번 망치부터 시자캥 한 번 다 튼네 봄써?{그러면요, 집 지으려고 하면 그 집 지을 때 들어가는 연장들이 뭐 있을까요? 거 한 번 망치부터 시작해서 한 번 다 생각해 말해 보십시오?}

10607 #1 예, 망치, 끌.{예, 망치, 끌.}

10607 @2 낭 싸젠 허머는 또 피료헌 거?{나무 켜려고 하면 또 필요한 거?}

10607 #1 톱도 일써야 되고.{톱도 있어야 되고.}

10607 @2 돌 깎 때?{돌 깎 때?}

10607 #1 거린장도 일써야 되고.{거린장도 있어야 되고.}

10607 #1 메도 일써야 되고.{메도 있어야 되고.}

10607 @1 또, 먹통.{또, 먹통.}

10607 #1 아, 그런 건또?{아, 그런 것도?}

10607 @2 예. 문딱. 집 찢찢 허믄 전부?{예. 몽땅. 집 지으려고 하면 전부?}

10607 #1 먹, 머게 먹통.{먹, 먹에 먹통.}

10607 @2 예.{예.}

10607 #1 대패도 일써야 뉘 꺼고.{대패도 있어야 뉘 것이고.}

10607 @2 예.{예.}

10607 @1 그 다음 버게 후 빠르젠 허믄 뭐로 헤나쭈광?{그 다음 벽에 후 바르려고 하면 뭐로 했었습니까?}

10607 @1 쉼손? 손?{흠손? 손?}

10607 #1 거기에는 뭐 직접 사람 소느로 헐찌.{거기에는 뭐 직접 사람 손으로 했지.}

10607 @2 엔나른네?{옛날은요?}

10607 #1 예. 거기엔 뭐 연장이 엄는 걸로 아는데.{예. 거기에는 뭐 연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0607 @2 건또 민짜커게 불르젠 허면?{그것도 미끈하게 바르려고 하면?}

10607 #1 아이.{아니.}

10607 @1 구들?{방?}

10607 #1 아, 구들허게 뉘머는 낭손.{아, 방하게 되면 나무손.}

10607 @2 음.{음.}

10607 #1 낭손도 이설쭈.{나무손도 있었지.}

10607 @2 낭손.{나무손.}

10607 @2 강으네 돌 깨영 오랜, 돌 깨젠 헤민 뭐가 피료헤쭈과?{가서 돌 깨서 올라고, 돌 깨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10607 #1 아, 메허고 징허고. 징.{아, 메하고 징하고. 징.}

10607 #1 그 징ㄴ라 여기는 징이엔 허여. 징허고 메.{그 정보고 여기는 ‘징’이라고 해. 징하고 메.}

10607 #1 망치도 큰 망치, 조근 망치.{망치도 큰 망치, 작은 망치.}

10607 @1 세여쁜 안 놔신가마썸? 큰 돌 허젠 허먼?{썰기는 안 났는가요? 큰 돌 하려고 하면?}

10607 #1 아.{아.}

10607 @2 세감?{썰기?}

10607 #1 세, 세감도 해야주. 세감.{썰, 썰기도 해야지. 썰기.}

10607 #1 거 정이 세가미니까.{거 정이 썰기이니까.}

10607 @2 음.{음.}

10607 @1 아, 정을 세가므로 써마썸?{아, 정을 썰기로 써요?}

10607 #1 아, 정, 정도.{아, 정, 정도.}

10607 @2 허젠 허민 세감.{하려고 하면 썰기.}

10607 #1 구멍 뚜르는 정이 일꼬, 세 노는 정이 일꼬.{구멍 뚫는 정이 있고, 새 놓는 정이 있고.}

10607 @1 쪼꼬만헌 거예?{자그마한 것이요?}

10607 #1 거 통트런 정이엿 허는디, 정이엿 허는디.{거 통틀어서 정이라고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데.}

10607 #1 그 사계경으로 모서리 멘든 거는.{그 사각형으로 모서리 만든 것은.}

10607 @2 음.{음.}

10607 #1 그게 구멍 뚫을 때 쓰는 거고. 납작하게 이제 뚫 거는 저, 이 돌 벌를 때.{그것이 구멍 뚫을 때 쓰는 것이고. 납작하게 이제 뚫 것은 저, 이 돌 깎 때.}

10607 @2 음.{음.}

10607 #1 깎 때. 돌 깎 때 이제 쓰는 거.{깎 때. 돌 깎 때 이제 쓰는 것.}

10607 @1 그 고망에 질르는 거예?{그 구멍에 찌르는 것이요?}

10607 #1 예.{예.}

10607 @2 아까 거린장이렌 혜신디 거린장이 뭐마썸?{아까 ‘거린장’이라고 했는데 ‘거린장’이 뭐예요?}

10607 #1 못빼기.{못뽑이.}

10607 #1 못빼기보고 거린장. 한쪼그론 지렌때도 쓰고.{못뽑이보고 ‘거린장’. 한 쪽으로는 지렛대도 쓰고.}

10607 @2 예.{예.}

10607 #1 한쪼그로는 못 빼고.{한쪽으로는 못 뽑고.}

10607 @2 아.{아.}

10607 @1 거 일본말로 빠루라고 하는 건가마썸?{거 일본말로 빠루라고 하는 것 인가요?}

10607 #1 빠로, 빠로.{빠루, 빠루.}

10607 @2 예. 거린장.{예. 배척.}

10607 #1 거린장이엔 험쭈.{배척이라고 합지요.}

10607 @1 겐디 예를 들면 아까 어르신께서 요, 요러케 하면 모슬 빼는 거 아니  
팡예?{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어르신께서 요, 요렇게 하면 못을 빼는 것 아닙니까?}

10607 #1 예.{예.}

10607 @1 영, 영 뒤통기 영 허면 돌 가튼 거 일릴 때 하는 거고예?{이렇게, 이  
렇게 뒤통치 이렇게 하면 돌 같은 거 일으킬 때 하는 것이고요?}

10607 #1 예.{예.}

10607 @1 게난 저조게서 얘기하는 빠루가 거린장이우파?{그러니까 저쪽에서 애  
기하는 ‘빠루’가 배척입니까?}

10607 #1 예, 거린장.{예, 배척.}

10607 @2 이게 거리 일짜나요? 그래서 거린장 건 가따.{이것이 벌려 있잖아요?  
그래서 배척인 것 같다.}

10607 #1 거린장.{배척.}

10607 @1 음. 그러치.{음, 그렇지.}

10607 @2 두 개 이런 긴게예?{두 개 이런 긴게요?}

10607 #1 게난 아버지도 목쭈니까 야, 느 저 거린장 거저오라? 허른 이제 거저  
가나곡 해나서.{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수니까 야, 너 저 노루발장도리 가져와라? 하  
면 이제 가져갔었고 했었어.}

10607 @2 게난 그건또 찰븐 게 이선꼬 긴 건또?{그러니까 그것도 짧은 게 있었  
고 긴 것도?}

10607 #1 예, 자근 거 큰 거 막 여러 가지니까.{예, 작은 거 큰 거 막 여러 가지  
니까.}

10607 @2 톱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 일찌예?{톱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 있  
지요?}

10607 #1 톱또 ㄴ른톱 싣꼬, 기리톱 일꼬.{톱도 가로톱 있고, 세로톱 있고.}

10607 @2 ㄴ른톱?{가로톱?}

10607 #1 예, 거 나무 가로 쌀 때는.{예, 거 나무 가로 켄 때는.}

10607 @2 예.{예.}

10607 #1 ㄴ른톱. 그 톱나리.{가로톱. 그 톱날이.}

10607 @2 예.{예.}

10607 #1 예, 촘초머고 예, 이러케 저, 가린 이 놀 하나 하나마다 가린 거시 쪼금  
널버.{예, 촘촘하고 예, 이렇게 저, 벌린 이 날 하나 하나마다 벌린 것이 조금 넓어.}

10607 @2 예, 한쪼그로만 이러케 똤 건가?{예, 한쪽으로만 이렇게 똤 것인가?}

10607 #1 아, 양쪼그로 이제 가리는데 그, 그 가린 꺾기가 널버.{아, 양쪽으로  
이제 벌어지는데 그, 그 벌린 꺾기가 넓어.}

10607 @2 음음.{음음.}

10607 #1 경 허고 촘촘허고.{그렇게 하고 촘촘하고.}

10607 #1 거, 지리로 싸는 토븐 낭꺼리 지러기로 댜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저 톱나리 굴꼬, 저 널꼬. 그러케 허지.{거, 세로로 켜는 톱은 나뭇결이 세로로 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저 톱날이 굵고, 저 넓고. 그렇게 하지.}

10607 @2 막 큰톱또?{막 큰톱도?}

10607 @1 낭 오릴 때는 두 사르미 허는 거 아니우파?{나무 오릴 때는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10607 #1 그, 그.{그, 그.}

10607 @1 영 댜 겹쭈.{이렇게 된 것입지요.}

10607 #1 예.{예.}

10607 #1 예, 이거?{예, 이거?}

10607 @1 저쪼게선 대톱 그런 건데예. 대톱, 거도.{저쪽에서는 대톱 그런 것인 데요. 대톱, 거도.}

10607 #1 여기도 대토피라 헐쓸 꺼 가테. 대톱.{여기도 대톱이라 했을 것 같아. 대톱.}

10607 @2 거두나 대토피나.{거도나 대톱이나.}

10607 #1 대톱.{대톱.}

10607 @2 음.{음.}

10607 @1 으, 두리가 하는 거예?{으, 둘이가 하는 거요?}

10607 #1 예.{예.}

10607 @1 막 낭 오리는 거?{막 나무 오리는 것?}

10607 #1 큰톱. 큰톱.{큰톱. 큰톱.}

10607 @2 큰톱?{큰톱?}

10607 #1 예, 무조건 큰톱.{예, 무조건 큰톱.}

10607 #1 게연 아버지도 배 진쨌 허민 이거 이 큰토피로만 순 썬지. 양쪼게 상 허고 뒤에 끈 메영 또.{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배 지으려고 하면 이거 이 큰톱으로만 순전히 켜지. 양쪽에 서서 하고 뒤에 끈 매서 또.}

10607 @1 아, 등기기도 허고?{아, 당기기도 하고?}

10607 #1 으, 등기기도 허고.{아, 당기기도 하고.}

10607 @2 이거 큰 거니까.{이거 큰 것니까.}

10607 #1 밀 때는 밀곡 땡길 때만 땡겨주고.{밀 때는 밀고 당길 때만 당겨주고.}

10607 @2 음.{음.}

10607 #1 양쪽 뒤에 사름 상, 끈 메영. 게머는 상당히 쉽게 잘라지지.{양쪽 뒤에 사람 서서, 끈 매서. 그러면 상당히 쉽게 잘라지지.}

10607 @1 게난 여긴 낭도 전부 다 강 무티 강 사와나신가마썸?{그러니까 여기 나무도 전부 다 가서 물에 가서 사왔었는가요?}

10607 #1 전부 다 낭 사와난.{전부 다 나무 사왔었어.}

10607 @2 (웃음)

10607 @1 여기 낭 어시니까?{여기 나무 없으니까.}

10607 #1 예예.{예예.}

10607 #1 땀감도 장작 ㄴ똥 건또 전부 다 사와야니까.{땀감도 장작 같은 것도 전부 다 사와야하니까.}

10608 @2 그 아까 집 명칭, 요거는 그냥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야겄따예?{그 아까 집 명칭, 요것은 그냥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야겠네요?}

10608 @2 자, 지베예, 아까 다 얘기헐찌만 지베 명칭드를 한 번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다 ㄴ라 줍써? 주춧돌, 기둥, 명칭으로 쪽 ㄴ라주면 될 꺼 가테예. 지블 지언 쓸 때. 우리 여긴말로?{자, 집예요, 아까 다 얘기했지만 집에 명칭들을 한 번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다 말해 주십시오? 주춧돌, 기둥, 명칭으로 쪽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었을 때. 우리 여기 말로?}

10608 @2 맨 바, 바다글 다지는 거기를 뭐렌 힘니까?{맨, 바, 바닥을 다지는 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8 #1 주춧돌 노코.{주춧돌 놓고.}

10608 @2 예.{예.}

10608 @1 지둥 세우고.{기둥 세우고.}

10608 #1 지둥.{기둥.}

10608 @2 예.{예.}

10608 #1 예예.{예예.}

10608 @1 포.{보.}

10608 #1 포.{보.}

10608 #1 미테건 우에건 포를 노코. 그 다르문.{밑에든 위에든 보를 놓고. 그 다 음은.}

10608 @2 추녀는 어디우파?{추녀는 어디입니까?}

10608 #1 대들뽀.{대들보.}

10608 @2 음.{음.}

10608 #1 어.{어.}

10608 @1 중포.{중보.}

10608 #1 그 집, 축땀.{그 집 축담.}

10608 #1 바끄로 서리가 나오게 뽀며는 그거시 추녀가 뽀고.{밖으로 서까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추녀가 되고.}

10608 @2 예.{예.}

10608 @2 상ㄴ루는 어디우파?{용마루는 어디입니까?}

10608 #1 상ㄴ루가 그 대들뽀 인는 데가 상ㄴ루. 그 예, 거기가 상ㄴ루.{용마루가 그 대들보 있는 데가 용마루. 그 예, 거기가 용마루.}

10608 @2 으음.{으음.}



10608 @1 게른 서리.{그러면 서까래.}

10608 #1 대들뽀, 서리.{대들보, 서리.}

10608 @2 서시른 어느 거우파?{발비는 어느 겁니까?}

10608 #1 예?{예?}

10608 @2 서실?{발비?}

10608 @2 여기는 서스리엔 험니까?{여기는 서슬이라고 합니까?}

10608 #1 서슬, 서슬.{발비, 발비.}

10608 @2 서스른 뭐마씨?{발비는 뭐예요?}

10608 #1 서리보고 이게 서, 서스리엔 해실 꺼우다, 서슬.{서까래보고 이제 서, 발비라고 했을 겁니까. 발비.}

10608 @2 그 다으메 그 집 이러케 저기, 줄 매면 그 미테 줄 멘 건틀 인찌 아느파예?{그 다음에 그 집 이렇게 저기, 줄 매면 그 밑에 줄 맨 것들 있지 않습니까요?}

10608 @2 거기 나무 이러케 낡으네 뭘 꺼 아니예? 그건 뭐렌 헤마씨?{거기 나무 이렇게 너어서 뭘 것 아니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8 @1 우리쪼게선 거왕허는 거마씨.{우리쪽에서는 평고대하는 거예요?}

10608 #1 거왕, 거왕때.{평고대, 평고대.}

10608 @1 예.{예.}

10608 #1 예, 거왕때.{예, 평고대.}

10608 @2 여기도 거왕때마씨? 그 거왕때는 무슨 낭으로 험니까?{여기도 평고대요? 그 평고대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608 #1 저, 춤때.{저, 참대.}

10608 @2 춤때로?{참대로?}

10608 #1 예.{예.}

10608 @2 으으.{으으.}

10608 #1 왕대.{왕대.}

10608 @2 예, 왕대에. 그 춤때로 헤간꼬 이제하고.{예, 왕대요. 그 참대로 해가지고 이제하고.}

10608 @2 그 다으메 요런 거는 이제 브롬뻥?{그 다음에 요런 것은 이제 바람벽?}

10608 @1 백뻥름.{바람벽.}

10608 #1 백짱?{벽장?}

10608 @2 아, 백뻥름.{아, 바람벽.}

10608 #1 백뻥르미엔 허주. 백뻥름.{바람벽이라고 하지. 바람벽.}

10608 @2 옛날도 여기 백짱 드라신가마씨?{옛날도 여기 벽장 달았는가요?}

10608 #1 백짱이 이서십쭈게. 저 부억 그 슨떡 우에다가.{벽장이 있었습지요. 저 부억 그 붓돌 위에다가.}

10608 @2 예.{예.}

10608 #1 그 방혈 때.{그 방할 때.}

10608 #1 이러케 중간 칸테기 낳으넝에 그 백, 백짱 어느 지베던지 크던 죽던 백짱은 이서쭈다게.{이렇게 중간 외 놓아서 그 벽, 벽장 어느 집이든지 크든 작든 벽장은 있었습니다.}

10608 #2 으음.{으음.}

10608 @1 거기 퀘, 퀘 노는 디예?{거기 퀘, 퀘 놓는 데요?}

10608 #1 퀘, 퀘.{퀘, 퀘.}

10608 #1 씨집갈 쩌게는 퀘 한나씨근 똑 가져간쓰니까 다른 건 모테도.{씨집갈 적에는 퀘 하나씩은 꼭 가져갔으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10608 @2 음.{음.}

10608 #1 게 퀘를 놔야 거 백짱 우이.{그 퀘를 놔야 그 벽장 위에.}

10608 @2 으음.{음.}

10608 #1 백짱 우이.{벽장 위에.}

10607 @2 그 다으메 이제 무늘 달젠 해면 드러가는 이런 용구드리 이서예?{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달려고 하면 들어가는 이런 용구들이 있지요?}

10607 @1 아까 무넙쟁이도 인는 거고.{아까 문설주도 있는 것이고.}

10607 #1 어, 무넙쟁이, 돌쩔귀.{어, 문설주, 돌쩌귀.}

10607 #1 문꼬리.{문고리.}

10607 #1 예, 그러케 헐썰꼬.{예, 그렇게 했었고.}

10607 @1 문찌방.{문지방.}

10607 #1 그 지방이야 처으메 얘기헌 거난 뭘.{그 지방이야 처음에 얘기한 것이니까 뭘.}

10607 @2 음.{음.}

10607 #1 마레나 어디나 지방 어슨 디가 어스네까.{마루나 어디나 지방 없는 데가 없으니까.}

10607 @2 음.{음.}

10607 #1 문찌방.{문지방.}

10607 @2 예.{예.}

10607 #1 문찌방은 문 인는 텐 전부 다 문찌방 놔야 돼고.{문지방은 문 있는 데는 전부 다 문지방 놔야 되고.}

10607 @2 그리고 엔나레 이제 온 까튼 거 걸젠 허면 뭘예 거러신고예?{그리고 옛날에 옷 같은 것 걸려고 하면 뭘에 걸었는가요?}

10607 #1 여기는 주로 퀘 아네 낱찌마는 엔나레는.{여기는 주로 퀘 안에 낱찌만 옛날에는.}

10607 @2 예.{예.}

10607 #1 퀘 아네 낱찌마는 이 저, 이, 온짱 난 지는 오래지 안코.{퀘 안에 낱찌

만 이 저, 이, 옷장 나온 지는 오래지 않고.}

10607 @1 계난 임시 임는 온마씨? 예를 들면 바다에 갇따 와그네.{그러니까 임시 임는 옷요? 예를 들면 바다에 갔다 와서.}

10607 #1 예, 공장이에 거러십쥬게.{예, 못에 걸었습지요.}

10607 @2 계난 공장에 거러네?{그러니까 못에 걸었다고요?}

10607 #1 예, 벽뻥툼 우에 저, 이 나무 해가지고 온꺼리 멘드랑.{예, 바람벽 위에 저, 이 나무 해가지고 옷걸이 만들어서.}

10607 @2 예.{예.}

10607 #1 거기다 거러쥬.{거기다 걸었지.}

10607 @2 그걸 공장이렌 해마씨?{그것을 못이라고 해요?}

10607 #1 예, 공장이.{예, 못.}

10607 @2 공장예?{못요?}

10607 #1 예, 공장이에 거러.{예, 못에 걸었어.}

10607 @2 공장 말고 이러케 나무로 해서 길게 행으네 매다랑 온 걸치거나는 아네수과?{못 말고 이렇게 나무로 해서 길게 해서 매달아서 옷 걸치거나는 안 했습니까?}

10607 #1 그런, 그런 디는.{그런, 그런 데는.}

10607 @2 그런 건 업꼬예? 휘, 쥔때?{그런 것은 없고요? 헛대, 헛대?}

10607 @1 쥔때?{헛대?}

10607 #1 그런 거는 인는 지븐 이션쥔몰라도 잘 몬 뵈서. 하여튼 그냥 문뻥장이에, 저 벽뻥장이에 거러꼬.{그런 것은 있는 집은 있었을지 몰라도 잘 못 봤어. 하여튼 그냥 문고리에, 저 벽의 못에 걸었고.}

10607 @2 음.{음.}

10607 #1 공쟁이 새에 이제 나무 뵈 저 이, 거는 겐또 싣긴 인는, 일쥔는데 거, 멍칭 잘 몰르고.{못 사이에 이제 나무 놓아서 저 이, 거는 겐또 있기는 있는, 있었는데 거 멍칭 잘 몰르고.}

10607 @2 아랍쥔니다.{알았습니다.}

10609 @2 혹씨 집 쥔쥔 허면 맨 처으메 집 쥔끼 저네 제 가튼 거 드리자나예? 제. 그건 무슨 제마씨?{혹시 집 지으려고 하면 맨 처음에 집 짓기 전에 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제. 그건 무슨 제요?}

10609 #1 토신쥔.{토신제.}

10609 @2 토신제는 어떤 형시그로 치러지는지 거 흐끔 ㄱ라쥔 뵈쥔?{토신제는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는지 그것 조금 말해쥔 보세요?}

10609 #1 예, 토신제는 그 날 보메는 그 전날 밤 열두 시, 하이튼 쥔시, 쥔시에 가서 이제 토신제를 지내는다.{예, 토신제는 그 날 보면 그 전날 밤 열두 시, 하여튼 자시, 자시에 가서 이제 토신제를 지내는데.}

10609 #1 거기 드러가는 거는 보통 쥔도가 쥔.{거기 들어가는 것은 보통 쥔도가 쥔.}

10609 @2 음.{음.}

10609 #1 줍쌀, 흰쌀, 줍쌀 또.{줍쌀, 흰쌀, 줍쌀.}

10609 #1 예, 과일로는 배: 예, 밤, 대추.{예, 과일로는 배 예, 밤 대추.}

10609 #1 유자 어, 유자는 꼭 드려가야 되고.{유자 어, 유자는 꼭 들어가야 되고.}

10609 @2 음.{음.}

10609 #1 또 닭 한 마리 드려가야 되고.{또 닭 한 마리 들어가야 되고.}

10609 @1 아, 토신제 할 때마씨?{아, 토신제 할 때요?}

10609 #1 예.{예.}

10609 #1 닭, 닭 드려가야 되고.{닭, 닭 들어가야 되고.}

10609 #1 예, 육포 그런 거?{예, 육포 그런 거?}

10609 @2 음.{음.}

10609 #1 예, 고사리.{예, 고사리.}

10609 @2 음.{음.}

10609 #1 그런 정도.{그런 정도.}

10609 @2 바당 껌로는 뭐 아십니까? 이기 가파돈디.{바다 것으로는 뭐 안 합니까? 여기 가파도인데.}

10609 #1 아, 제숙껌쭈게. 제숙. 제숙또 드려가야.{아, 제육합지요. 제육. 제육도.}

10609 @2 음.{음.}

10609 #1 제숙.{제육.}

10609 @2 게른 바블 아나고 쫄허고, 생쫄로?{그러면 밥을 안 하고 쌀하고, 생쌀로?}

10609 #1 생쫄로만 올립니다.{생쌀로만 올립니다.}

10609 @2 아.{아.}

10609 #1 토신제 할 때.{토신제 할 때.}

10609 @2 토신제는 생쫄로예?{토신제는 생쌀로요?}

10609 #1 예.{예.}

10609 @2 그 득근 아까 암퇘 올립니다까? 장득 올립니다까?{그 닭은 아까 암탉 올립니다까? 수탉 올립니다까?}

10609 #1 장득집쭈. 무주껌 제 때는 장득 올려쭈다.{수탉입지요. 무조건 제 때는 수탉 올렸습니다.}

10609 @2 아.{아.}

10609 @2 상량혈 때도예?{상량할 때도요?}

10609 #1 예.{예.}

10609 @2 게른 그런 시그로 제 허여 갠꼬 이제 제를 지내는 거고.{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 해 가지고 이제 제를 지내는 것이고.}

10609 @2 상량할 때는 어떤 형시그로?{상량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10609 #1 예, 상량할 때는 그 상마루에 그 베를.{예, 상량할 때는 그 용마루에 그 바를.}

10609 @2 예.{예.}

10609 #1 긴 저 베.{긴 저 바.}

10609 @2 음.{음.}

10609 #1 베를 걸쳐 가지고 어, 목쭉가 올라간 다오메 예, 다글 올리고.{바를 걸쳐 가지고 어, 목수가 올라간 다음에 예, 닭을 올리고.}

10609 #1 그 상마루에서 다글 이제 목 청으네 그 다오른 바끄로 어, 내주민 그 바께 인는 사름드리 그, 주어다가 이제 터를 뜯꼬 이러케 해서 쌀마 먹꼬 헛는데. {그 용마루에서 닭을 이제 목 쳐서 그 다음은 밖으로 어, 내주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워다가 이제 털을 뜯고 이렇게 해서 삶아 먹고 했는데.}

10609 @2 음.{음.}

10609 #1 예, 그 그러케 허미는 상량이 끝나는 거.{예, 그 그렇게 하면 상량이 끝나는 거.}

10609 @2 상량할 때 그 닥 던질 때 뭐렌 말 안 ㄴ라마씨?{상량할 때 그 닭 던질 때 뭐라고 말 안 말해요?}

10609 #1 허, 무신, 곤는 겐또 달마신디 거 잘 안 \*.{허, 무슨, 말하는 것도 같았는데 거 잘 안 \*.}

10609 @2 음.{음.}

10609 @1 게문 그 거기서 모글 탁 치면 모가지가 떨어질 꺼 아니라예? 건 거기 무듬네까?{그러면 그 거기서 목을 탁 치면 모가지가 떨어질 것 아닌가요? 그것은 거기 묻습니까?}

10609 #1 닥 머리는 글썤 어떠케 헛는지 모르겐네.{닭 머리는 글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10609 @1 아마 다른 동네.{아마 다른 동네.}

10609 @2 무던, 무던.{문어, 문어.}

10609 @1 강 보니깐 그건.{가서 보니까 그것은.}

10609 @1 어, 머리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고 함띠다게.{어, 머리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고 함디다.}

10609 #1 어.{어.}

10609 @1 그 지비 조켄따 나쁘겐따라고 하기도 하고. 게영 그걸 보통 마루 아래 떨어질 꺼 아니짱? 지금 마리 노키 저니니깐네. 거길 그 자리에 무더버리고예. {그 집이 좋겠다 나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통 마루 아래 떨어질 것 아십니까? 지금 마루 놓기 전이니깐요. 거길 그 자리에 묻어버리고요.}

10609 #1 지방 아페, 예, 문찌방 아페 묻는 거 갇기도 허고. 거 문찌방 아페

문꼬. 나머지 몸뚱이는 그자 저 혈 꺾디 거, 뭐.{문지방 앞에, 예, 문지방 앞에 문는 거 같기도 하고. 거 문지방 앞에 문꼬. 나머지 몸뚱어리는 그저 저 할 것인데 거, 뭐.}

10609 @2 건 목썸로 가져가는 거고예?{그것은 목수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10609 #1 예, 길흉 그거 뭐, 길흉 거 나쁘당 행 거 터.{예, 길흉 그거 뭐, 길흉 거 나쁘다고 해서 거 터.}

10609 @2 (웃음)

10609 #1 치와불 쭈도 얹는 거고 허나네. 머 그냥 문는 방시그로만, 머리만.{치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뭐 그냥 문는 방식으로만, 머리만.}

10609 @1 예, 그러믄 이젠 아까처럼 그게 토신제 하고 다 주춧돌 노코 지블 지은 거 아니우짱예?{예, 그러면 이제는 아까처럼 그게 토신제 하고 다 주춧돌 놓고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10609 #1 예.{예.}

10609 @1 그러면 여기도 성주내려마썰?{그러면 여기도 성주풀이해요?}

10609 #1 예, 성주거시립쭈게.{예, 성주받이하지요.}

10609 @1 건 어떻힘네까?{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0609 #1 거 무당, 심방 비러당 뭐, 하룻밤 이러케 허는데.{거 무격, 무격 빌려다가 뭐 하룻밤 이렇게 하는데.}

10609 #1 그 심, 심방 이러케 허는 거 허며는 할망덜 저 옛말 그 자청비 그, 그 혈 쪼게는 자청비 이 얘기도 허는지 몰라도 할망들 쯔청비 말 드르레 가게 허멍 허난.{그 무, 무격 이렇게 하는 거 하면 할머니들 저 옛말 그 자청비 그, 그 할 적에는 자청비 이 얘기도 하는지 몰라도 할머니들 자청비 말 들으러 가자 하면서 하니까.}

10609 @1 아.{아.}

10609 #1 영 허멍으네 동네 할망들 이제 강으네 그 굳털 때는 밤새도록 그거 그 말 듣고 허는 거 받는다.{이렇게 하면서 동네 할머니들 이제 가서 그 곳할 때는 밤새도록 그거 그 말 듣고 하는 것 봤는데.}

10609 @1 게, 인정도 걸고예?{게, 인정도 걸고요?}

10609 #1 예, 그, 그 목썸:가, 이제 그 집 쪼은 목썸가 그, 그 집, 그 성주혈 쪼게는 도끼로.{예, 그, 그 목수가, 이제 그 집 지은 목수가 그, 그 집, 그 성주받이하할 때는 도끼로.}

10609 @2 음.{음.}

10609 #1 심방 말명이 혈 쪼게는 매 도리마다 이제 도끼로 탁 경 찍지.{무격 말명 할 적에는 매 도리마다 이제 도끼로 탁 그렇게 찍지.}

10609 @2 음.{음.}

10609 #1 뭐, 뭐, 무너질 쟁도는 아니지마는 그 도친, 도깁나리 이제 드러갈 쟁도로, 이제 금날 쟁도로.{뭐, 뭐, 무너질 쟁도는 아니지만 그 도끼는, 도깁날이 이제

들어갈 정도로, 이제 금날 정도로.}

10609 @2 그니까 이 지비 단단하게 지어졌다는 거를 이 증명해 보이는 거네  
예?{그러니까 이 집이 단단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이 증명해 보이는 것이네요?}

10609 #1 계란 뭐 귀신도 쫓는 행시기고.{그러니까 뭐 귀신도 쫓는 형식이고.}

10609 @2 음.{음.}

10609 #1 어, 그런 행시그로 해서 그 헐 찌게는, (웃음) 예, 성주거시리기.{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할 적에는, {웃음} 예, 성주받이.}

10609 @2 음. 성주거시리기.{음. 성주받이.}

##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11 @1 그 다음에 조왕은 어떻 해신고예?{그 다음에 조왕은 어떻게 했는가  
요?}

10611 #1 성주를 거슬릴 때 조왕 위에 다시, 따로 메 해가지고 따로 올려십쥬  
게.{성주받이할 때 조왕 위에 다시, 따로 메 해가지고 따로 올렸습지요.}

10611 @1 그 다음 문전도 허는 건가마씨?{그 다음 문전제도 하는 것인가요?}

10611 #1 예, 뭐 성주거실릴 쟈는 뭐, 뭐 문저는 물론이고 조왕에 첫째 조왕에  
잘 뭐 돼지. 동티 마니 난다고 해영.{예, 성주받이할 때는 뭐, 뭐 문전은 물론이고  
조왕에 첫째 조왕에 잘 뭐 되지. 동티 많이 난다고 해서.}

10611 #1 예, 조왕. 조왕신을 마니 위헌.{예, 조왕. 조왕신을 많이 위해서.}

10611 @1 혹시 여기서 뭐 배도 부리고 헐썸쓰니깐 뭐, 선왕을 모신다거나 아님  
니까? \* 지베서?{혹시 여기서 뭐 배도 부리고 했었으니까 뭐 선왕을 모신다거나 안  
합니까? \* 집에서?}

10611 #1 지베서 모시는 게 아니고 저.{집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저.}

10611 @1 배에.{배에.}

10611 #1 배에 허며는 배에 가서 직썸 건또 심방 비리다가 예, 배에 가서 코스  
를 허고.{배에 하면 배에 가서 직썸 그것도 무격 빌려다가 예, 배에 가서 고사를 하  
고.}

10611 #1 또 코스허게 돼민 또 동네분들 다 전부 다 부주도 해 주고. 그러고 그  
허길 찌게는 여기 할망당에 예, 강 코스를 허고 어, 그 다음 그 배에 코스를 해십  
쥬.{또 고사하게 되면 또 동네분들 다 전부 다 부조도 해 주고. 그러고 그 할 적에  
는 여기 할망당에 예, 가서 고사를 하고 어, 그 다음 그 배에 고사를 했습지요.}

10611 @2 아, 먼저 할망당에 먼저?{아, 먼저 할망당에 먼저?}

10611 #1 할망당에 우선 가와야 그 다음 제를 예, 코스를 지내십쥬.{할망당에  
우선 다녀와야 그 다음 제를 예, 고사를 지냈습지요.}

10612 @2 그 할망당 말고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전통저그로 모시는 뭐 조  
상시니라든가, 그런 거는 이서마썸?{그 할망당 말고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전통

적으로 모시는 뭐 조상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요?}

10612 #1 조상신 그런 거는 업꼬.{조상신 그런 것은 없고.}

10612 #1 여기 부라게서 허는 리포제 뭐, 그 정도바께.{여기 마을에서 하는 이포제 뭐, 그 정도밖에.}

10612 @2 포제예?{포제요?}

10612 #1 예.{예.}

10612 @2 그러면 포제하고예, 아까 할망당하고는 어떤 형시그로 차이가 나는 거우꽈?{그러면 포제하고요, 아까 할망당하고는 어떤 형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10612 #1 어, 포제는 예, (기침) 일러네 혼 번 허는 거고. 할망당에는 수시로 초하루 보름, 이러케 저 대허는 사름더른 초하루 보름 다 다닙니다게.{어, 포제는 예, (기침) 일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할망당에는 수시로 초하루 보름, 이렇게 저 대하는 사람들은 초하루 보름 다 다닙니다.}

10612 @2 음.{음.}

10612 #1 예, 경 허고.{예, 그렇게 하고.}

10612 #1 객찌예 인는 이 배 부리는 사르미 또 객찌예 아이들 가게 댜면 또 할망당예 강 어, 할망당예는 거이 수시로.{객지에 있는 이 배 부리는 사람이 또 객지에 아이들 가게 댜면 또 할망당에 가서 어, 할망당예는 거의 수시로.}

10612 @2 수시로.{수시로.}

10612 #1 어, 리포, 리포제는 거 일러네 한 번씩 허는 거고.{어, 리포, 리포제는 거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10612 @2 여기서 가는 할망당 이르른 뭐마썸? 거긴 무슨?{여기서 가는 할망당 이름은 뭐예요? 거기는 무슨?}

10612 #1 그냥 뭐 다른 이르른 업꼬 그냥 할망땅바께.{그냥 뭐 다른 이름은 없고 그냥 할망당밖에.}

10612 @2 아.{아.}

10612 #1 할망땅.{할망당.}

10612 #1 여기 인는 게 큰할망이고, 저 하동 인는 게 조근할망이고.{여기 있는 것이 큰할망이고, 저 하동 있는 것이 작은할망이고.}

10612 @1 가지 갈라 강 거니깐.{가지 갈라서 간 것이니까.}

10612 #1 예.{예.}

10612 @2 음.{음.}

### 1.6.3. 금기 생활

10614 @2 이 일러네예, 뭘뭘 허지 말라 하는 거 이서예? 뭘, 뭘 정초예 바느질 허지 말라라든가, 바당 갈 때 뭘 허지 말라라든가, 집 지슬 때 뭘 허지 말라라든가



예, 그런 금기 사항 가튼 경우예?{이 일년예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지요? 뭐, 뭐 정초에 바느질 하지 말라라든가, 바다 갈 때 뭐 하지 말라라든가, 집 지을 때 뭐 하지 말라라든가요, 그런 금기 사항 같은 경우예?}

10614 @2 이 비양도에서 금기 사항은 어떤 건뜨리 이신고예?{이 비양도에서 금기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0614 #1 비양도가 아니고 여긴 가파도.{비양도가 아니고 여긴 가파도.}

10614 @2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10614 @1, @2, #1 (웃음)

10614 #1 가파도 금기 사항은 예, (기침) 썰쩔드는날.{가파도 금기 사항은 예, (기침) 입춘.}

10614 @2 예.{예.}

10614 #1 그날 저 이, 나미 집 추립 삼가하고, 그 웨에는 뭐 벨로.{그날 저 이, 남의 집 출입 삼가고, 그 외에는 뭐 별로.}

10614 @1 영등할망 드러올 때 뭐 허지 말렌 험니까?{영등할망 들어올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10614 #1 영등할망.{영등할망.}

10614 @2 영등에.{영등에.}

10614 #1 영등할망 드러올 때도 뭐 별로.{영등할망 들어올 때도 뭐 별로.}

10614 @2 빨래허지 말렌.{빨래하지 말라고.}

10614 @1 우리 동네선 빨래허지 말렌, 빨래허지 말렌 험쥬게.{우리 동네에서는 빨래하지 말라고, 빨래하지 말라고 합지요.}

10614 #1 엔나레는 그렌는지 몰르젠는데요.{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10614 @1 왜냐른?{왜냐면?}

10614 #1 브롬 분당 헤영으네, 예.{바람 분다고 해서, 예.}

10614 #1 소리 내영 그 빨레도 저 이, 마께질 허지 말랑 허여.{소리 내서 그 빨레도 저 이, 방망이질 하지 말라고 해.}

10614 @1 아.{아.}

10614 @2 음.{음.}

10614 #1 음.{음.}

10614 #1 마께질 허게 돼민 서답힐 때 크게 마께질 허미는 브롬 분당 행으네 저 이 \* 마께질 아넝 그냥 손빨레 가튼 건 헐쓸 꺼우다.{방망이질 하게 되면 빨래할 때 크게 방망이질 하면 바람 분다고 해서 저 이 \* 방망이질 안 해서 그냥 손빨레 같은 것은 했을 겁니다.}

10614 @2 아, 영등에예?{아, 영등에요?}

10614 #1 예.{예.}

10614 @2 아.{아.}

10614 @2 그 다으메 삼춘 배를 마니 부렐썰쓰니까 배도 마냐게 고기자비 갈 때

안 가는 나리 일찌 아느파?{그 다음에 삼촌 배를 많이 부렸었으니까 배도 만약에 고기잡이 갈 때 안 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10614 @2 어떤 때 가지 말라허는 거? 그런 금기 사항도 일쓸 꺼 가튼데.{어떤 때 가지 마라하는 거? 그런 금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10614 #1 그런 거 어쭈다.{그런 것 없습니다.}

10614 @2 배에서 쥐 느리른 배가 안 뜬다거나?{배에서 쥐 내리면 배가 안 뜬다거나?}

10614 #1 배에서 쥐 느리. 아이, 여긴 그런 거. 배에서 쥐가 내려도 바당엔 감니다마는.{배에서 쥐 내리. 아니, 여기는 그런 거. 배에서 쥐가 내려도 바다에는 감니다만.}

10614 #1 그, 바당에 예, 배에서 쥐 느리른 쥐가 선앙이엿 행으네 저 이, 배에 고양이나 개 가튼 건 실치 아늑쭈. 그런 거 인꼬.{그, 바다에 예, 배에서 쥐 내리면 쥐가 선앙이라고 해서 저 이, 배에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은 실지 안 하지요. 그런 것 있고.}

10614 @2 음, 아라쭈다.{음, 알았습니다.}

10615 @2 그 다음에 이제 썬쩔 드는 나른 남자는 나미 지베 가도 댜예? 여자만 못 가는 거 아니우파?{그 다음에 이제 입춘날 남자는 남의 집에 가도 댜죠? 여자만 못 가는 것 아닙니까?}

10615 #1 아, 거이 남자도 삼가힘니다게.{아, 거의 남자도 삼갑니다.}

10615 @2 음.{음.}

10615 #1 여자더른 필히 안 거주마는 남자덜토 특빠리 볼 릴 어쓰며는 일부러 가진 아네마썸.{여자들은 필히 안 가지만 남자들도 특별히 볼 일 없으면 일부러 가지는 안 해요.}

10615 @2 음. 썬쩔 드는 나른네?{음. 입춘에는요?}

10615 #1 예.{예.}

10615 @2 그 여자 삼촌 가튼 경우에 물질 가는데 안 가는 나리 일찌 아느파예? 물질 가도 댜는 나린데 안 가는 날. 어떨 때 물질 안 감니까?{그 여자 삼촌 같은 경우에 물질 가는데 안 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요? 물질 가도 되는 날인데 안 가는 날. 어떨 때 물질 안 감니까?}

10615 @2 뭐 꾸물 잘못 쾰꺼나 이런 건또 이션꼬.{뭐 꿈을 잘못 쾰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10615 #1 아이, 그런 거 어쭈다게.{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10615 #1 쯔 이, 꿈 나빠도 간따 왕으네 언치낙 꿈 조치 아너라 해도 뭐 간따 와도 무슨 댜.{저 이, 꿈 나빠도 갔다 와서 어젯밤 꿈 좋지 안 해라 해도 뭐 갔다 와도 무슨 댜.}

10615 @2 (웃음)

10615 #1 하루 안 가오민 또 그만 큼.{하루 안 다녀오면 또 그만 큼.}

10615 #1 가정이 어려우니까.{가정이 어려우니까.}

10615 @2 음.{음.}

10615 #1 이 해너드론 보통 보며는 자기 목쭈를 아까워허질 아녀마썸.{이 해너들은 보통 보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10615 #1 무조건 가서 버려야지 허는.{무조건 가서 벌어야지 하는.}

10615 @2 음.{음.}

10615 @2 트키 이 서메서는 더 그럴 꺼 가테예?{특히 이 섬에서는 더 그럴 것 같네요?}

10616 @2 혼사하고 팔련된 금기 사항도 이시카마씨?{혼사하고 팔련된 금기 사항도 있을까요?}

10616 #1 혼사 때는 이 장사치베 제사 때라도 역시 혼 사밧 정도. 사밧 안에 들며는 장사치베 안 가는 게 지금까지도.{혼사 때는 이 상갓집에 제사 때라도 역시 한 삼일 정도. 삼일 안에 들면 상갓집에 안 가는 게 지금까지도.}

10616 #1 그러케.{그렇게.}

10616 @2 그리고 날 바드면 노미 잔치도 안 멩는텐 허멍예?{그리고 날 받으면 남의 잔치도 안 먹는다고 하면서요?}

10616 #1 예, 그러니까 날 바드며는, 나미 잔치, 잔치찌베는 가는데: 이 초상치베만 안 가는 거.{예, 그러니까 날 받으면, 남의 잔치, 잔치집에는 가는데 이 상갓집에만 안 가는 거.}

10617 @2 그 다오메 장례허고 팔련뒀어 인는네, 이런 초상 낳을 때와 팔련뒀어 인는 금기 사항도 신카마썸?{그 다음에 장례하고 팔련되어 있는요, 이런 초상 낳을 때와 팔련되어 있는 금기 사항도 있을까요?}

10617 #1 장례 때?{장례 때?}

10617 @2 예.{예.}

10617 @1 계난 우리 엔나린 경우는 어, 관 위로 고녕이 너머가게 허지 말라라든가, 고녕이 창뽀 터지게 허지 말라라든가 경 허지 아눔니까?{그러니까 우리 옛날인 경우는 어, 관 위로 고양이 넘어가게 하지 말라라든가, 고양이 창구멍 터지게 하지 말라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617 #1 엔나렌 여긴 고녕이 ㄴ튼 거 잘 어서노난 건 뭘, 그런 거 (웃음) 관심 안 뒀실 켜우다게.{옛날에는 여기는 고양이 같은 거 잘 없어놓으니까 그것은 뭘, 그런 거 (웃음) 관심 안 뒀을 겁니다.}

10617 @1 계난 여기서도 예를 들면 입판혈 때라든가 하판혈 때에 어, 소피?{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면 입판혈 때라든가 하판혈 때에 어, 소피?}

10617 #1 아, 소피, 예.{아, 소피, 예.}

10617 @1 건 다예?{그것은 다요?}

10617 #1 예. 거 소피는 그 나리 자일이미는 오일, 오일. 오시생. 오생. 몰떠더른 저, 이 소피를 해야주게.{예. 거 소피는 그 날이 자일이면 오일, 오일, 오시생. 오생.}

말띠들은 저, 이 소피를 해야지.}

10617 #1 계난.{그러니까.}

10617 @1 계난 거 태길끼에 다 나오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거 택일기에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10617 #1 예, 태길끼에 나오고 그거는.{예, 택일기에 나오고 그것은.}

10617 #1 열두 가지 아이우짱? 자추기묘가.{열두 가지 아납니까? 자축인묘가.}

10617 @1 예.{예.}

10617 #1 건디 자이레는 오, 저, 몰띠생 오. 자에 방이 반대 방향이 오니까.{그런데 자일에는 오, 저, 말띠생 오. 자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오니까.}

10617 @1 음, 예예.{음, 예예.}

10617 #1 예.{예.}

10617 #1 묘방이 유, 묘방, 묘나리미는 유시생드리 뭐 독띠드리 저, 소피해야 되고. 계난 그 방향이 딱 나와 인는 거니까 건.{묘방이 유, 묘방, 묘날이면 유시생들이 뭐 닭띠들이 저, 소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 딱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10617 @1 건 공시기, 공시기 인는.{그것은 공식이, 공식이 있는.}

10617 #1 예, 공시기 인는 거니까 그 (기침) 딱 반대 방향에 인는 그 띠드른 어, 소피해야주.{예, 공식이 있는 것이니까 그 (기침) 딱 반대 방향에 있는 그 띠들은 어, 소피해야지.}

10617 @1 예.{예.}

10617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617 @1 예, 고맙습니다.{예. 고맙습니다.}

## <Abstract>

# A Report on the Transcription of Jeju-do Dialect, 2013

It is the result of the Jeju local language transcription project in 2013. The total recording is seven hours and fifteen minutes long and it is transferred to text. The table below is details.

Year	Location	Length	Contents	Note
2009	Saekdal, Jungmun	2 hours and 6 minutes	Diseases and home remedies Gathering medicine herbs Seasonal custom	
2010	Goenip, Jeju	3 hours and 24 minutes	Marriage process Traditional weddings Marriage life 60th birthday anniversary Funeral process Ancestral rites	
2011	Gapa, Daejeong	1 hours and 45 minutes	Building a house Ancestor worship Taboo Dietary life	

The transcription of Jeju local language is vivid because of the real conversations. It contains diseases and home remedies, gathering medicine herbs, seasonal custom, traditional weddings and funerals, building a house, ancestor worship, taboo, and dietary life.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a lifestyle in Jeju island.

**Keywords:** Jeju, Local language, Transcription, Talk, Seasonal custom,  
Home remedies, Ancestor worship

**Project Director:** Kang Young-bong(Jeju University)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위원회

◆ 위원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 위 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 위 원	곽충구 (서강대학교)
◆ 위 원	김무식 (경성대학교)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위 원	김정대 (경남대학교)
◆ 위 원	박경래 (세명대학교)
◆ 위 원	소강춘 (전주대학교)
◆ 위 원	최명옥 (전 서울대학교)
◆ 위 원	한영목 (충남대학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3년 11월 19일

발행일: 2013년 11월 21일

인 쇄: 서석문화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3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